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2017. 9.15. ㉮ 9:00~17:45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 한국심리학회 ·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가나다 순)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 교육부

모 시 는 글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에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청소년 중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한국의 청소년들입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시리즈를 총 3년간 수행했고, 2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시리즈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중단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로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그리고 한국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학문적 가치와 영향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가 많은 훌륭한 연구자분들과 학회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가 다문화청소년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이종원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유성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모경환
한국사회학회 박명규	한국심리학회 김재휘
한국아동학회 박경자	한국조사연구학회 김병조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조아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채철균
한국청소년학회 이장현	(가나다 순)

프로그램

● 등록 9:00 ~ 9:30

● Session 1 / 9:30 ~ 11:30

제 1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

▶ 사회 : 정혜원(충남대학교)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준범(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 발표 : 박명희(경북대학교)
 - 토론 : 김태선(송실대학교)
- 3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 발표 : 윤지영(대한상공회의소), 허은정(한국교육개발원)
 - 토론 : 김혜지(한국교육개발원)

제 2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I

▶ 사회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 발표 : 박용한(충남대학교), 이신동(순천향대학교)
 - 토론 : 이우걸(한국교원대학교)
- 2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 발표 : 임선아(전북대학교)
 - 토론 : 김광혁(전주대학교)
- 3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
 - 발표 : 유봉애(광주대학교), 옥경희(광주대학교)
 - 토론 : 유현실(단국대학교)
- 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 발표 : 정민아(명지전문대학), 김은혜(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토론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3 주제 부모자녀관계

▶ 사회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발표 : 박애스더(단국대학교), 김두영(단국대학교)
 - 토론 : 정문성(경인교육대학교)
- 2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조옥선(한세대학교), 방해순(한세대학교)
 - 토론 : 정명희(중원대학교)
- 3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 발표 : 홍나미(수원과학대학교), 박현정(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은선경(KC대학교)
-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의 종단적 관계
 - 발표 : 인효연(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토론 : 이자명(명지대학교)

● Session 2 / 13:30 ~ 15:30

제 4 주제 심리사회적응 I

▶ 사회 : 김종백(홍익대학교)

-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 발표 : 김우진(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심태은(동국대학교), 정지아(동국대학교), 이승이(동국대학교)
 - 토론 : 부향숙(한양대학교)
-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 최현주(울산대학교), 하영진(울산대학교)
 - 토론 : 박준성(중앙대학교)
-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 발표 : 박혜숙(호남대학교), 양상희(광주보건대학교)
 - 토론 : 신인수(전주대학교)
- 4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 발표 : 장주리(Gesellschaft für Sozialarbeit)
 - 토론 :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제 5 주제 심리사회적응 II

▶ 사회 : 하정희(한양대학교)

- 1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 발표 : 김원영(경북대학교), 김경식(경북대학교)
 - 토론 : 홍성두(서울교육대학교)
-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 발표 : 이응택(명지대학교), 이은경(명지대학교)
 - 토론 : 오승근(명지전문대학)
- 3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 발표 : 서봉언(경북대학교)
 - 토론 : 박상은(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 발표 : 한애경(충북여성재단),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정아(충북대학교)
 - 토론 :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제 6 주제 진로 및 지원정책

▶ 사회 : 손은령(충남대학교)

- 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 발표 : 오정아(충북대학교), 한애경(충북여성재단)
 - 토론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발표 : 김지연(계명대학교)
 - 토론 : 안진아(인하대학교)
-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 발표 : 김양희(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대상 · 내용 · 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 발표 : 김기영(한양대학교), 고은선(동국대학교)
 - 토론 : 이승미(한양대학교)

● Session 3 / 15:45~17:45

제 7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

▶ 사회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표 : 이희정(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최유정(이화여자대학교)
-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과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 요인의 구조관계
 - 발표 : 이소연(숙명여자대학교)
 - 토론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 ·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발표 : 이영주(명지대학교), 박륜경(명지대학교), 이수경(성결대학교)
 - 토론 :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8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I

▶ 사회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발표 : 백종규(창신대학교), 염동문(창신대학교)
 - 토론 : 강정희(동아대학교)
- 2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 발표 : 김민주(이화여자대학교), 윤기봉(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김수지(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
- 3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 정서 ·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김남희(충남대학교)
 - 토론 : 신태섭(이화여자대학교)

제 9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 사회 : 김정근(고려대학교)

1 【최우수상】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정호용(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 【우수상】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 발표 : 봉초운(고려대학교), 정윤희(고려대학교)

3 【우수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 · 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 발표 : 백승희(충남대학교), 박소영(충남대학교)

목 차

제 1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
 • 김준범(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27
 • 박명희(경북대학교)
3.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50
 • 윤지영(대한상공회의소), 허은정(한국교육개발원)

제 2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I

1.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69
 • 박용한(충남대학교), 이신동(순천향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86
 • 임선아(전북대학교)
3.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 96
 • 유봉애(광주대학교), 옥경희(광주대학교)
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112
 • 정민아(명지전문대학), 김은혜(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 3 주제 부모자녀관계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29
 • 박애스더(단국대학교), 김두영(단국대학교)
2.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44
 • 조옥선(한세대학교), 방해순(한세대학교)
3.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158
 • 홍나미(수원과학대학교), 박현정(이화여자대학교)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175
• 인효연(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 4 주제 심리사회적응 I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195
• 김우진(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심태은(동국대학교), 정지아(동국대학교), 이송이(동국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222
• 최현주(울산대학교), 하영진(울산대학교)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255
• 박혜숙(호남대학교), 양상희(광주보건대학교)	
4.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269
• 장주리(Gesellschaft für Sozialarbeit)	

제 5 주제 심리사회적응 II

1.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297
• 김원영(경북대학교), 김경식(경북대학교)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314
• 이응택(명지대학교), 이은경(명지대학교)	
3.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329
• 서봉언(경북대학교)	
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345
• 한애경(충북여성재단),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정아(충북대학교)	

제 6 주제 진로 및 지원정책

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363
 • 오정아(충북대학교), 한애경(충북여성재단)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388
 • 김지연(계명대학교)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403
 • 김양희(이화여자대학교)
4.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 · 내용 · 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 419
 • 김기영(한양대학교), 고은선(동국대학교)

제 7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437
 • 이희정(이화여자대학교)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계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458
 • 이소연(숙명여자대학교)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 ·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480
 • 이영주(명지대학교), 박륜경(명지대학교), 이수경(성결대학교)

제 8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I

1.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503
 • 백종규(창신대학교), 염동문(창신대학교)
2.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517
 • 김민주(이화여자대학교), 윤기봉(이화여자대학교)
3.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531
 • 김남희(충남대학교)

제 9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1. 【최우수상】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555
 • 정호용(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 【우수상】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584
 • 봉초운(고려대학교), 정윤화(고려대학교)
3. 【우수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609
 • 백승희(충남대학교), 박소영(충남대학교)



제 ①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3.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준범* · 박성훈**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 관점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MCAPS) 데이터 5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녀 1,300명 및 그들의 어머니 1,3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값은 1차년도 학교부적응(주로 학습부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학습부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변화는 5차년도 학습부적응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의 효과가 횡단적 측면에서는 물론 종단적 측면에서도 누적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학교부적응, 자아탄력성, 잠재성장모형

I. 서론

인종간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 도처에 존재한다. 비교적 현대에까지 잔존하던 단일민족 신화는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으로 자리 잡아 인종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즉, 과거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총체적 계도가 필요한 열등한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의 우월함을 반증하고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여성과 그 자녀에게 오리엔탈리즘을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16)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은 40.7%로서 10명 중 4명 이상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된 차별감은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울을 위시한 부정적 심리기제의 유발 기제가 되며(Wong, Eccles & Sameroff, 2003), 가정체계에서 부정적 역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사회복지학 석사, woolalra@naver.co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ngokr0102@kic.re.kr

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정서에까지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s)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민자는 타국의 ‘문화수용(acculturation)’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며 필연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가 좋은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역설(paradox)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Rudmin, 2008), 그들의 심리지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심리지표는 특히 개인의 효능감을 떨어뜨려 자녀 양육에 관련된 일련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조직 및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인 양육효능감 감소로 발현된다(Bandura, 1997).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와의 역동을 통해 부정적인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현상을 일으켜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내적 요인은 특히나 학교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한국계 아버지와 외국계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부적응 하는 이유로서 ‘부모관심이나 경제적 지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0.5%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0.0%) 및 외국계부모(5.5%)를 둔 다문화가정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 내의 부정적 요인으로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을 공산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부적응은 학교체계에서 학업성취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면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으로서 설명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도 누군가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반면, 누군가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쉽게 적응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적 상황에서의 회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심리적 변인이 바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다(Klohn, 1996). 이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부정적 심리결과와 하나로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사회적응력이 약해짐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학교부적응이 커질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로 한정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경제활동 주체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은 탓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의 학교부적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가?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 변화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발견되는가? 셋째,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모든 인간에게 문화적응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문화는 음식, 옷과 같은 가시적 인공물(visible artifacts), 사회의 법규 및 규율에 근거한 행동양식(visible behaviors), 그리고 사회를 관통하는 근본적 태도, 믿음 및 가치(fundamental attitudes, beliefs and values)를 포괄하여(Rudmin, 2009), 인간이 접촉하는 모든 체계에 스며있다는(pervasive)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Spencer, 1995). 따라서 인간은 입학, 취직, 결혼 등과 같은 생애사건을 경험하며 다양한 역할 기대를 받고 이에 따른 역할 수행함에 따라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과 대면하며 생애과정으로서 출생 시부터 ‘문화적응(enculturation)’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사회에서 기대하는 방식, 즉 특정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양식에 부합하는 일련의 사고방식과 인간본성에 근거한 원초아적 사고 사이의 괴리로 인해 역할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타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이질적인 타국의 ‘문화수용(acculturation)’이라는 과업수행에 따른 어려움, 즉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Berry(2002)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유형을 모국 문화 유지여부와 새로운 문화 수용 여부에 따른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중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새로운 문화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이 이민자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식이며, 모국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의 방식을 통해서도 문화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배적인 사회에서 다문화 지향성(multicultural orientation)이 있는 경우를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Berry, 2006: 20).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주국의 주류적 문화의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지표가 충분히 성숙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통합적 방식에 근거한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두 문화 주의(biculturalism)’가 가장 이상적인 적응의 형태라고 제안하고 있다(Berry, 2006; Birman, 1998; Berry & Sam, 1997). 이러한 동화 혹은 두 문화 주의와 같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것은 신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를 수반함에 따라(Berry, 2003), 이민자는 차별, 소외, 고립 등의 문제에 따른 부정적 심리정서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 여성이 좋은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역설(paradox)’, ‘반직관적(counter-intuitive)’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Rudmin, 2009), 그들의 스트레스를 위시한 각종 심리지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형원, 2010; Hovey & Magana, 2002; Williams & Berry, 1991). 역할기대는 역할갈등을 초래하여 연쇄적인 부정적 심리지표로 발현된다. Bandura(1997)는 이러한 부정적 심리지표는 특히 개인의 효능감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차원에서는 양육효능감 감소로 발현된다. 실제로 2016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응답결과 ‘외로움’이 33.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23.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보다 증가한 추세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체화되어 자녀에게 부정적 파급효과를 수반하는데(Eamon, 2005), 이는 양육효능감으로 구체화된다.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PSE)이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일련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조직 및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나 신념으로서, 어머니로서의 능력(maternal competence)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Williams et al., 1987)). 부모-자녀 역동에 따른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인지 및 심리사회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식기관에서의 적응력 및 회복력 배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지영, 2012; Coleman & Karraker, 1998; Seifer et al., 1992; Furstenberg, Brooks-Gunn & Morgan, 1987).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게 강압, 통제에 기반을 둔 독재적(authoritarian)인 양육이 아니라, 원칙, 일관성, 그리고 자율성에 기반을 둔 권위적(authoritative)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나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장 및 체계에의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이다(Baumrind, 2005, 1991; Holmbeck, Paikoff & Brooks, 1995). 하지만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Ochocka & Janze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스스로도 이민국에 적응을 해야 하는 과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Levine, 1980). 그 이유는 양육이란 가정 내에서 고립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짐에 기인한다(Bornstein, Putnick & Lansford, 2011).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역의 관계(이지영, 2012; Coleman & Karraker, 1997; Bandura, 1997)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역동 및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외국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역동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는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Turner, Chandler & Heffer, 2009; Mau, 1997; Strage & Brandt, 1991). 여기엔 부모의 학력 수준, 감독 및 지지,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모가 자신들이 얼마나 자식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 즉 양육효능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Plunkett & Bamaca-Gomez, 2003).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부정적 역동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정에서는 타 가정과는 다른 역동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으로 인한 갈등은 자녀가 외국인 부모보다 현재의 사회문화, 언어와 같은 이중문화 역량(bicultural competencies)이 더욱 뛰어나다는 ‘역할의 역전(role reversals)’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

다(Chun, 2006). 즉, 외국인 부모의 경우는 한국의 문화가 이질적 문화에 대한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단계로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자녀에게는 한국 문화 자체가 1차적 문화수용의 과정으로서 진행되어 부모와의 문화적응 속도 및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Basanez et al., 2014; Bacallao & Smokowski, 2007). 이러한 문화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은 ‘문화적응 격차(acculturation gap)’로서 개념적 정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격차가 심할수록 가족 체계 내의 부정적 역동이 심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Birman(1994)의 문화적응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델에서는 부모의 입장과 청소년 입장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청소년 자녀는 부모 국가에 대한 접촉의 제한된 상태이지만 주류사회 문화에는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부모와 다른 세계에서 사회화를 경험하여, 부모의 모국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의 간극이 커져 가치관의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학부모로서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어머니로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모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과의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학부모로서 스스로가 한국에서 학령기를 보내지 않았기에 학교의 전반적 체계, 자녀의 학교생활 및 또래 간의 하위문화,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인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부연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써 자녀는 가족관계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monitor)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Hao & Bonstead-Bruns, 1998). 또한 어머니가 가진 모국의 가치관과 자녀의 모국 즉 한국의 가치관이 상충하며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즉, 외국인 어머니가 자라온 사회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역할 모델링에 영향을 받은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이 상충할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이다(송미경 외, 2008).

이러한 자녀와의 부정적 역동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체화되고, 이는 세대 간 전이를 일으킨다. 실제로 이민자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민자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위시한 다양한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강한 통제와 적은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독재형 양육을 보여 부모-자녀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asanez et al., 2014; Dinh & Nguyen, 2006; Baumrind, 2005; 홍경자, 안혜영, 김혜원, 2004). 그리하여 양육자는 부모 스트레스 증가(이지영, 2012)를 경험하며, 자녀의 경우는 정신건강문제(Carneiro, Meghir & Parey, 2012), 자아탄력성의 감소(정선미, 조옥귀, 2009), 그리고 외현적 부적응 현상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Lau et al., 2005), 대인관계적 갈등 및 낮은 학업성취(이지영, 2012; Basanez et al., 2014; Keith & Lichtman, 1994) 등 학교부적응에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심리사회적, 정서적 발달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ye et al., 2001).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성공적 적응은 단

순히 성적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족 외적 환경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를 나타내는 적응성(adaptability) (Pong, Hao & Gardner, 2003),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여도 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resiliency)(Wang, Haertel & Walberg, 1997)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에 학교부적응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임에 따라 이러한 위기에 특히나 취약한 집단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다문화청소년은 취약집단으로 분류된다(김갑성, 2008; 이영주, 2007; 오성배, 2005).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후 우울감, 사회적 위축감이 증가하는 반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심리적 정서가 악화된다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러한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학교부적응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 따르면 중학생 대상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조사결과, 고등학교 진학이라고 대답한 국내 가정 청소년은 전체의 62.7%인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54.7%로 약 10%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국내 성장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와 '선생님의 차별대우' 때문이라는 관계적인 문제 측면이 67.8%,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라는 학습부적응적 응답이 전체의 52.4%, 그리고 '부모의 관심이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18.1%로 순차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부적응을 학습부적응과 관계부적응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인 요인으로는 부모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문화청소년 모두가 학교체계에서 부적응을 겪는다는 일반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은 특정 인구사회학적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Wong et al., 2003; Seifer & Sameroff, 1987), 이는 일반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위기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인지된 차별의 문제(Wong et al., 2003), 문화적응스트레스(은선정, 2010), 외국인 부모와의 갈등(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과 같은 위험요인은 학교부적응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Flores, Cicchetti & Rogosch, 2005).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내적 어려움이 자녀의 외현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녀의 심리적 매개변인을 통해 부적응을 강화하는데(정선미, 조옥귀, 2009) 그 매개변인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교부적응이라는 스트레스적 상황은 모든 청소년이 맞이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누구는 그렇지 못한 상대성을 가진다. 이러한 학교부적응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 조건(under conditions of environmental stress)으로부터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다(Klohn, 1996).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에 대면하여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개념화되어(Flores, Cicchetti & Rogosch, 2005), 성공적인 적응력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인이다(이윤주, 2004). 이러한 자아탄력은 두 가지 능력으로 요

약된다. 우선은 대(對)스트레스 저항력(resistance)으로서의 회복력이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서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 드러난 개인의 적응적 능력을 일컫는다(Klohn, 1996). 그리하여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소거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제를 마련함으로써 취약성을 회복성으로 승화시킬 여지를 갖게 된다(Werner, 2000: 128; Rutter, 1987).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삶에 대한 긍정적 융통성, 외부 세계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능숙한 대인관계 능력을 포괄한다(Reivich & Schatte, 2002; Klohn, 1996). 이러한 능력은 청소년기 학교 내에서의 적응력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게 된다. 대표적인 실증 연구로서 미국의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data를 활용한 Peng, Wang & Walberg(199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지지적인 부모자원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가족적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특징으로 하며, 학교를 좋아하여 학교생활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이고,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학교 내에서 학습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맞이하여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Ye et al., 2016; Wang, Waxman & Freiberg, 1996; Block & Block, 1980)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이진성, 2013; 정선미, 조옥귀, 2009; 하현주 외, 2008; 이윤주, 2004).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는 한 개인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는데, 한 체계에서의 영향은 다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발달론적 관점의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바탕으로(Masten, Herbers, Cutuli & Lafavor, 2008) 자아탄력성의 초기값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부적응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한 이러한 부적응은 종단적으로 자아탄력성의 감소와 연결되는 순환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가정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MCAPS)의 5개년도의 자료(2011~2015)를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MCAPS)는 단일 표본 설계 방식을 바탕으로 배경, 다문화화적 특성, 개인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의 네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변인에 대해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패널

은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15명)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2017년까지 총 7개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 종단조사의 특성상 매년 중도 탈락이 발생하여 5차 년도인 2015년 데이터에 응답한 가구는 총 1,338가구(학생 1,350명, 학부모 1,330명)였다. 이 연구에서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미참여'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아버지가 외국인,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339명을 제외한 총 1,300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항은 Sandhu(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문항을 이승중(1995), 이소래(1997)가 번안한 문항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 2명과 학계전문가 2명이 재구성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로 요인을 회전시켜 행렬 분석을 한 후 수렴되지 않은 6번 문항은 제외하고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된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연구에 사용된 2011년 1차년도 척도의 신뢰도는 .845로 나타났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신숙재(1997)의 부모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은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로 요인을 회전시켜 행렬 분석을 한 후 수렴되지 않은 8번 문항은 제외하고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연구에 사용된 2011년 1차년도 척도의 신뢰도는 .844로 나타났다.

3)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은 정화실(1991)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에서 학교행사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김지영 외(2010)의 학교적응 척도 중 하위변인인 '학교수업', '교우관계', 그리고 '교사관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변인은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학교

부적응'으로 하여 긍정문항들에 대해 역코딩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하위변인인 '학교수업'은 '학습 부적응'으로, 그리고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합산한 것을 '관계부적응'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맥스로 요인을 회전시켜 행렬분석을 한 후 수렴되지 않은 수업관련 5번 문항과 교우관련 4번 문항을 제외하고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용하였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적응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인 1차년도 학습부적응의 신뢰도는 .749, 관계부적응의 신뢰도는 .864, 그리고 5차년도 학습부적응의 신뢰도는 .801, 관계부적응의 신뢰도는 .865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것을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로 가득하다' 등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와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1차년도 .892, 2차년도 .904, 3차년도 .903, 4차년도 .912, 그리고 5차년도 .909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부정적 결과로서의 학교부적응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 간의 시간에 따른 '교호모형(reciprocal model)'을 설정하였다.¹⁾ 즉 자아탄력성은 학교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학교부적응은 긍정적 심리기제인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저해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학교부적응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모형의 장점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방적이라는 정태적(static) 설명을 넘어서 두 변수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상호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지속시킬 수도 있으나, 긍정적 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동태적(dynamic)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1차년도의 학교부적응이 5차년도 학교부적응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기상관(autoregressive)의 관계를 가정하였다. 학교부적응은 크게 '학습부적응'과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부적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종속

1) 학교부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부부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과 우울(depression)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Kim & Lee, 2013)를 참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부폭력이 피해여성의 우울감을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우울감은 다시 부부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부부폭력의 재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은 5차년도 학습부적응과 5차년도 관계부적응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아탄력성의 시간적 매개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을 가정하였다.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어머니 요인이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시에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두 변인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경로계수는 1차년도의 학교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변화율이 다시 5차년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제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어머니요인과 자녀의 성별, 연령 등 자녀요인을 고려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14.0 프로그램과 Mplus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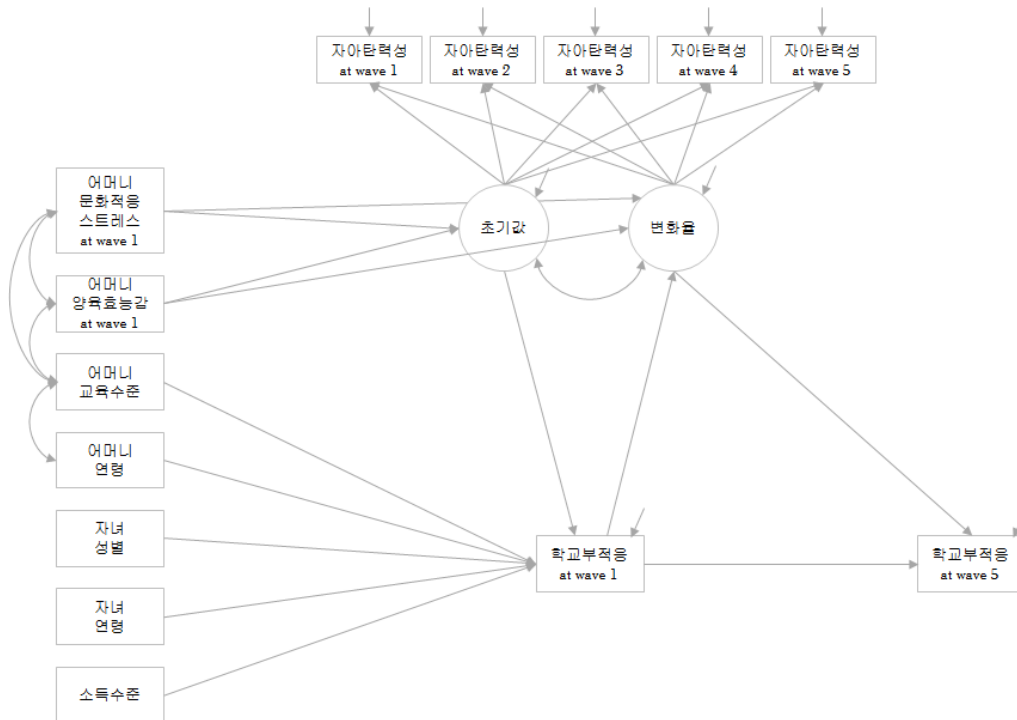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이변량 분석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5차년도의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부적응은 다시 학습부적응과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부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습부적응의 평균은 2.10으로 관계부적응(1.87)에 비

해 높은 편이었다.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학습부적응은 다소 증가한 반면(2.07→2.10), 관계부적응(1.93→1.87)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인	학습부적응 at wave_5(자녀)	1,300	2.10	0.56	1	4
	관계부적응 at wave_5(자녀)	1,300	1.87	0.45	1	4
독립 변인	양육효능감(어머니)	1,300	3.56	0.57	1	5
	문화적응스트레스(어머니)	1,296	2.53	0.78	1	5
매개 변인	학습부적응 at wave_1(자녀)	1,300	2.07	0.54	1	4
	관계부적응 at wave_1(자녀)	1,300	1.93	0.50	1	4
	자아탄력성 at wave_1(자녀)	1,300	2.90	0.47	1	4
	자아탄력성 at wave_2(자녀)	1,282	2.95	0.46	1	4
	자아탄력성 at wave_3(자녀)	1,288	3.03	0.45	1	4
	자아탄력성 at wave_4(자녀)	1,295	3.06	0.47	1	4
	자아탄력성 at wave_5(자녀)	1,300	3.06	0.46	1	4
통제 변인	성별(자녀)	1,300	0.49	0.50	0	1
	연령(자녀)	1,300	10.00	0.48	9	12
	연령(어머니)	1,300	40.46	5.19	21	60
	교육수준(어머니)	1,300	2.55	0.90	1	4
	소득수준(어머니)	1,300	217.79	119.99	0	1,809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고려하였는데, 평균은 각각 3.56, 2.53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은 1차년도 학교부적응, 그리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아탄력성으로 측정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의 평균값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제변인으로 측정한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49.0%, 여성이 51.0%로 나타났고, 자녀의 연령은 9세부터 12세까지로 1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약 40.5세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을 중심으로 학교부적응(1차년도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습은 물론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2. 학교부적응(1차)에 대한 통제변인의 영향: 평균차이검증(t-test, F-test)

변인	구분	사례수	학습부적응			관계부적응		
			평균	SD	검증값	평균	SD	검증값
어머니 요인	연령	1,300	2.07	0.54	4.69**	1.93	0.50	3.04*
	35세이하	203	2.05	0.54		1.88	0.52	
	40세이하	464	2.00	0.56		1.89	0.51	
	45세이하	407	2.11	0.52		1.95	0.50	
	46세이상	226	2.14	0.51		2.00	0.49	
	교육수준	1,300	2.07	0.54	4.34**	1.93	0.50	1.84**
	중졸이하	130	2.19	0.59		1.98	0.46	
	고졸이하	552	2.07	0.54		1.92	0.51	
	2~3년제 대졸	385	2.08	0.53		1.94	0.50	
	4년제 대졸이상	233	1.98	0.52		1.89	0.51	
	소득수준	1,285	2.07	0.54	0.36	1.93	0.50	0.73
	200만원미만	553	2.06	0.54		1.91	0.50	
	300만원미만	432	2.08	0.55		1.93	0.52	
	300만원이상	300	2.06	0.54		1.95	0.49	
자녀요인	성별	1,300	2.07	0.54	4.82**	1.93	0.50	2.76**
	여학생	662	2.00	0.51		1.89	0.49	
	남학생	638	2.14	0.56		1.97	0.52	
	연령	1,300	2.07	0.54	1.89	1.93	0.50	0.92
	9세	99	2.14	0.49		1.97	0.48	
	10세	1,152	2.06	0.54		1.92	0.50	
	11~12세	49	2.16	0.61		2.00	0.52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의 정도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관계부적응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습부적응 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학습부적응 및 관계부적응과 부적인 상관성을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습부적응이나 관계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학습부적응과 관계부적응의 관계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부적응은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변량(bivariate) 분석결과는 변인들 간의 상호통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과 잠재성장모형(growth curve model)을 통한 경로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3. 학교부적응(1차)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1.000								
2	0.659*	1.000							
3	-0.152*	-0.162*	1.000						
4	0.039	0.082*	-0.148*	1.000					
5	-0.580*	-0.656*	0.187*	-0.078*	1.000				
6	-0.303*	-0.349*	0.168*	-0.036	0.416*	1.000			
7	-0.287*	-0.294*	0.097*	-0.064*	0.311*	0.416*	1.000		
8	-0.236*	-0.259*	0.099*	-0.037	0.346*	0.387*	0.448*	1.000	
9	-0.233*	-0.284*	0.163*	-0.089*	0.315*	0.311*	0.398*	0.499*	1.000

* $p < 0.05$

학습부적응(1차년), 2. 관계부적응(1차년), 3. 양육효능감(부모), 4. 문화적응스트레스(부모), 5. 자아탄력성(1차년), 6. 자아탄력성(2차년), 7. 자아탄력성(3차년), 8. 자아탄력성(4차년), 9. 자아탄력성(5차년)

2. 시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변화와 학습부적응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학습부적응의 지속성을 억제하거나 그 효과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표 4. 자아탄력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SRMR	AIC	BIC
모형1	57.620	10	0.966	0.966	0.061	0.047	7013.704	7065.406
모형2	33.235	10	0.983	0.983	0.042	0.054	6989.319	7041.020

1) 모형1 : 선형변화모형

2) 모형2 : 선형-무변화모형

모형1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자아탄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한 것이고, 모형2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5차년도에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모형1보다는 모형2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2를 선택하였다.

모형2를 기준으로 자아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초기값의 분산(0.10, $p < 0.01$)과 변화율의 분산(0.01,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마다 자아탄력성의 초기값(절편)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정도(기울기)에서도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

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0.01 , $p < 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므로, 초기값이 낮을수록 변화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형-무변화모형 분석 결과

잠재성장모형(자아탄력성)	계수값	S.E.	t
평균(mean)			
초기값(I)	2.90	(0.012)	246.24 **
변화율(S)	0.05	(0.004)	12.37 **
분산(variance)			
초기값(I)	0.10	(0.008)	11.95 **
변화율(S)	0.01	(0.001)	6.40 **
공분량(Covariance)	-0.01	(0.003)	-3.76 **

* $p < 0.05$ ** $p < 0.01$

자아탄력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부적응의 모델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RMSEA=0.045, CFI=0.928, TLI=0.926, SRMR=0.045), 관계부적응의 모델적합도(RMSEA=0.058, CFI=0.904, TLI=0.901, SRMR=0.072)는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학교부적응 중에서도 관계부적응보다는 학습부적응에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부적응을 중심으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1차년도 학습부적응에 대해서는 자녀의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학습부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초기값(-1.23 , $p < 0.01$)이 학습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초기값에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0.13,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부적응(5차)에 대한 구조모형

	학습부적응 모형			관계부적응 모형		
	계수값	S.E.	t	계수값	S.E.	t
Structural Model						
학교부적응 at wave_1						
어머니 양육효능감	0.027	0.024	1.16	0.025	0.020	1.23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	-0.003	0.017	-0.18	0.007	0.014	0.46
자녀 성별(남학생)	0.139	0.023	6.02 **	0.074	0.020	3.71 **
자녀 연령	0.000	0.024	0.01	0.005	0.021	0.26
어머니 연령	0.004	0.002	1.91	0.005	0.002	2.34 *
어머니 교육수준	-0.020	0.013	-1.54	0.015	0.011	1.33
소득수준	-0.002	0.007	-0.26	0.005	0.006	0.89
자아탄력성 초기값(I)	-1.232	0.076	-16.15 **	-1.233	0.067	-18.45 **
자아탄력성 초기값(I)						
어머니 양육효능감	0.128	0.020	6.46 **	0.129	0.020	6.54 **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	-0.017	0.014	-1.18	-0.029	0.014	-2.02 *
자아탄력성 변화율(S)						
어머니 양육효능감	0.001	0.008	0.10	0.003	0.008	0.35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	-0.007	0.004	-1.48	-0.002	0.004	-0.51
학교부적응 at wave_1	0.069	0.020	3.51 **	0.080	0.028	2.90 **
학교부적응 at wave_5						
학교부적응 at wave_1	0.504	0.107	4.70 **	0.449	0.114	3.93 **
자아탄력성 초기값(I)	-0.349	0.151	-2.31 *	-0.451	0.152	-2.97 **
자아탄력성 변화율(S)	-4.054	0.526	-7.71 **	-3.992	0.359	-11.13 **
Goodness of Fit						
$\chi^2(df)$	247.449(68)**			365.201(68)**		
CFI	0.928			0.904		
TLI	0.926			0.901		
RMSEA	0.045			0.058		
SRMR	0.045			0.072		

* $p < 0.05$ ** $p < 0.01$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종단적 관점에서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학교부적응을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학교부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였다. 즉 1차년도 자아탄력성이 1차년도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1차년도 학교부적응이 이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탄력성의 변화가 5차년도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 학교부적응이 자아탄력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학습부적응(0.07, $p < 0.01$)과 관계부적응(.008, $p < 0.0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가설과 달리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학습부적응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변화정도(기울기)가 큰 반면, 학습부적응의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의 변화정도(기울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처음부터 자아탄력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긍정적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애초 자아탄력성이 좋은 학생들의 변화율은 천정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속변인인 5차년도 학교부적응에는 학습부적응과 관계부적응 모형이 상호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차년도 학습부적응(0.05, $p < 0.01$)과 자아탄력성의 초기값(-4.59, $p < 0.01$), 그리고 자아탄력성의 변화율(-5.01, $p <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1차년도 학습부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5차년도까지 학습부적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5차년도에 학습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 변인의 표준화된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1차년도 학습부적응 0.486, 자아탄력성의 초기값 -0.204, 자아탄력성의 변화율 -0.679),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에서도 자아탄력성의 변화가 나중의 학습부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촉발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저하라는 1차년도 초기 값만을 투입하여도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학교부적응에 종단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내는 경로 및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1차년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공변량은 상호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떨어지고, 양육효능감이 떨어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올라가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학부모에게 있어서는 양육효능감을 낮춘다는 선행연구(Eamon, 2005; Bandura,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스트

레스 요인으로 감소한 양육효능감은 다시금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이는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한 자신의 학령기와는 구조와 체계가 다른 한국사회의 학교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인 학부모와의 소통에의 어려움 등과 같이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지원을 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에서 유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중문화 역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Basanez et al., 2014; Bacallao & Smokowski, 2007). 즉, 자녀의 문화역량이 외국인 어머니를 추월함에 따라 가족 체계 내에서 부정적 역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및 효능감과 부정적 역동을 보이기 되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2016) 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중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9.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가 12.9%, '다른 학부모와 대화 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가 12.4%,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10.8%,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가 10.3%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지 못함에 기인한 양육의 어려움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라는 생애주기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처음 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령기를 보내지 않은 탓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및 이에 따른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학부모로서의 역할 및 준비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처럼 자녀 양육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탓에(Bornstein et al., 201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적응이 필요조건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인 중에서는 학생의 성별과 어머니의 연령이 초기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Plunkett & Bamaca-Gomez,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학력이 무관하다는 결과라기보다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라는 변인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보다 더욱 큼에 따라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차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수준은 높은 반면, 사회문화적 적응수준(sociocultural adaptation)은 낮은 결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Berry et al., 2006)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임상적 진단 기준으로서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는 여자청소년이 더욱 취약한 것은 일반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심리적 성별 차이이다. 하지만 학교부적응의 문제는 외현화되어 나타나는 탓에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수준의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남자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적응력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부모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인 탓에(최효임, 김성일, 2004)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경향성(박은정, 1996)으로 인해

자녀와의 부정적 역동이 학교에서의 관계부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부모-자녀의 역동에 따른 부정적인 전이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경로인 어머니 변인과 청소년 자녀 변인의 관계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초기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 자녀의 초기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양육효능감이라는 것이 특정 양육 태도로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탓에, 자녀로 하여금 특정한 외현적 행동을 유발하는 기제가 된다 기보다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의 저해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가능하다. 이에 청소년의 초기 자아탄력성(I)은 초기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초기 학교부적응은 5차년도 부적응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은 학교부적응과 역의 관계에 있다는,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적극적 학교 참여 및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한다는 선행연구(Block & Block, 1980)로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덕희, 신효선(2010)의 연구와는 대별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청소년 초기의 학교부적응이 중, 후반기에도 지속될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Janosz et al., 1997) 및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 학습부적응과 관계부적응을 지적한 선행연구(고유미, 이정윤, 2009)를 지지한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진로장벽인식 수준이 높고, 일반청소년보다 일반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은 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의 진학을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서 학업성취요인 즉, 학습부적응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요인이 그 다음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모형은 관계부적응보다 수업부적응 모형의 적합도가 더욱 우수하게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도모를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 기울기(S)는 5차년도 학교부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5차년도 학교부적응의 증가추세(기울기)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회복적, 적응적 성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어려운(adverse) 환경 조건이 제시가 되어도 이를 역경, 좌절로 대응하지 않고 인지 및 행동 전략을 긍정적 방향으로서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평형상태(equilibrium)를 유지하는 적응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윤주, 2004; Cicchetti & Toth, 2000)로 설명된다. 이로써 자아탄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이 학습 및 관계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검증되었고, 학교 및 다문화교육센터를 위시한 유관기관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자아탄력성 증진에 초점을 둘 것을 제언한다. 한편, 자아탄력성 기울기(S)와 1차년도 학교부적응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관계는 <그림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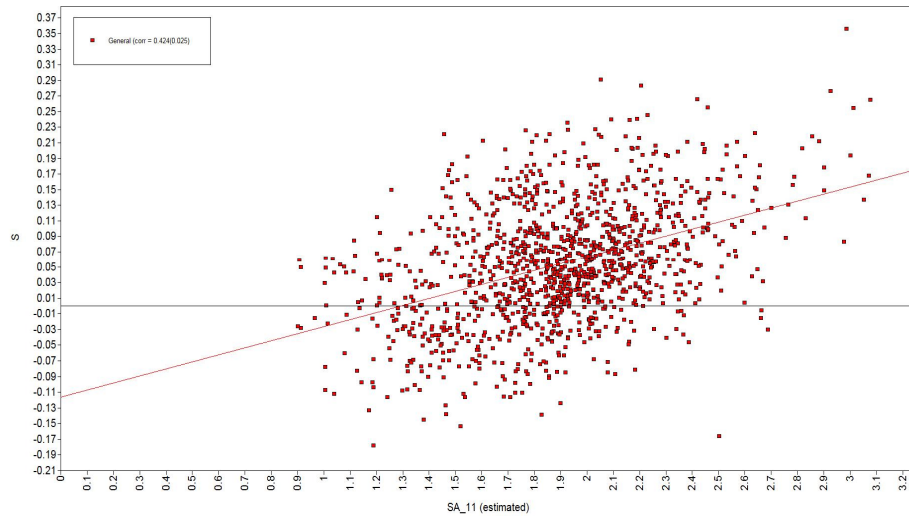


그림 2. 1차년도 학습부적응 값과 자아탄력성의 기울기

이는 초기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의 변화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반면, 초기 학교부적응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소년은 변화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이다. 이는 청소년기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동기는 가족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청소년은 중·후반기가 될수록 가족 외의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 즉 교사, 또래관계에 더욱 큰 영향력을 받는다(Eccles et al., 1993). 급진적인 주장으로는 청소년기 가족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일부연구(장덕희, 신호선, 2010)도 있을 만큼, 청소년기 학교체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차년도인 초등학교 4학년 당시 학교부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으로부터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가족 외의 학교 및 지역사회 지지 자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아탄력성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1차년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이 학교부적응을 촉발시키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대상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자아탄력성이 낮은 대상자들도 가정 외의 체계인 학교 내에서의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긍정적 소통과 같은 지지자원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체계 외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자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고, 교사들은 학교부적응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식별 및 개입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외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다문화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내실 있는 진행은 학습적, 관계적 지지망을 제공함으로써 자아탄력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의 한계 상 다문화가정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

인 어머니 가정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버지 가정 및 외국인 부부 가정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의 결과나 합의 역시 외국인 어머니 가정의 청소년에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 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부적응만을 다룸으로써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초반까지의 변화궤적과 역동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의를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패널조사가 모두 완료된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종단적인 변화의 양상과 시기별 변화 요인의 차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유미, 이정윤.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1-16.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1), 58-95.
- 박은정. (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 (2010). 해외이주 한인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08-316.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이진성. (2013). 학교부적응학생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101-110.
-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정선미, 조옥귀.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8, 133-158.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15(2), 57-92.
-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1-19.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6). 세종: 청소년정책연구원.
- 홍경자, 안혜영, 김혜원. (2004). 부모의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가 학령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 Nursing Research*, 10(4), 479-487.
- Bacallao, M. L., & Smokowski, P. R. (2007). The costs of getting ahead: Mexican family system changes after immigration. *Family Relations*, 56(1), 52-6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 Basáñez, T., Dennis, J. M., Crano, W. D., Stacy, A. W., & Unger, J. B. (2014). Measuring acculturation gap conflicts among Hispanics: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5(13), 1727-1753.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aumrind, D. (2005).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and adolescent autonom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5(108), 61-69.
- Berry, J. W. (2002). Acculturation processes In Berry, J. W., Poortinga Y. H., Breugelmans S. M., Chasiotis., & Sam, D. L. (3rd Ed.),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320-322).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A conceptual overview.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In Bornstein, M. H., & Cote, L. R.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13-30).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pp. 291-326). Boston: Allyn & Bacon.
- Birman, D. (1994). Acculturation and human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E. J. Trickett, R. J. Watts, & D. Birman (Eds.),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Human diversity: Perspectives on people in context* (pp. 261-284). San Francisco: Jossey-Bass.
- Birman, D. (1998). Biculturalism and perceived competence of Latino immigrant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3), 335-354.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s.),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ume 13* (pp. 39-101). NewYork: Psychology Press.
- Bornstein, M. H., Putnick, D. L., & Lansford, J. E. (2011). Parenting attributions and attitude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arenting*, 11(2-3), 214-237.
- Carneiro, P., Meghir, C., & Parey, M. (2013). Maternal education, home environment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suppl_1), 123-160.
- Chun, K. M. (2006).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 family acculturation research. In M. H. Bornstein and L.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63-78). Mahwah, NJ: Erlbaum.
- Cicchetti, D., Toth, S. L., & Maughan, A. (2000). An ecological-transactional model of child maltreatment. In Sameroff, A. J., Lewis, M., & Miller, S. M. (2nd Ed.), *Handbook of*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689–722). NewYork: Springer US.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Dinh, K. T., & Nguyen, H. H. (2006).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variables on Asian America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407–426.
- Eamon, M. K. (2005). Social-demographic, school, neighborhood, and parenting influenc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63–174.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 Iver, D.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2), 90.
- Flores, E., Cicchetti, D., & Rogosch, F. A. (2005). Predictors of resilience in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Latino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338.
- Furstenberg Jr, F. F., Brooks-Gunn, J., & Morgan, S. P. (1987). Adolesce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later lif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9*(4), 142–151.
- Hao, L., & Bonstead-Bruns, M. (1998). Parent-child differences in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immigrant and nativ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71*(3), 175–198.
- Holmbeck, G. N.,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5). Parenting adolescents.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91–118). Erlbaum, Mahwah, NJ.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2), pp.223–237.
- Janosz, M., LeBlanc, M., Boulerice, B., & Tremblay, R. E. (1997). Disentangling the weight of school dropout predictors: A test on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6), 733–762.
- Keith, P. B., & Lichtman, M. V. (1994). Does parental involvement influenc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American eighth graders? Results from the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Quarterly, 9*(4), 256–273.
- Kim, J., & Lee, J. (2013). Prospective study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99*, 42–48.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Kye, S., Lee, J., Kim, M., Park, M., & Yoo, E. (2001). A study on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2), 57–72.
- Lau, A. S., McCabe, K. M., Yeh, M., Garland, A. F., Wood, P. A., & Hough, R. L. (2005). The acculturation gap-distress hypothesis among high-risk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67–375.
- Levine, S. B. (1980). The rise of American boarding schools and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upper

- class. *Social Problems*, 28(1), 63-94.
- Masten, A., Herbers, J., Cutuli, J., & Lafavor, T. (2008). Promoting competence and resilience in the school context.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2), 76-84.
- Mau, W. C. (1997). Parental influences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comparison of Asian immigrants, Asi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Psychology in the Schools*, 34(3), 267-277.
- Ochocka, J., & Janzen, R. (2008). Immigrant parenting: A new framework of understanding.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6(1), 85-111.
- Peng, S. S., Wang, M. C., & Walberg, H. J. (1992). Demographic disparities of inner-city eighth graders. *Urban Education*, 26(4), 441-459.
- Plunkett, S. W., & Bámaca-Gómez, M. Y.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cculturation, and adolescent academics in Mexican-origin immigrant families in Los Angel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5(2), 222-239.
- Pong, S., Hao, L., & Gardner, E. (2003, May). School Success of Asian and Hispanic Adolescents: The Roles of Immigrant Generation, and Parental Practices and Involvement. In *annual meeting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Rudmin, F. (2009). Constructs, measurements and model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2), 106-123.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 Seifer, R., & Sameroff, A. J. (1987). Multiple determinants of risk and invulnerability. In E. James Anthony and Bertram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51-69). NewYork: The Guilford Press.
- Seifer, R., Sameroff, A. J., Baldwin, C. P., & Baldwin, A. (1992).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5), 893-903.
- Spencer, M. B. (1995). Old issues and new theorizing about African-American youth: A phenomenological variant of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L. Taylor (Ed), *Black youth: Perspectives on thei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pp. 37-69). Westport, CT: Praeger.
- Strage, A., & Brandt, T. S. (1999). Authoritative parenting and college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and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 146-156.
- Turner, E. A., Chandler, M., & Heffer, R. W. (2009).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0(3), 337-346.
- Wang, M. C., Haertel, G. D., & Walberg, H. J. (1994).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 cities. In M. C. Wang & E. W. Gordon (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prospects* (pp. 45-7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ng, M. C., Haertel, G. D., & Walberg, H. J. (1997). Fostering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Schools*. *Publication Series No. 4*. (pp. 119-140). London: Sage Publications.

- Werner, E. E. (200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honkoff J. P. & S. J. Meisels (2nd Ed.).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115–132).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Williams, T. M., Joy, L. A., Travis, L., Gotowiec, A., Blum-Steele, M., Aiken, L. S., & Davidson, S. M. (1987). Transition to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3), 251–265.
- Wong, C. A., Eccles, J. S., & Sameroff, A. (2003). The influ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school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97–1232.
- Ye, Z., Chen, L., Harrison, S. E., Guo, H., Li, X., & Lin, D. (2016).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Rural-to-Urban Migrant Children in China: The Protective Role of Resil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7, 1542. <http://doi.org/10.3389/fpsyg.2016.0154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명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교사관계만족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관계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취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업성취, 가정의 경제적 지위,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이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2016년 2.8%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약 2~3배 정도 증가하였다(교육통계, 2016). 이 중 학업성취가 낮거나 또래와의 갈등 문제로 학교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둔 다문화 학생은 1.01%로 일반 초·중·고교생의 학업 중단율인 0.83%보다 높은 수치이다(이혜숙, 2016).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해마다 늘어 일반 학생의 3배에 이른다.

이러한 교육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17).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수업이해 정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이 ‘거의 다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사 관점에서 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이해, 또래와의 관계, 정

* 경북대학교

서적 안정, 교사와의 관계 등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지만 학업성취도만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중단 고려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로, 다문화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공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이혜숙, 2016).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지, 대화정도 그리고 학습지원이 일반가정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원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부족한 교과목에 대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지출차이는 매우 크다. 월평균 소득수준 100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6만 6000원을 지출한 반면, 소득수준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2만 원을 지출하는 등 가정배경에 따른 사교육 지출비가 1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에서 약 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7).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사교육경험 여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요인 외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이 있다. 교사관계, 즉 교사와 학생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및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에 따라 학업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 교사가 우호적이며 애정적으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취가 높아지게 된다(안우환, 2007). 이처럼 교사의 우호적인 상호작용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Rosenthal and Jacobson, 1968) 한편, 이러한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는 부모의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학생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Rist, 1970). 그리고 가족관계 및 교사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성공을 이끈다. 또한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소로서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 성취동기는 교육상황에 있어서 학교학습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cClelland, 1965). 그래서 성취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학업성취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성취동기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정의 높은 사회경제적 자본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성취동기를 높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는 전국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의 가정의 경제적 지위,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간 복잡한 구조적 관계가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가정 학생들의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결과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임이 판명되었다(곽수란, 2008; 김경식, 이현철, 2006; 김수혜, 김경근, 2010; 김현주, 이병훈, 2007; 양귀순, 2017).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은 기록치 못한 가정형편과 부모들의 낮은 학력으로 직업 역시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

생들은 학업에서 성공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과 학교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관련된 낮은 학업성취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배경, 교사관계와 학업성취

한 개인의 교육수준이 사회적 지위 획득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교육수준은 가정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방하남, 김기현, 2001). 이러한 측면에서 Coleman et al.(1966)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서 학교의 영향력보다 가정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Coleman et al.은 학교 교육조건이 우열이 성격격차의 원인이 됨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사의 질과 같은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보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가정배경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비용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사회이동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가족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가족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가정 내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김경근, 1998). 결국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술한 내용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과성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수란, 2008; 김정식, 이현철, 2006; 김수혜, 김경근, 2010; 김현주, 이병훈, 2007; 양귀순, 2017). 이처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4년제 대학입학률이 높아지는 등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학업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구인회, 김정은, 2015).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학업성취 격차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중상층 부모를 둔 자녀에 비해 중하층 자녀가 학교수업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양귀순, 2017; 최정영, 최은영, 2010).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성적이 더 높게 나왔다(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2; 이영주, 2008).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성적이나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이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중요한 타자의 지지 중 하나인 교사관계도 교사기대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관계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형식적,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발전하거나 심화된다(안우환, 2007). 여기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 이해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된다면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교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학생은 인간관계에서의 좌절감과 그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다(이진숙, 2002).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학생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문지희, 백지숙, 2012) 반면, 교사와의 친밀도가 결핍된 학생들은 교사-학생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 이때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율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경식, 이현철, 2006). 이는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교사와의 우호적인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생들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인성, 대인관계 기술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은주, 2004), 더 나아가 교사관계는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 학생들이 높은 학업수행을 보여준다(Croninger and Lee, 2001; 김경식, 이현철, 2006, 재인용).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보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이 이러한 교사의 지지나 기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임이 밝혀졌다(Rosenthal and Jacobson, 1968). 그래서 사회계층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도록 하는데 교사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바람직한 교사관계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상승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학업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김경식, 이현철, 2006).

이러한 점에서 교사-학생 관계의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교사관계 변수가 투입되자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족배경의 모든 변수들의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사라졌다(안우환, 2007). 이러한 결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본이 교사-학생관계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학생관계 중 포용적(애정적)관계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우호적거나 애정을 가지고 대할 경우 학업성취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의 가정배경 중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맞벌이로 모와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정환경의 학생일지라도 학교생활에서 사회자본이 풍부하다면 즉,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포용적으로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면 얼마든지 열악한 교육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표명하였다(안우환, 2007).

상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 관계는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어 낮은 중퇴율이나 보다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교사관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가정의 경제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등과 같은 가정적 요인, 지능, 성취동기,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사의 기대 및 지지, 교사-학생과의 관계 등 학교환경 요인이 있다. 이 중 가정적 요인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 배경은 학습활동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어 이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곽수란, 2009)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문주희, 백지숙, 2012).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과업이나 과제를 달성하려는 비교적 개인의 지속적인 특성으로 어려운 과업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성향이다(정원식, 2001). 그래서 성취동기는 과업완수 자체가 보상이 되며 전력을 다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동기에 해당된다(전성연, 최병연, 1999). 성취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자기결손 전략을 지닌 학생들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며 도전을 피하고 낮은 끈기를 나타내어 성취를 더욱 약화시킨다(김종남, 임선아, 2015).

이러한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환경 요인,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학교환경 요인 중 학교의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교사-학생관계와 성취동기 간 상관관계가 높다. 아동이 교사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은 교사의 말을 잘 따르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등 수업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다(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이처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념과 기대는 아동과의 은연중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태도 및 행동이 학생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며, 교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생들의 성취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윤남정, 신나나, 2014; 이윤경, 도현심, 2005; 정현정, 문혁준, 2011; 지효숙, 2008).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는 가장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인 자아개념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거나 반면에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등의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기존중의 정도를 보여주는 개념이어서 청소년기의 적응에 필수요인으로 지각되어 왔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도전의식 및 용기와 관련되므로(홍정자, 1996), 아동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적응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지효숙, 2008).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성취동기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되고, 낮은 성취동기는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연관된다(조영란, 1993). 이처럼 성취동기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자체로 높은

성취동기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정현정, 문혁준, 201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다(김주영, 2005).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보다 높은 활력을 가지고 더 나은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Raynor and Entin, 1982)과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어 성취에 대한 확신이 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현준, 문혁준, 2011).

셋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자녀에게 성취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윤경, 도현심, 2005). 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즉,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월소득이 높으면 자녀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인다(오혜진, 2011). 이처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의 관련변인으로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인다(한유미, 2010).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의미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영향변인을 연구한 최진아와 이숙(1996)은 사회적지지지각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계층은 사회적지지지각을 거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취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3.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여건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꼽을 수 있다. 학습과 관련된 동기유발은 학습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률과 결과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기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iefele and Krapp, 1966; Willingham, Pollack and Lewis, 2002, 권미경, 이소연, 2017, 재인용). 다문화가정 학생들 또한 동기에 따라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참여도, 학습태도가 달라짐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한국어 수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권미경, 이소연, 2017). 이러한 낮은 성취동기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의 학업성취와 성취동기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취동기 수준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비하여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학업성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운선, 2003). 성취동기는 학생의 수업 지속력을 높여주고 학습에 모범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조영미, 2001). 그리고 인지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업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정원식, 2000) 되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학업성취가 높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전찬열, 2008; 한순미, 2004).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윤남정, 신나나, 2014).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이경화, 정혜영, 2006; 김종환, 2001). 이러한 점에서 이경은과 이주리(2009)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인과관계의 방향을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인과 관계가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에서 이후의 학업성취로, 그 학업성취가 다시 이후의 자아존중감으로 누적되는 관계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계는 초등학교 시기 내에서 유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의 모든 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학업성취와도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유진이, 2010).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이 많으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심리적 확신이 높으므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로 학업성취 수준이 만족스러우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학업성취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황혜정, 2006).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영향 요인들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한국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2011년도부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부모의 한국어 능력, 가정배경, 학교의 사회적 자본, 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변인, 부모의 자녀기대수준, 학교폭력, 학습활동, 학업성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서비스이용 경험 유무와 도움 정도 등의 배경변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결측치를 제외한 표본은 초등학교 6학년 1,446명(남학생 708명, 여학생 738명)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표본에 포함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주요 가정배경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가정배경특성

변인		사례수
가정 경제수준	아주 어렵다	152(10.7)
	어려운 편이다	553(38.8)
	보통이다	663(46.5)
	잘사는 편이다	52(3.6)
	아주 잘 산다	5(.4)
모 교육수준	초등학교	26(1.8)
	중학교	114(8.0)
	고등학교	603(42.3)
	대학교(4년제 미만)	417(29.2)
	대학교(4년제 이상)	246(17.3)
	대학원 석사과정	14(1.0)
	대학원 박사과정	5(.4)
부 교육수준	안 받았음	7(.5)
	초등학교	122(9.0)
	중학교	245(18.0)
	고등학교	699(51.4)
	대학교(4년제 미만)	108(7.9)
	대학교(4년제 이상)	155(11.4)
	대학원 석사과정	19(1.4)
	대학원 박사과정	5(.4)

2. 변인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는 관측변인들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사관계 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를 하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최종 내생변수인 학업성취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못하는 편이다~매우 잘하는 편이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배경 관련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교사관계만족도는 담임교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는 정도,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 관심과 걱정을 해주는 정도,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묻는 총 6개의 측정변수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성취동기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정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하는지,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정도,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는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하는 정도 등을 묻는 총 8개의 측정변수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런 편이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 학급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인 있는 정도 등 4개의 측정변수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런 편이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설정한 각 변인의 측정 문항 및 설명, 문항 척도, 문항간 신뢰도 값은 다음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변인별 측정문항 및 문항 간 신뢰도

변인명	측정 문항 및 설명	문항 척도	문항 신뢰도
가정의 경제적 자본	가구 월평균 소득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투입함	-	-
교사관계 만족도	1)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4)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5)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6)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5점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alpha = .961$
성취동기	1)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3)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5)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6)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7)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8) 나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4점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런 편이다	$\alpha = .882$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2)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 나는 학급임원(반장, 부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4점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런 편이다	$\alpha = .811$
학업성취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5) 과학	5점 척도 ①매우 못하는 편이다 ②못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하는 편이다 ⑤매우 잘하는 편이다	$\alpha = .792$

본 연구의 개별 측정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준편차가 3 이상,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큰 경우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이 8.0 이상이 없으므로 개별 측정변수들은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건권, 2016).

표 3. 기술통계치(수정하기)

변수명	전체집단(n=1446)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	1.51	.500	-.042	-2.001
월평균소득	5.33	.521	-.049	5.572
교사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1	3.83	.937	-.466	-.112
교사관계만족도2	3.95	.927	-.545	-.195
교사관계만족도3	3.73	.973	-.330	-.304
교사관계만족도4	3.70	.982	-.307	-.420
교사관계만족도5	3.77	.964	-.422	-.212
교사관계만족도6	3.73	.957	-.305	-.319
성취동기				
성취동기1	2.88	.621	-.450	.843
성취동기2	3.11	.630	-.236	.059
성취동기3	3.12	.628	-.242	.084
성취동기4	2.80	.714	-.200	-.145
성취동기5	2.96	.669	-.296	.186
성취동기6	3.21	.638	-.404	.202
성취동기7	3.00	.685	-.259	-.109
성취동기8	2.99	.652	-.287	.25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3.30	.624	-.430	-.049
자아존중감2	3.46	.557	-.415	-.715
자아존중감3	2.79	.825	-.132	-.657
자아존중감4	3.32	.619	-.436	-.198
학업성취도				
국어	3.77	.815	-.301	.130
영어	3.26	1.097	-.104	-.702
수학	3.33	1.011	-.145	-.438
사회	3.27	.996	-.033	-.534
과학	3.46	.924	.004	-.438

연구모형에 투입된 관측변인들의 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월소득을 제외한 대부분 측정 변인들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관측변인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1																							
2	.018	1																						
3	.006	.831"	1																					
4	.000	.784"	.830"	1																				
5	-.016	.750"	.810"	.886"	1																			
6	-.031	.715"	.784"	.815"	.842"	1																		
7	.004	.727"	.785"	.834"	.843"	.855"	1																	
8	.005	.221"	.228"	.244"	.242"	.259"	.290"	1																
9	.026	.232"	.270"	.230"	.239"	.234"	.274"	.501"	1															
10	.027	.268"	.276"	.279"	.277"	.258"	.282"	.492"	.651"	1														
11	.046	.200"	.214"	.204"	.203"	.209"	.245"	.617"	.420"	.442"	1													
12	-.004	.276"	.279"	.275"	.265"	.278"	.304"	.572"	.477"	.508"	.541"	1												
13	.043	.271"	.302"	.265"	.268"	.267"	.277"	.382"	.521"	.520"	.385"	.519"	1											
14	-.001	.257"	.276"	.271"	.274"	.269"	.315"	.476"	.566"	.561"	.435"	.560"	.599"	1										
15	.038	.221"	.217"	.207"	.206"	.197"	.248"	.341"	.389"	.400"	.347"	.436"	.465"	.498"	1									
16	-.031	.364"	.359"	.358"	.358"	.335"	.374"	.284"	.341"	.406"	.237"	.320"	.308"	.374"	.270"	1								
17	-.012	.332"	.351"	.323"	.337"	.332"	.335"	.253"	.337"	.381"	.234"	.287"	.350"	.350"	.267"	.720"	1							
18	-.012	.304"	.314"	.344"	.346"	.329"	.387"	.336"	.344"	.336"	.317"	.325"	.303"	.367"	.273"	.473"	.436"	1						
19	-.004	.319"	.332"	.341"	.338"	.319"	.365"	.337"	.386"	.415"	.268"	.333"	.357"	.378"	.293"	.578"	.581"	.513"	1					
20	-.010	.289"	.294"	.278"	.267"	.271"	.293"	.307"	.317"	.345"	.261"	.328"	.328"	.322"	.268"	.307"	.272"	.321"	.321"	1				
21	.022	.204"	.199"	.206"	.195"	.216"	.221"	.319"	.240"	.289"	.285"	.287"	.245"	.284"	.204"	.231"	.187"	.314"	.241"	.419"	1			
22	-.008	.242"	.223"	.220"	.217"	.215"	.229"	.263"	.232"	.275"	.229"	.279"	.207"	.295"	.233"	.237"	.221"	.207"	.216"	.398"	.350"	1		
23	-.010	.215"	.208"	.231"	.232"	.211"	.250"	.296"	.238"	.290"	.245"	.310"	.235"	.298"	.236"	.206"	.141"	.290"	.229"	.497"	.368"	.405"	1	
24	-.023	.266"	.268"	.266"	.283"	.272"	.278"	.306"	.283"	.319"	.245"	.299"	.298"	.295"	.233"	.263"	.219"	.252"	.232"	.499"	.359"	.486"	.609"	1
1.월소득 2.교사관계1 3. 교사관계2 4. 교사관계3 5. 교사관계4 6. 교사관계5 7. 교사관계6 8. 성취동기1 9. 성취동기2 10. 성취동기3 11. 성취동기4 12. 성취동기5 13. 성취동기6 14. 성취동기7 15. 성취동기8 16. 자아존중감1 17. 자아존중감2 18. 자아존중감3 19. 자아존중감4 20. 국어 21. 영어 22. 수학 23. 사회 24. 과학																								

주: 1) N= 1446 2) ** $p < .01$

1.월소득 2. 교사관계1 3. 교사관계2 4. 교사관계3 5. 교사관계4 6. 교사관계5 7. 교사관계6 8. 성취동기1 9. 성취동기2 10. 성취동기3 11. 성취동기4 12. 성취동기5 13. 성취동기6 14. 성취동기7 15. 성취동기8 16. 자아존중감1 17. 자아존중감2 18. 자아존중감3 19. 자아존중감4 20. 국어 21. 영어 22. 수학 23. 사회 24. 과학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한 모형을 정량적 관찰한 측정지표 간의 상관행렬계수를 통해 검증하는 기법으로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용이하게 해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 분석 절차는 가정배경, 교사관계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부트스트랩 추정 방법을 통해 총효과 및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에 대한 인과관계가 유의미한지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모형을 구축한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연구모형을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안한 연구모형은(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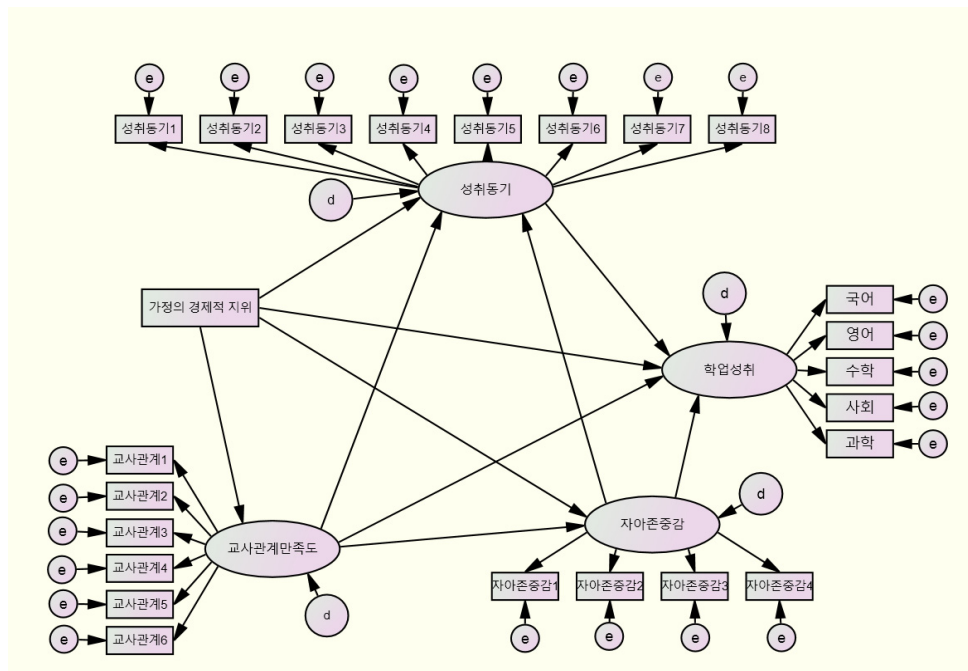


그림 1. 가정배경과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IV.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 즉 표본이 커질수록 카이제곱 값이 커지므로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 CFI는 0.9 이상, RMSEA는 0.05이하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자유도	χ^2	TLI	CFI	RMSEA
240	1053.126	.952	.962	.045

2. 측정모형의 추정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측정 모형의 모수치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6>과 같다.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값이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고 표준화계수가 .5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교사관계만족도1	.821(.021)***			
교사관계만족도2	.877(.019)***			
교사관계만족도3	.936(.018)***			
교사관계만족도4	.938(.018)***			
교사관계만족도5	.880(.016)***			
교사관계만족도6	.895***			
성취동기1		.681***		
성취동기2		.739(.044)***		

측정변인 \ 잠재변인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효능감	학업성취도
성취동기3		.747(.044)***		
성취동기4		.634(.049)***		
성취동기5		.735(.046)***		
성취동기6		.692(.044)***		
성취동기7		.759(.048)***		
성취동기8		.588(.044)***		
자아존중감1			.726***	
자아존중감2			.703(.048)***	
자아존중감3			.657(.034)***	
자아존중감4			.787(.038)***	
학업성취				
국어				.690***
영어				.535(.058)***
수학				.612(.055)***
사회				.740(.055)***
과학				.766(.052)***

주) 표준화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3. 구조모형의 추정 결과

〈표 7〉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구 월평균 소득변인,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모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최종 내생변인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가운데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성취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동기는 교사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교사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순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교사관계만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가구 월평균 소득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도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추정치(b)	표준화 추정치(β)	표준오차 (s,e)	임계치
월평균소득	→	교사관계만족도	.000	.000	.047	-.009
월평균소득	→	성취동기	.002	.003	.020	.114
월평균소득	→	자아존중감	-.025	-.027	.026	-.965
월평균소득	→	학업성취	-.016	-.015	.029	-.554
교사관계만족도	→	자아존중감	.288***	.507	.017	17.201***
교사관계만족도	→	성취동기	.045**	.090	.015	3.036**
교사관계만족도	→	학업성취	.096***	.146	.020	4.691***
자아존중감	→	성취동기	.484***	.593	.033	14.503***
자아존중감	→	학업성취	.181***	.157	.051	3.571***
성취동기	→	학업성취	.536***	.403	.055	9.766***
SMC(R ²)			교사관계만족도 .000	학업성취 0.359	성취동기 0.413	자아존중감 0.258

*** $p < .001$ ** $p < .01$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관계 만족도($\beta=.146$), 자아존중감($\beta=.157$), 성취동기($\beta=.403$)로 판명되었다. 이들 가운데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성취동기는 자아존중감($\beta=.593$) 변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는 연구결과(정현정, 문혁준, 2011; 지효숙, 2008)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져 학업성취가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 간 관계에서 교사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력($\beta=.507$)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관계만족도는 성취동기에도 유의미한 영향력($\beta=.090$)을 미쳐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애정적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성취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우환, 2007)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수용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할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배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앞서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표집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렵거나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경우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연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교사관계 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가정의 가계 소득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유우영, 1992)처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관계 만족도는 학업성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이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드러났지만, 다문화가정은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전무한 실정이고 반면,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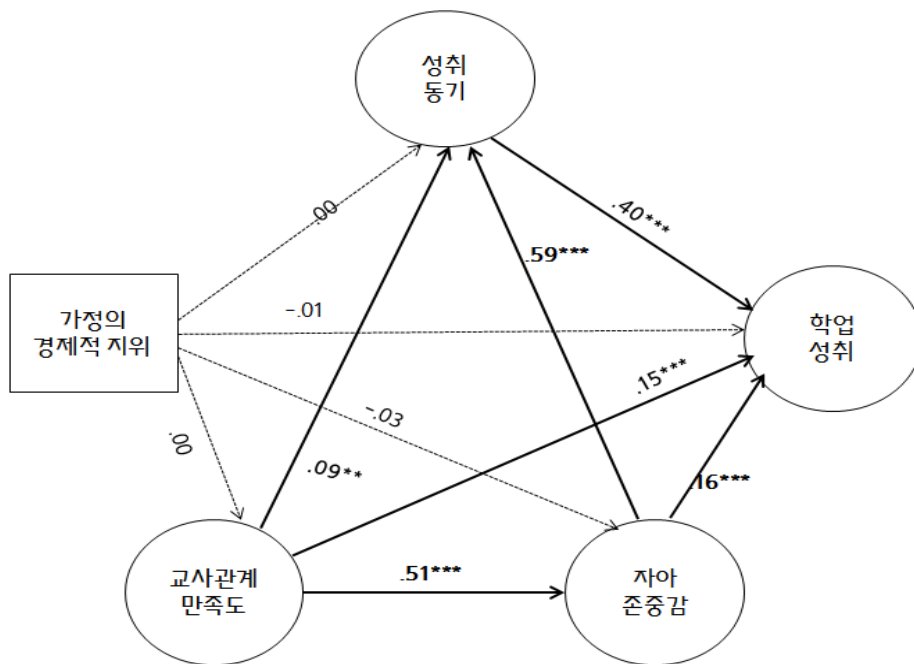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4. 효과분해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관계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인인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발휘하는 전제효과 및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를 행사하지 않음은 물론 전체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관계만족도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모두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관계만족도는 성취동기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사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성취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직접효과를 발휘함과 동시에 성취동기에도 직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관계만족도가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도 발휘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표 8.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β	b	β	b	β
가구 월평균 소득	→교사관계만족도	.000	.000	.000	.000	-	-
	→자아존중감	-.026	-.027	-.025	-.027	.000	.000
	→성취동기	-.011	.013	.002	.003	-.013	-.016
	→학업성취	-.026	-.024	-.016	-.015	-.010	-.010
교사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288***	.507	.288***	.507	-	-
	→성취동기	.193**	.391	.045**	.090	.148**	.301
	→학업성취	.251***	.383	.096***	.146	.156***	.237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514***	.593	.514***	.593	-	-
	→학업성취	.457***	.396	.181***	.157	.276***	.239
성취동기	→학업성취	.536***	.349	.536***	.403	.000	-

주: 1) *** $p < .001$ ** $p < .05$

2) 전체효과 및 직·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6% 구간에서 bootstrapping에 의한 추정결과임.

V. 결론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 사고방식 그리고 조직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한다. 청소년들은 짧게는 9년에서 많게는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사회에 얼마나 적합한 존재인가를 확인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시기동안 오로지 학교교육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학습하고 평가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업에서의 좋은 결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반면, 학업에서의 실패는 모든 방면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학업성취는

청소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공부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거의 과반수가 학교교육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이혜숙, 201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안의 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를 탐색하고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 그리고 학교요인 중에서 학생들의 비인지적요소에 핵심적인 요사인 교사관계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201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가정배경 관련변인과 학교의 사회적 자본변인 그리고 학생의 비인지적 변인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교사관계만족도가 학업성취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이 본 연구의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취동기로, 성취동기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와는 달리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관계만족도는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지각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진아, 이숙, 1996)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믿어주는 우호적인 교사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관계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수록 자아존중감이 크게 높아져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성취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가정의 영향력보다는 교사의 영향력이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를 행사하지 않음은 물론 교사관계만족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관계만족도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모두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고 교사관계만족도는 성취동기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직접효과를 발휘함과 동시에 성취동기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높은 학업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성취에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취동기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어 성취에 대한 확신이 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 성취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정현정, 문혁준, 2011). 이처럼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학습영역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적 요소인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다면 학업성취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생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학생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가정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점은 학교의 학습환경을 통해서 교과학습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다양한 인종적 학생들을 공정하게 지도하며 그들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문화감응교수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업적 성공을 경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Irvine and Armento, 2001). 특히 문화감응교수법은 교사와 학생간의 협력, 협동, 호혜, 상호 책임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어 다양한 인종적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교수법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개인적·문화적 강점, 지적 능력의 관점에서 교육이 행해지므로 학업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Gay, 2015). 이러한 다문화교수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생간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Rosenthal and Jacobson, 1968). 이 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상류계층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기대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르게 말해서 사회계층이 낮은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적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생간 관계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덧붙여 학교 내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교사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이러한 관계성은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자아개념과 성취동기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등 사회구조의 모순된 조건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술한 내용처럼 다문화가정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국인 부모의 낮은 한국어 실력 및 문화차이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에 이러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자기조

절 학습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을 통해 주의집중력과 자율학습,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학업수행을 촉진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drzejewski, Davis, Bruening, and Poirier, 2016). 이처럼 자기조절학습전략은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Andrzejewski et al., 2016)로 다문화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Davis et al.(2014)은 소수학생(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구과학 수업에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활용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가 나타났다. 특히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성취가 되었고 반면에 백인 중산층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문화자본의 형태로 상류계층 자녀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Pelt(2008)의 연구에서도 주류민족 학생들과 상류계층의 학생들은 소수민족학생들과 하류계층의 학생들에 비해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 전략들은 하류층 학생들의 전략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elt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인종적 차이에서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이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정의 교육환경 취약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조절학습 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가정의 배경을 대변하는 변인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을 활용하고, 가정의 배경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요소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위와 같은 인적자본과 가정내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찰하지 못했다. 특히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윤남정, 신나나, 2014; 지효숙, 2008)이므로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영향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사기대와 같은 교사관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제 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초등학생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문주희, 백지수, 2012). 따라서 추후 폭넓은 표집 대상을 활용한 종단연구나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제에 맞는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운선. (2003). 사회과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습자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1(1), 175-194.
- 교육부(2017).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자료.
- 구인회, 김정은. (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곽수란. (2008). 학습과 학업성취 간의 인과관계 중단분석. **교육학연구**, 46(4), 1-26.
- 권미경, 이소연.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181.
- 김경근(1998).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8(2), 1-32.
- 김경식, 이현철. (2006).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부모, 교사, 교우 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중단적 관계 분석. **중등교육연구**, 58(1), 203-225.
- 김아영, 조영미. (2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과 동기변인들이 상대적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15(4), 121-138.
- 김수혜, 김경근. (2010). 세대 간 지위이동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 사교육 및 어학연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3), 1-26.
- 김종남, 임선아. (2015). **성취동기 교수-학습에서 성취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서울: 학지사.
- 김종환.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김주영. (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 성공귀인의 경로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문주희, 백지숙.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 박은주.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신건권 (2016). **석박사학의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Amos 23 통계적 따라하기 2판**. 서울: 청람.
- 안우환. (2007). 교사-학생 관계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8(3), 269-289.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귀순. (2017). 초등학교 시기 가정배경이자존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43-362.
- 오혜진. (2011).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알파결 집단과 일반 여학생 집단 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용. (1992). **아동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버지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진이. (2010).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2), 35-42.
- 윤남정, 신나나.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가 아동의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 영향. **한국아동학회**, 35(3), 157-176.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경, 도현심.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진숙. (2002).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숙. (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연구보고 서울연 2015-PR-29). 서울: 서울연구원.
- 박은진. (2011). **부모 양육태도 및 교사 태도와 아동 성취동기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찬열. (2008).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7(2), 141-159.
- 전성연·최병연. (1999). **학습동기**. 서울: 학지사
- 정원식. (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정현정, 문혁준. (2011).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어머니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학회지**, 29(5), 107-119.
- 조영란. (1993). **부부갈등과 자녀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 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16(2), 25-41.
- 지효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취동기 및 자아존중감 관계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1(0), 75-96.
- 최경영, 최은영.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태도 및 교사의 지적 관심. **생활과학논총연구**, 14(2), 1-17.
- 최진아, 이숙. (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 **생활과학연구**, 6, 1-8.
- 통계청.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한유미. (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홍성훈. (2008).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중학생의 학습태도와 영어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56(2), 197-220.
- 황혜정. (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Andrzejewski, C.E, Davis, H.A., Bruening, P.S., & Poirier, R.R. (2016). Can a self-regulated strategy intervention close the achievement gap? Exploring a classroom-based intervention in 9th grade earth science. *Learning Individual Differences*, 49, 85-99.
- Coleman, J.S., Camplbe, E.Q., Hobson, C.J., McPartland, J., Mood, A., Weinfield, F.D. & York, R.D.(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avis H,A, Mei-Lin Chang, Andrzejewski C,E, Poirier R,R. (2010). Examining behavioral, relational, and cognitive engagement in smaller learning communities: A case study of reform in one suburban district.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1(4), 345-401.
- Gay, G. (2015). Teaching To and Through Cultural Diversity. *Curriculum Inquiry*, 43(1), 48-70.

- Irvine, J.J., Armento, B.J. (2001).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Lesson Planning for Elementary and Middle Grade*. New York: McGraw-Hill.
- Pelt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Carolina, USA.
- Raynor, J.O., & Ethin, E.E. (1982). *Motivation, career striving and aging*. New York: Hemisphere.
- Rist, R.C. (1970). Student social class and teacher expectations: The self- fulfilling prophecy in Ghetto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40(3), 411-451.
- Rosenthal, R. Jacobson, L.F. (1968). Teacher Expectation for the Disadvantaged, *Scientific American*, 218(4), 3-9.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윤지영* · 허은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고자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자료 중 2011, 2013, 2015년 3개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모형 검증 결과, 부모의 효능감이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 간 관계는 시간에 다른 안정성을 보였다. 한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다음 시점의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다음 시점의 학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순환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 간 관계가 종단적으로 상호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생 성장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방식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다문화청소년패널

I. 서론

다문화가정은 이제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그러나 ‘익숙함’이 곧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근접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인종 편견이 심한 나라라고 자인하는 여론 조사 결과(세계일보, 2017)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편견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은 적응 문제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가정적, 사회적 편견을 이기지 못해서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극단적인 경우 삶을 포기하려는 등의 뉴스를 접하곤 한다. 다문화가정의 곤란은 자녀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 특유의 순혈주의(純血主義) 문화는 다문화 자녀들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 대한상공회의소, ellie5900@naver.com

** 한국교육개발원, ejhur@kedi.re.kr

1)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인식하고(응답자의 80.6%), 내 자녀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낯설지 않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91.8%).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은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46.2%), 응답자의 76.2%는 스스로 한국은 인종 편견이 심한 나라라고 응답하였다(세계일보, 2017).

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부적응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김득희, 2008; 천호성, 박계숙, 2012).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기본생활습관 교육,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김득희, 2008), 민족적 정체성 혼란을 추가로 경험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다문화가정 교육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 중 중도에 학교를 포기한 학교 미등록률은 평균 43.8%로 심각한 수준이다(한겨레, 2012).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수치적으로만 성장했을 뿐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4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발표 등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왔다. 그러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수단적 사업(예: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이 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시도,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립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향후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문화가정의 부적응 현상에 대한 방치 또는 부분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예견한다.

다문화 자녀들의 부적응 현상은 위험한 외부 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을 키워줌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보호요인은 개인적 요인(예: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등), 가족 관련 요인(예: 가정의 긍정적 기능,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등),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예: 사회적지지, 또래와의 관계, 학교분위기 등)으로 구분된다(Dent & Cameron 2003; Friborg et al., 2003). 이 중에서 개인적 요인과 가족 관련 요인은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천적인 배경이다. 이들의 영향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학교부적응이나 이탈 같은 위험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데,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춘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질이나 가정에서의 부모 지원 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시간적으로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 조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가정 관련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설정하고, 이들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시간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연구문제 2 :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이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시간의 경과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3 :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4 : 학생의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II. 선행 연구 분석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학계에서도 지속되어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현황 파악 중심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이민경, 김정근, 2009).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변순용, 손경원, 2011; 오영훈, 이한나, 2014; 이동성, 김영천, 황철형, 2012;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 천호성, 박계숙, 2012; 최성보, 2011; 최충옥, 이룬, 2010). 이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외국인 어머니, 아동)과 주요 관련자(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 또는 사례연구를 진행하거나 인식 조사를 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가정 안팎에서 편견과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언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정서적 불안과 고립감에 시달린다(이동성, 김영천, 황철형, 2012). 특히 자녀중심적인 한국사회의 양육 특성과 사교육 문화는 외국인 부모에게 더욱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데(이선미, 이경아, 2010), 이러한 심리 상태는 자녀들에게 전이되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준다(변순용, 손경원, 2011; 이동성, 김영천, 황철형, 2012). 결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 부진 뿐 아니라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과 갈등 상태를 겪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다(변순용, 손경원, 2011;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 천호성, 박계숙, 2012;). 또한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을 어떻게 대할지 그 적절한 교육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초 환경 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었다(이동성, 김영천, 황철형, 2012).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는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최성보, 2011)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교사의 불분명한 입장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교사”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정한 교육자” 사이에서의 고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이동성, 김영천, 황철형, 2012).

이 연구들은 현황 파악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생, 그리고 담당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이해교육, 정체성 함양 교육, 지도자료 개발, 경제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직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 학급 정도 규모의 적은 표집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거나, 5명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 또는 실험연구, 또는 선언적 논지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추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선미와 이정아(2010)는 서울경기 지역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한상철(2012)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한상철(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시 및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적극적 대처 전략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높은 위험성이나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도 긍정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보상요인으로, 위험요인을 조절하거나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적 위험 행동 양상에서는 보호요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학교생활 적응 등 다른 변인에 대한 영향 관계는 또 다르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한상철, 2012).

연구자들이 주목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 그들의 학교 또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모두 일련의 관계를 가진 주요 요소들이다. 특히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최성보, 201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수적으로 충분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거니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정서적 상태가 학생의 자존감 형성,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구성원 상호 간 관련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정책적 전략을 구안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자료 중 2011년, 2013년, 2015년 3년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1>은 분석대상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805명, 8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 시, 도는 경기도가 384명, 서울이 182명으로 서울, 경기권에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출신 부모는 어머니가 1,561명으로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성으로, 95% 이상이 동거 중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가로는 아버지는 한국인이 주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일본, 필리핀, 중국 내 조선족과 한족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학생 특성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05	49.1
	여성	830	50.6
	시스템 결측값	4	.2
거주시도	서울	182	11.1
	부산	74	4.5
	대구	42	2.6
	인천	68	4.1
	광주	42	2.6
	대전	25	1.5
	울산	31	1.9
	경기	384	23.4
	강원	90	5.5
	충북	75	4.6
	충남	117	7.1
	전북	108	6.6
	전남	160	9.8
	경북	102	6.2
	경남	120	7.3
	시스템 결측값	4	.2
외국출신인 부모	아버지	69	4.2
	어머니	1561	95.2
	두 분 모두 외국인	5	.3
	시스템 결측값	4	.2
합계		1639	100.0

표 2.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성

부모 변수		어머니		아버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동거	동거	1635	99.8	1547	94.4
여부	시스템 결측값	4	.2	92	5.6
교육 수준	안 받았음	1	.1	6	.4
	초등학교	30	1.8	136	8.3
	중학교	136	8.3	278	17.0
	고등학교	703	42.9	797	48.6
	대학교(4년제 미만)	457	27.9	120	7.3
	대학교(4년제 이상)	284	17.3	181	11.0
	대학원 석사과정	18	1.1	22	1.3
	대학원 박사과정	6	.4	7	.4
	시스템 결측값	4	.2	92	5.6
출신 국가	한국	69	4.2	1476	90.1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7.6	5	.3
	중국(조선족)	323	19.7	1	.1
	베트남	42	2.6	2	.1
	필리핀	401	24.5	4	.2
	일본	528	32.2	22	1.3
	대만	7	.4	6	.4
	몽골	8	.5	0	.0
	태국	56	3.4	0	.0
	캄보디아	3	.2	0	.0
	방글라데시	0	.0	1	.1
	파키스탄	0	.0	7	.4
	우즈베키스탄	12	.7	1	.1
	러시아	17	1.0	0	.0
	캐나다	0	.0	3	.2
	인도	0	.0	3	.2
	인도네시아	9	.5	1	.1
	카자흐스탄	7	.4	0	0.0
	말레이시아	2	.1	0	0.0
	키르기스스탄	4	.2	0	0.0
	기타	22	1.3	15	.9
	시스템 결측값	4	.2	92	5.6
	합계	1639	100.0	1639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측정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자료 중 2011, 2013, 2015년의 3년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패널조사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안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배경특성과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및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이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효능감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박난숙, 오경자(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효능감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변인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3. 변인 별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2011년	2013년	2015년
부모의 효능감	-	9	.83	.84	.84
학생의 자아존중감	-	4	.75	.81	.81
학교적응	학습활동	5	.71	.74	.79
	교우관계	5	.67	.62	.63
	교사관계	5	.89	.90	.88
	전체	15	.88	.88	.88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효능감이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의 적응 간 관계를 검증코자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종단적인 접근으로써, 하나의 시점[t]에서 도출된 값을 이전 시점[t-1]으로 설명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홍세화·박민산·김원정, 2007).

$$x_i[t] = \gamma_0[t] + \gamma_1 x_i[t-1] + \gamma_2 y_i[t-1] + e_i[t]$$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은 SPSS 21.0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측치 처리를 위하여 추정방법을 FIML(full information

- 모형 3: 잠재변인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 b3, b4)를 각 시점별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4: 잠재변인 학교적응의 측정변인인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요인 적재치(c1, c2, c3)를 각 시점별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5: 잠재변인 부모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A)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6: 잠재변인 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B)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7: 잠재변인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C)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8: 잠재변인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9: 잠재변인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10: 잠재변인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11: 잠재변인 학교적응에 대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12: 잠재변인 부모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간 오차공분산(H)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13: 잠재변인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오차공분산(I)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14: 잠재변인 부모효능감과 학교적응 간 오차공분산(J)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1년차 평균 3.55, 3년차 평균 3.56, 5년차 평균 3.48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1년차 평균 3.13, 3년차 평균 3.22, 5년차 평균 3.18로 역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학교적응에서도 1년차 평균 3.05, 3년차 평균 3.06, 5년차 평균 3.04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2011년		2013년		2015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효능감	부모효능감1	3.61	.61	3.64	.59	3.59	.59
	부모효능감2	3.56	.66	3.58	.61	3.49	.64
	부모효능감3	3.48	.65	3.46	.59	3.38	.58
	전체	3.55	.55	3.56	.53	3.48	.53
자아존중 감	자아존중감1	3.16	.70	3.30	.62	3.28	.62
	자아존중감2	3.49	.60	3.46	.56	3.42	.56
	자아존중감3	2.60	.87	2.79	.83	2.73	.82
	자아존중감4	3.28	.69	3.32	.62	3.28	.63
	전체	3.13	.55	3.22	.53	3.18	.53
학교 적응	학교수업	2.93	.50	2.95	.50	2.87	.53
	교우관계	3.11	.47	3.14	.43	3.18	.40
	교사관계	3.10	.61	3.09	.60	3.09	.56
	전체	3.05	.44	3.06	.42	3.04	.41

표 5. 측정변수의 상관

변수		2011년			2013년			2015년		
		부모 효능감	학생 자존감	학교 적응	부모 효능감	학생 자존감	학교 적응	부모 효능감	학생 자존감	학교 적응
2011년	부모 효능감	1								
	학생 자존감	.03	1							
	학교 적응	.01	.54***	1						
2013년	부모 효능감	.51***	.04	.03	1					
	학생 자존감	.04	.41***	.34***	-.00	1				
	학교 적응	-.01	.28***	.37***	-.04	.56***	1			
2015년	부모 효능감	.45***	.01	.02	.51***	-.01	-.02	1		
	학생 자존감	.04	.33***	.29***	.06*	.46***	.31***	.05	1	
	학교 적응	.04	.27***	.35***	.03	.38***	.44***	.03	.57***	1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모형의 검증을 위해 변수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부모의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년차에 따른 값의 상관인 $r = .35 \sim .51$ 정도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학생

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총 14개 모형 중 최적을 모형을 찾기 위한 모형의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비교를 위한 χ^2 검증 실시와 더불어 χ^2 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홍세희, 2000), 대안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보고하였다. Cheung, & Rensvold(2002) 연구에 근거하여 CFI의 차이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표 6>과 같이 모형 1은 기저모형으로 모형 2와 χ^2 차이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형 2와 모형 3 역시 χ^2 차이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형 3과 모형 4 간 χ^2 차이검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CFI 차이 검증 결과, .01이 넘지 않아 시간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만족하였다.

경로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부모효능감 자기회귀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제약한 모형인 모형 5와 측정동일성 모형 4 간 χ^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회귀계수 변화량 제약모형인 모형 6과 모형 5간 χ^2 차이검증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인 모형 7과 모형 6간 χ^2 차이검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가정 확인을 위하여 경로동일성 모형 7과 부모효능감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의 동일화 제약모형인 모형 8간 χ^2 차이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부모효능감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 동일화 제약모형인 모형 9와 모형 8간 χ^2 차이검증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교적응의 교차회귀계수의 제약모형인 모형 10도 모형 9와 χ^2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학교적응에 대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의 제약모형인 모형 11과 모형 10도 χ^2 차이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은 만족하였다.

부모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간 오차공분산 동일화 제약모형인 모형 12와 교차회귀계수 경로동일성 모형인 모형 11 간 χ^2 차이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오차공분산 제약 모형인 모형 13과 모형 12, 부모효능감과 학교적응 간 오차공분산 제약모형인 모형 14와 모형 13도 χ^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모형인 모형 14의 대안적 적합도 지수 검증 결과, TLI 값은 .92, CFI는 .93, RMSE는 .047로 모형이 적합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간 관계를 설정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적합하고, 결과적으로 잠재변인 간 관계가 종단적 상호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6.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 (90%CI)	$\Delta\chi^2$	Δdf	ΔCFI
모형1	1795.73	382	.91	.93	.048 (.045-.050)	-	-	-
모형2	1815.94	386	.91	.93	.048 (.045-.050)	20.21***	4	0
모형3	1837.26	392	.91	.93	.047 (.045-.050)	21.32***	6	0
모형4	1848.35	396	.91	.93	.047 (.045-.050)	11.09***	4	0
모형5	1849.12	397	.91	.93	.047 (.045-.049)	0.77	1	0
모형6	1850.07	398	.92	.93	.047 (.045-.049)	0.95	1	0
모형7	1850.59	399	.92	.93	.047 (.045-.049)	0.52	1	0
모형8	1852.89	400	.92	.93	.047 (.045-.049)	2.30	1	0
모형9	1853.76	401	.92	.93	.047 (.045-.049)	0.87	1	0
모형10	1857.94	402	.92	.93	.047 (.045-.049)	4.18	1	0
모형11	1859.47	403	.92	.93	.047 (.045-.049)	1.53	1	0
모형12	1862.14	404	.92	.93	.047 (.045-.049)	2.67	1	0
모형13	1862.99	405	.92	.93	.047 (.045-.049)	0.85	1	0
모형14	1863.82	406	.92	.93	.047 (.045-.049)	0.83	1	0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시간에 따른 양상과 잠재변수 간 종단적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부모효능감이 다음 시점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61$, $p<.001$),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다음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eta=.44$, $p<.001$). 그리고 학생의 학교적응은 다음 시점의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49$, $p<.001$). 또한, 부모효능감은 학생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beta=.01$, N.S.), 한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04$, $p<.05$),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생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6$, $p<.05$). 이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느끼는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부모효능감1->부모효능감2	.61***(.02)	.62
부모효능감2->부모효능감3	.61***(.02)	.61
학생의 자존감1->학생의 자존감2	.44***(.03)	.44
학생의 자존감2->학생의 자존감3	.44***(.03)	.43
학생의 학교적응1->학생의 학교적응2	.49***(.03)	.50
학생의 학교적응2->학생의 학교적응3	.49***(.03)	.53
부모효능감1-> 학생의 자존감2	.04*(.02)	.04
부모효능감1->학생의 학교적응2	.01(.02)	.01
학생의 자존감1-> 학생의 학교적응2	.06*(.03)	.06
학생의 학교적응1->학생의 자존감2	.11**(.03)	.10
부모효능감2-> 학생의 자존감3	.04*(.02)	.04
부모효능감2->학생의 학교적응3	.01(.02)	.01
학생의 자존감2-> 학생의 학교적응3	.06*(.03)	.07
학생의 학교적응2->학생의 자존감3	.11**(.03)	.0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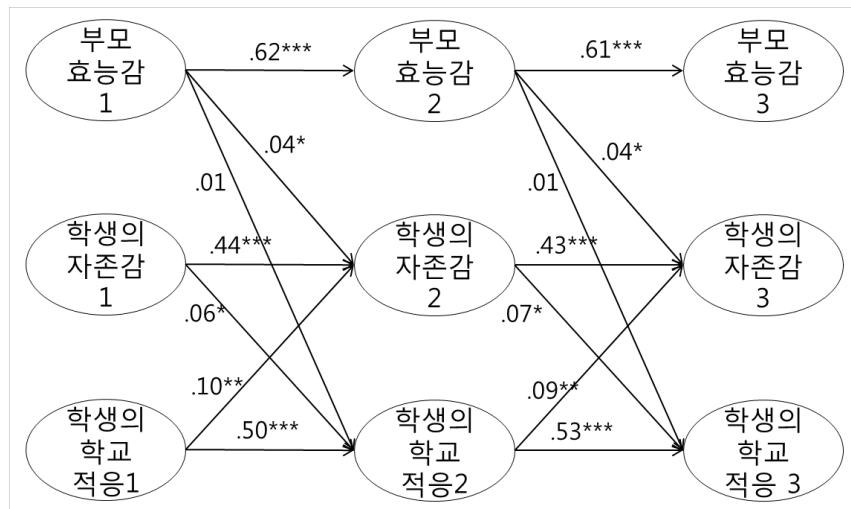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자료 중 2011, 2013, 2015년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효능감이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검증 결과, 부모의 효능감이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양상을 보

였다. 그리고 한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다음 시점의 다문화 학생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생활적응은 다시 학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순환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가 종단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효능감과 건강한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그들의 부모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적인 배경이다. 그들이 성장하여 학교 또는 사회 속의 다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가정이 주는 영향력은 분리시킬 수 없다.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란 가족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모국(母國)의 작은 버전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 대상이 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연령대이므로, 특히 외국인 부모(주로 어머니)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실제적 곤란함을 완화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고취시킬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즉, 중도 이탈, 또래 관계, 교사와의 소통, 학업 성취, 자아존중감 형성 등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부적응 현상들은 학교 안에서의 분절된 처치로는 단기적 효과만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효능감이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는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모두 고려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의 정책은 한국문화이해와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1차원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변순용, 손경원, 2011).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효능감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적응 정책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동등한 한국 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세부 과제로 포함된 것(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이나 ‘블라인드 채용’²⁾을 2017년 하반기 공공 부문에 도입한 것은 다문화가정이 겪었던 소외의 악순환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확립과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다문화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고, 학교 적응은 다음 시점의 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순환적 인과 관계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못지않게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직자가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구인자가 인권 침해를 하거나 성희롱,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사회적 신분이라는 표현으로는 학벌, 출신지역, 다문화가정 등 가정사까지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또래 학생들 간 끊임없는 교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협동을 수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인종 간의 협동 활동이 다문화교육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Allport(1954)의 접촉 가설에 근거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학교 내 협동적인 방식의 인종 간 접촉이 그들 간의 문화 형성(인종 간 우정, 태도, 행동)과 학업성취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Aronson & Gronzalez, 1988; Slavishn, 2001, 최충옥, 이룬, 2010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서로 간 조화롭게 인식하는 문화가 저절로 실현될 수는 없으며, 학생들의 접촉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을 구성해주는 교사의 구조화된 개입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Cohen & Roper, 1972, 최충옥, 이룬, 2010에서 재인용).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일반 가정 자녀들과 똑같이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등한 모둠원으로서 과제에 대한 적절한 몫을 분담하도록 하면, 다수의 학생들은 배려와 협동을 통한 공동체 정신을 체험하게 되고,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은 긍정적인 소속감과 성취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최충옥 외, 2010).

구체적으로는 서로 간 차이를 인식하되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감성 교육부터, 또래 모둠,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모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및 수업 이외의 활동들을 기획, 운영해야 할 수 있겠다. 또한 타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학교 내 행사들이 오히려 차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적 경험의 기회로 수렴되도록 각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전호성, 박계숙, 2012)는 의견은 그들이 자신의 태생적 조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또는 소외 현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 조치에서 학생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방식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효능감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 적응의 관계가 5년간(2011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2013년 초등학교 6학년 대상, 2015년 중학교 2학년 대상) 종단적으로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영향 관계가 학교급에 걸쳐 연계된 것을 확인한 바, 다문화 학생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정서적 안정성, 대내외적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교육적 관리는 매 학년의 담당 교사 개인적 업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이 달라져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가능할 때 국가와 학교, 학급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구안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득희(2008). **결혼이민가정 아동의 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갈등 및 아동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병상(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동기, 인지, 행동조절전략의 종단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291-310.
- 박난숙, 오경자(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5-248.
- 변순용, 손경원(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도덕적 실태 분석과 다문화적 덕목의 필요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6, 137-166.
- 세계일보(2017.07.16.). [김현주의 일상 토크] '다문화 사회'의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차별 경계 여전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11003524>(검색일: 2017.07.21.)
- 양계민(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영훈, 이한나(2014).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를 통한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국립청소년수련원 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143-172
- 이동성, 김영천, 황철형(2012).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삶과 교육: 생애사적 목소리의 재구성. **다문화교육**, 5(1), 137-154.
- 이민정, 김정근(2009). 이주 근로자가정 청소년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연구**, 19(2), 107-132.
-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26, 239-258.
- 이선미, 이정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성희, 윤지영(2017).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61-480.
- 천호성, 박계숙(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 최성보(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4(2), 105-130.
- 최충욱, 모경환, 김연권, 박성혁, 오은순, 한용택, 임은미, 우희숙, 이수미, 임정수(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 경기: 양서원.
- 최충욱, 이륜(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도 차이와 다문화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다문화교육**, 1(3), 93-114.
- 한겨레(2012.08.15.). **다문화가정 자녀 10명 중 4명은 학업 중도 포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7325.html>(검색일: 2017.07.2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39-25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학회지**, 21(1), 129-143.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Dent, R. J., & Cameron, R. J. S.(2003). Developing resilience in children who are in public care: the educational psychology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19(1), 3-19.

Friborg, O., Hjemdal, O., Rosenvinge, J. H., & Martunussen, M.(2003). A new rating scale for adult resilience: what are the central protective resources behind healthy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12(2), 65-76.



제 ② 주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Ⅱ

1.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2.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3.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
4.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및 성차 비교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용한* · 이신동**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1~5차년도 학생 및 학부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서의 발달 양상과 초-중 전환기효과에 대해 탐색하였다. 전체 표집된 학생 1,639명 중에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 변인을 모두 갖고 있는 1,034명으로부터의 자료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초기값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취목표와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은 지지가 공통적인 예측 요인이었다. 둘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변화율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취목표, 진학포부, 부모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변인에서의 변화량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요인이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나타나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의 전환기효과에 대해서는 중1 시기의 성취목표, 일반자아개념, 교사지지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예측 변인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성취목표와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초기값, 변화율, 전환기효과 모두에 있어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학업성취도

I. 서론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청소년들은 급격한 개인적 변화와 더불어 초등학교와는 많은 면에서 다른 중학교의 새로운 학교환경에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초등학교-중학교 전환기라는 격변의 시기를 큰 문제없이 잘 헤쳐 나가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 시기 적응문제로 인해 학업실패 및 중도이탈 등을 학업실패 및 중도이탈 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경험한다(유순화, 2008; Eccles 외, 1993). 또한 이러한 전환기 학생들이 주로 겪는 학교적응에서의 문제는 학업성적 등 인지적 측면, 자아개념·유능감·흥미·학업동기 등 정의적 측면, 가족관계·또래관계·교사관계 등의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윤채영, 김정섭, 2010; 이예진, 2014).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ypark@cnu.ac.kr

**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초기 청소년들은 자율성 및 자기결정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나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교 환경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 시기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통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초기청소년들의 자율성 욕구를 억제한다(유순화, 2008). 또한, 중학교 시기의 초기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와 비교하여 교사들이 개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덜 하며 교사-학생간 관계가 덜 긍정적이라고 인식한다. 수업과 관련하여서도 중학교의 수업은 전체 학급단위 수업이 주를 이루으로써 소집단 활동이 덜 이루어지며, 학교성적 및 사회적 비교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

한편, 초-중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사춘기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더불어 초등학교와는 다른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전환기 적응-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이중으로 클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희훈과 오성배(2014)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으며,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더욱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문화 배경이라는 개인적 측면과 초-중 전환기라는 상황적 측면이 이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다문화교육 경험 등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에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4부터 중3에 이르는 시기동안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의 발달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서의 전환기 효과(transition effect)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갖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발달 및 전환기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1~5차년도 학생 및 학부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반복 수집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표집된 학생의 수는 1,639명이었다.

이 중에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학생 및 배경 변인을 모두 갖고 있는 1,034명으로부터의 자료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전체 1,034명 중 48.8%(505명)은 남학생이었으며, 51.2%(529명)은 여학생이었다. 분석에서 제거된 605명의 학생들은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과 주요 연구변인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모두 외국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이 35.5%(367명)로 제일 많았으며, 필리핀 26.5%(274명), 중국 조선족 19.4%(201명), 중국 한족 및 기타 민족 7%(72명) 등의 순이었고 그 외에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2.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학생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변인들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초점이 되는 두 가지 종속변인에는 학교적응(1-4점, 15문항, Cronbach's $\alpha = .83$)과 학업성취도(1-5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문항, $\alpha = .73$)가 포함되었다. 학생에게 실시된 설문에 기초하여 얻어진 학생 변인으로는 학생의 성별(0-남/1-여, 1문항), 한국어능력(1-4점, 4문항, $\alpha = .91$), 국가정체성(1-4점, 4문항, $\alpha = .78$), 외국부모국가에 대한 수용태도(1-4점, 5문항, $\alpha = .84$), 성취목표(1-4점, 7문항, $\alpha = .86$), 진학포부수준(1-5점, 1문항), 일반자아개념(1-4점, 4문항, $\alpha = .75$), 신체자아개념(1-4점, 6문항, $\alpha = .53$), 자아탄력성(1-4점, 14문항, $\alpha = .89$), 행복감(1-4점, 3문항, $\alpha = .81$)이 포함되었으며, 배경 변인으로는 학생설문으로부터의 가족건강성(1-4점, 7문항, $\alpha = .92$), 부모지지(1-4점, 8문항, $\alpha = .60$), 친구지지(1-5점, 7문항, $\alpha = .95$), 교사지지(1-5점, 6문항, $\alpha = .94$), 지역사회지지(1-4점, 6문항, $\alpha = .72$) 변인과 학부모설문지로부터의 월평균가구소득(단위: 백만원, 1문항), 학부모가 지각한 가정형편(1-5점, 1문항), 어머니의 한국생활적응(1-5점, 8문항, $\alpha = .8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1-5점, 9문항, $\alpha = .79$), 자녀와의 의사소통(1-4점, 1문항) 변인이 포함되었다.

각 변인 중에서 성별과 월평균가구소득은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월평균가구소득은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5개년 응답값의 평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머지 변인들은 1차년도 초등 4학년 때 수집된 것을 '초기값', 5차년도 값에서 1차년도 값을 뺀 것을 4로 나눈 값을 '평균변화량', 4차년도인 중학교 1학년때 수집되는 것을 '전환기값'으로 명명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층성장모형 분석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의 초기값, 변화율, 전환기효과 어느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국가정체성, 외국부모국가에 대한 수용태도, 학부모가 지각한 가정형편, 어머니의 생활적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LM; Raudenbush & Bryk, 2002)에 기초한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른 전환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인 선형 성장모형에 덧붙여 초등학교 시기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지표값을 0으로 하고 중학교 시기 1, 2학년에 대한 지표값을 1로 코딩한 전환기 변수를 1수준 모형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 1수준: $Y_{ti} = \pi_{0i} + \pi_{1i} (\text{학년})_{ti} + \pi_{2i} (\text{전환기})_{ti} + e_{ti}$
- 2수준: 초기값 $\pi_{0i} = \beta_{0i} + \beta_{01} \cdot X_{1i} + \dots + \beta_{0ij} \cdot X_{ij} + r_{0i}$
 변화율 $\pi_{1i} = \beta_{1i} + \beta_{11} \cdot Z_{1i} + \dots + \beta_{1ij} \cdot Z_{ij} + r_{1i}$
 전환기효과 $\pi_{2i} = \beta_{2i} + \beta_{21} \cdot Q_{1i} + \dots + \beta_{2ij} \cdot Q_{ij} + r_{2i}$

위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모형1은 기초모형으로서 2수준에는 어떤 예측변인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모형2는 학생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예측변인을 포함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모형3은 모형2에 추가적으로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사회 등의 배경적 요소를 예측변인으로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및 상관

〈표 1〉은 주요 연구변인의 1차년도 초기값(초등 4학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더불어 동일 변인의 5개년 평균변화량 간의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연구대상 학생들의 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의 학교적응 정도는 4점 척도(1-4점) 상에서 평균 3.04로 비교적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취도는 5점 척도(1-5점) 상에서 평균 3.38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더불어 주요 연구변인의 초기값은 학생들의 이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량과는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어렸을 때 이미 긍정적인 심리 및 가정 환경을 갖고 있던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후 변화량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에서는 주요 연구변인의 5개년 평균변화량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때의 전환기값 간의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변화량의 전체 평균은 각각 0.00, -0.07로 학생들 전체적으로는 학교적응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학업성취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평균변화량과 전환기값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는데, 개별 변인의 평균 변화량과 전환기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전환기의 학교적응은 다른 연구변인들의 평균변화량과 전반적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나 변화량이 클수록 학교적응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환기 학교적응은 자아탄력성 변화량($r=.16$)과 성취목표 변화량($r=.12$)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학업성취 전환기 값의 경우 성별($r=-.11$), 일반자아개념 변화량($r=.07$), 어머니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변화량($r=-.07$), 학교적응 변화량($r=.09$), 학업성취도 변화량($r=.25$)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표 3〉에서는 주요 연구변인의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전환기값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초등 4학년때인 1차년도 초기값 간의 상관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앞의 〈표 1〉 초등학교 4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적응의 평균은 3.05로 4점 척도상에서 비교적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14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전환기값과 초기값 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때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과 환경에 대한 지각이 중학교 1학년때에도 대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환기의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초기값 변인은 학교적응($r=.37$), 교사지지($r=.31$), 친구지지($r=.30$), 일반자아개념($r=.29$) 등의 순이었으며, 전환기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준 초기값 변인은 학업성취도($r=.42$), 학교적응($r=.29$), 성취목표($r=.28$), 일반자아개념($r=.25$) 등의 순이었다.

표 1

주요 연구변인 초기값(1차년도)의 기초통계치 및 5개년 평균 변화량과의 상관 (N=1,034)

초기값 (1차년도 초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 성별(여)	1	.01	.04	.02	.03	.03	.04	-.01	.03	.11***	.09**	.11***	-.08*	.00	-.04	.00	.12***	-.03	
b. 언어능력	.01	1	-.66***	-.06	-.03	-.14***	-.09**	-.14***	-.08*	-.07*	-.10**	-.10**	-.04	-.05	.04	-.04	-.10***	-.14***	
c. 성취목표	-.07*	-.04	1	-.64***	-.03	-.30***	-.20***	-.16***	-.20***	-.09**	-.18***	-.10**	-.07*	.02	.04	.03	-.23***	-.21**	
d. 진학포부	-.01	.01	-.01	1	-.68***	-.03	-.06	-.07*	-.02	-.06*	.00	-.03	.00	.02	.02	-.01	-.23***	-.22***	
e. 일반자아개념	-.08**	-.11***	-.24***	-.02	1	-.59***	-.28***	-.21***	-.18***	-.11***	-.19***	-.12***	-.09**	-.03	-.01	.03	-.22***	-.17***	
f. 신체자아개념	-.08*	-.03	-.18***	-.04	-.28***	1	-.59***	-.17***	-.21***	-.14***	-.20***	-.13***	-.06	-.05	.01	.01	-.20***	-.14***	
g. 자아탄력성	-.09**	-.12***	-.28***	-.08*	-.28***	-.21***	1	-.58***	-.23***	-.13***	-.28***	-.16***	-.16***	-.01	.01	.03	-.30***	-.22***	
h. 행복감	-.09**	-.10**	-.17***	-.06*	-.22***	-.18***	-.26***	1	-.58***	-.21***	-.19***	-.15***	-.16***	.01	-.08*	.03	-.25***	-.14***	
i. 가족긴장성	-.08*	-.07*	-.15***	.00	-.19***	-.18***	-.21***	-.18***	1	-.21***	-.21***	-.16***	-.11***	.03	-.06	.10**	-.21***	-.14***	
j. 부모지지	-.06*	-.08**	-.12***	-.11***	-.14***	-.15***	-.13***	-.13***	-.17***	1	-.62***	-.14***	-.03	.02	-.06*	-.01	-.17***	-.14***	
k. 친구지지	-.08*	-.09**	-.19***	-.01	-.23***	-.26***	-.32***	-.24***	-.26***	-.18***	1	-.67***	-.13***	.03	.05	-.02	-.35***	-.23***	
l. 교사지지	-.13***	-.07*	-.12***	-.05	-.16***	-.16***	-.22***	-.15***	-.17***	-.12***	-.25***	1	-.64***	.00	.00	.01	-.35***	-.15***	
m. 지역사회지지	-.02	-.06	-.12***	.00	-.10***	-.06	-.20***	-.20***	-.12***	.01	-.15***	-.11***	-.69***	.01	-.02	.02	-.15***	-.06*	
n. 모-가구월수입	.00	.04	-.01	.00	.03	.02	.04	-.01	-.01	-.03	-.01	.04	-.01	1	-.14***	.13***	.00	.00	
o. 모-생활적응	.03	.04	-.04	-.01	-.05	.00	-.02	.01	.01	-.05	-.02	.01	.02	-.03	-.52**	.01	.01	-.06	
p. 모-자녀소통	.04	.01	-.01	-.03	.03	.02	.03	.02	.08**	.00	.00	.03	.00	.00	.05	-.59	.01	-.02	
q. 학교적응	-.11***	-.10**	-.23***	-.06*	-.26***	-.23***	-.36***	-.29***	-.25***	-.18***	-.38***	-.36***	-.18***	.02	.01	.02	-.61***	-.26***	
r. 학업성취도	-.03	-.14***	-.16***	-.02	-.12***	-.11***	-.16***	-.10**	-.10**	-.04	-.18***	-.14***	-.06	-.02	-.02	.00	-.18***	-.51***	
평균	.051	.359	2.89	3.76	3.14	2.93	2.90	3.25	3.20	3.21	3.81	3.68	2.65	2.28	2.59	3.32	3.04	3.38	
표준편차	.050	.053	.051	.054	.055	.050	.046	.058	.056	.050	.088	.089	.036	.098	.075	.059	.044	.068	

* $p < .05$; ** $p < .01$; *** $p < .001$

Note. 'a. 성별(0:남, 1:여)'은 초기값만을 사용하였으며, 'n. 모-가구월수입'은 5개년 평균 월수입만을 사용하였음.

표 2

주요 연구변인 5개년 평균 변화량의 기초통계치 및 전환기(4차년도)과의 상관 ($N=1,034$)

	변화량 (5개년 평균 변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성별	1	.01	-.07*	-.01	-.08**	-.08*	-.10**	-.09**	-.08*	-.06*	-.08*	-.13**	-.02	.00	.03	.04	-.11***	-.03
b.언어능력		1	.00	-.01	.05	.01	.01	.01	.05	-.03	.06*	.03	.03	.00	-.02	-.01	.03	-.03
c.성취목표			1	.17***	.08*	.02	.07*	-.02	.05	.00	.02	.04	-.01	-.01	.04	.02	.10**	.10**
d.진학포부				1	.08**	-.07*	-.07*	-.04	-.04	-.02	-.07*	-.05	-.07*	-.02	-.02	-.05	-.06*	.05
e.일반자아개념					1	.13***	.09**	.04	.07*	.06	.05	.05	-.02	.01	.04	.01	.09**	.10**
f.신체자아개념						1	.17***	.13***	.11***	.09**	.06	.04	.01	-.02	.09**	.02	.10**	.09**
g.자아탄력성							1	.17***	.12***	.08*	.09**	.06	.02	-.01	.07*	.01	.11***	.05
h.행복감								1	.20***	.16***	.14***	.11***	.08*	-.04	.01	-.03	.15***	.07*
i.가족건강성									1	.12**	.06	.08**	.07*	.18***	.11***	.03	.08*	.07*
j.부모지지										1	.08*	.01	.00	.02	.12***	.11***	.02	.05
k.친구지지											1	.05	.04	-.04	.06	.00	.07*	.01
l.교사지지												1	.08*	-.02	.11***	.02	.13***	.08*
m.지역사회지지													1	.07*	.08**	.00	.09**	.09**
n.모-가구월수입														1	-.03	.00	.02	-.02
o.모-생활적응															1	.18***	.00	.05
p.모-자녀소통																1	.05	.01
q.학교적응																	1	.14***
r.학업성취도																		1
평균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Note. 'a.성별(0:남, 1:여)'은 초기값만을 사용하였으며, 'n.모-가구월수입'은 5개년 평균 월수입만을 사용하였음.

표 3

주요 연구변인 전환기값(4차년도)의 기초통계치 및 초기값(1차년도)과의 상관 (N=1,034)

전환기값 (4차년도 중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성별	1	-.02	-.02	.01	-.04	-.04	-.07*	-.13***	-.02	.09**	.05	.03	-.08**	.00	.01	.02	-.02	-.11**
b.언어능력	.01	.25***	.12***	.11***	.13***	.05	.08*	.06	.06*	.11**	.13***	.07*	.01	.04	.05	.09**	.08**	.11***
c.성취목표	.05	.13***	.29***	.18***	.25***	.20***	.21***	.10**	.21***	.16***	.20***	.19***	.03	-.01	-.03	-.01	.25***	.28***
d.진학포부	.02	.13***	.15***	.22***	.16***	.13***	.15***	.11**	.09**	.15***	.16***	.14***	.02	.00	.02	-.01	.18***	.21***
e.일반자아개념	.03	.12***	.24***	.13***	.35***	.24***	.23***	.17***	.19***	.17***	.28***	.22***	.05	.03	-.06	-.01	.29***	.25***
f.신체자아개념	.03	.07*	.21***	.15***	.26***	.33***	.18***	.15***	.20***	.20***	.21***	.22***	.08**	.02	-.05	-.01	.25***	.19***
g.자아탄력성	.04	.12***	.26***	.15***	.25***	.20***	.33***	.15***	.23***	.19***	.25***	.18***	.08**	.04	-.02	-.02	.26***	.20***
h.행복감	-.01	.12***	.21***	.07*	.29***	.24***	.25***	.25***	.24***	.20***	.27***	.23***	.11***	-.01	.02	-.05	.25***	.17***
i.가족건강성	.03	.07	.19***	.13***	.22**	.15***	.16***	.15***	.33***	.25***	.21***	.20***	.08*	-.01	.04	-.04	.28***	.20***
j.부모지지	.11***	.16***	.18***	.12***	.19***	.12***	.11***	.08*	.17***	.30***	.18***	.15***	.01	-.03	.02	-.02	.23***	.23***
k.친구지지	.09**	.11***	.22***	.14***	.24***	.20***	.22***	.19***	.22***	.19***	.34***	.22***	.08*	-.01	.00	-.04	.30***	.20***
l.교사지지	.11***	.07*	.21***	.12***	.23***	.22***	.23***	.18***	.17***	.20***	.25***	.29***	.10**	.04	.00	-.05	.31***	.21***
m.지역사회지지	-.07*	-.01	.08*	.04	.11***	.15***	.13***	.13***	.08**	.02	.11***	.11***	.20***	-.01	.02	-.01	.11***	.07*
n.모-가족월수입	.00	.00	-.01	-.02	.01	-.03	-.01	-.04	-.01	-.04	.00	.02	.04	1	-.14***	.14***	-.03	-.03
o.모-생활적응	-.04	.03	-.02	.07*	-.04	-.09**	-.02	-.02	.02	-.04	-.02	-.01	-.01	-.14**	.46***	-.09**	.00	.04
p.모-자녀소통	.00	.02	-.05	.07*	.02	.03	.00	.01	-.02	.01	.02	.04	-.04	.13***	-.14***	.36***	.01	.03
q.학교적응	.12***	.15***	.28***	.18***	.29***	.22***	.25***	.18***	.26***	.26***	.27***	.24***	.10**	.00	.02	-.05	.37***	.29***
r.학업성취도	-.03	.23***	.28***	.19***	.24***	.13***	.18***	.10**	.13***	.20***	.21***	.19***	-.01	.00	-.01	-.02	.28***	.42***
평균	0.51	3.74	3.03	3.92	3.21	3.00	3.05	3.23	3.19	3.25	4.12	3.77	2.59	2.28	2.47	3.28	3.05	3.14
표준편차	0.50	0.43	0.48	0.52	0.53	0.50	0.46	0.60	0.57	0.48	0.78	0.84	0.33	0.98	0.79	0.60	0.41	0.72

* $p < .05$; ** $p < .01$; *** $p < .001$

Note. 'a.성별(0:남, 1:여)'은 초기값만을 사용하였으며, 'n.모-가구월수입'은 5개년 평균 월수입만을 사용하였음.

2. 전환기 효과 검증을 위한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한 기초모형(모형1)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의 학교적응에 대한 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의 초기값 평균이 3.035였으며, 학교적응 변화율의 평균(0.008)과 전환기효과 평균(-0.0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05$)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는 학년에 지남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도 평균에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학교적응의 변화율이나 전환기효과에서 개인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학생들 전체 평균적으로는 변화율이나 전환기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간에는 변화율과 전환기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업성취도의 초기값 평균은 3.390이었고 변화율 평균은 0.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환기효과 평균의 경우 -0.283 ($t=-10.98$, $p<.001$)로 유의하였다. 즉,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지각하는 학업성취도는 평균적으로 5점 척도 상에서 0.28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발달에서 초-중 전환기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1: 기초모형					
	종속변인: 학교적응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B	SE	t	B	SE	t
초기값 절편	3.035	0.013	239.36***	3.390	0.020	169.60***
변화율 절편	0.008	0.006	1.21	0.003	0.009	0.36
전환기효과 절편	-0.011	0.017	-0.76	-0.283	0.026	-10.98***
무선효과	Var	df	χ^2	Var	df	χ^2
2수준						
초기값	0.104	1027	2747.71***	0.263	1027	2814.81***
변화율	0.007	1027	1215.18***	0.006	1027	1062.19
전환기효과	0.030	1027	1126.46*	0.047	1027	1061.14
1수준	0.085			0.205		

* $p<.05$; ** $p<.01$; *** $p<.001$

<표 5>, <표 6>, <표 7>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학생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2에 대한 분석결과와 학생변인 및 배경변인을 함께 검증한 모형3의 분석결과가 나란히 제시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예측변인이 많은 관계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의

초기값에 대한 예측변인 분석결과는 <표 5>에, 변화율(기울기)에 대한 예측변인 분석결과는 <표 6>에, 전환기효과에 대한 예측변인 분석결과는 <표 7>에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표 5>의 왼쪽에 제시된 결과에서 어떤 학생변인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초기값(1차년도 초4)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연구변인의 초기값인 4학년때 조사값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모형2),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085$, $t=4.62$, $p<.001$). 또한 성취목표($B=0.122$), 진학포부($B=0.042$), 일반자아개념($B=0.086$), 신체자아개념($B=0.074$), 자아탄력성($B=0.253$), 행복감($B=0.139$)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초기 학교적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1$). 한편, 모형3에서 추가적으로 배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가족건강성($B=0.048$), 부모지지($B=0.061$), 친구지지($B=0.093$), 교사지지($B=0.140$)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p<.05$). 또한, 모형3에서 배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2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던 진학포부와 신체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5>의 오른쪽에 제시된 ‘학업성취도’ 관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2의 학생변인 중에서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학교적응과는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0.088$, $t=2.64$, $p<.01$). 또한 언어능력($B=0.215$), 성취목표($B=0.313$), 진학포부($B=0.152$), 일반자아개념($B=0.133$), 자아탄력성($B=0.178$)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초기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1$). 모형3에서 투입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부모지지($B=0.165$), 친구지지($B=0.110$), 교사지지($B=0.079$)가 학업성취 초기값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이러한 배경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모형2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던 일반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취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다.

<표 6>에서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율(기울기)에 대한 예측변인을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예측변인으로는 학생변인과 배경변인의 초기값(1차년도 초4)과 5개년 평균변화량([5차년도값-1차년도값]/4)을 포함하였다. 먼저 <표 6>의 왼쪽에 제시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변화율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2의 학생변인 중에서는 성별($B=-0.030$), 성취목표 변화량($B=0.112$), 진학포부 초기값($B=0.018$) 및 변화량($B=0.091$), 일반자아개념 변화량($B=0.053$), 자아탄력성 초기값($B=-0.036$) 및 변화량($B=0.215$), 행복감 초기값($B=-0.016$) 및 변화량($B=0.098$)이 학교적응 변화율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p<.05$). 모형3에서 투입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가족건강성 변화량($B=0.036$), 부모지지 변화량($B=0.077$), 친구지지 초기값($B=-0.016$) 및 변화량($B=0.036$), 교사지지 초기값($B=-0.010$) 및 변화량($B=0.111$), 지역사회지지 변화량($B=0.078$), 어머니의 자녀와의 소통 변화량($B=-0.026$)이 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p<.05$). 모형3에서 배경변인을 포함하였을 때 모형2에서 유의하였던 성별, 일반자아개념 변화량, 자아탄력성 초기값은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목표, 진학포부,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환경적으로도 가족건강성,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학교적응의 변화율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이전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한 것은 학생의 학교적응 변화율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렸을 때(초4)의 진학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변화율이 높았던 반면에, 다른 변인의 초기값(행복감, 친구지지, 교사지지)은 높을수록 이후 학교적응의 변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오른쪽에 제시된 학업성취도 변화율에 대한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모형2에서는 학생의 언어능력 변화량($B=0.153$), 성취목표 변화량($B=0.252$), 진학포부 초기값($B=0.049$) 및 변화량($B=0.230$), 일반자아개념 변화량($B=0.178$), 행복감 변화량($B=0.078$)은 학업성취도 변화율에 대한 유의한 정적 예측변인이었던 반면에, 신체자아개념 초기값($B=-0.038$)과 변화량($B=-0.107$), 자아탄력성 초기값($B=-0.046$)은 부적 예측변인이었다($p<.05$). 모형3에 투입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부모지지 변화량($B=0.136$), 교사지지 변화량($B=0.080$), 지역사회지지 변화량($B=0.122$)이 학업성취도 변화율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친구지지 초기값($B=-0.028$)과 어머니의 자녀와의 소통 변화량($B=-0.088$)은 학업성취도 변화율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p<.05$). 배경변인을 포함하였을 때 모형2에서 유의하였던 신체자아개념 초기값과 자아탄력성 초기값, 행복감 변화량은 학업성취도 변화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언어능력과 성취목표, 진학포부, 일반자아개념이 향상되고 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학업성취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자아개념의 향상, 초기의 높은 친구지지 수준, 어머니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가는 오히려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표 5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발달의 초기값(1차년도 초4)에 대한 예측 변인 분석

고정효과 (초기값)	종속변인: 학교적응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B	SE	t	B	SE	t	B	SE	t	B	SE	t
절편	0.675	0.103	6.53***	0.607	0.122	4.97***	0.149	0.197	0.76	0.083	0.248	0.34
성별(여)	0.085	0.018	4.62***	0.045	0.016	2.83**	-0.088	0.033	-2.64**	-0.133	0.033	-4.08***
언어능력_초	0.013	0.017	0.80	-0.004	0.015	-0.26	0.215	0.033	6.59***	0.192	0.033	5.83***
성취목표_초	0.122	0.024	5.05***	0.095	0.021	4.45***	0.313	0.046	6.82***	0.288	0.044	6.58***
진학포부_초	0.042	0.020	2.12*	0.026	0.016	1.61	0.152	0.035	4.40***	0.124	0.032	3.87***
일반자아개념_초	0.086	0.024	3.54**	0.041	0.020	2.03*	0.100	0.045	2.24**	0.054	0.044	1.24
신체자아개념_초	0.074	0.023	3.14**	0.003	0.021	0.16	0.069	0.046	1.52	0.006	0.044	0.14
자아탄력성_초	0.253	0.030	8.39***	0.127	0.026	4.82***	0.178	0.057	3.13**	0.091	0.057	1.60
행복감_초	0.139	0.020	6.94***	0.066	0.018	3.70***	0.028	0.039	0.73	-0.033	0.039	-0.86
가족건강성_초				0.048	0.022	2.13*				0.001	0.041	0.03
부모지지_초				0.061	0.019	3.25**				0.165	0.038	4.32***
친구지지_초				0.093	0.013	7.18***				0.110	0.025	4.31***
교사지지_초				0.140	0.011	12.42***				0.079	0.023	3.40**
지역사회지지_초				0.027	0.026	1.03				-0.063	0.051	-1.24
모-가구월수입				-0.009	0.011	-0.82				-0.009	0.016	-0.55
모-생활적응_초				0.005	0.011	0.45				0.038	0.020	1.84
모-자녀소통_초				0.000	0.013	0.03				0.007	0.027	0.26

* $p < .05$; ** $p < .01$; *** $p < .001$

Note. '변인명_초'는 해당 변인의 1차년도(초등 4학년) 조사값을 의미함.

표 6

학업적응 및 학업성취도 발달의 변화율에 대한 예측 변인 분석

고정효과 (변화율)	종속변인: 학교적응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종속변인: 학생변인					종속변인: 학생+배경 변인					종속변인: 학생변인					종속변인: 학생+배경 변인				
	B	SE	t	B	SE	t	B	SE	t	B	SE	t	B	SE	t					
절편	0.168	0.045	3.74***	0.153	0.052	2.92**	0.019	0.085	0.22	-0.004	0.115	-0.04	-0.004	0.115	-0.04					
성별(여)	-0.030	0.011	-2.60*	-0.021	0.011	-1.89	-0.010	0.018	-0.58	-0.003	0.018	-0.15	-0.003	0.018	-0.15					
언어능력_초	-0.001	0.006	-0.21	0.002	0.005	0.31	-0.019	0.013	-1.48	-0.017	0.013	-1.32	-0.017	0.013	-1.32					
언어능력_변	0.020	0.017	1.23	0.013	0.014	0.88	0.153	0.038	4.03***	0.148	0.038	3.89***	0.148	0.038	3.89***					
성취목표_초	0.004	0.009	0.43	-0.006	0.008	-0.71	0.004	0.019	0.23	0.000	0.019	-0.01	0.000	0.019	-0.01					
성취목표_변	0.112	0.024	4.62***	0.063	0.020	3.14**	0.252	0.054	4.65***	0.215	0.053	4.06***	0.215	0.053	4.06***					
진학포부_초	0.018	0.007	2.69**	0.016	0.006	2.61*	0.049	0.014	3.41**	0.045	0.014	3.16**	0.045	0.014	3.16**					
진학포부_변	0.091	0.016	5.69***	0.080	0.014	5.53***	0.230	0.040	5.79***	0.213	0.040	5.26***	0.213	0.040	5.26***					
일반자아개념_초	-0.001	0.009	-0.07	-0.005	0.008	-0.64	0.033	0.019	1.76	0.035	0.019	1.88	0.035	0.019	1.88					
일반자아개념_변	0.053	0.024	2.20*	0.004	0.019	0.19	0.178	0.050	3.57**	0.148	0.050	2.97**	0.148	0.050	2.97**					
신체자아개념_초	-0.015	0.009	-1.72	-0.003	0.008	-0.40	-0.038	0.019	-2.02*	-0.030	0.018	-1.64	-0.030	0.018	-1.64					
신체자아개념_변	-0.008	0.023	-0.34	-0.010	0.019	-0.54	-0.107	0.052	-2.05*	-0.116	0.051	-2.25*	-0.116	0.051	-2.25*					
자아탄력성_초	-0.036	0.011	-3.33**	-0.015	0.010	-1.46	-0.046	0.021	-2.21*	-0.022	0.021	-1.04	-0.022	0.021	-1.04					
자아탄력성_변	0.215	0.025	8.49***	0.114	0.022	5.22***	0.048	0.055	0.88	-0.024	0.055	-0.44	-0.024	0.055	-0.44					
행복감_초	-0.016	0.007	-2.30*	-0.017	0.006	-2.73**	-0.002	0.016	-0.13	-0.004	0.016	-0.25	-0.004	0.016	-0.25					
행복감_변	0.098	0.018	5.51***	0.043	0.016	2.67**	0.078	0.039	1.99*	0.044	0.040	1.10	0.044	0.040	1.10					
가족건강성_초				0.002	0.008	0.27				-0.009	0.017	-0.50	-0.009	0.017	-0.50					
가족건강성_변				0.036	0.018	2.01*				-0.006	0.048	-0.12	-0.006	0.048	-0.12					
부모지지_초				0.004	0.007	0.52				0.025	0.017	1.48	0.025	0.017	1.48					
부모지지_변				0.077	0.018	4.36***				0.136	0.046	2.95**	0.136	0.046	2.95**					
친구지지_초				-0.016	0.005	-3.33**				-0.028	0.011	-2.54*	-0.028	0.011	-2.54*					
친구지지_변				0.036	0.013	2.78**				0.007	0.034	0.22	0.007	0.034	0.22					
교사지지_초				-0.010	0.005	-2.15*				-0.001	0.010	-0.13	-0.001	0.010	-0.13					
교사지지_변				0.111	0.012	9.12***				0.080	0.029	2.76**	0.080	0.029	2.76**					
지역사회지지_초				0.003	0.010	0.25				0.026	0.022	1.18	0.026	0.022	1.18					
지역사회지지_변				0.078	0.021	3.77***				0.122	0.058	2.09*	0.122	0.058	2.09*					
모-가구월수입				0.012	0.006	1.89				-0.005	0.009	-0.51	-0.005	0.009	-0.51					
모-생활적응_초				0.002	0.004	0.61				-0.004	0.009	-0.40	-0.004	0.009	-0.40					
모-생활적응_변				0.010	0.011	0.89				0.030	0.029	1.03	0.030	0.029	1.03					
모-자녀소통_초				-0.004	0.005	-0.79				-0.013	0.011	-1.25	-0.013	0.011	-1.25					
모-자녀소통_변				-0.026	0.011	-2.34*				-0.088	0.030	-2.93**	-0.088	0.030	-2.93**					

* $p < .05$; ** $p < .01$; *** $p < .001$

Note. '변인명_초'는 해당 변인의 1차년도(초등 4학년) 조사값을 의미하며, '변인명_변'은 해당 변인의 5개년동안의 평균 변화량을 의미함.

표 7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발달에서 전환기효과에 대한 예측 변인 분석

고정효과 (전환기효과)	종속변인: 학교적응						종속변인: 학업성취도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모형2: 학생변인			모형3: 학생+배경 변인		
	B	SE	t	B	SE	t	B	SE	t	B	SE	t
절편	-1.101	0.112	-9.86***	-1.147	0.131	-8.79***	-1.156	0.221	-5.23***	-1.349	0.277	-4.87***
성별(여)	0.063	0.035	1.81	0.049	0.034	1.43	0.011	0.053	0.20	0.001	0.053	0.02
언어능력_전	0.032	0.016	2.06*	0.023	0.013	1.74	-0.019	0.033	-0.57	-0.033	0.032	-1.03
성취목표_전	0.099	0.019	5.08***	0.092	0.015	5.98***	0.169	0.041	4.11***	0.169	0.040	4.20***
진학포부_전	-0.014	0.016	-0.894	-0.016	0.013	-1.27	0.060	0.033	1.83	0.057	0.031	1.82
일반자아개념_전	0.067	0.020	3.313**	0.055	0.016	3.36**	0.124	0.043	2.90**	0.124	0.042	2.94**
신체자아개념_전	-0.010	0.020	-0.500	-0.012	0.016	-0.74	0.053	0.043	1.24	0.050	0.044	1.14
자아탄력성_전	0.079	0.024	3.29**	0.053	0.020	2.63**	-0.099	0.048	-2.06*	-0.134	0.047	-2.82**
행복감_전	0.062	0.017	3.61**	0.036	0.015	2.41*	-0.025	0.034	-0.75	-0.039	0.035	-1.13
가족건강성_전				0.007	0.015	0.45				-0.038	0.034	-1.11
부모지지_전				0.023	0.015	1.54				0.023	0.039	0.60
친구지지_전				-0.004	0.011	-0.37				0.009	0.025	0.34
교사지지_전				0.085	0.009	9.50***				0.055	0.023	2.37*
지역사회지지_전				0.014	0.021	0.69				0.046	0.051	0.90
모-가구월수입				-0.042	0.020	-2.12*				0.005	0.028	0.19
모-생활적응_전				-0.006	0.009	-0.74				0.023	0.022	1.05
모-자녀소통_전				0.004	0.010	0.36				0.014	0.025	0.55
무선표과	Var	df	χ^2	Var	df	χ^2	Var	df	χ^2	Var	df	χ^2
2수준												
초기값	0.028	1019	1461.01***	0.014	1011	1187.49***	0.142	1019	1977.17***	0.124	1011	1844.09***
변화를	0.002	1012	1029.33	0.003	997	1040.63	0.003	1012	995.92	0.002	997	982.66
전환기효과	0.041	1019	1163.15**	0.075	1011	1276.19***	0.074	1019	1084.56	0.081	1011	1087.50
1수준	0.081			0.073			0.202			0.201		

* $p < .05$; ** $p < .01$; *** $p < .001$

Note. '변인명_전'는 해당 변인의 조-중 전환기인 4차년도(중학교 1학년) 조사값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표 7>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나타나는 전환기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전환기효과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시기 조사값을 포함하였다. 먼저 <표 7>의 왼쪽에 제시된 학교적응의 전환기효과에 대한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모형2에서는 학생변인 중 언어능력($B=0.032$), 성취목표($B=0.099$), 일반자아개념($B=0.067$), 자아탄력성($B=0.079$), 행복감($B=0.062$)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효과는 작아 학교적응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모형3에 추가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중학교 첫 해에 지각한 교사지지가 클수록 전환기효과가 작았고($B=0.085$, $p<.001$), 가구월수입이 높을수록 학생이 경험하는 전환기효과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B=-0.042$, $p<.05$). 언어능력의 경우 배경변인 포함된 모형3에서는 학교적응의 전환기효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표 7>의 오른쪽에 제시된 학업성취도에서의 전환기효과와 관련하여 모형2의 학생변인에서는 성취목표($B=0.169$, $p<.001$)와 일반자아개념($B=0.124$, $p<.01$)이 높을수록 전환기효과는 유의하게 작아져서 중학교로 진학 후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반면, 자아탄력성($B=-0.099$, $p<.05$)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에서의 전환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3에 추가된 배경변인 중에서는 초·중 전환기에 교사지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성취도의 전환기효과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55$, $p<.05$).

IV. 논의

이상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1-5차년도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에서의 초기값과 변화율,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전환기효과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초등 4학년 때인 초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취목표와 더불어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은 지지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예측 요인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청소년 초기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성취목표와 같은 동기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부모, 교사, 또래 등 유의미한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돕고, 부모와 교사는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성취목표의 변화량, 진학포부의 초기값 및 변화량, 부모지지 변화량, 교사지지 변화량, 지역사회 지지 변화량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요인이었다. 앞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 초기값에 대한 예

측변인에 더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진학포부의 변화량이 긍정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이 시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진로교육을 통해 위축되지 않고 높은 포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지지에서 변화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에 들어서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좀 더 넓은 세계인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과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나타나는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의 전환기효과에 대해서는 전환기인 중1 시기의 성취목표, 일반자아개념, 교사지지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예측 변인이었다. 즉,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겪는 전환기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이 시기의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성취목표의 설정과 추구를 장려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주며, 특히 초등학교와는 다른 환경을 갖는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들에게 학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초기 값, 변화율, 전환기효과 등 모든 분석에서 항상 긍정적인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성취목표와 교사지지의 두 가지 변인이었다. 청소년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이들에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지지의 긍정적이고도 일관적인 효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발달 과정에 대해 주로 학생변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배경변인으로서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 변인의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예측변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의 변화율 및 전환기효과에서는 가정의 월평균수입이나 어머니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오히려 부적인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박희훈, 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 32(2), 35-57.
- 유순화(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윤채영, 김정섭(2010). 예방적 학습컨설팅이 전환기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효과. **중등교육연구**, 58(3), 381-408.
- 이예진(2014).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519-528.
- Eccles, J., Wigfield, A., Midgely, C., Reuman, D., MacIver, D., & Feldlaufer, H. (1993). Negative effects of traditional middle schools on students' motivatio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3, 553-574.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임선아*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내적·외적 보호요인을 파악하고자 내적요인인 탄력성과 외적요인인 학교 내·외 도움을 주는 어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데이터 2013년-2015년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고 학교 내·외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가 있는 다문화청소년과 도움을 주는 어른이 주위에 존재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에서 모형의 경로값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경우와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에 경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을 다시 잘 하도록 돕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탄력성을 매개해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따돌림경험,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지지자

I. 서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령기에 접어드는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 역시도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정진숙, 2016).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김인숙, 이경희, 2011 서현, 이승은, 2007 염승희, 201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 부적응 문제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점차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진숙, 2016). 어려운 가정형편과 언어능력 부족, 피부색 등 외모가 다른데서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문화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는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정행준, 2012).

* 전북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sunahlim@jbnu.ac.kr

집단 따돌림(Bullying)이란 공격성의 한 형태로 남을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 하에 대인 관계 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해 행동을 의미하며 대개 힘이 센 개인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 행사하는 문제행동(Olweus, 1994)으로 정의된다. 집단 따돌림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또래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 행동이 나타난 학교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등의 학교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즉,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등교를 거부하거나(이상균, 1999; Buhs, 2005),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거나(정유진, 2009; Graham, et al, 2006),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송혜리, 2010; Graham et al, 2006). 또한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집단따돌림 피해청소년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나아가 학교중퇴로 이어지기 쉽다(김예성, 박현선, 2007; 송혜리, 2010; 전연이, 2006; Buhs, Ladd, Herald, 2006; Erath, Flanagan, & Bierman, 2008; Kochenderfer-Ladd, 2004; Nishina & Juvonen, 2005). 피해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업스트레스와 달리 집단따돌림 경험은 자신만이 겪는 고통이고 학교에는 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김혜원, 2011).

그러나 집단 따돌림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향후 개인의 적응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따돌림 경험과 심리사회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이경아, 이정윤, 양현정, 2005). 집단따돌림 피해라는 문제와 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여러 문제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겨내어 성숙된 발달 과정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김동희, 2014).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파악하여 이 보호요인들을 중심으로 집단따돌림이라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개인 특성인 내적요인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있다(Mandleco & Peery, 2000). 대표적인 개인 보호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자아존중감(정원철, 아영아, 2006), 대처능력(최미경, 2013), 대인관계 기술(천경민, 2010) 등인데 이 중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여 위기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심리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Masten, 2004). 청소년 적응, 학교폭력의 관련 연구들은 동일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더라도, 개인이 위험요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서, 행동적 반응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Ahmed & Braithwaite, 2004; Baldry & Farrington, 2005; 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황적 요구와 행동적인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전략 가운데 융통성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보다 문제에 대하여 낙천적으로 사고하는 특징(Block & Block, 1980; 고은정, 1997)으로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김민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친구 간 문제 발생이 갈등해결 전략을 다양하고 강하게 사용하며 특히 절충 및 협력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연(2004)은 자아탄력성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정적인 상관에 있으며 자아탄력적인 집단이 또래관계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학업에 있어 지적 성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지지를 얻는 경향이 있으며(Compas, Hinden & Gerhardt, 1995),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보여 주고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이 있는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보여준다(Klohn, 1996). 강창실(2008), 고은정(1997), 박연수(2003) 등의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와 학교생활 요인 모두에서 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명주(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아탄력성과 적응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높은 자기 확신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성격특성과 관련된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바이다(Garmezy, 1983; Rutter, 1978). 또한 학교 스트레스가 높거나(이예승, 2004)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방임수준이 높아도(송미령, 2005)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송영경(2006)은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개인적 요인으로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 해결을 동원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또래지지, 가족지지와 상호작용 하여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준다고 하였다. 서미화(2008)는 자아탄력성이 유연하면 학습활동, 규칙 준수, 학교 행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이해, 대처 양상, 대인 관계에서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가진 강점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도 잘 적응하게 되고 나아가 위기상황 이전의 수준보다 더 나은 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된다(Masten, 2004).

한편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특성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이상균, 1999)를 참조할 때, 학생개인을 둘러싼 학교 환경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 또한 필요하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한다고 할 때 먼저 학교 내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조직체와 교구성원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데(김은아, 2011; Graham et al, 2006). 또래로부터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해청소년은 학교라는 곳을 불공평하고 비지지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여기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변화로 인해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지속되게 되고(김예성, 박현선, 2007) 이것은 지속적인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같은 위기상황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의 보호 요인으로 교사의 영향은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매우 중요한 외적 보호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전체 학생들에게 반영되어 집단따돌림 발생 역동과 전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ayraktar, 2012). 선행연구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일수록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교폭

력대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은영, 2008; 신성자, 권신영, 2013), 학생이 교사의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미향, 성한기, 2007).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들(김은영, 2008; Benbenishty et al., 2002)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개입이 학교폭력을 중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개인을 둘러싼 학교 환경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방과후에도 성인의 보호 및 학습지도 집단활동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면서 전영역에 발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회적지지원으로 가족, 교사, 친구(최보성, 2011; 고유미, 이정윤, 2009; 이순비, 김경화, 2010; 박계란, 이지민, 2010)만 고려할 뿐 아니라 학교 밖 이웃과 지역사회(이영분, 김나예, 2012)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과 학교 밖 환경에서의 사회적지지원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학교 밖 지원체계의 보호효과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 밖 지지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방과후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방과후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 및 행동발달이 더 잘 이루어지며(김주현, 1995), 방과후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며 자아통제력이 증가한다(전재일, 신효선, 2008)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과후 교사는 학교교사와는 다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아동들로 하여금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2007).

정리하면, 지금까지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내적·외적 보호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다문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내적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외적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학교 내·외 도움을 주는 어른들의 보호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는 긍정적 적응상태를 보일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적 보호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영향 있는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또래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하여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데이터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3차(2013년), 4차(2014년), 5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3차년 모두에 답한 1,338명의 가구(청소년 1,350명, 학부모 1,330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외국인출신인 경우는 45명(3.4%), 어머니가 외국인출신인 경우는 1295(96.4%), 두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3명(.2%)으로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658명(49.0%), 여자 청소년이 685명(51.0%)이며, 연령은 13세가 100명(7.4%), 14세가 1,189명(88.5%), 15세가 47명(3.5%), 16세가 6명(.4%), 17세가 1명(.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선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파돌림경험,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변수의 데이터를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파돌림경험은 2013년 자료에서, 자아탄력성은 2014년 자료에서, 학교적응은 2015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과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1) 파돌림 피해

파돌림피해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2013년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응답한 응답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척도(1점: 한번도 없었다-4점: 거의 매일 있었다)로 예시 문항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파돌림을 당하였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파돌림피해 척도 신뢰도는 .903이다.

2) 탄력성

탄력성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2014년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응답한 응답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예시 문항은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탄력성 척도 신뢰도는 .912이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2015년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응답한 응답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활동,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예시 문항은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적응 척도 신뢰도는 .875이다.

4) 학교 안과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의 여부

학교 안과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의 여부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은 2013년에 다문화청소년

들이 응답한 응답자료에서 추출하였다.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어른은 다른 반 선생님, 양호/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 다문화 선생님, 교과과목 선생님(체육 미술, 음악 등), 경비아저씨나 보안관(지킴이) 아저씨, 기타 어른 등이다.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은 학원선생님, 공부방 선생님, 청소년 수련과/복지관/다문화센터 등 지역의 각종 청소년시설 선생님, 이웃 어른들, 멘토 선생님,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기타 어른이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은 '있다'와 '없다'의 이분 답 중 응답하게 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경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그 구조적 관계가 학교 안과 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따돌림경험-자아탄력성-학교적응)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법을 이용하여 각 하위 문항별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 따돌림경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CFI, N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Hong, Malik, & Lee, 2003). 다음으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구조모형에서의 변수들 간의 관계가 학교 안과 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교 안과 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없다고 답한 집단을 나누고 집단에 따라 변인 간 관계의 경로값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값과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값을 살펴보면, 학교 안과 밖 모두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존재하는 경우 따돌림피해와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변인들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안과 밖 모두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돌림피해와 탄력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모든 변수

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 ± 3 , 첨도 ± 10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Kline, 2005),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학교 내					학교 외				
		따돌림피해	탄력성	학교적응			따돌림피해	탄력성	학교적응
따돌림피해		1	-.096*	-.027	따돌림피해		1	-.089*	-.057
탄력성		-.054	1	.416***	탄력성		-.064	1	.387***
학교적응		-.151***	.369***	1	학교적응		-.151***	.390***	1
평균	있음	6.389	43.819	46.542	평균	있음	6.491	43.686	46.832
	없음	6.552	42.167	45.036		없음	6.475	42.325	44.898
표준편차	있음	1.432	6.336	6.088	표준편차	있음	1.779	6.195	6.030
	없음	1.955	6.545	6.100		없음	1.732	6.657	6.091
왜도	있음	2.363	0.224	0.215	왜도	있음	2.843	0.324	0.366
	없음	2.555	0.288	0.170		없음	2.604	0.239	0.082
첨도	있음	9.415	-0.095	-0.293	첨도	있음	9.011	-0.308	-0.427
	없음	8.203	0.021	0.376		없음	8.442	0.062	0.309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분석 결과

모형에서 설정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탄력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었다. 분석 결과, 학교 내 모형과 학교 외 모형 모두 모형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의 데이터에서의 부분매개 모형은 카이스퀘어 값이 379.468($df=105$), CFI=.966, NNFI=.958, RMSEA=.044로 나타났고, 학교 밖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의 데이터에서의 부분매개 모형은 카이스퀘어 값이 453.022($df=105$), CFI=.959, NNFI=.948, RMSEA=.05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reacher와 Hays (2008)가 제안한 비모수 부트스트래핑 접근을 시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모형의 경로 추정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 없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 있음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학교 내								
따돌림피해	→	학교적응	-0.947***	0.233	-0.166	0.172	0.349	0.023
따돌림피해	→	탄력성	-0.36	0.242	-0.060	-0.795*	0.347	-0.107
탄력성	→	학교적응	0.432***	0.044	0.455	0.524***	0.054	0.513
학교 밖								
따돌림피해	→	학교적응	-1.184***	0.287	-0.165	-0.086	0.247	-0.017
따돌림피해	→	탄력성	-0.558	0.308	-0.072	-0.532*	0.241	-0.105
탄력성	→	학교적응	0.445***	0.042	0.483	0.485***	0.056	0.473

* $p < .05$, ** $p < .01$, *** $p < .001$

〈표 2〉는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학교 내 $\beta = -.166$, $p < .001$; 학교 밖 $\beta = -.165$, $p < .001$), 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내 $\beta = .455$, $p < .001$; 학교 밖 $\beta = .483$, $p < .001$). 반면,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에 유의한 부적인 직접적인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학교 내 $\beta = -.107$, $p < .05$; 학교 밖 $\beta = -.105$, $p < .05$), 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내 $\beta = .513$, $p < .001$; 학교 밖 $\beta = .473$, $p < .001$). 부트스트래핑 결과(〈표 3〉 참조)는 학교 내와 밖 모두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beta = -.055$, $p < .01$; $\beta = -.050$, $p < .05$).

표 3. 매개효과 결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 없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 있음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90% 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90% 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학교 내									
따돌림 피해	→ 학교 적응	-0.156	0.146	-0.027	(-.079, .008)	-0.417**	0.231	-.055	(-.104, -.029)
학교 밖									
따돌림 피해	→ 학교 적응	-0.248	0.152	-0.035	(-.068, .002)	-0.258*	0.193	-0.050	(-.111, -.001)

* $p < .05$, ** $p < .01$, *** $p < .001$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경우와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에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2〉와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을 다시 잘 하도록 돕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따돌림피해는 탄력성을 매개해서는 학교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영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에 유의한 부적인 직접적인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학교 내와 밖 모두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경우와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에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건 밖에서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을 다시 잘 하도록 돕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피해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따돌림피해가 탄력성을 매개해서는 학교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간접 영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고유미, 이정운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49-63.
- 김동희 (2014).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적응 관련 보호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3), 633-643.
- 김인숙, 이정희 (2011).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 연구**, 7(4), 57-73.
- 김주현 (1995). 도시지역 '자기보호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2), 173-198.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염승희 (2010). **사회적 기술훈련 집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이정운, 양현정 (2005). 집단 따돌림이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내면화 문제행동, 또래기술 및 자기존중감의 매개 중재 효과. **상담학연구**, 6(2), 531-543.
- 이순비, 김정화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9, 119-136.
- 이영분, 김나예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9, 151-180.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재일, 신호선 (2008).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251-283.
- 정원철, 아영아 (2006). 중학생의 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3(2), 89-115.
- 정진숙 (2016).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덕목 연계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23-48.
-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경민 (201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대인관계기술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14(1), 47-65.
- 최미경 (2013). 중학생의 학교따돌림 피해경험과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행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3), 25-34.
- 최보성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9(2), 261-287.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연구

유봉애* · 옥경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환기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초등학교적응력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학교성적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아버지 직업, 어머니 학력, 어머니 한국어능력)의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3년과 초등학교 6학년과 2014년 중학교 1학년(남학생 605명, 여학생 629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초등학교적응력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초등학교적응력과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남아보다 여아의 학교생활적응중 학습활동, 교우관계와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남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격하게 진행된 정보사회의 특성 중 하나는 세계화라고 하겠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전자통신 기술은 세계화의 진행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이미 글로벌(globalization) 혹은 글로벌 사회(a global society)라는 개념은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1990년대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관심은 조금 주춤한 현상이다. 물론 20년 동안 많은 영역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부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발달과 적응문제라고 하겠다.

* 유봉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신저자: 옥경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yundoh@gwangju.ac.kr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발달의 역사는 아직 짧은 편이라 가족발달의 과정에 대한 자료는 진행 중인 상태이다. 또한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주어진 영역이라고 하겠다. 학교생활적응이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학교가 주요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며 이에 적응하는 것이 삶의 주요 과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백혜정, 2007). 현재의 학교생활적응은 대학입학과 진로를 포함한 향후 발달단계의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미, 2008, 소연희,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결과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류방란 외, 2012; 박희훈·오성배, 2014; 이창호·송민지, 2013)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는 보고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교우관계에서만 나타났다(이창호·송민지, 2013). 그럼에도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이 높아질 때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희훈·오성배, 2014). 학년이 높아질 때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많아진다는 결과(류방란 외, 2012)도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청소년 개인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임세희, 2007; 이숙정, 2006), 가족 변인으로는 가족지지(곽민정, 서보준, 2011, 장세영, 2013)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의 학력(이중섭·이용교, 2009)과 사회경제적 지위(박은영, 2011)도 주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과 어머니의 특성 변인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우현경 외, 2009, 정윤정, 2007) 학교생활적응에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생활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은 개인에게 있어 전환기가 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 발달상의 위기를 경험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학교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유순화, 2007).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전환기 청소년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2차 신체적 성장과 함께 자율과 독립을 지향하며 자아정체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비해 학업수행이 저하되고 학교에 대한 동기가 감소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idgley, 2002; Roeser et al., 2002). 전환기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중학교라는 환경 전환은 다른 시기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체험하게 된다(김대현, 김현주, 2003; 유순화, 2007). 이중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한국어능력)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빈번히 지적되는 요인은 성별이다.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성숙이 빠르고 친사회적 성향이 발달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아 학교적응을 잘하지만(박계란, 이지민, 2011, 유봉애, 옥경

희, 2013), 반면 남아는 여아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비, 김경화, 2010).

이처럼 중학교 1학년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하며, 이들의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교생활적응이 중학교 1학년 전환기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은선경, 2010)함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넓게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아버지가 한국인이며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인 결혼이주여성 가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도 엄격하게 규정하자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청소년이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연령별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으로 정의한다. 아동이란 단어에 일부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대상인 다문화청소년이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는 청소년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인 청소년은 학교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공부할 때의 어려움 극복 및 주어진 과제해결 능력이 높아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를 좋아하며 학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더 많이 배우고 이익을 얻는 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긴장, 절망, 불평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Mayer & Salovey 1996). 그리고 학교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때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학업성취도 높다고 밝혀졌다(이원재, 김선, 2014). 지금의 학교생활 적응은 대학입학과 진로를 포함한 향후 발달단계의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미, 2008, 소연희, 2011).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최근 연구들은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학습활동이나 학업성취(황성동, 박은혜, 2010; 남상아, 백지숙, 2011)와 학교규범이나 규칙준수 혹은 학교행사 참여(남상아, 백지숙, 2011; 이순비, 김경화, 2010)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

관계 측면인 교사 혹은 친구와의 관계(문영희, 안은미, 2010;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 2012)를 살펴해보았다.

2. 전환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맺는 최초 관계이며, 자녀에게 삶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해 주는 대상이다. Barrera(1981)는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이며, 더불어 자녀 학교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김명숙(1995)은 사랑과 수용의 긍정적 부모지지는 아동 적응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족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인 가족지지는 자녀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가족보다는 교사와 친구가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되면서 가족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지만, 다문화청소년 가족영향력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유봉애, 옥경희, 201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관심이 필요하며, 더불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가족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바를 보면, 다문화가족 여아들이 남아보다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미, 전종설, 2013, 김혜미, 문혜진, 2013,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고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판단을 의미한다(이윤경, 2009).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행복에 중대한 역할 및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임수경·이형실, 2007). 가족 및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저하, 무능력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만,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및 사회적 기술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임수경, 이형실, 2007).

이처럼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임세희, 2007, 이숙정, 2006).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이미지를 갖춰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밀한 또래관계를 보다 쉽게 형성한다(이광성, 2012). 특히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존중감은 비다문화가정보다 다문화가정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 따라서 다문화자녀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정행준, 2014, 황선영, 노병일, 2015)이며,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식, 2017).

그리고 청소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부모의 학력(김광혁, 2006; 이중섭, 이용교, 2009)과 부모 직업은 가정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Halle et al(1997)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이에 이러한 기대는 자녀학업성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자녀관계, 가족의 효과적인 교육관여, 적절한

한 성취압력 등과 결부되어 자녀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이중섭 · 이용교, 2009, 박은영, 2011). 이처럼 사회 · 경제적 지위인 부모 학력과 직업은 자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어머니의 국적(이순비, 김경화, 2010; 유봉애, 옥경희 2013)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우현경 외, 2009, 정운정, 2007)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중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직업, 어머니 국적 및 어머니 한국어능력이 자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중학교에 입학한 다문화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초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3년과 2014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 다문화 초·중학생과 그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각 시기의 변화 양상과 실태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패널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년 간격으로 단일표본 반복추적조사로 2014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 어머니를 조사하였다. 표본은 초등학교 표본추출 후 초등학교 4학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속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일표본 반복추적조사로 2013년 초등 6학년은 1,348명, 2014년 중학교 1학년은 1,383명 중 어머니가 결혼이주자이며,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1)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정화실(1991, 재인용)의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지경 외(2010)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학습활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습활동적응 Cronbach's α 는 .77, 교우관계적응 Cronbach's α 는 .61, 교사관계적응 Cronbach's α 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성적

학생 설문지 문항 중 학교성적 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3년, 2014년에 수록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매우 못하는 편이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잘한다’의 5점에 답한 자기-보고 점수를 사용하였다. 학교성적 Cronbach’s α 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지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다문화가족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지지 Cronbach’s α 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 자아존중감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오전영(1981)이 번안한 Coopersmith의 자아개념척도를 수정·보완한 박난숙·오경자(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자아존중’ 영역에 해당하는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는데, 점수가 클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Cronbach’s α 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아버지 직업과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한국어능력)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처리에 있어서는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일치도를 검증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 가족지지가 다문화가족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의 학년 차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t=1.983$, $p<.05$), ‘가족지지’($t=2.042$, $p<.05$), ‘학습활동적응’($t=-3.780$, $p<.001$), ‘교우관계적응’($t=-3.387$, $p<.001$), ‘학교성적’($t=15.4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등 6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 학교성적이 더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 변인별 학년차이

변수	수	초등 6학년	중등 1학년	t
		M(SD)	M(SD)	
자아존중감	1,234	3.23(.534)	3.20(.534)	1.983*
가족지지		3.24(.562)	3.20(.567)	2.042*
학습활동적응		2.83(.419)	2.88(.529)	-3.780***
교우관계적응		3.13(.429)	3.42(.715)	-3.387***
교사관계적응		3.08(.604)	3.11(.570)	-1.302
학교성적		3.42(.715)	3.13(.729)	15.480***

* $p < .05$, *** $p < .001$

2.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차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어머니 한국어능력에 따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과 <표 3>에 제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남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어머니 한국어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 남아는 아버지 직업에 따라 ‘자아존중감’($F=7.360$, $p<.001$), ‘학습활동적응’($F=4.465$, $p<.05$), ‘학교성적’($F=3.132$, $p<.05$),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

출신국가는 ‘교사관계적응’(F=3.277, $p < .01$), ‘학교성적’(F=4.748, $p < .01$)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 어머니 한국어능력은 ‘자아존중감’(t=-3.057, $p < .01$), ‘학습활동적응’(t=-3.445, $p < .001$), ‘교우관계적응’(t=-2.570, $p < .01$), ‘교사관계적응’(t=-2.144, $p < .05$), ‘학교성적’(t=-3.676, $p < .001$)에 차이가 났다.

표 2. 중학교 1학년 다문화가족 남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변 수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능력		
	전문직 및 사무직 (104)	농수산업 (118)	서비스직 및 기타 (383)	F	중국 (160)	필리핀 (160)	일본 (217)	F	못하는 편이다 (475)	잘하는 편이다 (130)	t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34 ^b (.481)	3.32 ^b (.577)	3.16 ^a (.534)	7.360***	3.24 (.521)	3.19 (.521)	3.21 (.581)	.276	3.19 (.546)	3.35 (.498)	-3.057**
가족지지	3.24 (.599)	3.28 (.599)	3.20 (.548)	.729	3.24 (.509)	3.22 (.561)	3.21 (.575)	.212	3.22 (.568)	3.24 (.567)	-.347
학습활동 적응	2.99 ^b (.451)	2.96 ^{ab} (.532)	2.85 ^a (.537)	4.465*	2.94 (.527)	2.87 (.546)	2.89 (.501)	.922	2.85 (.541)	3.02 (.442)	-3.445***
교우관계 적응	3.24 (.396)	3.12 (.451)	3.14 (.420)	2.942	3.21 (.396)	3.12 (.426)	3.16 (.427)	2.090	3.15 (.432)	3.25 (.382)	-2.570**
교사관계 적응	3.14 (.560)	3.21 (.583)	3.10 (.560)	1.695	3.18 ^b (.566)	3.14 ^{ab} (.536)	3.04 ^a (.565)	3.277*	3.10 (.582)	3.22 (.489)	-2.144*
학교성적	3.34 ^b (.745)	3.27 ^{ab} (.781)	3.15 ^a (.740)	3.132*	3.35 ^b (.705)	3.09 ^a (.758)	3.16 ^a (.756)	5.564**	3.15 (.749)	3.42 (.723)	-3.676***

* $p < .05$, ** $p < .01$, *** $p < .001$, a < b

즉,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 직업은 중학교 1학년 남아의 자아존중감과 학습활동적응, 학교성적을 높이며, 중국출신 어머니가정은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이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할수록 중학교 1학년 남아의 자아존중감,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이 높았다. 중학교 1학년 여아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및 어머니 한국어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중학교 1학년 다문화가족 여아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변 수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능력		
	전문직 및 사무직 (104)	농수산업 (132)	서비스직 및 기타 (393)	F	중국 (158)	필리핀 (151)	일본 (239)	F	못하는 편이다 (504)	잘하는 편이다 (125)	t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22 (.542)	3.19 (.539)	3.16 (.522)	.668	3.22 ^b (.505)	3.07 ^a (.514)	3.22 ^b (.529)	4.584*	3.14 (.529)	3.32 (.505)	-3.515***
가족지지	3.29 (.549)	3.15 (.511)	3.17 (.579)	2.229	3.22 ^b (.561)	3.06 ^a (.517)	3.25 ^b (.553)	5.994**	3.15 (.556)	3.32 (.563)	-3.086**
학습활동 적응	3.01 ^b (.471)	2.87 ^{ab} (.559)	2.83 ^a (.533)	4.621**	2.88 ^{ab} (.534)	2.76 ^a (.538)	2.95 ^b (.544)	5.867**	2.85 (.528)	2.96 (.542)	-2.073*
교우관계 적응	3.25 (.352)	3.15 (.410)	3.18 (.405)	2.012	3.18 (.376)	3.16 (.408)	3.22 (.395)	1.190	3.17 (.388)	3.26 (.432)	-2.233*
교사관계 적응	3.25 ^b (.543)	3.02 ^a (.644)	3.06 ^a (.550)	5.453**	3.11 (.575)	3.03 (.565)	3.08 (.561)	.851	3.06 (.558)	3.19 (.625)	-2.230*
학교성적	3.24 ^b (.668)	3.03 ^a (.653)	3.01 ^a (.715)	4.746**	3.15 ^b (.646)	2.95 ^a (.687)	3.07 ^{ab} (.717)	2.994*	3.02 (.695)	3.22 (.694)	-2.935**

* $p < .05$, ** $p < .01$, *** $p < .001$, $a < b$

즉,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 직업은 중학교 1학년 여아의 학습활동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을 높이며, 필리핀 출신 어머니가정 여아는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습활동적응, 학교성적이 낮았다. 그리고 어머니 한국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여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습활동, 교우 및 교사관계, 학교성적이 높았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r=.563$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없었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0~1.3로 10보다 현저하게 낮았고, Durbin-Watson계수도 1.8~2.1으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남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초등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I 단계는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인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능력이 <표 2>과 <표 3>에서 차이를 나타내 통제변인으로 투입하며, II 단계에서는 초등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을 투입하고, 다음 III 단계에서는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추가 투입하여 중학교 1학년 남녀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은 중학교 1학년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 투입한 자아존중감, 가족지지도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은 남아 학습활동적응 22.3%, 교우관계적응 19.4%, 교사관계적응 11.7%, 학교성적 3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를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학습활동적응에 14.1%, 교우관계적응 16.1%, 교사관계적응 15.4%, 학교성적에 6.4%가 증가하였다.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에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보다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이 더 영향력을 미쳤다.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학교 학습활동적응과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사관계적응에서는 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보다 현재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컸다.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아버지 직업과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능력은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I 단계에서 농수산업 종사하시는 아버지 직업과 중국출신 어머니는 중학교 남아의 학습활동과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을 높이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중학교 1학년 남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 회귀분석

(N=605)

구분	학교생활적응									학교성적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I	II	III	I	II	III	I	II	III	I	II	III
아버지직업 ¹	-.001	.018	.011	-.027	-.018	-.026	-.042	-.043	-.049	-.039	-.005	-.011
아버지직업 ²	.099*	.071	.049	.075	.052	.030	.062	.059	.035	.096*	.059	.049
어머니출신국가 ³	.069	.006	.025	.047	-.016	.005	.073	.035	.053	.106*	.044	.057
어머니출신국가 ⁴	.008	.018	.022	-.055	-.054	-.048	.042	.041	.043	-.054	-.033	-.028
어머니한국어능력 ⁵	-.066	-.004	-.005	-.052	-.006	-.007	.015	.032	.032	.060	.012	.010
초등학습활동적응		.078	.027		.069	.012		.144**	.096*		-.021	-.059
초등교우관계적응		.127**	.040		.279***	.189***		-.014	-.106*		.014	-.036
초등교사관계적응		.076*	.030		.101*	.055		.223***	.172***		.065	.043
초등학교성적		.314***	.254***		.095*	.028		.067	.011		.561***	.514***
가족지지			.230***			.210***			.295***			.050
자아존중감			.267***			.316***			.219***			.257***
R ²	.018	.235	.379	.016	.206	.366	.010	.130	.283	.032	.357	.421
Adj. R ²	.010	.223	.365	.008	.194	.354	.002	.117	.270	.024	.347	.410
R ² change		.217***	.141***		.189***	.161***		.120***	.154***		.325***	.064***
F	2.231*	20.317***	32.537***	1.977	17.105***	31.133***	1.203	9.865***	21.315***	3.973***	36.675***	39.225***

* $p < .05$, ** $p < .01$, *** $p < .001$

1. 아버지직업(전문가 및 사무직 1, 기타 서비스직 0), 2. 아버지직업(농수산업 1, 기타 서비스직 0)
3. 어머니출신국가(중국 1, 일본 0), 4. 어머니출신국가(필리핀1, 일본0)
5. 어머니한국어능력(못하는편이다 1, 잘하는편이다 0)

2) 중학교 1학년 여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들 중 중학교 1학년 여아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 학교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 추가 투입한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1학년 여아의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6. 중학교 1학년 여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교성적 회귀분석

(N=629)

구분	학교생활적응									학교성적		
	학습활동적응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I	II	III	I	II	III	I	II	III	I	II	III
아버지직업 ¹	.062	.033	.026	.038	.017	.009	.068	.058	-.051	.067	.036	.031
아버지직업 ²	.039	.028	.021	.038	.020	.012	.051	.045	.037	.071	.057	.054
어머니출신국가 ³	-.016	-.014	-.025	-.012	.003	-.009	.014	.014	.005	.062	.052	.046
어머니출신국가 ⁴	-.101*	-.056	.018	-.021	.019	.051	-.035	-.011	.021	-.038	.003	.019
어머니한국어능력 ⁵	-.078	.006	-.005	.096*	-.004	.009	-.035	.020	.032	-.084*	-.003	.004
초등학습활동적응		.196***	.121**		.038	-.041		.034	-.039		.107**	.066
초등교우관계적응		.187***	.103**		.358***	.268***		.111*	.035		.057	.006
초등교사관계적응		.021	-.016		.088*	.049		.215***	.180***		.016	-.006
초등학교성적		.254***	.218***		.124**	.083*		.047	.018		.505***	.479***
가족지지			.236***			.233**			.286***			.079*
자아존중감			.274***			.308***			.206***			.208***
R ²	.025	.284	.437	.014	.249	.423	.011	.115	.262	.026	.371	.423
Adj. R ²	.017	.273	.427	.006	.238	.413	.003	.103	.249	.018	.362	.412
R ² change		.259***	.154***		.235**	.173***		.104***	.147***		.345***	.052***
F	3.211**	27.253***	43.596***	1.781	22.851***	41.088***	1.426	8.981***	19.935***	3.313**	40.607***	41.085***

* $p < .05$, ** $p < .01$, *** $p < .001$

1. 아버지직업(전문가 및 사무직 1, 기타 서비스직 0), 2. 아버지직업(농수산업 1, 기타 서비스직 0)

3. 어머니출신국가(중국 1, 일본 0), 4. 어머니출신국가(필리핀1, 일본0)

5. 어머니한국어능력(못하는편이다 1, 잘하는편이다 0)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성적은 중학교 학습활동적응 27.3%, 교우관계적응 23.8%, 교사관계적응 10.3%, 학업성취 3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학습활동적응 15.4%, 교우관계적응 17.3%, 교사관계적응 14.7%, 학교성적은 5.2%가 증가하였다. 중학교 1학년 여아 학습활동적응과 교우관계적응, 학교성적에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교사관계적응에는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가 더 영향력이 컸다. 이는 초등 6학년 학교생활적응 및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여아의 학습활동적응과 교우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 학교성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학습활동적응, 어머니 한국어능력은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1,383명 중 결혼이주자가 어머니이며,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에서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학교성적을 이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다문화 가족 특성으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 한국어 능력을,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가족변인으로는 가족 지지를 선정하여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적응의 전환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초등학교 6학년 학교생활적응을 중학교 1학년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성적은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학습활동, 교우관계 적응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점수가 초등학교 6학년과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이 높아질 때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박희훈·오성배, 2014)를 지지한다. 하지만 교사관계 적응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다문화청소년 남·녀 학생의 학습활동적응과 학교성적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고,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여학생의 교사관계적응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서 남·녀 학생의 학교성적에, 남학생의 교사관계 적응,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습활동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따라서는 남·녀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모든 변인들과 학교성적에, 여학생의 가족지지에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보여주는 학습활동적응에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초등학교 성적,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학생의 학습활동적응에는 이 외에도 초등학교 6학년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적응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학생 모두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교우관계 적응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이 추가로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교우관계에서만 학교생활적응이 유의하다는 결과(이창호·송민지, 2013)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교사관계 적응에서 남·녀 학생 모두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교사관계 적응과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습활동적응이 정적 영향을,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교우관계적응은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가족지지가 학교적응(곽민경, 서보준, 2011, 장세영, 2013)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

을 설명하는 변인 결과(정행준, 2014, 황선영, 노병일, 2015)를 지지한다.

끝으로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남·녀 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성적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습활동을 제외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최효식, 2017)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지지가 학교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아들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성적은 남아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연구결과(장미, 전종설, 2013, 김혜미, 문혜진, 2013,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중학교 1학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특히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영역들 중 교우관계나 교사관계적응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의 경우에는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비교해도 초등학교 6학년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이 중학교 학교생활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변인이지만 학교생활적응의 영역별,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습활동이나 교우관계적응과 학교성적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교사관계적응에서는 가족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가족지지가 남학생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학교성적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생활적응 영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밝혔으나,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정보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수집될 때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학교생활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변인들에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영역들과 학교성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가를 분석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변인은 유의한 변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변인만을 이용한 I단계 분석에서 일부 변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II단계 분석에서는 그 어떤 변인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단계에서도 설명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살펴보는 변인들의 측정방법이 갖는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패널조사가 갖는 자료의 한계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인의 역할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민정, 서보준.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1(1), 75-112.
- 금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66호**, 2012(8), 5-26.
- 김광혁.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 **한국생활과학회지**, 4(1), 31-38.
-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기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학회**, 25(2), 161-185.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9(1), 3-12.
- 류방란 · 김정애 · 이재분 · 송혜정 · 강일국(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영희, 안은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47-68.
- 박계란, 이지민.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29(2), 89-99.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희훈 · 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회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소연희. (2011).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0(4), 203-220.
- 우현경 외(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pp.23-36.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광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 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회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습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순비, 김정화.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9, 119-136.
- 이원재, 김선. (2014) 다문화가정의 부모관계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5(3), 1367-1374.

- 이윤경. (2009). **부모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중섭,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1.
- 이창호 · 송민지(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질적연구보 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 고서** 13-R12-2.
- 임세희. (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5-78.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지**, 19(3), 169-183.
- 장미, 전종설.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가족과문화**, 25(4), 182-213.
- 장세영. (201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연구건강증진학회**, 30(2), 11-21.
-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부천
- 정행준.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옥희, 김용미. (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최효식.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학교급,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95-217.
- 황선영, 노병일.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51-76.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4), 123-145.
- Barrera, M. (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Eds.), *Social Networks & Social Support* (69-96). Beverly Hills, C. A.: Sage Publications.
- Halle, T., Kurta-Costes, B., & Mahoney, J. (1997). Family influences on school achievement in low-income, Africa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527-537.
- Mayer, J.,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2), 245-267.
- Midgley, C. M.(2002).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ative learning. Mahwah, NJ: Erlbaum.
- Roeser, R. W., & Marachi, R., & Gelbach, H. (2002). A goal theory perspective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ies and the contexts of teaching. In Midgley, C. M. (Ed.),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ative leaning*. pp. 205-241. Mahwah, NJ: Erlbaum.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민아* · 김은혜**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총 1,328명의 다문화청소년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남녀집단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지지는 남녀 모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학생, 부모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증가로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 및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의 증가이다. 2017년 청소년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2017)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은 2016년 9만 9천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2%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반가정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소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학령인구(6-21세)는 향후 10년간 약 150만명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되어 지고 있다(통계청·여성가족, 2017).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증가함에 있어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정부, 지자체,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2017.07.03.; 미래한국, 2017.08.03.)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청

* 명지전문대학 외래교수

**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상담원

1) 연합뉴스(“차별없는세상 대선공약 4가지”, 2017.07.03.)

소년은 외국인 부모로부터 학습된 문화와 한국문화 적응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한국사회의 적응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서정혜, 2009; 신혜정, 2007).

2016년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22개국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가 82점으로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연합뉴스, 2016.5.2.). 이는 OECD 가입국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평균 100점으로 볼 때, 현저히 낮은 점수이다. 주목할 점은 응답한 어린이·청소년 중,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이 느낀 적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자살충동 위험집단에 속했다. 이러한 행복지수 수치는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에서 더 낮게 예측되어 지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내에서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경향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고 학습 환경이 열악하다(조영달, 2006). 둘째,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의 문제이다. 영·유아기에 서부터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혼란 및 사회의 편견으로 학교 내 부적응에 영향이 있다.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영향과 그로인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교육인적자원부, 2006)고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5명중 1명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다고 보도되었다(서울경제, 2016.03.01.)⁽³⁾ 특히 청소년 시기에 겪는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유발하여 학교부적응에 문제를 갖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명희, 김정현, 송진숙, 문화강, 2012). 이에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총체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이순성, 2010)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Diener & Fujita, 2005) 만족감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변인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부모의 지지이다. 부모의 지지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하나이다. 채지연(2014)은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가족, 교사, 친구 등 자신을 둘러싼 의미있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심, 사랑, 정보, 도움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에서 주요요인인 부모의 교육적지지 및 가족지지 요소만을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또래관계 및 사회성이 발달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가족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긍정적인 지지수준이 높을

미래한국(“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2017.08.03)

2) 연합뉴스(“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OECD”, 2016. 05. 02)

3) 서울경제(“다문화청소년 5명중 1명 중학교에서 학업중단”, 2016. 03. 01)

수록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King&Valois, 2006; 석말숙·구용근, 2015)는 것은 과거 연구부터 현재의 연구까지 끊임없이 검증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들이 확장(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반영하고 성장 이후의 삶에 영향(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을 미친다.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비례함을 알 수 있는 바(김영민, 임영식, 2013),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일수록 이 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성보·이현철·김경식(2011)의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취약하였으며, 특히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습활동과 교사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청소년은 교우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또래관계 및 사회성이 발달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긴장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조절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요인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심리요인(Block&Kremen, 1996)이다. 이 요인은 청소년 발달상의 위기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원이 되어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발달로 영향(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을 미치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선행연구들은 반복적으로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안진·이점숙·김정민(2005)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주변상황에 대해 자신이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을 한다고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처전략이 더 많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최인숙, 2012), 김정민(201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으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청소년 개인의 심리내적변인과 다양한 환경적변인에 따라 변화하는(강경훈, 최수미, 2013) 특성이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가족 지지가 내적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외적변인인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했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의 자료 중 5차년도인

2015년에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는 2011년부터 2015년의 5년간 실시된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영역을 크게 개인, 가정, 발달, 환경, 제도적 지원 관점으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27개 지역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1,619명 중 부적절한 응답치 291개를 제외한 1,328명(남학생 660명, 여학생 668명)으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의해 표집 되었다.

표 1. 표본추출 개요

구분	일반가구
모집단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표본추출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층화 후 집락별 표본학교 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부모용 설문지 / 청소년-자기기입식
조사년도	2015년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성(gender) 구성은 남학생이 660명(49.0%)이며, 여학생이 668명(51.0%)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대상	중학생	
성별	남학생	660 49.0
	여학생	668 51.0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이 개발한 척도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제작자가 보고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부모 지지

부모지지 척도는 한미현(1996)과 김순규(2011)가 개발한 척도이다. 한미현(1996)척도는 가족의 지지(총7문항), 김순규(2011)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총6문항)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총 13문항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활용하였으며, 문항군의 각각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6, .92, .90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부모지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지지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 & Kreman(1996)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2002)이 번역한 것으로 수정·보완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하였다. 항목내용은 친구에 대한 너그러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의 선호도,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인지여부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2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활용하였으며, 9번문항은 요인관계가 낮은 점수로 제외하였다. 문항군의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88, .82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심리요인인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을 학교 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학교규칙(5문항)은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하위내용 15문항 중 학습활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 총 15문항을 그대로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중 학습활동(5

번), 교우관계(4번)은 문항 특성상 역코딩 하였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학습활동 .72, 교우관계 .54, 교사관계 .82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학습활동 .78, 교우관계 .62, 교사관계 .8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하위 각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해당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변수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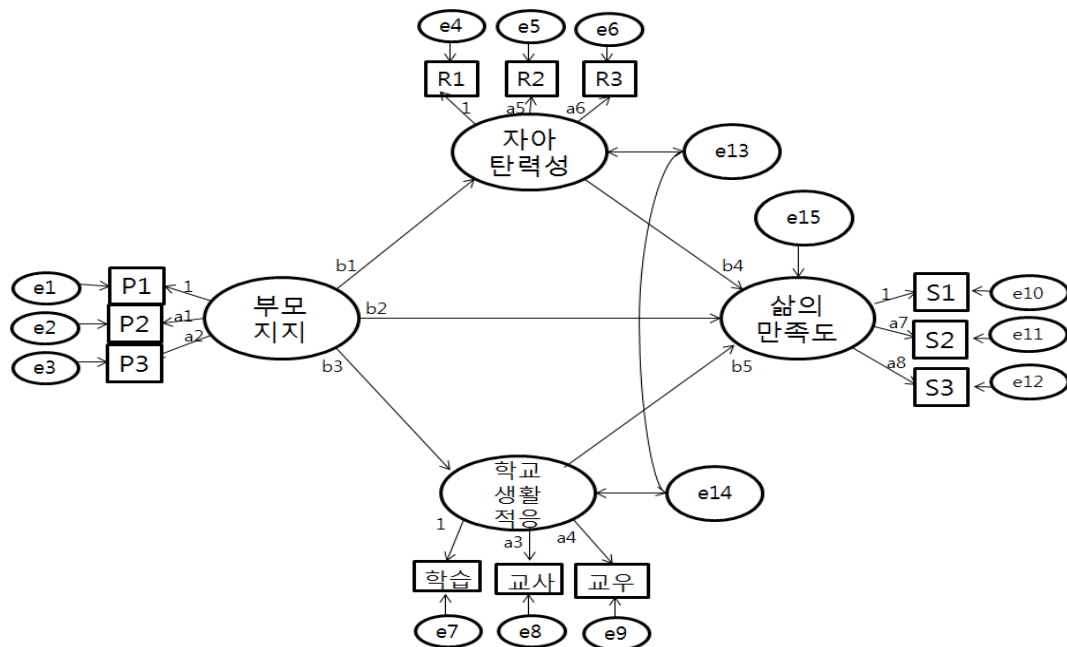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 RMSEA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 값 이상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송지준, 2009; Hu & Bend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AMOS)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1986)의 공식을 이용하였는데, 사용된 Sobel의 Z⁴⁾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a^2 + a^2 Sb^2}}$$

III. 연구결과

먼저, 모형 검증을 위한 부모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남녀 모두 부모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만족도 모두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연구 모형이 남학생·여학생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형의 적합도를 통하여 검증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모형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적재치를 모자가정과 부자가 정 각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a1~a8)을 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Mac Callum et al., 1999),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동일한 회귀계수들의 대해서 제약(b1~b5)을 가한 후 경로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Byrne, 2001; 손보영 외, 2012 재인용). 그 결과 모든 모형은 좋은 적합도⁵⁾를 보였다. <표 4>

표 3. 연구변인의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N=660, 여학생 N:668)

변 인	1	2	3	4
1. 부모지지	1			
2. 자아탄력성	.544*** (.452***)	1		
3. 학교생활적응	.59*** (.553***)	.715*** (.602***)	1	
4. 삶의만족도	.513*** (.506***)	.632*** (.566***)	.589*** (.513***)	1
평 균	3.22 (3.17)	3.1 (3.04)	3.03 (3.05)	3.21 (3.07)
표준편차	.50 (.51)	.45 (.45)	.42 (.39)	.61 (.61)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 $p < 0.001$, ** $p < 0.01$, * $p < 0.05$

4) a =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Sa = a 의 표준오차, Sb = b 의 표준오차. Sobel의 Z공식에서는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MacKinnon&Dwyer, 1994; 손보영 외(2012) 재인용)

5) Browne&Cudeck(1993).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 ~ .08이면 적절한 적합도, .1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남·여학생의 구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전체적인 적합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b1~b5의 모든 경로에서 남·여학생의 집단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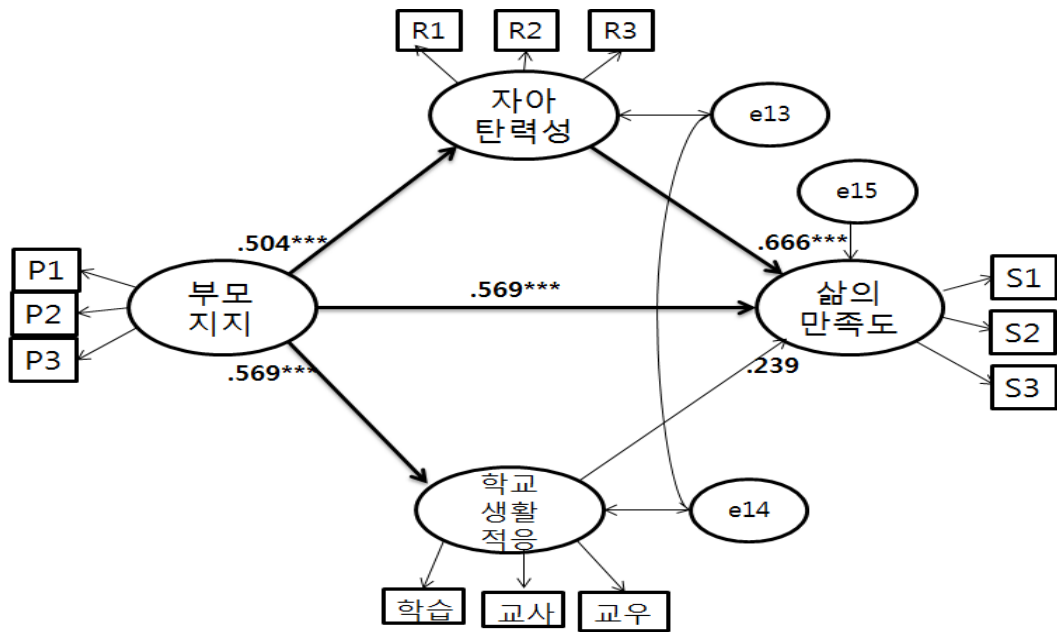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남학생 N=660, 여학생 N=668)

Index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전체)	233.911	38	.979	.970	.06
연구모형(남학생)	149.741	38	.977	.969	.064
연구모형(여학생)	142.39	38	.977	.967	.063
측정동일성 모형	301.449	83	.977	.969	.044
구조동일성 모형	292.131	76	.977	.967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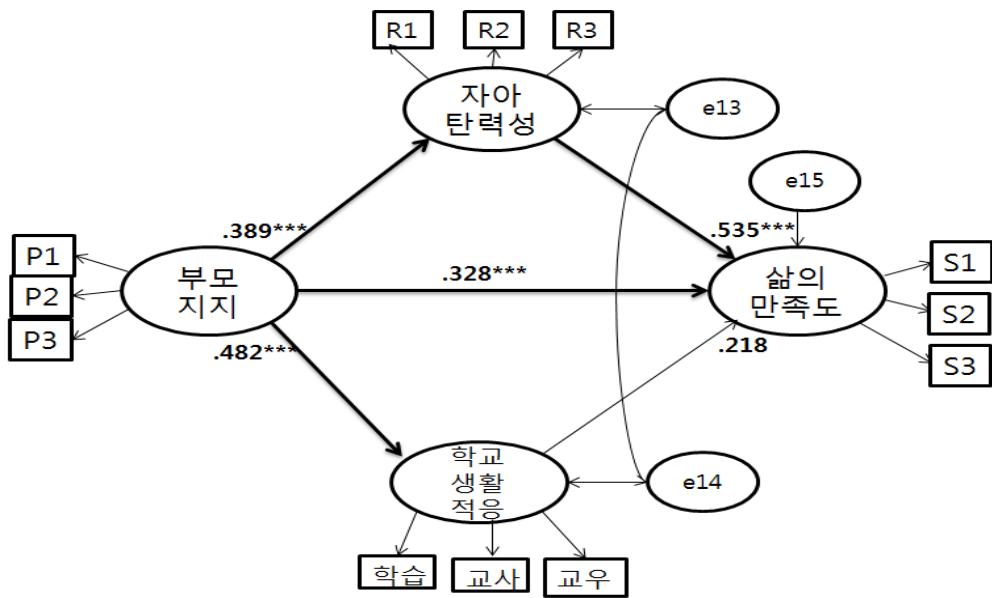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에, 남학생의 결과는 〈그림 2〉, 여학생의 결과는 〈그림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통계 결과의 경로의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지지에서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남자청소년은 .62($p < .001$)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49($p < .001$)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도 표준화 계수가 남자청소년은 .68($p < .001$)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66($p < .00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에서 남자청소년은 .13($p < .01$)이며, 여자청소년은 .31($p < .001$)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치에서 남·여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p < .001$). 반면에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 수용에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남학생 구조계수 추정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여학생 구조계수 추정치

표 5.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추정치	표준화 계수	S.E.	C.R.	추정치	표준화 계수	S.E.	C.R.
자아탄력성←부모지지	.504***	.62	.035	14.40	.389***	.49	.034	11.47
학교생활적응←부모지지	.569***	.68	.037	15.42	.482***	.66	.035	13.83
삶의만족도←부모지지	.138**	.13	.053	2.62	.328***	.31	.053	6.19
삶의만족도←자아탄력성	.666***	.5	.195	3.41	.535***	.39	.111	4.85
삶의만족도←학교생활적응	.239	.18	.208	1.15	.218	.15	.148	1.48

* $p < .05$ ** $p < .01$ *** $< .001$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인 Sobel 검증 결과, 남·여학생의 다문화 중학교 청소년 모두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다문화가정의 부모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Sobel 검증

매개 경로		a	Sa	b	Sb	c	Sc	Z
부모지지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남	.504	.035	.666	.195			3.323 ($p < 0.001$)
	여	.389	.034	.666	.195			3.272 ($p < 0.001$)
부모지지 → 학교생활적응 → 삶의 만족도	남	.569	.037	.239	.208			1.145 ($p > 0.05$)
	여	.482	.035	.218	.148			1.465 ($p > 0.05$)

* $p < .05$ ** $p < .01$ *** $< .001$

다음은 <표 7>에서 제시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지지의 경우,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직접적인 효과만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도에는 남학생·여학생 모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지지	자아탄력성	.504 (.389)	-	.504 (.389)
	학교생활적응	.569 (.482)	-	.569 (.482)
	삶의 만족도	.138 (.328)	.472 (.314)	.610 (.642)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666 (.535)	-	.666 (.535)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239 (.218)	-	.239 (.218)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Ⅳ. 논의

본 연구는 부모지지가 다문화 중학교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것을 확인하며, 경로에서 남녀의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녀 집단 모두 부모지지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김효은·김종운, 2016; 정현정·문혁준, 2011), 학교생활적응(임우섭·김용주, 2015; 유봉애·옥경희, 2013) 및 삶의 만족도(고영남, 2014; 석말숙·구용근, 2015; 정현정·문학준,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모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에게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정서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결과, 부모지지의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아탄력성에 매개효과(이주영, 이미애, 문재우, 2014; 강명희, 이수연, 2013)를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유연한 문제해결전략을 동원하여 적절한 반응과 융통성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외부에서 오는 작은 문제를 극복하고 삶 전반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높이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외부개입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외적 상황에 대해 내적인 힘을 키워 극복할 수 있음(손보영 외, 2012)을 예측할 수 있기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래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와 애착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 연구와는 다르다. 반면 An, Lim and Chung(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달리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라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안선정 외(2013)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인 부 혹은 모의 어머니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 낯선 사회에서의 적응문제에 의해 친밀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대인관계 및 부 혹은 모의 언어 이중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학습 경험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Oh, 2005). 중학교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고 또래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데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특히 사춘기에 맞물려있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삶의 만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하였는데 있어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지지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생활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활발히 되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지지가 개인내적인 자아탄력성, 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변인간의 경로를 확인한 연구는 활발히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지지가 다른 변인들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모의 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비행, 문제 중심의 접근과 달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강점관점을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각기 다른 발달시기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시기에는 어떻게 다른지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 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곽민경, 서보준.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21(1), 75-112.
- 고영남.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적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53, 27-52.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36(1), 151-158.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명옥. (2012). **다문화가정자녀의 한국인 정체감과 한복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효은, 김종운. (2016).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 (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회** 16(2), 59-81.
- 서정혜. (2009). **국제결혼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2), 55-74.
-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0(8):49-70.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2), 149-173.
- 유봉애 · 옥경희. (2013).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8(4):511-538.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유안진, 이점숙, 이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이순성.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정현, 송진숙, 문희강. (2012). 대전지역 중학생의 다문화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효능감. **한국가**

- 정과교육학회 24(2), 17-28.
- 이상주. (2012).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아동의 가족 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8, 237-257.
- 이주영, 이미애, 문재우.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 임우섭, 김용주. (2015). OO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행정학회** 33(4), 31-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정현정, 문혁준. (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아동보육지원학회**, 7(3), 21-42.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성보, 이현철, 김정.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2011(1):1-19.
- 최인숙 (2012). 중학생의 부모, 또래 및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차 검증. **교육과 학연구**, 43(3), 105-129
- 채지안.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활동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 S., Lim, J., & Chung, G.(2012).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eer relationship on children's self competence : Comparis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1), 15-28.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u, L. Y., & Bentler, P.(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Oh, S.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re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King, A. L. D., Huebner, S., & Valois, R. F.(2006). An ecological view of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 Linkag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4), 279-295.

—인터넷 자료—

미래한국(2017.08.0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연합뉴스. (2017.07.03.) 차별없는세상 대선공약 4가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9/0200000000AKR20170629086400371.HTML?input=1195m>

연합뉴스(2016.05.02.) 한국어린이 · 청소년행복지수 OEC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2/0200000000AKR20160502148300017.HTML>

서울경제(2016.03.01.) 다문화청소년 5명중 1명 중학교에서 학업중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04369>



제 ③ 주제

부모자녀관계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2.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 2011~20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애스터* · 김두영***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주목하여 중국·필리핀·일본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차이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 추이를 살피는 목적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중국, 필리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일본·필리핀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출신국과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어머니,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어머니, 부모효능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88올림픽 이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고 다문화혼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건수 13만 건을 넘어섰다. 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60% 이상이며,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6).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학계에서도 해당 가정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이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 생활을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그들에 대해 연구하여 왔으나(박주희·정진경, 2007; 신정희, 2009; 박선태, 2012; 이지현·진수진·주현정·조연실, 2013), 대부분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출신 국가와 문화에 따라 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가 다양하다는 지적(이혜경, 2005)에도 불구하고, 각 출신 국가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해당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정기선, 2008).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외래강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교수, kdy205@dankook.ac.kr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착안한 질적 연구(이정희, 2012; 김태자·권복순, 2012; 박순용·오덕렬, 2012; 이은주·전미경, 2014; 이민경, 2015; 박애스터 2017)가 진행되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주목한 양적연구로는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해 검토한 연구(정기선, 2008; 박찬옥, 이은경, 2012;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4)가 진행되었다. 그 중 양적 연구의 경우, 경기도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규모의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자녀양육과 연관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나가도록 동기부여 하는 등 양육행동의 근원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송미경, 신효정, 이은경,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 선행연구 중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등을 포함한 양육 행동과 관련된 양적 연구 및 실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나동석·박종인, 2008;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2009; 김현경, 2009; 민성혜, 김정은, 김리진, 2011; 전보영, 2012; 오재연, 2014;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2014; 한경남, 2014; 이은경, 2016; 김연숙 박응임, 2016), 학령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포함된 경우(김도희, 2008; 최형성, 2010; 정명희, 2013; 김혁·김명삼, 2016)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해 출신국을 고려한 양적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출신국별 차이를 검토한 연구(나동석·박종인, 2008)의 경우, 모집단 표집의 한계로 각 출신국별 집단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2014)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삶의 질,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출신국(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별로 검토하여 유아의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도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교일(2011)은 만 5~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검토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주목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를 진행한 박찬옥과 이은경(2012)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별(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로 그들의 자녀 교육관과 부모역할 인식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출신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재연(2014)도 유아기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적별 양육행동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양육 관련 행동에 관한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해당 집단의 경향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대규모 통계조사를 통해 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규모 양적 조사를 바탕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주목하여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검토하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출신국 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 주목한 부모효능감(parenting efficacy)은 Bandura(1977; 1997)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부모효능감에 대해 개관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1977; 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적 인지 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Bandura(1977)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컨트롤 가능성과 당사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것이며, 전자를 ‘결과 기대’, 후자를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행동의 수행가능성의 인지(堀毛, 2009)이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판단’(김아영, 2010)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특히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왔다(Gecas, 1989). 한편,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바탕으로 부모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신숙재, 1997 재인용). 또한 Montigny & Lacharité(2005)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에 대한 문헌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직무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믿음’이나 ‘판단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녀양육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지이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가 수행하는 현실을 전제할 때 이들이 자녀양육 시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있어 매우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부모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생활 속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효능감이 높은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부모효능감이 낮을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nes & Prinz, 2005; 김염춘, 장영애, 2013)는 것을 생각하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연구문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 중국·필리핀·일본¹⁾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과제 2.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부모효능감 차이 및 자녀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 추이를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원 자료를 2차로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외국인 학부모(이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조사 시기는 2011년도(1차), 2013년도(3차), 2015년도(5차), 3개년이다. 조사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 수를 각 년도 별로 보면 2011년도 1,635명, 2013년도 1,445명, 2015년도 1,349명이나,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한 경우에 한정하여 결측값을 제외한 후 총 1,11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착안하였기에 모집단 중 그 수가 비교적 동등하여 비교 가능한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어머니(이하, 중국·필리핀·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출신국별 대상자 수를 상세히 보면 일본 452명, 필리핀 334명, 중국 330명으로 중국의 경우, 조선족 239명과 한족 및 기타 민족 91명을 합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기에 민족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국이라는 국가적 배경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 집단 간 모집단 크기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의 표기 순서는 원자료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변수(m_motherland1_year)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표 1.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1116) 명 (비율)		
		중국	필리핀	일본
출신 국가		330 (100)	334 (100)	452 (100)
연령	30세-39세	71 (21.5)	56 (16.8)	8 (1.8)
	40세-49세	235 (71.2)	238 (71.3)	295 (65.3)
	50세-59세	24 (7.3)	38 (11.4)	149 (33)
	60세 이상	0 (0.0)	2 (0.6)	0 (0.0)
한국 거주 기간	10년 미만	25 (7.7)	8 (2.4)	10 (2.2)
	10년 이상 15년 미만	54 (16.7)	60 (18.2)	40 (8.9)
	15년 이상 20년 미만	208 (64.2)	251 (76.1)	323 (71.6)
	20년 이상	37 (11.4)	11 (3.3)	78 (17.3)
교육 정도	중졸 이하	79 (23.9)	16 (4.8)	1 (0.2)
	고졸	187 (56.7)	94 (28.1)	203 (44.9)
	대졸 이상	64 (19.4)	224 (67.1)	248 (54.9)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 (3.0)	22 (6.6)	7 (1.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4 (19.4)	120 (35.9)	100 (22.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4 (31.5)	113 (33.8)	171 (37.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7 (29.4)	63 (18.9)	118 (26.1)
	400만원 이상	55 (16.7)	16 (4.8)	56 (12.4)

2. 분석변수

1)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 국가로, 중국·필리핀·일본의 3개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상기한 3개국은 모두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이지만 이들 국가 간에도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자녀양육 시 구체적인 양육행동 및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 또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자녀 관계 등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질적 다양성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출신국별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종속변수

이 연구는 신숙재(1997)의 부모효능감 척도 중 9개 항목을 선택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부모효능감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해당 질문 항목을 ‘자녀양육생각’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이 연구는 원 자료의 토대가 된 신숙재(1997)에 따라 부모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이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번안·수정한 것으로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뉜다. 각 차원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서적 차원은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차원은 총 7문항으로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4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3문항으로

로 구성된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 연구의 원 자료인 다문화패널조사에서는 상기한 부모효능감 척도(신숙재, 1997) 중 9문항을 선택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설문 문항의 차원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2가지 차원 중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7문항과 정서적 차원 중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2문항이 포함되었고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척도의 구성을 검토하여 이 연구는 부모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을 나누지 않고, 각 문항의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뒤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차원 중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해당하는 1개의 역문항(자녀양육생각 8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부모효능감 하위 9개 문항은 각 5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ver.19.0을 사용하였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은 모집단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Scheffe의 사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연구과제 1. 중국·필리핀·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도(초등학교 4학년), 2013년도(초등학교 6학년), 2015년도(중학교 2학년) 각 조사 시기별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도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 2011년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평균을 보면, 중국(3.68)과 필리핀(3.71)에 비해 일본(3.55)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670$, $p<.001$). 이러한 결과는 일본 어머니가 중국·필리핀 어머니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구분		독립변수			$F(p)$
		중국 ($n=330$)	필리핀 ($n=334$)	일본 ($n=452$)	
종속변수	평균	3.68a	3.71b	3.55c	10.670(.001)***
부모효능감	(SD)	.519	.555	.476	
scheffe		c<a, c<b			

$p^* < .05$, $p^{**} < .01$, $p^{***} < .001$

2) 2013년도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2013년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평균을 보면, 중국(3.71)과 필리핀(3.75)에 비해 일본 (3.59)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261$, $p<.001$). 이러한 결과는 일본 어머니가 중국·필리핀 어머니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구분		독립변수			$F(p)$
		중국 ($n=330$)	필리핀 ($n=334$)	일본 ($n=452$)	
종속변수	평균	3.71a	3.75b	3.59c	11.261(.001)***
부모효능감	(SD)	.515	.527	.467	
scheffe		c<a, c<b			

$p^* < .05$, $p^{**} < .01$, $p^{***} < .001$

3) 2015년도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 2015년도 시점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평균을 보면, 중국(3.64)과 필리핀(3.63)에 비해 일본 (3.51)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632$, $p<.001$). 이러한 결과는 일본 어머니가 중국·필리핀 어머니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뜻한다.

표 4.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차이

구분		독립변수			F(p)
		중국 (n=330)	필리핀 (n=334)	일본 (n=452)	
종속변수	평균	3.64a	3.63b	3.51c	8.632(.001)***
부모효능감	(SD)	.512	.544	.492	
scheffe		c<a, c<b			

$p^* < .05$, $p^{**} < .01$, $p^{***} < .001$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추이

연구과제 2.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는 어떠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중국·필리핀·일본 어머니 1,116명을 대상으로 다음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자녀 성장에 따른 이들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추이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초등학교 4학년), 2013년도(초등학교 6학년), 2015년도(중학교 2학년) 총 3개년 조사에 응답한 어머니 1,116명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부모효능감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필리핀·일본 3개국 어머니의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각 조사 시기별 부모효능감 추이를 출신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우선, 중국·필리핀·일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3개년도의 부모효능감 추이를 알아보았다. 상기한 3개 년도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시점으로 자녀 성장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효능감 추이를 분석하였다(표 5). 그 결과, 중국·필리핀·일본 3개국 출신 어머니의 경우, 2015년도에 지각한 부모효능감이 2011년도와 2013년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121$, $p<.001$). 즉, 3개국 출신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 성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녀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들이 느끼는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비교적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입학 직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2011 · 2013 ·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전체)

구분		독립변수			$F(p)$
		2011 ($n=1116$)	2013 ($n=1116$)	2015 ($n=1116$)	
종속변수	평균	3.64a	3.67b	3.58c	8.121(.001)***
부모효능감	(SD)	.518	.505	.518	
scheffe		c<a, c<b			

$p^* < .05$, $p^{**} < .01$, $p^{***} < .001$

2) 출신국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하, 중국·필리핀·일본 출신 어머니의 시기별 부모효능감 추이에 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출신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 성장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6). 이러한 결과는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과 관계없이 부모효능감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중국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구분		독립변수			$F(p)$
		2011 ($n=330$)	2013 ($n=330$)	2015 ($n=330$)	
종속변수	평균	3.68a	3.71b	3.64c	1.195(.303)
부모효능감	(SD)	.519	.515	.512	
scheffe					

$p^* < .05$, $p^{**} < .01$, $p^{***} < .001$

(2)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필리핀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느끼는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307$, $p<.05$).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중비교 결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중학교 2학년(2015년도) 때 느끼는 부모효능감이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2013년도) 때 지각한 부모

효능감보다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비해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필리핀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Scheffe의 다중비교 결과, 2015년도 시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부모효능감은 2013년도($p < .05$) 시점보다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구분		독립변수			$F(p)$
		2011 ($n=334$)	2013 ($n=334$)	2015 ($n=334$)	
종속변수	평균	3.71a	3.75b	3.63c	4.307(.05)*
부모효능감	(SD)	.604	.492	.513	
scheffe		c<b			

$p^* < .05$, $p^{**} < .01$, $p^{***} < .001$

(3) 일본 출신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일본 어머니의 경우, 자녀 성장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182$, $p < .05$)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일본 어머니는 자녀가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추이

구분		독립변수			$F(p)$
		2011 ($n=452$)	2013 ($n=452$)	2015 ($n=452$)	
종속변수	평균	3.55a	3.59b	3.51c	3.182(.05)*
부모효능감	(SD)	.476	.467	.492	
scheffe		c<b			

$p^* < .05$, $p^{**} < .01$, $p^{***} < .001$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중국·필리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았다. 셋째, 중국 어머니는 자녀가 고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들이 지각한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필리핀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어머니의 출신국과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로서 만 5~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효능감을 검토하여 출신국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이교일(2011)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에 따른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현경, 2009)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별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나동석·박종인,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검토 결과,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박찬옥 외, 2012),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적별 양육행동과 삶의 질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오재연, 2014; 오재연, 김정란, 남민우, 2014)와는 크게 보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하 각 결과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국별 차이에 관해서는 중국·필리핀 출신 어머니에 비해 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4가지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 특유의 자기비하경향(高田, 2004)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본인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순위에 머물 정도로 낮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Diener & Diener, 1995; 東, 1994)와 일본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Kashima & Triandis, 1986; 高田, 1987b; 室山·堀野, 1994, 北山·高木·松本, 1995)으로 미루어 보아 국내에 이주한 일본 어머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기평가 방식인 부모효능감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 교육으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오재연·김정란·남민우, 2014)이며, 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을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본다(정기선, 2008)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이 연구의 결과가 상기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만큼, 이는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중국과 필리핀 어머니보다 낮다는 결과는 이들 집단이 자신의 이상적인 양육관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크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일 수 있다. 이는 일본인 어머니의 경우 대졸자가 54.9%로 과반수를 넘은 점(표 1), 선진국인 일본의 교육 상황과 현재 자신이 한국에서 처한 입장 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는 조사 시기별 차이가 없는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 어머니가 중국·필리핀 어머니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낮은 경향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하더라도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질문지 언어 상 표현이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잘 고려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작성된 부모효능감에 관한 척도(田坂, 2003; 金城, 2014)를 보면 대부분의 표현이 간접적이거나 양육행동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는 신숙재(1997)의 부모효능감 척도 중 9문항을 추출한 것으로 역문항 1개를 제외한 나머지 8문항이 부모로서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으며, 특히 그 중 6문항이 ‘나는 00을 잘 한다.’라는 적극적이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점, 질문 상에 제시된 양육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어머니들이 한국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70%이상(표 1)으로 비교적 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한국 거주가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일본에서 사회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대상 집단이 모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조사에서는 척도 사용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3개국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았다. 중학교 시기는 학교생활의 적응과 함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발달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며(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김선희, 백송이, 2015),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사회적 성숙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다(최미경 외, 2008).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당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들의 심리·사회 적응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김현철 외(2015)의 연구 결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신체 만족도는 2013·2014년도까지 대체로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 서서히 낮아져 중학교 2학년 시점인 2015년도에는 적응도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정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중학교 2학년인 2015년도 시점에 가장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청소년기 특유의 발달양상으로 인해 심리·사회 적응이 어려워짐과 함께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도 함께 저하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앞의 연구와 동일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계민, 신현옥과 박주희(2014)는 이들의 적응 실태를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 2014년도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이 시기는 사춘기의 반향이 시작된 시기로 부모와 소통이 어렵고, 자신의 감정 표출이 서툴러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자녀의 변화에 적

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일상 생활에서 고민을 의논하는 상대는 가족이 아니라 친구와 선생님이므로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운 모습이 엿보였다. 이러한 자녀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면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저하는 자녀가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진입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어렵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므로(최미경 외, 2008) 이전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다. 즉,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저하는 어머니의 출신국보다는 자녀의 발달 단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 어머니는 자녀가 고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지각한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없었으나, 필리핀·일본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부모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때 지각한 부모효능감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 어머니가 필리핀·일본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발달 단계에 의한 영향을 덜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결과(정기선,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중국 어머니의 경우, 한국 및 일본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도 부모 자녀 간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양육태도를 지닌다(허철수, 2003). 이러한 중국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일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의 변화는 자녀의 발달 단계의 변화와 맞물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주목하여 그들의 자녀양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부모효능감의 출신국별 차이와 자녀 성장에 따른 부모효능감 추이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그들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인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때,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들의 출신국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았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모효능감이 이전보다 낮아진 결과로 보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도 일반

청소년의 발달 양상과 동일하며 이것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지원할 때는 이들의 출신국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아동 발달에 따른 보편적 변화도 함께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염춘, 장영애. (2013).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99-118.
- 김유진, 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1): 46-60
-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김선희, 백송이. (2015).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R13), 1-332.
- 박찬옥, 이은경. (2012).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12, 65-94.
- 송미경, 신호정, 이은경. (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40, 한국청소년상담원, 5-11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R13), 227-301.
- 오재연.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출신국적별 외국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질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비교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32-57.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민경. (2015). 중국 출신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을 통해서 본 정체성 재구성: 대구, 경북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1(2): 147-171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69-104
-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7), 1-13

- 통계청. (20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4-5, 20-22.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57476에서 2017년 6월 15일 인출.
- 허철수. (2003).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4, 39-72.
- 東洋. (1994). 日本人のしつけと教育.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北山忍 · 高木浩人 · 松本寿弥. (1995). 成功と失敗の帰因: 日本的自己の文化心理学. 心理学評論, 38, 247-280.
- 金城志麻. (2014). 母親の子どもの感情認知が育児自己効力感へ及ぼす影響: 母親の"ego-resilience"との関連から. 琉球大学教育学部附属発達支援教育実践センター紀要論文, 6, 1-10.
- 高田利武. (1987b). 社会的比較による自己評価における自己卑下の傾向. 実験社会心理学研究, 27, 27-36.
- 高田利武. (2004). 「日本人らしさ」の発達社会心理学: 自己・社会的比較・文化」東京: ナカニシヤ出版 129-144.
- 田坂一子. (2003). 育児自己効力感(parenting self-efficacy)尺度の作成. 甲南女子大学大学院論集, 人間科学研究編 創刊号, 1-10.
- 堀毛一也. (2009). 自己効力感. 日本社会心理学会(編著). 社会心理学事典, (pp.164-165). 東京: 丸善株式会社.
- 室山晴美 · 堀野緑. (1994). 共同場面における課題認知・対人認知の形成と変容. 教育心理学研究, 42, 270-280.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Gecas, V. (1989). The social psychology of self-effic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1), 291-316.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s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Montigny, F., & Lacharité,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옥선* · 방해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MAPS 다문화 청소년 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 데이터에 응답한 960명의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의 긍정적인 역할은 다문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 일상생활스트레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부모효능감

I. 서론

세계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한국사회 또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와 세계화로 다문화 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볼 수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정부의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프로젝트로 국제결혼이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은 농촌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복한 삶과 한국 사회에 빠른 정착은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박명순, 이미진, 2016).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초, 중, 고등학교)수도 2006년 9,389명에서 2009년 26,015명, 2012년 46,95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시킬 경우 그 수는 약 168,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 2012).

이처럼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천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5년 4,516명, 2016년에는 5,191명, 올해 6,00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율도 2015년

*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1.2%(54명)에서 지난해 1.73%(90명)로 늘어났다(아시아경제, 2017).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 언어장벽, 가정돌봄과 거부감 및 편견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 부모의 자녀 학습 케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지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서울시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조사결과 다문화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원인으로 경제적인 부분, 공부 흥미 부족, 친구관계 및 공부의 어려움 등을 지목하였기 때문이다(세계일보, 2017). 이에 국제 결혼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다문화 부모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 향상을 위한 케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내며(Berry, 1990), 이로 인해 가정불화, 경제적인 손실, 부부관계, 자녀의 학습 케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신의 존재감, 공허감, 상실감 등을 쉽게 느끼게 되며, 같은 생활 사건이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면 스트레스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김명자, 1991).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김정선, 신경림, 2004; 김혜란, 2006; 박수민, 2009), 전업주부가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길, 2001; 장영자, 2003).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개인의 정서 문제부터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여성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자녀의 학습 케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자녀의 학습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보고자 한다. 반두라(1977)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확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성인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인 생산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의 부모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을 부모효능감(parent efficacy)으로 지칭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부모효능감을 개인의 고정된 특성 변인이라기보다는 가정이라는 특정한 상황맥락과 관련하여 적응하고 변화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목적달성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라 정의한다(신용주, 김혜수, 2003).

부모효능감이란 부모의 역할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유지,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며 자녀와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

한 지각을 부모효능감이라고 한다(신숙재, 1997).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새로운 환경과 차별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도 어머니 출신국의 관습과 지식, 기술, 가치관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부모효능감으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해 낼 수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환경에 보다 더 적응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민하지 않고 차분하며,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김도희, 2008).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주목하였으나 대부분이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대상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효능감은 결혼만족도나 자녀의 성별, 자녀양육경험, 연령, 부부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녀의 성이 부모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숙재, 1997),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낮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자아개념 등이 증진된다(최형성, 2002).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온정적 격려 등이 증진되고, 통제적 양육행동이나 자녀의 의견무시, 체벌 등이 감소된다(안지영, 2000). 부모효능감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익숙했던 자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 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한정님, 2014; 류다형, 이순형, 2016; Berry, 2002). 즉, 언어소통의 문제는 자기표현을 어렵게 하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에서 소통과 훈육의 문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전보영, 2012; 이선애, 최현정, 2016; Berry, 2003)를 높임으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주변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고립, 차별, 가족과의 갈등, 외로움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경험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단순히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이은경, 2016).

이제까지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 일반 가정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어려움이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부모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효능감을 선정하고,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델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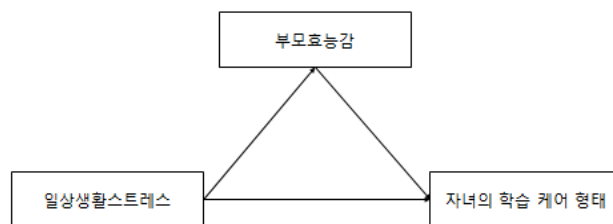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5차 분석 자료로서 한국청소년 개발원에서 조사하여 추적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이다. 이 패널 자료는 MAPS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2015) 학부모용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960명을 실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본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의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한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직접 학교공부를 가르침’, ‘숙제검사를 함’,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봄’, ‘학원에 보냄’, ‘개인과외를 시킴’,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칩’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녀의 학습케어 형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회전은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타당도가 .4미만인 ‘학원에 보냄’, ‘개인과외를 시킴’을 제외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별로 하지 않음’ 2점, ‘어느 정도 함’ 3점, ‘자주 함’ 4점, ‘매우 자주 함’ 5점 순서로 되어 있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긍정적인 학습 케어와 부정적인 학습 케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Cronbach's alpha값은 .726, .737를 보여주고 있다.

2) 일상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의 지난 1주일간 걱정거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아이, 남편, 친구, 시부모/시댁식구, 친정부모/친정식구,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가족의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의 걱정거리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일상생활스트레스는 8문항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상당히 그렇다' 3점, '아주 많이 그렇다' 4점 순서로 되어있다. 일상생활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값은 .894를 보여주고 있다.

3) 부모효능감 척도

본 척도는 다문화패널 5차년도 학부모용의 자녀 양육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을 살펴보면,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음',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부모효능감은 9문항으로 분류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일반최소제곱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회전은 직접오블리민을 적용한 결과 타당도가 .4미만인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음'을 제외한 총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되어있다. 부모효능감의 Cronbach's alpha값은 .877를 보여주고 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대한 관련된 요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매개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SPSS WIN21.1 프로그램 및 Amos 21.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대한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셋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Amos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SPSS에서 데이터 이상치를 점검하고 회귀대체 방식에 의한 결측값을 처리하여 이후 분석을 실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다문화 부모의 한국거주기간은 '14년 이상 ~16년 이하'가 471명(49.1%), '17년 이상~19년 이하'가 294명(30.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년 이상' 112명(11.7%), '13년 이하'가 8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을 결정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부부 공동' 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21명(23.0%)이고, 다음으로 '남편'은 171명(17.8%), '기타'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주요 소득원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남편'이라고 대답했으며,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3명(15.9%)이었으며, 가정형편은 '보통이다' 417명(43.4%), '어려운 편이다' 402명(41.9%), '아주 어렵다' 120명(12.5%), '잘 사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21명(2.2%)으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214명(22.3%),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 204명(21.3%), '350만 원 이상' 155명(16.1%), '250만 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60)

구분		빈도	퍼센트
한국거주기간	13년 이하	83	8.6
	14년 이상~16년 이하	471	49.1
	17년 이상~19년 이하	294	30.6
	20년 이상	112	11.7
자녀 교육 결정자	본인	221	23.0
	남편	171	17.8
	부부공동	558	58.1
	기타	10	1.0
주요 소득원	남편	789	82.2
	본인	153	15.9
	기타	18	1.9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120	12.5
	어려운 편이다	402	41.9
	보통이다	417	43.4
	잘사는 편이다	20	2.1
	아주 잘 산다	1	.1
다문화 여성 연령	40세 미만	127	13.2
	40세 이상~45세 미만	334	34.8
	45세 이상~50세 미만	318	33.1
	50세 이상	181	18.9

	구분	빈도	퍼센트
남편 연령	45세 미만	90	9.4
	45세 이상~49세 미만	298	31.0
	50세 이상~55세 미만	408	42.5
	55세 이상	164	17.1
남편의 최종 학력	초등학교졸업 이하	118	12.3
	중학교	201	20.9
	고등학교	478	49.8
	대학교(4년제 미만)	66	6.9
	4년제대학졸업 이상)	97	10.1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	3.4
	대학졸	868	90.4
	석사 이상졸	59	6.1
부 직업	관리자/사무직/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4	16.0
	서비스/판매 종사자	38	4.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09	2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8	12.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2	15.8
	단순 노무 종사자	134	14.0
	직업외 분류(학생, 주부 등)	67	7.0
	직업구분 불가	88	9.2
모 직업	관리자/사무직/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3	22.2
	서비스/판매 종사자	83	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6	7.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6	5.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	5.3
	단순 노무 종사자	90	9.4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349	36.4
	직업구분 불가	42	4.4
모출신국	중국(조선족포함)	229	23.9
	동남아시아	62	6.5
	필리핀	250	26.0
	일본	378	39.4
	기타	41	4.3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	112	11.7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32	13.8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214	22.3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43	14.9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	204	21.3
	350만 원 이상	155	16.1

이상~300만 원 미만' 143명(14.9%),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32명(13.8%), '150만 원 미만' 112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대상자들은 월 평균 소득이 대체적으로 낮지만 스스로가 생각할 때 가정형편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여성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을 살펴보면 다문화 여성은 '40세 이상~45세 미만' 334명(34.8%)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경우는 '50세 이상~55세 미만' 408명(42.5%)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78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도 118명(12.3%)를 차지하고 있다.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대다수가 대학 졸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남편의 직업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 209명(21.8%), '관리자/사무직/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54명(16.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2명(15.8%), '단순노무 종사자' 134명(1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8명(12.3%)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직업은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가 349명(36.4%) 등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으로는 '일본'이 378명(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250명(26.0%), 중국(조선족 포함)이 229명(23.9%), '동남아시아' 62명(6.5%), '기타' 4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평균값(sd)은 1.842(sd=.680), 부모효능감의 평균값(sd)은 3.458(sd=.554),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의 평균값(sd)은 2.442(sd=.640)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의 평균값이 다른 변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부모효능감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과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960	1.00	4.00	1.842	.680	.665	-.222
부모효능감	960	1.86	5.00	3.458	.554	-.121	-.057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960	1.00	4.33	2.442	.640	-.100	-.217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월평균 소득($r=-.212$, $p<.01$) 및 부모효능감($r=-.097$, $p<.05$)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r=.030$,

$p < .01$)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과 월평균 소득($r = .073$, $p < .05$) 및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r = .162$, $p < .01$)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연령($r = -.079$, $p < .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가 모두 0.5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변수	월 평균 소득	모 연령	부 연령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 효능감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월평균 소득	1					
모 연령	-.079*	1				
부 연령	-.183**	.450**	1			
일상생활 스트레스	-.212**	-.047	.002	1		
부모 효능감	.073*	-.079*	-.043	-.097*	1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139**	-.073*	-.056	.030	.162**	1

* $p < .05$, ** $p < .01$

Ⅲ. 연구모형 검증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효능감,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등을 포함한 관측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측정모형의 결과 값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1223.150$, $df=204$, $p=.000$, $SRMR=.058$, $RMSEA=.072$, $CFI=.878$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의 적합도의 CFI 값이 .9보다 낮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초기 측정모형의 CFI 값을 .9 이상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계수 값이 .4미만인 값과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모형을 재정립하였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X^2=842.241$, $df=184$, $p=.000$, $SRMR=.051$, $RMSEA=.061$, $CFI=.916$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 값은 모두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었으며, 이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 남편, 시부모/시댁식구, 친정부모/친정식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이후 분석에 적용한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초기 모형	적합도 지수	X2	df	p	SRMR	CFI	RMSEA
	지수	1223.150	204	.000	.058	.878	.072
수정 모형	적합도 지수	X2	df	p	SRMR	CFI	RMSEA
	지수	842.241	184	.000	.051	.916	.061

2) 연구모형 검증

〈표 5〉는 2015년 다문화 패널 조사대상자인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있어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600.683$, $df=114$, $p<.001$, $SRMR=.052$, $RMSEA=.067$, $CFI=.912$ 등의 값을 나타내어 최적 모델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119$, $t=-3.085$, $p<.01$). 즉,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나 자식 또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깊이 할수록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신이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 역할도 잘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부모의 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79$, $t=1.127$, $p>.001$)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 $t=1.357$, $p>.05$).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 부모효능감이 긍정요인으로 작용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를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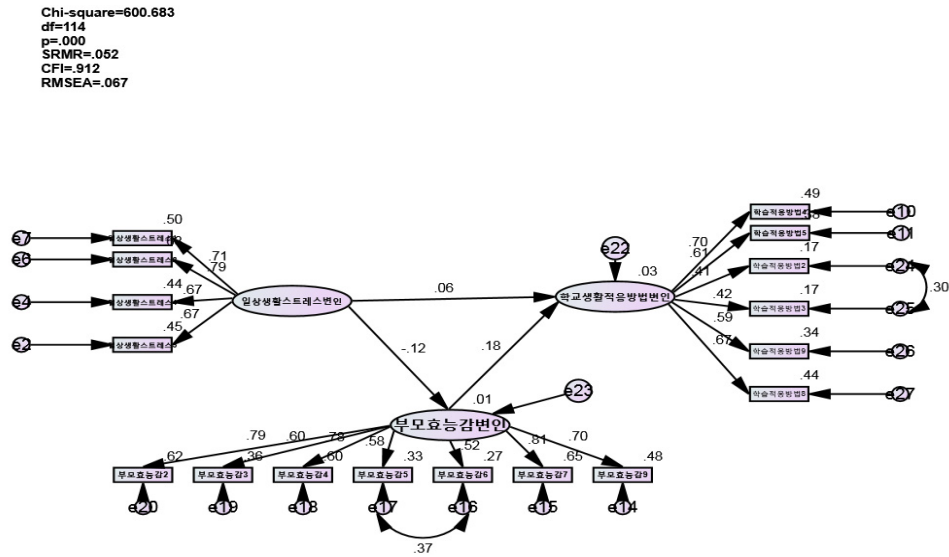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 5. 연구모형 검증

Path	B	β	S.E.	C.R.
일상생활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151**	-.119	.049	-3.085
부모효능감 →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153***	.179	.035	4.427
일상생활스트레스 →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061	.056	.035	1.357

** $p < .01$, *** $p < .001$

2) 연구모형 효과분해

〈표 6〉은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효과분해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1이하의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유의수준 .01수준 이하에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유의수준 .01이하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사이에 부모효능감이 완전 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효과분해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일상생활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119**		-.119
부모효능감	→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179**		.179
일상생활스트레스	→ 부모효능감 →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056	-.021**	.035

** $p < .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부모효능감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의 학습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별개로 행동함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효능감은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 부모가 배우자나 자녀 또는 양가 부모와 가족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부모효능감이 떨어지지만, 부모효능감이 향상되면 자녀의 학습을 케어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학습 향상을 위해 돌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과 정책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및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자녀의 학습 향상을 위한 방법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는 다문화 부모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 부모를 위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자녀교육 방법 및 학습 케어 방법에 관한 도서가 보급되어 다문화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척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둘째,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 시대** 보도자료.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91). 중년기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정선, 신경림. (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pression. **대한간호학회지**, 34(2), 352-361.
- 김혜란. (2006). **한부모 여성 가장의 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수준**.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다형, 이순형. (201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일반가정과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07-131.
- 문병섭. (2016).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순, 이미진. (2016). 농촌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갈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1), 25-48.
- 박수민. (2009). **중년 여성의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계일보. (2017). <http://www.segye.com/newsView/20170202004390>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주, 김혜수. (2003). 안드라고지의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부모효능감: 장애자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모형. **한국성인교육학회**, 6(1), 59-84.
- 아시아경제. (2017). <http://www.asiae.co.kr/news>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애, 최현정.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33-155.
- 이은경.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자본과 부모역할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7-48.
- 장영자. (2003).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영.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부모역할 효능감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15-31.
- 정원길. (2001).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남. (2014).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역할 만족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87-315.
- 행정안전부. (2012).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rry, J. W. (1990).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ealth consequences of culture contact among circumpolar peoples. *Arctic medical research*, 49(3), 142-150.
- Berry, J. W.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K.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홍나미* · 박현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초4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1,34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방임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모두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개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매개효과

I. 서론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행정자치부, 201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를 포함하여 294,663명이며, 이들의 자녀는 197,550명에 이른다. 이 중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2015년 대비 2016년 20.2% 증가한 99,186명으로, 이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79.8% 차지)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교육기본통계, 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47%로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 0.45%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8%로 비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업 중단 이유로는 학생 부적응, 질병, 가정 사정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 공부로 인지하였으며,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비율은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10%)보다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17%)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 박미현, 2017).

최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

*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hyunjungpark128@hanmail.net

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 편입학 및 유학준비(15.3%), 돈을 벌어야 해서(14.4%) 등으로 보고되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학습부진과 따돌림 등을 겪고 있으며, 인종차별적 대우도 이뤄져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국제신문 2017년 5월 22일자).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에서 맞벌이 부모가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여, 다문화청소년은 홀로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서,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부모의 방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자녀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은 외, 2013; 김혜성 외, 2006; 이정운, 이정아, 2004; 좌문경, 2009; 전수정, 윤혜미, 2013; 정익중, 2011; Kinard, 2001; Perez & Widom, 1994;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부모 방임은 자녀가 가진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정서 및 신체 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방치하여 자녀에게 마땅히 제공해줘야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박기원, 2014;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방임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을 제공하지 않아,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며, 자녀가 가정을 벗어난 학교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한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학업성취, 학교규범,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김미정, 염동문, 2012).

부모의 방임·학대 등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춘경, 조민규, 2014; 박기원, 2014; 이영애, 정현희, 2017;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홍나미, 임은의, 2016). 부모의 학대 경험은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방임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원, 2014;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안혜진, 2016). 부모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데(김혜금, 2014;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학대와 달리 방임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 및 학교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으며(안혜진, 2016), 방임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방임 경험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박현정, 홍나미, 정익중,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자아상, 또래 관계 거부, 우울 등과도 연관되어 있으며(김보영, 장은비, 2015; 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병선 외, 2017). 청소년기 우울은 학교생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비행·자살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기의 우울이나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오승환, 2016; 유지희, 황수연, 2016; Harrington et al, 1994),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책이 요청된다. 특히 우울은 개인요인, 부모요인, 환경요인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우울의 영향 요인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요청된다(오승환, 2016). 지금까지 청소년의 부모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선행연구는 주로 비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 복지의 정책·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사회적 위축, 우울은 부모의 방임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 방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은 일상생활의 가장 많은 시간을 집보다는 학교에서 지내며, 학교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어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 중요한 과제로 간주된다(임수경, 이형실, 2007; 홍성훈, 김희수, 2005). 청소년기 학교 적응은 학교생활의 활발한 참여, 또래 친구·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에서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정도를 반영한다(이정운, 이경아, 2004; Ladd et al., 1996).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와 생활하며,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서, 학교생활에서 친구 혹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부정적으로 강화될 때,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거나,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청소년기 학교 적응은 모든 청소년의 주요한 과제이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자신들이 처한 이중 언어와 문화의 환경 속에서 학교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은선경, 2010; 전수정, 윤혜미, 2013; 전재일, 신효선, 2008; Chin & Yu, 2008; Dumais, 2002).

외국인 부모가 한국 생활 적응에서 경험하는 여러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서현, 이승은, 2007), 부모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습관으로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이병철, 송다영, 2011; 임선모, 신정숙, 손재홍, 2012; 최윤미, 임성택, 2012). 이러한 다문화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어려움이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할 경우 외국인 부모도 취업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어서 방과 후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방임으로 이어지기 쉽다(전수정, 윤혜미, 2013).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의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권지은 외, 2013; 김혜성 외, 2006; 나은숙, 정익중, 2007; 이정운, 이경아, 2004; 좌문경, 2009; 조은정, 2012; Kinard, 2001; Ladd et al., 1996; Paúl & Arruabarrena, 1995; Perez &

Widom, 1994). 방임은 양육자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양육에 대해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며(송미령, 이재연, 2011), 가해자가 방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을 수 있으므로 지속되기 쉽다(정익중, 2011). 방임의 누적된 결과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이어져 전생애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광혁, 2009),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처가 요청된다.

2.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

1)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 학교적응과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형성 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는데, 지나친 부끄러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어려우며, 어떤 힘에 눌러 기를 펴지 못하며, 대인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는 경향을 말한다(김금순, 김은미, 2015; 김수정, 박금주, 2012; 김현미, 2013; 정일영, 2016).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내며, 학교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설계능력을 형성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기에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위축감을 경험하면, 청소년은 무력감·열등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 본인의 사회적 능력에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박기원, 2014)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학교생활 능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도 교사나 또래친구와 원활한 의사소통, 친밀한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이 취약할 수 있다(김수정, 박금주, 2012; 김영순, 신효정, 2014; 장성화 외, 2010; 정일영,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유라, 노충래, 2014). 이는 청소년이 사회성이 발달할수록 학교적응 능력이 높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수정, 박금주, 2012; 김영순, 신효정, 2014; 장성화 외, 2010; 정일영, 2016).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데, 오경화(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인 사회적 능력과 학교생활적응과 연관을 탐색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대인 간 신뢰성, 대인관계 능력을 설명하는데, 한국인과 관계를 맺고 나눌수록 한국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며, 한국인과 관계를 가진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친구들과 공동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우수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중 대인신뢰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전병주, 2012).

2) 우울과 청소년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기 우울에 비해 지속기간이 더 길고 높은 재발율을 보이며, 청소년기 우울 경험이 성인기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rington et al, 1994). 또한 청소년기 우울은 청소년이 사회·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즉각적인 영향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승환, 2016). 청소년의 우울정도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경우

학교 적응이 부정적인 하락을 경험하며(김아영, 이명희, 2008; 우유라, 노충래, 2014; 최정미 외, 2006),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낸다.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외모차이에 의한 차별 놀림을 경험할 수 있으며(오승환, 2016), 언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학교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대인 관계 형성이나,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교생활에서 고립될 수 있다(김현식, 김두섭, 2014). 더욱이 학교에서 교사의 차별 경험이나 학교 폭력을 당할 때, 다문화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오승환, 2016).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경험할 때, 우울 정도는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또래 친구선배·성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때, 우울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폭력 상황에 더 심한 우울을 경험한다(김정민 외, 2015). 폭력으로 인한 병원 치료경험이 있을 때,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2번의 치료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이 2.9배 더 높았지만, 다문화청소년은 우울이 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지희, 황수연,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뿐만 아니라 비행, 자살 등 문제행동과 영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우울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가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울의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유지희, 황수연, 2016).

3) 부모방임, 사회적 위축과 우울 및 학교적응과의 종합적 관계

부모의 방임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 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에 위축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위축적인 태도로 반응하면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박기원, 2014).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클수록 또래와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과 적극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도 이어져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소극적인 형태를 띠며,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박기원, 2014; 박병선 외, 2017; 정일영, 2016; 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 위축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청소년 발달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Rubin & Barstead, 2014; Smith, Barstead & Rubin, 2017),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더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의 예측요인이며,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김보영, 장은비, 2015; 허인영, 2016; 박병선 외, 2017; Rubin, Chen, McDougall, Bowker & McKinnon, 1995; Smith, Barstead & Rubin, 2017)

청소년이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학대를 경험할수록 사회적 위축, 우울이 높아지며 학교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데(이영애, 정현희, 2017; 장신재, 양혜원, 2007), 특히 부모의 방임이 학대보다 우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나미, 임은의, 2016). 특히 이중 문화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에서 우울을 더 경험할 수 있으며(김민정, 2016; 오승환, 2016; 유정옥, 김묘성, 2015; Whaley & Francis, 2006), 가정에서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김정민 외, 2015).

우울의 복합적인 요인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연구들에서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예측하기도 하며(김보영, 장은비, 2015; 박병선 외, 2017),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예측하는 등(최현주, 신혜진, 2016) 상호인과성이 작용하므로 보다 다양한 경로를 검증할 것이 요청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다문화가정 부모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 우울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5차(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NYPI, 2017). 연구대상은 자신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방임경험과 정서적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차 년도에 참여한 패널자료의 대상은 남학생 660명(49%), 여학생 688명(51%)으로 총 1,348명이었으며, 모두 최종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아동에게 무관심한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방임은 총 10문항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방임의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문항들을 역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을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방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36이었다.

2) 종속변수: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은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등 학교수업에 관한 5문항,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 학교친구에 관한 5문항,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학교 선생님에 관한 5문항 등 총 15문항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다. 부정문항들을 역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의 신뢰도 .875로 나타났으며, 학교수업은 .785, 학교친구는 .626, 학교선생님은 .877이었다.

3)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우울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은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 5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03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등 총 10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우울의 신뢰도는 .907이었다.

4) 통제변수: 성별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 외에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가 보고되었으므로(박현정 외, 2014; 유정아, 정익중, 2014)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추정은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학교적응 관련 주요 변인들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 분포 특성인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은 측정모형을 검토한 후에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분석접근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Kline, 2010). 변수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검정방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이며 각 변수의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왜도의 절대값이 모두 3미만이었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06이상의 상관관계나 나타나지 않고 분산팽창계수(VIF)가 모두 2.0이하였으며 공차가 1에 근접하였으므로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 변수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
방임	1			
사회적 위축	.193**	1		
우울	.463**	.462**	1	
학교적응	.462**	-.358**	-.491**	1
평균	17.57	11.72	16.93	45.67
표준편차	4.49	3.67	5.35	6.13
왜도	.139	-.217	.467	.187
첨도	-.250	-.518	-.176	.088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적응을 포함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경로로 추정되어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은 $\chi^2=599.090(df=71)$,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하였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NFI, TLI, CFI, RMSEA 지수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NFI=.936, TLI=.916, CFI=.943, RMSEA=.067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p<.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여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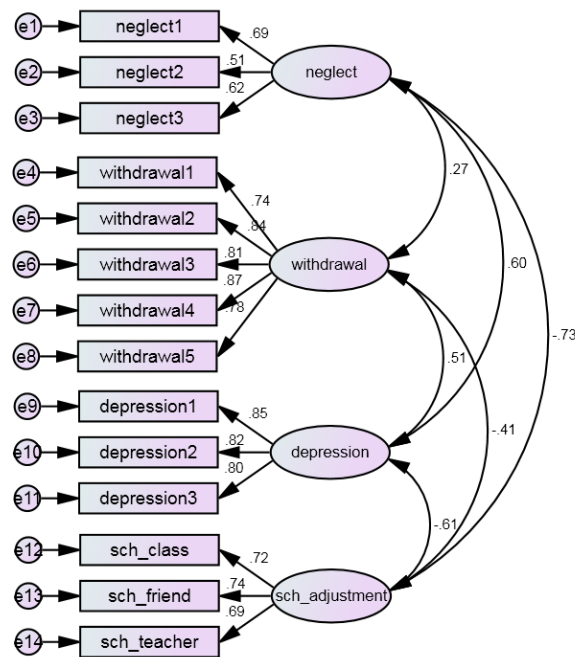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분석결과(표준화 계수)

3.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으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살펴보고자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chi^2=675.207(df=84)$, NFI=.928, TLI=.909, CFI=.937, RMSEA=.066으로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조모형의 결과와 추정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방임은 사회적 위축에 .267, 우울에 .50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에 -.565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376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적응에는 -.171로 영향을 미쳤

다. 우울은 학교적응에 $-.194$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부모의 방임이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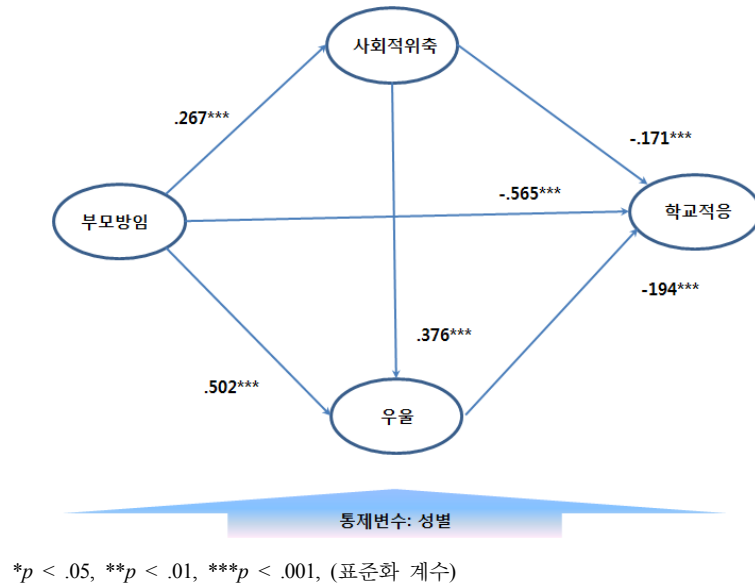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다음으로 주요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효과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Amos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임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565$)는 .001유의수준에서 유의했으며, 간접효과($-.163$)와 총효과($-.728$)은 모두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6(.267 \times -.171)$ 이며, 부모의 방임이 우울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97(.502 \times -.194)$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이중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020(.267 \times .376 \times -.194)$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중 우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¹⁾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효과

$$1) \text{ 소벨검증 } Z = \frac{ab}{\sqrt{b^2 Sa^2 + a^2 Sb^2}}$$

($X \rightarrow M \rightarrow Y$ 일 때 $a = X \rightarrow M$ 의 비표준화계수, $b = M \rightarrow Y$ 의 비표준화계수, $Sa = a$ 의 표준오차, $Sb = b$ 의 표준오차)

소벨검증(이중매개)

$$Z = \frac{abc}{\sqrt{(a^2 b^2 S_c^2) + (a^2 c^2 S_b^2) + (b^2 c^2 S_a^2)}}$$

($z=-4.625$)는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의 방임이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효과($z=-4.323$)도 .01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이중매개효과($z=-3.791$)도 .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효과분해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방임	→	학교적응		-.565***	-.163**	-.728**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학교적응			-.046**	
부모방임	→	우울 →	학교적응		-.097**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	학교적응		-.020*	

* $p < .05$, ** $p < .01$, *** $p < .001$, (standardized estimates)

정리하면, 부모의 방임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방임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모형의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방임, 사회적 위축, 우울 변인들이 설명하는 총변량은 61.0%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본 모형의 변량인 53.1%와 비교했을 때, 부모의 방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라는 매개변수가 설명력을 증가시켰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의 방임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여 청소년이 학교규범, 교사와 친구관계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미정, 염동문, 2012;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방임의 누적된 결과는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전생애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김광혁, 2009),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방임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는 이를 상당한 심리적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위축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김진아, 한귀례, 2014; Davies & Cummings, 1994),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돌봄을 경험한 자녀는 사회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경미 외, 2013). 방임은 우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이 없고 통제적일 때 또는 정서적 학대의 성향을 보일 때 우울의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박은주, 최말옥, 2014; Batanova & Loukas, 2014)를 뒷받침한다.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부모에 의해 방임과 학대가 행해지기 때문에(Emery & Lauman-Billing, 1998),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 문제인 우울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우울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이 개인적 기질적인 것이 아닌 또래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서(민원홍, 손선옥, 2017),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우유라, 노충래, 2014; 정일영, 2016)와 일치한다.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과 달리 짜증, 신체증상, 학습부진,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행동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성향을 띠는데(소선숙, 2008), 본 연구에서 우울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학업 부진 등 학교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정민, 송수지, 2014)를 뒷받침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울해지며 사회적 위축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모상현, 오성배, 2015),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점검과 개입이 요청된다.

셋째, 부모의 방임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금지현 외, 2013; 박기원, 2014; 박병선 외, 2017; 정일영, 2016; Rubin, Coplan & Bowker, 200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부모의 방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방임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 양육방식은 자녀의 긍정적 해결을 방해하여, 부정적 해결방안인 불신, 수치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Yount, 2008), 안전한 관계의 경험을 학습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관계에 미숙하여 위축될 수 있고(Cicchetti & Toth, 2005), 청소년기의 위축은 우울증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서(Boivinm Hymel, Bukowski, 1995),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개입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들 시기가 되면 이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학교는 학업에 대한 성취와 진로에 대한 비전, 또래

친구들과 관계 확장, 교사와 의미 있는 만남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적응적인 학교생활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주류 사회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이다. 따라서 학교적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방임에 대한 보다 주목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에 노출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그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홍나미, 임은의, 2016). 방임은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위급하거나 응급 상황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정익중, 2008), 가해자는 자신이 방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누적되어 나타나기 쉽고 비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정익중, 2011; Erickson & Egeland, 2011), 한국어에 미숙하고 한국생활에 적응을 요하는 다문화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점검하고, 방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녀의 발달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하여 주말이나 야간시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이 매개변인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부모의 방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또래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여 우울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는 있다. 청소년들은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롭지 못한 존재로 지각하여 우울감을 경험하는 편이다. 청소년 시기에 진입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는 담임교사가 위축되어있거나 우울한 다문화청소년을 발굴하여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공적기관 및 민관기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에 개입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뿐 아니라 교육청, 지역사회의 기관이 협력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적응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이슈인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방임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 무엇보다 부모의 방임이 점검되어야 하며,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 심리·정서적 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문화청

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횡단연구로 인해 인과관계를 확신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방임을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경로를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대안과 개입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 교육부, 2016년 교육기본통계.
- 국제신문, 2017년 5월 22일자.
-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스마트폰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미정, 염동문 (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민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2(7), 31-52.
- 김수정, 박금주. (2012).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영순, 신효정.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사회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0(3), 253-275.
- 김정민, 공보금, 강제욱, 문정준, 전동욱, 강은찬, 주현빈, 이현호, 정도운. (2015).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2(1), 11-19.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지지이 청소년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모상현, 오성배(2015). **다문화청소년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현정, 홍나미, 정익중. (2014).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319-346.
- 소선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1).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연구 분석. **학술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 오경화.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1-15.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정아,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2.
- 유정옥, 김묘성.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건강형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3), 190-198.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31(1), 115-146.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7-276.
- 이영애, 정현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53-79.
- 이혜숙, 박미현. (2017).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연구원.
- 임선모, 신정숙, 손재홍. (2012). 다문화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10), 175-183.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과**

- 육학회지, 19(3), 169-183.
- 장성화, 김순자, 최성열, 이주연. (2013).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정신건강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2(4), 243-256.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전병주. (2012).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11), 29-38.
-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 확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77-197.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 학회지**, 29(4), 79-95.
- 정익중. (2011).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107, 1-33.
- 정일영. (2016).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2, 88-118.
- 조예진, 주혜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좌문경. (2009).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울산화정종합복지관.
- 최윤미, 임성택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5(2), 15-26.
- 최정미, 우희정, 이 숙. (2006).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변인과의 인과모형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3), 29-41.
- 최현주, 신혜진.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을 매개로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97-323.
-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주민현황.
- 홍나미, 임은의. (2016).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소외와 휴대폰 의존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417-436.
- 홍성훈, 김희수. (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애착 안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6, 33-53.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tanava, M. D., & Loukas, A. (201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n applica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schema mode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4, 206-228.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on, L. (1993). Depression and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3), 306-315.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pp.765-785.
- Chin, J. M., & Yu, S. (2008).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immigrant mothers in Taiwan.

-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8), 1141–1150.
- Cicchetti, D., & Toth, S. K. (2005).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409–438.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
- Dumais, S. A. (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Sociology of Education*, 75(1), 44–68.
- Emery, R. E., & Laumann-Billing, L. (1998). An overview of the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 for abusive family relationship: toward differentiating maltreatment and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53(2), 121–135.
- Erickson, M. F., & Egeland, B. (2011). Child neglect. J. E. B. Myers(e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Kinard, E. M. (2001). Perceived and actual academic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5, 33–4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Paúl, J. D., & Arruabarrena, M. I. (1995).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d physic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 Spain. *Child Abuse & Neglect*, 19, 4, 409–418.
- Petez, C. M., & Widom, C. S. (1994). Childhood victimization and long-term intellectual and academic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18, 617–633.
- Rubin, K. H., & Barstead, M.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 274–284.
- Rubin, K. H., Chen, X., McDougall, P., Bowker, A., & McKinnon, J. (1995).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51–764.
- Rubin, K. H., &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mith, K. A., Barstead, M. G., & Rubin, K. H. (2017).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4), 772–786.
- Harrington, R., Bredenkamp, D., Groothues, C., Rutter, M., Fudge, H., & Pickles, A. (1994).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5(7), 1309–1319.
- Yount, W. R. (2008). Transcendence and aging: The secular insights of erikson and maslow.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21(1–2), 73–8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인효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3차(초등학교 6학년)부터 5차(중학교 2학년)까지 3개년 간 청소년 및 어머니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와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각각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의 동일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찬가지로 이후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모두 이후 시점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상호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는 이후 시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역으로 삶의 만족도도 이후 시점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의의와 제한점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I. 서론

과거와 비교해 한국 사회 인구 구성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다문화 인구의 증가이다. 특히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144,912명(여성 82.6%)이며, 이는 2010년 당시 결혼이민자가 125,087명이었던 것이 비교하여 5년 사이 약 15.8% 증가한 수치이다(행정자치부, 2015).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11월 기준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97,550명으로 집계되며, 5년 전에 비해 62% 정도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5).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 어려움, 의사소통, 고부갈등, 자녀양육 문제, 고국문화에 대한 향수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이지영, 2012; Choi,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Berry, 1997), 결혼이주여성의 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yoyeon.in@gmail.com

화적응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권구영, 박근우, 2007), 결혼행복감(김연수, 2007)과 같은 자신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환경(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조연실, 2013) 및 자녀의 적응 문제(이지영, 2012)와도 연관된다.

병리적, 역기능적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강점 등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 함께, 행복(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요소인 삶의 만족이 주목받고 있다. 삶의 만족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Baumgardner & Crothers, p.32)”을 뜻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같은 정서적 요소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뜻하는 인지적 요소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Diener et al., 1999),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한다(Pavot, Diener, Colvin, Sandvik, 1991). 청소년기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중요한 심리적 강점으로서, 삶에서의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관계된다(Gilman & Huebner, 2006; Oberle, Schonert-Reichl, & Zumbo, 2011).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매개하였으며(전현정, 정혜원, 2016), 스트레스 사건이 비행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약화시켰다(Suldo & Huebner, 2004). 또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학업과 대인관계, 개인의 내적 기능의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바람직한 특성을 나타냈다(Gilman & Huebner, 2006).

그러나 2015년 조사 결과,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다른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어(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작용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부모(주로 어머니)라는 가족환경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연구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몇몇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 문제와 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이지영(2012)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3-6학년 자녀의 외현화(공격성 등) 및 내재화 부적응(우울, 불안 등)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로를 가족기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가족기능이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박형원(2010)의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가정 대상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두려움과 문화충격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문화적 충격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멕시코계 미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1년 후 멕시코계 미국 아동의 우울, 불안 등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Leidy, Parke, Cladis, Coltrane, & Duffy, 2009).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정옥희, 2013) 등에 관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삶의 만족과 같은 청소년의 긍정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가족은 일차적 환경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봉애와

옥경희(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교사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 중 가족지지가 다문화 아동의 정서조절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적응력에 대하여도 학교교사의 지지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여, 학교와 또래로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에도 가족은 여전히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 요인임을 보였다.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가족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 지지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석말숙, 구용근, 2015),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시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또한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외국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나 부모-자녀 관계 및 문화적 요인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을 보였다.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사회적지지가 중국의 이주노동자 자녀(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Wong, Chang, He, & Wu, 2010), 지각된 가족의 지지와 멕시코문화유지가 멕시코계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Edwards & Lopez, 2006). Oppedal, Røysamb, & Sam(2004)은 이민자 부모를 둔 노르웨이 중학생에게서 다른 종류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 관련 변인 및 정신건강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됨을 밝혔는데, 청소년들의 고유문화에 관한 역량이 증가할수록 가족지지가 증가하고 이는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가족지지는 또래, 교사, 학급 지지에 비하여 1년간 개인 내 변화가 가장 적은 변인이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지지 등 가족 환경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행복의 주요 지표인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 중요한 환경 변인임을 지지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문화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드물며, 특히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족지지 모두를 포함해 인과적 방향을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상호 어떠한 종단적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가?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 연구의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3개년인 3차(2013년), 4차(2014년), 5차(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3차에서 5차 조사 당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의 발달적 전환기를 맞은 초기 청소년들과 그들의 외국 출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어머니)(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p.19)”이며, 1625가구(2011년 당시 초등 4학년 학생 1635명, 어머니 1625명)의 표본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16개 시·도의 4학년 다문화 아동이 재학하는 초등학교 분포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층화하고, 초등학교 4학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가능한 전수 조사하였다(양계민 외, 2012). 원표본 유지율은 3차 88.2%(1,433가구), 4차 84.4%(1,371가구), 5차 82.3%(1,338가구)이다.

최초 구축 표본인 1639가구 중 3-5차의 세 시점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177개 사례를 제외하고 남은 1462개 사례 중, 세 시점에서 어머니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81개 사례를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381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차수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	차수	항목	범위	<i>M</i>	<i>SD</i>	<i>N</i>	3차가준 어머니 출신국가/청소년 거주지역(%)
어머니	3차	연령	23-62	42.42	5.19	1367	일본(35.3), 필리핀(25.9), 중국_조선족(19.6), 중국_한족 및 기타민족(7.2), 태국(3.7), 베트남(2.6), 기타(1.5), 러시아(1.0),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각 1% 미만
		한국거주기간 (개월)	26-472	172.29	41.14	1366	
	4차	연령	24-63	43.48	5.14	1305	
		한국거주기간 (개월)	38-484	185.03	40.82	1301	
	5차	연령	25-64	44.47	5.16	1279	
		한국거주기간 (개월)	49-497	197.42	40.37	1267	
청소년	3차	연령	11-14	11.97	.35	1369	경기(22.4), 전남(10.8), 서울(9.7), 경남(7.9), 충남(7.8), 경북(7.2), 전북(7.1), 강원(5.8), 인천(4.4), 충북(4.3), 부산(3.9), 대구(2.4), 광주(2.2), 울산(2.0), 대전(1.2)
		성별	남 671명, 여 698명				
	4차	연령	12-15	12.97	.35	1311	
		성별	남 642명, 여 669명				
	5차	연령	13-16	13.97	.35	1283	
		성별	남 631명, 여 652명				

2. 측정도구

MAPS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andhu & Asrabai, 1994)를 이승중(1995)이 번안하고, 이를 이소래(1997)가 수정·보완한 33문항 척도 중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소래의 문항 중 연구진 2명과 학계전문가 2명이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선별하였다(양계민 외, 2012).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3차 .858, 4차 .885, 5차 .874이었다.

2) 가족지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을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 중 하위 요인 ‘가족 지지’의 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8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MAPS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맞춰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을 추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1개를 제외하고 총 7문항을 확정하였다(양계민 외, 2012).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3차 .940, 4차 .949, 5차 .946이었다.

3)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사용한 김신영 외(2006)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스스로의 삶이 즐거운지, 걱정거리가 없는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개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3차 .854, 4차 .862, 5차 .865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MAPS의 3, 4, 5차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 자료를 활

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인이 안정적인지, 또한 변인 간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떠한지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순차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AMO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였다. 결측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FIML은 사례수와 자료를 보존한 채 보다 정확한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Enders & Bandalos, 2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지지는 각각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를 만들어 각 문항꾸러미에 배정된 문항의 평균값을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을 활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각 차수별로 실시한 후, 3차에 걸친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평균을 구하였다. 요인 부하량 평균의 절대값의 크기가 큰 3개의 문항을 세 개의 문항꾸러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그 다음으로 요인 부하량이 큰 3개 문항은 문항꾸러미에 역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꾸러미별 부하량이 비슷해지도록 하였다(Little, 2013 참조). 삶의 만족도는 문항꾸러미를 만들지 않고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각각을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 변인 간 상관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차수별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각 차수별 청소년의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과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차수별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1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려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각각 2와 7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모형에 관측변수로 투입된 문항꾸러미 및 삶의 만족도 문항 점수들의 경우, 왜도는 모두 1 이하, 첨도는 최대 1.16을 나타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문화적응 스트레스(3차)									
2. 문화적응 스트레스(4차)	.62								
3. 문화적응 스트레스(5차)	.54	.63							
4. 가족지지(3차)	-.12	-.10	-.12						
5. 가족지지(4차)	-.09	-.12	-.10	.44					
6. 가족지지(5차)	-.12	-.13	-.11	.41	.54				
7. 삶의 만족(3차)	-.14	-.12	-.12	.50	.30	.24			
8. 삶의 만족(4차)	-.11	-.11	-.10	.31	.51	.34	.44		
9. 삶의 만족(5차)	-.10	-.13	-.13	.26	.32	.50	.39	.48	
<i>M</i>	2.51	2.47	2.43	3.23	3.20	3.19	3.30	3.22	3.14
<i>SD</i>	.73	.79	.74	.56	.56	.55	.58	.59	.62
왜도	.20	.36	.31	-.50	-.30	-.31	-.45	-.35	-.33
첨도	-.18	-.05	-.07	.86	.47	.67	.10	.11	.11

N = 1255-1369. 변인 간 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16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측정동일성(모형2-모형4), 경로동일성(모형5-모형13),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14-모형16)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모형별로 동일화 제약을 위해 사용된 기호는 [그림 1]에 표기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형 간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χ^2 값이 표집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CFI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CFI 차이 값이 .01을 넘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Cheung & Rensvold, 2002).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1: 제약을 전혀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모형2: 잠재변인 '삶의 만족도'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_1 , a_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가족지지'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_1 , b_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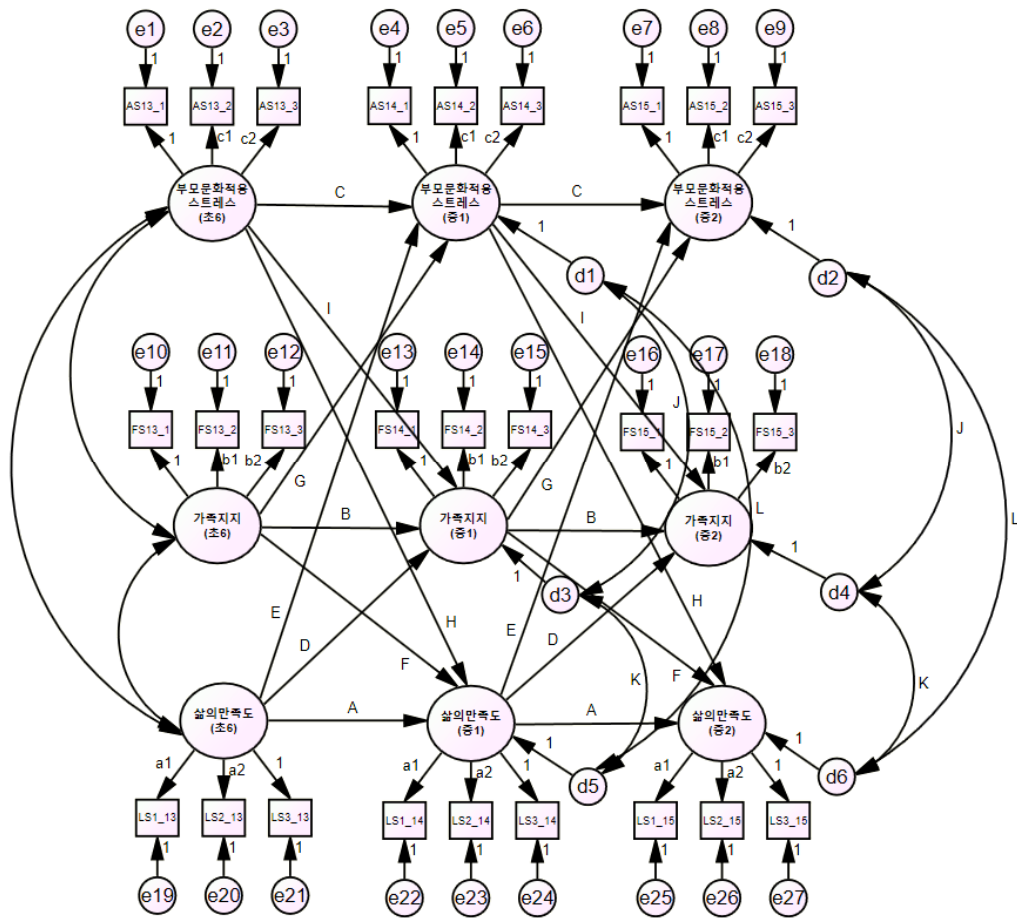
모형4: 모형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_1 , c_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4에 더하여, 각 시점별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6: 모형5에 더하여, 각 시점별 '가족지지'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7: 모형6에 추가하여, 각 시점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8: 모형7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도'에서 '가족지지'로 가는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9: 모형8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가는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0: 모형9에 추가하여, '가족지지'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1: 모형10에 추가하여, '가족지지'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가는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2: 모형11에 추가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삶의 만족도'로 가는 교차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3: 모형12에 추가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가족지지'로 가는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4: 모형 13에 더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오차 공분산(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5: 모형 14에 추가하여,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K)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16: 모형 15에 추가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모형1)과 삶의 만족도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2 간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CFI 값도 변화가 없었다. 모형2와 가족지지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3을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CFI 차이가 0.1을 넘지 않고 TLI와 RMSEA 값도 적합하게 나타났다. 모형3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모형4) 간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 가족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각각 세 시점에 걸쳐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모형5), 가족지지(모형6), 문화적응 스트레스(모형7) 각각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했을 때 모형5와 모형6, 모형6과 모형7 간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CFI 값은 모형 5와 모형 6 간에는 차이가 없고, 모형6과 모형7 사이는 0.001로 나타나 0.1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잠재변인 별로 초등학교 6학년 시점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중1 시점 수준이 중학교 2학년 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있



시점에 따라 반복되는 동일 측정변인의 오차(예: e1-e4, e1-e7, e4-e7) 간 상관을 설정하였으나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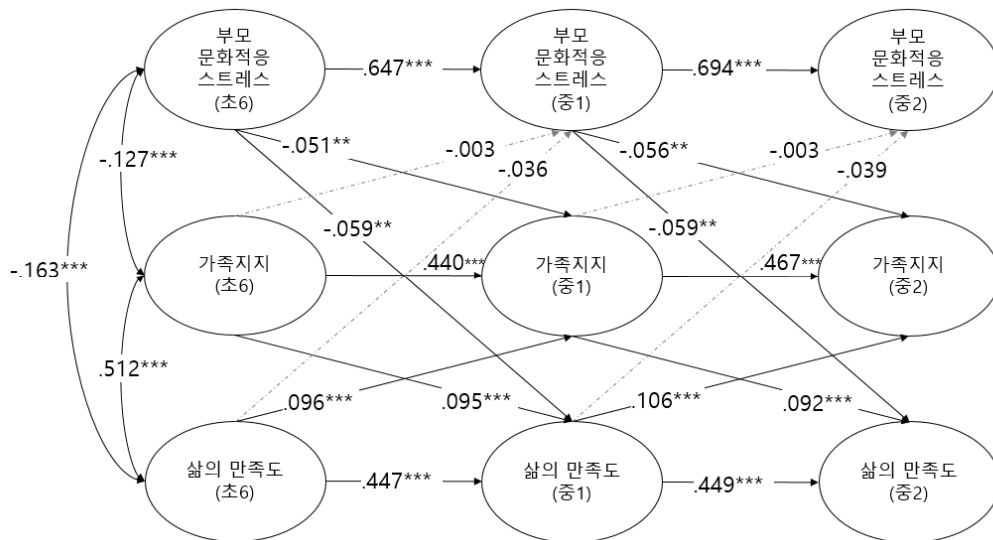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

다. 이어서, 잠재변수 상호간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들(모형8-모형13)을 비교한 결과 χ^2 값과 모형 적합도 지수 모두 변화가 없어, 경로 동일성이 성립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모형14-모형16)의 χ^2 및 CFI 값 역시 모형 간 순차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모형 16을 선택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 1년 후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로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 1년 후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모형16에서 제거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고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했듯 최종모형은 모형16과 비교했을 때 χ^2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적합도 지수에도 변화가 없었다.

표 3.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청소년 지각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Delta\chi^2$	Δdf	ΔCFI
모형1	599.638	270	.984	.989	.030(.027, .033)	-	-	-
모형2	600.915	274	.984	.989	.029(.026, .033)	1.277	4	0
모형3	629.734	278	.983	.988	.030(.027, .033)	28.819***	4	.001
모형4	634.077	282	.984	.988	.030(.027, .033)	4.343	4	0
모형5	634.584	283	.984	.988	.030(.027, .033)	0.507	1	0
모형6	641.108	284	.984	.988	.030(.027, .033)	6.524*	1	0
모형7	650.664	285	.983	.987	.030(.027, .034)	9.556**	1	.001
모형8	651.084	286	.983	.987	.030(.027, .034)	0.42	1	0
모형9	651.838	287	.983	.987	.030(.027, .033)	0.754	1	0
모형10	652.115	288	.983	.987	.030(.027, .033)	0.277	1	0
모형11	652.285	289	.984	.987	.030(.027, .033)	0.17	1	0
모형12	653.115	290	.984	.987	.030(.027, .033)	0.83	1	0
모형13	654.061	291	.984	.987	.030(.027, .033)	0.946	1	0
모형14	656.487	292	.984	.987	.030(.027, .033)	2.426	1	0
모형15	657.543	293	.984	.987	.030(.027, .033)	1.056	1	0
모형16	658.911	294	.984	.987	.030(.027, .033)	1.368	1	0
최종모형	664.327	296	.984	.987	.030(.027, .033)	5.416	2	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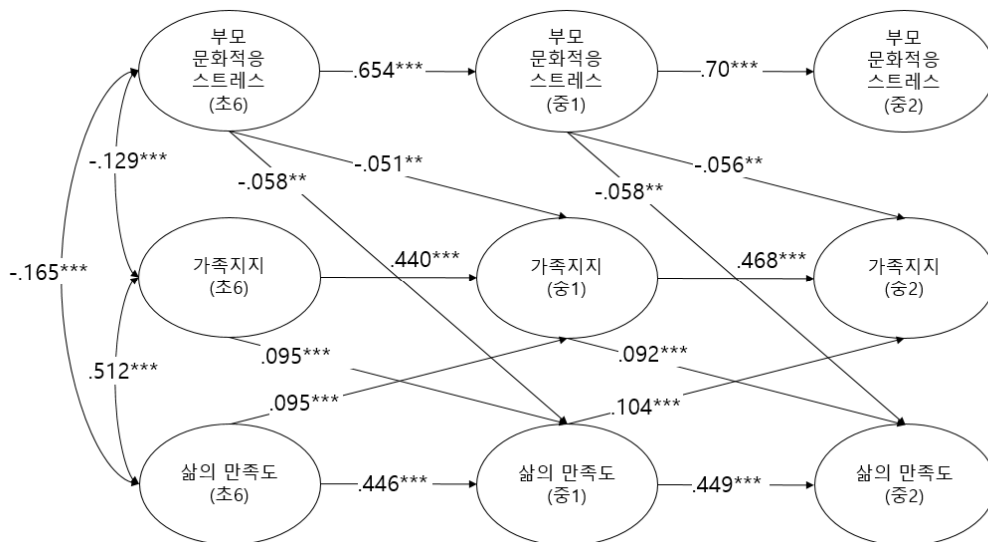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준화회귀계수를 표기함

그림 2. 연구모형(모형16)의 경로도

최종 모형을 분석 결과, 3차년도에 걸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3). 즉 1년 간격으로 이전 시점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beta_s = .647, .694$), 이전 시점의 가족지지가 이후 시점의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beta_s = .440, .467$),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eta_s = .447, .449$)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이들 변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지지($\beta_s = -.051, -.056, ps < .01$)와 삶의 만족도($\beta_s = .058, ps < .01$)에 모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최종모형에서 해당 경로는 제외되었다.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는 이후 시점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_s = .095, .092, ps < .001$), 역으로 삶의 만족도 또한 이후 시점 가족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_s = .095, .104, ps < .001$).



** $p < .01$, *** $p < .001$. 표준화회귀계수를 표기함

그림 3.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MAPS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3차년도), 중1(4차년도), 중2(5차년도) 시점 자료 및 동일 기간 어머니로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의 외국 출신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3년에 걸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종단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같은 상호 영향은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 시기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중학교 2학년 시점까지 3년간 비교적 안정성을 나타냈다. 즉,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가족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만족도도 마찬가지이며,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 역시 1년 경과 시점에도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할 경향성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년 간격으로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자기회귀계수가 .65-.70 정도를 보였으며,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각각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 간에 .44-.46정도의 자기회귀계수를 나타내, 세 연구 변인 중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이전 시점의 수준이 이후 시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각 변인의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서도,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1년 후 자녀가 느끼는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이후,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낮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기능(의사소통, 문제해결, 정서반응 및 관여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한 이지영(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동문제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형원, 2010; 이지영, 2012; 정옥희, 2013; Leidy et al., 2009)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후 시점 자녀가 평가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전 시점 자녀 평정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 결과, 소득수준, 한국 거주기간, 결혼기간, 출신국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한국어 실력 외에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이경순, 연영란, 2012). 본 연구에서의 가족 지지는 자녀의 관점에서

주로 가족이 자신에게 보내는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와는 다를 수 있다. 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족 지지가 각자에게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이후 시점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또는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석말숙, 구용근, 2015; Edwards & Lopez, 2006). Gilman과 Huebner(2003)는 기존 연구 결과들 검토를 통해 가족의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가족경험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하며, 가족을 포함한 또래,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적 변인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또한 이후 시점 이들이 지각한 가족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낄수록, 시간이 흐른 후 가족들에게 받는 지지가 높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삶의 만족도를 가족 또는 부모지지의 결과로 가정하고 한 시점에 측정한 횡단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이 두 변인 간 종단적인 상호 인과 방향을 확인하였다. Gilman과 Huebner(2006)는 미국의 청소년들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 및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 대인관계 및 개인내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들의 연구는 횡단연구였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개인의 긍정적 기능 간 인과적 방향을 검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이후 시점의 지각된 가족 지지를 예측하는 상호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연결감, 지지 등)가 2년 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였지만,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 부모와의 관계성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최희철 외(200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연구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종단 자료를 통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삶의 만족도가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석해본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부모 및 가족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긍정적 가족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이것이 높은 가족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가족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개년 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특징적인 환경 변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과 문화적응 현상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료를 분석에 포함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문화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개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주해온 어머니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역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지원해야함을 강조한다. 삶의 만족도와 가족지지 간 상호 영향을 미루어볼 때,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돕고 가족 간 지지를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것이고, 이는 다시 가족의 지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어머니와 청소년에 대한 초기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초기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을 다루고 지지적인 가족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후 시기까지 긍정적 측면을 유지·강화하는데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 관점에서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거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어머니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박소은, 이채원, 2012)이나 양육스트레스(박명숙, 2014)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볼 때,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본인의 양육 관련 효능감이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일 시점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어머니와 자녀 변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아, 관련 변인들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강조하였는데 (Gilman & Huebner, 2003; Oberle et al., 2011), 본 연구는 가족이라는 환경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이외에도,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또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외 관찰자 평정이나 객관적 지표와 같은 측정방법을 포함하고, 아동기 또는 후기 청소년기에도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 187-219.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1-3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7(1), 55-74.
- 박명숙.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23.
- 박소은, 이채원. (201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359-384.
- 박형원. (2010).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해외이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8), 1-25.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2016년도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511-538.
- 이경순, 연영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97-709.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승중(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17(2), 105-125.
-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전현정, 정혜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최희철, 황대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refGroup=4>. 2017년 8월 1일 인출.
- 홍진주. (2004). **몽골출신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09). **긍정심리학**(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 Review*, 46, 5–3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oi, Y. J. (2016).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79–8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dwards, L. M., & Lopez, S. J. (2006). Perceived Family Support,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exican American Youth: A Mixed-Methods Expl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279–287. doi:10.1037/0022-0167.53.3.279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8), 430–457.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11–319.
- Leidy, M. S., Parke, R. D., Cladis, M., Coltrane, S., & Duffy, S. (2009). Positive marital quality, acculturative stress, and child outcomes among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4), 833–847.
- Lewis, A. D., Huebner, E. S., Malone, P. S., & Valois, R. F. (2011).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3), 249–62.
-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Oberle, E., Schonert-Reichl, K., & Zumbo, B. D.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7), 889–901.
- Oppedal, B., Røysamb, E., & Sam, D. L. (2004).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change in mental health among young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6), 481–494.
- Pavot, W., Diener, E. D., Colvin, C. R., & Sandvik, E. (1991).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or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1), 149–161.
- Sandhu, D. S., & Asrabalah,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ng D. F. K., Chang Y., He X., Wu Q. (2010). The protective functions of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 Shanghai,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6(2), 143–157.



제 ④ 주제

심리사회적응 I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4.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우진* · 심태은** · 정지아***이송이****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개인과 부모의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을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이중문화 수용성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청소년의 언어 능력과 이중 문화 수용 능력에 대한 최초 평가값만이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배경보다는 가정에서의 심리적 지지와 학교 교육과 같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개발에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자아 탄력성,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정, 잠재성장모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국내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에는 영아 3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예상되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다문화가정은 1990년 중반 이후에나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윤아름, 2013), 아직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문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청소년의 발달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텍사스주립대(UTRGV) 박사 후 과정, 제1저자

** 동국대학교 역량개발센터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신저자(jeaah.jung@gmail.com)

****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

이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사회는 다문화청소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의 문제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이들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강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찾아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점 중 자아탄력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적응유연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며(이숙영, 2012) 개인의 자아에 대한 유연성을 뜻하는 용어로, ‘resiliency’ 또는 ‘resilience’를 ‘탄력성’, ‘유연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으로(노은숙, 2010),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적응기제이다(Masten, 2001). 즉, 자아탄력성은 각 발달단계에 있어서 삶에 적응하고 견디어내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 부모와 사회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연구(구자은, 2000; 정지영, 임정하, 2011; 임양미, 2013)로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김지혜(2012)에 의하면 청소년의 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정규와 허원석(2013)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사회의 심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인식 또한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기 쉽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특히 향상해야 할 중요한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중점을 두었다.

언어능력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다. 이채식(2012)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언어능력은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언어능력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영경과 김은하(201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과 적응유연성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어, 언어능력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관련하여 기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학생 한국어능력은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양계민, 2012). 이는 4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이후 이 학생들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성장해 나아가는 동안 향상된 언어능력이 자아탄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시기변화에 따른 언어능력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 또한 자아탄력성과 상당히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박애선, 2017). 오경화(2011)에 따르면, 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높아 한국문화수용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만식(2014)에 의하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이중문화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중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이중문화수용성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영과 김재철(2015)에 의하면 이중문화수용성이 학교 간 분산에 비해 학교 내 분산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특성이 이중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높은 이중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다른 연령대의 이중문화수용성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같은 대상의 발달에 따른 이중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중문화수용성이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이중문화수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역량과 함께 부모 요인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일반가정 부모와 달리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기존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기능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반응, 정서관여, 행동통제, 일반기능에서 부정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이지영, 2012) 부모의 문화적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현실, 2012),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형원,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개인과 부모의 다문화특성을 통하여 경험하고 인식하는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들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문화청소년만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이들로 하여금 자아탄력성에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또 다른 강점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어 국내의 청소년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성별,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주요 변인 측정

1)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으로서, 이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미영, 2017).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①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 ②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냄, ③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함, ④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임, 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김, 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임, ⑦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함, ⑧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음, ⑨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함, ⑩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함,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함, ⑫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 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짐, ⑭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음 등 총 1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은 수록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자아탄력성은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변수로서 측정문항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의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906$ 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둘째, 2013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902$ 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913$ 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자아탄력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909$ 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2)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청소년 성별,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다. 먼저 성별, 어머니 교육 수준 및 아버지 교육 수준은 시간 독립적 변수(time independent)로 정의하였으며, 2012년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코딩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되어 있으며,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을 안 받았음은 1, 초등학교는 2,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4, 대학교 4년제 미만은 5, 대학교 4년제 이상은 6, 대학원 석사과정은 7, 대학원 박사과정은 8 등으로 코딩되었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 의존적(time dependent)변수로서 측정문항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의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측정변인은 ① 한국어 말하기 능력 ② 한국어 쓰기 능력 ③ 한국어 읽기 능력 ④ 한국어 듣기 능력 등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못한다, 2점=못하는 편이다, 3점=잘하는 편이다, 4점=매우 잘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937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둘째, 2013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949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941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언어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958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의 측정변인은 ①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임, ②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편임, ③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움, ④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⑤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음, ⑥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음, ⑦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음, ⑧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함, ⑨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함 등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은 수록 이중문화 수용성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각 연도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730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둘째, 2013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731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셋째, 2014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731이며 신뢰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넷째, 2015년 이중문화 수용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742이며 신뢰도 값 기준을 만족하였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①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됨, ②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 ③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④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픔, ⑤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리움, ⑥ 외국 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남, ⑦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낌 등 총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별로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초기변화 상태(initial status)와 변화수준(rate of change)을 이용하여, 마지막 수준까지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또한 잠재성장 모형은 비 조건적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조건적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구분되는데 비 조건적 모형은 자아탄력성,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를 1년 단위로 4번 측정한 뒤 무 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2차 함수 모형을 설정한다. 그 다음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개인 간 모형과 개인 내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내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하다. 우선 무 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ti} = \pi_{0i} + e_{ti}$$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이는 자아탄력성,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함없이 그대로 임을 가정한다.

다음으로 선형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ti} = \pi_{0i} + \pi_{1i} \text{Time}_{ti} + e_{ti}$$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여기서 y 는 시간 t 에서 개인 i 의 y 변수의 점수, π_{0i} 는 개인 i 의 초기상태, π_{1i} 는 개인 i 의 변화율, t 는 측정시간의 코드화 값, e_{ti} 부분은 오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형을 1수준 모형이라고 하며, 다음 개인 간 모형 즉 2수준 모형에서 β_{00} 와 시간 β_{10} 는 각각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집단 평균을 의미하며, r_{0i} 는 개인 i 가 집단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그리고 r_{1i} 는 개인 i 가 변화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

2차 함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 Y_{ti} = \pi_{0i} + \pi_{1i} \text{Time}_{ti} + \pi_{2i} \text{Time}_{ti}^2 + e_{ti}$$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pi_{2i} = \beta_{20} + r_{2i}$$

여기서 β_{20} 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2차 함수 모양으로 변화 속도가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독립적 변수와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1수준: } Y_{ti} &= \pi_{0i} + \pi_{1i} \text{Time}_{ti} + \pi_{2i} \text{Time}_{ti}^2 + \pi_{3i} \text{이중문화 수용성} + \pi_{4i} \text{언어능력} \\
 &\quad + \pi_{5i} \text{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 e_{ti} \\
 \text{2수준: } \pi_{0i} &= \beta_{00} + \beta_{01} \text{성별}_i + \beta_{02} \text{어머니 교육수준}_i + \beta_{03} \text{아버지 교육수준}_i + r_{0i} \\
 \pi_{1i} &= \beta_{10} + \beta_{11} \text{성별}_i + \beta_{12} \text{어머니 교육수준}_i + \beta_{13} \text{아버지 교육수준}_i + r_{1i} \\
 \pi_{2i} &= \beta_{20} + r_{2i}
 \end{aligned}$$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추정방식은 FIML을 활용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긴장과 인내의 수준을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Kremen & Block, 1996). 이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좋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으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적인 적응 능력’으로 정의된다(고은정, 1996).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응집력이 강하고, 삶의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Murphy & Moriarty, 1976). 또한 그러한 아동들은 낙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활동력을 보여 주고 자기 표현력이 높다(Klohn, 1996). 학업에 대한 지적 성취도가 높은 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 중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인지적 능력을 더욱 잘 활용하고(Hilgram & Palty, 1993, 고민숙 2002),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 할 뿐 아니라 스포츠, 드라마, 음악 등에서도 뛰어나고 또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중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혜성, 2012). 이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아탄력성은 부모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간 개

방형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이 잘 기능하고 환경이나 사건에 잘 적응하게 되면서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학교생활적응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한혜성, 2012). 또한 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이중문화요인, 사회적지지, 이중언어요인, 가정배경 순이라고 밝혔다(김승민·양계민, 2012).

2. 언어능력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이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다. 그러나 이때 두 개의 언어에 대한 능력 정도에 대한 범위 문제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최상론자들(maximalist)은 두 개의 언어에 모두 동등하게 숙달해야만 이중 언어로 보는가 하면 최소론자(minimalist)들은 한 개의 모국어와 제2언어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만 있으면 이중 언어로 본다.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부/모 모두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홍종며, 2012).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언어의 습득은 단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그 민족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중언어의 습득은 단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그 민족의 관심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상호교류 확대 및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노충래, 홍진주, 2006).

안은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출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출신국가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에 비해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중언어 노출정도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박현산·이채원·노연화·이상규, 2012).

이중언어사용이란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사용에 대해 격려하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언어사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여러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 즉 자신의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이며,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 여러 위기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외국출신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청아, 014).

이중언어사용과 관련되 Zhou(1977)의 연구에서도 단순히 이중국의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중국의 언어와 동시에 모국어 유창성 모두가 높은 아동이 적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곽금주, 2008). 결혼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식 외, 2012)에서 청소년이 이중국의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중국의 언어와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모국어가 이주민에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 국제결혼 이주민에게는 가족 응집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언어의 사용이 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순희,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중 이중문화요인 중 이중언어사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신윤진, 2010), 다문화가정의 이중문화요인,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승경·양계민(2012)의 연구결과와 박순희(2009)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긍정적인 다문화가정 아동이 긍정적이 자아상을 형성하고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경숙, 2015).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 습득이 잘 되지 않거나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임경혜, 2004),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학습,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며, 학교의 준비부족,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승경·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는 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가정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에 비해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거나 한국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김승경·양계민, 2012).

3. 이중문화 수용성

이중문화 수용성(bicultural acceptance)은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인 완벽한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설명하는 멜팅팟(melting pot) 모델이나 이 이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등장하게 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서로 대립과 경쟁, 갈등한다는 갈등 이론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Valentine은 개인이 한 사회의 단일한 주류 문화에 의해 사회화하고 성장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내면화 하고 나아가 주류 문화에 의해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성장을 설명한다(de Anda 1985).

이러한 이중 문화 수용에 대한 설명에는 6가지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다. 첫째는 두 가지 문화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규범, 의식 구조 등이 있을 것, 두 번째, 문화적 중재자가 있을 것,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양측 문화의 반응, 네 번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의 연결점이 있을 것, 다섯 번째, 개인의 이중 언어 습득 수준, 마지막으로, 주류 문화 구성원과 외형적으로 얼마만큼 유사한가이다(de Anda 1985, Valentine 1968; 1971). 이는 개인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유사한 두 가지 문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중 문화를 습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수용성은 일차적으로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 집단의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학습해야할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이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

용하는가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 빠른 한국 사회로의 동화 요구,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무시와 따돌림 등이 있다(장임숙, 이원일 2011; 박주희, 정진경 2008). 심리학적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연구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주류 사회에서 오는 차별, 편견 때문에 사회 적응이 힘들어진 집단들의 정체성 혼란과 스트레스, 사회적인 소외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부적응자 양상과 사회적 갈등의 유발자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강혜정, 임은미 2012).

이러한 많은 다문화 연구 경향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집단 구성원 자체보다는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사회의 주류 집단들이 소수자인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써 발생한 사회 문제와 같은 결과물들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많은 문헌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정도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2세 청소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하는 사회 공간을 같이 쓰는 일반 청소년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또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 자녀들의 다문화 수용성 연구로는 김미진(2010), 박혜숙(2013), 이은정(2012)이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 사회학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인들(백승대, 안태준 2013; 이지영 2013), 다문화 피교육에 대한 경험(이강모 2014; 정명희, 박외병 2014; 정석원 2014), 다문화 접촉에 대한 경험(금혜령 2013; 최희선 2014), 부모의 양육 태도(설은정, 정옥분 2012) 등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과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이, 그것도 다문화 가족의 주체인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지는 이중 문화 정체감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문은 미진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아직 덜 탐구된 영역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문화의 가치를 습득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다문화적 요소, 부모에게서 오는 정서적,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감정 확립, 사회적 교류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이로 인해 증진되는 문화적 수용성, 즉, 다양한 인종에 대한 다양성, 편견에 대한 이타심 및 사회성이라 할 수 있다(김길자 2006).

조민경과 김렬(2010)에 따르면 제1세대 이주민들의 경우 자기의 고유한 원문화를 가지고 이주 사회에 새롭게 들어가 문화 충격을 받고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게 되고 적응해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내부 갈등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Martinez와 Haritatos(2002)는 이중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두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기 쉽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개인의 심리적 개방성으로 본 권재환과 이선희(2015)는 일반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이주 문

화에 대한 문화적 노출과 습득 정도가 외부에서 전해지는 충격이나 갈등보다도 개인의 내적 역량, 얼마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신뢰감을 갖으며 친근하게 느끼고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문화적 개방성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사회의 영향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개인을 넘어 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 적응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다문화가족 내에 2세대인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 사용의 어려움, 사회의 차별, 외모의 차이, 이중 문화의 혼란으로 생기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와 이중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의미한다(하애실, 2014).

Berry(1997)는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며 이것을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하며,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불안, 열등감 및 다양한 요인 등을 의미한다(Sandhu & Asraba, 1994).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타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정서적인 부분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유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하정희, 2006).

이중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김은영(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문화 적응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기능의 가족응집력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연령, 외국어출신부모의 한국어말하기능력, 외국출신부모의 거주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중문화역량은 경제상태,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말하기능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진은영, 2015).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진행한 신윤진(2010)에 의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균 외(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경험하는 문화변용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문화자본은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긍정적 자기개념은 문화변용스트레스와 문화자본의 영향을 매개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한 노선덕(2013)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화충돌, 구조적 혼동, 문화적 소외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행되면서 적응을 방해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노하나, 2007), 차별이나 언어적 문제, 사회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문화적 비양립성, 가족과의 분리, 문화적 자부심과 분리 등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ndrea J. Romero 외 (2007)에 의하면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우울증 증상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남자,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 등이 이중문화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randy Piña-Watson 외, 2013). 히스패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고등학교 1학년 기간 동안 공격적이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Myriam Forster 외, 2015). 또한 아시아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결과,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편견을 매개로 하는 인종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P Kuo-Jackson, 2000).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인 : 자아탄력성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인의 4개년 간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유효사례 수의 경우 2012년 1490명, 2013년 1433명, 2014년 1370명, 2015년 1336명으로 집계 되었다.

표 1.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2012년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평균	2.954	3.023	3.064	3.056
표준편차	.471	.451	.465	.452
최소값	1.000	1.000	1.360	1.430
최대값	4.000	1.000	4.000	4.0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2) 독립 변인 : 청소년 성별, 어머니 교육 수준, 아버지 교육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시간 독립적 변수와 의존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간 독립적 변수의 기술 통계량

구분		빈도	%	유효사례
성별	남성	734	44.8	1490
	여성	756	46.2	
어머니 교육 수준	안 받았음	1	.1	1490
	초등학교	27	1.6	
	중학교	117	7.1	
	고등학교	639	39.0	
	대학교(4년제 미만)	428	26.1	
	대학교(4년제 이상)	258	15.8	
	대학원 석사과정	15	.9	
	대학원 박사과정	5	.3	
아버지 교육 수준	안 받았음	7	.4	1413
	초등학교	126	7.7	
	중학교	257	15.7	
	고등학교	728	44.4	
	대학교(4년제 미만)	110	6.7	
	대학교(4년제 이상)	162	9.9	
	대학원 석사과정	18	1.1	
	대학원 박사과정	5	.3	

표 3. 시간 의존적 독립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청소년 언어능력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평균	3.632	3.659	3.741	3.706
표준편차	.499	.491	.439	.478
최소값	1.500	1.000	1.000	1.000
최대값	4.000	4.000	4.000	4.0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청소년 이중문화 수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평균	1.453	1.457	1.403	1.446
표준편차	.377	.370	.322	.344
최소값	1.000	1.000	1.000	1.000
최대값	3.700	3.300	2.900	3.400
유효사례수	1490	1433	1370	1336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평균	2.497	2.509	2.469	2.429
표준편차	.722	.729	.788	.736
최소값	1.000	1.000	1.000	1.000
최대값	5.000	4.880	5.000	4.880
유효사례수	1429	1366	1301	1267

2. 주요 변인에 대한 무조건 모형 및 조건모형 추정 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1)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 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28.024^{***}$, $df=5$, $TLI=.937$, $CFI=.968$, $RMSEA=.053$)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능력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4. 언어능력 모형 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99.152 ^{***} (8)	.844	.875	.083
선형 변화 모형	28.024 ^{***} (5)	.937	.968	.053
2차 함수 모형	15.229 ^{***} (1)	.805	.981	.093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공분산(S.E.)
초기치(S.E)	변화율(S.E)	초기치(S.E)	변화율(S.E)	
3.640 ^{***} (.012)	.032 ^{***} (.005)	.107 ^{***} (.009)	.010 ^{***} (.002)	-.017 ^{***} (.004)

*** $p < .001$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평균은 3.640^{***}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32^{***}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언어능력 역시 .032만큼 증가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분산은 .107^{***}, 변화율 분산은 .010^{***}이며, 이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017^{***})이 부적(-)으로 나타나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서서히 증가하며, 반대로 언어능력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조건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성별(청소년),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다문

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조건모델 적합도 지수($\chi^2=30.887^{***}$, $df=11$, $TLI=.941$, $CFI=.977$, $RMSEA=.033$)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청소년), 어머니 교육수준 및 아버지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6>, <그림 1>과 같다.

표 6.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관한 조건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언어능력 초기치 <- 성별	.004(.024)	.005
언어능력 변화율 <- 성별	-.002(.010)	-.008
언어능력 초기치 <- 어머니 교육 수준	.007(.013)	.023
언어능력 변화율 <- 어머니 교육 수준	-.003(.006)	-.031
언어능력 초기치 <- 아버지 교육 수준	.018(.011)	.062
언어능력 변화율 <- 아버지 교육 수준	.000(.00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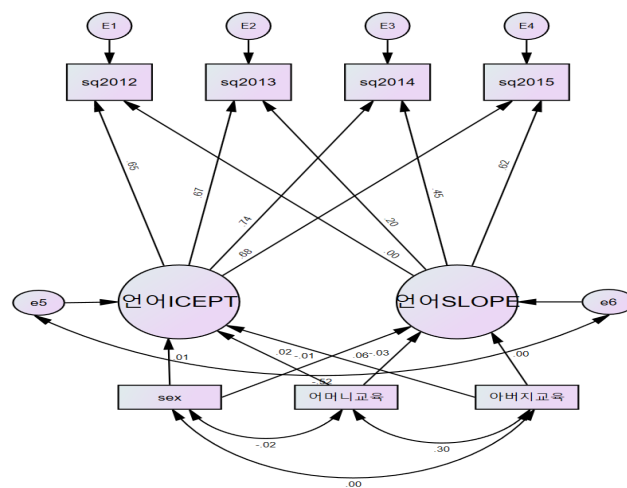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표준화 계수 기준)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선형 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39.054^{***}$, $df=5$, $TLI=.854$, $CFI=.927$, $RMSEA=.065$)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해석 가능성과 CFI 지수를 고려한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7. 이중문화 수용성 모형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50.234*** (8)	.887	.910	.057
선형 변화 모형	39.054*** (5)	.854	.927	.065
2차 함수 모형	20.449*** (1)	.584	.958	.109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8>과 같다.

표 8.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공분산(S.E.)
초기치(S.E)	변화율(S.E)	초기치(S.E)	변화율(S.E)	
1.449*** (.009)	-.007 (.004)	.045*** (.005)	.003* (.001)	-.513** (.002)

** $p < .01$, *** $p < .00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평균은 1.449***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07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이중문화 스트레스 역시 .011만큼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분산은 .045***, 변화율 분산은 .003***이며, 이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513***이 부적(-)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의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이중문화 수용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반대로 이중문화 수용성의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은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건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성별(청소년),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건모형 적합도 지수($\chi^2=45.936$ ***, $df=11$, TLI=.854, CFI=.943, RMSEA=.044는 TLI를 제외하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청소년), 어머니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교육 수준(-.027**)은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교육 수준(.010**)은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9>, <그림 2>와 같다.

표 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관한 조건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 성별	.003(.017)	.007
이중문화 수용성 변화율 <- 성별	-.002(.008)	-.024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 어머니 교육 수준	-.009(.010)	-.040
이중문화 수용성 변화율 <- 어머니 교육 수준	.004(.004)	.081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 아버지 교육 수준	-.027**(.008)	-.145
이중문화 수용성 변화율 <- 아버지 교육 수준	.010**(.004)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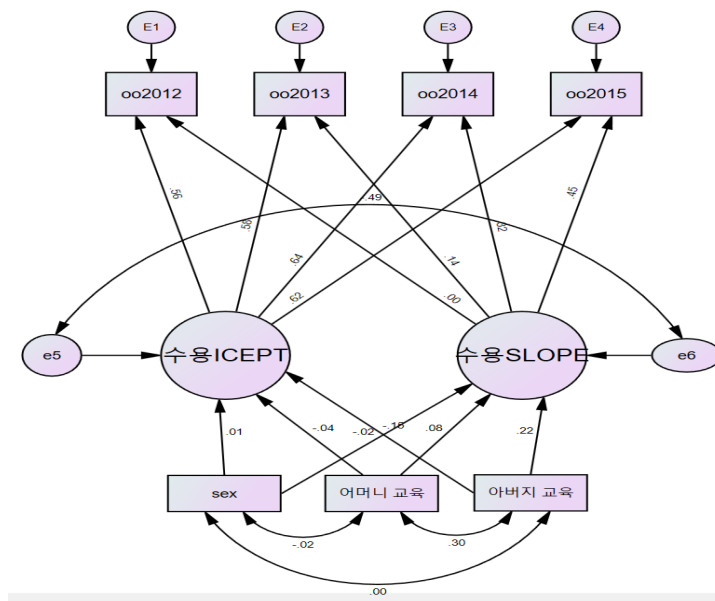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표준화 계수 기준)

3)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1)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차 함수 형태로 변화한다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547$, $df=1$, $TLI=1.002$, $CFI=1.000$, $RMSEA=.000$)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능력 모형은 비선형 형태인 2차 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10.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모형 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97.271*** (8)	.942	.954	.083
선형 변화 모형	40.422*** (5)	.963	.982	.066
2차 함수 모형	.547 (1)	1.002	1.000	.000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11>과 같다.

표 11.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S.E)	평균		초기치(S.E)	분산	
	선형 변화율(S.E)	2차 함수 변화율(S.E.)		선형 변화율(S.E)	2차 함수 변화율(S.E.)
2.499*** (.019)	.016 (.022)	-.013* (.007)	.211*** (.040)	.029 (.053)	.012** (.004)
	공분산			Estimate(S.E.)	
스트레스 초기값	↔	스트레스 선형변화		.099* (.046)	
스트레스 선형변화	↔	스트레스 2차 함수		-.019 (.013)	
스트레스 초기값	↔	스트레스 2차 함수		-.028* (.012)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평균은 2.499***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016만큼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차 함수 변화율은 -.0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분산은 .211***, 2차 함수 변화율 분산은 .012**이며, 이는 초기치와 2차 함수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나 선형변화율의 분산은 .029로 나타나 개인차나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조건모델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값, 선형변화율, 2차 함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조건모델 적합도 지수($\chi^2=2,471$ ***, $df=3$, $TLI=1.002$, $CFI=1.000$, $RMSEA=.000$)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019), 선형 변화율(.020), 2차 함수 변화율(-.00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 수준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007), 선형 변화율(-.031), 2차 함수 변화율(.008)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2>, <그림 3>과 같다.

표 12.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조건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스트레스 초기치 <- 어머니 교육 수준	-.019(.020)	-.040
스트레스 선형 변화율 <- 어머니 교육 수준	.020(.023)	.113
스트레스 2차 함수 변화율 <- 어머니 교육 수준	-.003(.007)	-.025
스트레스 초기치 <- 아버지 교육 수준	-.007(.018)	-.017
스트레스 선형 변화율 <- 아버지 교육 수준	-.031(.021)	-.207
스트레스 2차 함수 변화율 <- 아버지 교육 수준	.008(.006)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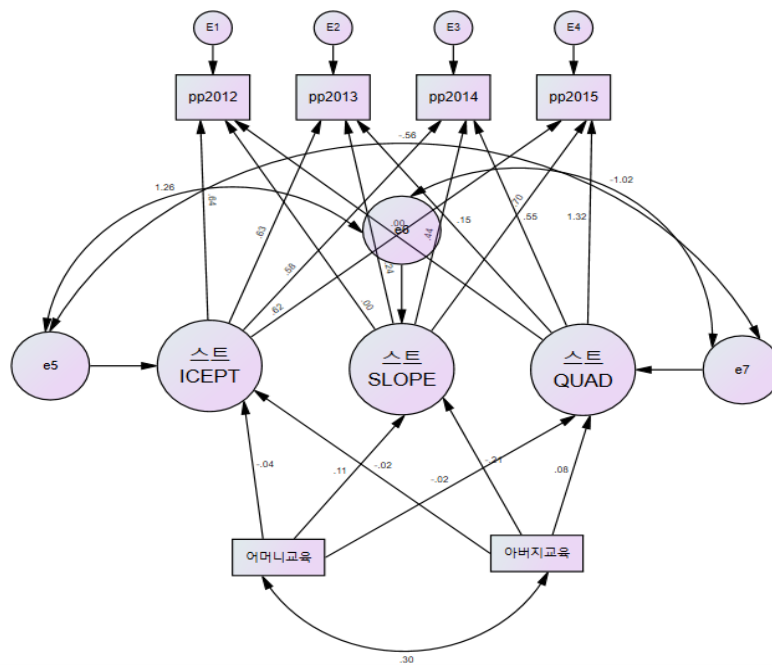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표준화 계수 기준)

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무변화, 선형 및 2차 함수 모형의 적합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무변화, 선형변화, 2차 함수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차 함수 형태로 변화한다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chi^2=156$, $df=1$, $TLI=1.007$, $CFI=1.000$, $RMSEA=.000$)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모형은 비선형 형태인 2차 함수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모형선택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120.957*** (8)	.875	.900	.093
선형 변화 모형	24.537*** (5)	.965	.983	.049
2차 함수 모형	.156 (1)	1.007	1.000	.000

*** $p < .001$

선택된 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공분산 추정값은 <표 14>와 같다.

표 1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S.E.)	평균	2차 함수 변화율(S.E.)	초기치(S.E.)	분산	2차 함수 변화율(S.E.)
	선형 변화율(S.E.)			선형 변화율(S.E.)	
2.953*** (.012)	.093*** (.014)	-.020* (.004)	.079*** (.019)	-.004 (.025)	.001 (.002)
	공분산			Estimate(S.E.)	
자아탄력 초기값	↔	자아탄력 선형변화		.079*** (.046)	
자아탄력 선형변화	↔	자아탄력 2차 함수		-.004 (.025)	
자아탄력 초기값	↔	자아탄력 2차 함수		.001 (.002)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평균은 2.953***으로 추정되었으며, 변화율은 .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한 단위(1년) 증가 하면 자아탄력성 역시 .09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차 함수 변화율은 -.02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 분산은 .079***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나 선형변화율의 분산은 -.004 및 2차 함수 변화율의 분산은 .001로 나타나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조건모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값, 선형변화율, 2차 함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성별(청소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조건모델 적합도 지수($\chi^2=2.684$ ***, $df=4$, TLI=1.007, CFI=1.000, RMSEA=.000)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자아탄력 선형변화율(-.101***)과 2차 함수 변화율(.00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탄력 초기치(.032)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교육수준은 자아탄력 초기치(.02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선형변화율(-.007)과 2차 함수 변

화율(.002)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 교육수준 역시 자아탄력 초기치(.02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선형변화율(-.017)과 2차 함수 변화율(.002)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조건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자아탄력 초기치 <- 성별	.032(.024)	.057
자아탄력 선형 변화율 <- 성별	-.101***(.029)	-
자아탄력 2차 함수 변화율 <- 성별	.002**(.005)	.352
자아탄력 초기치 <- 어머니 교육수준	.026*(.013)	.090
자아탄력 선형 변화율 <- 어머니 교육수준	-.007(.015)	-
자아탄력 2차 함수 변화율 <- 어머니 교육수준	.002(.005)	.049
자아탄력 초기치 <- 아버지 교육수준	.029***(.011)	.116
자아탄력 선형 변화율 <- 아버지 교육수준	-.017(.014)	-
자아탄력 2차 함수 변화율 <- 아버지 교육수준	.002(.004)	.07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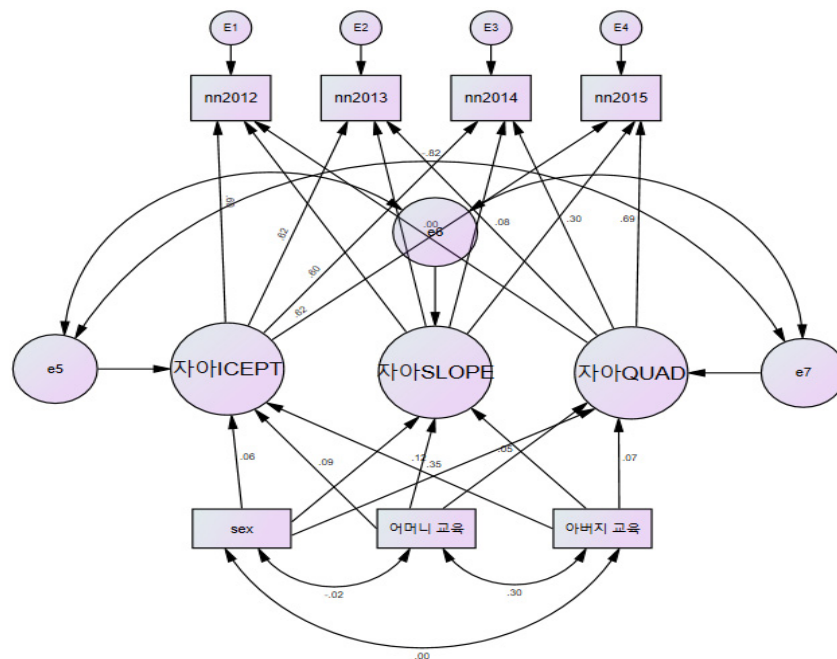


그림 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표준화 계수 기준)

5)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 잠재성장 곡선간 인과모델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 잠재성장 곡선간 인과모델 결과 우선 모형적합도 지수($\chi^2=258.673^{***}$, $df=80$, $TLI=938$, $CFI=964$, $RMSEA=.037$)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는 청소년의 자아탄력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6. 잠재성장 곡선간 인과모델

경로	비 표준화 B(S.E.)	표준화 β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038	.03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098	.98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091	.25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396	4.62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417	1.21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581***	.11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368	2.73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218	.75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이중문화 수용성 초기치 변화율	-.444	1.63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초기치<-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84**	.06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44	2.02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2차함수<-청소년의 언어능력 초기치	-.186	.52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율<-청소년의 언어능력 변화율	.019	.745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가지 문화권에 노출되어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 문제인 이중적 문화 정체성과 주류 문화와의 갈등,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 불이익, 왕따 문제, 학습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답을 찾고자 한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섹션이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 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섹션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 이중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적응 역량이자 학습이 기초 단계라고 여겨지는 언어 능력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단위 시간(1년)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언어 능력 향상이 청소년들에게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최초 연구 시작 시점인 2012년 언어 초기값이 높았던, 즉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출중하다고 자평한 청소년들의 언어 능력 발달 속도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에 비해 더디었다고 보인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겨졌던 성별,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초기 언어 수준과 그 후 학습을 통해 증가된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이중문화 수용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관련 문항에 관한 분석은 전체적으로 단위시간(1년)당 두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 증가 추이가 보이긴 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최초설문 조사 시점의 적응값이 컸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초기값이 낮았던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 증가폭이 좁았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력이 가져오는 이타심, 배려 능력, 사회성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문화에서 오는 충격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이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두 문화 사이에서 적응해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이중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계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영향을 못 미친 반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초기값에서는 부적으로, 변화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양육 주체인 부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증감여부에서는 단위 시간 당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냈고 이는 문화 적응 이론의 U자 커브처럼 개인의 타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가 점차 적응되어가면서 그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증감하는지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과 성별, 부모의 교육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은 시간에 따른 탄력성 변화와 영향이 있는 반면,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아 탄력성 증감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청소년의 언어 능력, 이중 문화 수용성,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의 관계를 추론한 모형에서는 이중문화 수용성의 초기치와 언어능력 초기치만이 각각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요약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하나인 교육 수준이 자녀인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중 언어 능력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정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여태까지의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상이하지만,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정적 관계가 있다는 점은 큰 의미에서 청소년의 이중 문화 수용 능력도 학습의 한 갈래로 가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의 학력보다는 이중 문화 요인, 사회적지지, 이중언어 요인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승민,

양계민, 2012). 청소년의 언어 능력과 이중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 자아 탄력성이 최초 초기값만이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둘의 증감이 자아 탄력성에 그리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본인과 부모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점으로 인식하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자 진행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 사회화했다는 다문화적 특성이 자녀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들을 찾아보고 이를 강화, 그들의 문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책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이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은 언어와 이중 문화 수용 능력, 스트레스와 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으로의 자아 탄력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국가 사회적인 지지에 따라 학습, 향상될 수 있는 것들로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개발에 이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현실,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강혜정, 임은미(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3(4):35-57.
- 권재환, 이선희(2015).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 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4:8-26.
- 김길자(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이 이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경, &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2010).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pp41~62.
- 금혜령(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 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선덕(2013)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은숙(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선. (2017).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 박주희, 정진경(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사회, 4(2):1-21.
- 박형원. (2010).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해외이주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8), 1-25.
- 박혜숙(2013).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2):219-248.
- 백승대, 안태준(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지, 21(2):1-24.
- 설은정, 정옥분(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0):91-114.
- 신윤진(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적응과 또래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화.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 우영경, & 김은하. (2016).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9(3), 63-81.
- 윤아름(2013). Yangsaeng Level and Pattern Identification of Subfertility in Childbearing Aged Women according to the Pregnancy Experience.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p227.
- 이강모(2014).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 연구(다문화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영(2017).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청소년 비교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439-458.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단일호), 235-264.
- 이숙영(2012)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117-145.
- 이은정(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척도 개발 연구. 동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17(2), 105-125.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채식(@01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pp121~140.
- 임양미(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pp147~167.
- 장임숙, 이원일(2010).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177-199.
- 정명희, 박외병(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81-105.
- 정석원(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지영, 임정하(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1), pp37-51.

- 조민정, 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263-289.
- 진은영(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만식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영, & 김재철. (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최희선(2014).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원석(2013).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pp31~43.
- 하에실(2014) 집단미술치료가 이중문화 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2). 473-496.
- Ann S. Masten(2001). Ordinary magic :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psycnet.apa.org.
- de Anda, Diane(1975). Bicultural Socialization: factors affecting the minority experience. *Social Work*, Benet-Martinez, V. & Haritatos, J. (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Components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1015-1049. Forster, M., Grigsby, T., Soto, D. W., Schwartz, S. J., & Unger, J. B. (2015). The role of bicultural stress and perceived context of reception in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and rule breaking behaviors among recent-immigrant Hispanic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1), 1807-1827.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5~68.
- Kuo-Jackson, Y. P. (2000). Minority experiences across Asian American ethnic groups and generational levels: Ethnic identity, bicultural stress, perceived prejudice, and racial consciousness.
- Piña-Watson, B., Ojeda, L., Castellon, N. E., & Dornhecker, M. (2013). Familismo, ethnic identity, and bicultural stress as predictors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1(4), 204.
- Romero, A. J., Carvajal, S. C., Valle, F., & Orduña, M. (2007).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4), 519-534.
- Sandhu D. S. & AsrabadiB,r(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y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75, pp435-448.
- Valentine, C.A(1968). Culture and pov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lentine, C.A.(1971). Deficit, difference, and bicultural models of Afro-American behavior. *Harvard Educational Review*, 41:137-157.

Abstract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Resilience Using Latent Growth Model

Woo Jin Kim* · Tae Eun Shim** · Jeaah Jung*** · Song Yi Le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traits on adolescents' resilience. In detail we used parents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bicultural acceptance, parents cultural adjustment stress variables effect on resilience usi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data collected from 2012 to 2015. The result indicates that variables that had effect on resilience were;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had positive relation with bicultural acceptance; response on initial status of adolescents' language level and initial status of bicultural acceptance were statistically effective on resilience. The result implies that rather than socio-economic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at home and social support from schools and community can have further positive impact on nurturing resilienc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wishes to contribute to providing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urricular and policy that would help in resilience building for them.

*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 Dongguk University

*** Dongg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jeaah.jung@gmail.com)

**** Dongguk University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최현주⁺ · 하영진^{**}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적용,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중심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초4, 초5,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1, 중2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우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량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는 가족 지지가 있었다. 가족지지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감소율과, 우울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보호요인이었다. 셋째,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수준이 유의했고, 환경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개인 간/개인 내 변화 (between-/within-individual variation)

I. 서론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여러 인종, 민족, 계급 등이 향유하는 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는 여러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미국과 캐나다 같이 국가 수립 시점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부족해진 노동력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와 결혼 이주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이어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특정 국가 여성과의 혼인은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김은경, 김종남, 2016).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은 전체 인구의 약 1.7%인 29만에 이르며(통계청, 2015), 일반 청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4년 6만

*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8천명에서 2015년 8만 3천명으로 한 해 동안 20% 이상 증가했다(통계청, 2016).

오랜 기간 단일민족 의식이 만연했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심리,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양육 관련 정보가 부족한 어머니를 둔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 발달,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Hovey, 2000; 김희경, 2012; 신재현, 2013; 최예림, 2014). 이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을 비롯해, 가족 내 문화적 갈등, 사회에서의 차별 등을 겪을 수 있다(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실제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부진이나 정체성 혼란 및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 등을 경험하며(서정혜, 2009; 조영달, 2006; 최선화, 2009), 이것이 학업 중단(신지혜, 2008)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개인의 행복 추구의 필수 요건일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심리학적 용어로서 적응(adjustment)이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Encyclopedia Britannica, 2017). 여기에는 정서적 안녕, 정신적 건강, 자기개념의 긍정성과 같은 개인적 측면(김동직, 1999)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측면(Lazarus, 1966)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개인적,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준거변인(criterion variable)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을 논의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중요한 변수이다.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Marcia, 1967),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Ryeng, Kroger, & Martinussen, 2013). 또한, 개인의 기대 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삶의 만족도 역시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Diener, 1984).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강점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긍정심리학을 배경으로 제안된 개념으로(Huebner, 2004), 최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예: 이순성, 2010; 백수진, 임영진, 2013;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 후기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 시기의 행복감은 이후 일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Lyons et al.,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et al., 2010),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볼 수 있는 변인으로서 정신건강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우울을 들 수 있다(Mental health foundation, 2017). 우울감(depressed mood)은 현대인이 흔하게 느끼는 부정정서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경감될 수 있으나, 정신병리로서의 우울(major depression)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삶 뿐 아니라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예: 김희경, 2012; 박순희, 2009; 임선모, 2012; 최효인, 2016; 한정애, 2010). 박계란과 이지민(2010)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은 원인을 다문화청소년들이 문화적 갈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국어 구사의 미숙함,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령기에 학교생활은 심리·사회적 적응의 핵심적인 요인이기는 하나,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학업적, 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 존재하며(Dubois et al., 1994),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Achenbach, 1991)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우울은 이후 삶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오승환, 2016), 주의 깊은 탐구가 요구된다.

둘째,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체성 혼란(최효인, 2016),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은경, 김종남, 2016), 부모-자녀 갈등(강유임, 김병석, 2013;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부부 갈등(서은경, 김병석, 2013)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김은경, 김종남, 2016; 서은경, 김병석, 2013; 정성진, 김진숙, 2012)와 대처전략(이덕희, 2016;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의 두 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포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으나(예: 김희경, 2012),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을 결핍된 존재로 보아온 시각과 관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교차문화 아동(cross-cultural kids)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중언어 습득,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 융통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이수경, 오인수, 2015).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적응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부족했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Berry(2003)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며, 문화적응 과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이 개입되면서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서 문화적응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역동적인 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신효정, 최현주, 2016; Fujita & Diener, 2005; 이순희, 허만세, 2015). 이와 같이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모두 변화하는 경우 횡단자료만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횡단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이 개별 연구자가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특징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자료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가 있었으나, 이는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 수가 65명에 그쳤고(예: 한성희, 2015), 연구 변수 선정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적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이 유일하다.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시리즈가 있는데(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II, III, IV),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다면 해당 자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언급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보호요인으로서는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같은 개인변인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모의 자존감, 부모의 양육 효능감, 가족/교사/친구의 사회적지지와 같은 환경변인을 포괄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인 간, 개인 내 모형을 수립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발달 양상은 어떠한가?
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발달의 개인차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개인 내 변화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의 영향요인

1) 문화적응 스트레스

국제결혼은 가사부담이나 양육 등 결혼 자체로 인한 어려움 뿐 아니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정,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질적인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를 동반한다(한수연, 설염추, 성춘향, 박용한, 2017; Thanh, 2005).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란 상이한 두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생활사건(life events)에 대한 반응으로 문화접촉에서의 어려움만을 강조하는 문화충격(culture shock)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Sam & Berry, 2006).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직접 경험하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양육환경에서 경험하는 문화와 지역사회 및 학교 환경에서 경험하는데 문화가 서

로 달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김희경, 2012).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자녀들 역시 부모 사이의 문화적 충돌을 직접 겪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이종우, 2011). 외국인 부모가 지니는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주류문화와 다를 때, 자녀는 이로 인한 인식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임경혜,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을 높여 개인에게 위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Sirin, 2013; 최선화, 2009), 사회적지지 상실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Smart & Smart, 1995; 이소래, 1997).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 1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Padilla et al., 1986; Berry & Kim, 1988). 다문화가정 부모는 미숙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부부관계 갈등, 취약한 사회·경제적 능력, 양육 관련 정보의 부족(Hovey, 2000; 김오남, 2006; 설동훈 외, 2005; 신재현, 2013; 이영주, 2007; 정현영, 2006; 최예림, 2014; 한정애, 2009)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할 가능성을 지닌다.

2)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

Berry는 문화적응을 스트레스 대처 접근(stress coping approach)으로 설명한다. 즉, 문화 간 접촉 및 변화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며, 다양한 적응적 자원과 대처전략을 통해 이를 적절히 다루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그는 이러한 적응적 자원과 대처전략을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하고 개인수준의 변인들을 다시 문화 적응 전의 조절변인(modulating factors prior to acculturation)과 문화적응 동안의 조절변인(modulating factors during acculturation)으로 나누어 보았다. 문화적응 전의 조절변인에는 나이, 성별, 교육정도, 종교, 건강, 언어, 이주동기, 문화적 거리 등이 포함되고, 문화적응 동안의 조절변인에는 차이를 접함, 사회적지지, 사회의 태도, 대처, 문화적응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절변인들은 인지적 통제, 문제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인자(stressors)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친다(Berry et al., 2006).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 성격이나 자민족 중심주의적 성격은 적응에 방해요소가 되지만(Peterson & Plamondon, 2009), 외향적이고 민감한 성격은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dner, 1962). 그밖에 사회적지지(Furnham & Alighai, 1985; Jayasuria, Sang & Fielding, 1992; Vega & Rumbaut, 1991)나 의사소통능력(Gudykunst & Hammer, 1988), 교육수준(Aycan & Berry, 1996) 등도 적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인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의 경우, 부모의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과 정적인 상관을 지니며(신혜정, 2007; 정순연, 2009), 어머니와 자녀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적응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정순연, 2009).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오승환, 2016),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동기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성취동기는 다문화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적응을 예언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권혜경, 이희경, 2004; 김명희, 하정희, 2008; 도금혜, 2008). 김희경(2012)의 연구에서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적 효능감 등의 학업동기는 자아정체성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이었다. 역경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개인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자아탄력성(Garmezzy, 1985; Rutter, 1979, 1985)도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지니며 융통성이 있어 적응에 유리하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이윤주, 신지연, 2006), 다문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은주, 심혜숙, 2010). 또한, 자아탄력성은 부부 갈등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김병석, 2013). 이중문화와 적응 간 관계의 경우, 이중문화 환경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위협요인이 된다는 주장과(김갑성, 2006), 이중문화 수용 수준이 높은 아동이 사회 적응을 잘 한다는 주장(Dorner et al., 2007)으로 나누어진다. 청소년이 주류문화로서 한국문화 및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조화롭게 수용한다면 이중문화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정화, 이강이,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태도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 관련 변인으로서는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 효능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예: 박점자, 2015; 이지원, 2010). 김민경과 김정은(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양육효능감 및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지지 역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는 요인이다(안은미, 2007; 정현영, 2016; 한경진, 2011).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가족, 교사, 친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의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적응적 대처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유봉애, 옥경희, 2013), 교사의 지지는 차별과 따돌림의 피해를 낮추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신, 김한성, 2014). 또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청소년 시기에 친구의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변인이 된다(구본용, 2012; 김윤경, 이옥경, 2001).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혜미, 원서진과 최선화(2011)의 연구는 친구 지지가 아동의 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유일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각각의 사회적지지는 기능하는 맥락과 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가족, 교사, 친구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개인 간 및 개인 내 변화 모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를 밝히는 방법과 개인 내 변화(fluctuation within individuals)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Hoffman, 2015).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개인차 연구에서는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화율의 차이를 불러오는지에 관심이 있다. 한편, 개인 내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 개인 안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불러왔는지에 관심을 둔다. 변화의 개인차에 기여하는 변인과 개인 내 변화에 기여하는 요인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 간(between-individual) 및 개인 내(within-individual) 변화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으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이 사용될 수 있다(Duckworth, Tsukayama, & May, 2010). 종단자료를 활용한 다층모형은 초기값과 변화율을 바탕으로 개인의 발달 궤적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종단자료에서 다층모형은 개인 내 반복측정 수치를 포함하는 1수준과 개인차를 포함하는 2수준으로 나누어지는데, 독립변수 중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시간 의존적 예측변수(time-varying predictors)는 1수준에,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시간 독립적 예측변수(time-invariant predictors)는 2수준에 포함시키게 된다(McCoach & Kaniskan, 2010). 시간 의존적 예측변수의 경우 모형에서 수립한 시간변수와 동일한 시점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동시효과 모형(contemporaneous effect model)을, 모형에서 수립된 시간변수 이전 시기(t-1)가 다음 시기(t)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지연효과 모형(lagged effect model)을 사용하게 된다(Hoffman, 2015). 시간에 따른 시간 의존적 예측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경우 동시효과 모형에 시간과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분석하기도 한다(예: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다층모형에서 종속변수가 선형적으로 변화하고 X라는 시간 의존적 예측변수와 초기값(절편) 및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M이라는 시간 독립적 예측변수를 갖는 경우, 개인 간 및 개인 내 모형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1수준 : 개인 내 모형 (within-individual)

$$Y_{ij} = \pi_{0i} + \pi_{1i} \times TIME_{ij} + \pi_{2i} \times X_{ij} + e_{ij}$$

$$e_{ij} \sim N(0, \sigma^2)$$

2수준 : 개인 간 모형 (between-individual)

$$\pi_{0i} = \beta_{00} + \beta_{01} \times M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 \times M_i + r_{1i}$$

$$\pi_{2i} = \beta_{20} + r_{2i}$$

$$r_{qi} \sim N(0, \sigma^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MAPS)로부터 연구대상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1차 본조사인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1,625가구를 대상으로 수집이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1,490가구, 2013년에는 1,433가구, 2014년에는 1,371가구, 2015년에는 1,338가구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한국의 다문화 인구 특성 상 국제결혼가정으로 표본의 대부분이 구성되었고,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부모에게는 한국어 및 총 9개 국어의 언어로 설문지가 제공되었고, 자녀들에게는 한국어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HLM 7.0 프로그램을 사용한 위계선형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특성 상 결측치가 존재하면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에 1차에서 5차까지 모든 차수의 조사에 참여한 1,3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남학생이 646명(48.9%), 여학생이 674명(51.1%)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비는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 중 외국인 출신의 비율은 어머니가 96.5%(1,274명)로 아버지 3.4%(4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21.5%)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이 146명(11.1%), 서울이 135명(10.2%)으로 많았다.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로는 일본이 469명(35.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필리핀 340명(25.8%), 중국(조선족) 242명(18.3%) 순으로 이들 세 국가의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차 조사시기인 2011년을 기준으로 11년~15년이 914명(69.2%)으로 과반 이상이었고, 16년~20년이 142명(10.8%), 6년~10년이 137명(10.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0세가 88.6%(1,16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9세가 7.4%(98명), 11명이 3.5%(46명)였다. 12세와 13세도 각각 0.5%(6명), 0.1%(1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607명(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44명(21.6%), 100만원 이하가 226명(17.1%) 순으로 많았다.

2.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세 가지 변수를 채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차~5차까지 모든 차수에서 조사되었고(학생 설문지 19번),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롭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747,

2012년 .794, 2013년 .811, 2014년 .824, 2015년 .81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삶의 만족도 역시 1차~5차까지 모든 차수에서 조사되었고(학생 설문지 40번),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807, 2012년 .857, 2013년 .853, 2014년 .862, 2015년 .864로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울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들과는 달리 2차~5차까지 4회에 걸쳐 조사되었고(학생 설문지 43번),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등의 10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2년 .905, 2013년 .916, 2014년 .918, 2015년 .90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320명)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	646	48.9%	외국인 출신 부모	아버지	45	3.4%
	여	674	51.1%		어머니	1,274	96.5%
거주지	서울	135	10.2%	출신국가	일본	469	35.5%
	부산	57	4.3%		필리핀	340	25.8%
	대구	30	2.3%		중국(조선족)	242	18.3%
	인천	52	3.9%		중국(한족, 기타민족)	95	7.2%
	광주	26	2.0%		태국	52	3.9%
	대전	17	1.3%		베트남	36	2.7%
	울산	27	2.0%		러시아	11	0.8%
	경기	284	21.5%		대만	8	0.6%
	강원	81	6.1%		우즈베키스탄	8	0.6%
	충북	55	4.2%		인도네시아	8	0.6%
	충남	106	8.0%		몽골	5	0.4%
	전북	98	7.4%		파키스탄	5	0.4%
	전남	146	11.1%		카자흐스탄	4	0.3%
	경북	96	7.3%		캄보디아	3	0.2%
	경남	101	7.7%		기타	34	2.6%
	제주	9	0.7%				
자녀 나이 (2011년)	9세	98	7.4%	거주기간	5년 이하	73	5.5%
	10세	1,169	88.6%		6~10년	137	10.4%
	11세	46	3.5%		11~15년	914	69.2%
	12세	6	0.5%		16~20년	142	10.8%
	13세	1	0.1%		21년 이상	9	0.7%
					무응답	45	3.4%
				월 소득 (2011년)	100만원 이하	226	17.1%
					200만원 이하	607	46.0%
					300만원 이하	344	26.1%

구분	인원	비율	구분	인원	비율
			400만원 이하	100	7.6%
			400만원 초과	43	3.3%

독립변수는 성별, 나이, 거주기간, 월 소득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고,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요인으로 구분되어 채택되었다. 또한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각각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으로 나누어 선정되었다. 우선 위험요인으로는 청소년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두 가지 변수가 포함되었다.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10번 문항(‘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778, 2012년 .773, 2013년 .782, 2014년 .757, 2015년 .771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10번 문항(‘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878, 2012년 .843, 2013년 .858, 2014년 .885, 2015년 .874로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보호요인으로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개인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 효능감, 가족/교사/친구의 지지가 환경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본인의 한국어 능력의 경우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4개 영역에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못한다(1점)’~‘매우 잘한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913, 2012년 .937, 2013년 .949, 2014년 .941, 2015년 .958로 높게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861, 2012년 .883, 2013년 .882, 2014년 .886, 2015년 .877로 높은 편이었다. 자아탄력성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889, 2012년 .906, 2013년 .902, 2014년 .913, 2015년 .909로 높은 편이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경우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인 부모의 나라 문화에 대한 수

용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의 5개 문항이 있고, 모국문화 수용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의 5개 문항이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2011년 .731, 2012년 .744, 2013년 .745, 2014년 .778, 2015년 .758이었고, 외국인 부모 나라 문화 수용태도가 2011년 .839, 2012년 .782, 2013년 .784, 2014년 .787, 2015년 .791로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요인 중 환경변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4개 영역에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못한다(1점)~‘매우 잘한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924, 2012년 .890, 2013년 .882, 2014년 .900, 2015년 .896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9개 문항 중, 3번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번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8번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9번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의 4개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791, 2012년 .795, 2013년 .800, 2014년 .811, 2015년 .81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등의 9개 문항을 포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8번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는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011년 .784, 2012년 .820, 2013년 .832, 2014년 .835, 2015년 .830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가족,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부모님/우리 담임선생님/내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지지는 7문항, 교사 지지는 6문항, 친구 지지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 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교사와 친구 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가족 지지가 .917~.950, 교사 지지가 .937~.964, 친구 지지가 .954~.968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인의 구성

구분	변수	설문지 문항
통제변인	성별(여=0, 남=1), 나이, 거주기간(년), 월 소득	
개인변인	본인의 한국어 능력	학생설문지 문항 5
	성취동기	학생설문지 문항 16
	자아탄력성	학생설문지 문항 39
	이중문화 수용태도 (한국문화 수용,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학생설문지 문항 23
보호요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학부모설문지 문항 4(5)
	부모의 자아존중감	학부모설문지 문항 18(20)
	부모의 양육 효능감	학부모설문지 문항 19
	가족, 교사, 친구 사회적지지	학생설문지 문항 25, 31(32), 32(33)
위험요인	개인변인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환경변인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생설문지 문항 21
		학부모설문지 문항 36(34)

주. 설문지 문항 중 ()안의 숫자는 2014년, 2015년도의 문항번호임.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고, HLM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절한 분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모형 검증에는 시간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 무조건부 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는 무조건부 선형 성장모형(unconditional linear growth model), 비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는 무조건부 2차 성장모형(unconditional quadratic growth model)의 세 가지 모형이 포함되었으며 적합도를 비교하여 분석 모형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의 변화양상은 SPSS 20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평균의 변화를 검토한 후, AMOS 20 프로그램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독립변수 각각의 변화율의 평균 및 분산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 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간 모형(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나이, 거주기간, 월 소득을 포함하는 통제변인과 1차에 조사된 독립변수들의 Z점수이다. 개인 내 모형(1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은 개인별 평균으로 중심화(mean-centering) 하였다. 1수준 결측치는 SPSS의 EM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였고, 2수준 결측치는 별도의 대체 없이 목록별 제거(listwise deletion)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변화를 중심으로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 중 자아존중감은 T1=3.14, T2=3.17, T3=3.22로 초 4, 초5, 초6의 세 시점에서는 점차 증가하다가 T4=3.20, T5=3.18로 중 1, 중 2 시점에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삶의 만족도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T1=3.24, T2=3.25, T3=3.31로 점차 증가하다가 T4=3.22, T5=3.15로 중학교 입학 이후 하락하였다. 우울의 경우, T2=1.6, T3=1.6으로 변화가 없다가 T4=1.64, T5=1.69로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속변수 기술통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M	SD	Min.	Max.	M	SD	Min.	Max.	M	SD	Min.	Max.
T1	3.14	.55	1.00	4.00	3.24	.59	1.00	4.00	-	-	-	-
T2	3.17	.55	1.00	4.00	3.25	.61	1.00	4.00	1.60	.52	1.00	4.00
T3	3.22	.53	1.25	4.00	3.31	.57	1.00	4.00	1.60	.52	1.00	4.00
T4	3.20	.53	1.25	4.00	3.22	.59	1.00	4.00	1.64	.53	1.00	3.70
T5	3.18	.53	1.00	4.00	3.15	.62	1.00	4.00	1.69	.54	1.00	4.00
전체 평균	3.18	.40	1.85	4.00	3.23	.42	1.47	4.00	1.63	.39	1.00	3.45

독립변수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T1에서 T5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본인과 부모의 한국어 능력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4). 개인 변인 중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균이 높아졌으나,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태도의 평균은 낮아졌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평균 변화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시점 별 변이(variation)가 관찰되었고, 양육 효능감은 T1=3.63에서 T2=3.67로는 다소 상승이 있었으나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T4=3.62, T5=3.59 시점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 및 교사의 사회적지지는 상승과 하락이 불특정하게 나타났고,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4. 독립변수 기술통계

		개인요인						환경요인			
변수명		M	SD	Min.	Max.	변수명		M	SD	Min.	Max.
위험요인	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T1	1.60	.33	1.30	3.60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T1	2.60	.74	1.00	5.00	
	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T2	1.58	.32	1.30	3.40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T2	2.50	.71	1.00	5.00	
	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T3	1.58	.32	1.30	3.20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T3	2.51	.71	1.00	4.88	
	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T4	1.53	.28	1.30	3.20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T4	2.48	.77	1.00	5.00	
	본인 문화적응스트레스 T5	1.57	.30	1.30	3.20	부모 문화적응스트레스 T5	2.43	.73	1.00	4.88	
보호요인	본인 한국어 능력 T1	3.60	.53	1.00	4.00	부모 한국어 능력 T1	3.03	.57	1.00	4.00	
	본인 한국어 능력 T2	3.63	.50	1.50	4.00	부모 한국어 능력 T2	3.03	.54	1.00	4.00	
	본인 한국어 능력 T3	3.66	.49	1.00	4.00	부모 한국어 능력 T3	3.05	.52	1.50	4.00	
	본인 한국어 능력 T4	3.74	.44	1.00	4.00	부모 한국어 능력 T4	3.07	.54	1.00	4.00	
	본인 한국어 능력 T5	3.70	.48	1.00	4.00	부모 한국어 능력 T5	3.06	.52	1.25	4.00	
	성취동기 T1	2.89	.52	1.00	4.00	부모 자아존중감 T1	3.86	.53	1.67	5.00	
	성취동기 T2	2.93	.49	1.00	4.00	부모 자아존중감 T2	3.89	.51	2.11	5.00	
	성취동기 T3	3.01	.48	1.00	4.00	부모 자아존중감 T3	3.84	.51	2.00	5.00	
	성취동기 T4	3.03	.48	1.38	4.00	부모 자아존중감 T4	3.83	.53	1.56	5.00	
	성취동기 T5	3.04	.45	1.00	4.00	부모 자아존중감 T5	3.79	.52	1.11	5.00	
	자아탄력성 T1	2.90	.47	1.00	4.00	부모 양육 효능감 T1	3.63	.52	1.22	5.00	
	자아탄력성 T2	2.96	.47	1.00	4.00	부모 양육 효능감 T2	3.67	.51	1.78	5.00	
	자아탄력성 T3	3.03	.45	1.00	4.00	부모 양육 효능감 T3	3.67	.51	1.78	5.00	
	자아탄력성 T4	3.06	.47	1.36	4.00	부모 양육 효능감 T4	3.62	.53	1.22	5.00	
	자아탄력성 T5	3.06	.46	1.43	4.00	부모 양육 효능감 T5	3.59	.52	1.44	5.00	
	한국문화 수용 T1	3.19	.50	1.00	4.00	가족 사회적 지지 T1	3.20	.56	1.00	4.00	
	한국문화 수용 T2	3.22	.48	1.40	4.00	가족 사회적 지지 T2	3.18	.59	1.00	4.00	
	한국문화 수용 T3	3.30	.45	1.40	4.00	가족 사회적 지지 T3	3.23	.55	1.00	4.00	
	한국문화 수용 T4	3.28	.48	1.00	4.00	가족 사회적 지지 T4	3.20	.56	1.00	4.00	
	한국문화 수용 T5	3.27	.45	1.40	4.00	가족 사회적 지지 T5	3.19	.55	1.00	4.00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T1	2.61	.57	1.00	4.00	교사 사회적 지지 T1	3.68	.88	1.00	5.00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T2	2.58	.58	1.00	4.00	교사 사회적 지지 T2	3.65	.89	1.00	5.00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T3	2.62	.56	1.00	4.00	교사 사회적 지지 T3	3.79	.87	1.00	5.00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T4	2.56	.57	1.00	4.00	교사 사회적 지지 T4	3.76	.85	1.00	5.00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T5	2.55	.57	1.00	4.00	교사 사회적 지지 T5	3.77	.85	1.00	5.00	
						친구 사회적 지지 T1	3.80	.89	1.00	5.00	
						친구 사회적 지지 T2	3.89	.83	1.00	5.00	
						친구 사회적 지지 T3	4.01	.83	1.00	5.00	
						친구 사회적 지지 T4	4.12	.79	1.00	5.00	
						친구 사회적 지지 T5	4.12	.75	1.00	5.00	

다음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위험요인인 본인 및 부모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328 \sim -.142$)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중 개인 요인인 자신의 한국어 능력($.102 \sim .266$)과는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성취동기($.202 \sim .553$)와 자아탄력성($.230 \sim .570$)과는 약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화 수용태도의 경우 한국문화 수용과 부모 문화 수용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한국문화 수용과 자아존중감 간 상관이 $.169 \sim .418$ 로 부모 문화 수용과의 상관인 $.117 \sim .326$ 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중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한국어 능력($.071 \sim .147$), 부모의 자아존중감($.073 \sim .184$), 부모의 양육효능감($.086 \sim .212$)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지지의 경우 가족 지지가 $.201 \sim .496$, 교사 지지가 $.199 \sim .463$, 친구 지지가 $.236 \sim .522$ 로 모두 약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지니나,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 상관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 간 상관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위험요인인 본인 및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364 \sim -.061$) 보였다. 보호요인 중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072 \sim .239$), 성취동기($.115 \sim .344$)는 삶의 만족도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자아탄력성($.170 \sim .578$)은 약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경우 한국문화 수용

(.090~.375)과 부모 문화 수용(.075~.232) 모두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환경요인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058~.112), 부모의 자아존중감(.061~.187)과는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효능감(.039~.183)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없거나 약한 정적 상관을 지녔다. 사회적지지인 경우 가족 지지(.153~.502), 교사 지지(.168~.415), 친구 지지(.178~.523) 모두 약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독립변수 간 상관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거나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020~.395) 보였고, 자신의 한국어 능력(-.245~- .075), 성취동기(-.335~- .110), 자아탄력성(-.484~- .134)과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경우 한국문화 수용(-.346~- .100)과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부모 문화 수용(-.146~- .000)과는 상관이 없거나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환경요인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097~- .035)과는 상관이 없거나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의 자아존중감(-.140~- .068), 부모의 양육효능감(-.156~- .061)과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인 경우 모두 약한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 지지(-.342~- .146)는 가족 지지(-.453~- .175)나 친구 지지(-.499~- .153)에 비해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연구변수 간 상관

	자존감 T1	자존감 T2	자존감 T3	자존감 T4	자존감 T5	만족도 T1	만족도 T2	만족도 T3	만족도 T4	만족도 T5	우울 T2	우울 T3	우울 T4	우울 T5
문화적응 스트레스 T1	-.284***	-.192***	-.236***	-.210***	-.194***	-.312***	-.157***	-.214***	-.168***	-.128***	.166***	.183***	.144***	.145***
문화적응 스트레스 T2	-.209***	-.363***	-.261***	-.219***	-.216***	-.236***	-.364***	-.282***	-.230***	-.211***	.309***	.236***	.212***	.199***
문화적응 스트레스 T3	-.142***	-.183***	-.313***	-.261***	-.230***	-.161***	-.182***	-.316***	-.227***	-.183***	.174***	.395***	.245***	.245***
문화적응 스트레스 T4	-.155***	-.199***	-.217***	-.316***	-.235***	-.159***	-.157***	-.272***	-.325***	-.234***	.183***	.266***	.373***	.265***
문화적응 스트레스 T5	-.148***	-.148***	-.182***	-.246***	-.328***	-.128***	-.128***	-.162***	-.205***	-.308***	.110***	.169***	.201***	.356***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T1	-.083**	-.090**	-.096***	-.057*	-.112***	-.111***	-.054	-.105***	-.065*	-.081***	.020	.101***	.098***	.097***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T2	-.053	-.054	-.074*	-.022	-.079*	-.057*	-.054	-.075***	-.067*	-.112***	.116***	.082**	.054*	.108***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T3	-.100***	-.082**	-.133***	-.092**	-.124***	-.052	-.016	-.130***	-.122***	-.105***	.016	.102***	.124***	.103***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T4	-.069*	-.075**	-.117***	-.122***	-.153***	-.070*	-.078**	-.136***	-.107***	-.135***	.075**	.128***	.104***	.101***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T5	-.065*	-.053	-.092**	-.102***	-.129***	-.073***	-.061*	-.130***	-.105***	-.133***	.032	.090**	.078**	.083**
한국어 능력 T1	.235***	.166***	.163***	.135***	.139***	.170***	.103***	.064*	.049	.049	-.117***	-.085**	-.066*	-.075**
한국어 능력 T2	.188***	.243***	.193***	.135***	.143***	.135***	.155***	.141***	.081**	.072**	-.199***	-.145***	-.120***	-.124***
한국어 능력 T3	.106**	.152***	.266***	.218***	.195***	.130***	.102***	.239***	.123***	.107***	-.135***	-.245***	-.159***	-.183***
한국어 능력 T4	.112***	.124***	.203***	.251***	.195***	.109***	.088*	.126***	.144***	.139***	-.129***	-.156***	-.159***	-.159***
한국어 능력 T5	.102***	.109***	.127***	.164***	.216***	.101***	.101***	.066*	.112***	.147***	-.111***	-.092**	-.105**	-.158***
성취동기 T1	.543***	.307***	.293***	.241***	.250***	.361***	.187***	.159***	.122***	.144***	-.151***	-.176***	-.153***	-.137***
성취동기 T2	.311***	.534***	.286***	.274***	.221***	.227***	.329***	.207***	.121***	.115**	-.263***	-.227***	-.140***	-.150***
성취동기 T3	.286***	.291***	.537***	.317***	.272***	.217***	.172***	.344***	.196***	.193**	-.176***	-.329***	-.211***	-.196***
성취동기 T4	.259***	.320***	.334***	.553***	.349***	.232***	.191***	.245***	.342***	.187***	-.187***	-.257***	-.335***	-.242***
성취동기 T5	.202***	.248***	.274***	.327***	.557***	.180***	.161***	.204***	.238***	.323**	-.110***	-.196***	-.235***	-.318***
자이탄력성 T1	.551***	.324***	.320***	.254***	.281***	.559***	.274***	.210**	.170***	.198**	-.219***	-.217***	-.134***	-.163***
자이탄력성 T2	.312***	.560***	.348***	.289***	.277***	.279***	.524***	.275**	.226***	.197***	-.391***	-.253***	-.212***	-.196***

	자존감 T1	자존감 T2	자존감 T3	자존감 T4	자존감 T5	만족도 T1	만족도 T2	만족도 T3	만족도 T4	만족도 T5	우울 T2	우울 T3	우울 T4	우울 T5
자이탄력성 T3	.269***	.303***	.555***	.362***	.314***	.273***	.300***	.550***	.302***	.273***	-.254***	-.484***	-.302***	-.263***
자이탄력성 T4	.230***	.304***	.355***	.543***	.398***	.274***	.309***	.361***	.566***	.350***	-.242***	-.320***	-.470***	-.341***
자이탄력성 T5	.240***	.290***	.339***	.352***	.570***	.271***	.306***	.339***	.389***	.578***	-.209***	-.282***	-.331***	-.466***
한국문화 수용 T1	.418***	.205***	.210***	.199***	.184***	.372***	.146***	.092**	.090**	.109***	-.122***	-.100***	-.121***	-.103***
한국문화 수용 T2	.237***	.388***	.234***	.232***	.194***	.211***	.358***	.186***	.154***	.122***	-.278***	-.184***	-.135***	-.127***
한국문화 수용 T3	.200***	.251***	.404***	.263***	.247***	.169***	.218***	.353***	.221***	.161***	-.197***	-.318***	-.218***	-.195***
한국문화 수용 T4	.169***	.195***	.195***	.324***	.224***	.125***	.177***	.174***	.305***	.203***	-.183***	-.175***	-.270***	-.198***
한국문화 수용 T5	.193***	.221***	.184***	.239***	.409***	.138***	.167***	.148***	.240***	.375***	-.174***	-.174***	-.240***	-.346***
부모 문화 수용 T1	.298***	.186***	.155***	.113***	.117***	.264***	.142***	.102***	.075**	.080**	-.053	-.067*	-.052	-.046
부모 문화 수용 T2	.169***	.326***	.208***	.182***	.162***	.180***	.251***	.151***	.109***	.111***	-.072**	-.076**	-.051	-.062*
부모 문화 수용 T3	.197***	.199***	.300***	.194***	.166***	.178***	.164***	.232***	.120***	.126***	-.064*	-.170***	-.117***	-.098***
부모 문화 수용 T4	.124***	.161***	.178***	.275***	.178***	.108***	.096***	.134***	.182***	.117***	.000	-.111***	-.146***	-.095**
부모 문화 수용 T5	.096***	.143***	.170***	.189***	.317***	.102***	.106***	.123***	.152***	.205***	-.050	-.109***	-.132***	-.124***
부모 한국어 능력 T1	.134***	.125***	.088**	.083**	.108***	.068*	.061*	.064*	.068*	.086**	-.073**	-.040	-.052	-.064*
부모 한국어 능력 T2	.147***	.086**	.101***	.091**	.093**	.072**	-.013	.080**	.066*	.060*	-.043	-.098***	-.057*	-.035
부모 한국어 능력 T3	.147***	.144***	.121***	.105***	.111***	.092**	.047	.118***	.085**	.065*	-.092**	-.097***	-.059*	-.060*
부모 한국어 능력 T4	.160***	.123***	.107***	.125***	.132***	.104***	.030	.087**	.088**	.112***	-.020	-.050	-.037	-.059*
부모 한국어 능력 T5	.120***	.071*	.095**	.108***	.129***	.070*	-.040	.070*	.058*	.078**	-.028	-.029	-.054*	-.036
부모 자이존중감 T1	.197***	.133***	.149***	.086**	.134***	.140***	.113***	.061*	.080**	.091**	-.112***	-.088**	-.068*	-.128***
부모 자이존중감 T2	.122***	.153***	.129***	.073**	.126***	.122***	.141***	.104***	.088**	.123***	-.135***	-.082**	-.029	-.101***
부모 자이존중감 T3	.184***	.173***	.176***	.158***	.184***	.132***	.125***	.151***	.130***	.187***	-.110***	-.140***	-.102***	-.172***
부모 자이존중감 T4	.127***	.128***	.160***	.134***	.177***	.105***	.131***	.129***	.137***	.163***	-.100***	-.093**	-.084**	-.139***
부모 자이존중감 T5	.143***	.092**	.153***	.128***	.182***	.119***	.079**	.143***	.123***	.164***	-.081**	-.122***	-.084*	-.140***

	자존감 T1	자존감 T2	자존감 T3	자존감 T4	자존감 T5	만족도 T1	만족도 T2	만족도 T3	만족도 T4	만족도 T5	우울 T2	우울 T3	우울 T4	우울 T5
부모 양육효능감 T1	.212***	.172***	.153***	.117***	.145***	.160***	.130***	.039	.064*	.113***	-.147***	-.090**	-.061**	-.118***
부모 양육효능감 T2	.155***	.227***	.125***	.086**	.131***	.183***	.200***	.058*	.064*	.124***	-.156***	-.065*	-.036	-.079**
부모 양육효능감 T3	.172***	.214***	.180***	.132***	.172***	.181***	.161***	.135***	.056*	.166***	-.151***	-.106***	-.070*	-.128***
부모 양육효능감 T4	.135***	.175***	.155***	.145***	.152***	.160***	.114***	.064*	.103***	.121***	-.121***	-.098***	-.096***	-.120***
부모 양육효능감 T5	.122***	.103***	.145***	.124***	.176***	.143***	.113***	.115***	.098***	.147***	-.113***	-.127***	-.088**	-.129***
가족 지지 T1	.438***	.287***	.261***	.209***	.201***	.436***	.255***	.204***	.153***	.162***	-.233***	-.168***	-.191***	-.175***
가족 지지 T2	.249***	.429***	.319***	.258***	.221***	.291***	.453***	.298***	.251***	.214***	-.380***	-.300***	-.232***	-.228***
가족 지지 T3	.216***	.251***	.483***	.328***	.306***	.246***	.257***	.501***	.312***	.266***	-.221***	-.453***	-.302***	-.277***
가족 지지 T4	.202***	.234***	.302***	.459***	.336***	.257***	.244***	.307***	.502***	.319***	-.185***	-.297***	-.427***	-.294***
가족 지지 T5	.224***	.208***	.280***	.295***	.496***	.213***	.217***	.245***	.336***	.495***	-.185***	-.267***	-.305***	-.442***
교사 지지 T1	.393***	.309***	.247***	.222***	.239***	.385***	.262***	.192***	.169***	.187***	-.164***	-.146***	-.188***	-.153***
교사 지지 T2	.280***	.463***	.301***	.258***	.239***	.231***	.394***	.238***	.168***	.169***	-.293***	-.215***	-.180***	-.149***
교사 지지 T3	.210***	.284***	.446***	.284***	.270***	.231***	.248***	.415***	.212***	.230***	-.183***	-.336***	-.227***	-.194***
교사 지지 T4	.228***	.332***	.325***	.413***	.304***	.230***	.280***	.257***	.412***	.243***	-.213***	-.252***	-.324***	-.249***
교사 지지 T5	.199***	.257***	.276***	.300***	.432***	.186***	.231***	.205***	.268***	.404***	-.178***	-.227***	-.256***	-.342***
친구 지지 T1	.464***	.330***	.307***	.236***	.256***	.467***	.266***	.224***	.178***	.206***	-.225***	-.188***	-.153***	-.162***
친구 지지 T2	.319***	.534***	.346***	.311***	.292***	.291***	.468***	.323***	.264***	.229***	-.401***	-.304***	-.229***	-.233***
친구 지지 T3	.287***	.362***	.542***	.380***	.295***	.291***	.267***	.556***	.320***	.260***	-.284***	-.499***	-.318***	-.263***
친구 지지 T4	.286***	.356***	.357***	.517***	.355***	.293***	.311***	.373***	.523***	.303***	-.264***	-.307***	-.459***	-.303***
친구 지지 T5	.261***	.314***	.329***	.345***	.522***	.242***	.276***	.294***	.345***	.492***	-.222***	-.281***	-.306***	-.452***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변인들의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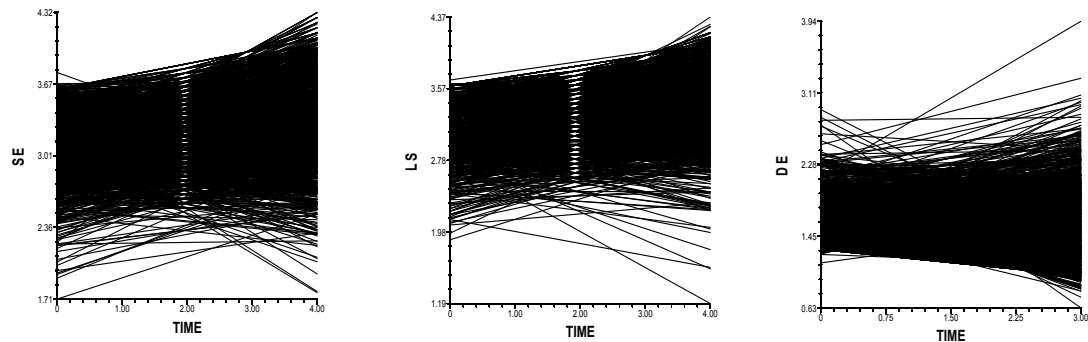
연구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성장곡선을 탐색하기 위해, 완전 무조건부 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 무조건부 선형 성장모형(unconditional linear growth model), 무조건부 2차 성장모형(unconditional quadratic growth model)의 세 가지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전 무조건부 모형은 종속변수의 초기값에 개인차가 있다는 가정 아래, 예측변수에 대한 설정 없이 2수준에 초기값(절편)만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무조건부 선형 성장모형은 종속변수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완전 무조건부 모형의 1수준에 시간 변수를 예측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이때, 시간 변수는 T1=0이 되도록 센터링 하였다. 무조건부 2차 성장모형은 종속변수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2차 곡선의 양상을 띌 것이라는 가정 아래, 무조건부 선형 성장모형에 시간 변수의 제곱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에 대한 각 모형의 분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deviance의 우도비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2차 성장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T1에서 T3까지 증가하다가 T4부터는 감소하는 역-U자 형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T2부터 T5까지 점차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러나 모든 기술통계의 분산이 유의했고, 그래프 상으로도 평균적인 변화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종속변수 변화 양상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Uncon.	Linear	Quad.	Uncon.	Linear	Quad.	Uncon.	Linear	Quad.
Fixed effect									
초기값 평균 (β_{00})	3.182***	3.158***	3.132***	3.232***	3.273***	3.230***	1.631***	1.582***	1.595***
변화율 평균 (β_{10})		.012**	.064***		-.021***	.067***		.033***	-.007
2차항 평균 (β_{20})			-.013***			-.022***			.013*
Random effect									
1수준 오차 (e_{it})	.166	.149	.140	.232	.206	.195	.171	.150	.144
초기값 분산 (r_{0i})	.123***	.007***	.157***	.128***	.151***	.160***	.111***	.120***	.129***
변화율 분산 (r_{1i})		.152***	.042***		.010***	.046***		.012***	.065***
2차항 분산 (r_{2i})			.002***			.002***			.003*
Reliability of OLS regression Coefficient estimate									
초기값 (π_{0i})	.788	.630	.560	.735	.551	.483	.723	.535	.486
변화율 (π_{1i})		.315	.197		.328	.162		.283	.157
2차항 (π_{2i})			.141			.124			.074
Model comparison									
χ^2 (d.f.)		76.057*** (2)	34.530*** (3)		102.388*** (2)	40.924*** (3)		89.635*** (2)	22.145*** (3)

* $p < .05$, ** $p < .01$, *** $p < .001$

주. Uncon. = 완전 무조건부 모형, Linear = 무조건부 선형 성장모형, Quad. = 무조건부 2차 성장모형



SE = 자아존중감, LS = 삶의 만족도, DE = 우울

그림 1. 종속변수의 변화 양상

다음으로 독립변수들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해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표 7). 분석 결과, 가족 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기울기의 평균 및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독립변수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지지의 경우 기울기의 평균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분산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지지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평균적인 양상을 지니지는 않지만 매 시점마다 변화(variation)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들을 시간 의존적 변수로 간주하고 1수준에 투입하였다.

표 7. 독립변수 변화 양상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위험요인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1.594***	.042***	-.046***	.018***	-.018***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2.574***	.285***	-.141***	.146***	-.036*
보호요인 - 개인요인					
한국어 능력	3.600***	.109***	.128***	.092***	-.058***
성취동기	2.898***	.121***	.161***	.085***	-.053***
자아탄력성	2.918***	.100***	.167***	.072***	-.033***
한국문화 수용	3.205***	.109***	.094***	.101***	-.060***
부모문화 수용	2.61***	.161***	-.053**	.126***	-.053***
보호요인 - 환경요인					
부모 한국어 능력	3.029***	.203***	.040**	.047***	-.041***
부모 자아존중감	3.882***	.151***	-.082***	.088***	-.043***
부모 양육효능감	3.661***	.150***	-.052***	.072***	-.032***
가족 지지	3.201***	.155***	0	.131***	-.061***
교사 지지	3.671***	.328***	.115***	.227***	-.137***
친구 지지	3.813***	.421***	.350***	.258***	-.193***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분석 결과 구성된 최종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준 : 개인 내 모형 (within-individual)

$$Y_{ti} = \pi_{0i} + \pi_{1i}TIME_{ti} + \pi_{2i}TIME_{ti}^2 + \pi_{3i}(\text{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_{ti} + \pi_{4i}(\text{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_{ti} \\ + \pi_{5i}(\text{본인 한국어 능력})_{ti} + \pi_{6i}(\text{성취동기})_{ti} + \pi_{7i}(\text{자아탄력성})_{ti} + \pi_{8i}(\text{한국문화수용})_{ti} + \pi_{9i}(\text{부모문화수용})_{ti} \\ + \pi_{10i}(\text{부모 한국어 능력})_{ti} + \pi_{11i}(\text{부모 자아존중감})_{ti} + \pi_{12i}(\text{부모 양육효능감})_{ti} \\ + \pi_{13i}(\text{가족 지지})_{ti} + \pi_{14i}(\text{교사 지지})_{ti} + \pi_{15i}(\text{친구 지지})_{ti} + e_{ij}$$

2수준 : 개인 간 모형 (between-individual)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_i + \beta_{02}(\text{나이})_i + \beta_{03}(\text{월소득})_i + \beta_{04}(\text{거주기간})_i \\ + \beta_{05}(\text{1차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beta_{06}(\text{1차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 \beta_{07}(\text{1차 본인 한국어 능력})_i + \beta_{08}(\text{1차 성취동기})_i + \beta_{09}(\text{1차 자아탄력성})_i \\ + \beta_{010}(\text{1차 한국문화수용})_i + \beta_{011}(\text{1차 부모문화수용})_i \\ + \beta_{012}(\text{1차 부모 한국어 능력})_i + \beta_{013}(\text{1차 부모 자아존중감})_i + \beta_{014}(\text{1차 부모 양육효능감})_i \\ + \beta_{015}(\text{1차 가족 지지})_i + \beta_{016}(\text{1차 교사 지지})_i + \beta_{017}(\text{1차 친구 지지})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_i + \beta_{12}(\text{나이})_i + \beta_{13}(\text{월소득})_i + \beta_{14}(\text{거주기간})_i \\ + \beta_{15}(\text{1차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beta_{16}(\text{1차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 \beta_{17}(\text{1차 본인 한국어 능력})_i + \beta_{18}(\text{1차 성취동기})_i + \beta_{19}(\text{1차 자아탄력성})_i \\ + \beta_{110}(\text{1차 한국문화수용})_i + \beta_{111}(\text{1차 부모문화수용})_i \\ + \beta_{112}(\text{1차 부모 한국어 능력})_i + \beta_{113}(\text{1차 부모 자아존중감})_i + \beta_{114}(\text{1차 부모 양육효능감})_i \\ + \beta_{115}(\text{1차 가족 지지})_i + \beta_{116}(\text{1차 교사 지지})_i + \beta_{117}(\text{1차 친구 지지})_i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성별})_i + \beta_{22}(\text{나이})_i + \beta_{23}(\text{월소득})_i + \beta_{24}(\text{거주기간})_i \\ + \beta_{25}(\text{1차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beta_{26}(\text{1차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_i \\ + \beta_{27}(\text{1차 본인 한국어 능력})_i + \beta_{28}(\text{1차 성취동기})_i + \beta_{29}(\text{1차 자아탄력성})_i \\ + \beta_{210}(\text{1차 한국문화수용})_i + \beta_{211}(\text{1차 부모문화수용})_i \\ + \beta_{212}(\text{1차 부모 한국어 능력})_i + \beta_{213}(\text{1차 부모 자아존중감})_i + \beta_{214}(\text{1차 부모 양육효능감})_i \\ + \beta_{215}(\text{1차 가족 지지})_i + \beta_{216}(\text{1차 교사 지지})_i + \beta_{217}(\text{1차 친구 지지})_i + r_{2i}$$

$$\pi_{3i} = \beta_{30}$$

$$\pi_{4i} = \beta_{40}$$

⋮

$$\pi_{15i} = \beta_{150}$$

3. 조건부 모형 검증

종속변수의 변화 양상이 2차 성장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모형은 종속변수의 변화에 대한 개인 간 및 개인 내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 = -.051$, $p < .001$), 성취동기($B = .056$, $p < .01$), 자아탄력성($B = .062$, $p < .01$), 부모의 자아존중감($B = .030$, $p < .05$), 교사 지지($B = .060$, $p < .001$)가 있었다. 즉,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값이 낮을수록,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부모의 자아존중감, 교사 지지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개인 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값($B=-.027, p<.05$)이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클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감소가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115, p<.001$)가 있었고, 보호요인 중 개인요인으로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B=.037, p<.05$), 성취동기($B=.278, p<.001$), 자아탄력성($B=.148, p<.001$), 한국문화 수용($B=.086, p<.001$), 부모문화 수용($B=.060, p<.001$)이 있었다. 보호요인 중 환경요인 중에서는 부모 양육효능감($B=.035, p<.05$), 가족 지지($B=.113, p<.001$), 교사 지지($B=.109, p<.05$), 친구 지지($B=.070, p<.001$)가 있었다. 이는 개인 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만, 한국어 능력과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수준 및 부모문화 수용 수준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가족,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자아존중감 조건부 모형 검증 결과

	초기값		개인 간 변화				개인 내 변화	
			변화율		2차항			
	B	S.E.	B	S.E.	B	S.E.	B	S.E.
통제변인								
성별 (남=1)	.022	.024	.008	.022	.001	.005		
나이	.023	.039	-.011	.034	.002	.008		
월소득	.000	.001	.001	.001	.001	.001		
거주기간 (년)	-.001	.004	.004	.003	-.001	.001		
위험요인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051***	.015	-.002	.014	.001	.003	-.115***	.021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09	.013	.001	.012	.001	.003	-.004	.010
보호요인 - 개인요인								
한국어 능력	.024	.013	.008	.012	-.003	.003	.037**	.013
성취동기	.056**	.019	.013	.015	-.002	.003	.278***	.018
자아탄력성	.062**	.020	-.011	.017	.003	.004	.148***	.020
한국문화 수용	.031	.016	-.017	.014	.004	.003	.086***	.016
부모문화 수용	.014	.015	-.003	.013	.001	.003	.060***	.013
보호요인 - 환경요인								
부모 한국어 능력	.025	.013	-.015	.012	.003	.003	-.012	.014
부모 자아존중감	.030*	.015	-.027*	.014	.006	.003	-.014	.016
부모 양육효능감	.001	.015	.021	.015	-.004	.003	.035*	.016
가족 지지	.021	.018	.016	.014	-.004	.003	.113***	.014
교사 지지	.060***	.017	-.008	.016	.001	.004	.019*	.009
친구 지지	.027	.018	.017	.016	-.003	.004	.070***	.011

* $p < .05$, ** $p < .01$, *** $p < .001$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B=.072, p<.01$),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070, p<.001$), 자아탄력성($B=.112, p<.001$), 교사 지지($B=.055, p<.01$)가 있었다(표 9).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으며,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값이 낮을수록, 자아탄력성, 교사 지지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 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초기값($B_{\text{변화율}}=-.039, p<.05$; $B_{2\text{차항}}=.010, p<.01$)과 가족 지지 초기값($B=-.008, p<.05$)이 있었다. 삶의 만족도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초기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 감소가 이른 나이에 시작되며 증가 및 감소 폭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지지 초기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 증가 및 감소 폭이 완만해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의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152, p<.001$)가 유의했다. 보호요인 중 개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B=.308, p<.001$)과 한국문화 수용($B=.130, p<.001$)이, 환경요인으로는 가족 지지($B=.186, p<.001$), 교사 지지($B=.037, p<.001$), 친구 지지($B=.104, p<.001$)의 영향력이 유의했다. 즉, 개인 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자아탄력성 및 한국문화 수용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가족,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표 9. 삶의 만족도 조건부 모형 검증 결과

	초기값		개인 간 변화				개인 내 변화	
			변화율		2차항			
	B	S.E.	B	S.E.	B	S.E.	B	S.E.
통제변인								
성별 (남=1)	.072**	.028	.020	.025	.001	.006		
나이	-.102*	.046	.022	.036	-.001	.008		
월소득	.001	.001	.001	.001	.001	.001		
거주기간 (년)	.002	.004	-.001	.004	.001	.001		
위험요인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070***	.017	-.002	.014	.002	.003	-.152***	.026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20	.015	.004	.015	-.001	.003	-.006	.012
보호요인 - 개인요인								
한국어 능력	.001	.016	.001	.014	-.001	.003	.001	.017
성취동기	.004	.019	.001	.019	.001	.004	.017	.020
자아탄력성	.112***	.026	-.040	.021	.007	.005	.308***	.025
한국문화 수용	.011	.020	-.026	.018	.006	.004	.130***	.020
부모문화 수용	.009	.019	.002	.016	-.001	.003	-.012	.017
보호요인 - 환경요인								
부모 한국어 능력	-.012	.015	.014	.014	-.001	.003	-.014	.017
부모 자아존중감	.002	.018	.014	.017	-.003	.004	-.007	.018
부모 양육효능감	.020	.018	-.039*	.018	.010**	.004	.013	.018
가족 지지	.033	.021	.034	.018	-.008**	.004	.186***	.019
교사 지지	.055**	.020	.001	.019	.001	.004	.037***	.011
친구 지지	.029	.021	.013	.020	.001	.005	.104***	.015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우울의 조건부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B=-.093, p<.001$),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040, p<.05$),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037, p<.01$), 한국어 능력($B=-.030, p<.05$), 부모문화 수용($B=.043, p<.01$), 가족 지지($B=-.059, p<.01$), 친구 지지($B=-.051, p<.05$)가 있었다(표 10).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우울 초기값이 낮으며,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값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 초기값, 가족 및 친구 지지의 초기값은 우울의 초기값을 낮추지만, 부모문화 수용 초기값 수준이 높으면 우울의 초기값도 높아졌다. 개인 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B_{\text{변화율}}=.047, p<.05$; $B_{2\text{차항}}=-.012, p<.05$),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B=.011, p<.05$), 부모의 한국어 능력($B=.011, p<.05$), 부모의 자아존중감($B_{\text{변화율}}=.047, p<.05$; $B_{2\text{차항}}=-.017, p<.01$)이 있었다. 우울의 변화 양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패턴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이 크면 우울의 증가폭이 완만해지며,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값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한국어 능력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증가폭이 커지는 반면,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증가폭이 감소했다. 한편, 우울의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는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247, p<.001$)가 유의했다. 보호요인 중 개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B=-.173, p<.001$), 한국문화 수용($B=-.053, p<.05$)이, 부모문화 수용($B=.048, p<.051$)이, 환경요인으로는 가족 지지($B=-.160, p<.001$)와 친구 지지($B=.110, p<.001$)의 영향력이 유의했다. 즉, 개인 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증가하며, 자아탄력성 및 한국문화 수용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이 감소한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지지 수준 증가는 우울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표 10. 우울 조건부 모형 검증 결과

	초기값		개인 간 변화				개인 내 변화	
			변화율		2차항			
	B	S.E.	B	S.E.	B	S.E.	B	S.E.
통제변인								
성별 (남=1)	-.093***	.027	-.008	.034	-.004	.010		
나이	.006	.038	.034	.050	-.012	.015		
월소득	.001	.001	.001	.001	.001	.001		
거주기간 (년)	.002	.004	-.001	.005	.001	.002		
위험요인								
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040*	.017	.047*	.021	-.012*	.006	.247***	.031
부모 문화적응 스트레스	.037**	.014	-.036	.019	.011*	.006	-.002	.014
보호요인 - 개인요인								
한국어 능력	-.030*	.015	.032	.019	-.010	.006	.001	.017
성취동기	-.001	.019	-.020	.023	.006	.007	-.033	.020

	초기값		개인 간 변화				개인 내 변화	
			변화율		2차항			
	B	S.E.	B	S.E.	B	S.E.	B	S.E.
자아탄력성	-.038	.022	-.013	.026	.004	.008	-.173***	.026
한국문화 수용	-.021	.017	.022	.022	-.005	.006	-.053*	.021
부모문화 수용	.043**	.016	-.014	.021	.002	.006	.048*	.019
보호요인 - 환경요인								
부모 한국어 능력	.005	.015	-.031	.018	.011*	.005	.015	.020
부모 자아존중감	-.028	.018	.047*	.021	-.017**	.006	-.007	.019
부모 양육효능감	.013	.018	.009	.021	.001	.006	.005	.020
가족 지지	-.059**	.020	-.044	.025	.011	.007	-.160***	.020
교사 지지	-.015	.020	.004	.025	.001	.007	.005	.011
친구 지지	-.051*	.023	-.011	.027	.001	.008	-.110***	.014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한국 사회에서 최근 10년 간 다문화가정의 급증은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RISS 데이터베이스에 ‘다문화 자녀’로 검색을 하면 학위논문 1,800여건, 국내 학술지 1,500여건, 단행본 700여건을 비롯해 약 4,100건의 학술자료가 검색된다. 2013년 2월에 2,000건(김혜미, 문혜진, 2013), 2015년 9월에 약 3,200건(오승환, 2016)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양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중문화로 인한 갈등이나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활용, 개인차와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탐색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보호요인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초4, 초5, 초6까지 증가하다가 중1, 중2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우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량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시기 높았다가 중, 고등학교 시기에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Leahy, 1985; 최정미, 김미란, 2004)와 같은 맥락에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중학교 시기까지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Shek & Li, 2015)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울의 경우, 초4~중2를 대상으로 한 김세원(2010)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의 변화 양상이 일반 청소년의 변화 양상과 유사함을 추론케 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화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는 가족 지지가 있었다.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증가 및 감소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중학교 입학, 사춘기 등으로 인해 발달단계 상 삶의 만족도에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청소년기에 가족 지지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던 석말숙, 구용근(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증가폭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는 감소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는 부모의 자존감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김성혜, 2012),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오승환, 2016; 하영희,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감소 시기를 앞당긴다는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 간 구조적 관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은 우울의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제안해 볼 수 있는데,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높고, 우울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율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울의 초기값이 낮았던 집단에서 높은 우울 증가율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개인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서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개인요인으로서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자아탄력성, 한국문화 수용 수준이, 환경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가 있었다. 즉, 한국어 능력과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졌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문형란(2016)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백지숙, 김진과 정효경(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김소영, 윤기봉, 2016; 조성희, 박소영, 2015)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1년 후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조수현,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의 경우, 한국문화 수용 수준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 수준은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우울에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문화 수용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외국인 부모 문화 수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 정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었으나,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졌던 양심영, 박수경과 김미숙(2013)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우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변인 중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아존중감의 보호요인이었고, 가족, 친구 지지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에서 모두 보호요인으로 작용했

다. 교사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보호요인이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을 지닌다는 선행연구들(김현주, 홍상황,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친구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우울을 줄인다는 양심영 등(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김순규(2012)의 연구 및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승경, 양계민(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영향력과 개인 내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불일치하는 변인들이 있었다. 양육효능감의 경우 개인 간 비교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증가율 및 감소율을 높이는 한편, 개인 내 변화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인 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 간 비교에서는 우울의 증가율을 낮추나, 개인 내 변화에서는 우울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건부 모형은 상당히 많은 예측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을 지니는 한편, 예측변수들 간 영향력이 통제되면서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와 같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추후 예측변수들 간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이론적으로 정밀한 모형을 수립하여 다시 결과를 산출하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장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 구본용. (2012).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347-373.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희, 하정희. (2008). 학습 동기와 학습 기술이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33-48.
- 김민경, 김정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성혜. (2012). **농아인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 농아인 부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상담학과 가정상담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 (2010). 청소년 우울의 이질적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1(1), 171-192.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 147-176.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김선희, 백송이. (2015).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13.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 117-149.
- 김희경. (201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33-150.
- 문형란. (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 가족 및 사회관계의 매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9(6), 981-991.
- 박순희. (2009). **다문화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점자. (2015).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모의 양육효능감,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변은주, 심혜숙.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53-1765.
- 백수진, 임영진. (2013). 친절한 청소년은 왜 행복한가? : 친절성, 사회적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1(2), 25-36.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2.
- 서은경,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지지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49-476.
- 서정혜.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재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효정, 최현주. (2016).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교사-학생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31-54.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R12.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R16.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R13.
-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6), 270-282.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2-408.
- 이덕희.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544-552.
- 이소래. (1997). 사회적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 209-247.
- 이수경, 오인수. (2015). 아시아 거주 한인 CCKs(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아시아교육연구**, 16(1), 193-219.
- 이순성.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신, 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윤주, 신지연. (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5, 111-127.
- 이종우.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자아정체성 및 학교적응의 상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 이지원.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 일반가정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모.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정성진, 김진숙. (201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77-102.
- 정순연.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정화, 이강이.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의 문화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사회**, 35(6), 47-64.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성희, 박소영. (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3(4), 801-818
- 조수현.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타이 1년 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대전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예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미, 김미란. (2004).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71-380.
- 최효인.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교육.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http://census.go.kr/index.jsp>
- 통계청. (2016). **2016 청소년 통계.**
- 한경진.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연, 설염주, 성춘향, 박용한.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9(1), 1-23.
- 한정애.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과정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29-49.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Aycan, Z. & Berry, J. W. (1996). Impact of employment-related experiences on immigrants' well-being and adaptation to Canada. *Canadian Journal of Eehavioiiral Science*, 28, 240-251.
- Berry,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G., Marín.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Phinney, J. S., & Vedder, S.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s* (pp. 207-238). Newbury Park, CA: Sage.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404-41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orner, L., Orellana, M. F., & Li-Grining, C. P. (2007). "I helped my mom" and it helped me: Translating the skills of language brokers into improved standardized test scor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3(3), 451-478.
- Duckworth, A. L., Tsukayama, E., & May, H. (2010). Establishing causality using longitudinal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 illustration predicting achievement from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 311-317.
- Encyclopedia Britannica. (2017).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58-164.
- Furnham, A. & Alighai, N. (1985). The friendship networks of foreig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 709-722.
- Gardner, G.H. (1962) Cross-cultural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8, 241-256
- Garmezy,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213-233). Oxford: Pergamon Press.
- Gudykunst, W.B., & Hammer, M.R. (1988). The influence of ethnicity, gender, and dyadic composition on uncertainty reduction in initial interactions. *Journal of Black Studies*, 18(2), 191-214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exic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6(2), 134-151.
- Jayasuriya, L., Sang, D., & Fielding, A. (1992). *Ethnicity, im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 critical review of Australian research*. South Carlton, Australia: Bureau of Immigration Research.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33
- Hoffman, L. (2015). *Longitudinal analysis: Modeling within-person fluctuation and change*. New York, NY: Routledge Academic.
- Leahy, R. L. (1985). The Development of the Self. **자아의 발달(김기정 역)**. 서울: 문음사.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and Hom,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587-598.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rcia, J. (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ersonality*, 35(1), 118-133.
- Martin, K. M., Huebner, E. S., & Valois, R. F. (2008). Does life satisfaction predict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adolescence? *Psychology in Schools*, 45(8), 705-714.
- McCoach, D. B., & Kaniskan, B. (2010). Using Time-varying Covariates in Multilevel Growth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1(17), 1-12.
- Mental health foundation. (2017). <https://www.mentalhealth.org.uk/a-to-z/d/depression>
- Padilla, A. M., Alvarez, M., & Lindholm, K. J. (1986). Generational status and personality factors as predictors of stress in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8, 275-288.
- Peterson, B. E., & Plamondon, L. T. (2009). Third culture kids and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sojourns on authoritarianism, acculturative balanc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5), 755-763.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in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8, 49-1 A.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yeng, M. S., Kroger, J., & Martinussen, M. (2013). Identity status and authoritarianism: A meta-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3(3), 242-252
- Saha, R., Huebner, S., Suldo, S. M. & Valois, R.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 Sam, D. L., & Berry, J. W. (Eds.).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k, D.T.L. & Li, X. (2016). Perceived School Performance, Life Satisfaction, and Hopelessness: A 4-Year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2), 921-934
- Rogers-Sirin, L. (2013). Segmented assimilation and attitude toward psychotherapy: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329-339.
- Smart, J. F. & Smart, D. W. (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90-396.

- Thanh, H. M. (2005).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Vega, W. & Rumbaut, R. (1991). Ethnic minorities and 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56-89.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박혜숙* · 양상희***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0세 아동(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만족도 추이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족도는 선형적이라기보다는 비선형적인 변화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에 있어서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학력이 높은 부모를 둔 아동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다. 1수준 변수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특성 변인인 성별, 부의 학력, 가구월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해당 변인 통제 후에도 만족도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었다.

그 크기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또래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로 나타나,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특히 자아존중감 향상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CAP), 만족도, 성장모형, 자아존중감, 가족, 또래, 교사와의 관계

I. 도입

만족도는 삶에 대한 기쁨, 행복함을 느끼는 정서적 요인과 개인이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Diener, Scollon, & Lucas, 2004; Pavot & Diener, 1993). 2010의 OECD 통계에 이어 2015년 발표한 자료에도 한국의 청소년은 재학율, 학업성취도에서는 상위수준이지만 만족도, 혹은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연합뉴스 2010, 5.4; 라포르시안, 2017. 5.1).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상위권이지만, 지나친 편향된 관심과 통제로 인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낮은 학습동기 및 만족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2006 유니세프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하여 국제비교를 한 박종일 외(2010)에서도 교육, 보건과 안전과 같은 지표와는 대조적으로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은 최하위를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호남대학교

** *광주보건대학교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에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들이 제기하고 있다(Henry & Slater, 2007; 박혜숙, 2016 재인용, p103). 아동, 청소년의 불만족은 개인적으로는 인지, 동기 및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추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황연정, 김경근, 2006).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Yang, 2008; 박종일, 외 p.122 재인용)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내적 및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Fujuta & Diener, 2005;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p.88 재인용)이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게 되는 학령기 후기와 청소년 전기를 거치는 동안의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한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생태체계적인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미시체계의 환경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다. 즉 부모·가족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나, 상대적으로 성장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연구는 드물다.

2016년 7월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인구의 3.9%이르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and multicultural)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세는 자연스럽게 학령기에 돌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학교적응 및 만족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전수정, 윤혜미, 2013).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 사회적 자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자녀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와 학습결손 문제(교육인적자원부, 2006)를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양육하는 부모의 문화적응, 언어문제,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다른 점뿐만 아니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습과 생활적응에서 일반 아동·청소년 보다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본다(Min, 2005, Oh, 2005, Han, 2009;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재인용). 적응은 일상생활의 교육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Lazarus, 1963) 또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대처결과로 보기에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만족도는 적응에 대한 인지적,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박혜숙, 2016; 석말숙, 구용근, 2015;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O. Kim, Oh, & Choi, 2006; S. Kim & Baek, 2008; Y. Kim & Park, 2009)들은 대부분 일반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0세 아동(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만족도 추이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만족도에 미치는 가정, 학교(교사), 또래와의 관계 특성이 청소년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내적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이므로(Lubin & Van Whitlock, 2004),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사회 등의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Choi, 2001).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있어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내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요인, 친구 등의 학교환경요인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수준 등의 생태학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ho, Kim, & Kim, 2011). Gilligan & Huebner(2002)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자아개념과 삶의 만족도와는 영향력 등 다차원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였으며, Oh(2010)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 가운데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유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변화와 혼란이 존재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많은 발달적 과업들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가 존재한다(Feldman & Elliott, 1990). 청소년기는 부모의 권위에 따르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S. Kim & Chung, 1997).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Markiewicz, Lawford, Doyle, & Haggart, 2006).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자녀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아동과의 관계가 청소년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1)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동-청소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항상성(변화가 없는가), 선형적(매년 일정하게 변화하는가), 아니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가?
- 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족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자아존중감) 변수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부모학력, 특정 시점(초등4)에 얻어진 월평균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

- 4) 변화율에 있어서 성차의 효과가 있는가?
- 5) 평균 만족도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Ⅱ. 문헌연구

1. 다문화가정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이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지칭한다(송혜경, 2008).

다문화가정은 이주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양육태도, 부부갈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지위 등 자녀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부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낮은 경제 수준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친다(Eamon, 2001; H.-H. Lee, 2012; Y. Lee, 2007). 이와 더불어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다른 점뿐만 아니라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습과 생활적응에서 일반 아동청소년 보다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본다(Min, 2005, Oh, 2005, Han, 2009: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재인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안선정 외, 2013 재인용). 그러나 김혜미와 문혜진(2013)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양육방식, 부모의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을 이용한 일반 아동과 다문화가정아동을 매칭하여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와의 학교 적응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만족도와 관련 변수(자아존중감,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구자에 따라 행복감, 주관적 행복(wellbeing)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국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OECD, 2010)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역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조선일보, 2014; 정일진, 정재희, 김소영, 김윤나, 김대선, 탁진국, 2014 재인용).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대한 연구(황여정, 김경근, 2006)에서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교수-학습만족도, 내재적 학습동기 등이 학교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족도에 있어서 성차가 있다는 서인석과 황호익(2009)의 특성화고 학생 대상 학교만족도 연

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및 면, 만족도와 관련 있는 학교적응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정미영, 문혁준, 2007; 이경남, 2007재인용) 및 성차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송자, 2005)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정서적 측면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기에 부모, 형제, 교사, 친구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형성되기에 아동을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Rodolph, Caldwell, & Conley, 2005; 송영주, 2016, p.2 재인용).

지지적이거나 개방적인 의사소통, 부모감독, 자아존중감은 만족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지원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만족도와 가족요인(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지지)을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학생-교사, 또래 관계)의 기초가 되기에(김두환, 김지혜, 2011; 최지은 신용주, 2003; 박혜숙, 2016, p. 105 재인용), 부모지원 및 자녀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명순, 2013; 석말숙, 구용근, 2015, p.59 재인용),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사회질서, 규칙뿐만 아니라 부모는 인간관계, 사적 태도, 정서,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 기본적인 것을 전수하는 존재이다(장연진, 구혜영, 2013).

아동이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집단이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화를 담당하면서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신숙, 2015, 송영주, 2015, p.3 재인용). 학령 후기의 아동은 청소년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친구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와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이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동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3; Manaster & Jobe, 2012; Peer, 2006).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친구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Verkuyten & Thijs, 2002), 친구, 교사 등과의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 적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경, 이형실, 2007; 정미영, 문혁준, 2007).

한편 한국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성취도는 또래의 지위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학업성취와 정적이 상관이 있다고 한다(윤미선, 이영옥, 2005), 학업성취도와 또래관계 간의 유의한 상관은 초중등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안도희, 김유리, 2014). 또한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아동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탓에 친구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부 다문화가족아동은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주희, 남지숙, 2010). 따라서

일반아동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아동은 친구 관계망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부모지원 포함), 친구,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만족도의 변화 여부/추이에 성차가 있는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대상자

한국청소년 연구소의 다문화 패널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년도 아동 중 10살인 아동(n=1,435)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구당 모집이 되어서 중복된 10개의 가구아이디를 가진 학생을 삭제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여학생은 713명(49.7%), 남학생은 722명(50.3%)로 나타났다.

2. 도구

한국청소년 패널의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 이용하였다. 이중 성별, 삶에 대한 만족도(3문항), 가족관계(7문항), 교사와의 관계(6문항), 친구와의 관계(7문항), 성적에 대한 만족도(1문항), 자아존중감(4문항)의 자료는 아동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 설문자료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아버지 교육 수준을 선택한 이유는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출신국가가 다른 어머니로 구성된 경우가 88.7%로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수를 사용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세 문항(사는게 즐거움, 걱정거리 없음, 행복하다고 생각)으로 이루어졌다. 가족지지 및 관계는 7문항(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 줌, 나를 잘 이해함, 나누어 가짐, 힘들 때 힘과 용기를 줌, 아동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줌, 아동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함, 아동에게 관심이 많음)으로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6문항(담임교사와 친함, 아동을 잘 도와줌, 좋아함, 관심 많으심, 아동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해주심, 해당 아동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함)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와의 관계는 7문항(나를 좋아함, 내말을 들어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해줌, 잘 도와줌, 관심이 많음,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함, 아동을 이해해줌)으로 이루어졌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1개 문항으로 되었으며 다른 문항과 방향이 다르게 반응이 구성되었다(①전혀 만족하지 않음~④매우 만족). 자아존중감은 4문항(자신이 자랑스러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함, 학급임원이 될 자격 있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으로 4점척도로 구성되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④매우 그렇다).

3. 코딩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상관관계, Rasch측정모형,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은 성별은 남학생은 1로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는 만족도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3개 문항으로만 구성되었기에 5년에 걸쳐 세 문항이 동일하게 해석되는지는 측정동일성 가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just identified).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세 문항이 동일하게 1차원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변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4개의 변수의 경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2수준 성장모형을 구축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변수는 1수준에 그리고 2수준 변수로는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학력, 월평균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 중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주로 구성되었기에 아버지의 학력을 사용하였다. 다문화패널 자료에는 초등부터 박사과정까지 8단계 과정 및 졸업, 휴학/재학, 중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졸업은 0.5를 가산하여 학교급 정보에 더하였고, 수료/재학은 0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휴학 및 중퇴는 0.5점을 학교급 정보에서 감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왜도, 첨도가 높았다. 정규성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log 변환하여 정규성 가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였다. 시간은 0,1,2,3,4로 코딩하여, 첫 번째 해 즉 아동이 10살일 때의 만족도를 절편이 나타내도록 하였다. 최종 모형에서는 모두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하였다. 이런 이유로 3번째 자료 수집시기인 12세 때의 평균만족도를 나타낸다.

기본 모형에서 첫 시기인 10세 때의 아동의 평균 만족도를 나타낸다. HLM 사용시 결측이 있는 경우 Missing at Random(MAR)을 가정하고 Schafer (2002), Norm 2,30을 이용하여, 연속변인처럼 간주하고 다중대체방법을 사용하였다.

4. 2수준 다층성장모형

1) 기초성장모형

Level 1 모형 (Within-Subject Model)

Level-1 Model

$$Y_{ti} = \pi_{0i} + \pi_{1i}*(AGE_{LINti}) + \pi_{2i}*(AGE_{QUADti}) + e_{ti}, e_{ti} \sim N(0, \sigma^2)$$

Level-2 Model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pi_{2i} = \beta_{20} + r_{2i}$$

그림 1. 기초 성장모형

주) π_{0i} 는 centering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간 코딩을 0,1,2,3,4로 하였기에, 특정 아동이 10살 때 즉 초기치의 평균만족도를 나타낸다.

π_{1i} : 선형효과

π_{2i} : 비선형효과(acceleration effect)

Level-1 Model

$$Y_{ti} = \pi_{0i} + \pi_{1i}*(AGE_{LINti}) + \pi_{2i}*(AGE_{QUADti}) + \pi_{3i}*(가족관계_{ti}) + \pi_{4i}*(교사관계_{ti}) + \pi_{5i}*(친구관계_{ti}) + \pi_{6i}*(성적만족도_{ti}) + \pi_{7i}*(자아존중감_{ti}) + e_{ti}$$

Level-2 Model

$$\pi_{0i} = \beta_{00} + \beta_{01}*(성별_i) + \beta_{02}*(아버지 학력_i) + \beta_{03}*(LN\_월수입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성별_i)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성별_i) + r_{2i}$$

$$\pi_{3i} = \beta_{30} + \beta_{31}*(성별_i) + r_{3i}$$

$$\pi_{4i} = \beta_{40} + \beta_{41}*(성별_i) + r_{4i}$$

$$\pi_{5i} = \beta_{50} + \beta_{51}*(성별_i) + r_{5i}$$

$$\pi_{6i} = \beta_{60} + \beta_{61}*(성별_i) + r_{6i}$$

$$\pi_{7i} = \beta_{70} + \beta_{71}*(성별_i) + r_{7i}$$

그림 2. 최종모형

IV. 결과

만족도 변수는 매년(5회) 탐색적 요인분석 및 Rasch측정모형 분석결과 단일 차원이라고 볼 수 있었다. Rasch 측정모형 잔차를 이용한 분석 결과 모형이 설명하는 변량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단일 차원이라고 볼 수 있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비교적 양호하였다(〈표 1〉 참고). 〈표 2〉는 기술통계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세 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1.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척도	문항수	Year 1	Year2	Year3	Year4	Year5
만족도	3	0.789	0.852	0.857	0.860	0.867
가족관계	7	0.918	0.945	0.941	0.949	0.947
담임관계	6	0.936	0.952	0.960	0.961	0.962
친구관계	7	0.945	0.962	0.967	0.967	0.965
자아존중	4	0.740	0.790	0.805	0.827	0.813

표 2. 기술통계

year 1	year 1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만족도	1434	1.00	4.00	3.252	0.579	-.569	.513
	가족관계	1434	1.00	4.00	3.208	0.563	-.560	.790
	선생님관계	1434	1.00	5.00	3.679	0.882	-.314	-.216
	친구관계	1434	1.00	5.00	3.835	0.868	-.504	-.094
	성적만족도	1434	1.00	4.00	2.847	0.712	-.245	-.084
	자아존중감	1434	1.00	4.00	3.140	0.540	-.377	.220
year2	만족도	1434	1.00	4.92	3.257	0.602	-.460	.293
	가족관계	1434	1.00	5.06	3.186	0.603	-.493	.676
	선생님관계	1434	.43	6.13	3.674	0.894	-.282	-.241
	친구관계	1434	1.00	5.81	3.917	0.842	-.503	-.045
	성적만족도	1434	0.00	5.00	2.795	0.776	-.210	-.274
	자아존중감	1434	1.00	4.65	3.179	0.545	-.225	-.090
year3	만족도	1434	1.00	4.86	3.314	0.579	-.395	.039
	가족관계	1434	1.00	4.69	3.248	0.561	-.425	.699
	선생님관계	1434	1.00	6.40	3.790	0.885	-.353	-.089
	친구관계	1434	1.00	6.08	4.014	0.837	-.543	-.054
	성적만족도	1434	1.00	5.00	2.801	0.779	-.169	-.356
	자아존중감	1434	1.75	5.01	3.232	0.530	-.086	-.635
year4	만족도	1434	1.00	4.89	3.238	0.592	-.310	.091
	가족관계	1434	1.00	4.77	3.220	0.564	-.315	.446
	선생님관계	1434	.69	6.30	3.780	0.866	-.220	-.314
	친구관계	1434	1.00	6.89	4.126	0.780	-.520	.162
	성적만족도	1434	0.00	5.00	2.522	0.795	.002	-.241
	자아존중감	1434	1.25	4.98	3.215	0.540	-.112	-.345
year5	만족도	1434	.98	4.88	3.151	0.631	-.230	-.029
	가족관계	1434	1.00	4.63	3.198	0.544	-.192	.357
	선생님관계	1434	1.00	6.40	3.769	0.852	-.256	-.102
	친구관계	1434	1.00	6.24	4.132	0.741	-.418	-.140
	성적만족도	1434	0.00	4.00	2.405	0.788	-.002	-.241
	자아존중감	1434	1.00	4.74	3.181	0.534	-.032	-.301

주) 1수준 변수는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다중대체한 값이다.

2수준 HLM 기초모형은 1수준 시간에 따른 효과, 2수준 개인특성을 나타낸다. 2수준의 변량이 35%로 나타나 시간특성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만족도는 개인특성에 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층모형 사용을 정당화하였다.

시간에 따른 만족도 패턴을 보기 위하여 선형(Lin)효과 및 비선형(Quad)효과를 살펴본 결과, 만족도는 비선형특성이 선형특성(일관적으로 증가 추세) 보다 더 감소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인 통제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표 5 참고>). 선형효과만을 사용한 모형에서 초기값과 기울기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초기 상태인 10살 때 만족도가 높은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족도의 증가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 성장 모형의 결과는 비선형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선형, 비선형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간에 따라 증가추세는 있으나($\beta_{10} > 0$), 증가율은 감소하였다($\beta_{20} < 0$). 또한 만족도 증가율에 있어서 개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 4〉 참고).

표 3. 기본 성장모형: 고정효과

Fixed Effect	b	SE	t	df	p
INTRCPT2, β_{00}	3.244	0.016	208.707	1343.000	<0.001
AGELIN slope, β_{10}	0.071	0.015	4.843	1343.000	<0.001
AGEQUAD, β_{20}	-0.023	0.003	-6.812	1343.000	<0.001

표 4. 기본 성장모형: 무선효과

Random Effect	SD	Variance	df	χ^2	p
INTRCPT1, r_0	0.392	0.153	1343	2546.104	<0.001
AGELIN slope, r_1	0.218	0.048	1343	1609.853	<0.001
AGEQUAD slope, r_2	0.046	0.002	1343	1551.806	<0.001
level-1, e	0.440	0.194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 1수준에 사용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의 효과는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그 크기는 자아존중감($\beta=.262$), 부모관계($\beta=.212$), 친구관계($\beta=.177$), 성적만족도($\beta=.132$),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beta=.0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beta < 0.3$). 성적에 대한 문항은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기대하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변화하지 않거나 아동이 10살이었을 때 부모자료에서 얻은 아버지의 교육수준(학력), 가정의 월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 아동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자 아동에 비하여 높았다. 그러나 기울기/변화율에 있어서 성차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교육경험(학력)이 높은 경우의 아동의 만족도는 낮았다. 가정의 월소득과 아동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에 들어간 변수통제 후에도 만족도의 선형 및 비선형 증가율의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가족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기울기 무선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개인에 따라 변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6〉 참고).

표 5. 최종모형: 고정효과

Fixed Effect	b	SE	t	df	p	b
INTRCPT2, β_{00}	3.246	0.007	453.190	1340	<0.001	
성별(남), β_{01}	0.074	0.014	5.175	1340	<0.001	0.062
아버지학력, β_{02}	-0.024	0.006	-3.645	1340	<0.001	-0.045
LN_INCOM, β_{03}	-0.019	0.015	-1.292	1340	0.197	-0.016
LIN, β_{10}	0.031	0.012	2.521	1342	0.012	0.072
성별(남) β_{11}	0.016	0.024	0.660	1342	0.509	0.158
QUAD β_{20}	-0.014	0.003	-4.901	1342	<0.001	-0.012
성별(남) β_{21}	0.000	0.006	-0.085	1342	0.932	0.000
가족관계 β_{30}	0.223	0.014	15.813	1342	<0.001	0.212
성별(남), β_{31}	-0.026	0.028	-0.921	1342	0.357	-0.022
선생님관계, β_{40}	0.053	0.009	6.165	1342	<0.001	0.078
성별(남) β_{41}	0.012	0.017	0.668	1342	0.504	0.010
친구관계, β_{50}	0.128	0.011	12.163	1342	<0.001	0.177
성별(남), β_{51}	0.017	0.021	0.783	1342	0.434	0.014
성적만족도, β_{60}	0.100	0.008	12.052	1342	<0.001	0.132
성별(남), β_{61}	-0.002	0.017	-0.117	1342	0.907	-0.002
자아존중감, β_{70}	0.291	0.015	19.203	1342	<0.001	0.262
성별(남), β_{71}	0.000	0.030	0.004	1342	0.997	0.000

표 6. 최종모형: 무선효과

Random Effect	SD	Variance	df	χ^2	p
INTRCPT1, r_0	0.179	0.032	1.000	3.625	0.054
AGELIN slope, r_1	0.146	0.021	3.000	10.905	0.012
AGEQUAD slope, r_2	0.027	0.001	3.000	10.562	0.014
가족관계 slope, r_3	0.244	0.060	3.000	10.495	0.015
선생님관계slope, r_4	0.122	0.015	3.000	4.105	0.249
친구관계 slope, r_5	0.177	0.031	3.000	2.296	>0.500
성적만족도 slope, r_6	0.102	0.010	3.000	4.690	0.194
자아존중감 slope, r_7	0.257	0.066	3.000	16.439	0.001
level-1, e	0.344	0.118			

V. 요약 및 논의

아동 청소년 시기에 만족도는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성취도가 주 관심사인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성취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만족도에 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0세 아동(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만족도 추이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족도는 선형적이라기보다는 비선형적인 변화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에 있어서 남자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학력이 높은 부모를 둔 아동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1수준 변수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특성 변인인 성별, 부모의 학력, 가구월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해당 변인 통제 후에도 만족도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었다. 그 크기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또래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로 나타나,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특히 자아존중감 향상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체계이론에서는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중간체계, 외체계 등이 아동의 정의적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미시체계에 해당되는 변수만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동적인 변수가 없어서 중간체제나 지역사회의 특징(외체계 변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6회까지 자료를 얻어서 분석 시, 절편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적어도 3수준 변수 중 학생의 거주지가 광역시인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추후 분석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변수를 3수준 변수로 시도해 볼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단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만 수집이 되어서 일반청소년의 만족도 변화추이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 추후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일반청소년 자료와 비교하여 어떤 변인(개인, 환경 특성변인)의 영향력이 각 그룹의 만족도에 더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각 그룹의 만족도 제고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제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30), 159-182.
- 김혜미, 문혜진(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 7-31.
- 나은숙, 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혜숙. (2016). “학교 만족도” 타당화와 관련변인 탐색: 서울교육종단자료.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101-124.
- 백병부, 황여정, 성열관. (2012).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 22(4), 141-170.
- 서인석, 황홍익.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8(3), 159-180.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7(1), 55-74. -15.
- 송영주. (2016). 학업성적 만족도와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 비교. **생애학회지**, 6(3), 1-15.
- 안도희, 김유리. (2014).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관계성,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52(1), 1-25.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윤미선, 이영옥. (2005). 남·여 중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컴퓨터게임중독, 학업성적 간 관계모형 비교. **교육방법연구**, 17(2), 183-196.
- 정일진, 정재희, 김소영, 김윤나, 김대선, 탁진국. (2014). 청소년의 강점, 성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3), 563-583.
- 장혜진, 윤혜미. (2010). 농촌아동의 가정환경자극과 학교적응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33, 7-36.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 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 181-203.
-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5), 317.
- Cho, S.-Y., Kim, H.-W., & Kim, M. (2011).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in the Ecological Contex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3), 87-98.
- Choi, S. (2001). Study on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of parentless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Feldman, S. S., & Elliott, G. R. (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 Kim, O., Oh, Y., & Choi, M. (2006). The school-life satisfaction with background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5 (1), 195-207.
- Kim, S., & Baek, H.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im, S., & Chung, M. (1997). Research: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mother-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3), 181-191.
- Kim, Y., & Park, O.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Focusing

- on self-esteem,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Stress,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1 (1), 79-99.
- Lubin, B., & Van Whitlock, R.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rief life satisfaction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0(1), 11-27.
- Markiewicz,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121-134.
- Oh, H. (2010).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area of chungnamdo: Focu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HoSeo University, Chungnam*.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장주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탄력성이론 (Resilience)을 바탕으로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위험요인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들이 야기하는 완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별점회귀모형인 lasso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의 보호요인은 개인특성영역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특성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탄력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입장에서 위험한 환경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결핍에 영향을 미칠 때 환경적 특성은 매개효과를, 개인적 특성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다문화가정, 탄력성, 보호요인, 별점회귀모형

I. 서론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수는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53만6,627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2006년(주민등록인구 대비)에 1.1%에 이르렀고,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1만 명을 넘어 총인구 5106만9375명 대비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행정자치부, 2015). 이러한 이유로 같은 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19만 7천 550명으로 집계되었고, 10명 중 9명이 초등학교 이하, 10명 중 6명이 미취학아동이었다. 세부적으로 연령대는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 58.8%(11만6,068명), 초등학교(만 7-12세) 31.2%(6만1,625명), 중고생(만 13-18세) 10.0%(1만 9,857명)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6).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이미 국제결혼, 외국인인근로자의 이주 등으로 1980년 중반이후부터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였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한 국가 정책 담론과 실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국민일보, 2006). 이는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족,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 Gesellschaft für Sozialarbeit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며, 이들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 간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지양하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LAWnB, 2017). ‘결혼이민자 등(외국인)과 한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한국인(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과 한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내국인(출생) :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국적회복자는 제외함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출생) 또는 내국인(귀화)과 결혼한 외국인
- 아동·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
- 다문화 대상자 :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중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을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국내출생청소년: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
2.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에서 출생 또는 일정기간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
3. 외국인자녀: 현재 그 간 다문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난민, 유학생, 새터민 및 그 자녀 등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고 있다 (the Leader, 2016).

외국인주민수의 눈에 띄는 증가추세와 더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주민의 높은 비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자녀교육 문제 등의 부정적인 면들을 부각시켰고 이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06).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한국가정 출신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한 측면들을 주목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임소연, 박민희, 2014; 윤경희 2014; 김정민 외, 2015; 유지희, 황숙연 2016; 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그러한 연구들의 필요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중현상은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관련된 사회적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도록 부추기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일보, 201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부정적으로 심화되어지기 전에 다문화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족과 결핍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으로 시선을 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가정 출신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출신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운 혹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현상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탄력성이론(Resilience)을 다문화청소년들에 적

용하여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집단과 환경의 영향력 속에서도 상처를 회복하고 어려움과 문제들에 탄력 있게 대처해나가는 개인의 저항능력으로 탄력성을 설명하고 있는 탄력성 이론은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사회 속에서 다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근거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탄력성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탄력성에 대해 연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둘째 의미 있는 보호요인들이 야기하는 완충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위험요인들의 상호작용 및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화시키는 완충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들이 있으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탄력성이론

탄력성(Resilience)연구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전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질문을 ‘인간을 (진)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관찰의 관점을 전환한다. 다시 말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역경 혹은 위험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Zander(2009)에 의하면 탄력성의 개념은 (심리적, 내적) “저항력”으로 표현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유전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 발달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 혹은 “뛰어난 적응력” (긍정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아이들 (혹은 성인)이 존재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아이들은 (혹은 성인들은) “심리적인 상해”없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극복하거나 혹은 “범죄적인 행동”에서 잘 벗어난다(p.18). 이러한 개념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탄력성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발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위험성(고난)이 있어야 한다. 2. 이러한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한다(Wurstmann, 2005). 다시 말해 탄력성은 위험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 최근의 연구들은 탄력성을 개인특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 및 삶의 패턴에서 표현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Masten, 2001). 말하자면 이러한 능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완성되어지는 프로세스의 결과이므로 탄력성은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프로세스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Zander, 2009). 그러므로 이러한 탄력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요인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취약성, 즉 발병위

험, 고위험, 발달저지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Holtmann & Schmidt, 2004). 예를 들어 유전적 결함, 비정상분만 등과 같은 출생 시의 제 1차적 취약성과 가족 및 사회적 환경등과 같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얻어지는 제 2차적 취약성을 말한다(Scheithauer et al., 2000; Wurstmann, 2005 재인용).

제 1차 취약성	제 2차 취약성
- 출생 전·후 요인 (예: 비정상분만, 미숙아, 영양결핍, 신생아 병) - 신경정신적 결핍 - 정신생리학적 요인 (예: 매우 낮은 활동 수준) - 유전적 요인(예: 염색체이상증후군) - 만성질환 (예: 천식, 아토피질환, 암, 중증 심장질환, 뇌기관 손상) - 기질(어려운 아이), 조기 충동적 행동, 높은 산만성 - 낮은 인지능력: 낮은 지능, 인지 결핍, 사회인지적 정보처리 결핍	- 불안정한 인간관계조직 - 낮은 자기조절능력

가족 및 사회 환경등과 관련해 Wurstmann (2005)는 위험요인 혹은 스트레스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위험요인/스트레스

-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 빈곤
- 혐오하는 거주환경(거주지역의 높은 범죄율)
- 만성적인 가족불협화
- 부모의 결별 및 이혼
- 부모의 알코올 의존성 및 약물 오남용
- 부모 한 쪽이나 양쪽의 심리적 손상 혹은 병
- 부모의 범죄행위
- 노숙
- 부모의 낮은 (인간)관계능력
- 부모 한쪽의 부재/ 한부모
- 양육적 결핍/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예: 모순적, 거부적→ 일관성이 없는 양육태도, 단일하지 못 한 부모의 양육방법, 체벌, 방임, 무관심/편애, 민감성 결여→ 반응성)
- 십대 부모(18살 이전)
- 원하지 않은 임신
- 잦은 이사, 전학
-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 가정의 사회적 소외
- 형제·자매 혹은 친한 친구의 상실
-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 학습 혹은 행동장애
- 네 명 이상의 형제·자매
- 왕따/ 동년배들의 거부
- 시설입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동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부담들이 쌓이면서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Petermann et al., 2004). 위험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떠한 발달단계에 있는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달과정에서 아이들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에 유독 반응하는 시기가 있는데 취약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과도기적인 상황인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기, 유치원에서 학교로 옮기는 시기, 사춘기 등이 취약성이 높은 시기이다(Scheithauer & Petermann, 1999; Griebel & Niesel, 2004 재인용).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모든 위험부담이 심리적 손상 혹은 적절하지 않은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요인들이 발달을 손상시키고 또 뒤따르는 결과들이 어떠한 지는 관계된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Scheithauer & Petermann, 1999; Wurstmann, 2005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직접적인 효과인 탄력성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위험요인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기능으로 보호요인의 간접적인 완충효과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Rutter(1990)에 의하면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손상 혹은 적절하지 않은 발달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보호요인은 발달을 지지하고 보호적인 혹은 위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보호요인과 지지조건들로 구분된다(Scheithauer et al., 2000; Wurstmann, 2005 재인용). 여기서 지지조건은 작용을 하는 요인이 보호적인 작용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호요인은 위험한 상황이 우선 전제된 상황에서 한 보호요인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즉 그 요인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완화되거나 제거되어질 수 있을 때(완충효과)로 이해된다(Laucht et al., 2000). Luthar et al.(2000)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발달모델에 따라 보호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에 속하는 보호자원들의 분류는 (Wurstmann(2005)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1. 개인특성: 기질과 같은 개인적 요인

아동과 관계된 자원	탄력성 자원
■ 긍정적 기질 (유연적, 활동적, 개방적) ■ 첫째 아이 ■ 여아 ■ ■ ■ ■ ■ ■ ■	■ 문제해결 능력 ■ 자기효능감 ■ 긍정적인 자기인식/ 높은 자존감 ■ 자기조절능력 ■ 내적화된 자기제어능력/ 현실적인 행동양식 ■ 높은 사회성: 공감력/ 협력성/책임감 ■ 적극적이고 유연한 극복행동: (예: 사회적 지원 가능성 타진, 긴장완화능력) ■ 안정적인 (인간)관계행동 ■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인생관 ■ 재능, 관심, 취미

2. 미시체계: 가족과 같은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적 요인

가족 내 자원	교육기관 내 자원
▪ 신뢰와 자율성을 지원하는 최소 한 사람의 지지자 ▪ 정서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구조적 자녀양육 방식(권위있는 자녀양육태도) ▪ 가족 간의 단결, 안정성, 구조적인 의사소통 ▪ 긴밀한 형제·자매관계 ▪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 ▪ 지지적인 가족 네트워크(친척, 친구, 이웃)	▪ 확실하고 투명한 지속적인 규칙과 구조 ▪ 가치존중적인 분위기 (아동을 대하는 온화함, 존중, 허용) ▪ 높고 알맞은 성과기준 ▪ 성과와 노력에 대한 긍정적 강화 ▪ 긍정적인 또래관계/ 긍정적인 교우관계 ▪ 기본능력 촉진(탄력성요인) ▪ 학부모 및 다른 사회 기관과의 협력

3. 거시체계: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 자원
▪ 가족 외에 신뢰를 촉진하고 안정성을 주며 긍정적인 역할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이를 돌보아줄 수 있는 어른 ▪ 지역사회단체 차원의 자원(가족지원, 상담소, 조기지원, 단체활동 등등) ▪ 좋은 일자리 및 직업 활동 가능성 ▪ 사회 안에 친사회적 역할모델, 규범, 가치의 존재

Zander(2009)에 의하면 보호요인들 사이에는 “위계화(Hierarchisierung)”(p.44)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아동발달에 있어서 보호요인 중 어떤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보호요인을 가진 아이들 중 탄력성이 큰 아이들은 적어도 한 명의 어른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Bengel et al., 2009). 비단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사나 친척어른 등과 온화한 정서적인 관계를 가진 아이들은 그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 및 극복행동방식은 위험요인에 대항하는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Scheithauer & Petermann, 1999).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추측하고 평가하는지는 단순히 보호요인들의 양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의 영향인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발달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아니라 복잡한 영향력의 기제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Zander, 2009). 그러므로 아동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성과 탄력성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요인들이 발현할 수 있는 시기인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강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위험성에서 같이 작용하는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회복능력과 탄력성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과 자원들은 보호요인, 위험요인들의 수와 종류, 개인특성 및 주위환경 특성 등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파악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약성과

탄력성은 항시적인 개인특성이 아니라 일상의 요구들과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etermann & Schmidt, 2006; Ball & Peters, 2007 재인용).

2. 다문화청소년

김경수(2015)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함께 산다는 것”(p.7)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차이에서부터 정체성 형성의 문제까지 다문화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지연과 그레이스 정(2016)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불어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오히려 더욱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김정민 외(2015)는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단일 문화 가족 청소년에 비해 자살 충동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고, 우울증은 자살시도의 가장 큰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임소연과 박민희(2014)는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서 약물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유지희와 황숙연(201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여학생일수록, 행복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흡연을 할수록,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하다고 하였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교를 통해 아동의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했던 윤경희(201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은 사회성 중 아동의 역량이 낮고 문제행동은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비교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다문화적, 이중문화적 요인들이 야기하는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결핍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로 이덕희(2010)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환경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위축, 우울, 불안, 비행 등의 성향이 낮아짐을 밝히면서 개인, 가정,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기제사용을 위한 환경구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김미숙(2012)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응도가 낮지 않음을 지적한다. 단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발달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경제적인 계층의 문제이므로 일반아동과 차별 없는 사회적 지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차별에 근거해서 결핍을 보상하고 부정적인 면을 제거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취약한 부분들을 아동·청소년의 발달상의 문제들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선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윤경희, 양문승,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송순택,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김정숙,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의 매개효과(한성희, 2015),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인터넷게임중독 간의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김민경, 2016), 부부갈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서은경, 2013; 서보준, 2017)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중에서 Uslucan(2011)은 탄력성요인은 위험부담을 가진 아동들의 심리적 저항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회 속에서 다문화경험, 이중문화적 상황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위험한 환경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사춘기 시기의 일반적 발달과제들과 더불어 다문화적 환경 혹은 이중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 과제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 정체성, 이중 정체성 및 자아발달, 국적 소속감에 대한 질문들에 고민해야하고, 부모의 민족적 정체성의 영향 아래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잡아 나가야하는 과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본적 자원과 조건들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적지 않고, 그 요인으로서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저항력을 보여주는 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탄력성과 결핍의 관계와 관련해서 환경적 요인뿐 만 아니라 개인요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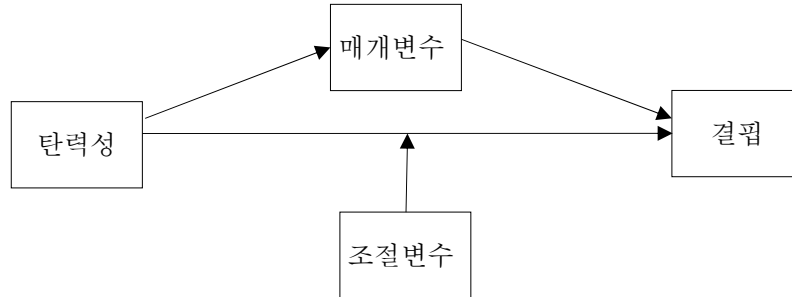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MAPS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걸쳐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이다. 조사영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배경특성, 학교생활영역, 심리사회적응영역, 신체발달영역, 부모자녀관계영역, 정책지원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5차년도 초 4 패널로 2015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 1,349명이 설문(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 응답한 결과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나,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이기에 결과적으로 MAPS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세워진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본다.

→ **가설 1.**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은 결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목적 2. 의미 있는 보호요인들이 야기하는 완충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 **가설 2.** 다양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3. 주요변수/분석 변수의 정의

2015년 MAPS 학생용설문지 내용을 재구성하여 분석변수들을 정리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탄력성이론에 입각하여 개인특성과 환경적 특성, 다문화특성 중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생각과 평가를 중심으로 탄력성의 하위구성요인을 정리하였고, 결핍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이 처해있는 다문화특성, 환경적 특성, 개인적 취약성 등 다방면에서 결핍에 해당하는 요인을 위험조건으로 구분하였다.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은 다문화적, 환경적 조건은 매개요인으로 다문화특성, 환경적 특성, 개인특성, 성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청소년 본인과 직접 관계된 질문문항들은 조절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 독립변수: 탄력성

영역		해당문항	내용
개인특성	인지	16	성취동기
		17	어른이 되어서 갖고 싶은 직업
		18	희망 학력수준
		39	자기인식
		31	성적에 대한 만족도
	신체	20	신체만족도
	사회 · 정서 · 행동	19	자아존중감
		40	삶의 만족도
	진로	52	진로의식
환경적 특성	학교생활	36	학습활동(적응)
	친구	37	교우관계(적응)
	학교생활	38	교사와의 관계(적응)
	부모와의 관계	41	부모의 양육태도
	지역사회지지망	42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2) 종속변수: 결핍

영역		해당문항	내용
다문화 특성	언어능력	1	부모의 외국인 여부
		2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3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4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5	본인 한국어 실력
	이중문화경험	21	문화적응 스트레스
환경적 특성	학교생활	13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15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친구	24	집단괴로움 피해경험
	부모와의 관계	29	아빠에 대한 생각(부정)
		29-1	엄마에 대한 생각(부정)
	친구	57	비행친구와의 접촉
개인 특성	사회 · 정서 · 행동	43	우울
		44	사회적 위축
		51	비행경험
		54	학업중단 위험요인

3) 매개변수

영역		해당문항	내용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25	가족의 지지
		26	부모의 교육적 지원 · 기대
	학교생활	32	교사의 지지
	친구	33	친구의 지지
		12	친구의 수
	학교생활	34, 34-1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다문화 특성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46, 46-1, -2, -3, -4, -5,	다문화가족관련 지원경험: 지원의 중복 여부, 지원내용, 지원의 적정성,
		47, 47-1	특별지원의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48	선호하는 지원방식

4) 조절변수

영역		해당문항	내용
다문화 특성	언어능력	6, 6-1	사용가능한 외국어
		7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이중 문화경험	8	국적에 대한 인식
		9, 9-1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10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방문경험여부
		11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22	국가정체성
		23	이중문화수용태도
		45	다문화수용성
	부모와의 관계	27	부모에 대한 생각
		28	부모에 대한 생각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49, 49-1	다문화가족 공개 여부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50	향후 지원요구내용
개인 특성	신체	14	건강상태
	인지	30	학교성적
	진로	53	진로의논
환경적 특성	방과 후 활동	55	학습활동
		56	예체능 활동
응답자 성별			남성, 여성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벌점회귀모형인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를 이용하여, MAPS가 제공하는 다량의 변인들 중, 다문화청소년의 결핍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사용된 변인들은 연구모형에서 구분한 독립변수 14개, 매개변수 10개, 조절변수 17개들이다. 종속변수의 대상으로 선정한 총 16개의 문항 중, 문항1번인 부모의 외국인 여부와 같이 응답이 특정 답변으로 몰린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97%)나 문항2-1과 같이 외국인 출신 아버지의 한국어 실력과 같이 대상자 자체가 적은 경우 (47사례), 그리고 문항자체가 중복응답이거나 척도형과 범주형이 섞여있는 문항들을 제외하고 11개의 종속변수들에 대하여 lasso 분석을 진행하였다. Lasso 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종속변수들과 선택된 11개의 독립변수들이 모두 값이 있는 사례들(N=1,348)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 문항2-2와 문항29-1의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답한 경우는 1,229사례가 사용되었다. Lasso 분석은, 축소추정 기준에 따라 회귀식에서 변수가 제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lasso 경로도표와, 이러한 변수선정과정을 보다 정확하게하기 위하여 교차확인(cross validation)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도표의 결과물을 얻는다. 특히 교차확인에서 변수선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결정하고, 그 수치보다 작은 회귀계수들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외하는 과정이 lasso 분석의 목표이다. 이렇게 선택된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있는지, 각각 3단계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Baron & Kenny, 1986). 매개 효과는

- 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3)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3번의 회귀분석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며, 조절효과는
 -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3)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함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역시 3번의 회귀분석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회귀분석을 포함한 통계분석은 R 프로그램 언어 (R 3.4.1)를 이용하였고, 특히 lasso 분석은 glmnet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Lasso 분석결과

1) 독립/매개/조절변수 선택

Lasso 분석은 총 11개의 종속변수별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인 선택된 독립/매개/조절변수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Lasso 분석을 통해 선택된 독립/매개/조절변수

종속→	외국인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본인의 한국어 실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중단 위험요인
N→	1,229	1,348	1,348	1,348	1,348	1,348
독립	4	1	6	8	7	5
장래희망직업			0			0
희망학력수준						0
자아존중감	0	0	0	0	0	
신체만족도			0	0		
성적만족도						0
학습활동				0	0	0
교우관계	0		0	0	0	
교사와의 관계	0					
자기인식					0	
삶의 만족도			0	0	0	
부모의 양육태도			0	0		0
거주지역인식				0	0	
진로의식	0			0	0	
매개	3	1	2	1	1	5
가족지지						0
부모의 교육적 지원 · 기대	0					
친구지지	0	0	0	0	0	0
친구 수	0		0			0
학교 내 지지어른						0
특별지원요구						0
조절	5	1	0	2	1	4
부모 출신국 방문						0
부모 출신국 관심						0

종속→	외국인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본인의 한국어 실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중단 위험요인
건강상태	0			0		
부에대한 생각						0
모에 대한 생각	0				0	
학교성적		0				
다문화수용성	0					
다문화공개	0					
지원요구						0
진로 의논대상	0					
성별				0		

각 종속변수별로 얻어진 lasso 경로도표와 교차확인 도표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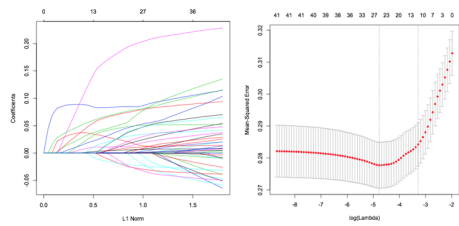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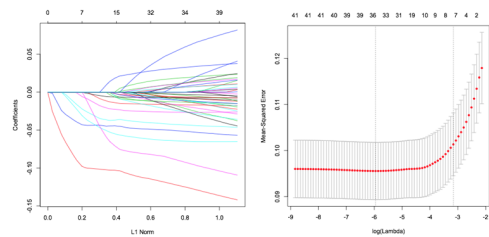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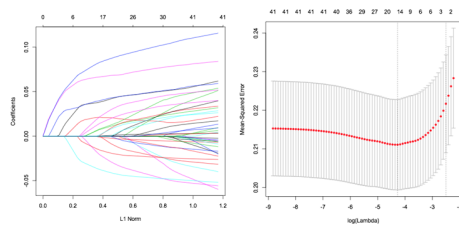


그림 3. 본인의 한국어 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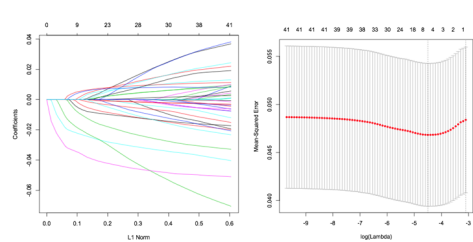


그림 4.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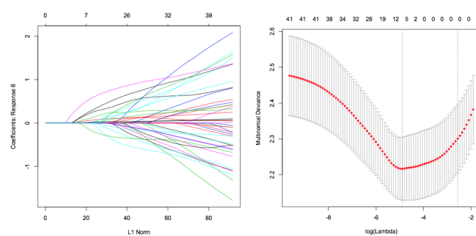


그림 5.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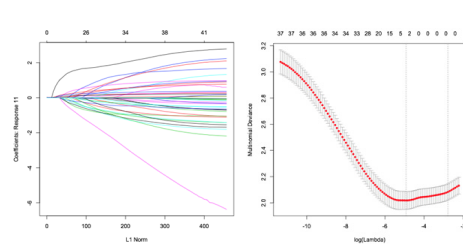


그림 6. 엄마에 대한 부정적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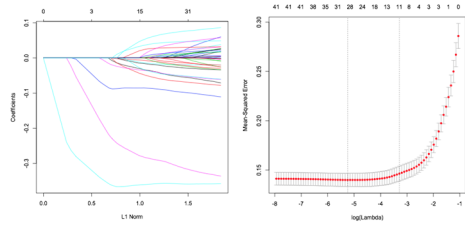


그림 7.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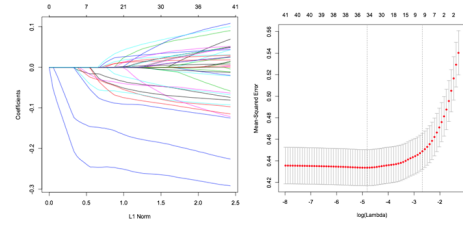


그림 8. 사회적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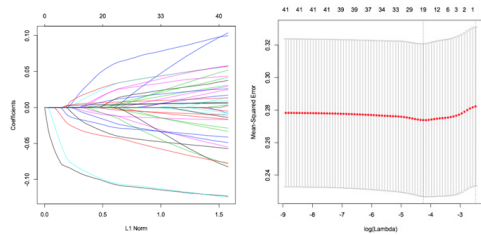


그림 9. 비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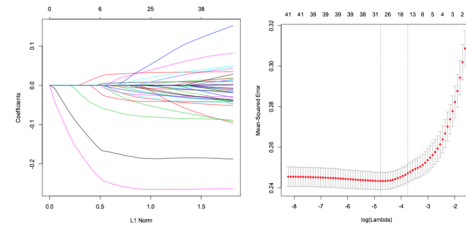


그림 10. 학업중단 위험요인(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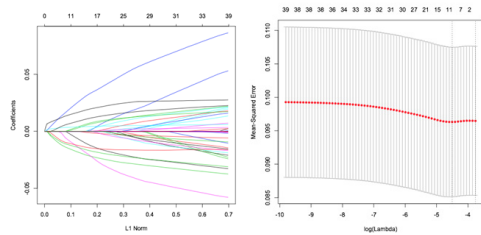


그림 11. 학업중단 위험요인(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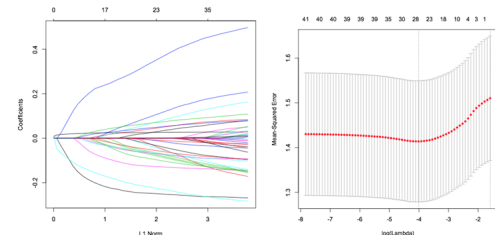


그림 12. 비행친구와의 접촉

종속변수 중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엄마에 대한 부정적 생각, 비행경험,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 선택된 변수가 하나도 없었다.

종속변수에 따라 독립변수를 정리하면 ①모의 한국어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진로 의논대상이었고, ②본인의 한국어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자아존중감이 있었다. ③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장래희망직업,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④우울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거주지역 인식, 진로 의논상대 등의 가장 많은 독립변수와 관계가 있었다. ⑤사회적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자아존중감, 학습활동, 교우관계, 자기인식, 삶의 만족도, 거주지역인식, 진로 의논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⑥학업중단과 관계된 독립변수로는 장래희망직업, 장래희망학력, 학습활동, 부모의 양육태도, 성적만족도였다.

2) 매개효과 분석

Lasso 분석을 통해 선택된 6개의 종속변수 별로, 매개 변수 하나씩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 효과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친구의 지지, 친구의 수, 가족의 지지,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등의

변수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친구의 지지는

- i)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본인의 한국어실력에 영향을 미칠 때,
- ii) 장래희망직업,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의 독립변수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 iii)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변수로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본인의 한국어 실력/친구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	Sig
1단계 독립->매개1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R2=.271 F=500.436 p=.000	.730	22.370	.000
2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본인한국어실력 R2=.046 F=64.564 p=.000	.192	8.035	.000
3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본인한국어실력 R2=.064 F=45.900 p=.000	.119	4.268	.000
3단계 매개1 -> 종속	친구지지		.101	5.102	.000

*: 범주형 변수는 F값, 연속형 변수는 t값

표 2-2. 문화적응스트레스/친구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	Sig
1단계 독립->매개1 (친구지지)	희망직업	친구지지 R2=.460 F=103.500 p=.000	범주형 변수	3.866	.001
	자아존중감		.278	6.886	.000
	교우관계		.765	15.927	.000
	삶의 만족도		.182	5.829	.000
2단계 독립->종속	희망직업	문화적응 스트레스 R2=.187 F=27.876 p=.000	범주형 변수	4.433	.000
	자아존중감		-.057	-2.487	.013
	교우관계		-.142	-5.213	.000
	삶의 만족도		-.053	-3.009	.003
3단계 독립->종속	희망직업	문화적응 스트레스 R2=.189 F=25.975 p=.000	범주형 변수	4.604	.000
	자아존중감		-.048	-2.063	.039
	교우관계		-.117	-3.956	.000
	삶의 만족도		-.047	-2.648	.008
3단계 매개1 -> 종속	친구지지		-.032	-2.076	.038

표 2-3. 우울/친구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t	Sig
1단계 독립->매개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R2=.453 F=138.802 p=.000	.264	6.311	.000
	삶의 만족도		.172	5.403	.000
2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우울 R2=.504 F=169.988 p=.000	-.095	-3.315	.001
	삶의 만족도		-.387	-17.803	.000
3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우울 R2=.506 F=152.072 p=.000	-.084	-2.897	.004
	삶의 만족도		-.380	-17.315	.000
3단계 매개 -> 종속	친구지지		-.041	-2.201	.028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이 본인의 한국어실력에 영향을 미칠 때 지지하는 매개효과를, 장래희망 직업,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매개요인으로 보호요인들을 지지하고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② 친구의 수는

- i)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부모양육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 ii)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과 관계가 있을 때 매개요인으로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3-1. 문화적응스트레스/친구의 수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Sig
1단계 독립->매개2 (친구수)	자아존중감	친구수 R2=.069 F=9.011 p=.000	1.039	2.896	.004
	교우관계		2.005	4.696	.000
	삶의 만족도		.283	1.018	.309
2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R2=.187 F=27.876 p=.000	-.057	-2.487	.013
	교우관계		-.142	-5.213	.000
	삶의 만족도		-.053	-3.009	.003
3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R2=.201 F=27.916 p=.000	-.048	-2.119	.034
	교우관계		-.125	-4.599	.000
	삶의 만족도		-.051	-2.898	.004
3단계 매개1 -> 종속	친구수		-.008	-4.822	.000

표 3-2.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친구의 수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Sig
1단계 독립->매개2 (친구수)	자아존중감	친구수 R2=.057 F=20.256 p=.000	1.351	4.403	.000
	교사관계		-.584	-2.504	.040
2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모한국어실력 R2=.084 F=29.831 p=.000	.150	4.411	.000
	교사관계		.083	2.632	.009
3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모한국어실력 R2=.090 F=25.576 p=.000	.139	4.073	.000
	교사관계		.088	2.791	.005
3단계 매개1 -> 종속	친구수		.009	2.814	.005

친구의 수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의 부호가 다르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 수의 매개효과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교사의 관계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미칠 때 친구의 수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③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는 자아존중감, 교사와의 관계가 종속변수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표 4-1.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Sig
1단계 독립->매개2 (부모의 교육지원기대)	자아존중감	부모교육지원 R2=.347 F=178.514 p=.000	.273	10.448	.000
	교사관계		.178	7.370	.000
2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모한국어실력 R2=.084 F=29.831 p=.000	.150	4.411	.000
	교사관계		.083	2.632	.009
3단계 독립->종속	자아존중감	모한국어실력	.131	3.706	.000
	교사관계		.070	2.169	.030
3단계 매개1 -> 종속	부모의 교육 지원기대	R2=.087 F=24.731 p=.000	.072	2.012	.044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와의 관계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모의 교육적 지

원·기대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지지하고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다문화청소년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가족의 지지**의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인 학습활동, 부모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났다.

표 5. 학업중단/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B	F / t	Sig
1단계 독립→매개1 (가족지지)	학습활동	가족지지 R2=.367 F=59.527 p=.000	.220	7.999	.000
	부모양육태도		.677	19.213	.000
2단계 독립→종속	학습활동	학업중단 R2=.201 F=25.828 p=.000	-.204	-6.495	.000
	부모양육태도		-.378	-9.424	.000
3단계 독립→종속	학습활동	학업중단 R2=.208 F=25.073 p=.000	-.180	-5.618	.000
	부모양육태도		-.304	-6.737	.000
3단계 매개1 → 종속	가족지지		-.109	-3.520	.000

가족의 지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에 지지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가족의 지지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보호요인인 학습활동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절효과 분석

Lasso 분석을 통해 선택된 6개의 종속변수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조합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3의 F변화량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때,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의 영향에 조절변수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본인의 한국어 실력에서는 조절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절효과를 가진 변수로는 건강상태, 학교성적, 진로논의대상 등이었다.

① **건강상태**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조절요인으로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에 대응하는 보호요인과 직접적인 조절효과를 보였다.

표 6-1. 우울/학습활동/건강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405	.164	-	264.578	.000
독립, 조절 → 종속	.457	.209	.045	75.657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종속	.460	.211	.003	4.536	.003

표 6-2. 우울/교우관계/건강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449	.202	-	339.878	.000
독립, 조절 → 종속	.485	.235	.033	58.541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종속	.489	.240	.005	8.273	.004

② **학교성적**은 조절변수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성적수준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보호요인들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7-1. 사회적 위축/학습활동/학교성적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300	.090	-	133.253	.000
독립, 조절 → 종속	.319	.102	.012	17.379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종속	.331	.109	.008	11.741	.001

표 7-2. 사회적 위축/교우관계/학교성적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317	.101	-	150.477	.000
독립, 조절 → 종속	.360	.130	.029	45.020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종속	.366	.134	.004	6.435	.011

③ **진로 논의대상**은 장래희망직업과 장래희망학력이 종속변수인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논의대상은 장래희망직업과 장래희망학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중단요인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표 8-1. 학업중단/장래희망직업/진로 논의대상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036	-	8.226	.000
독립, 조절 → 종속		.109	.077	22.003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 종속		.145	.036	2.045	.001

표 8-2. 학업중단/장래희망학력/진로 논의대상의 조절효과

모형	R	R ²	R ² 변화량	F 변화량	Sig
독립 → 종속		.030	-	10.302	.000
독립, 조절 → 종속		.105	.075	22.556	.000
독립, 조절, 독립x조절 → 종속		.121	.016	1.786	.04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환경에 적절한 자원 및 지원의 결핍에 대항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보호요인들이 미치는 완충효과를 밝히고자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의 보호요인들이 개인적 특성 영역 뿐 만이 아니라 환경적 특성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탄력성이론을 배경으로 구성되었던 14개의 독립변수 중 성취동기를 제외한 장래희망직업, 장래희망학력, 자기인식, 성적만족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진로의논,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등 모든 변수들이 종속변수들과 관계가 있었다. 이는 개관적으로 다소 열악한 환경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라도 그 자체로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홍은숙, 2006;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황여정, 김경근, 2011; 한성희 2015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 자체를 문제와 결핍의 존재로 보고 그것을 보상하고 제거하려는 편협한 개입이 아니라, 역경일 수 있는 문제와 결핍에 저항하고 극복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핍과 관련된 11개의 종속변수 중 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다문화특성영역에서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본인의 한국어 실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특성 영역에 해당하는 우울, 사회적 위축, 학업중단 등이 위험요인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특성으로 분류된 변수인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공부의 어려움, 집단 괴롭힘의 경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생각,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에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에 중심을 둔 보호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거시체제에 해당하는 사회·환경요인과 탄력성의 관계를 더 자세히 연구해야하는 할 필요성이 보여 진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탄력성을 기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적 지원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가족 외에 다문화청소년에게 신뢰를 촉진하고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모델 및 친사회적 역할모델, 지역사회단체 차원의 자원(가족지원, 상담소, 조기지원, 단체활동 등), 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러한 것이 다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청소년에 대한 사회·환경적 위험요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각 계 각 층의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신속하게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비스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한성희(2015)가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 근거한 무조건적 지원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양성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이 사회와 분리되어 특별집단으로 취급되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한성희 2015 재인용). 따라서 사회·환경적 자원과 지원의 결핍이 다문화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비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보편적인 문제인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을 보호·강화하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낮추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는 각 각 환경적 특성영역과 개인적 특성 영역에서 검증되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으로서 가족의 지지,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친구의지지, 친구의 수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보호요인들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강, 성적, 진로 등은 청소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유의미한 조절요인들이 개인기질,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호요인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개인의 상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족의 지지, 부모의 교육적 지원·기대, 친구의지지, 친구의 수는 그 효과가 다양하게 검증되었다(한혜성, 2012; 최인숙, 2012; 서은경, 2013; 윤은영, 2016; 서보준, 2017). 그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들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 분석을 통해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로서 건강, 성적, 진로의논대상 등 개인적 특성들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라 하겠다. 그러나 탄력성의 구체적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탄력성을 보호하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매개 및 조절변수들의 구체적인 척도들에 대한 검증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이론에 의하면 탄력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습득되어지고 강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을 보호하는 요인들과 그들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탐색하고 검증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그들의

긍정적 발달을 지지하고 위기와 고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다문화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있지는 않지만 점차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탄력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강화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내적자원으로서 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해 다루고 있었고,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접근과 유의미한 보호요인의 효과를 다방면에서 살펴 본 본 연구가 가진 의의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강점관점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탄력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빠른 회복력과 자아를 통제하고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탄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근거로 결핍과 부족함에 치중된 지원만이 아니라 다문화 출신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그들 스스로가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질적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신뢰성,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종단적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탄력성의 변화와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개발 및 강화의 적절한 시점 및 보호요인의 위계화를 검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탄력성 보호요인의 개발과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6.4.13.). 혼혈아 문제 인권위 주요과제로 선정. [http:// v.media.daum.net/v/20060413151408088?f=o](http://v.media.daum.net/v/20060413151408088?f=o)에서 2017년 7월 9일 인출.
- 국민일보. (2006.5.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강화. <http://v.media.daum.net/v/20060501102511489?f=o>에서 2017년 7월 7일 인출.
- 김경수.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4, 1-8.
- 김민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 김정민 외. (2015). 다문화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 김정숙.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보준.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은경. (2013). **다문화가정 부부갈등과 자녀 사회적응의 관계: 사회적지지와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순택.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윤경희. (2014).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3(4), 431-450.
- 윤경희, 양문승.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경험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313-338.
- 윤은영.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3), 336-362.
- 임소연, 박민희. (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한국자료분석학회**, 16(3), 1641-1651.
- 중앙일보. (2017.5.13.). [김진국이 만난 사람] 외국서 이주한 아이들, 편견 속 발을 땅에 못 대고 붕 떠 있어. <http://news.joins.com/article/21568150> 에서 2017년 7월 9일 인출.
-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2017. 7.3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1M9UY5_kND0a451812256rk&srch_ctgry_idx=CTIDX00122&menu_nix=1s818PiV에서 2017년 7월 31일 인출.
-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행정자치부. (2015). **통계로 본 행정자치 1년의 변화**.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46592에서 2017년 7월7일 인출.
- 행정자치부. (2016).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총인구 대비 3.4%**. 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56680에서 2017년 7월 7일 인출.
- LAWnB. (2017.3.21.).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8E9D321D94C45EDBE9421BE1A36280E|J2|K에서 2017년 7월 7일 인출.
- the Leader. (2016.2.17.). **"다문화지원 마음으로 시작" [법의사각지대. 그곳에도 희망을]** 다문화센터의 진화.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021710157873624&sec=L0501&page>

=1에서 2017년 7월 7일 인출.

- Ball, J., Peters, S. (2007). Stressbezogene Risiko- und Schutzfaktoren. In I. Seiffge-Krenke, & A. Lohaus (Eds.), *Stress und Stressbewältigung im Kindes- und Jugendalter*(126-143). Göttingen: Hogrefe.
-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gel, J., Meinders-Lücking, F., Rottmann, N. (2009). Schutzfaktore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Stand der Forschung zu psychosozialen Schutzfaktoren für Gesundheit. *Forschung und Praxis der Gesundheitsförderung* 35. Köln: BZgA.
- Griebel, W., Niesel, R. (2004). *Transitionen. Fähigkeit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fördern, Veränderungen erfolgreich zu bewältigen*. Weinheim/Basel: Beltz.
- Holtmann, M., & Schmidt, M. (2004). Resilienz im Kindes- und Jugendalter. *Kindheit und Entwicklung* 13(14), 195-200.
- Laucht, M., Schmidt & M.H., Esser, G. (2000). Risiko- und Schutzfaktoren in der Entwickl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Frühförderung interdisziplinär* 19, 97-108.
-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sten, A. S. (2001). Resilienz in der Entwicklung. Wunder des Alltags. In G. Röper, C. Hagen, & G. Noam (Eds.): *Entwicklung und Risiko. Perspektiven einer klinischen Entwicklungspsychologie* (192-219). Stuttgart: Kohlhammer.
- Petermann, F., Niebank, K., & Scheithauer, H. (2004). *Entwicklungswissenschaft. Entwicklungspsychologie-Genetik-Neuropsychologie*. Berlin/Heidelberg: Springer.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181-2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2000). Resilience reconsidered: Conceptual considerations, empirical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In J.P. Shonkoff & S.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651-68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ithauer, H., Petermann, F. (1999). Zur Wirkungsweise von Risiko- und Schutzfaktoren in der Entwickl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Kindheit und Entwicklung* 8(1), 3-14.
- Uslucan, H.-H. (2011). Resilienzpotenziale bei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M. Zander (Ed.), *Handbuch Resilienzförderung* (555-574). Wiesbaden: VS-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Wustmann, C. (2004): *Resilienz. Widerstandsfähigkeit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fördern*. Weinheim: Beltz.
- Zander, M. (2009). *Armes Kind-starkes Kind? Die Chance der Resilienz*.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제 ⑤ 주제

심리사회적응 Ⅱ

1.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3.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사회적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원영* · 김정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Survey)"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AMOS 18.0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우울, 사회적위축,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남녀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남녀 성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모두 우울과 사회적위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 학생은 학교피해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각 변인의 관계에 대한 남녀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우울이 사회적위축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예방과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폭력, 우울, 사회적위축

I.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 및 이주가 양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체류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181만 명에 비해 10.0% 증가하였고, 2005년 75만 명에 비하면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5,102건에서 2005년엔 최고치인 42,3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2015년에는 21,27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결혼은 꾸준히 이루어져 다문화가정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러한 현상으로 다문화 학생 수 역시 급증하여 2014년에는 최초로 전체학생 대비 1%를 초과하였고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12.1만 명으로, 향후 초·중등 교육에 진입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sikim@knu.ac.kr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무부, 2016).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비해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의 우리사회 적응과 지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다문화청소년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이라 정의할 수 있다(정진환·이창식, 2011). 우리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인 다문화청소년은 언어적 문제, 외모 차이로 인한 소외감, 이중경험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제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하며 우울과 같은 부적응 현상을 높이고 사회적위축이라는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Khanlou, Koh & Mill, 2008; 김희자, 2008). 또한 이러한 관계적 어려움은 집단따돌림, 폭력피해와 같은 학교폭력피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상철, 2012).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장양식, 2009; 오세연·김학범, 2013).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놀림 받을까봐’ 학교 입학이 두려우며, 특히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10명 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이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교폭력피해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적절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부적응과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전재일·신효선, 2008; 은선경, 2010; 장덕화·신효선, 2010; 임선모, 2012; 천호성·박계숙, 2012; 전수정·윤혜미, 2013).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지지와 학교환경에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이영주, 2009; 전재일·신효선, 2008; 천호성·박계숙, 2012) 이것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소외와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문제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우리사회 적응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 비행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와 환경을 통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적응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응은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내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은 향후 한국에 대한 반감, 한국 사회 내 부적응문제 등을 가져와 이것이 비행과 범죄 및 그 잠재성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Gibbs, 1987).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이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재엽·장용언·민지아, 2011). 이처럼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와 그로 인한 비행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나 국내에 거주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연구 대부분 사회적응과 교육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학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남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위축,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차이는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과 학교폭력피해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유형은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갈등이 심할수록, 친구애착이 약할수록, 친구의 비행성향이 강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은 괴롭힘이나 따돌림 피해를 더 당한다(김양현, 2012),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아동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피해 경험 많으며, 중고등학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무단외박, 가출,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 음란물 보기 등 일탈행동에서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이 일반가정 중고등학생보다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2012).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사회관 등 청소년으로서의 지위와 가치관형성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 할 수 있는 사회화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할 수 있다(제미영, 2014).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아동기 때의 놀이친구가 아닌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아동기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문은식, 2002). 또한 학교 중심의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되며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기이므로 친구에게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즉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장양식, 2009; 오세연·김학범, 2013).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응 상황을 경험한다.

외국인 부모로 인하여 일반 학생들과는 외모 차이(이봉민, 2012; 김현식, 김두섭, 2014), 유·아동기부터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언어 능력 발달의 저하(이현주·강현아, 2011), 이중 문화로 인하

여 한국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남윤주, 2009; 양계민·조혜영,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적 문제 증상과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오승환, 2016).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심리적 불균형이 성인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김재엽·장용언·민지아, 2011).

2. 사회적지지, 우울, 사회적위축과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다문화가정 배경으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다. 다문화가정 혹은 이중인종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불안정하고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Shackford, 1984).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이라는 용어에는 ‘명확히 구분한다’와 ‘차이를 형성하는 능력’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이 본래 평등해야 할 것까지 불평등하게 취급하게 될 때 부정적 의미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범주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하는 특징을 지닌다(Wasserman, 1998). 또한 차별은 생물학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관념이나 상징과 같은 광범위한 고정관념(stereotyping)에서 작동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외모차이, 언어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인들의 자국문화 고집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별대상으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 이웃, 선생님, 친척 순이었다. 이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는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거나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등 소극적 대처가 주를 이룬다(김석준, 2015).

다문화가정자녀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우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혜마·원서진·최선화, 2011).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은 고학년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하성·우룡, 2007). 차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마·원서진·최선화, 2011).

이와 같은 소수민족의 차별경험은 성인보다 또래에 의한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며(Green, et al., 2006),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가져오며 이것은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자신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대처방법(Gibbs, 1987)을 선택하게 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서도 적절한 사회관계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대처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청소년기의 적절한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지지는 학교부적응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다(박영숙, 2009). 또한 어머니의지지,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Fuligni, 1997; Dickinson & Tabors, 2001; Phinney et al., 2001; Pong, Hao & Gardner, 2005; 전재일·신효선, 2008; 은선경, 2010; 장덕화·신효선, 2010; 임선모, 2012; 천호성·박계숙, 2012; 전수정·윤혜미, 2013). 이처럼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요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가 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적응을 위해서는 또래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김건숙·최은미·이호준, 2014),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김기덕·박민서,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위축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로써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부모지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AMOS 18.0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는 증분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non-normed fit index : TLI), 절대적합지수인(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검증하였다. TLI, CFI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값도 .06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서울경기가 434명으로 26.5%로 확인되었으며 대도시는 212명으로 16.1%로 확인되었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254명으로 15.6%로 나타났으며 모친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38명으로 3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 중 외국인 부모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45명으로 2.7%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1300명으로 79.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보면 일본이 459명으로 28%, 중국 342명으로 20.9%, 필리핀 345명으로 21.0%로 확인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내 용
성별	남=660명(40.3%), 여=688명(42.0%), 전체=1,639명
거주시도	서울·경기=434(26.5%), 대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212(16.1%) 기타지역=702(39.6%)
최종학력 (부친)	전문대졸 이상=254(15.6%), 고졸=663(40.5%), 중졸이하=370(22.5%)
(모친)	전문대졸 이상=638(38.9%), 고졸=574(30.0%), 중졸이하=136(8.3%)
외국인출신부모	아버지=45명(2.7%), 어머니=1300(79.3%), 두분다=3(0.2%)
부모출신국가 (부친)	한국=1240(75.7%), 동남아=40(2.6%), 기타=7(0.4%)
(모친)	한국=45(2.7%), 일본=459명(28.0%), 중국=342명(20.9%), 필리핀=345명(21.0%), 동남아=125명(7.6%), 기타=32(1.9%)

2. 변수 및 분석모형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세부 문항 내용은 ‘이번학기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이번학기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심한 집적거림/놀림을 당함’, ‘이번학기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함’, ‘이번학기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함’, ‘이번학기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됨’, ‘이번학기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놀림을 당함’으로 5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06$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부모지지의 세부 문항 내용은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심’,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심’,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라고 격려해 주심’,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움말을 많이 해 주심’,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6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을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10$ 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교사지지의 세부 문항 내용은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함’, ‘담임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심’, ‘담임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심’,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해 주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6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을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64$ 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친구지지의 세부 문항 내용은 ‘친구들은 나를 좋아함’, ‘친구들은 내 생각/말을 잘 들어줌’, ‘친구들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위로/격려해 줌’, ‘친구들과 나는 서로 잘 도와줌’,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음’,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함’,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줌’으로 7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을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친구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67$ 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의 세부 문항 내용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역코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요인 분석 결과 10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다섯 번째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07$ 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의 세부 문항 내용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 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역코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위축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903$ 로 나타났다.

앞서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부적응 요인을 낮추고 이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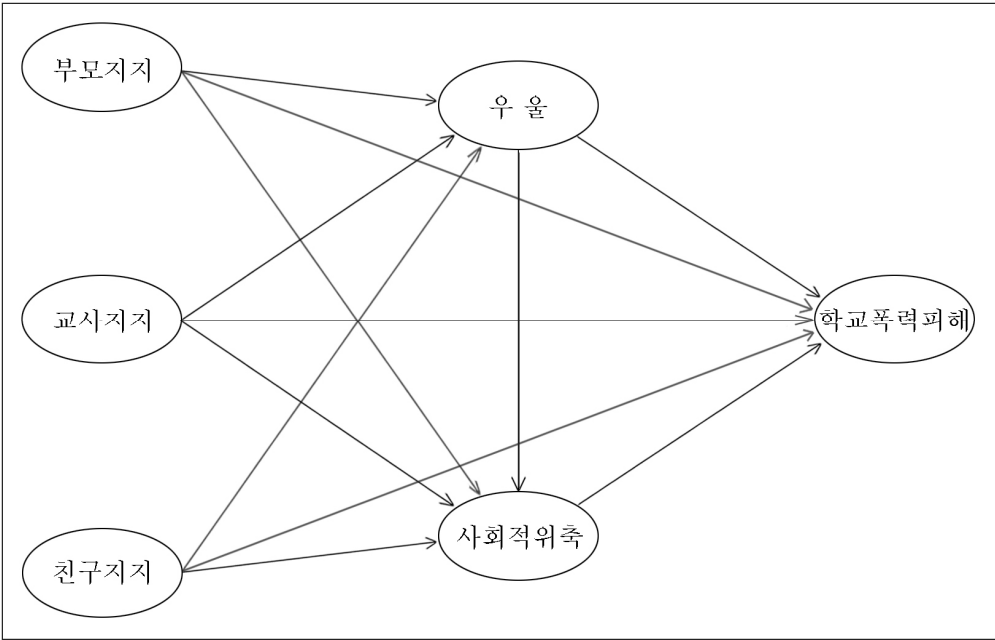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우울	사회적위축	학교폭력
부모지지	1					
교사지지	.429***	1				
친구지지	.406***	.546***	1			
우울	-.421***	-.345***	-.448***	1		
사회적위축	-.174***	-.223***	-.303***	.434***	1	
학교폭력	-.090***	-.070*	-.210***	.194***	.056*	1
N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최소값	5.17	4.17	6.14	6.14	4.20	5.17
최대값	20.67	20.83	30.71	24.57	16.80	20.67
평균	16.51	15.66	25.29	10.39	9.82	5.39
표준편차	2.72	3.56	4.58	3.48	3.08	1.17
왜도	-.230	-.289	-.590	.462	-.215	7.91
첨도	-.580	-.156	.078	-.340	-.514	74.65

* : $p < .05$ ** : $p < .01$ *** : $p < .001$

2. 구조방정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 CFI는 모두 .85이상이며 RMSEA값도 .06이하로 본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00).

표 3. 적합도

CMIN(df)	p	TLI	CFI	RMSEA
3256.67(515)	.000	.921	.931	.057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가 모두 $p < .0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표준오차)

측정변수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우울	사회적위축	학교폭력피해경험
부모지지1	1.000					
부모지지2	.873(0.028)***					
부모지지3	.987(0.030)***					
부모지지4	1.003(0.030)***					
부모지지5	.855(0.029)***					
부모지지6	1.082(0.030)***					
교사지지1		1.000				
교사지지2		.956(0.020)***				
교사지지3		.984(0.018)***				
교사지지4		1.022(0.017)***				
교사지지5		1.032(0.018)***				
교사지지6		.962(0.018)***				
친구지지1			1.000			
친구지지2			.982(0.019)***			
친구지지3			1.018(0.020)***			
친구지지4			1.026(0.019)***			
친구지지5			1.051(0.021)***			
친구지지6			1.048(0.019)***			
우울1				1.000		
우울2				1.040(0.043)***		
우울3				1.133(0.054)***		
우울4				1.111(0.046)***		
우울5				1.010(0.040)***		

측정변수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우울	사회적위축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6				1.159(0.047)***		
우울7				1.196(0.044)***		
위축1					1.000	
위축2					.910(0.033)***	
위축3					1.006(0.031)***	
위축4					.974(0.031)***	
위축5					1.051(0.031)***	
학폭피해1						1.000
학폭피해2						1.306(0.046)***
학폭피해3						1.344(0.043)***
학폭피해4						.788(0.031)***
학폭피해5						1.343(0.044)***
학폭피해6						.881(0.034)***

*** : $p < .001$

구조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모지지 → 우울, 부모지지 → 사회적위축, 교사지지 → 우울, 교사지지 → 사회적위축, 교사지지 → 학교폭력피해경험, 친구지지 → 우울, 친구지지 → 사회적위축, 친구지지 →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 → 사회적위축, 우울 → 학교폭력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높게 느끼는 학생은 모두 우울과 사회적위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으며,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높게 느끼는 학생은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지지는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위축도 학교폭력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C.R
부모지지 → 우울	-.289	-.319	.027	-10.876***
부모지지 → 사회적위축	.090	.066	.040	2.224*
부모지지 → 학교폭력	.008	.022	.012	.717
교사지지 → 우울	-.042	-.077	.015	-2.910**
교사지지 → 사회적위축	-.043	-.052	.022	-1.943*
교사지지 → 학교폭력	.022	.096	.006	3.439***
친구지지 → 우울	-.222	-.346	.018	-12.110***
친구지지 → 사회적위축	-.105	-.109	.028	-3.731***
친구지지 → 학교폭력	-.056	-.209	.008	-6.784***
우울 → 사회적위축	.599	.398	.053	11.213***
우울 → 학교폭력	.074	.180	.015	4.869***
사회적위축 → 학교폭력	-.016	-.057	.009	-1.751

*** : $p < .001$

〈표 6〉은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경로의 효과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 간접효과는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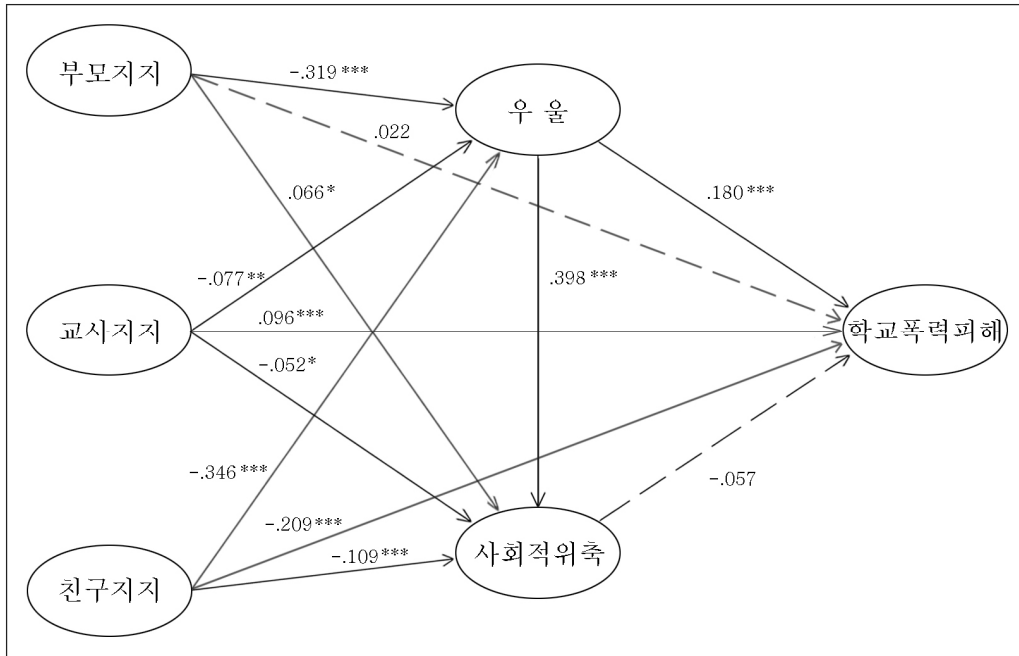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결과

표 6. 효과분해

추정 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부모 지지	-.289	-.379	-.289	-.319	-	-	→우울
	-.083	.061	.090	.066	-.173	-.127	→사회적 위축*
	-.012	-.032	.008	.022	-.020	-.054	→학교폭력피해
교사 지지	-.042	-.077	-.042	-.077	-	-	→우울
	-.069	-.083	-.043	-.052	-.025	-.031	→사회적 위축**
	.020	.087	.022	.096	-.002	-.009	→학교폭력피해***
친구 지지	-.222	-.346	-.222	-.346	-	-	→우울
	-.238	-.246	-.105	-.109	-.133	-.137	→사회적 위축**
	-.068	-.257	-.056	-.209	-.013	-.048	→학교폭력피해**
우울	.599	.398	.599	.398	-	-	→사회적 위축
	.065	.157	.074	.180	-.009	-.023	→학교폭력피해*
사회적위축	-.016	-.057	-.016	-.057	-	-	→학교폭력피해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경로임

* : $p < .05$ ** : $p < .01$ *** : $p < .001$

부모의 지지는 우울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고,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우울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차이에 대한 다집단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결과,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각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모형의 남녀 집단별 모수추정치 (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 모형)

모수	남자		여자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부모지지 → 우울	-.279***	-.308	-.280***	-.309
부모지지 → 사회적위축	.095	.066	.095	.073
부모지지 → 학교폭력	.003	-.006	.011	.034
교사지지 → 우울	.008	.014	-.073***	-.131
교사지지 → 사회적위축	.010	.012	-.092**	-.116
교사지지 → 학교폭력	.016	.065	.026***	.128
친구지지 → 우울	-.294***	-.452	-.179***	-.281
친구지지 → 사회적위축	-.117*	-.113	-.101**	-.111
친구지지 → 학교폭력	-.055***	-.190	-.050***	-.220
우울 → 사회적위축	.753***	.475	.445***	.311
우울 → 학교폭력	.029	.066	.106***	.295
사회적위축 → 학교폭력	.000	.001	-.028*	-.111

* : $p < .05$ ** : $p < .01$ *** : $p < .001$

모형 내 존재하는 1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12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남녀집단의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일성 제약을 모든 경로계수에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편 교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친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우울이 사회적위축에 미치는 경로와 우울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도 남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사지지 → 우울’의 경로에서 여학생은 교사지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 우울’의 경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친구지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 사회적위축’의 경로에서도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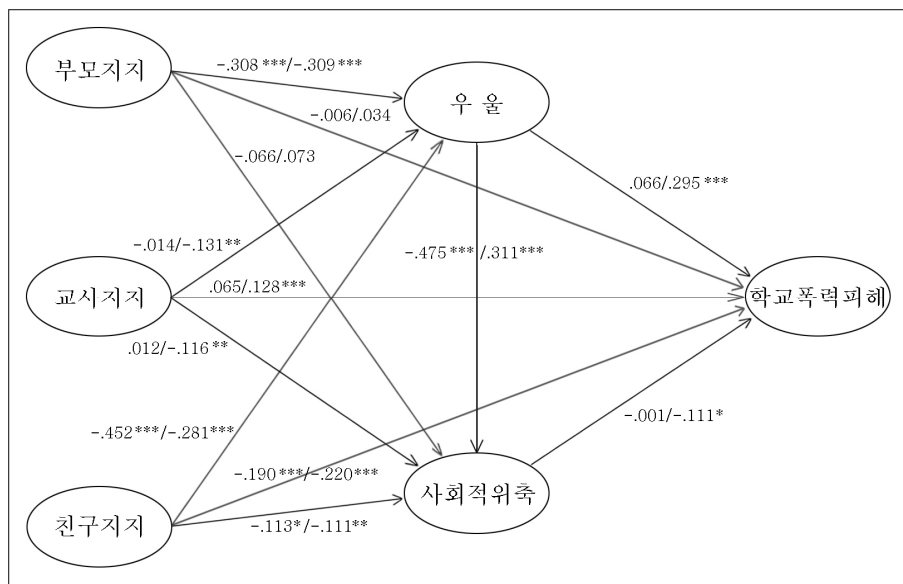
친구지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 학교폭력’의 경로에서 여학생은 우울이 학교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 친구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우울이 사회적위축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모형비교를 통한 남녀집단 간 차이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부모지지 → 우울	1	.000	0.000
부모지지 → 사회적위축	1	.116	0.000
부모지지 → 학교폭력	1	.000	0.000
교사지지 → 우울	1	4.974*	0.000
교사지지 → 사회적위축	1	.363	0.000
교사지지 → 학교폭력	1	3.338	0.000
친구지지 → 우울	1	7.654**	0.000
친구지지 → 사회적위축	1	.057	0.000
친구지지 → 학교폭력	1	.055	0.000
우울 → 사회적위축	1	9.756**	0.000
우울 → 학교폭력	1	6.299*	0.000
사회적위축 → 학교폭력	1	2.585	0.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2	31.329**	0.000

* : $p < .05$ ** : $p < .01$ *** : $p < .001$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수치는 표준화 계수이며 남/녀로 표기함.

그림 3. 남녀차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우울, 사회적위축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남녀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남녀 성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높게 느끼는 학생은 모두 우울과 사회적위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높게 느끼는 학생은 학교폭력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우울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며,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우울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변수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청소년의 ‘우리사회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소외감, 그리고 그로 인한 정체성혼란’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사회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유추할 수 있다(김석준, 2015). 우리사회의 낮은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형성해야 중요한 시기인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지지와 관련하여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빠르게 학교가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청소년들이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변화와 공존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사회 소수자로 사회적 적응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지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인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족한 정책적 지원과 대응 수준은 다문화구성원의 적응과 삶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청소년은 언어적 문제, 외모 차이로 인한 소외감, 이중경험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제 상황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하며 우울과 같은 부적응 현상을 높이며 사회적위축이라는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Khanlou, Koh & Mill, 2008; 김희자, 2008). 또한 이러한 관계적 어려움은 집단따돌림, 폭력피해와 같은 학교폭력피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상철, 2012).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구성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은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소외로 고통받고 낙오되지 않게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폭력피해 상황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신고센터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멘토를 통한 멘토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멘토링 지원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의 직접적 지원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우리사회 적응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멘토링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과 공동체의식 교육, 인권의식 교육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입시위주의 교육 즉, 인지적 영역만을 중요시하는 교육이 아닌 학교교육 안에서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수용성, 공동체의식, 인권의식과 같은 능력의 함양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문제에 있어 사회적지지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멘토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지지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방향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 소신과 방향에 대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교사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지지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역시 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교육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에서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 제시와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부모는 자녀의 발달특성과 발달과업 그리고 그들의 혼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혼란과 사회적 위축에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모교육을 우리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가 학교폭력피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하여 남녀차이를 확인한 결과 부모지지가 우울로 가는 경로, 교사지지가 우울로 가는 경로, 우울이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와 우울이 학교폭력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녀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사지지는 여학생의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남학생의 우울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친구의 지지는 남녀 모두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위축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에게 더 큰 영향정도가 확인되었으며, 우울이 학교폭력피해경험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여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정도가 확인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과정 중 심리적인 변수들이 남녀 간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녀 청소년의 발달과정 차이를 고려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 할 때 차이를 보인 경로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남녀 모든 집단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사회적지의 중요성

과 방향 모색에 있어 남녀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문제와 학교폭력피해경험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우리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에 응답자의 왜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학생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우울, 사회적위축의 수준만을 포함시켰을 뿐 가족의 특징이나 출생순서, 정신병력에 대한 가족력 등은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선정과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6년도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 통계청. 2016. “e-나라지표”. www.index.go.kr.
- 김건숙최은미이호준. 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2). 51-81.
- 김기덕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 김재엽·장용언·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현식·김두섭.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자살행위”. 『한국사회학』. 48(2). 35-66.
- 김혜마원사진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82.
- 박영숙. 2009.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3). 221-251.
- 양계만·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 오세연·김학범.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 71-95.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분석”.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 이봉민. 2012. “국내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회과학 교육연구』. 19(2). 19-31.
- 이영주.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 이현주·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전수정·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153-179.
- 전재일·신효선. 2008.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251-283.
- 장덕화·신효선. 2010. “연구논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정진환·이창식. 2011.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 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18, 73-99.
- 정하성·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호성·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 한상철.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239-258.
- Gibbs, J. T. 1987. “Identity and marginality: Issues in the treatment of biracial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265-278.
- Khanlou, N., Koh, J. G., & Mill, C. 2008. “Cultural identity and experience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Afghan and Iranian immigrant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6(4), 494-513.
- Shackford, S. R. 1984. “Crystalloid versus colloid in fluid resuscitation of patients with severe pulmonary insufficiency”. 『Surgery, gynecology & obstetrics』, 158(3), 207-21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이용택* · 이은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고, 부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시간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소년 및 부모 1,625명이었고, 남학생 799명, 여학생 824명, 어머니가 다문화인 경우 1,556명이었고, 아버지가 다문화인 경우는 69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결과로는 초4-6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서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시간효과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같은 시점(t) 뿐 아니라 이후 시점(t+)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무변화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 증진의 필요성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부모개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청소년 자아존중감, 부모 자아존중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5년도 다문화 가구의 수는 294,663에 이른다(정해숙 외, 2016).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다문화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학업부진 그리고 가족 간 의사소통 등의 개인적 문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배척과 거부와 사회적 문제까지 경험하고 있다(박은민, 2013). 그리고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한 따돌림, 놀림, 외모에 대한 욕설, 괴롭힘, 폭행과

*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eklea@mju.ac.kr

같은 학교폭력 피해경험들은 비행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윤경희, 2016). 즉,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나 비행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도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적응에 논의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립해가는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발달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긍정적 자기 인식은 삶의 안녕감(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진로정체감(유비, 김기현, 2015), 진로성숙도(김민경, 2014)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윤경희, 2016; 최효인, 2016). 그러나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지혜, 2012;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개인요인으로 차별경험과 생활만족, 가족요인으로 경제상태와 모의 인식, 학교요인으로 담임선생님관계 만족과 성적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김순규, 2012). 한편, 정서 불안, 정체성 혼란, 부모의 지시적 양육태도, 가족 갈등, 집단 따돌림, 학습부진과 같은 요인들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효인, 2016).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은 태어날 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가기 때문에(Shaffer, 2000), 부모-자녀의 관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다(Krug et al., 2016). 특히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은 또래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보다 가정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Hattie, 1992;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국내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관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상아, 백지숙, 2011; 최효식, 2017).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영향으로 기인된 것이라면 부모의 자아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자아개념이 안정적일 때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안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스스로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현경, 이승연, 2010 재인용).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과 그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고정된 상태이기 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시간적 변화를 간과한 한계가 있다. 비록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는 하나(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 2012; 정익중, 2007;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발달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시

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부모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있어 부모 자아존중감의 시간적 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발달적 양상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Rosenberg, 1979). 자기를 향해 긍정적인 평가를 지니고 있으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자기를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지니고 있으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를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손승민, 이유현, 2012; 한신애, 문수백, 2010; Emilie et al, 1999), 문제 혹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하리, 이영선, 2015). 그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내재된 문제행동은 감소(오영경, 이형실, 2010)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음주 및 흡연, 무단결석, 학교폭력 등과 같은 일탈행동도 줄어든다(이지숙, 2009).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청소년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병철과 송다영(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은 황당함, 소외감, 분노함 등의 억울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위축된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게 만드는 변인이라고 제안하였다. 박은민(2013)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자신감과 창피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경험한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친구 및 부모관계 개선, 학습에 대한 도움 뿐 아니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지숙 외(2014)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이 낮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하면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할 뿐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한국사회정착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변화가 초등학교 시기에

는 안정적이지만, 중학교의 입학과 사춘기의 시작으로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고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였다(정익중, 2007 재인용). 정익중(2007)과 홍세희 외(2006)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3차 년도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발달적 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송수지 외(2012)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자아개념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들은 중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고등학생 시기가 접어들면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입을 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한편,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선행연구들도 횡단적인 측면에서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은 다양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 형성하는 과정은 선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도 자신을 바라본다는 반영된 자아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얻어진 반응에 따라 스스로의 나를 피드백 받은 대로 평가할 뿐 아니라 자신이 타인을 평가함으로써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이론을 이야기한 로저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다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인간이 태어나 발달하는 초기 과정에서 부모-자녀의 애착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는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자신에 대한 지각뿐 아니라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서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남영옥(2016)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김현주와 홍상환(2015)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1년 이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지만 긍정적 양육태도는 1년 이후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장혜림과 정익중(2013)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정양육과 간섭양육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정양육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춘다고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역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황성동과 박은혜(2010)는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학교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상아와 백지숙(201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제재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온정성과 거부/제재 만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낮추지만 아버지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효식(2017) 또한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는 없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부모관계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으로 형성해 갈 뿐 아니라 안정된 자아존중감은 적응과도 높은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모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한다(고현경, 이승연, 2010).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김선희와 백송이(2015)의 연구 역시 이러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부모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시간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각 시점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다고 설정한 모형(시간독립효과모형)과 각 시점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설정한 모형(시간의존모형)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동시효과와 함께 지연효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동시 및 지연효과 모형으로 구분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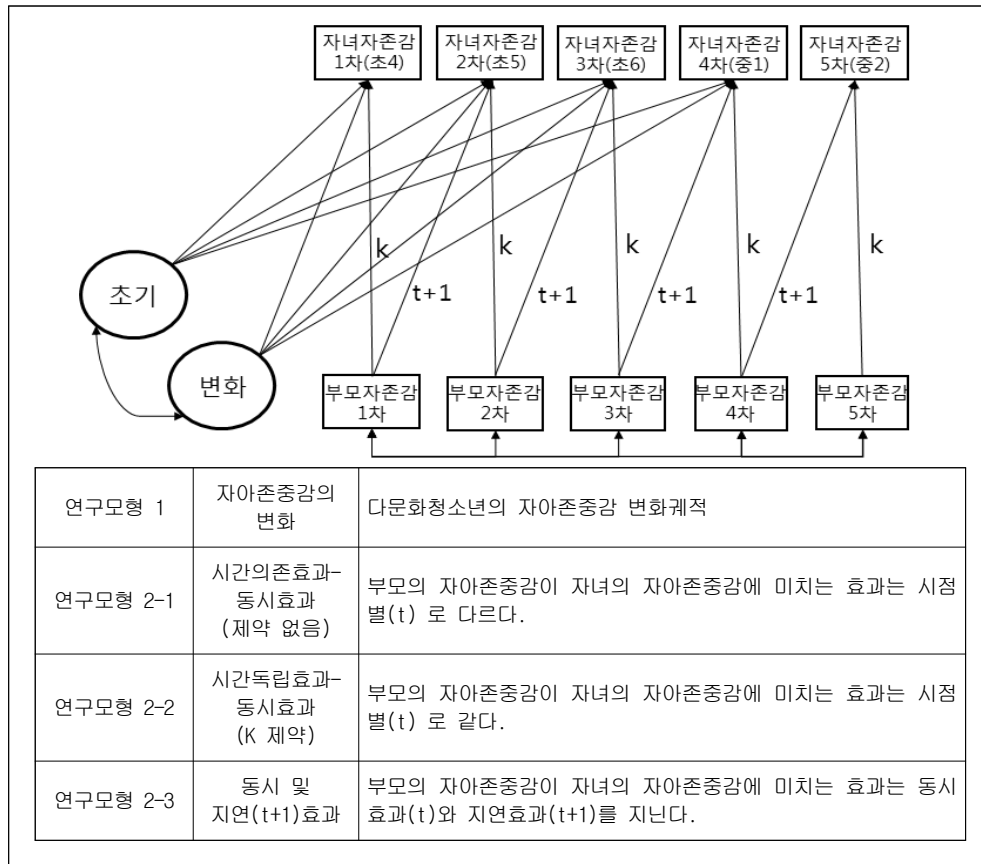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는 2011년을 기점으로 7년간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6차)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6차년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시기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 다문화 가족 1,625가구를 선정하여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은 1,635명, 학부모는 1,625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1,6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799명, 여학생 824명이었으며, 어머니가 다문화인 경우 1,556명이었고, 아버지가 다문화인 경우는 69명이었다.

3.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에서 5차년도 자료 중 학생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은 총 4문항이며, 그 내용은 ‘내 자신이 자랑스러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함’, ‘학급임원이 될 자격이 있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747, 2차년도 .792, 3차년도 .811, 4차년도 .825, 5차년도 .812로 확인되었다.

2) 부모의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에서 5차년도 자료 중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한 자아존중감 문항을 이용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문항은 Rosenberg가 개발한 10문항의 척도를 9문항으로 설문조사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함’,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함’,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음’ 등의 문항이었고,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 .791, 2차년도 .795, 3차년도 .800, 4차년도 .811, 5차년도 .813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과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기술통계를 이용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상관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확인하였다. 이때 무변화 모형, 일차함수모형(선형모형), 이차함수모형(비선형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비교는 각 모형들이 내포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 값을 확인하였다. CFI와 TLI 지수의 경우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는 양호한 것을 간주한다(홍세희, 2000).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시간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3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모형의 비교는 내포모델로 χ^2 값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1차 3.131, 2차 3.168, 3차 3.218, 4차 3.199, 5차 3.177로 나타나 1-3차까지는 증가하지만 4차와 5차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1차 3.865, 2차 3.891, 3차 3.842, 4차 3.824, 5차 3.791로 나타나 1-2차까지는 증가하다가 3-5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가 각 2와 7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청소년 자아존중감	1차	1623	1.00	4.00	3.131	.544	-.354	.108
	2차	1489	1.00	4.00	3.168	.546	-.250	-.157
	3차	1433	1.25	4.00	3.218	.530	-.117	-.630
	4차	1370	1.25	4.00	3.199	.537	-.141	-.403
	5차	1336	1.00	4.00	3.177	.531	-.091	-.309
부모 자아존중감	1차	1625	1.67	5.00	3.865	.526	-.289	-.052
	2차	1484	2.11	5.00	3.891	.512	-.242	-.124
	3차	1426	2.00	5.00	3.842	.517	-.118	-.201
	4차	1360	1.56	5.00	3.824	.533	-.238	.297
	5차	1328	1.11	5.00	3.791	.524	-.208	.304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자아존중감 간의 자기 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상관계수는 .6이하로 나타났다. 부모 자아존중감 간의 자기상관 또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상관계수는 .6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부모 자아존중감 간 시점별 상관은 청소년 자아존중감 1차와 부모 자아존중감 1차는 $r=.190(p<.001)$ 로 청소년과 부모의 2차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r=.163(p<.001)$, 청소년과 부모의 3차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r=.183(p<.001)$, 청소년과 부모의 4차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r=.143(p<.001)$, 청소년과 부모의 5차 자아존중감의 상관은 $r=.176(p<.001)$ 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과 부모의 모든 시점별 자아존중감 상관은 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청소년 자아존중감					부모 자아존중감				
		1차	2차	3차	4차	5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청소년 자아 존중감	1차	1									
	2차	.431***	1								
	3차	.410***	.476***	1							
	4차	.350***	.428***	.521***	1						
	5차	.324***	.360***	.461***	.500***	1					
부모 자아 존중감	1차	.190***	.133***	.156***	.095***	.140***	1				
	2차	.132***	.163***	.130***	.077***	.124***	.490***	1			
	3차	.181***	.171***	.183***	.163***	.190***	.493***	.495***	1		
	4차	.118***	.126***	.154***	.143***	.174***	.458***	.493***	.530***	1	
	5차	.133***	.088***	.149***	.122***	.176***	.384***	.391***	.430***	.541***	1

*** $p < .001$, ** $p < .01$, * $p < .05$

3.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일차함수, 이차함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33$, $CFI=.942$, $RMSEA=.07$ 로 나타났고,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65$, $CFI=.976$, $RMSEA=.051$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차함수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1.001$, $CFI=1.000$, $RMSEA=.000$ 으로 나타났다.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모형의 적합도보다 이차함수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모형으로 이차함수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3.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117.032***	13	.933	.942	.070
일차함수	52.528***	10	.965	.976	.051
이차함수	5.150	6	1.001	1.000	.000

*** $p < .001$, ** $p < .01$, * $p < .05$

이차함수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차함수모형의 평균, 분산 그리고 공분산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초기의 평균은 3.128로 확인되었고,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065, 이차함수의 기울기는 -.013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그림 2>,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개인차에 따라 우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분산의 경우도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추정결과

구 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초기값		3.128(.013)***	.148(.016)***
일차 함수 변화율		.065(.012)***	.043(.013)***
이차 함수 변화율		-.013(.003)***	.002(.001)**
공분산	초기 <-> 일차	-.019(.013)	
	초기 <-> 이차	-.008(.003)**	
	일차 <-> 이차	.001(.003)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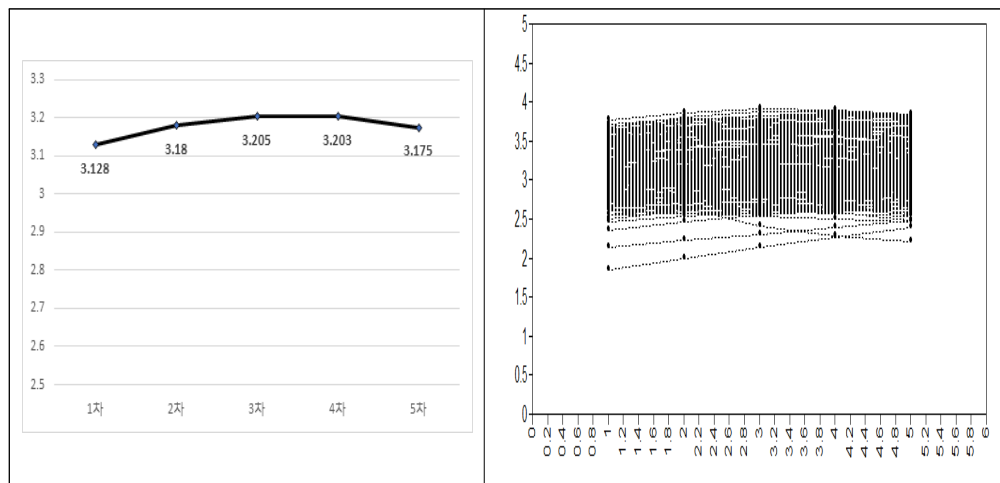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그래프(좌측:평균, 우측:개인)

4. 부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시간효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에서 시간변수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부모의 자아존중감 변인을 시간의존모형, 시간독립모형, 동시 및 지연효과의 3가지 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시간의존모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시점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며, 시간독립변인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시점별로 같은 영향력을 지닌다는 모형이다. 세 번째로 동시 및 지연효과모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동시효과와 함께 지연효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모형이다. 이 모형들은 내포모형으로서 χ^2 값 차이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시간의존모형과 시간독립모형의 χ^2 값 차이는 11.591로 자유도 차이 4의 임계값 9.49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간의존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의존모형과 동시 및 지연모형의 χ^2 값 차이는 22.703으로 자유도 차이 4일 때 임계값 9.49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간의존모형보다 동시 및 지연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 형	χ^2	df	TLI	CFI	RMSEA
시간의존효과(자유추정)	80.185***	26	.972	.987	.036
시간독립효과(K제약)	91.776***	30	.972	.985	.036
동시 및 지연효과	57.482***	22	.978	.991	.032

*** $p < .001$, ** $p < .01$, * $p < .05$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시간변인으로 설정한 후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초기 평균은 2.480으로 확인되었고, 일차함수는 .166, 이차함수는 -.037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일차 및 이차함수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산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전히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공분산의 경우 초기와 이차함수의 공분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부모 자아존중감의 동시 및 지연효과 투입후의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

구 분	평균	분산	공분산
초기값	2.480***	.139***	초기-변화 = -.019
일차함수	.166	.043***	초기-이차 = -.009**
이차함수	-.037	.002***	일차-이차 = .001

*** $p < .001$, ** $p < .01$, * $p < .05$

각 시점에 따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1차~5차년도 시점의 부모 자아존중감은 같은 시점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beta = .075 \sim .168 (p < .05)$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시점은 1차년도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점 간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연효과를 살펴보면, 1차 부모 자아존중감이 2차 자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beta = .030 (p > .05)$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부모 자아존중감이 3차 자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beta = .066 (p < .01)$, 3차 부모 자아존중감이 4차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beta = .067 (p < .01)$, 4차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5차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beta = .089 (p < .01)$ 로 확인되면서, 1차 부모 자아존중감이 2차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7. 부모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동시 및 지연효과 추정계수

경로			B	S.E.	β	t
1차 부모자존	→	1차 자녀자존감	.168	.023	.164	7.295***
2차 부모자존	→	2차 자녀자존감	.113	.025	.106	4.593***
3차 부모자존	→	3차 자녀자존감	.076	.024	.075	3.119**
4차 부모자존	→	4차 자녀자존감	.075	.025	.075	2.976**
5차 부모자존	→	5차 자녀자존감	.076	.027	.076	2.835**
1차 부모자존	→	2차 자녀자존감	.031	.025	.030	1.242
2차 부모자존	→	3차 자녀자존감	.067	.024	.066	2.775**
3차 부모자존	→	4차 자녀자존감	.069	.025	.067	2.751**
4차 부모자존	→	5차 자녀자존감	.088	.028	.089	3.149**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하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시간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초등학교 4-6학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이 낮지만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의 자아개념이 높다는 연구결과(Robert, 1995)와 비슷한 맥락이다. 송수지 외(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지만 고등학생 시기가 들어서면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적응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인지적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되면서 추상적 사고능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과 지각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시기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지각을 하게 되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홍세희 외(2006)는 15세에서 16세까지 큰 혼돈을 겪은 후에 다시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아개념을 안정되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다문화청소년들의 중학교 적응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부적응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이들이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학급차원의 포괄중재 프로그램이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시간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동시(t)효과와 지연(t+1)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청소년 역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간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동시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효과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5학년 시기 그리고 6학년 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이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육아에 대한 준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리고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자신의 문화적응 시기와 맞물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 밖에 없으나 이들은 교육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 언어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송미경 외, 2009).

또한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무변화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연효과에 있어서는 1차에서 2차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한 2→3차, 3→4차, 4→5차로 가는 시점에서 영향을 미쳤고, 그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그 다음 시점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시점의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부모 자아존중감이 그전 시점(t-1)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여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지만 중학생 시기에는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남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진학 시 이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이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과 상담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들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언어교육이나 문화이해 등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부모의 개별적 상담이나 멘토링, 교육을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등 심리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일수록 영향력이

켰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초점화된 교육과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을 위해 예비 부모교육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제변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주요변인을 통제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경우 중학생시기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학생시기에 초점을 두어 친구 혹은 교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현경, 이승연. (2010). 만 4,5세 유아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육아지원연구**, 5(1), 27-50.
- 김민경.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3), 35-53.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지혜. (2012). 중고등학생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2(2), 72-100.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남영옥.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4), 251-274.
- 박은민. (2013). 다문화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3), 1-21.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2.
- 송미경, 이은경, 신호정.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3), 1627-1643.
- 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분석. **인간발달연구**, 19(1), 215-238.
- 송승민, 이유현. (2012).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25-46.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오형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0(7), 194-194.

- 유비, 김기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 윤경희.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2), 145-182.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 이지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연구: 조절요인과 Suppressor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81-300.
- 이하리, 이영선. (2015). 청소년의 교사 · 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2), 467-486.
- 장진경, 전종미, 정영혜.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2(7), 53-72.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2006).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35-60.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효인.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95-217.
- 한신애, 문수백. (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57-476.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Emilie P. S., Katrina, W., Laurie, C. C., Bookins, & Robert, C. S.(1999). Ethnic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perceived efficacy and prosocial attitude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2, 867-880.
- Hattie, J. A. (1992). *Self-concept*. Hillsdale, NJ: Erlbaum.
- Krug, S., Wittchen, H. U., Beesdo-Baum, K., Knappe, S., & Lieb, R. (2016). Family functioning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3, 184-189.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ew York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USA: Wadworth/Thomson Learning.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서봉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을 활용하여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 실태와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무단결석, 음주, 성인사이트 보기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3년간의 경향을 보면 무단결석의 빈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성인사이트를 접하는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2015년 기준 14세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령대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사이트의 접속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행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한 결과, 부모지원, 부모감독, 교사관계, 학교수업 등에서 비행 참여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 참여 집단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비행 경험을 포함하여, 성적불만족, 다문화 농담 스트레스, 담배를 피는 친구, 음주를 하는 친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결과,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전 비행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015년 비행 참여에 2013년 비행 경험보다 2014년 직전년도의 비행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변수 중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수업 변수로 이는 학교수업에 성실히 임할수록 비행 가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확인된 변수는 한국어스트레스로 한국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수록 비행 가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행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비행과는 멀어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스트레스 중 농담스트레스가 비행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술한 차이 분석 결과로 비추어 보건대, 비행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 농담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고 이는 비행 가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변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 비행 가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대한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비행 가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패널이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비행에 1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1로 두는 이항변수를 활용하여, 비행의 질적인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패널, 다문화청소년 비행, 비행 실태, 이항 로지스틱 분석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I. 들어가며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 혹은 사회 속에 인종, 문화, 언어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 및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으며(윤인진, 송영호, 2009), 한국 사회도 최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여 다문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은 언어문제, 학업부진,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및 구조적 문제는 학교 내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판별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문화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성장과정은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과 미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생애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따른 차별, 소통의 어려움, 사회화 부족 등은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내 부적응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며, 이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성경(2000)은 반사회적 행동, 소외 또는 반항, 낮은 수준의 부모통제, 방임적 양육태도, 위험 행동을 하는 또래, 학교 변동에 의한 학업 실패,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미디어가 비행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부산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송진영과 배미경(2015)에 따르면, 성별, 낮은 자기통제력, 학대적 양육태도, 또래압력, 비행친구접촉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가해 경험에 유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관련된 변수로 가정요인, 개인요인, 학교요인 등을 지목한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비행에 있어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윤우석, 2011), 비행경험 및 비행교우와 같은 강력한 예측 요인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정익중, 이은주, 2010)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관련변수도 청소년 비행과 무관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신동준, 2005). 또한 고려해야할 부분은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서 느끼는 개인 심리 변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이 구축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 비행경험, 학교생활, 다문화 스트레스 및 또래관련 변수를 투입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은 사회학, 범죄학, 교육학 등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 비행 이론도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어 개인 심리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비행교우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도 늘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Conger & Elder, 1994; 박봉진, 2011; 신재현, 2013; 윤우석, 2011).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비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특히 윤우석(2011)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지와 애정, 적절한 훈육과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 자녀들은 이와 다른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 아래 성장하게 되어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로 미치는 것보다 가정배경을 통해 적절한 감독 및 애정 등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기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환언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경험에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정배경의 기저효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이 모두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혹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에 있어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꼽는 것이 이전 비행경험과 비행 교우이다. 특히 이전 비행경험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을 제안하는 경우(Moffitt, 1993)도 있지만, 이전 비행경험은 현재의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라는 점은 학자들의 이견은 없다. 또한 비행교우도 비행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정익중과 이은주(2010)는 비행또래집단과 청소년 비행 간의 종단적인 역동 관계를 살펴본 비행친구 지속형 집단은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았고, 이는 비행교우의 상승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비행친구 억제형 집단은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을 밝혔다. 그들은 비행에 있어 비행친구의 영향효과, 선택효과, 상승효과를 각각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비행교우와 비행 간의 관계는 종단적으로 상호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생활은 청소년 비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의미 있는 타자인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소속의 욕구가 강하게 작동하는 청소년기에 학교 내에서 맺는 교사와의 관계, 주변 또래와 맺는 관계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동준(2005)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규범이 대학진학이라는 목표에 보다 몰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비행 교우 집단의 가입 의사를 나타낼 의사가 낮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비행 교우 집단의 가입 의사가 낮은 것은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Snyder et al.(1986)도 비행 친구와의 교제는 학업성취 하락과 매우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개인 심리요인도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진경, 배미경, 2015; 윤경희, 장일식,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연구한 윤경희와 장일식(2015)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문제요인이 잠재적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체성 혼란과 갈등, 사회적 위축 등을 지목하고 있다. 송진경과 배미경(2015) 또한 청소년의 성별도 비행과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 개인 심리요인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이 구축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행 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5년 기준)

구분	내용
학생 성별	남=660명(49%) 여=688명(51%) 전체=1,348명
연령	13세=101명(7.5%), 14세=1,192명(88.4%), 15세=48명(3.6%), 16세=6명(0.4%), 17세=1명(0.1%)
부모학력	부친 3.94(중졸이상), 모친 4.54(고졸이상)
거주시(명, %)	서울=143(10.6), 부산=55(4.1), 대구=30(2.2), 인천=57(4.2), 광주=27(2.0), 대전=16(1.2), 울산=27(2.0), 경기=291(21.6), 강원=81(6.0), 충북=60(4.5), 충남=103(7.6), 전북=99(7.3), 전남=150(11.1), 경북=97(7.2), 경남=101(7.5), 제주=11(0.8)

남학생이 660명, 여학생이 688명이 포함되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포함된 가구는 2015년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령은 대부분이 14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평균 중졸이상과 어머니는 평균 고졸이상이었다.

본 연구의 성격은 실태분석 및 탐색적 연구이므로 기술통계 분석,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최근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모형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51번 문항으로, 흡연, 음주, 가출, 결석, 성인사이트 이용, 절도, 폭행, 뺑뺑기, 폭력집단 가입, 패싸움, 이성과의 키스, 성관계 등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경험여부와 1년 간 경험횟수 및 한 달간 경험횟수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험한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하여 문항을 합산한 뒤, 하나의 항목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 '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각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2. 분석에 활용된 변수

	문항	변수처리 및 특징
종속변수		
비행경험 (이분형) (1=1회이상 경험, 0=무경험)	1. 담배를 피운 적2=이 있다.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3. 가출한 적이 있다. 4.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다.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뺏꼈은) 적이 있다. 9.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11.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12.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경험여부(있다=1, 없다=0)를 합산(1~14번까지)하여,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 '0' 으로 코딩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통제변수		
성별	남 = 1, 여 = 2	더미변수
모학력	어머니의 교육정도	1=안 받았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부학력	아버지의 교육정도	(4년제미만), 6=대학교(4년제 이상), 7=석사, 8=박사
부모지원	1.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2.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3.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4.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5.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말을 많이 해주신다. 6.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서 소유한 것(물건, 장소)들을 제공해주신다.	매우 그렇다=4, 그런 편이다=3, 그렇지 않은 편이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문항 합산하여 활용
부모감독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매우 그렇다=4, 그런 편이다=3, 그렇지 않은 편이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문항 합산
비행경험		
가해경험(bin) (2013년, 2014년) 1=1회 이상 0=전혀 없음	1. 담배를 피운 적2=이 있다.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3. 가출한 적이 있다. 4.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다.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뺏꼈은) 적이 있다. 9. 폭력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11.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12.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경험여부(있다=1, 없다=0)를 합산(1~14번까지)하여,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 '0' 으로 코딩

	문항	변수처리 및 특징
학교생활		
In성적불만족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3, 만족하는 편이다=2, 매우 만족한다=1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에 불만족한 것으로 측정
교사관계	6문항 1.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4.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5.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6.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매우 그렇다=5, 그런 편이다=3, 약간 그렇다=4, 보통이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변환하여 사용.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은 것으로 측정
또래관계	7문항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3.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4.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5.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매우 그렇다=5, 그런 편이다=3, 약간 그렇다=4, 보통이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변환하여 사용.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측정
학교수업	1.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3.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매우 그렇다=4, 그런 편이다=3, 그렇지 않은 편이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변환하여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측정
다문화스트레스		
In농담스트레스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4, 그런 편이다=3, 그렇지 않은 편이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변환하여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 -자연로그
In한국스트레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In한국어스트레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래		
In친구수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있습니까?	자연로그
담배친구(bin)	담배를 핀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음주친구(bin)	술을 마신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다음의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각각 2013년, 2014년, 2015년 기준 비행 각 항목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을 자세히 보면 무단결석(63명), 폭행(39명), 음주(37명)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무단결석(34명), 음주(34명), 성인물(28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2015년은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60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41명), 무단결석(25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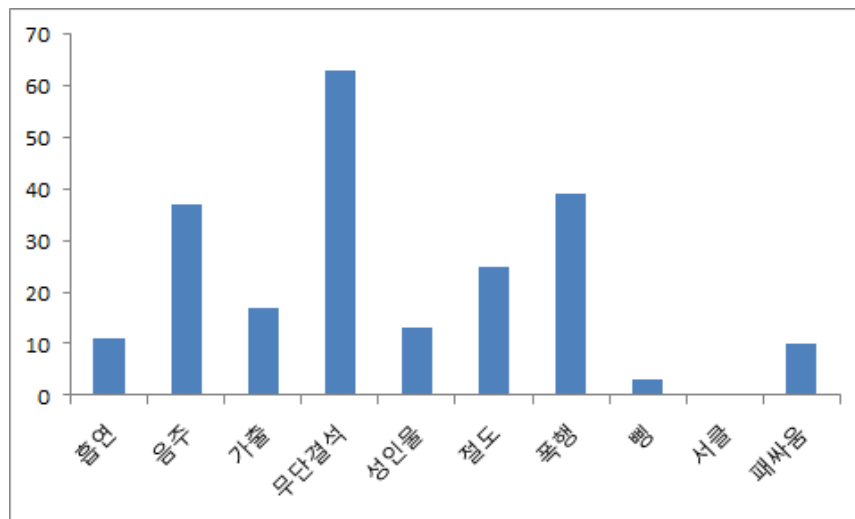


그림 2. 2013년 비행참여빈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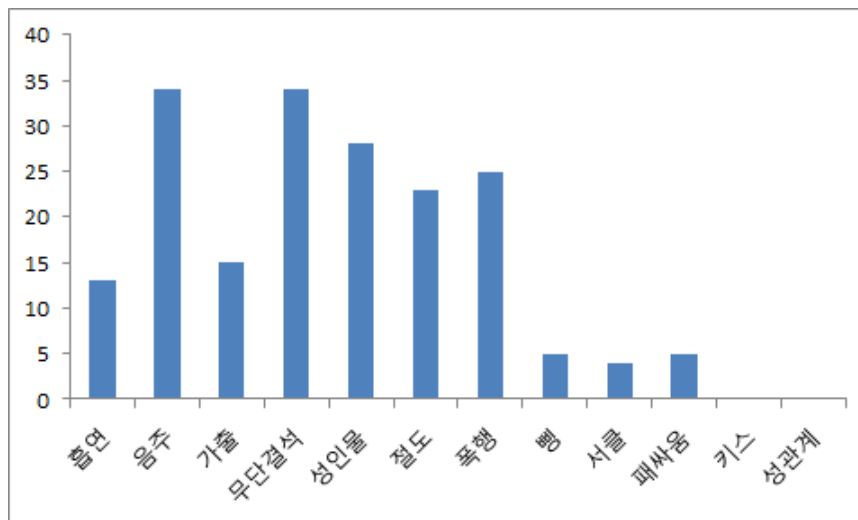


그림 3. 2014년 비행참여빈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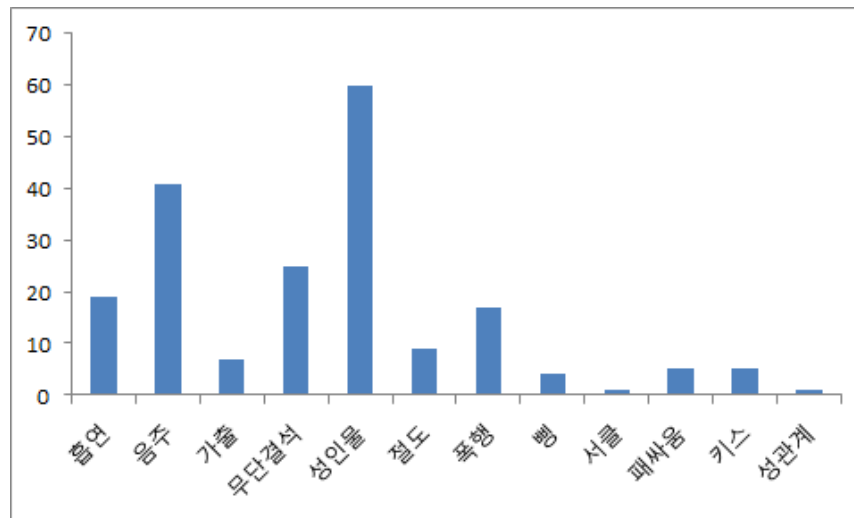


그림 4. 2015년 비행참여빈도(단위: 명)

전체적으로 무단결석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3년 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인사이트를 접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대적인 빈도가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가출의 경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2013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만을 살펴본 결과, 2015년 결측치로 처리되는 등 가출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비행 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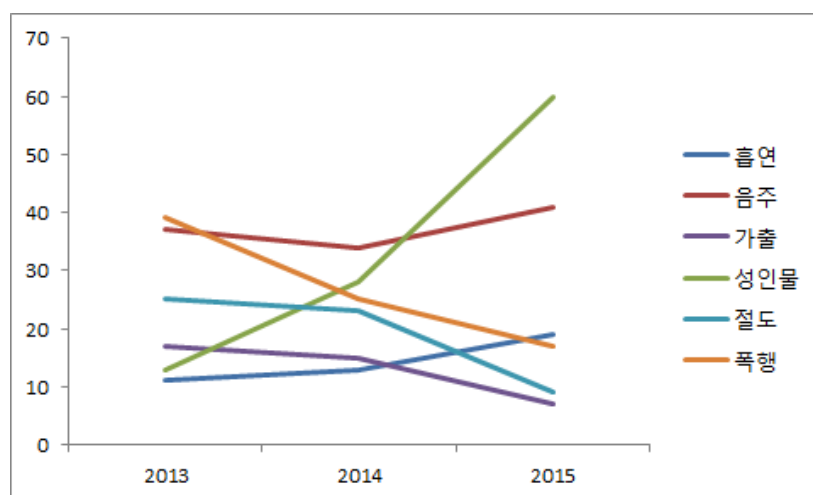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비행참여 추이(2013년~2015년)

다음으로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0.021	1														
3	-0.003	.266**	1													
4	-0.044	.067*	.069*	1												
5	0.008	.069*	0.016	.543**	1											
6	-.111**	-.055*	-0.037	-.090**	-.101**	1										
7	-.120**	0.01	-0.04	-0.052	-.094**	.259**	1									
8	.065*	-0.028	0.022	-.174**	-.153**	0.049	.061*	1								
9	-0.04	0.002	-0.006	.434**	.317**	-0.027	-0.038	-.252**	1							
10	0.036	0.024	-0.01	.412**	.325**	-0.044	-0.011	-.233**	.559**	1						
11	0.041	.078**	0.052	.459**	.407**	-.106**	-.101**	-.366**	.524**	.444**	1					
12	.075**	0.053	0.013	-0.042	-.055*	0.031	0.026	.169*	-.083**	-.122**	-.074**	1				
13	-.061*	0.004	-0.011	-.175**	-.172**	0.041	-0.006	.109**	-.176**	-.217**	-.164**	.212**	1			
14	-0.022	0.032	0.033	-.151**	-.159**	.058*	0.007	.149*	-.173**	-.286**	-.187**	.310**	.617**	1		
15	-.117**	0.026	0.02	.064**	0.047	.056*	.073**	-.072**	.128*	.236**	.097**	-0.051	-.167**	-.173**	1	
16	-.140**	0.018	-0.016	-0.034	-.074**	.124**	.223**	0.03	0.006	0.027	-.090**	0.044	-0.036	0.011	.127**	1
17	-.056*	0.022	-0.004	-0.033	-.066*	.133**	.231**	.066*	-0.033	0.026	-.084**	0.036	-0.044	-0.011	.111**	.720**
N	1,348	1,348	1,287	1,348	1,348	1,446	1,383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1,348
min	1.00	1.00	1.00	1.00	1.00	.00	.00	.00	1.00	1.00	1.00	.00	.00	.00	.00	.00
max	2.00	8.00	8.00	4.00	4.00	1.00	1.00	1.39	5.00	5.00	4.00	1.39	1.39	1.39	3.40	1.00
m	1.51	4.54	3.94	3.20	3.22	0.11	0.10	0.90	3.76	4.12	2.90	0.65	0.14	0.21	1.88	0.13
sd	0.50	0.97	1.12	0.52	0.58	0.31	0.29	0.34	0.84	0.75	0.56	0.48	0.30	0.36	0.63	0.34
skew	-0.04	0.05	0.36	-0.22	-0.39	2.54	2.76	-0.98	-0.28	-0.60	-0.06	-0.28	1.98	1.31	-0.19	2.18
kurt	-2.00	0.10	0.51	0.63	0.40	4.47	5.61	1.03	-0.09	0.11	0.21	-1.38	2.67	0.36	-0.10	2.74

* : $p < .05$ ** : $p < .01$ *** : $p < .001$

1=성별, 2=모하렐, 3=부하렐, 4=부모지원, 5=부모감독, 6=비행경험2013, 7=비행경험2014, 8=성적불만족, 9=교사관계, 10=포래관계, 11=학교수업, 12=농답스트레스, 13=한국어스트레스, 14=한국스트레스, 15=친구수, 16=답배친구, 17=음주친구

2. 비행참여집단의 특성

다문화청소년 중 비행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비행 참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은 비행 경험 2013, 2014와 성적불만족, 농담스트레스, 친구수, 담배를 핀 적이 있는 친구와 음주를 하는 친구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행 참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은 변수로는 부모지원, 부모감독, 교사관계, 학교수업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지원과 부모감독을 덜 받고 있으며 학교 내 교사관계와 학교수업도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비행참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

구분	비행참여	N	평균	표준편차	t
모학력	있다	136	4.51	1.06	-0.44
	없다	1,212	4.55	0.96	
부학력	있다	125	3.77	1.04	-1.81
	없다	1,162	3.96	1.13	
부모지원2015	있다	136	3.11	0.58	-2.20*
	없다	1,212	3.22	0.51	
부모감독2015	있다	136	3.08	0.63	-3.10**
	없다	1,212	3.24	0.57	
가해bin2013	있다	134	0.34	0.47	6.24***
	없다	1,201	0.08	0.26	
가해bin2014	있다	135	0.38	0.49	7.37***
	없다	1,208	0.06	0.25	
In성적불만족	있다	136	0.98	0.34	2.85**
	없다	1,212	0.89	0.34	
교사관계2015	있다	136	3.60	0.95	-2.13*
	없다	1,212	3.78	0.83	
또래관계2015	있다	136	4.06	0.80	-0.92
	없다	1,212	4.13	0.74	
학교수업2015	있다	136	2.67	0.62	-4.67***
	없다	1,212	2.93	0.54	
In농담스트레스2015	있다	136	0.76	0.49	2.87**
	없다	1,212	0.64	0.48	
In한국어스트레스2015	있다	136	0.11	0.27	-1.10
	없다	1,212	0.14	0.30	
In한국스트레스2015	있다	136	0.24	0.39	0.84
	없다	1,212	0.21	0.35	
In친구수2015	있다	135	2.04	0.58	3.16**
	없다	1,210	1.86	0.64	
담배친구bin2015	있다	136	0.40	0.49	6.85***
	없다	1,212	0.10	0.30	
음주친구bin2015	있다	136	0.28	0.45	5.46***
	없다	1,212	0.07	0.25	

* : $p < .05$ ** : $p < .01$ *** : $p < .001$

3. 비행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모형이며, 모형 2는 모형 1에 2013년, 2014년 비행 경험을 투입한 모형, 모형 3은 학교생활 변수를 추가 투입하였으며, 모형 4는 다문화 스트레스 변수를 추가하였고, 모형 5는 또래 변인을 추가한 최종 모형이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Hosmer & Lemeshow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살펴보면, 성별이 유의한 변수로 관찰되었으며,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를 보면, 성별과 함께 비행에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자세히 보면 여전히 남학생이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2013년의 비행경험과 2014년의 비행경험은 최근의 비행 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 경험이 누적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학교생활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이전 비행 경험 외에 학교수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면 할수록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문화 스트레스가 투입된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이전 모형들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변수 외에, 농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담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으로 무심코 건넨 농담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는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로서 다문화를 대하는 주류 한국인의 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결과라 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어스트레스가 비행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석하면 한국어를 잘 못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비행 참여를 덜 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어를 잘하고자 하는 성취압력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요인이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변수를 투입한 최종 모형 결과, 주변에 담배를 피는 동료가 있을 경우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남학생이, 이전 비행경험, 농담스트레스와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는 경우 비행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수업에 충실할수록 비행 가담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다문화청소년 비행참여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1.82	0.84	6.16	0.12	0.91	1.13	-0.27	1.11	0.77	0.13	1.17	1.14	-0.55	1.24	0.58
성별	-1.17	0.21***	0.31	-0.92	0.23***	0.40	-0.97	0.23***	0.38	-1.06	0.23***	0.35	-0.98	0.24***	0.38
모학력	-0.02	0.10	0.98	-0.03	0.11	0.97	-0.04	0.11	0.97	-0.06	0.11	0.94	-0.08	0.11	0.92
부학력	-0.14	0.09	0.87	-0.10	0.10	0.90	-0.11	0.10	0.90	-0.12	0.10	0.88	-0.14	0.10	0.87
부모지원	-0.23	0.22	0.79	-0.19	0.23	0.83	-0.02	0.25	0.98	-0.12	0.26	0.89	-0.09	0.26	0.91
부모감독	-0.33	0.19	0.72	-0.15	0.20	0.86	-0.07	0.21	0.93	-0.08	0.21	0.93	-0.09	0.21	0.92
비행경험	2013			1.12	0.25***	3.07	1.10	0.26***	3.01	1.10	0.26***	3.00	1.04	0.27***	2.82
	2014			1.78	0.24***	5.92	1.70	0.24***	5.48	1.70	0.25***	5.46	1.49	0.26***	4.43
학교생활	성적불만						0.63	0.36	1.88	0.52	0.36	1.68	0.53	0.36	1.69
	교사관계						-0.09	0.16	0.92	-0.09	0.16	0.91	-0.11	0.16	0.90
또래관계	또래관계						0.25	0.17	1.29	0.27	0.18	1.32	0.20	0.18	1.23
	학교수업						-0.56	0.23*	0.57	-0.60	0.23**	0.55	-0.51	0.23*	0.60
다문화스트레스	농담									0.66	0.24**	1.93	0.60	0.24*	1.83
	한국어									-1.20	0.47*	0.30	-0.95	0.49	0.39
또래	한국									0.32	0.36	1.37	0.27	0.37	1.31
	친구수												0.27	0.18	1.31
담배친구	담배친구												0.96	0.34**	2.61
	음주친구												0.24	0.40	1.27
-2LL	759.395			669.441			655.093			640.695			616.985		
Nagelkerke R ²	0.073			.214			.235			.257			.292		
Hosmer&Lemeshow x2(p)	4.206(.838)			6.092(.637)			9.298(.318)			7.848(.448)			11.142(.194)		

* : $p < .05$ ** : $p < .01$ *** : $p < .001$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패널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행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 분석 및 비행 참여 경험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행 실태를 살펴본 결과, 무단결석, 음주, 성인사이트 보기 등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3년간의 경향을 보면 무단결석의 빈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성인사이트를 접하는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2015년 기준 14세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령대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사이트의 접속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출의 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3년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2015년 기준 일부가 결측으로 처리되며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비행 항목에 비해 가출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한 결과, 부모학력, 또래관계, 한국 어스트레스, 한국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지원, 부모감독, 교사관계, 학교수업 등에서 비행 참여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 내 부모의 지원과 감독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으며, 학교 내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수업에서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행 집단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타자인 교사와의 관계가 부족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청소년 비행에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예방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문화청소년 또한 비행에 접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비행에 접할 기회를 줄이는 예방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비행 참여 집단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이전 비행 경험을 포함하여, 성적 불만족, 다문화 농담 스트레스, 담배를 피는 친구, 음주를 하는 친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 스트레스 중 농담에 대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심코 던진 농담이 다문화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결과, 여러 변수를 투입하여도 성별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전 비행 경험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015년 비행 참여에 2013년 비행 경험보다 2014년 직전년도의 비행 경험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변수 중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수업 변수로 이는 학교수업에 성실히 임할수록 비

행 가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확인된 변수는 한국어스트레스로 한국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수록 비행 가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행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비행과는 멀어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최종모형에서는 한국어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p < .10$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 가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조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스트레스 중 농담스트레스가 비행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술한 차이 분석 결과로 비추어 보건대, 비행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 농담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고 이는 비행 가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담 스트레스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결과이므로 사회심리학적인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행 참여 집단 주변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지 혹은 비행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변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 비행 가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참여에 대한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비행 가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패널이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비행에 1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1로 두는 이항변수를 활용하여, 비행의 질적인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즉 호기심에 여러 비행행동 중 하나를 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달리 다문화 스트레스 등 다문화청소년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영향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추후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봉진(2011). 결혼 가정의 청소년 비행 원인 분석과 대책, **법학논문집**, 35(3), 27-52.
- 신동준(2005). 남녀 청소년들의 폭력써클 가입 의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사회연구**, 9(1/2), 181-220.
- 신재현(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 배미경(2015).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행경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교정복지연구**, 39, 29-58.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윤경희, 장일식(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10(1), 149-177.
- 윤우석(2011). 가족의 구조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형사정책연구**, 22(1), 137-172.
- 윤인진,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 정익중, 이은주(2010). 비행또래집단과 청소년비행 간의 종단적인 역동적 관계. **사회복지연구**, 41(1), 119-144.
- Conger, R.D. & G. H. Elder(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Hawthorne, NY :Aldine.
-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Snyder, J., Dishion, T. J. & Patterson, G. R.(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29-4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한애경* · 김평화** · 오정아***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348case가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남자청소년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여자청소년은 부모감독과 거주지인식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성취동기의 학령기별 영향에서 중학생 집단에서 모의 교육수준, 교우관계, 교사관계, 거주지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별과 학령기에 따라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실천현장에서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성취동기, 부모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거주지 인식

I. 서론

전 국가적으로 인구의 초국가적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 담론이 보다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6)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이민자 수는 152,374명으로 2001년 25,182명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99,186명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16).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입각하여 그간 한국사회는 다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들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과 이주 부모의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 혼란과 정서불안,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낮은 학업성적, 차별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musicka@hanmail.net

문제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박영진, 2016; 김정민, 2013; 김순규, 2011; 최선화, 2011; 조영달, 2006). 물론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위험요인과 낮은 환경적 요구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성취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Elder & Caspi, 1998) 경험의 빈도 역시 잦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누적될 경우 하나의 심각한 생활사건보다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된다(Lazarus & Folkman, 1984).

한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주위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상이하고 이는 곧 자녀로 하여금 행동양식의 차이를 갖게 한다. 즉, 남자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독립적이길 요구하고 여자청소년의 부모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길경숙, 양연숙, 2009) 자녀에 대한 서로 다른 성취압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구현경, 2008; 박선정, 2005; 김현진, 2012).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성별 또는 성장단계의 자극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자극의 영향력들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은 보다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적응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다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적인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성취동기’에 주목하였다. ‘성취동기’는 어떤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으로 사회 적응과 지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정애, 2009).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학업성취가 높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높기 때문에 높은 성취만족을 기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선호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불신과 회피가 크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취동기는 개인의 성공적인 성취와 바람직한 삶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현정미·신효식·이선정, 2014).

특히 청소년기는 학업성취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취동기는 이 시기에 더욱 강조됨이 마땅하다. 게다가 최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도(홍재양, 2001)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을 포함하여 검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별과 학령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 각 집단별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의 현황과 특성

세계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을 비롯한 사회 부적응, 차별, 다문화청소년 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된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6)에 따르면 2016년 결혼이민자 수는 152,374명으로 2001년 25,182명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수 역시 99,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6).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한국과 이주 부모 나라의 다른 언어, 관습, 문화 등의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언어, 가치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인지 발달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야기한다(박영진, 2016).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정서적 불안과 함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낮은 학업성적, 차별,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보이며, 높은 학교 중퇴율과 비행률 등의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정민, 2014). 이런 문제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 밖으로 밀려나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발달을 저해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취동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자 개인 행동변화의 내재적 요인이다(Murray, 1938). 성취동기는 개인은 물론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은 하게 된다(이정련, 2008). 성취동기는 개인의 실제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학업성취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얻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McClelland, 1961; 전찬열, 2008; 한순미, 2004).

성취동기는 특정 행동에 뒤따르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획득되는 학습된 동기로서(McClelland, 1953), 후천적인 환경, 경험, 학습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Crandall, 1965).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성별과 연령,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특성 변인이 다문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되는 것이 바로 성별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길경숙과 양연숙(2009)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취동기는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숙정(199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 간 일치된 결과들을 보이지 않지만 아

동의 성취동기와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별요인 중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정님(2007)의 연구에서 남아의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적 유능감과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 태도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에는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 성취동기에는 부모의 성취지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 남녀 간 영향 변인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연령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환경적 요인과 성취동기 간 관계에서의 그 정도와 밀접한 관련인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청소년(중학생)과 중기 청소년(고등학생)이 지각한 환경적 요인들이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문주희와 백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두 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성취동기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초기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중기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중기 청소년은 교사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외에도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에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므로 높은 성취동기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정님, 2007).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성취동기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주영, 2005; 황경숙, 2002; 홍성훈, 2002).

두 번째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지지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배경 변인 역시 다문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들(이운경, 도현심, 2005; 한정미 외, 2014; Trusty, 1999)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지지와 아동의 성취동기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부모로부터의 애정, 관심, 칭찬 등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인다는 일치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김주영, 2005; 홍성훈, 2002). 박영신과 김의철(2000)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취동기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애정과 적절한 통제는 자녀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취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문주희와 백지숙(2012)의 연구에서 역시 초기와 중기 청소년들이 부모와 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친구요인과 교사요인 등의 학교변인이다. 또래 및 교사의 지지와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학교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자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서 학교에서 상호작용하는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또래 지지가 성취동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은진, 2007, 문주희, 백지숙, 2012),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졌음(임은미, 2001)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이웃지와 같은 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나, 아동이 거주하는 농촌과 도시에 따른 성취동기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몇몇 연구들(김보경, 2001, 정계숙, 1989)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들이 아동의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들 중 대다수의 연구들은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이재모, 2006), 시설청소년(이현림, 이영옥, 2005), 보호관찰소 청소년(허정철, 2013), 다문화가정 학생(김성희, 2011) 등 학교나 환경에 대해 부적응적 특성을 보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나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 및 학교교육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보건복지부, 2005),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위축감과 함께 낮은 성취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정애, 2008).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YPI)의 다문화청소년패널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348명으로 남자청소년 660명, 여자 청소년 68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8개의 문항으로 학생의 평소의 생각을 묻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역코딩 문항은 없으며 평균점

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성취동기의 Cronbach's alpha는 .877이다.

2) 독립변수

(1)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는 6개 문항으로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3번 문항은 감독 영역이며, 4~10번 문항은 방임 영역이다. '감독'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방임' 문항은 전체 문항 중 2개의 긍정적인 문항들(가령,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심', '내 몸,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써' 등)은 역코딩하여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이 심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조작화 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감독)의 Cronbach's alpha는 .861, 부모양육태도(방임)의 Cronbach's alpha는 .816이다.

(2)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구관계는 5개의 문항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묻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번 항목(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함)은 제거되었다. 평균이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는 .735이다.

(3)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5개의 문항으로 다문화청소년과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Cronbach's alpha는 .877이다.

(4) 거주지인식

거주지 인식은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으로 6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6개의 문항 중 부정적 문항인 '이웃끼리 서로 경계함' 문항을 역코딩 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는 .735이다

3. 분석방법

이상의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였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한 t-test와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관련변인과의 관계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청소년 49%, 여자 51%가 참여하였고 학령기는 초등 6.2%, 중등 93.8%였다.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 경우가 96.4%였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1.5%로 가장 높고 그다음 중학교 졸업 이하가 18.6%였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42.6%로 가장 높았고 2년제 대학교 29.3%, 4년제 대학교가 17.1%로 상대적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국적에 대해 73.7%가 ‘한국사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업에 관해서는 69.4%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중요한 요소인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69.4%가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수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과제어려움’이 각각 6.2%, 6.1% 였다. 원하는 학력은 대학교까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80.9%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660	49.0	외국인 부모	아버지	45	3.3
	여자	688	51.0		어머니	1300	96.4
학령기	초등	101	6.2		두명 모두	3	0.2
	중등	1247	93.8	국적 정체성	한국사람	993	73.7
아버지교육 수준	초등이하	130	10.1		외국인	12	0.9
	중학교	240	18.6		둘다해당	331	24.6
	고등학교	663	51.5		모르겠음	12	0.9
	2년제대학교	98	7.6	공부 어려움	물어볼사람없음	48	3.6
	4년제대학교	139	10.8		글표현 어려움	52	3.9
	대학원이상	17	1.3		수업이해부족	83	6.2
	전체	1287	100.0		수업적극참여부족	53	3.9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어머니교육 수준	초등이하	26	1.9		책내용어려움	78	5.8
	중학교	110	8.2		과제어려움	82	6.1
	고등학교	574	42.6		없음	935	69.4
	2년제대학교	395	29.3		기타	17	1.3
	4년제대학교	230	17.1	원하는 학력	중학교	25	1.9
	대학원이상	13	1.0		고등학교	169	12.5
	전체	348	100		대학교	1090	80.9
					대학원	64	4.7

n=1,348

2. 주요변인들의 수준과 차이

주요변인들의 수준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5점 척도이고 나머지 척도는 4점 척도이다.

변인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모감독(부모양육행동-감독)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부모방임(부모양육행동-방임)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교적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는 거주지 인식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여자청소년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령기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미미한 차이로 성취동기가 더 높고, 교우관계도 더 좋으며 부모감독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주요변인들의 수준과 차이

(단위 : 점)

		성별			학령기			
		N	평균	t		N	평균	t
성취동기 (4점)	남자	660	3.04	.578	초등	101	2.99	-1.087
	여자	688	3.03		중등	1247	3.04	
교우관계 (5점)	남자	660	3.16	-1.545	초등	101	3.13	-1.146
	여자	688	3.19		중등	1247	3.18	
교사관계 (5점)	남자	660	3.08	.233	초등	101	3.08	.062
	여자	688	3.08		중등	1247	3.08	
부모감독 (4점)	남자	660	3.21	-.288	초등	101	3.17	-.805
	여자	688	3.22		중등	1247	3.22	
부모방임 (4점)	남자	660	1.76	1.413	초등	101	1.81	1.50.
	여자	688	1.73		중등	1247	1.74	
거주지인식 (4점)	남자	660	2.99	2.493**	초등	101	2.96	.079
	여자	688	2.93		중등	1247	2.96	

** $p < .0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성별과 학령기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감동이 이루어지고 방임수준이 낮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성취동기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성별	학령기	모교육 수준	부교육 수준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부모 감독	부모 방임	거주지 인식	성취 동기
성별	1									
학년	-.042	1								
모교육수준	-.019	.011	1							
부교육수준	-.001	.007	.264***	1						
교우 관계	.042	.030	.055*	.040	1					
교사 관계	-.006	-.002	-.001	-.003	.511***	1				
부모 감독	.008	.022	.069**	.014	.398***	.364***	1			
부모 방임	-.038	-.039	-.064**	-.073**	-.367***	-.246***	-.393***	1		
거주지인식	-.068**	-.002	.002	-.032	.391***	.399***	.305***	-.225***	1	
성취 동기	-.016	.032	.088***	.053*	.423***	.377***	.319***	-.229***	.275***	1

* $p < .05$ ** $p < .01$ *** $p < .001$ 성별더미(남자-0 여자-1), 학령기 더미(초등학생-0 중학생-1)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과 학령기별로 살펴본 결과를 아래의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나타났다. 즉, 친구와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

부모감독과 어머니 교육수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감독의 영향력은 여자다문화청소년에게만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남자다문화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고 자녀는 그에 반응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길경숙·양연숙, 2009)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길 요구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인성위주의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긍정적 지지와 인정, 격려와 같은 부모의 감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사하게 아래의 거주지 인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거주지인식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거주지역과 거주지역 이웃

주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결국 성취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다문화 여자청소년들에게 주변환경과의 조화, 신뢰,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 영향요인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B	t	B	t
(상수)		4.454***		6.263***
학년	.076	2.182*	-.023	-.658
모교육수준	.117	3.251***	-.002	-.065
부교육수준	.020	.553	.047	1.310
교우관계	.298	6.586***	.177	4.205***
교사관계	.207	4.779***	.147	3.552***
부모감독	.083	2.127	.155	3.697***
부모방임	-.001	-.039	-.056	-1.360
거주지인식	-.008	-.216	.140	3.601***
R제곱	.253		.232	
F	27.513***		25.88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령기에 따라 성취동기 영향요인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났고 중학교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이외에도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거주지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이 가속화되는 한국 입시위주의 교육상황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압력이 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성취동기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을(박영신·김의철, 2000) 지지하는 결과로서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간적 속성에 의해 생겨나는 성취동기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획득되는 학습된 동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Mccland, 1953)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보다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령기에 들어서는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건강한 자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학년에 따른 성취동기 영향요인

	초등학생		중학생	
	B	t	B	t
(상수)		.974		8.174***
성별	.174	1.841	-.035	-1.380
모교육수준	.092	.912	.056	2.125*
부교육수준	-.027	-.288	.031	1.162
교우관계	.285	2.329*	.234	7.331***
교사관계	.233	1.949	.182	5.883***

	초등학생		중학생	
	B	t	B	t
부모감독	.201	1.859	.120	4.008***
부모방임	-.030	-.285	-.025	-.881
거주지인식	-.051	-.447	.071	2.477**
R제곱	.216		.233	
F	4.244***		46.323***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요인들이 성별과 학령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의 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중간수준이었고 성별과 학령기에 따라 영향요인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차별적인 요인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와 실천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다문화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멘토 육성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 영향요인은 공통적으로 교우관계가 좋고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선행연구들에게 지적했듯이 학교 생활에 적응적인 다문화청소년들이 삶의 태도나 성취동기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유안진 · 한유진 · 최나야, 2009) 앞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나 교사와 긍정적 지지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일반적 배경에서도 드러났듯이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과제수행의 어려움, 교재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친구나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넘어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에서와 같이 20%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여전히 학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학습성취가 낮으면 학습부적응이나 또 다른 비행으로 연계될 가능성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윤경희 · 장일식, 2015) 학습지원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습지도도우미 파견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제공기간을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둘 것이 아니라 학습이 부진한 아동을 중심으로 집중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자체의 유동성을 확보해야하며 기초

학습 이외에 진학지도나 상담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멘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멘토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수준의 기대나 일시적인 기간에만 참여를 요구하는 정도에서의 멘토활용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관계를 맺고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멘토 육성' 프로그램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사회적 통합지원

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졌다. 이는 남자청소년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으로 여자청소년들에게 심리사회적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들로부터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곧 자녀로 하여금 부적응문제로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김수진·홍창희, 2017; 박범중, 2017) 거주지역과의 신뢰와 안정감, 조화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지원과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간, 이웃주민 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대상 프로그램이 개별단위 혹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웃과 함께 통합되는 과정이 이들에게 중요한 지원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에게서 이러한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다문화여자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근거가 된다 하겠다.

3.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성인지 의식 향상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최근의 연구들은 자녀가 자신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을 모델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이유로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가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정애, 2005; 구현경,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력을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길경숙과 양연숙(2009)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길 요구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부모모들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육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는 여성리더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현 상황에서 남자청소년에게만 성취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모범적인 교육환경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

이 남녀불평등이나 가부장적 문화에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 주여성들이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부모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성별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태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염미경,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자극을 받은 청소년들은 결과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들은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이지영, 2012; 염미경, 2013).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이상 어머니의 교육적 자극이 성장과정에서 성별 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성인지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시부모 포함) 위한 성인지향상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성별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사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4. 성취동기 향상의 선순환구조 마련

학령기에 따른 성취동기 영향요인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만 나타난 반면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감동을 받을수록 동네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안정감을 느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ccland(1953)의 지적처럼 시간적 속성에 의해 생겨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가속화되는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성취동기보다는 중학생의 성취동기 영향요인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성취동기는 단순히 학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시기의 성취동기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진입이 이루어진 후 청소년들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성장의 결과물으로써 성취동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아동기부터 적용된다면 단순히 경쟁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학습향상의 기대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횡단조사를 실시하여 종단조사 자료가 갖는 장점을 심분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문화 패널 자료가 5년간의 조사 자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성취동기가 그간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고 영향력 있는 변인들 또한 어떠한 변화궤적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변인을 추출하였다. 이는 성취동기라는 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변인과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이기는 하나 성취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향후 충분한 선행연구 검토와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하여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동기를 성별과 학령기에 따라 검토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곽선정(2005). 아버지와 의사소통 수준, 정서적 교육지원, 학업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2016). 2016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교육부.
- 구현경(2008).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길경숙, 양연숙(2009).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성취압력과 성취동기 차이 연구. 자연과학, 20-1, 135-157.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11).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211
-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 김정민(2013).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영(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성공귀인의 경로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39-50.
- 민숙정(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중(2017). 동북아 문화연구. 51, 285-307
- 박영숙, 최효선, 민소영(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환경 인식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3(2), 79-101.
- 박영신,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연숙(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성취동기와 성취에 관한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 197-220.
- 염미경(2013).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방향. *교육과학연구*, 15(2), 23-47.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3), 67-82.
- 윤경희, 장일식(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10(1).
- 이경남(2007).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 이경련(2008). 유아의 놀이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경,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은진(2007).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2006).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6), 127-150.
- 이정애(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림, 이영옥(2005). 현실치료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2(4), 1-17.
- 전찬열(2008).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72(2), 141-159.
- 정계숙(1989). 부모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가정의 사회적 지위 및 양육실세가 도시와 농촌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9, 53-79.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선화(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에 중심으로.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한순미(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한정애(200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철(2013). 자기성장프로그램이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도덕성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55-163.
- 현정미, 신효식, 이선정(2014). 남녀 청소년의 가족배경변인,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1-15.
- 홍성흔(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재양(2001). 봉사체험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경숙(2002).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ement society*. Princenton, NJ: Von Nostrand.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McClelland, D. C. (1965). Achievement-motivation can be developed. *Harvard business review*, 43(6), 6.

- Trusty, J. (1999). Effects of eighth-grade parental involvement on late adolesc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32, 224-233.
- Elder, G.H. & Caspi, A.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Lazarus, R.S. & Fold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제 ⑥ 주제

진로 및 지원정책

1.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4.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 · 내용 · 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오정아* · 한애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밝혀내어 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지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대응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2014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 중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의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성별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은 학업중단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요인이 방임에서 우울로 변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셋째,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지지가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반면, 필리핀은 부모의 방임, 일본은 청소년 개인의 우울이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과 일본은 모두 부모요인이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인 반면, 일본의 경우 개인요인이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져 국가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실천적 제언을 담았다.

주제어: 학업중단 의도, 의사결정나무 분석, 다문화청소년

I. 서론

학령기 생활의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부모 간 문화적 차이와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는 다문화청소년의 언어습득과 언어발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언어발달 지체현상은 학교적응(임경혜, 2004)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99,186명으로 전체학생수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79.8% 차지)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교육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 충북여성재단 연구원, hak119s@naver.com

부, 2016).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학계에서는 이들의 학교적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규교육과정 이탈은 2011년 초등학교 0.5%, 중학교 1.5%로 집계되고 있고 2014년에는 초등학교 0.8%, 중학교 1.2%로 조사되고 있다(교육통계, 201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학교 이탈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초등학교 이탈률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던 패턴에서 변화된 것으로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문제는 기초학습 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업중단은 생애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전경숙, 2006)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은 학령기 요구되는 또래집단의 소속감과 동일시의 준거를 상실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발달과정에서 소외감과 좌절감, 학력에 따른 열등감 등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적되어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박현선, 2004). 더욱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자원이 미약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성인기 직업선택의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즉,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문제는 단순히 정규교육과정을 이탈했다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빈곤과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적응(오정아·김영희, 2015; 백지숙 외, 2014; 오영훈·임한나, 2014; 최정보 외, 2011), 부모-자녀 관계(아영아, 2016), 개인의 심리행동문제(유지희·황숙연, 2016; 정문경, 2015), 다문화수용성(전성결·김현주, 2014; 김문수,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은경·김종남,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김혜정·유진이, 2009)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정책과 실천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밝혀내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을 위한 정책과 상담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전략 구상 등을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학업중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의미는 것으로 초기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의 관점에서 중퇴 혹은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로 불리다가 이러한 용어가 청소년의 탈선이나 낙오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2002년부터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학령인구는 감소추이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해마다 약 6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6).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와 학습,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다문화청소년의 약 1.2%가 학업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다문화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다문화 학업중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교육부, 2014).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이다. 학업중단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생각이 현실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업중단 의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학업중단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업중단 의도는 학교중퇴, 잠재적 학업중단, 잠재적 중도탈락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금명자(2008)는 학업중단의 수동적 의미로 잠재적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정연순과 이민경은 학업중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잠재적 학업중단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홍봉선과 아영아(2015)는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학업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소년들을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이 낮아지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접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의미에서 학업중단 의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 영향요인

1) 학업중단 의도 위험요인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탐색한 연구들이 미흡하여 이들의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과 학교부적응 등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학업중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중단 의도의 위험요인은 개인요인과 부모요인,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 특성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의도의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개인의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그리고 공격성 및 비행 등과 같은 심리행동문제(이선화, 2013)와 낮은 학업성취(서 혁, 2007)와 언어소통장애 그리고 행동 및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정하성·우룡, 2007), 학교폭력 경험(조영달, 2006) 등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와 관계가 있다. 즉,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가 높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며 최

악의 경우 왕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조영달, 2006), 낮은 학업성취와 차별로 인해 학교 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서 혁, 2007)는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험수준이 높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모요인이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생래적(生來的)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부모간 갈등(오정아·김영희, 2015; 김오남, 2006)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오정아 외, 2014), 가족 내 경제적 문제(오정아 외, 2014; 정재민, 2012),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안선정 외, 2012) 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을 거쳐 학업중단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부모의 무관심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Astone 와 McLanahan(1991)의 주장과 부모와 긍정적 관계경험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지속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구자경(2003)의 주장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부모요인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세 번째 위험요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지역사회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상호작용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기로, 이 시기 준거집단에서 경험하는 왕따 혹은 소외감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정아 외, 2014; Ekstrom et al., 1986). 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정적 관계(오정아 외, 2014; 조아미, 2002), 교사의 무관심과 불공정한 처벌체계, 무단결석(강석영 외, 2009), 학습에 대한 무기력(정연순·이민정, 2008), 학교와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장하성·우룡, 2007) 등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 충동성을 강화시켜 학업중단을 촉발하는 위험요인이 된다(조영승 외, 2001; 이숙영, 남상인, 1997).

이 외에도 다문화 특성 중 하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은경·김종남, 2016)와 민족정체성 혼란(조아미, 2012)은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적응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또래집단에서 가치관의 충돌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학교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결국,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수집단 청소년들은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rta & Westin, 1999 양계민·조혜영, 2011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수준이 낮고 정체성 혼란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의도를 강화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업중단 의도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감소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업중단의 위험요인 간 관계에서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Garmezy, 1985). 따라서 학업중단 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인과 함께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김로라·이조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은 개인요인과 부모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환경 요인 그리고 다문화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으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력, 진로성숙(박영신·김의철, 2001), 자아탄력성(이희선, 2013), 자아정체성(이애령, 2004) 등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

두 번째 학업중단 의도를 예방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은 온정과 애정이 동반된 부모의 양육행동(오정아 외, 2014)과 부모지지(좌은아, 2010) 등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 Hirschi(1969)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볼 때 부모-자녀 관계의 유대관계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비롯하여 학업중단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되는 것이다(김옥엽 외, 2004).

세 번째로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좌은아, 2010)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에서 또래집단 혹은 교사로 애착의 대상이 확장된다(Hazan&Shaver, 1987). 애착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성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 교사 및 또래집단의 지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애착은 이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사 및 친구 지지로 인한 긍정적 관계형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수행능력과 자기조절력을 높여 학교생활 적응력(Ryan et al., 1994)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업중단 의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백승희·정혜원, 2017), 이중문화 수용성(장하성·우룡, 2007) 등이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의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계가 깊다는 기존 연구(이소연, 2016; 이수경, 2015)의 주장은 다문화수용성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력이 높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위축 그리고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들(장하성·우룡, 2007; 오성배, 2005)의 주장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성이 이들의 학교적응을 강화시키고 학업중단 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래관계를 비롯하여 가족 내 문제 그리고 외부 환경 문제 등 다문화청소년 주변의 문제 비중도 높다(양승주 외, 2016).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문제를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개인과 부모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MAPS는 2011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중단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요인을 조사한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사회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본 데이터도 외국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업중단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일반적 배경

변수	구분	2014		2015		변수	구분	2014		2015	
		N	%	N	%			N	%	N	%
성별	남학생	649	48.9	637	49.0	희망학 력 수준	고졸이하	165	12.4	184	14.1
	여학생	679	51.1	663	51.0		대졸이상	1163	87.6	1,116	85.9
	계	1328	100.0	1300	100.0		계	1328	100.0	1300	100.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033	81.6	1018	82.1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94	52.3	681	52.4
	대졸이상	233	18.4	222	17.9		대졸이상	634	47.7	619	47.6
	계	1266	100.0	1300	100.0		계	1328	100.0	1300	100.0
희망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306	23.0	293	22.5	어머니 출신 국가	중국(한족 외)	95	7.2	95	7.3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88	6.6	67	5.2		중국(조선족)	260	19.6	247	19.0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업	193	14.5	254	19.5		베트남	34	2.6	34	2.6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64	4.8	56	4.3		필리핀	345	26.0	344	26.5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86	6.5	72	5.5		일본	470	35.4	459	35.3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554	41.7	537	41.3		대만	5	0.4	5	0.4
	기타	37	2.8	21	1.6		몽골	6	0.5	6	0.5
	계	1328	100.0	1300	100.0		태국	52	3.9	51	3.9
							캄보디아	3	0.2	3	0.2
							우즈베키스탄	10	0.8	9	0.7
							러시아	12	0.9	12	0.9
							인도네시아	7	0.5	7	0.5
							카자흐스탄	4	0.3	4	0.3
							말레이시아	2	0.2	2	0.2
							키르기스스탄	4	0.3	3	0.2
							기타	19	1.4	19	1.5
	계	1328	100.0	1300	100.0		계	1328	100.0	1300	100.0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패턴, 규칙뿐만 아니라 숨겨진 지식과 예상치 않았던 패턴 및 새로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모형화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정용찬, 2013; 김신곤, 1999). 이를 위해 SPSS 23.0 program을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과 외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다양한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변수들 간 상호작용이 자동적으로 모두 분석됨으로써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들에 적합한 개입 방안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이대웅·손주희, 2015). 또한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다문화 학업중단 의도와 관련된 방대한 변인들 가운데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 주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학업중단 위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마디 또는 Node 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으로 구성되며 자료를 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 변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마디가 뺄어나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효율적인 분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더 이상 분리가 진행되지 않고 마지막 진행된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하는 정지규칙을 지정하고 형성된 의사결정나무에서 적절하지 않은 마디를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통해 최종적인 예측모형을 선택하게 된다(김동일 외, 2014). 이러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적절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나무구조의 모형으로 도식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종속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변인들 간에 발생하는 교호작용들을 모두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이경은, 이주리, 2010),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과 같은 특별한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김태완, 2014).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군집분석 후 생성된 이산형 변수이므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χ^2 적합성 검정에 근거한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Kass, 1980). CHAID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하여 분리와 정지가 진행되며 다지분리를 허용하는 장점이 있다(김동일 외, 2014). 또한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05(level of significance $\alpha=0.05$)수준으로 설정하였고, Type I error(α)를 조절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기법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위노드 10과 하위노드 3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분석 변수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2014년 4차 년도와 2015년 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업중단 의도는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등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학업중단 의도가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예측변수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외부 환경요인, 다문화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업 성취동기, 우울, 사회적 위축, 진로결정 등의 수준, 가정요인은 부모의 방임과 부모지지, 외부환경요인으로는 교사지지, 친구지지, 지역사회 차별경험, 다문화관련 요인으로는 국가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등을 선정하였다. 이에 2014년 다문화청소년 1328명과 2015년 1300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코드북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2. 주요변수 구분 및 신뢰도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Cronbach's α	
			2014	2016
종속 변수	학업중단 의도	- 개인의 학업중단 수준(평균값으로 활용: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의도가 높음을 의미)	.77	.78
예측 변수	개 인 요 인	자아 존중감 - 개인의 자존감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82	.81
		자아 탄력성 - 개인의 자아탄력성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91	.90
		성취동기 - 개인의 학업성취동기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88	.88
		우울 - 개인의 우울수준(4점 척도) 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해한다.	.92	.91
		사회적 위축 - 개인의 사회적 위축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91	.90
		학교폭력 피해 경험 - 개인의 학교폭력 피해 수준(4점척도) 예] 나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91	.91
		진로 결정 - 개인의 진로결정수준(4점척도) 예]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높은 상태이다. - 개인의 진로미결정 수준(4점 척도) 예]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86 .83	.87 .84
	가 족 요 인	방임 - 자녀에 대한 부모 방임의 수준(4점 척도) 예]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82	.84
		부모지지 - 자녀에 대한 부모의지지 수준(4점 척도) 예]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92	.91
	환 경 요 인	교사지지 - 학생에 대한 교사의지지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96	.96
		친구지지 - 개인에 대한 친구지지 수준(4점 척도) 예]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97	.98
		사회적 차별 -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 수준(4점 척도) 예]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91	.92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Cronbach's α	
			2014	2016
다문화관련요인	국가 정체성	- 개인의 국가 정체성 수준 (4점 척도) 예]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87	.88
	문화적응 스트레스	-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4점 척도) 예]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86	.86
	이중문화 수용성	- 개인의 이중문화 수용 수준(4점 척도) 예] 나는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이다.	.77	.79
	다문화 수용성	- 개인의 다문화 수용 수준(4점 척도)	.87	.89

IV. 결과

1. 전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

2014년과 2015년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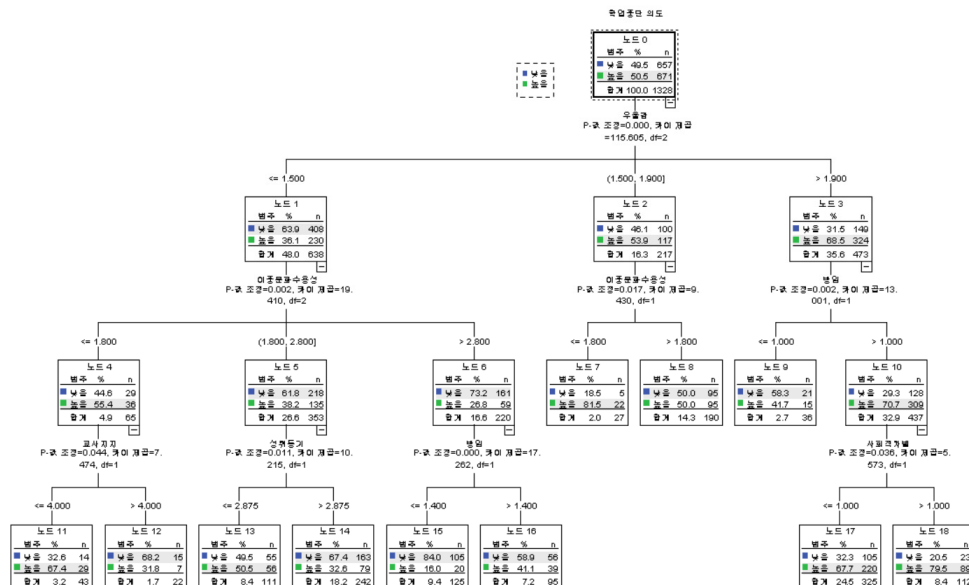


그림 1. 2014년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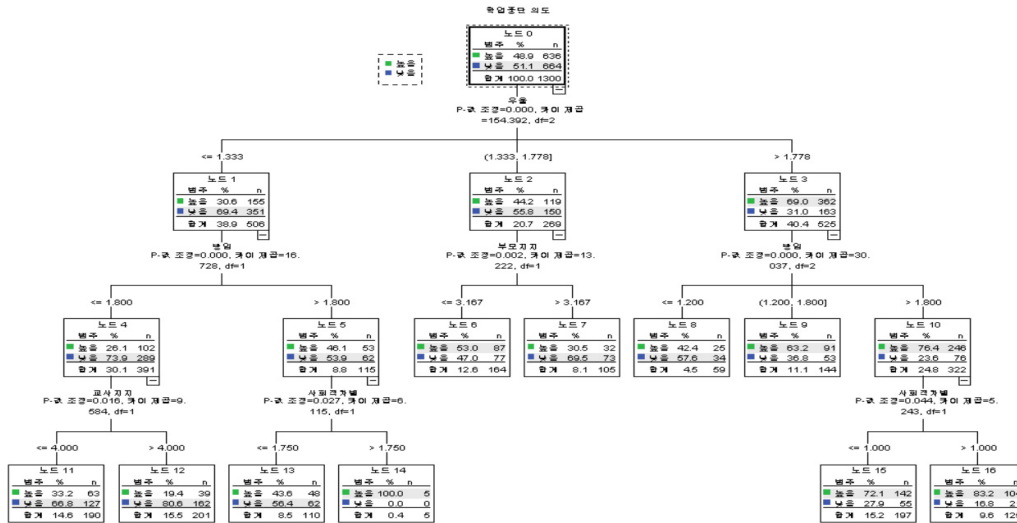


그림 2. 2015년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2014년도와 2015년 모두 학업중단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자식마디에서 2014년과 2015년 전체 다문화청소년들의 50.5%와 48.9%가 학업중단 의도가 높았다. 또한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요인은 우울로 우울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각각 68.5%, 69.0% 증가하였다. 우울이 높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각각 70.7%, 76.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방임적 양육행동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41.7%, 42.4% 감소하여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에 부모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는 각각 79.5%, 83.2%로 나타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각각 위험추정치가 0.34와 0.32,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가 모두 0.13, 분류정확도가 65.6%, 68.2%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2014년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	N	%		
7	27	2.0	22	3.3	81.5	161.3
18	112	8.4	89	13.3	79.5	157.3
17	325	24.5	220	32.8	67.7	134.0
11	43	3.2	29	4.3	67.4	133.5
13	111	8.4	56	8.3	50.5	99.8
8	190	14.3	95	14.2	50.0	99.0
9	36	2.7	15	2.2	41.7	82.5
16	95	7.2	39	5.8	41.1	81.2
14	242	18.2	79	11.8	32.6	64.6
12	22	1.7	7	1.0	31.8	63.0
15	125	9.4	20	3.0	16.0	31.7

표 4. 2015년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14	5	0.4	5	0.8	100.0	204.4
16	125	9.6	104	16.4	83.2	170.1
15	197	15.2	142	22.3	72.1	147.3
9	144	11.1	91	14.3	63.2	129.2
6	164	12.6	87	13.7	53.0	108.4
13	110	8.5	48	7.5	43.6	89.2
8	59	4.5	25	3.9	42.4	86.6
11	190	14.6	63	9.9	33.2	67.8
7	105	8.1	32	5.0	30.5	62.3
12	201	15.5	39	6.1	19.4	39.7

2. 성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1)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남학생의 학업중단 예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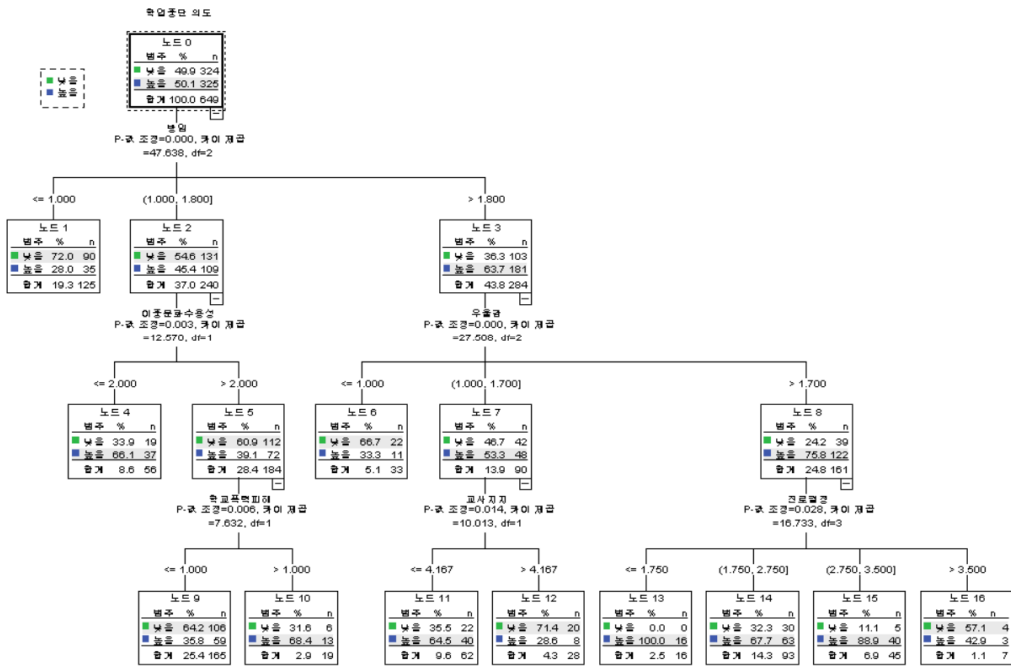


그림 3. 2014년 남학생의 학업중단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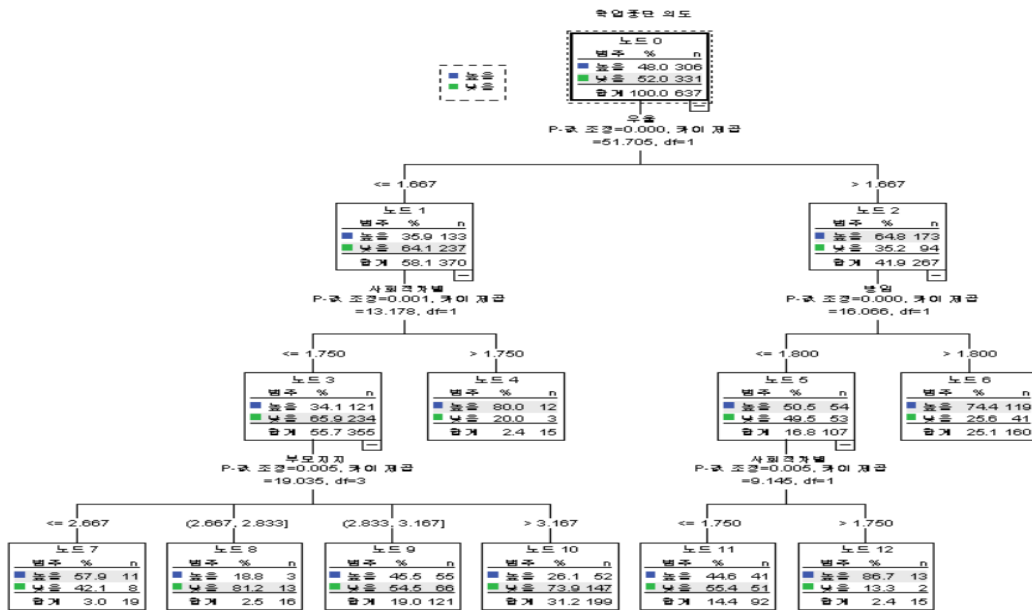


그림 4. 2015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2014년과 2015년의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학업중단 의도는 각각 50.1%와 48.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2014년에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3.7% 증가하였고,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고 우울감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75.8% 증가하였으며 진로결정성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57.1%로 증가하였다. 반면, 2015년에는 우울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4.8% 증가하였고, 우울이 높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74.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우울 수준이 보통이면 학업중단 의도가 45.4% 감소하였고, 우울수준이 보통이고 이중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39.1% 감소하였다. 반면, 2015년에는 우울이 보통 이하면 학업중단 의도가 35.9% 감소하였고, 우울이 낮고 사회적 차별이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34.1%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적 차별이 낮고 부모지지가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26.1%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각각 위험추정치가 0.31과 0.32,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가 각각 0.18과 .019, 분류정확도가 69.5%, 67.8%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다문화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2014년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13	16	2.5	16	4.9	100.0	199.7
15	45	6.9	40	12.3	88.9	177.5
10	19	2.9	13	4.0	68.4	136.6
14	93	14.3	63	19.4	67.7	135.3
4	56	8.6	37	11.4	66.1	131.9
11	62	9.6	40	12.3	64.5	128.8
16	7	1.1	3	0.9	42.9	85.6
9	165	25.4	59	18.2	35.8	71.4
6	33	5.1	11	3.4	33.3	66.6
12	28	4.3	8	2.5	28.6	57.1
1	125	19.3	35	10.8	28.0	55.9

표 6. 2015년 남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	N	%		
12	15	2.4	13	4.2	86.7	180.4
4	15	2.4	12	3.9	80.0	166.5
6	160	25.1	119	38.9	74.4	154.8
7	19	3.0	11	3.6	57.9	120.5
9	121	19.0	55	18.0	45.5	94.6
11	92	14.4	41	13.4	44.6	92.8
10	199	31.2	52	17.0	26.1	54.4
8	16	2.5	3	1.0	18.8	39.0

2) 다문화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다문화 여학생의 학업중단 예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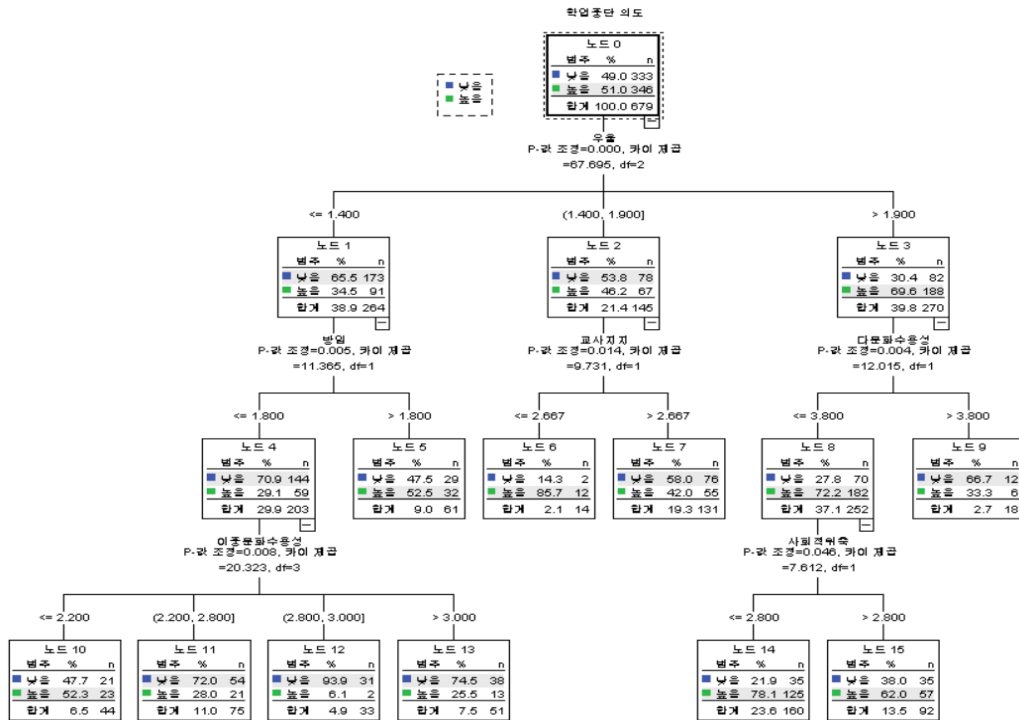


그림 5. 2014년 여학생의 학업중단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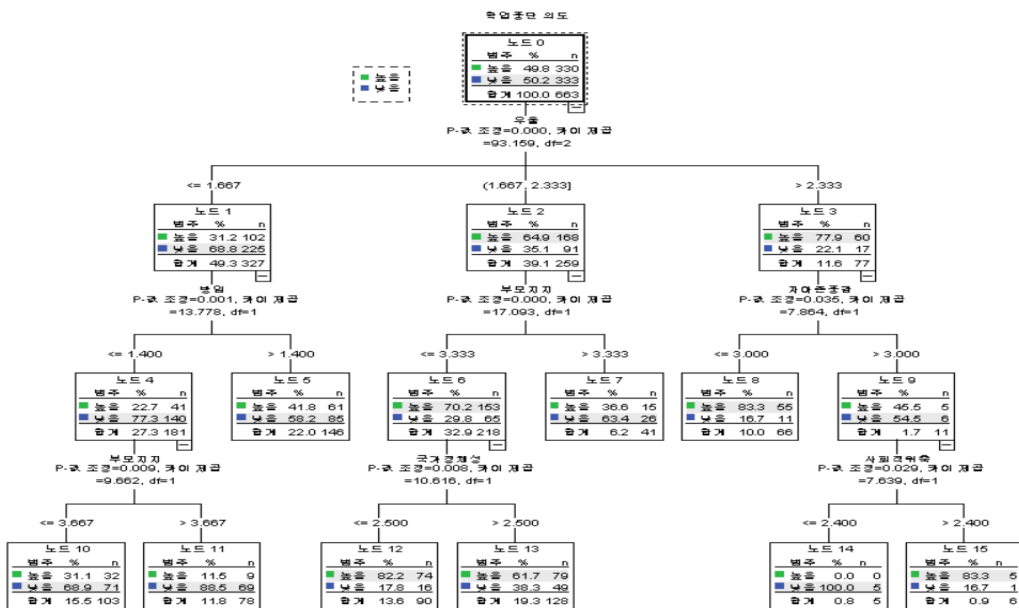


그림 6. 2015년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2014년과 2015년의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학업중단 의도는 각각 51.0%와 49.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 모두 우울 높을수록 다문화 여학생들이 학업중단 의도가 각각 69.6%, 77.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나무 깊이 3을 결정하는 예측변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차이가 있었다. 2014년에는 우울이 높고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72.7% 증가하였고,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위축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2.0% 증가하였다. 반면, 2015년에는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83.3%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는 45.5% 감소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위험추정치는 각각 0.32와 0.29,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는 모두 0.18, 분류정확도는 67.7%, 70.7%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과 2015년 다문화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7>, <표 8>과 같다.

표 7. 2014년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6	14	2.1	12	3.5	85.7	168.2
14	160	23.6	125	36.1	78.1	153.3
15	92	13.5	57	16.5	62.0	121.6
5	61	9.0	32	9.2	52.5	102.9
10	44	6.5	23	6.6	52.3	102.6
7	131	19.3	55	15.9	42.0	82.4
9	18	2.7	6	1.7	33.3	65.4
11	75	11.0	21	6.1	28.0	54.9
13	51	7.5	13	3.8	25.5	50.0
12	33	4.9	2	0.6	6.1	11.9

표 8. 2015년 여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8	66	10.0	55	16.7	83.3	167.4
15	6	0.9	5	1.5	83.3	167.4
12	90	13.6	74	22.4	82.2	165.2
13	128	19.3	79	23.9	61.7	124.0
5	146	22.0	61	18.5	41.8	83.9
7	41	6.2	15	4.5	36.6	73.5
10	103	15.5	32	9.7	31.1	62.4
11	78	11.8	9	2.7	11.5	23.2
14	5	0.8	0	0.0	0.0	0.0

3. 국가별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의도

1)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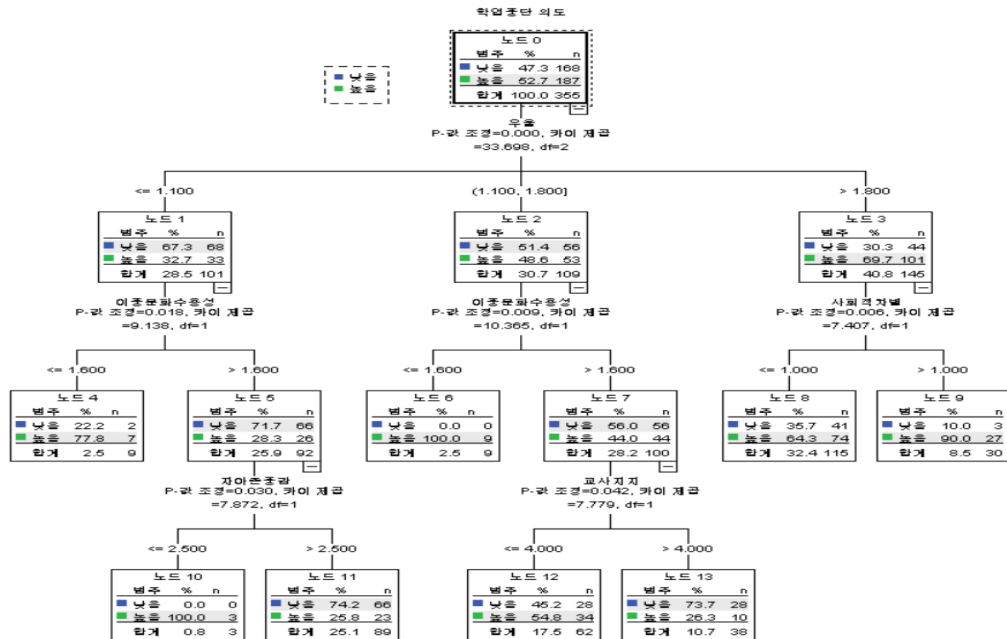


그림 7. 2014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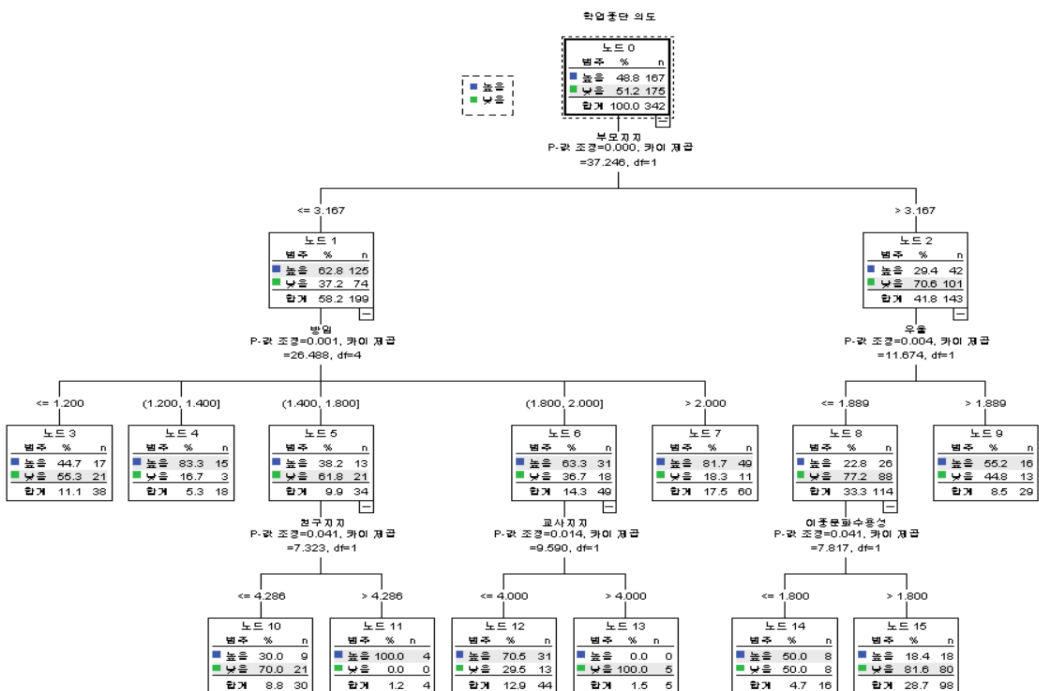


그림 8. 2015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2014년과 2015년의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학업중단 의도는 각각 52.7%와 48.8%로 나타났지만 그 다음을 예측하는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2014년에는 우울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69.7% 증가하였고 우울이 높고 사회적 차별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90.0%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울이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32.7%로 감소하였고, 우울이 낮고 이중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28.3% 감소하였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는 25.8% 감소하였다.

반면, 2015년에는 부모지지가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29.4% 감소하였고, 부모지지가 높고 우울이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22.8% 감소하였다. 또한 우울이 낮고 이중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18.4%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모지지가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2.8% 증가하였고, 부모지지가 낮고 부모 방임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81.7% 증가하였다.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위험추정치는 각각 0.30과 0.27,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는 모두 0.02, 분류정확도는 69.9%, 73.1%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과 2015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9>, <표 10>과 같다.

표 9. 2014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6	9	2.5	9	4.8	100.0	189.8
10	3	0.8	3	1.6	100.0	189.8
9	30	8.5	27	14.4	90.0	170.9
4	9	2.5	7	3.7	77.8	147.7
8	115	32.4	74	39.6	64.3	122.2
12	62	17.5	34	18.2	54.8	104.1
13	38	10.7	10	5.3	26.3	50.0
11	89	25.1	23	12.3	25.8	49.1

표 10. 2015년 중국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11	4	1.2	4	2.4	100.0	204.8
4	18	5.3	15	9.0	83.3	170.7
7	60	17.5	49	29.3	81.7	167.2
12	44	12.9	31	18.6	70.5	144.3
9	29	8.5	16	9.6	55.2	113.0
14	16	4.7	8	4.8	50.0	102.4
3	38	11.1	17	10.2	44.7	91.6
10	30	8.8	9	5.4	30.0	61.4
15	98	28.7	18	10.8	18.4	37.6
13	5	1.5	0	0.0	0.0	0.0

2)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예측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9], <표 11> 과 [그림 10], <표 1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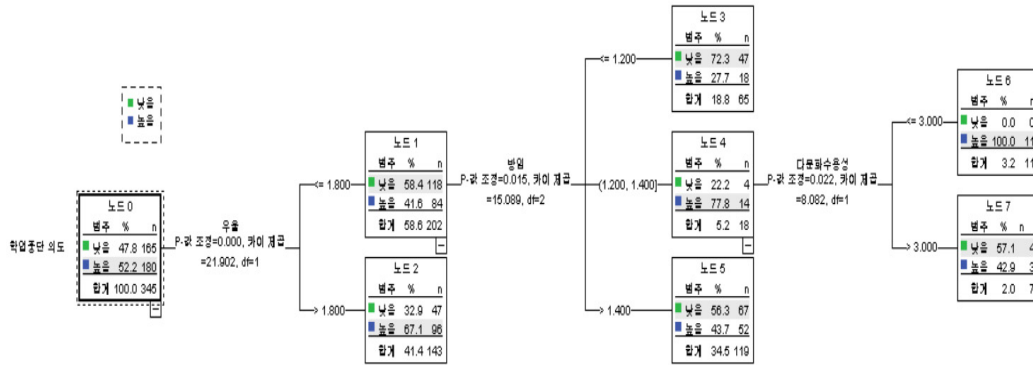


그림 9. 2014년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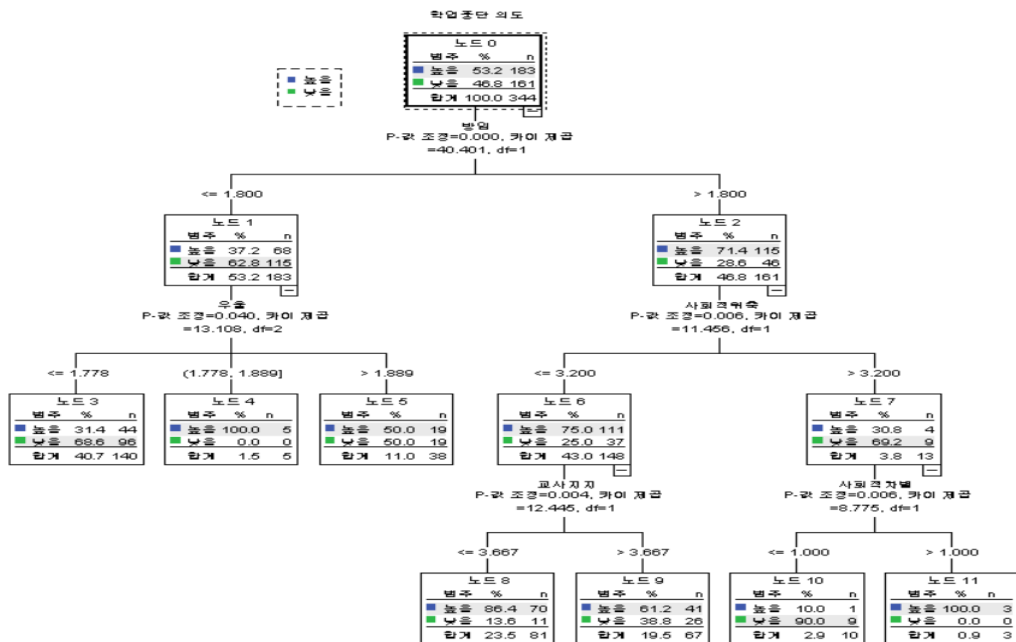


그림 10. 2015년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2014년과 2015년의 필리핀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학업중단 의도는 각각 52.2%와 53.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2014년도는 우울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7.1% 증가한 반면, 우울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41.6% 감소하였다. 또한 우울이 낮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낮은 경우 학업중단 의도가 27.7%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 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71.4% 증가하였고, 부모의 방임이 높고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 의

도는 30.8% 증가하였다.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위험추정치는 각각 0.35와 0.29,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는 각각 0.03과 0.02, 분류정확도는 65.2%, 70.6%으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과 2015년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2014년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6	11	3.2	11	6.1	100.0	191.7
2	143	41.4	96	53.3	67.1	128.7
5	119	34.5	52	28.9	43.7	83.8
7	7	2.0	3	1.7	42.9	82.1
3	65	18.8	18	10.0	27.7	53.1

표 12. 2015년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4	5	1.5	5	2.7	100.0	188.0
11	3	0.9	3	1.6	100.0	188.0
8	81	23.5	70	38.3	86.4	162.5
9	67	19.5	41	22.4	61.2	115.0
5	38	11.0	19	10.4	50.0	94.0
3	140	40.7	44	24.0	31.4	59.1
10	10	2.9	1	0.5	10.0	18.8

3)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예측 모형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1]과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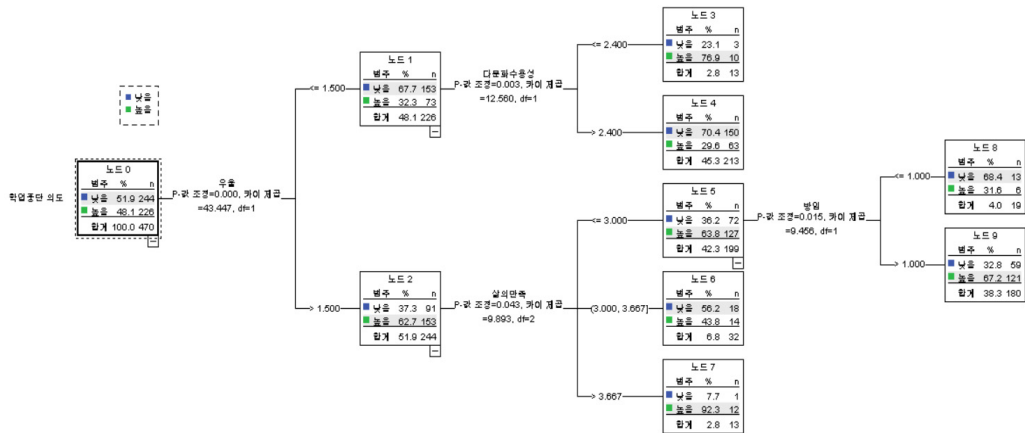


그림 11. 2014년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예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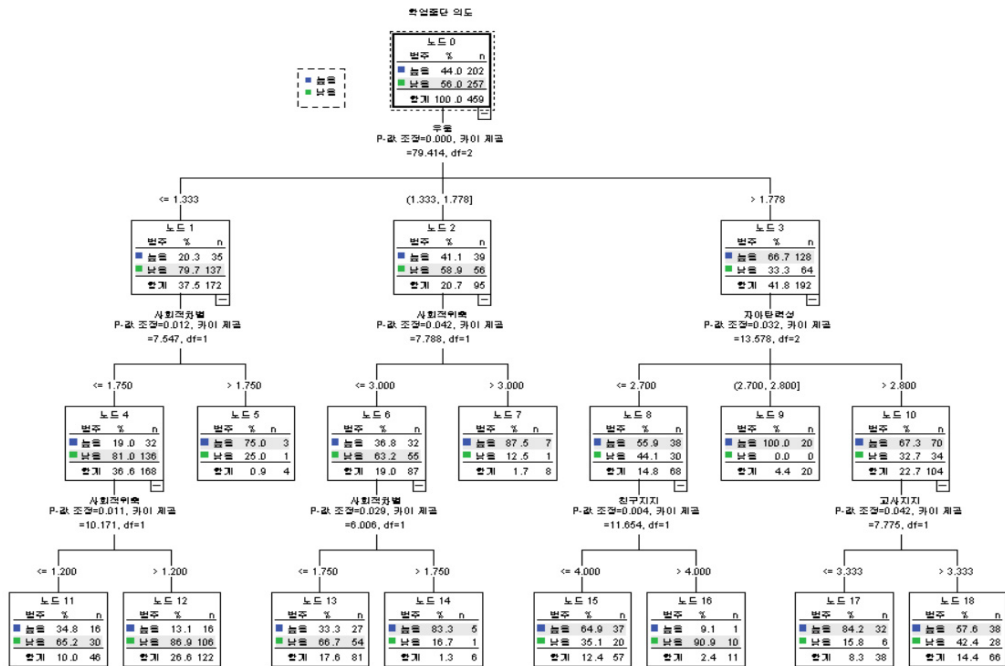


그림 12. 2015년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 모형

2014년의 경우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는 48.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우울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62.7%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이 높고 삶의 만족이 낮을수록 학업중단 의도는 63.8% 증가하였고, 삶의 만족이 낮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67.2% 증가하였다.

반면, 2015년에는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학업중단 의도는 44.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우울이 높으면 학업중단 의도가 66.7%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55.9% 증가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낮고 친구지지가 낮으면 학업중단 의도는 64.9% 증가하여,

2014년도와 2015년도에서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험추정치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결과, 2014년도와 2015년도 위험추정치는 각각 0.31과 0.26으로 나타났고, 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는 모두 0.02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는 68.9%, 74.5%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과 2015년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에 대한 이익도표는 다음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2014년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8	29	6.2	25	11.1	86.2	179.3
3	13	2.8	10	4.4	76.9	160.0
7	165	35.1	105	46.5	63.6	132.3
5	50	10.6	23	10.2	46.0	95.7
4	213	45.3	63	27.9	29.6	61.5

표 14. 2015년 일본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	지수: %
	N	%	N	%		
9	20	4.4	20	9.9	100.0	227.2
7	8	1.7	7	3.5	87.5	198.8
17	38	8.3	32	15.8	84.2	191.3
14	6	1.3	5	2.5	83.3	189.4
5	4	0.9	3	1.5	75.0	170.4
15	57	12.4	37	18.3	64.9	147.5
18	66	14.4	38	18.8	57.6	130.8
11	46	10.0	16	7.9	34.8	79.0
13	81	17.6	27	13.4	33.3	75.7
12	122	26.6	16	7.9	13.1	29.8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 의도를 결정하는 변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차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과 2015년 전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우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 사회적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지속력을 높이고 학업중단 의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 Wee센터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 기반이 된 상담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성별에 따라 학업중단 의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은 2014년에서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이 예측하는 변인이 부모의 방임이었던 반면, 2015년에는 우울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우울이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2014년에는 다문화수용성, 2015년에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회복을 통해 이들의 학업 적응력을 높여준다면, 학업중단 의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2014년에 다문화 수용성이 이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혹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측요인이 변한다는 것은 학교와 복지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적 접근 방법이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학업중단 의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중국 국적인 경우 2014년에는 우울이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면, 2015년에는 부모지지가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도 부모지지 다음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2014년에는 우울에서 2015년에는 부모의 방임이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적 어머니 가정 다문화청소년들은 2014년과 20년 모두 우울이 학업중단 의도를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나무 깊이 3을 결정하는 변인에서 2014년에는 삶의 만족이 낮고 방임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의도가 높았고, 2015년에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학업중단 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과 필리핀, 일본 국적 가정의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적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과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밝혀내어 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적응 및 학업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학업중단 양상이 다를 것이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외에 다양한 국적을 다진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여 검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추후에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박나미 (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교육부 (2016). 2016, 교육통계.
- _____ (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전년대비 4,836명 감소. 보도자료.
- _____ (2014). 2014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김동일, 박희찬, 홍서두, 이해린, 고해정 (2014). 직업적 장애선별과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토콜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1-23.
- 김로라, 이조경 (2016).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53-81.
- 김문수 (2014). 청소년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 김신곤 (1999).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저널, 6(1), 89-101.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4.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은경, 김종남(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태완 (2014).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재범 관련요인 연구-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5호, 129-151.
- 김혜정, 유진이 (200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7(3), 17-32.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4(1), 299-317.
- 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건강·운동·조직에서의 성취. 교육과학사.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백승희, 정혜원 (2017).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과 공동체적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1), 151-182.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2.
- 서 혁 (2007).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57-92.
- 아영아 (2016). 학대적 양육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4), 137-162.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승주, 신현옥, 윤상석, 허은영, 김송이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방안. 교육부.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영훈, 임한나 (2014).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를 통한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국립청소년수련원 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143-172.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35-261.
- 오정아, 김영희, 김정은 (2014). 청소년들의 학업중도포기과정. *한국청소년 연구*, 21(5), 141-168.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이정은, 이주리 (2010). 기초생활보장 가정 아동의 인지발달 예측모형 :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17(1), 227-242.
- 이대웅, 손주희 (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위험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7-54.
- 이소연 (2016). 청소년의 사회적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 학연구*, 22(10), 27-48.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애령 (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우 (2012). 청소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293-314.
- 이희선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하성, 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87-88.
- 좌은아 (2010).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인식 및 정서표현성이 학업중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성걸, 김현주 (2014). 청소년의 인종간 우정에 미치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의 효과: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83-205.
- 정문경 (201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137-162.
- 정연순, 이민경 (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1.
-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_____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과 대응방안. *청소년행동연구*, 17, 1-13.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11-76.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경기도청.
-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1-19.

- 홍봉선, 아영아 (2015). 경제·가정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PIE 모듈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청.
- Astone, N. M., & McLanahan, S. S.(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l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Ekstrom, R, Goertz, M. E., Pollack, J. M., & Rock, D. A. (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 Garm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New York: Pergamon.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 511.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ss, G. V. (1980). An exploratory technique for investigating large quantities of categoric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Applied Statistics)*, 29(2), 119-127.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 226-24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지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MAPS) 자료 중 5차(2015년) 자료이다. 전체 자료 중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의식에 대한 설문이 포함된 2014년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연구에 참여했던 1,3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변인을 설정하고 각 변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진로의식은 개인 차원의 비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성취동기는 전체 변수 중 진로의식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변인이었다. 진로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대해서는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비행, 학교 밖 어른 여부의 순으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 어른 여부, 학업성취가 유의미한 설명 변수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려는 기초연구로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개입 가능한 변인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진로의식, 중다회귀분석,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MAPS)

I. 서론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초기에는 언어적 지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진학과 진로의 문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선혜연, 2015; 장임숙, 김희재, 2014, 조영달, 김재근, 박윤경, 2011).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진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관된다.

청소년의 진로의식은 진로성숙, 진로발달이라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eduzykim@kmu.ac.kr

정력을 예견하고 자신의 삶에 주도권을 갖게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진로의식은 미래의 학습을 예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을 결정하는 변인이며 학교생활부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진로에 대한 의식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연관되어 있다(Lazarus, 1969; 조성심, 주석진, 2014, 재인용).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발달에 대해 연구된 내용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임숙, 김희재(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직업도 모호한 상태인데 이에 더해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성배, 서덕희(2012)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 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선혜연(201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 진로흥미, 진로인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변인들과 자아개념, 자아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상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편수가 많지 않고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물이 1년에 6~7편에 불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반가정 또는 비 다문화라고 불리는 비교군과의 비교분석(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정은진, 2012), 또는 지역적인 차이를 두고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김민정, 정미경, 2014)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 비추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김민정, 정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일반 가정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또한 경기도와 경북이라는 지역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문제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김민정, 정미경(2014)의 연구 결과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인식이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진로인식이 변화 가능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다문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지역사회변인은 무엇인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진로의식

청소년의 시기 중 중학생의 시기는 탐색기의 시작단계인 결정화기(crystallization)에 해당하는 시기로 성장기에 획득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된다(김봉환 외, 2010). 하지만 임상적인 경험에 따르면 국내의 학업 환경에서 중학생의 시기에 적절한 진로의식을 갖고 주도적인 탐색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발달과업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의 시기 중 중학생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되는 바,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비 다문화청소년들에게도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진로 의사결정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의식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하고 일관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관, 직업관, 가치관, 진로관 등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진로준비의 구체적인 출발점은 진로의식에서 시작되며 이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선행되는 것이다(오성배, 서덕희, 2012).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진로의식’은 해당 패널 자료의 변인 설명 내용에서 ‘결정성’이라고 명명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결과적인 관점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해가는 과정적인 의미의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진로성숙도 검사(임연, 정운경, 상경아, 2001)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 독립성, 그리고 진로성숙도 C형 척도(Savickas & Porfeli, 2011)의 관심(concern)이라는 변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관심을 두고 특히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는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들로 이해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0). 이러한 다문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경우 다문화가정이라 부르며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이라 부른다(선혜연, 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흥미, 진로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변인들과 자아개념, 자아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상관연구가 주요하다(선혜연, 2015). 하지만 선혜연(2015)의 분석 결과 2010-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다문화

학생 진로에 대한 연구들은 총 23편에 불과하며 이 역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향후 몇 년간의 시기는 특별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문제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오성배, 서덕희, 2012).

앞서 선헤연(2015)의 동향연구에서 언급된 진로관련변인들을 논의의 편의상 진로발달이라 명명할 때,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이다. 최선애(2017)의 연구에서는 국, 영, 수 성적과 진로교육 성과의 상관관계는 일반고나 특성화고 다문화학생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진로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유비, 김기현(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사이에 우울, 자존감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변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차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진로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가정적인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김혜정(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실시하고 아버지 지지의 수준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윤대영(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이를 통해 진로발달을 위한 다양한 진로준비 프로그램과 가족적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학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내용이다. 최선애(2017)의 연구에서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 다문화학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고 다문화학생의 경우, 진로상담은 진로교육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성화고 다문화학생의 경우 진로상담, 진로체험이 진로교육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의 유의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개인적인 변인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갖기 위한 지원방안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김민정(2015)의 연구에서는 질적인 탐색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진로 초석 다지기의 범주에서 친구와 선생님이라는 가족 밖의 조언자들과 가족이라는 조언자들이'힘이 되는 내 편들'이라고 정리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김민정, 정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경기와 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비교하였을 때 경기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인식이 경북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양할 수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의 수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일부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인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MAPS) 자료 중 5차(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리 과정에서 [진로의식]에 대한 설문을 시작하였던 2014년을 기준으로 2014년(4차)과 2015년(5차)에 모두 설문에 참여한 학생 1,34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당시 학생들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4차), 중학교 2학년(5차)에 재학 중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응답 자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N=1,343, 응답별 결측치 제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58	49.0
	여	685	51.0
거주지역	서울	142	10.6
	경기, 인천	345	25.7
	강원도	81	6.0
	경상도	309	23.0
	충청도	179	13.3
	전라도	276	20.6
	제주	11	0.8
외국인출신부모	아버지	45	3.4
	어머니	1295	96.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외국인	3	0.2
부모님과 대화언어	한국어로만	1085	80.8
	한국어 대부분+부모님 언어 약간	148	11.0
	한국어와 부모님 언어 반반	32	2.4
	한국어 약간+부모님 언어 대부분	6	0.4
	부모님 언어만	11	0.8
	기타, 잘 모르겠다	16	1.1
직업포부	일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직업	554	41.3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302	22.5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262	19.5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업	73	5.4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70	5.2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	58	4.3
	기타	24	1.8

본 연구의 변인 구성 및 관련 문항 예시자료는 다음 <표 2>와 같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영역별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예시문항, 리커트 정보 및 신뢰도 계수를 함께 정리하였다. 각 변인 내에서 높은 점수는 각 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역산이 필요한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합 점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 변인의 높은 점수는 우울 정도가 높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나타내며, 교사의 지지의 높은 점수는 교사의 지지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 2. 변인 구성 및 설명

영역	변인	변인설명 및 문항 예시	문항 수, 척도	신뢰도
개인	[정서] 우울	학생의 기분,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 (예)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10, 4점 척도	.908
	[정서] 성취동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신의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 (예)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	8, 4점 척도	.877
	[인지] 학업성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 성취도에 대한 평가.	5, 4점 척도	.791
	[행동] 비행	지난 1년간의 비행 행동(담배, 술, 가출, 학교결석, 성인 사이트, 절도, 폭력 등)에 대한 여부 표기. (예)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2, 2점(유무)	.550
가정	[언어] 모의 한국어 능력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4, 4점 척도	.906
	[관계] 부모의 지지	부모의 지지. (예)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심.	6, 4점 척도	.910
	[관계]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 (예)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음.	7, 4점 척도	.947
학교	[관계] 교사 지지	교사의 지지. (예)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함.	6, 4점 척도	.964
	[관계] 친구 지지	친구의 지지. (예)나를 좋아함.	7, 4점 척도	.967
지역 사회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동네의 안정성에 대한 생각. (예)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6, 4점 척도	.736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도와주는 어른 여부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의 여부.	1, 2점(유무)	-
진로 의식	진로의식 (진로결정성)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정도. (예)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음.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놓음.	10, 4점 척도	.876

2.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수준과 독립변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진로의식과 독립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한 후 독립변수로 설정한 요인들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 과정에서는 SPSS 21.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상관분석(전체)

구분(전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우울	1	.321**	.263**	.085**	.146**	.414**	.444**	.339**	.446**	.340**	.120**	.271**
2. 성취동기		1	.429**	.026	.184**	.430**	.368**	.367**	.370**	.276**	.181**	.350**
3. 학업성취			1	.121**	.134**	.283**	.266**	.341**	.299**	.256**	.168**	.151**
4. 비행				1	-.029	.054*	.095**	.079**	.041	.092**	.040	-.030
5. 모의 한국어 능력					1	.207**	.181**	.143**	.204**	.145**	.110**	.181**
6. 부모의 지지						1	.757**	.435**	.412**	.344**	.196**	.190**
7. 가족의 지지							1	.433**	.421**	.358**	.177**	.197**
8. 교사의 지지								1	.560**	.369**	.182**	.234**
9. 친구의 지지									1	.334**	.213**	.218**
10.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1	.151**	.164**
11. 학교밖여름 여부											1	.143**
12. 진로의식												1
평균	33.07	24.34	15.44	23.86	13.02	19.23	22.34	22.60	28.84	17.78	1.35	25.61
표준편차	5.36	3.61	3.73	0.53	2.24	3.10	3.83	5.06	5.21	2.98	0.48	5.55
유효응답수	1343	1343	1343	1343	1294	1343	1343	1343	1343	1343	1343	1343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상관분석(남)

구분(남학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우울	1	.312**	.265**	.122**	.187**	.436**	.428**	.348**	.517**	.353**	.172**	.264**
2. 성취동기		1	.421**	.035	.197**	.418**	.335**	.377**	.407**	.225**	.176**	.360**
3. 학업성취			1	.135**	.175**	.282**	.247**	.301**	.321**	.249**	.182**	.217**
4. 비행				1	-.037	.074	.114**	.062	.048	.087*	.060	-.005
5. 모의 한국어 능력					1	.247**	.199**	.152**	.236**	.166**	.066	.217**
6. 부모의 지지						1	.744**	.462**	.464**	.369**	.188**	.160**
7. 가족의 지지							1	.446**	.450**	.397**	.175**	.181**
8. 교사의 지지								1	.615**	.365**	.208**	.273**
9. 친구의 지지									1	.409**	.221**	.252**
10.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1	.159**	.112**
11. 학교밖어른 여부											1	.136**
12. 진로 의식												1
평균	33.78	24.40	15.62	23.79	12.93	19.37	22.56	22.81	28.67	17.99	1.34	25.79
표준편차	5.17	3.65	3.77	0.63	2.24	3.05	3.81	5.02	5.10	3.03	0.48	5.39
유효응답수	658	658	658	658	635	658	658	658	658	658	658	658

표 5.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상관분석(여)

구분(여학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우울	1	.331**	.255**	.083*	.121**	.391**	.452**	.328**	.399**	.318**	.079*	.273**
2. 성취동기		1	.436**	.020	.172**	.441**	.399**	.356**	.337**	.326**	.187**	.342**
3. 학업성취			1	.125**	.099*	.280**	.282**	.377**	.283**	.257**	.155**	.089*
4. 비행				1	-.033	.045	.095*	.125**	.024	.129**	.010	-.057
5. 모의 한국어 능력					1	.174**	.170**	.137**	.173**	.130**	.150**	.152**
6. 부모의 지지						1	.768**	.407**	.369**	.315**	.205**	.215**
7. 가족의 지지							1	.418**	.400**	.315**	.182**	.208**
8. 교사의 지지								1	.514**	.371**	.160**	.197**
9. 친구의 지지									1	.270**	.204**	.191**
10.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1	.146**	.210**
11. 학교밖어른 여부											1	.151**
12. 진로 의식												1
평균	32.40	24.28	15.27	23.92	13.12	19.09	22.12	22.40	29.01	17.59	1.36	25.44
표준편차	5.45	3.57	3.69	0.40	2.23	3.13	3.84	5.10	5.32	2.91	0.48	5.71
유효응답수	685	685	685	685	659	685	685	685	685	685	685	685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6. 진로의식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전체, n=1,34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6808.607	6	1134.768	44.053	.000
잔차	33151.711	1287	25.759		
합계	39960.318	1293			
R^2 (adj. R^2)= .170(.167)					

4개 영역, 11개의 독립변수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학업성취, 가족의 지지,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비행, 학교 밖 어른 여부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44.05,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의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의식 총 변화량의 1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6.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7. 진로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전체, n=1,343)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9.19	6.47		2.96	.003
성취동기	0.37	0.04	0.24	8.36	.000
우울	0.16	0.03	0.16	5.63	.000
모의한국어능력	0.24	0.06	0.10	3.66	.000
교사의 지지	0.09	0.03	0.08	2.79	.005
비행	-0.58	0.27	-0.06	-2.16	.031
학교밖어른여부	0.65	0.30	0.06	2.13	.033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진로 성숙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취동기($t=8.36$, $p=.000$), 우울($t=5.63$, $p=.000$), 모의 한국어 능력($t=3.66$, $p=.000$), 교사의 지지($t=2.79$, $p=.005$), 비행($t=-2.16$, $p=.031$), 학교 밖 어른 여부($t=2.13$, $p=.033$)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비행, 학교 밖 어른 여부의 순으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다문화 남자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8. 진로의식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남학생, n=635, 모가 외국인인 경우만 분석, 결측치 제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3498.789	5	699.758	29.458	.000
잔차	14941.283	629	23.754		
합계	18440.072	634			

R^2 (adj. R^2)= .190(.183)

다문화 남자 청소년 6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개 영역, 11개의 독립변수로 다문화 남자 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학업성취, 비행,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학교 밖 어른 여부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부모의 지지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29.458,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의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의식 총 변화량의 19%(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8.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9. 진로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남학생, n=635)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471	1.802		3.590	.000
성취동기	.410	.061	.275	6.693	.000
우울	.158	.043	.152	3.702	.000
모의한국어능력	.337	.090	.140	3.756	.000
교사의 지지	.164	.045	.152	3.612	.000
부모의 지지	-.212	.080	-.119	-2.650	.008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진로성숙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취동기($t=6.69$, $p=.000$), 우울($t=3.72$, $p=.000$), 모의 한국어 능력($t=3.75$, $p=.000$), 교사의 지지($t=3.61$, $p=.000$), 부모의 지지($t=-2.65$, $p=.008$)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부모의 지지의 순으로 다문화 남자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다문화 여자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표 10. 진로의식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여학생, n=659)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3468.093	5	693.619	25.182	.000
잔차	17986.229	653	27.544		
합계	21454.322	658			
R^2 (adj. R^2)= .162(.155)					

다문화 여자 청소년 65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개 영역, 11개의 독립변수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비행, 가족의 지지,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성취동기, 우울, 학교 밖 어른 여부, 학업성취, 모의 한국어 능력이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25.18,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의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진로의식 총 변화량의 16.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5.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11. 진로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여학생, n=659)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216	1.873		3.319	.001
성취동기	.441	.067	.276	6.573	.000
우울	.205	.040	.196	5.102	.000
학교밖어른여부	1.012	.440	.085	2.303	.022
학업성취	-.140	.063	-.090	-2.230	.026
모의한국어능력	.197	.094	.077	2.095	.037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진로성숙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취동기($t=6.57$, $p=.000$), 우울($t=5.10$, $p=.000$), 학교 밖 어른 여부($t=2.30$, $p=.022$), 학업성취($t=-2.23$, $p=.026$), 모의 한국어 능력($t=2.09$, $p=.037$))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성취동기, 우울, 학교 밖 어른 여부, 학업성취, 모의 한국어 능력의 순으로 다문화 여자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변인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게 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다문화청소년 집단에서는 성취동기, 우울,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비행, 학교 밖 어른 여부의 순으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성취동기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 중에서 진로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차례로 우울, 즉 정서적 안정성이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변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중 개인 내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원 시 심리, 정서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취동기와 진로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지만 비 다문화청소년에게 성취동기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박경희, 2017; 전병환, 2013)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취동기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설명력이 큰 변인은 모의 한국어 능력이었는데 이는 앞서 여러 다문화청소년 대상 연구(양계민, 조혜영, 2012)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성을 논의하였던 변인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다른 국적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모의 한국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이현미, 정제영(2017)의 연구에서 경기교육종단연구의 중학교 2학년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학습자로서 자기 이해, 여가 및 취미활동 시간, 부모 신뢰관계, 부모양육태도, 동아리활동, 친구 상호작용, 교사 상호작용이 분석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현미, 정제영(2017)의 연구와 본 연구의 변인설정, 변인의 설명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문제에서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면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의 중요성이 언급된 반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의 중요성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면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성취동기와 우울이라는 변인이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공통적이었으며 세 번째 영향 요인부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의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부모의 지지,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밖 어른 여부, 학업성취, 모의 한국어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볼 때 남학생의 진로의식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보다 모의 한국어 능력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교사와 부모의 지지 등 중요한 성인의 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학업성취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모의 한국어 능력이 다음

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결과에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는 것은 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 여부가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남학생의 결과와 다른 부분이다. 이는 Super(1953), Gottfredson(1981)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초, 중학교의 시기는 진로발달에 있어 호기심을 기초로 중요 인물과 정보교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흥미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기개념을 형성해나간다고 한 부분과 연관된다(선혜연, 2015). 그 중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진로의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학교 밖 지역사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과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역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할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생태체계적 관점(조성심, 주석진, 2014)을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진로의식에의 영향관계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201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라진 부분은 김영신 외(2012)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일면 다르게 나타났다는 면과 연관된다. 즉, 성별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 여학생보다 교사의 지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지원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교사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던 내용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발달적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신 외(2012)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의 잠재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성취동기, 우울과 같은 개인변인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인의 향상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을 통한 성취동기의 향상과 정서적 안정성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적 차원에서 모의 한국어 능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적절한 지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 멘토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지지 및 학교 밖 중요한 어른의 관심과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자료에서 측정된 진로의식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내용 중 구체적이고 미세한 일부분만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패널자료에서 진로의식의 측정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영은, 정철영, 이진남(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대안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경우에 진로대안 영역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의 진로의식 역시 이러한 발달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종단연구를 실시할 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문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의 주요 진로 결정의 내용은 어떠한지, 성취동기의 형성과정은 어떠한지,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할모델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경(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김민정, 정미경(201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 비교 연구 - 경기도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0(2), 265-291.
- 김봉환 외(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영신, 신철균, 김현진(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기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5(2), 161-185.
- 김영은, 정철영, 이진남(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69-194.
- 김혜정(2016).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경희(201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가 진로성숙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선혜연(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0.
- 양계민, 조혜영(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오성배, 서덕희(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유비, 김기현(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 윤대영(2016).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현미, 정제영(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기중단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임연,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임숙, 김희재(2014). 특집: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전병환(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낙관성, 성취동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정은진(2012).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 조성심, 주석진(2014).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멘토링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7, 51-82.
- 조영달, 김재근, 박윤경(201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7, 33-65.
- 최선애(2017).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1). Revis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adaptability for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4), 355-374.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매개 효과

김양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발달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연결성을 발견하고자 실시되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에 참여한 남녀 중학생 1,34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탐색한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상담과 관련된 이론적, 실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진로결정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I. 서론

한국의 비(非) 다문화청소년들(이하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준비를 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진로에 대하여 다양한 시험적인 사고를 해보는 시기에 해당하는데(Super, 1957),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제공되는 자원의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가늠해볼 수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9만 9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2% 증가하고 있는 등(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이들의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위한 적절한 심리적·사회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에는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자녀 등을 모두 포함되므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할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kimryang@ewha.ac.kr

수는 없지만,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해체의 가능성, 양육자의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중 문화에 따른 문화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을 경우에 청소년들의 생활 중심이 되는 학교 장면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외모에 따른 차별과 정체성 혼란의 경험들도 이들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의 교사 및 또래들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학업성취에 매진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오정아, 김영희, 2015).

다문화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적 위험 요인들을 뚫고 자신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이루어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이들의 주된 활동 영역인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원을 자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리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상담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선행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서진희, 이제경, 2009; 유소영, 2013), 다문화청소년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지원으로는 부모, 친구, 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남상아, 백지숙, 2011),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김순규,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어떤 경로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진로발달의 과정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아나가는 과정임(Super, 1957)을 고려해본다면 진로결정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다문화청소년은 명확한 진로선택을 하는 등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민경, 2014; 최윤미, 이문희, 2011).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 중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관계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열악한 환경과 같은 위험 요인(risk factor)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데, 다문화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 등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임선모, 2012), 다문화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이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이를 강화하는 보호 요인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보호 요인인 사회적지지와 개인 내적 보호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이 속해있는 다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발달적인 어려움 외에도 학업과 진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선모, 2012). 다문화청소년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중한 인적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들을 위한 진로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맥락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고 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통하여 진로결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非) 다문화가정(이하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조봉환, 2011; 김효영, 2011), 이들의 진로발달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민족 사상과 단일 언어 사용의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의 문화적 환경 안에서 이중문화에 속해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다양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잘못된 편견에 따른 사회문화적 제약점들을 감당하며(남부현, 최충옥, 2012) 문화 적응을 해나가고 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임선모, 2012; 최인숙, 2010)

이러한 적응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정하성, 2009), 실질적으로는 학업성적 부진 및 학교 적응 어려움(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오정아, 김영희, 2015)을 호소하고, 학교 중도 탈락 문제(임선모, 2012)를 겪으며, 낮은 상급 학교 진학률(설동훈 외, 2005)을 보이는 등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학업 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진로발달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자존감(김갑성, 2008)과 함께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박주희, 남지숙, 2010)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와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소속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질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유비, 김기현, 2015), 다문화가정의 65%가 경제적으로 중하 이하의 계층에 속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장임숙, 이희재, 2014),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전체 다문화가정의 60%에 달한다는(남부현, 최충옥, 2012) 보고처럼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는 진로 목표 및 포부 설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김민경, 2015), 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부모들도 일반 가정의 부모들처럼 높은 비율로 자녀가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등(결혼이주민: 66%, 결혼이주민 배우자: 66.8%) 자녀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녀의 학습 및 진학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양계민 외, 2016; 장임숙, 이희재, 2014),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진로발달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설동훈 외(2005)에 따르면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소외나 놀림 혹은 폭력의 대상이 되어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갑성, 2008).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가정에서 보내게 되므로 친구, 교사와의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윤아름, 2013),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친구 관계는 교류의 즐거움,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을 제공하며,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지적 성장과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김혜민, 2011),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장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나아가서는 정체성의 반영인 진로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진로결정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한 진로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다양한 가치관을 잘 점검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결정이란 개인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방향성과 진로선택에 관한 결정을 확신하는 정도이다(Crites, 1978). 진로결정성은 진로목적성, 진로준비성처럼 진로성숙도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이기학, 한종철, 1997), 개인이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과 연결된 문제이며, 개인이 진로에 대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 직업의 선택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이다(유계식, 이재창, 1997).

진로발달 학자인 Super(1957)는 진로발달의 단계를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학생 시

기는 성장기의 하위 단계인 능력기와 탐색기의 하위 단계인 잠정기에 걸쳐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개인은 진로결정에 있어 점차로 자신의 진로 흥미, 능력, 가치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를 시행해보게 된다고 하였다(Super, 1957). 이에 앞서 또 다른 진로발달 학자인 Ginzberg 등(1951)은 이 시기를 잠정적 선택단계(11-17세)로 보았는데, 두 연구자 모두 중학생의 시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험적 단계로 이해하였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맥락적 특성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구본용, 유제민, 2010),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이다(Lent, Brown, & Hackett, 1994). 심리·정신건강 요인들에 해당하는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지지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진로 결정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손은령, 손진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다른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진로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Betz & Hackett, 1989),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유소영, 2013;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부모의 사회적지지는 물론 교사와 친구들의 사회적지지 역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소영, 2013; 이유경 외, 2012).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성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진희, 이제경, 2009),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가 긍정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에 관여하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유경 외, 2012).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은 가족, 친구, 교사 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윤경, 이소연, 2009),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의 23.8%는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장임숙, 김희재, 2014). 친구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호선, 2000)과 정체성 형성(윤명숙, 198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친구의 지지는 긍정적인 성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윤미, 2012).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및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경아, 정현희, 1999),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사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유소영, 2013). 다문화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므로 교사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신혜정, 2007).

한편으로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며(남상아, 백지숙, 2011),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순규, 2006),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연결성도 살펴보았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요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 Rosenberg, 1979).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을 할 가능성이 높다(Rosenberg & Rosenberg, 197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 연구에서 Super(1957)는 진로발달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파악하였고,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학생은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조미영, 2007), 결과적으로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어려서부터 부정적 정서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교 적응과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김영춘, 이관식, 2013),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청소년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에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보다 명확한 진로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김민경, 2014; 최윤미, 이문희, 2011),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위해서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의 연관성 및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김순규, 2006)으로써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성격특성으로(Block & Block, 1980), 장애물을 극복하며 역경을 뚫고 나가 실패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함윤정, 김용수, 201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성공적인 적응의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김보영, 2010). 고정불변의 특성은 아니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경우, 성공적인 적응을 돕게 된다(황여정, 2014). 자아탄력성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임주영, 윤경

자, 2013), 진로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인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선모, 2012).

자아탄력성은 위험 요인(risk factor) 및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데, 위험 요인은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강석기, 2006),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적인 배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호 요인은 위험한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 혹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임선모, 2012).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보호 요인이며, 사회적지지는 환경적 보호 요인(김순규, 2006; 홍정미, 2008)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 환경 변인인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동시에 사회적지지가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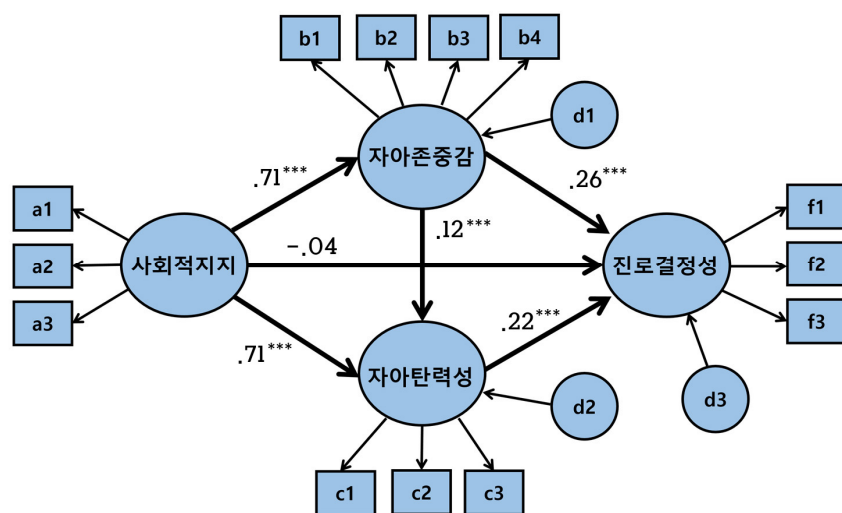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주. 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추정치 임. *** $p < .001$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 중 2015년 다문화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의 표본추출 방법은 학교를 단위로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층 내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2015년에 실시된 MAPS 5차 본조사는 1,338가구의 청소년 1,350명과 학부모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표본 중에서 연구 변인에 대한 결측치가 없는 1,348명의 다문화청소년(중학교 2학년생 재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MAPS에서 사용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성 점수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로 MAPS에서 사용한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부모 지지는 총 6문항으로,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친구 지지는 총 7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사 지지는 총 6문항으로,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지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각 대상(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사회적지지 전체는 .95, 부모 지지는 .91, 친구 지지는 .97, 교사 지지는 .96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으로 MAPS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으로 MAPS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에는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

년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4) 진로결정성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성으로 MAPS에서 사용한 진로결정성 문항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성은 총 10문항으로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중에서 6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본 연구에서 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변인 기술 분석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변인 간의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 (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IV. 결과

1.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1,348명인 중 2학년생인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660(49%), 여자는 688명(51%)이며, 거주 지역은 특별시 143명(11%), 광역시 212명(16%), 기타 시도 993명(73%)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두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1,225명(91%)이고, 부모 중 한 명과 동거하고 있는 수는 123명(9%)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이 638명(47%)로 아버지의 경우(254명, 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는 136명(10%)인데 비해 아버지의 경우에는 370명(29%)로 나타났다.

진로와 관련된 통계로는 먼저 다문화청소년들의 희망 학력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86%)이 대학교 이상을 진학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일을 하면 즐거운 직업(557명, 41%), 돈을 많이 버는 직업(304명, 23%), 안정적 직업(262명, 19%)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의논 하는 대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647명,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나 선배(298명, 22%), 학교 교사(150명, 11%) 순이었으며 의논 대상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도 223명(17%)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는데, 각 변인들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이의 상관 관계가 상관 계수 .59 ~ .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분석 결과 값이 1.70 ~ 1.93 으로 나타나, $VIF > 10$ 이면 다중공선성이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변인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성립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표 1. 변인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N = 1,348

변인	1	2	3	4
1. 사회적지지	-			
2. 자아존중감	.59**	-		
3. 자아탄력성	.64**	.57**	-	
4. 진로결정성	.27**	.33**	.30**	-
평균	3.70	3.18	3.06	2.56
표준편차	.53	.53	.46	.55

주. ** $p < .01$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는데, 이때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먼저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는데, 잠재변수 사회적지지는 부모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의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고, 사회적지지는 4문항을 각각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성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문항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문항꾸러미를 각 3개씩 형성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 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량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론적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단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TLI, CFI, RMSEA 모형 적합도를 통하여 모형이 수용할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표 2)

표 2.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N = 1,348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319.829	59	.961	.971	.057 (.051-.064)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알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는데,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성 경로를 제외한 모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성 경로는 $p < .05$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에 세운 연구 가설과 달리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서만 진로결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1](표준화된 추정치)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 진로결정성 경로의 매개효과는 $Z = 5.58(p < .001)$ 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지지 → 자아탄력성 → 진로결정성 경로의 매개효과도 $Z = 3.71(p < .001)$ 로 나타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각각 $Z = 2.73(p < .001)$, $Z = 2.23(p < .05)$ 로 유의미하였다.

표 3. 구조모형 분석 결과

N = 1,348

경로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사회적지지 → 자아존중감	.69***	.71	.03
사회적지지 → 자아탄력성	.59***	.71	.04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성	-.04	-.04	.06
자아존중감 → 진로결정성	.23***	.26	.04
자아탄력성 → 진로결정성	.23***	.22	.06
자아존중감 → 자아탄력성	.11**	.12	.04

주.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상담과 지원에 있어서 어떤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밝히고, 이를 다문화청소년 맞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이유경 외, 2012)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 영향인 사회적지지가 주어진다고 해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데,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이를 자신의 진로결정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이고 자원화 하는 개인 내적인 체계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사회적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청소년의 내적·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통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들의 진로상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외적 자원으로 긍정적인 사회적지지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닌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지지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내적인 힘을 키우는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통하여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동일선상에 두는 대신,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개인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환경 자원인 사회적지지를 구조적으로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사이의 매개효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중요함과 보호요인으로써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risk factor)들은 이들의 긍정적인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제공된다면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켜 진로결정을 돕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지지를 지각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진로상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보다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언어 소통과 문화적 적응의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어머니 자원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적응의 전략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한국화(韓國化)’ 전략 대신 보다 풍부한 자원으로써의 이중 문화 수용과 어머니 자원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17%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의논할 대상자가 없다고 답하고 있고, 의논의 대상자도 가족이나 친지(50%), 친구나 선배(22%)와 같은 사적인 자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이들의 환경적 자원의 열악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공적인 진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86%)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다수(557명, 41%)가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이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소극적인 진로 지도 및 지원 대신에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진로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의 진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진로 연구들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실시하였지만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던 진로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로 두 집단 간 비교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진로상담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 대상으로 진로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점과 개입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로 나뉘는 사회적지지를 단일 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각각의 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에는 이를 분리하여 분석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의 진행도 제안한다. 추후 연구에 대한 또 다른 제안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는 대신 성별, 부모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가족 자원,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의 진로발달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진로상담에서 내담자 맞춤의 구체적인 개입에 훌륭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석기. (2006).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계된 가족관계 변수와 매개변수의 구조적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현주, 김정화, 최민지. (2012).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281-306.
- 구분용, 유제민. (2010). 진로상담: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민경.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2(3), 35-53.
- 김민경. (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 김순규.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영춘, 이관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기능,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1), 21-38.
- 김혜민.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영. (201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9), 27-36.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8-159.
-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학연구**, 21(2), 129-152.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 2153-2167.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진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6.
-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4. 18). **2017 청소년 통계**. 보도 자료.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259-288.
- 유비, 김기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 유소영. (2013).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명숙 (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아름.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기 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2), 47-62.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1), 219-255.
-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김보영. (2010). 적응유 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9(4), 400-410.
- 이호선. (2000).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모.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18(3), 113-130.
- 장임숙, 김희재. (2014). 특집: 이주의 사회적 고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하성. (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미영 (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외통제성 및 불안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 청구논문.
-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초등상담연구*, 9(2), 218-235.
- 최윤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 최인숙. (201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진로상담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함윤정, 김용수. (2015).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235-251.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여정.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4(1), 205-229.
- Betz, N. E., & Hackett, G. (1989).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359-373.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rowne, M. W., & Cudeck, P. J.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Rosenberg, E. R., & Rosenberg, M. (1979).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 · 내용 · 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기영⁺ · 고은선^{**}

국문 초록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이 지난 10년간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자이자 수혜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선택했는지,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하는지, 학생요인과 학부모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지원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아정체감의 영향이 높았으며,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인식에는 학업성취도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지지했으며, 성별, 자아정체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의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상호존중과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학생들이 가진 ‘차이’를 없애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차이’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 ·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교육지원정책,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다문화지원정책의 대상내용방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I. 서론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1.7%에 이르렀지만,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10% 이상이며,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20%를 상회한다(Nusche, 2009).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 연구원, kiyoungkum6@gmail.com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연구원

은 OECD 국가 역시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낮은 교육성과에 고심하고 있다(Nusche, 2009). 다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이들의 낮은 교육성취도를 이주배경에서만 찾지 않고 언어장벽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복합 요인으로 보고, 지원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보정’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이주배경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소외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양승주 외, 2016). 예를들어 이민학생에 초점을 둔 영국의 경우는 학교별로 소수인종과 영어 학습자의 수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데 비해, 프랑스의 경우는 이주배경 학생을 직접 타겟으로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교육적 취약 정도에 따라 교사와 행정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모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선택한다(김기영, 2017).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다문화 교육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확장하였다. 2006년 2억여 원이었던 다문화 관련 교육 예산은 2017년 190억으로 확대되었다(교육부, 2006, 201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발표한 다문화 교육 정책안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다. 이 정책명이 함의하고 있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며, ‘교육지원’이 정책목표이다. 정책의 명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10년간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조는 ‘지원’에 초점화되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¹⁾들의 학습능력과 태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정체성, 자존감, 생활영역 등은 다문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범주화되기에는 각 아이들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다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생활모습을 보인다(김기영, 2016). 범주화는 문제를 단순화하게 보는데 도움을 주지만, 범주가 포함하는 외연(demotation)이 넓어질수록 시야가 흐려진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내려는 의지와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주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힘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부모의 이주배경 혹은 자신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문화충돌이나 문화접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양성의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가진 보편성보다는 이들이 가진 다양성, 즉 ‘차이’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를 없애가는 방향인 동화주의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차이’에 집중하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와 선입견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인종주의를 확산시키고 계층 간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줄 수 있다(마이클 애플, 1979, 박부권 역, 1984:171). 교육현장에서 만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다문화 교육을 ‘지원’이 아닌 ‘차별’의 코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김기영, 2016).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책시행

1)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용어는 다문화학생이다. 이정희(2012:113)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는 인종과 계층의 구별에 따른 현실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저자도 동의하는 바에기에 다문화라는 용어로 그들을 범주화하기보다 상황 기술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에 있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다양한 준거 중에서 이주배경만을 준거로 설정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다문화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추적한 종단연구(양계민 외, 2013)에 따르면, 이주배경 패널집단과 일반청소년 패널집단을 비교했을 때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적응(학습활동, 교육관계, 교사관계), 거주지에 대한 인식, 키, 몸무게 등이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만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보다도 부모의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양계민 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범주로 청소년들을 분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정책 사업에서 교육당국과 당사자 학생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진단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자이자 수혜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제시했는지, 지원의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요인과 학부모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육 대상과 범위

미국학자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이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한 것(Banks, 2009, :7ed, 차윤경 외 역, 2011:3)’이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재의 학교 구조가 여전히 인종, 계층, 민족, 성별 등 학생들이 가진 배경적 특성에 따라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의 교육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기영, 2016). 또한 슬리터와 그랜트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첫째, 억압된 집단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을 줄이고, 둘째, 모든 집단을 위한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애쓰며, 셋째, 다른 문화적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권력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Sleeter & Grant:1994:71)’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자들간의 용어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교육에서 주된 방향은 특정집단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제한적이며, 학교현장에서 주류

의 문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옳은 것으로 다루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의 차별적 태도도 존재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니에토(2009)는 ‘학생들은 누구나 독특한 개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경험적 차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교육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며 대상이 된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접근하는 베넷에 따르면(장인실, 2012:22) 다문화 교육과정은 교사의 가치관과 기대, 학교규칙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전달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법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갈등을 교육과 학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 차별과 편견의 해소 및 사회 변혁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김기영, 2016).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은 다문화주의의 실패와 포기를 선언했다²⁾. 이에 대해 김리카(2007)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국가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시민권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 속에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게 된 것으로 진단했다. 김리카가 보기에 유럽의 국가들은 이민자의 복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게 평등한 시민으로서 지위와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주민도 수용국 사회에 성심껏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김희강, 2013:84).

무엇보다 다문화주의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문화와 정체성을 ‘본질화’하고 ‘문화화’하는 것이다(차운경 외, 2012:33-34). 차운경에 따르면(2012) “‘본질화’란 어떤 개인이 보수적인 문화에서 나고 자랐다면, 그 개인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개인의 본질을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공동체의 프레임으로 개인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다문화주의자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에 집중함으로써 소수집단이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구조를 외면하거나 과소평가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회에서 소수집단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며, 계층구조의 하층이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문화화’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은 ‘온화한 개념’이지만,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조상식, 2009:139) “소수자들의 문화적, 생활 세계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막연히 ‘따뜻한 인간애’에 머물지 말

2) 2010년 영국의 캐머린 총리는 영국식 다문화주의가 영국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이 추구해온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며, 독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에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쓰는 바람에 정작 그들을 받아준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김기영, 2016).

고, 다문화에 대한 각종 이론 및 지식에 내재된 경제적 권력 및 특권 구조를 비판적으로 지적해야만 하며 동시에 소수자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 다문화 교육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에서도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초기부터 이주배경 아동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전제하면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지칭하며 다문화를 타문화를 지닌 ‘그들’의 것으로 대상화 하였다(류방란, 2013:133).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다문화 교육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이주배경 아동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둘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제한되어 있으며 분리 교육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셋째, 이로 인하여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인식의 프레임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기영, 2016).

초기부터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그 관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의 대상은 ‘다문화 학생’, 내용은 ‘보상교육’, 방법은 이들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드러내는 ‘직접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억여원이었던 다문화 교육지원 예산은 2017년 현재 190억에 이르게 되었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것이 지속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인용이 되고 있는 조영달 외(2006)의 보고서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고,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정서장애도 나타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 “국제결혼가정 중 고소득층에 속하면서 도시지역에 사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언급은 묵과되었다(김기영, 2017).

그러나 옥부(Ogbu, 1992)가 지적한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이들이 언어적 교류와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다. 옥부가 보기에 이들을 ‘소수자’로 보는 시각 역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수반된 결과물일 수 있다. 어느 순간 소수자로 명명되면서, 학교에서의 학습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로부터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다(Ogbu, 1992). 소수자 집단의 자녀들이 문화 및 언어적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여, 그들이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전제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학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결핍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시작된다. 니에토(Nieto, 2009:270)는 “이러한 전제는 학생의 실패에 대해 학교나 사회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가정이나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각이 가진 문제는 학생의 문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을 지적한다. 니에토의 말대

로 박탈이나 결핍의 대상으로 학생을 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박탈하고 결핍의 존재로 당연시 해 가는지, 학생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재능을 박탈하는 그 학교를 변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후 수강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 미술관·박물관·놀이공원과 같은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 직접 지원에 가깝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교육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신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의지는 높지만(김기영, 2014), 멘티와 멘토가 만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미술관·박물관·놀이공원과 같은 문화체험 행사들은 일회성·이벤트성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일상에서 소모적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중도입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내용과 범위가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타자들이 보기에 이들에게 많은 교육적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 대상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의 대상자이자 수혜자들이 지원정책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2014학년도부터 변경된 문항을 참고하여 중학교 입학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2015학년도 데이터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1,29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개인 배경특성인 ‘성별’의 경우 남자 631명(48.7%), 여자 664명(51.3%)으로 여자가 약간 많으며, 정책 지원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 받은 경험 여부’의 경우 ‘없다’ 901명(69.9%), ‘있다’ 394명(30.4%)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지원을 받은 경우보다 약 39.5% 높게 나타났다. ‘지원 방식’은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의 경우 732명(56.5%),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을 해도 상관없음’의 경우 563명(43.5%)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주는 것이 약 13%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대상’의 경우 ‘가정형편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의 경우 763명(58.9%),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의 경우 532명(41.1%)로 ‘가정형편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이 약 18%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평균점수 3.01(.746), ‘자아정체감’의 경우 평균점수 3.04(.4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경우 평균점수 9.56(1.128)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빈도분석과 평균(N=1,295)

구분		N(%)	M(SD)
성별	남자	631(48.7)	
	여자	664(51.3)	
지원경험여부	없다	901(69.9)	
	있다	394(30.4)	
지원 방식	드러나지 않게 지원	732(56.5)	
	드러나게 지원	563(43.5)	
지원 대상	가정형편 고려하지 않음	763(58.9)	
	가정형편 고려	532(41.1)	
학업성취도			3.01(.746)
자아정체감			3.04(.4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9.56(1.128)

2.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가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한 질문이다. 첫째는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의 2점 척도 응답이다. 둘째는 지원 대상으로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만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 기타(적을 것)” 등의 3점 척도 응답이다. 이중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 두 개의 응답케이스를 선택하여 이분형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변수와 학부모변수로 구분하였다. 우선 학생변수로는 성별,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학업성취도, 자아정체감 등을 선정하였고, 학부모변수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님의 교육수준+ln(월평균 소득수준))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구분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		지원 방법	다문화가족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0 다문화가족자녀임이 드러나게 지원=1
		지원 대상	가정형편 고려하지 않음=0 가정형편 고려함=1
독립변수	학생변수	성별	남=0, 여=1
		지원 받은 경험 여부	아니오=0, 예=1
		학업성취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해 공부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의 평균
		자아정체감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 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 등 8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의 평균
	학부모변수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부와 모의 학력 평균 +ln(월평균소득)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성을 살펴보기 전에 각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점검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될 정도로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닌 독립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지원방식	1						
2. 지원 대상	-.185**	1					
3. 성별	.035	-.022	1				
4. 지원받은경험	.216**	-0.34	-.032	1			
5. 학업성취도	-.005	.087	-.038	.070*	1		
6. 자아정체감	.094**	-.009	-.013	.100**	.431**	1	
7.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012	.035	.010	.005	.162**	.072**	1

* $p < .05$, ** $p < .01$, *** $p < .001$

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경험, 중복지원 받은 경험, 그리고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된 종류를 선택하는 설문 문항에 복수응답을 한 경우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하였다. 또한 빈도분석,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를 통해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 활용한 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하고, 셋째,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의 과정에는 SPSS 21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된 정책 내용

1) 지원을 받은 내용과 희망하는 내용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과 향후 희망하는 지원 종류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가족 자녀 성별에 따라 경험한 것과 희망하는 지원 내용 분석

	경험한 지원			희망하는 지원		
	남자 빈도(%)	여자 빈도(%)	계	남자 빈도(%)	여자 빈도(%)	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72(51.4)	68(48.6)	140	148(47.0)	167(53.0)	315
문화공연관람	40(56.3)	31(43.7)	71	184(42.4)	250(57.6)	434
놀이공원 방문	11(47.8)	12(52.2)	23	168(41.4)	238(58.6)	406
문화체험활동	44(52.4)	40(47.6)	84	146(46.3)	169(53.7)	315
특기적성프로그램	16(48.5)	17(51.5)	33	157(45.1)	191(54.9)	348
심리적응프로그램	7(35.0)	13(65.0)	20	54(34.2)	104(65.8)	158
물리지원	21(60.0)	14(40.0)	35	97(42.5)	131(57.5)	228
대학생 멘토링	62(47.0)	70(53.0)	132	91(40.1)	136(59.9)	227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50.0)	5(50.0)	10	45(37.7)	76(62.3)	122
이중언어 프로그램	6(46.2)	7(53.8)	13	48(34.0)	93(66.0)	141
한국어 교육 지원	2(66.7)	1(33.3)	3	16(41.0)	23(59.0)	39
학습지 지원	10(50.0)	10(50.0)	20	92(42.8)	123(57.2)	215
급식비 지원	53(51.0)	51(49.0)	104	153(48.3)	164(51.7)	317
학원비 지원	-	-	-	231(49.1)	239(50.9)	470
진로지원프로그램	14(66.7)	7(33.3)	21	115(40.8)	167(59.2)	282
기타	16(45.7)	19(54.3)	35	9(69.2)	4(30.8)	13
없음	-	-	-	139(60.4)	91(39.6)	230
계	211(51.1)	202(48.9)	413	655(49.0)	681(51.0)	1,336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5년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된 종류 중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 종류를 분석한 결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의 경우 남자 72명(51.4%), 여자 68명(48.6%) 총 140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남자 62명(47%), 여자 70명(53.0%) 총 132명, ‘급식비 지원’의 경우 남자 53명(51.0%), 여자 51명(49%) 총 10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교육지원’의 경우 남자 2명(66.7%), 여자 1명(33.3%)로 총 3명으로 가장 낮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을 해주길 원하는지 분석한 결과, ‘학원비 지원’의 경우 남자 231명(49.1%), 여자 239명(50.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의 경우 남자 184명(42.4%), 여자 250명(57.6%), ‘놀이공원방문’의 경우 남자 168명(41.4%), 여자 238명(58.6%), ‘특기적성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의 경우 남자 157명(45.1%), 여자 191명(54.9%), ‘급식비지원’의 경우 남자 153명(48.3%), 여자 164명(51.7%)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의 경우 남자 9명(69.2%), 여자 4명(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지원’의 경우 남자 16명(41.0%), 여자 23명(59.0%)로 다른 종류보다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복 제시 된 경우와 중복 지원 받은 내용 분석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원이 중복 제시된 경우와 중복 참여한 종류는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가족 자녀 성별에 따라 중복 제시 된 경우와 중복 지원 받은 경우의 내용 분석

	중복 제시된 경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남자 빈도(%)	여자 빈도(%)	계	남자 빈도(%)	여자 빈도(%)	계
방과 후 수업료 지원	22(37.9)	36(62.1)	58	22(41.5)	31(58.5)	53
문화공연관람	14(56.0)	11(44.0)	25	11(55.0)	9(45.0)	20
놀이공원 방문	4(66.7)	2(33.3)	6	3(60.0)	2(40.0)	5
문화체험활동	13(48.1)	14(51.9)	27	10(47.6)	11(52.4)	21
특기적성프로그램	8(50.0)	8(50.0)	16	6(46.2)	7(53.8)	13
심리적응프로그램	2(28.6)	5(71.4)	7	1(16.7)	5(83.3)	6
물리지원	3(50.0)	3(50.0)	6	3(60.0)	2(40.0)	5
대학생 멘토링	25(48.1)	27(51.9)	52	22(47.8)	24(52.2)	4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2(66.7)	1(33.3)	3	2(100.0)	-	2
이중언어 프로그램	3(60.0)	2(40.0)	5	2(50.0)	2(50.0)	4
한국어 교육 지원	-	-	-	-	-	-
학습지 지원	4(57.1)	3(42.9)	7	4(57.1)	3(42.9)	7
급식비 지원	25(48.1)	27(51.9)	52	20(43.5)	26(56.5)	46
진로지원프로그램	2(33.3)	4(66.7)	6	13(33.3)	2(66.7)	3
기타	5(62.5)	3(37.5)	8	3(75.0)	12(5.0)	4
없음	-	-	-	8(40.0)	12(60.0)	20
계	79(47.0)	89(53.0)	168	79(47.0)	89(53.0)	168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의 경우 남자 22명(37.9%), 여자 36명(62.1%) 총 58명으로 가장 많이 중복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멘토링’과 ‘급식비 지원’의 경우 각각 52명으로 중복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의 경우 남자 2명(66.7%), 여자 1명(33.3%)로 가장 적게 중복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지원’ 경우는 중복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참여한 것)을 분석한 결과,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의 경우 남자 22명(41.5%), 여자 31명(58.8%) 총 53명으로 가장 많이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남자 22명(47.8%), 여자 24명(52.2%), ‘급식비 지원’의 경우 남자 20명(43.5%), 여자 26명(56.5%) 각각 46명으로 중복 제공 받은 것(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는 대학생에게는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다문화 교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의 경우 남자 2명(100%)으로 가장 적게 중복 제공 받은 것(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지원' 경우는 중복제공 받은 것(참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제시된 경우와 중복적으로 제공 받은 것(참여한 것)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 '한국어 교육지원'은 중복 제시되지 않았다.

2. 지원 방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지원 정책 중 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즉,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chi^2=79.922$, $df=6$, $p<.000$),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법을 7.0% 설명하였다(Nagelkerke R^2).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경험여부' 즉,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도 상관없이 없다는 것이 것을 높게 나타났으며($B=.936$, $p<.000$), 그 승산은 각각 .392으로 약 60.8%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으며($B=.469$, $p<.01$), 그 승산이 1.599배로 높아 지원 방법에 자아정체감의 영향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E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지원 방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295)

변수	B	SE	Wald	OR	p
성별	.174	.116	2.255	1.190	.133
지원경험여부	.936***	.125	55.841	2.550	.000
학업성취도	-.167	.087	3.659	.846	.056
자아정체감	.469**	.144	10.646	1.599	.001
부모SES	-.021	.052	.168	.979	.682
-2Log Likelihood			1699.176		
$\chi^2(df)$, p			73.957(5), .000		
Nagelkerke R^2			.074		

* $p < .05$, ** $p < .01$, *** $p < .001$

3. 지원 대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대상에 대한 인식,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인지 좋은지,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chi^2=17.373$, $df=5$, $p<.01$),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대상을 2.0% 설명하였다(Nagelkerke R^2).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뛰어날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B=.314$, $p<.01$). 그러나 성별, 지원경험여부, 자아정체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SES)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지원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1,295)

변수	B	SE	Wald	OR	p
성별	-.102	.115	.784	.903	.376
지원경험여부	-.161	.125	1.646	.851	.199
학업성취도	.314**	.088	12.777	1.369	.001
자아정체감	-.183	.146	1.572	.833	.210
부모SES	.061	.051	1.419	1.063	.234
-2Log Likelihood	1736.452				
$\chi^2(df)$, P	17.373(5), .004				
Nagelkerke R^2	.018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지원받은 내용은 ‘방과후 수업료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지원은 가장 낮은 선택을 보였다. 이들이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문화공연’, ‘놀이공원 방문’,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선택했다. 다문화 지원정책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아정체감의 영향이 높았으며,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인식에는 학업성취도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지지했으며, 성별, 자아정체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의 방법을 논의하는데 있어 다문화임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전달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책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이 다문화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문화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다른 아이들

에게 ‘차이를 가시화’(전은주, 2014)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라는 범주로 이들이 가진 차이를 가시화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차이 즉 기질과 특성, 고유한 성격과 능력을 보기보다 다문화라는 프레임으로 아이를 구별하고 판단하기 쉽게 한다. 또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역차별의 시선³⁾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아이들의 몫이다.

다문화 교육은 어느날 특정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학습되어야 할 과목도 아니다(조용환, 2011). 학교 분위기, 교육과정, 교사들과 학생, 다름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름을 대하는 태도이자 관점이며, 철학이자 방법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지식의 문제로만 다루거나 방과 후 활동 혹은 이벤트로 전가되어서도 안 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7%를 차지한다(교육부 2017). OECD 국가의 평균이 12% 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이 아이들의 언어적·문화적 결핍 때문이 아닌, 다름을 대하는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의 경직된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 다문화를 갈등의 뿌리로 보지 말고 조화의 씨앗으로 보기 위해서는(조용환, 2011), 다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보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정책과 다문화 학생 종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논의 사항을 도출했다.

첫째, 다문화 교육지원 정책의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이주배경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빌라에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가정의 자녀와 안산 원곡동 단칸방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동일선상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경우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에 자원의 배분 방식을 달리한다. 영국등과 같이 이주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도 있으며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이 이주학생만이 아닌 교육 소외계층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선택한 국가도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지원정책의 대상을 사회경제적 배경과 한국어 수준으로 구분하여 선택적 지원, 통합적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둘째,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지원받은 것(Thing)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방과후 수강권, 학원비, 급식비 지원등 직접지원에 가까운 바우처 형태와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등 간접지원의 형태가 그것이다. 바우처와 같은 직접 지원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도 희망하는 형태로 손꼽힌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의 바우처가 제공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 ‘사회통합’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문화공연관람, 놀이공원방문 등과 같은 문화체험 제공의 경우 이렇게 일회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나 또래관계에서 또다른 ‘소외’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완벽한 것이라도

3)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으나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의 목소리(김기영, 2016)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장에 내려가면 왜곡되고 굴절되어 부작용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의 수혜자들은 정책의 내용에는 만족할 지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을 또다른 차별로 인식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고민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어떠한 순간에 다문화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주체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이들 스스로가 다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애써 감출 필요도 없으며, 아이들이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2017.1.12.)**.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5.1.)**.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영.(2014).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의 ‘동반성장’ 사례연구. **다문화 교육연구**, 7(1), 29-50.
- 김기영.(2016). **다문화 교육의 이중적 함의에 대한 질적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영.(2017).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 8(2), 2017. 04, 국회예산처.
- 김희강.(2013). 다문화주의의 역설. **담론** 201, 16(4), 67-95.
- 류방란.(2013). 다문화 교육 정책과 교육현실의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6(4), 131-149.
- 서덕희.(2011). 농촌국제결혼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맥락적 이해: 전남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2), 87-120.
- 서덕희.(2011). 문화없는 다문화 교육을 넘어서: 문화의 과정성과 다차원성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 재개념화. **한국교육학연구**, 49(4), 231-254.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인실,이혜진.(2011).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교육연구**, 3(1), 55-87.
- 전은희.(2012).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의 차이와 가시화에 대한 질적 연구: 중소도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상식.(2015). 현상학과 질적 연구 방법론-개념, 방법 그리고 한계. **인하대학교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샵 자료**, 미발행.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2006). **다문화가정의 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환.(2004). 질적연구와 질적교육. **교육인류학 연구**, 7(2), 55-75.
- 조용환.(2011). 다문화 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14(3), 1-29.
- 차운경,함승환.(2012).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Apple, Michael W. (1979).『Ideology and Curriculum』, New York: Routledge, 박부권·이혜영 역 (1985). **교육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길사.
- Banks, J. A. (2008).『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모경환·최충옥·김명정·임정수 (역) (2008), **다문화 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 & Banks, C. A.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7th ed.)』,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Inc. 차윤경 · 부향숙 · 윤용경 (역) (2011), **다문화교육: 현황과 전망**. 서울: 박학사.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6th ed.)』, NY : Pearson Education, 김옥순 외 역 (2009). **다문화 교육 :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John U.Ogbu(1992).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Vol. 21, No. 8(Nov., 1992) pp5-24.
- Nusche, D.(2009).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 No. 22.
- Sonia Nieto (2009). Language, Culture & Teaching, Routledge. 김영순 외, 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 서울: 북코리아.
- Will Kymlicka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Oxford Univ. Press. 장동진 외 역 (2005).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제 ⑦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I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희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동태적으로 형성하는 과정과 변화 형성된 정체성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군집분석, 패널 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반영하여 네가지 형태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정체성 유형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양상이 다르며, 높은 국가정체성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높은 선호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체성, 학교생활 적응, 패널모형 분석

I. 서론

한국 사회가 탈영토화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 수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지난 10여간 10.6배 증가(2006년 9,836명, 2016년 99,186명) 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10명중 6명이 6세이하 미취학아동(11만 6천명, 2015.11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 2017).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가’이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기본 토대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소통과 연대라는 데 이점이 있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공동체로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용, 배려, 포용하려는 태도와 행동도 중요할 뿐만아니라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공동체에 적응하려는 인식과 행위 또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달시켜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도 크게 달라지고 우리 다문화사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heejeong.lee@ewha.ac.kr

사회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정체성을 ‘사회집단의 구성이라는 지식과 그 사회집단 구성원으로 갖게 되는 가치 및 정서적 의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자기 개념의 일부’(Taifel, 1981: 255)라고 정의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주류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갖게 되는 정체성과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 형성하는 정체성을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한국 학계의 다문화관련 연구들도 이러한 정체성을 주요 연구과제중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주류집단이 어떻게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 구분인식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왔다(최현, 2007; 장승진, 2010; 황정미, 2010; 윤인진, 송영호, 2011; 박성철, 윤영숙, 2015). 이에 반해, 소수집단,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인식은 최근 들어서야 연구 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김민정, 2008: 63; 박선웅, 우현정, 2013: 214; 이창호, 송민지, 2013: 7). 그러나, 소수집단의 정체성 연구의 대부분은 주류 집단의 정체성 연구와 달리 정체성을 단면적이고 정형화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체성이 소수집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체성 형성과정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입체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정체성 유형을 재구성하고 탐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정체성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체성 형성은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다(Phinney, 1990: 502).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차 집단에 대한 적응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청소년기(이창호, 송민지, 2013: 4, 7)에 속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체성 형성의 이러한 특성들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10명중 6명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중앙선데이, 2017.4.2).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란을 경험(조영달, 2006: 7, 13; 박순희, 조원탁, 이주희, 2008: 59; 이재분, 2008: 141)하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정체성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동태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 형성된 정체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하는 데 있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응 양상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사회로의 어울림에서 학교 적응은 개인뿐아니라 학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생활 적응이 양호하여 학업성취 동기가 높고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 환경과 균형 있는 조화를 유지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사회 정서적 행동도 바람직해지며(최성보, 2011: 264) 나아가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오경화, 2011: 95). 다문화관련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에 대한 분석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과 관련해서는 그 연구 결과들이 연구 시기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0: 26-28). 대체로 2006년 이전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 능력 부족, 학습 부진 등 부적응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06년 이후 연구들에서는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적응 양상이 양호하다는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다(박순희 외, 2008: 54). 나아가 일련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적응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순희 외(2008)은 전남 지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149명의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성중 자기 신뢰가 높을수록 학업수행수준이 높음을 확인하고 있다. 문영희와 안은미(2010)는 전북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11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으로 해석하여 이중문화 특성이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오경화(2011)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고등학교 120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학업 수행이 나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전병주(2012)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185명의 설문조사자료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위계적 회계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과 모 한국어 능력 등이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에, 문화변용스트레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와 이채원(2012)은 경기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5~6학년 459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교육복지패널 1차년도(2011) 자료를 이용하여 긍정적 자기개념이 문화변용스트레스와 문화자본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모 한국어 능력, 경제 수준 등 가정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신뢰, 자아존중감 등 자아정체성 요인 또는 문화변용스트레스, 문화자본 등의 문화정체성 요인들의 영향력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은 성,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집단에서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은 자기개념(self-concept)에 매우 중요(Phinney, 1990: 499)하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주류 집단의 학생들과 달리 정체성 형성과정이 다층적이며 유동적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정체성의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 접근법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유지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함의 도출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과 정체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김승희, 2011: 29). 국가 또는 민족정체성(김민정, 2008; 심우엽, 2009; 윤인지, 김은비, 2012; 전병주, 2014), 자아정체성·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조한숙, 문혁준, 2010; 김승경, 양계민, 2012; 박진우, 장재홍, 2014) 그리고 문화정체성(김승희, 2011; 김민지, 2015; 우영경, 김은하, 2016)이 청소년의 인구학적 요인, 가족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충래·홍진주(2006)는 서울 경기지역 거주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화적응 실태를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으로 검토한 결과 높은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남영옥(2012)은 대구·경북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1~6학년 186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높은 자아존중감이 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박선웅과 우현정(2013)은 12명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체성 형성 과정이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체성과 청소년의 적응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임의 표본 선정, 적응 과정에서 정체성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 부족 등의 분석 방법론상의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을 정형화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문화관련 연구에서 주류 집단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종족적 요인·사회적 요인(최현, 2007; 장승진, 2010; 황정미, 2010; 윤인진, 송영호, 2011; 박성철, 윤영숙, 2015)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요인(박선웅, 2013)까지 포섭하여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려고 시도하는 흐름과는 대비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문화정체성, 국가정체성, 종교정체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김민지, 2015: 227)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정체성 개념을 사용(김민정, 2008: 67-68)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Smith, 1991; Hjern, 1998; Shulman, 2002)와 함께, 문화 적응전략에 대한 논의(Berry, 1984; 1997; 박선웅, 우현정, 2013) 등을 토대로 정체성 개념을 몇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고 정체성의 동태적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들의 자료상 한계, 즉 일회성 설문조사 분석 또는 질적 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종단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체성 형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동태적 과정(Phinney, 1990: 502)이며, 문화적응 과정 역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Berry, Phinney, Sam & Venner, 2006: 307).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그 변화 과정을 탐색할 수 있

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심우엽, 2009: 41).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인지적·심리적 변화가 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변화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관련 연구는 정태적 접근법보다는 동태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이질적인 정체성이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정체성변화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다문화청소년패널의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반복해서 조사한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대상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료 중 설문문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주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 1560명, 2012년 1439명, 2013년 1377명, 2014년 1,321명, 2015년 1,2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교생활 적응이다. 학교생활 적응변수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학교수업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 교사관계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학교생활 적응변수는 세 가지 범주의 하위항목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6이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학교수업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 교사관계는 각 범주별로 4점 척도의 5가지 질문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고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학교수업 적응변수는 수업시간이 재밌는지, 숙제 수행여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있을 다른 사람(부모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는지,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는지의 질문을 포함한다. 학교 친구관계변수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친구와 다툼이 있을 때 사과하는지, 교과서나 준비물을 빌려주는지,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지, 활동에서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는지를 포함한다. 학교 교사관계변수는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는지, 편하게 이야기 하는지, 학교 밖에서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운지, 선생님이 나에게 친절하신지, 내년에도 현재의 담임선생님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수의 신뢰도는 학교수업 적응변수가 0.746, 학교 친구관계가 0.566, 학교 교사관계가 0.887로 측정되었다. 학교 친구관계의 신뢰도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나머지 두 변수의 신뢰도가 높고 세 변수를 포함하는 학교

생활 적응변수의 신뢰도가 0.85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학적 측면, 가정 사회환경적 측면, 다문화정책적 측면을 고려하고 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독립변수중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생의 성별, 연령이 포함되었다. 가정환경 요인과 관련된 변수는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어머니의 교육년수, 가정형편, 거주지역이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는 다문화정책 경험여부, 학교성적이며,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변수가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어머니 출신국가의 교육단계별 교육연한과 교육정도에 대한 응답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표 1. 분석 변수

	변수 구분	측정방법	신뢰도
종속변수			
sapt	학교생활 적응	세 가지 하위항목의 총합	0.856
sclass	학교수업 적응	5가지 질문의 평균	0.746
sfrel	학교 친구관계	5가지 질문의 평균	0.566
strel	학교 교사관계	5가지 질문의 평균	0.887
독립변수			
sex	성별	더미변수 남자=1, 여자=0	
sage	학생 연령	연속변수	
mage	모 연령	연속변수	
mkor	모 한국어실력	4가지 질문의 평균	0.896
meduy	모 교육년수	연속변수	
hcond	가정형편	더미변수 아주 어렵다, 어렵다=1, 그 외=0	
sid	거주지역	더미변수 광역시=1, 그 외 지방=0	
policy	다문화정책 경험여부	더미변수 경험=1, 미경험=0	
ss	학교성적	5가지 질문의 평균	0.773
rcrel	지역사회관계	6가지 질문의 평균	0.717
iden	정체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변수들 중 신뢰도 측정이 필요한 변수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4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측정되어 신뢰도는 0.896으로 아주 높은 편이었으며, 5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측정된 학교성적의 신뢰도는 0.773, 6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측정된 지역사회관계는 0.717로 측정되어 독립 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이 신뢰할만한 변수로 판단된다.

정체성 변수는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세부 요소로 하여 재구성되었다. 집단개입 현상을 측정한 4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측정된 국가정체성의 신뢰도는 0.838,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측정한 질문중 한국문화 수용도와 관련된 5가지 항목의 평균인 한국문화선호의 신뢰도는 0.750, 그리고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 수용태도와 관련된 5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측정된 외국문화선호의 신뢰도는 0.778이었다. 정체성의 3가지 세부 항목 점수는 먼저 표준화점수로 각각 변환되었으며, 표준화된 점수로 구성된 정체성 세부 항목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alinski-Harabasz pseudo-F 값이 4개 군집에서 2905.2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3개 군집이나 5개 군집에 비해 군집 구성이 가장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체성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횡단면적 접근이나, 질적 연구에 의존하여 분석 방법론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의 자료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과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여 검토한다. 정체성의 세부 요인들을 반영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재구성된 정체성 유형에 대해서는 유형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동태적 변화를 탐색한다. 구체적인 모형추정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횡단면 추정과 패널 확률효과모형 추정을 실시하여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Breusch-Pagan Breusch multiplier test와 Hausman test를 통해 검증한다. 검증결과 패널 개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고 패널 확률효과모형과 패널 고정효과모형중 어느 모형이 더 효율적인지 Hausman test를 통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그 검증결과에 따라 추정모형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변수의 경우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 교사관계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수업 적응의 평균값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학교 친구관계의 평균값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할수록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장할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청소년들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성별은 여학생 54.87%, 남학생 49.13%로 각각 절반에 가깝게 고르게 표집되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은 패널조사가 매년 이루어진 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2011년 초등학교 4학년때 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2015년 조사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교육년수의 평균치는 12.86년이었다. 가정형편을 묻는 질문에 ‘아주 어렵다’와 ‘어렵다’로 어려운 형편으로 대답한 경우가 51.89%, 가정 형편에 대해서 좋은 편으로 대답한 경우가 48.11%로 나타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광역시 거주는 26.49%이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73.51%로 대도시보다는 지방소도시나 읍면 지역거주 청소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에 대한 문항의 경우 2012년 조사부터 질문에 포함되었는데 201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성적변수는 2014년과 2015년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조사되었음을 감안하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체성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전체 관측값에서 각 유형의 비율은 유형 1이 21.59%, 유형 2가 35.05%, 유형 3은 22.95%, 유형 4는 20.41%로 분포되어 있다. 유형 1과 2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5년 동안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유형 3은 점진적 증가추세를, 그리고 유형 4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기초 통계량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종속변수												
sapt 평균	2.95		2.93		2.93		2.97		2.96		2.95	
sclass 평균	2.91		2.93		2.92		2.95		2.88		2.87	
sfrel 평균	2.85		2.77		2.82		2.86		2.90		2.90	
strel 평균	3.09		3.10		3.05		3.09		3.11		3.09	
독립변수												
sex 0	3,556	50.87	796	51.03	728	50.59	702	50.98	672	50.87	658	50.89
1	3,434	49.13	764	48.97	711	49.41	675	49.02	649	49.13	635	49.11
sage 평균	11.88		9.98		10.97		11.97		12.96		13.97	
mage 평균	42.32		40.29		41.44		42.44		43.46		44.46	
mkor 평균	3.20		3.14		3.15		3.21		3.26		3.26	
meduy 평균	12.86		12.84		12.87		12.87		12.86		12.86	
hcond 0	3,363	48.11	787	50.45	706	49.06	695	50.47	591	44.74	584	45.17
1	3,627	51.89	773	49.55	733	50.94	682	49.53	730	55.26	709	54.83
sid 0	5,138	73.51	1,129	72.37	1,055	73.31	1,016	73.78	978	74.03	960	74.25
1	1,852	26.49	431	27.63	384	26.69	361	26.22	343	25.97	333	25.75
policy 0	2,867	52.80			443	30.79	620	45.03	905	68.51	899	69.53
1	2,563	47.20			996	69.21	757	54.97	416	31.49	394	30.47
ss 평균	3.30		3.39		3.41		3.42		3.14		3.09	
rcrel 평균	2.77		2.83		2.78		2.80		2.74		2.70	
iden 1	1,509	21.59	311	19.94	296	20.57	330	23.97	303	22.94	269	20.8
2	2,450	35.05	532	34.1	528	36.69	483	35.08	450	34.07	457	35.34
3	1,604	22.95	328	21.03	307	21.33	318	23.09	313	23.69	338	26.14
4	1,427	20.41	389	24.94	308	21.4	246	17.86	255	19.3	229	17.71
Obs.	6,990		1,560		1,439		1,377		1,321		1,293	

2. 정체성 유형과 동태적 변화

1) 정체성 유형 분석

정체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세부 항목으로 하여 군집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이 의미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림 1]과 같이 4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형 1은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도가 높은 집단이다. 유형 2는 국가정체성과 외국문화선호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선호를 보이거나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유형 3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정체성과 높은 한국문화선호를 보이며 외국문화선호는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유형 4는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도 모두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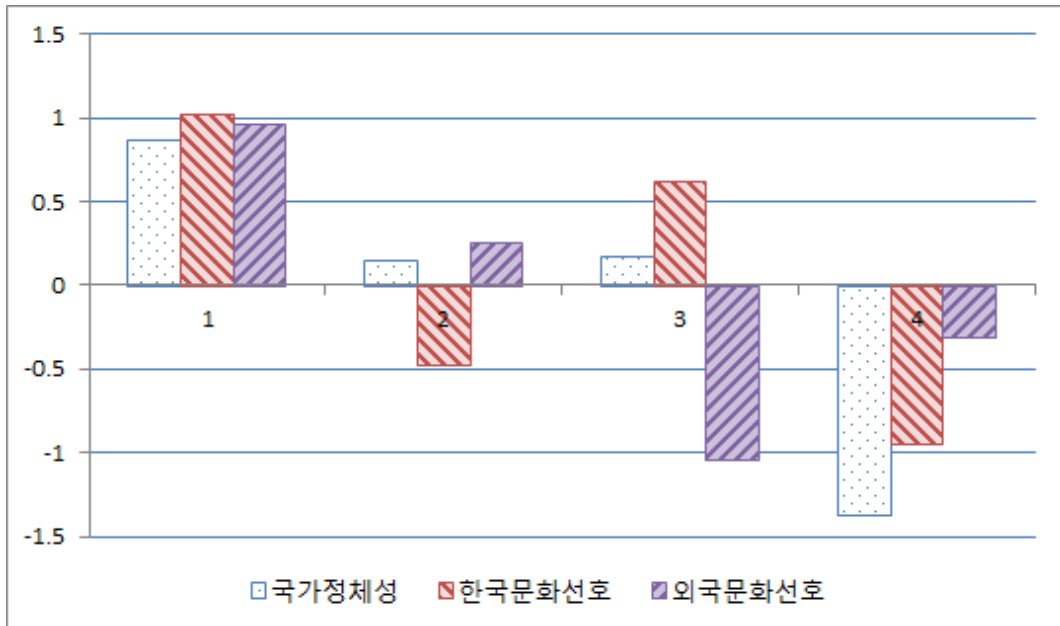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유형

정체성 유형별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 차이의 경우 유형 1의 경우 여학생 비중이 남학생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고, 유형 3에는 남학생이 많이 속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유형 2와 유형 4는 상대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과 교육년수는 유형 1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경우 유형 4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지역은 유형 3의 경우 광역시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외국문화선호지수가 부정적인 집단이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문화관련 정책 프로그램 참여도는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았고 유형 2의 참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형 3과 유형 4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외국문화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학교성적의 경우 유형 1이 가장 높았고 유형 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변수도 마찬가지로 유형 1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관측되었고 유형 4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에 긍정적인 유형 1은 여학생의 비중이 높고,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며, 다문화정책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많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정체성 유형별 기초통계량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sex	0	827	54.8	1,272	51.92	734	45.76	723	50.67
	1	682	45.2	1,178	48.08	870	54.24	704	49.33
sage	평균	11.90		11.89		12.00		11.70	
mage	평균	42.27		42.82		41.66		42.26	
mkor	평균	3.34		3.16		3.17		3.16	
meduy	평균	13.11		13.01		12.46		12.81	
hcond	0	739	48.97	1,202	49.06	756	47.13	666	46.67
	1	770	51.03	1,248	50.94	848	52.87	761	53.33
sid	0	1,146	75.94	1,815	74.08	1,116	69.58	1,061	74.35
	1	363	24.06	635	25.92	488	30.42	366	25.65
policy	0	561	46.83	973	50.73	750	58.78	583	56.17
	1	637	53.17	945	49.27	526	41.22	455	43.83
ss	평균	3.56		3.29		3.29		3.03	
rcrel	평균	3.00		2.74		2.77		2.58	
Obs.		1,509		2,450		1,604		1,427	

2) 정체성의 동태적 변화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유형의 동태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조건부전이 확률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유형에서 표의 대각선에 정리된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유형이 차년도 유형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정체성이 상태 의존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형 3은 다른 유형이 비해서 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유형 4는 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유형 4의 경우 차년도에는 유형 2로 이동할 확률이 유형 4로 머물 확률과 유사하게 높다. 따라서,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에 모두 부정적인 유형 4가 학년이 올라가고 성장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모든 유형에서 유형 2로 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반면에, 유형 2는 유형 1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항목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유형 1은 유형 4로의 변화가능성이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표 4.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조건부전이 확률 분석

t	t+1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계
1 유형	45.80	27.82	16.13	10.25	100.0
2 유형	19.44	48.55	15.16	16.85	100.0
3 유형	15.12	22.72	48.71	13.45	100.0
4 유형	8.86	34.65	18.51	37.98	100.0
계	22.05	35.37	23.49	19.10	100.0

3.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독립변수간 강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고, VIF 값도 1.27로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 변수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정형편은 정체성 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유형 1의 경우 여학생과 (+) 상관관계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는 높은 (+) 상관관계를,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년수와도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5.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sex	1.000												
2. sage	0.002												
3. mage	0.016	0.255***											
4. mkor	-0.024**	0.065***	-0.016										
5. meduy	0.026**	-0.002	0.142***	-0.037***									
6. hcond	-0.029**	0.037***	0.133***	-0.117***	-0.033***								
7. sid	0.024**	-0.019	0.013	-0.034***	-0.004	-0.013							
8. ss	0.055***	-0.166***	-0.077***	0.165***	0.109***	-0.110***	0.021*						
9. rcorel	0.056***	-0.090***	-0.074***	0.087***	-0.037***	-0.035***	-0.142***	0.181***					
10. t1	-0.041***	0.009	-0.005	0.129***	0.059***	-0.009	-0.029**	0.190***	0.249**				
11. t2	-0.015	0.005	0.068***	-0.049***	0.049***	-0.014	-0.010	-0.003	-0.041***	-0.386***			
12. t3	0.056***	0.045***	-0.066***	-0.032***	-0.101***	0.011	0.049***	-0.008	-0.005	-0.286***	-0.401***		
13. t4	0.002	-0.062***	-0.006	-0.041***	-0.013	0.015	-0.010	-0.183***	-0.201***	-0.266***	-0.372***	-0.276***	
14. policy	0.006	-0.302***	-0.018	0.005	0.030**	0.051***	0.033**	0.109***	0.028*	0.064***	0.031**	-0.066***	-0.033**

특히 학교성적 및 지역사회 관계와는 높은 (+)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정체성 유형 2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년수와는 (+)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학교성적, 지역사회 관계와는 (-)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체성 유형 3의 경우 남학생과 상대적으로 높은 (+)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머니의 나이가 적을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교육년수와는 (-)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광역시 거주와는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체성 유형 4의 경우 학생의 연령과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체성 유형 4이 줄어들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학교성적, 지역사회관계와도 (-)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정책 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4가지 정체성 유형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체성 유형 1과 유형 2가 (+)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정체성 유형 3과 유형 4는 (-)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정책 관련 활동참여 여부와 청소년들의 정체성간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생활 적응 분석

1) 학교생활 적응(학교수업 적응,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1) 횡단면 모형과 (2) 패널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하고,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Breusch-Pagan Breusch multiplier test와 Hausman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검정통계량이 $\chi^2(1) = 618.50$ 과 $\chi^2(12)=296.01$ 로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3) 패널 확률효과 모형과 (4)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Hausman test 결과 $\chi^2(10)=146.53$ 로 두 모형 추정결과에 체계적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추정은 (2)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수업적응,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가정환경 변수 중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정형편도 유의미한 영향을 없다고 나타났다. 광역시 거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광역시의 교육환경이 지방소도시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성적은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사람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학교생활 적응 회귀분석 결과

	(1) 횡단면 모형	(2) 패널 확률효과모형	(3) 패널 고정효과모형	(4) 패널 확률효과모형
sex	-0.0454*** (0.0075)	-0.0478*** (0.0099)	omitted	-0.0321*** (0.0110)
sage	0.0263*** (0.0027)	0.0262*** (0.0026)	0.0238*** (0.0025)	0.0323*** (0.0039)
mage	-0.0009 (0.0007)	-0.0009 (0.0010)	omitted	-0.0003 (0.0011)
mkor	0.0659*** (0.0068)	0.0658*** (0.0075)	0.0659*** (0.0098)	0.0709*** (0.0090)
meduy	0.0026 (0.0017)	0.0034 (0.0023)	-0.0614 (0.0864)	0.0025 (0.0025)
hcond	0.0057 (0.0076)	-0.0037 (0.0081)	-0.0155 (0.0102)	-0.0006 (0.0092)
sid	0.0338*** (0.0085)	0.0321*** (0.0111)	-0.0187 (0.0723)	0.0279** (0.0120)
ss	0.2073*** (0.0055)	0.1930*** (0.0059)	0.1631*** (0.0074)	0.1946*** (0.0078)
rcrel	0.2335*** (0.0082)	0.2313*** (0.0085)	0.2218*** (0.0102)	0.2289*** (0.0120)
t1	0.3068*** (0.0123)	0.2671*** (0.0122)	0.2096*** (0.0138)	0.2555*** (0.0158)
t2	0.1164*** (0.0105)	0.1021*** (0.0103)	0.0824*** (0.0113)	0.0954*** (0.0129)
t3	0.1322*** (0.0115)	0.1215*** (0.0115)	0.1069*** (0.0131)	0.1196*** (0.0141)
policy				0.0012 (0.0086)
_cons	0.9705*** (0.0559)	1.0406*** (0.0614)	2.0055* (1.1128)	0.9259*** (0.0784)
R-squared	0.4195	0.4188	0.2796	0.4211
Wald test	F(12, 6977)=420.19***	$\chi^2(12)=3124.28***$	F(10, 5410)=177.86***	$\chi^2(13)=2602.43***$
Hausman test	$\chi^2(12)=296.01***$		$\chi^2(10)=146.53***$	
Obs.	6,990			5,430
group	1,570			1,467

()안은 robust 표준오차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정체성의 경우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긍정적이었던 정체성 유형 1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정체성 유형 2와 3 집단도 정체성 유형 4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체성 유형 1의 계수 크기가 여타 변수의 계수 크기에 비해 가장 커서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패널 확률효과 모형은 2012년~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서 다문화정책 관련 프로그램 경험이나 참여 여부에 대한 변수(policy)를 포함하고 있다. policy 계수는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policy 변수가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여부만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별 참석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문화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2) 학교생활 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범주인 학교수업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5) 횡단면 모형, (6) 패널 확률효과 모형, 그리고 (7) 패널 고정효과 모형들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 (6) 패널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한 추정모형으로 선택되었다. (6) 학교

수업 적응에 대한 패널 확률효과 모형 추정결과는 <표 6>의 (2) 모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추정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학교수업 적응과 관련된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표 6>과 비교하면 남학생이 전반적인 학교생활보다는 학교수업에서 더 부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표 6>에서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교수업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학력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수업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성적이 학교수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다 크게 나타난다. 넷째, 정체성 유형 1 집단도 여타 유형에 비해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학교수업 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표 6>의 학교생활 적응에서와 달리 학교성적의 영향력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광역시 거주도 또한 학교수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하나는 지방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학원 등의 존재 등으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학교수업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표 7. 학교수업 적응 회귀분석

	(5) 횡단면 모형	(6) 패널 확률효과모형	(7) 패널 고정효과모형	(8) 패널 확률효과모형
sex	-0.0898*** (0.0093)	-0.0899*** (0.0128)		-0.0709*** (0.0139)
sage	0.0138*** (0.0034)	0.0107*** (0.0035)	0.0081*** (0.0031)	0.0175*** (0.0047)
mage	0.0023*** (0.0009)	0.0025** (0.0012)		0.0029** (0.0013)
mkor	0.0592*** (0.0085)	0.0581*** (0.0099)	0.0569*** (0.0121)	0.0669*** (0.0112)
meduy	0.0072*** (0.0022)	0.0078*** (0.0030)	-0.1086 (0.1068)	0.0069** (0.0033)
hcond	0.0009 (0.0094)	-0.0114 (0.0100)	-0.0238* (0.0127)	-0.0021 (0.0113)
sid	0.0465*** (0.0106)	0.0436*** (0.0145)	-0.0079 (0.0894)	0.0365** (0.0159)
ss	0.3546*** (0.0069)	0.3247*** (0.0088)	0.2753*** (0.0092)	0.3351*** (0.0102)
rcrel	0.1830*** (0.0103)	0.1776*** (0.0128)	0.1636*** (0.0126)	0.1712*** (0.0143)
t1	0.2685*** (0.0153)	0.2343*** (0.0167)	0.1880*** (0.0171)	0.2256*** (0.0190)
t2	0.1188*** (0.0131)	0.1018*** (0.0132)	0.0801*** (0.0140)	0.0998*** (0.0150)
t3	0.1235*** (0.0144)	0.1009*** (0.0157)	0.0731*** (0.0162)	0.0967*** (0.0175)
policy				-0.0011 (0.0109)
_cons	0.5916*** (0.0698)	0.7567*** (0.0833)	2.5969* (1.3759)	0.6099*** (0.0992)
R-squared	0.4233	0.4228	0.1881	0.4317
Wald test	F(12, 6977)=426.68***	$\chi^2(12)=3087.9$ ***	F(10, 5410)=163.55***	$\chi^2(13)=2475.57$ ***
Hausman test	$\chi^2(12)=169.95$ ***		$\chi^2(10)=135.70$ ***	
Obs.	6,990			5,430
group	1,570			1,467

()안은 robust 표준오차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3) 학교생활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범주인 학교 친구관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는데, (9), (10), (11) 모형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 (10) 패널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 추정모형으로 선택되었다. 학교생활 적응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표 6>과 차이가 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간의 차이는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상대적으로 부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남녀 구분이 교우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정체성 유형 1의 계수가 여타 변수의 계수보다 크게 추정되고 있어, <표 6>의 학교생활 적응과 달리 정체성의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체성 유형 중 한국문화선호에 부정적 성향을 가진 정체성 유형 2집단의 경우 <표 7>의 학교수업 적응에 비해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체성 유형 2 집단의 계수가 유형 1과 3보다 작게 추정되고 있는데, 유형 2 집단이 유형 1과 3 집단에 비해 한국문화선호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 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표 8. 학교 친구관계 회계분석

	(9) 횡단면 모형	(10) 패널 확률효과모형	(11) 패널 고정효과모형	(12) 패널 확률효과모형
sex	-0.0006 (0.0087)	-0.0028 (0.0117)		0.0073 (0.0128)
sage	0.0422*** (0.0031)	0.0443*** (0.0033)	0.0448*** (0.0030)	0.0387*** (0.0043)
mage	-0.0006 (0.0008)	-0.0008 (0.0011)		-0.0002 (0.0012)
mkor	0.0564*** (0.0080)	0.0552*** (0.0088)	0.0517*** (0.0115)	0.0627*** (0.0097)
meduy	-0.0005 (0.0020)	0.0000 (0.0027)	0.0813 (0.1017)	-0.0001 (0.0029)
hcond	0.0013 (0.0088)	0.0006 (0.0099)	0.0024 (0.0120)	-0.0002 (0.0108)
sid	0.0228** (0.0099)	0.0239* (0.0131)	0.0910 (0.0850)	0.0143 (0.0143)
ss	0.1163*** (0.0064)	0.1092*** (0.0082)	0.0937*** (0.0087)	0.0959*** (0.0087)
rcrel	0.2032*** (0.0096)	0.2015*** (0.0134)	0.1948*** (0.0120)	0.1931*** (0.0150)
t1	0.2536*** (0.0143)	0.2251*** (0.0158)	0.1857*** (0.0162)	0.2288*** (0.0181)
t2	0.0945*** (0.0122)	0.0886*** (0.0131)	0.0824*** (0.0133)	0.0852*** (0.0152)
t3	0.1101*** (0.0134)	0.1067*** (0.0143)	0.1044*** (0.0154)	0.1147*** (0.0166)
policy				0.0047 (0.0098)
_cons	1.1311*** (0.0651)	1.1519*** (0.0791)	0.1375 (1.3093)	1.2362*** (0.0914)
R-squared	0.2321	0.2316	0.1120	0.2219
Wald test	F(12, 6977)=175.73***	$\chi^2(12)=1299.66***$	F(10, 5410)=92.21***	$\chi^2(13)=1001.73***$
Hausman test	$\chi^2(12)=396.82***$		$\chi^2(10)=44.96***$	
Obs.	6,990			5,430
group	1,570			1,467

()안은 robust 표준오차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4) 학교생활 적응: 학교 교사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범주인 학교 교사관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으며, Hausman test 결과 (14) 패널 확률효과 모형이 선택되었다.

표 9. 학교 교사관계 회계분석

	(13) 횡단면 모형	(14) 패널 확률효과모형	(15) 패널 고정효과모형	(16) 패널 확률효과모형
sex	-0.0459*** (0.0124)	-0.0500*** (0.0158)		-0.0319* (0.0172)
sage	0.0228*** (0.0045)	0.0232*** (0.0046)	0.0186*** (0.0043)	0.0404*** (0.0067)
mage	-0.0043*** (0.0012)	-0.0044*** (0.0016)		-0.0035** (0.0017)
mkor	0.0820*** (0.0114)	0.0835*** (0.0130)	0.0890*** (0.0169)	0.0831*** (0.0144)
meduy	0.0012 (0.0029)	0.0022 (0.0037)	-0.1568 (0.1492)	0.0004 (0.0040)
hcond	0.0148 (0.0126)	0.0009 (0.0136)	-0.0251 (0.0177)	0.0033 (0.0151)
sid	0.0321* (0.0142)	0.0291 (0.0179)	-0.1390 (0.1248)	0.0340* (0.0193)
ss	0.1509*** (0.0092)	0.1436*** (0.0109)	0.1204*** (0.0128)	0.1516*** (0.0124)
rcrel	0.3142*** (0.0137)	0.3143*** (0.0178)	0.3071*** (0.0176)	0.3216*** (0.0194)
t1	0.3983*** (0.0205)	0.3476*** (0.0231)	0.2550*** (0.0238)	0.3232*** (0.0263)
t2	0.1359*** (0.0175)	0.1174*** (0.0190)	0.0848*** (0.0195)	0.1060*** (0.0217)
t3	0.1631*** (0.0192)	0.1560*** (0.0214)	0.1433*** (0.0226)	0.1500*** (0.0242)
policy				0.0019 (0.0149)
_cons	1.1887*** (0.0933)	1.2217*** (0.1104)	3.2821* (1.9213)	0.9372*** (0.1327)
R-squared	0.2382	0.2375	0.0699	0.2381
Wald test	F(12, 6977)=181.8***	$\chi^2(12)=1451.01***$	F(10, 5410)=78.05***	$\chi^2(13)=1183.94***$
Hausman test	$\chi^2(12)=384.7***$		$\chi^2(10)=80.84***$	
Obs.	6,990			5,430
group	1,570			1,467

()안은 robust 표준오차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을 의미

<표 6>의 학교생활 적응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어머니의 나이가 청소년의 학교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학교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젊은 어머니가 교사와의 소통이 용이하고 이러한 측면이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체성 유형 중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 모두에 긍정적 성향을 보인 정체성 유형 1의 경우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정체성 유형 1의 경우 <표 6>~<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모두에서 적응이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의 정체성이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와 정체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완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정착하는 데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이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둘째, 변화된 정체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체성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세부 항목으로 하여 4가지 유형으로 정체성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유형은 세 가지 항목 모두 긍정적인 유형 1, 한국문화에는 부정적인 유형 2, 외국문화에는 부정적인 유형 3, 세 항목 모두 부정적인 유형 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체성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고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유형에서 전년도 유형이 차년도 유형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았지만, 매년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체성 유형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체성 유형 1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선호가 사회 및 학교 생활 적응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사회 어울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가 및 문화정체성이 배양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광역시 거주, 학교성적, 지역사회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젠더차이는 학교생활적응 중에서 학교수업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교우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학교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학력이 학교수업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체성 유형 2의 경우 유형 4에 비해 교우관계가 원만하였으나, 유형 1과 3에 비해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교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나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체성 유형 1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의 세부 항목중에서 학교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학생의 정체성이 학업성취나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정체성을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선호, 외국문화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체성의 동태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높은 국가정체성뿐만아니라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높은 선호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민지. (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197-231.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승희. (20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23, 25-61.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2017. 1. 13. 보도자료). (2017년 8월 20일 접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 남영옥.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37-47.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문영희, 안은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47-68.
- 박선웅. (2013). 초·중등학생의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이론*, (43), 161-199.
- 박선웅, 우현정.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사회이론*, (44), 211-258.
- 박성철, 윤영숙. (2015).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2), 19-30.
- 박순희, 조원탁, 이주희. (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53-76.
- 박진우, 장재홍.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연구보고 10-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경화.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 우영경, 김은하. (2016).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9(3), 63-81.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단일호), 235-264.
- 이재분.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연구: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 이창호, 송민지.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질적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3-R12-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인진, 김은비. (2012). 다문화 가족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 48, 273-307.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 전병주. (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연구-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 12(4), 33-41.
- 조한숙, 문혁준.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5), 87-102.
- 중앙선데이. (2017. 4. 2.) 외국인·다문화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한국인들. (2017년 8월 20일 접근). <http://news.join.com/article/21430011>.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9(2), 261-287.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타즌십 (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147-174.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184.
- Berry, J. W. (1984). Berry, J. W. (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11-27. FL: Academic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Hjerm, M. (1998).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1(4), 335-347.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Shulman, S. (2002).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5), 554-585.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소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 구조관계를 탐색하였고, 이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012~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은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cap$ 모양의 비선형모형으로 나타났고,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에서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분석 결과,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장요인 모두에 그리고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통합, 동화, 주변화 양상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모형에서 여학생의 초기치가 그리고 조건모형에서 여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자아존중감, 내재화문제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하 다문화청소년으로 표기)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자녀를 일컫는다. 이렇게 가족을 형성할 때부터 이중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는 다문화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 문화권에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의 문화와 민족의 특성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통합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화적응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Lynch, 1992).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 탐색과 형성이라는 주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더해 인종/민족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문화적응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업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아동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leesy@sm.ac.kr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가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기의 문제가 자아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적 발달변인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비주류문화와 대한민국 문화라는 주류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노충래, 2000; 박순희, 2009, 이영주, 2007; 이현주, 강현아, 2011). 문화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Berry(1990)의 문화적응유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주변인, 동화, 분리, 통합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적응이 이뤄지고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 중 두 가지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통합유형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Kosic, Manetti, & Sam, 2005). 이와 비슷한 개념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노충래, 홍진주, 2006)를 의미하는 것으로 Berry의 이론처럼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신윤진, 윤창영, 2010; 안은미, 2007; 윤향희, 2014). 이처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지 혹은 더 나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Doyle & Kao, 2007; Phinney, 2005). 또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며 이것이 인종적 정체감 획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French, Seidman, Allen, & Aber, 2006). 이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을 따라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나 개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파악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외의 청소년들처럼 발달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발달궤적이 청소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선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문화유산 학습을 격려하고 문화유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인종적/문화적 사회화(ethnic/cultural socialization)를 강조할수록 자녀의 인종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Seaton, Yip, Morgan-Lopez, & Sellers, 2012; Umana-Taylor & Guimond, 2010). 부모의 이러한 문화적 사회화에 대한 강조는 청소년이 경험한 교사와 또래에 의한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고 부모가 문화적 사회화를 강조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12세가 된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낮아지지 않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Wang & Huguley, 2012). 또한

자녀가 모국어 및 모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어머니가 높게 가질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김순규, 2012).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수준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와 자녀의 문화적응의 차이는 부모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곽금주, 2008; Buki, Ma, Strom, & Strom, 2003; Kim, Han, & McCubbin, 2007).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부정적 스트레스 전략을 덜 사용하기도 하였다(강유임, 김병석, 2013). 이를 종합하면,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유사한 개념인 이중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소년기는 부모 보다는 또래나 다른 사회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변인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가진 이중문화요인도 자신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와의 애착보다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전략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강유임, 김병석, 2013) 보고한 연구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화와 잘 연계되어 있고 인종적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지각하거나 주류문화에 대한 유능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가진 경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로 인해 차별에 의한 악영향을 적게 받았다(Brown & Chu, 2012; Galliher, Jones, & Dahl, 2011). 더욱이 강한 인종적 정체감을 획득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행복하며 걱정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ang, Yip, Gonzales-Backen, Witkow, & Fuligni, 2006; Mandara, Gaylord-Harden, Richards, & Ragsdale, 2009; Rivas-Drake et al.,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은 자아정체감,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경, 2016; 송순택, 2014; Vinokurov, Trickett, & Birman, 2002).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김승경, 양계민, 201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한민국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감정적 개입 현상을 측정하는 국가정체성을 이중문화요인으로 상정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태도의 형성과정에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외국인 부모의 이중문화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 선행연구가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환경, 즉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경, 양계민, 2012).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부모의 외국인 여부라는 변인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 측정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

요인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중학교 2학년 때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즉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문화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차이가 보고된 변인들이다. 일례로 우울 증상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Kovacs, 1996) 여중생의 우울과 불안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가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송순택, 2014). 인종/민족 정체감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나타나 나바호 인디언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인종/문화정체감을 보였고(Galliher, Jones, & Dahl, 2011) 문화적응유형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여자아동의 경우 통합형이 많았던 반면 남자아동은 동화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주, 강현아, 2011).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부모 중 외국인인 어머니만이 참여하였고, 어머니의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동일시나 모방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개입방법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백미영, 이소연, 2017). 이를 기초로 하였을 때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모형 분석시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문제뿐 아니라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개인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이러한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에는 성차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5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간 구조관계를 탐색하였다. MAPS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7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종단패널 연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변인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5차 연도 이중문화수용태도, 2차 연도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 그리고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차 연도 기준 총 1,597명의 청소년과 그 어머니로, 남학생 721명(45.1%), 여학생 742명(46.5%)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134명(8.4%)은 성별을 보고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노충래,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문화활동 참여, 미래 거주 및 진학국가와 같은 문항에 대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과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길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10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2차 .73, 3차 .73, 4차 .73, 5차 .74로 나타났다.

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와 King의 청소년용 The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척도를 재 수정한 홍진주(2004)의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 10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8로 산출되었다.

3)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척도(SIS: Social Identity Scale)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Likert 5점 대신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난이도를 수정하고,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한국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개입 현상을 알아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체성 4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6)이 변안하고 이소래(1997)가 수정해서 사용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 8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로 산출되었다.

5)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은 Barry(2001)가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을 노하나(2007)가 수정한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통합(5문항), 동화(8문항), 분리(6문항), 주변화(9문항)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유형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통합 .67, 동화 .83, 분리 .71, 주변화 .91로 산출되었다.

6)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박난숙, 오경자(1992)가 사용한 자아개념검사 척도의 자아존중 하위영역의 4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자아존중감 4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4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7)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뒤 수정한 척도를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우울 10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우울 .91, 사회적 위축 .91로 나타났다.

3. 주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M-plus 8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단적 패널 자료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인 간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를 통제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차의 유의성과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5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이때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무조건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에 적합한 조건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이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과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과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변인간의 조건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다집단비교(multiple group comparison)를 수행하였다. 이 때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장요인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해 성차를 검증하였고, 조건적인 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대신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Mann, Rutstein, & Hancock, 2009).

$$|Z_{diff}| = \frac{b_1 - b_2}{\sqrt{SE_{b1}^2 + SE_{b2}^2}}$$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χ^2 는 표본수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에 대해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이상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 2014).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은 2차 29.02, 3차 29.53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4차 29.29, 5차 29.10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차 연도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은 14.48과 10.83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19.96으로 각각 나타났고, 어머니의 문화적응 하위영역의 평균은 통합 17.25, 동화 24.37, 분리 17.65, 주변화 18.91로 나타났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12.71, 우울 평균은 16.95, 사회적 위축 평균은 11.70으로 산출되었다.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3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 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i>N</i>	<i>M</i>	<i>SD</i>	왜도	첨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2차	1463	29.02	4.01	.08	.7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3차	1407	29.53	3.87	.21	.5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4차	1345	29.29	3.84	.15	.6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5차	1312	29.10	3.85	.24	.3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63	14.48	3.76	1.35	2.28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1463	10.83	2.60	-.35	.25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07	19.96	5.79	.26	-.15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1407	17.25	2.79	-.30	.64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1407	24.37	5.16	.07	.3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1407	17.65	3.71	-.29	.4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1407	18.91	6.27	.17	-.67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5차	1312	12.71	2.12	-.10	-.2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5차	1312	16.95	5.36	.47	-.16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위축5차	1312	11.70	3.68	-.20	-.5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차에서 5차 연도까지의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2차 연도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01$),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s<.001$) 보인 반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차와 4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통합과 유의한 정적상관을($ps<.01$) 그리고 2차와 3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주변화와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합과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분리, 주변화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합, 동화와 유의한 정적상관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분리, 주변화 유형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s<.01$) 보였다.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측정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38***	1												
3	.30***	.37***	1											
4	.31***	.37***	.46***	1										
5	-.19***	-.15***	-.14***	-.14***	1									
6	.43***	.17***	.17***	.13***	-.01	1								
7	.01	-.02	-.04	-.04	.19***	.01	1							
8	.07**	.05	.08**	.05	-.08**	.03	-.28***	1						
9	-.03	-.04	.01	-.03	-.05	.01	-.23***	.53***	1					
10	-.01	-.03	-.04	-.03	.12***	-.01	.37***	-.27***	-.46***	1				
11	-.09***	-.06*	-.05	-.04	.20***	-.01	.48***	-.36***	-.20***	.31***	1			
12	.24***	.27***	.29***	.47***	-.19***	.14***	-.08**	.10***	.06*	-.09***	-.13***	1		
13	-.13***	-.19***	-.21***	-.29***	.18***	-.08**	.11***	-.06*	-.04	.05	.11***	-.51***	1	
14	-.12***	-.09***	-.11***	-.18***	.08**	-.10***	.08**	-.06*	-.05	.06*	.10***	-.37***	.47***	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2차, 2: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3차, 3: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4차, 4: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5차, 5: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6: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8: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 9: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 10: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 11: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 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5차, 13: 청소년의 우울5차, 1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5차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개 시점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며, 비선형모형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변화율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무변화	56.890***	8	.944	.958	.064(.049-.080)
선형	28.207***	5	.973	.968	.056(.037-.077)
비선형	5.835*	1	.994	.967	.057(.020-.105)

* $p < .05$, ** $p < .01$, *** $p < .001$

4개 연도 동안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한 결과, 비선형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CFI .994, TLI .967,

RMSEA .057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은 비선형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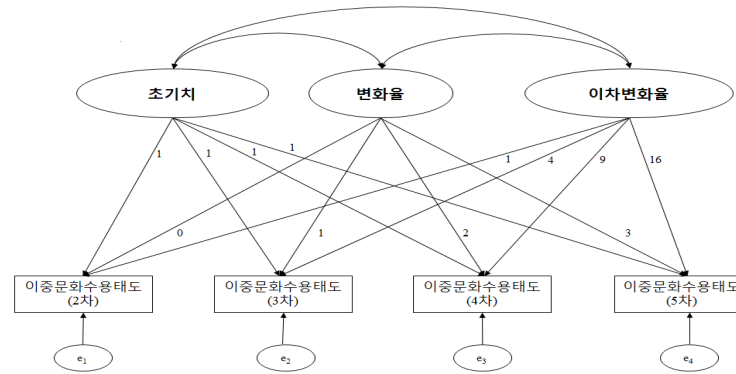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잠재성장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intercept), 변화율(linear slope), 이차변화율(quadratic slope)의 평균과 분산, 이들 간의 상관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평균은 29.058($p < .001$), 변화율의 평균은 .507($p < .001$)로 이는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의 측정시점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이 .507만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차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이차변화율이 $-.169$ ($p < .001$)로 나타나 어느 시점부터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하지 않고 둔화 혹은 감소하여 비선형 변화궤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지만 이차변화율에서는 개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의 초기치와 일차변화율($r = -.591$, $p < .001$),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r = -.903$, $p < .001$)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초기치와 이차변화율($r = .499$, $p < .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가 높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이차변화 시기에는 급격하게 감소/둔화되며, 일차변화의 변화율이 급격했던 청소년은 이차시기의 변화율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더욱 완만한 변화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초기치	변화율	이차변화율
평균	29.058***	.507***	-.169***
분산	8.701***	4.084*	.256
상관	초기치↔일차변화율 = $-.591$ *** 일차변화율↔이차변화율 = $-.903$ *** 초기치↔이차변화율 = $.499$ **		

* $p < .05$, ** $p < .01$, *** $p < .001$

3.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및 심리정서적응의 구조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2차 연도에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그리고 5차 연도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14)=29.736$, $p<.01$, CFI=.993, TLI=.966, RMSEA=.028(90% CI [.014, .042])로 나타나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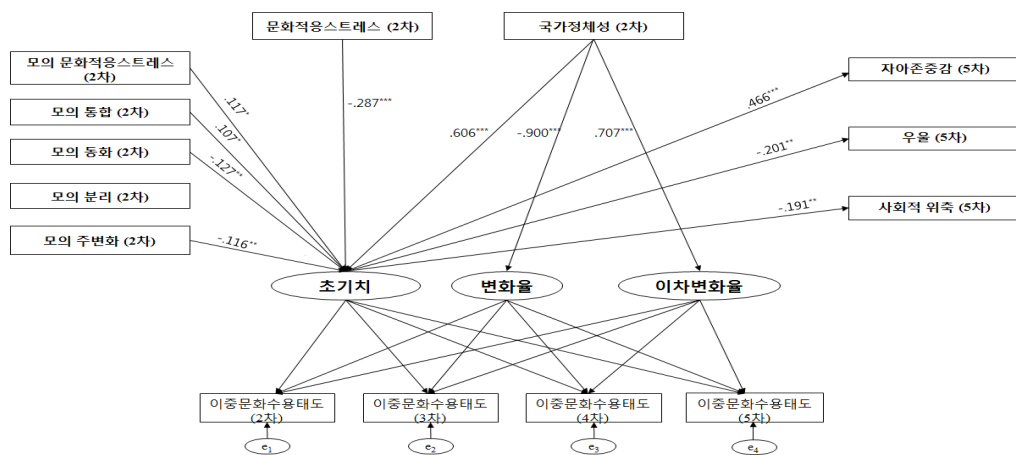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

주.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모형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경로만 표시하였음.

** $p < .01$, *** $p < .001$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추정계수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2차 연도의 각 예측변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 및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차 연도의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287$, $p < .001$)와 국가정체성($\beta = .606$, $p < .0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117$, $p < .01$)와 통합($\beta = .107$, $p < .05$), 동화($\beta = -.127$, $p < .01$), 주변화($\beta = -.116$, $p < .01$)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국가정체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고,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영역의 점수가 높고 동화와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다. 또한 2차 연도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beta = -.900$, $p < .001$)과 이차변화율($\beta = .707$,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높은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급격하게 감소/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모든 이중문화변인은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의 유의

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만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beta=.466, p<.001$), 우울($\beta=-.201, p<.001$), 사회적 위축($\beta=-.19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을 높게 보고한 청소년일수록 중학교 2학년 때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추정계수 중 1 이상인 계수가 2개 있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인데다가(Deegan, 1978) 데이터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i>B</i>	<i>SE</i>	<i>β</i>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206***	.026	-.287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1	.035	.13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11	-.07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622***	.036	.606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403***	.049	-.900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87***	.016	.70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54**	.019	.11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5	.026	-.176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08	.101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102*	.041	.10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12	.057	.028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5	.018	-.041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66**	.023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09	.032	.039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3	.010	-.051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09	.030	-.013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1	.041	-.100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7	.013	.081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49**	.018	-.116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0	.025	.21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8	.008	-.149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43	.127	.075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366	.408	.253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14	.232	-.11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자아존중감(5차)	-.884	.862	-1.081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우울(5차)	-2.024	3.610	-.977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사회적위축(5차)	1.347	1.783	.947

	<i>B</i>	<i>SE</i>	<i>β</i>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69	.099	-.18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118	.336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29	.185	.203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자아존중감(5차)	.028	.148	.03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우울(5차)	.070	.302	.036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사회적위축(5차)	-.035	.228	-.026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47	.083	.1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우울(5차)	.016	.178	.0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64	.131	-.08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자아존중감(5차)	-.081	.124	-.142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우울(5차)	-.184	.345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사회적위축(5차)	.118	.210	.11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62	.105	.183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우울(5차)	.237	.375	.27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96	.200	-.163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자아존중감(5차)	.371***	.050	.466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자아존중감(5차)	-.682	2.054	-.373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자아존중감(5차)	5.581	4.078	.837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우울(5차)	-.406**	.135	-.20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우울(5차)	-5.747	8.193	-1.24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우울(5차)	-2.377	4.555	-.141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사회적위축(5차)	-.265**	.096	-.19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사회적위축(5차)	2.134	4.287	.67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사회적위축(5차)	-5.258	4.782	-.456

* $p < .05$, ** $p < .01$, *** $p < .001$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과 2차 연도의 예측변인과 5차 연도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이 포함된 조건적 잠재성장모형이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CFI .996, TLI .973, RMSEA .051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8.761($p < .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593($p < .01$), 이차변화율의 평균은 -.197($p < .01$)로,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9.331($p < .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401($p < .05$), 이

차변화율의 평균은 $-.131(p<.05)$ 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남학생보다 더 높으나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 평균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분산의 경우, 남학생은 초기치($p<.01$)의 분산만이 여학생은 초기치($p<.001$)와 일차변화율($p<.05$)이 유의하여 성장요인간 개인차는 여학생에게서 더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 일차변화율, 이차변화율 순으로 성별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이전모형과 검증한 결과, 초기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우에만 모형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FI .988, TLI .952, RMSEA .069).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초기치만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건적 잠재성장모형의 추정계수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CFI .996, TLI .981, RMSEA .020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다소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156, p<.001$), 국가정체성($b=.603,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b=.062, p<.05$), 통합($b=.127, p<.05$), 동화($b=-.080, p<.05$)가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266, p<.001$), 국가정체성($b=.640, p<.001$), 어머니의 주변화($b=-.054, p<.05$)만이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학생의 국가정체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b=-.360, p<.001, b=-.108, p<.01$)과 이차변화율($b=.076, p<.01, b=.03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국가정체성만이 일차변화율($b=-.444, p<.001$)과 이차변화율($b=.09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이 5차 연도 심리정서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만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그리고 우울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의 추정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 간 추정계수($Z=2.10,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2차 연도의 낮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측정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라는 예측변인과 함께 이후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변인들 간 구조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4개 시점에서 측정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은 비선형 모형으로,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종모양($\cap$)의 곡선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장요인 간 상관관계를 통하여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변화궤적이 더욱 완만한 종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나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 종단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의 시점으로부터 비(非)다문화청소년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은 가정보다는 또래나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또래나 학교에서 수용되고 통용되는 문화를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한국문화와 외국인부모 문화 혹은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라고 정의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비주류문화로 간주되는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중학생 이후 감소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경우 개인차가 확인되었으나 이차변화율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에게서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약 74% 정도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응답하고 약 25%정도만 자신이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중학교 진학 이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초등학교 시절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어머니는 모두 외국인인 반면 아버지의 96%가 한국인이었는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이는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이 주류문화이자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인 한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을 먼저 형성하지만 자신의 이중문화를 포괄하는 민족/문화정체성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아버지 나라의 문화가 우선시되고 외국인 어머니 나라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각을 청소년이 지각하는 경우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적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나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중문화태도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열린 태도나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으로 정의되는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초, 중, 고등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었다(양계민, 2009). 청소년들이 중학교 2, 3학년이 지나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고(French et al., 2006),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의 향상, 정체성에 대한 관심 증가가 나타나는 중후기 청소년기에 부모의 문화적 사회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Wang & Huguley, 2012). 그러므로 중후기 청소년기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추적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연관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에는 청소년의 문

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통합, 동화, 주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가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국가정체성의 경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가 동화와 주변화 양상을 적게 보일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높고 어머니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양상을 높게 보일수록 2차 연도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연도에 측정된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완만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둔화되는 완만한 종 모양의 변화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만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을수록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에 영향을 받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의 중요성이 본 연구결과에서 대두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여러 이중문화요인이 첫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첫 시점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시점에 측정된 이중문화요인이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예측변인으로 상정되어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발전되고 영향을 미쳐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이러한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받아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아동이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 주변화 보다는 통합과 동화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Berry, Kim, Minde, & Mok, 1987), 통합형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주변화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으며(이현주, 강현아, 2011), 어머니의 문화적응수준이 자녀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곽금주,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흥미로운 발견은 어머니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높은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점이다.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면,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 주변화나 분리보다는 동화나 통합적인 문화적응유형을 추구하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느끼도록 지원하고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어머니가 특히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화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연구와(오옥선, 김성봉, 2012)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 5차 연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중문화요인의 초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쳤다는(김은경, 2016)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통합적 문화적응에 상응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유사한 문화적응이 통합형이고 이것이 정체성 모델에 있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고 이를 청소년이 민감하게 인식하더라도 통합형의 청소년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심리정서 적응에 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Sue & Sue, 2011). 물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의 평균들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초기치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점과 관련되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결과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중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2차 연도의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종모양의 발달궤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정체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긍정적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가정 환경적 요인에 더해 개인내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의 낙관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동시 투입되는 경우 어머니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예림, 2014). 청소년의 다른 이중문화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비해 국가정체성이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국가정체성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점과(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차 연도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가정체성의 영향이 4개 시점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문화정체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영향은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에 대한 강한 감정적 유대감인 국가정체성이 본 연구대상자인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는데 본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약 78%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30.6%), 필리핀(23%), 조선족(17.4%), 중국-한족(6.7%)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차년도 동안 77~88%에 해당하고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고 보고한 학생은 1.5~3.7%이었다(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외모가 달라 또래들 사이에서 많은 이질감을 경험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심각한 정체감의 혼란을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사례와(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배경, 그와 관련된 경험 등이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특징적이어서 국가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잠재성장 비선형모형과 구조모형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여학생의 초기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을 뿐 아니라 4개 시점 내내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합형을 더 많이 보였고(이현주, 강현아, 2011)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동일한 변인은 아니지만 비(非)다문화가정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초기치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수경, 20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것처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중심적이고, 공감적이며 정서중심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과(Rose & Rudolph, 2006) 관련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발달이 인종/문화정체감의 발달이나 이와 연관된 경험의 탐색과 관련되고(French et al., 2006; Wang & Huguley, 2012)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발달 시기가 다른 점(허혜경, 김혜수, 2015)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조건모형에서도 남학생의 경로와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상기 언급된 여학생의 특성과 관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즉, 여학생이 관계중심적일 뿐 아니라 친구관계 스트레스나 사회관계망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자주 직면하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Rose & Rudolph, 2006), 다문화가정 여학생이 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는 다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모형에서 파악된 경로의 성차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자신의 이중문화요인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이 높고 동화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의 주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기에는 관련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제한적이거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정도나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이 보고된 점과(백미영, 이소연, 2017; 이효심, 2011; 임인섭, 2012) 관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모형의 성차에 대한 검증이 탐색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시도할 때 청소년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였고,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 요인의 구조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뿐 아니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뿐 아니라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청소년과 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아버지 에 대한 변인을 함께 탐색할 수 없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그 양상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가 외국인인면서 어머니가 한국인인 가족의 형태는 어머니가 외국인인면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가족의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근영 외, 2009)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용어 제시의 편의상 본 연구대상자를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였으나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데다가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만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문화요인의 변화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이중문화요인의 초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청소년과 어머니의 어떤 이중문화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임,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1), 19-42.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2.
-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은경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난숙, 오경자 (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235-248.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백미영, 이소연 (2017). 모의 과보호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3), 5-18.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송순택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 발현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93-114.
- 신윤진, 윤창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2.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연구보고 16-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미진 외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오옥선, 김성봉 (201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60.
- 윤향희 (2014).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우관계와 이중문화 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래 (1997). 사회적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1), 209-247.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이효심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인섭 (2012).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 지각, 정서능력, 외현화 문제행동의 성차 및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예림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혜경, 김혜수 (2015). **청년심리와 교육**.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Brislin, R.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232-253. Newbury park, CA : Sage.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91-511.
- Berry, J. W., Phinney, J. S., Sam, L. D.,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e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rown, C. S., & Chu, H. (2012).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of Mexican immigrant children: The importance of school context. *Child development*, 83(5), 1477-1485.
- Brown, T. A. (201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Buki, L. P., Ma, T. C., Strom, R. D., & Strom, S. K. (2003). Chinese immigrant mothers of adolescents: self-perceptions of acculturation effects on parent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27-140.
- Deegan, J. (1978). On the occurrence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greater than on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8, 873-888.
- Doyle, J. M., & Kao, G. (2007). Are racial identities of multiracials stable? Changing self-identification among single and multiple race individual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4), 405-423.
- French, S. E., Seidman, E., Allen, L., & Aber, J. L. (2006). The development of ethnic identity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1-10.
- Galliher, R. V., Jones, M. D., & Dahl, A. (2011).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ethnic identity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Navajo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509-526.
- Kiang, L., Yip, T., Gonzales-Backen, M., Witkow, M., & Fuligni, A. J. (2006). Ethnic identity and the daily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Mexican and Chinese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77(5), 1338-1350.
- Kim, E., Han, G., & McCubbin, M. A. (2007). Korean American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ccultur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amily & Community Health*, 30, S33-S45.
- Kosic, A., Manetti, L., & D. Sam. (2005). The role of majority attitudes towards out-group in the perception of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273-288.
- Kovacs, M. (1996). Presentation and cours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during childhood and later years of the life spa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 35(6), 705-715.
- Lynch, E. W. (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19-33. Baltimore, Maryland : Paul H Brookes.
- Mandara, J., Gaylord-Harden, N. K., Richards, M. H., & Ragsdale, B. L. (2009). The effects of changes in racial identity and self-esteem on changes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80(6), 1660-1675.
- Mann, H. M., Rutstein, D. W., & Hancock, G. R. (2009). The potential for differential findings among invariance testing strategies for multisample measured variable path mode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9, 603-612.
- Phinney, J. S. (2005). Ethnic identity in late modern times: A response to Rattansi and Phoenix. *Identity*, 5(2), 187-194.
- Rivas-Drake, D., Seaton, E. K., Markstrom, C., Quintana, S., Syed, M., Lee, R. M., ... & Yip, T. (2014). Ethnic and racial identity in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academic, and health outcomes. *Child Development*, 85(1), 40-57.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
- Seaton, E. K., Yip, T., Morgan-Lopez, A., & Sellers, R. M. (2012).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al socialization as predictor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racial identity development us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8(2), 448-458.
- Sue, D. W., & Sue, D. (2011). 유색인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 발달. **다문화상담** (pp. 309-344).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 Umana-Taylor, A. J., & Guimond, A. B. (2010).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predicting Latino adolescents' ethnic ident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6, 636-650.
- Vinokurov, A., Trickett, E. J., & Birman, D. (2002). Acculturative hassles and immigrant adolescents: A life-domain assessment for Soviet Jewish refuge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425-445.
- Wang, M. T., & Huguley, J. P. (2012). Parental racial socialization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succ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3(5), 1716-173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CA.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 ·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영주* · 박륜정** · 이수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 중에서 2015년 중학교 2학년 시점의 학생들 134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해 보고, 각 유형에 따른 심리적 ·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군집분석을 통해 문화적응 유형은 크게 한국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국문화 친밀형과 외국문화 친밀형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별 심리적 ·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 순으로 심리적 · 학교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이중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유형, 심리적 · 학교적응

I. 서론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외국 노동자들의 이주 등으로 인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82,536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6년에는 99,186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69%를 차지하며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 많은 수는 한국에서 출생하지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들은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두 가지 문화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한국문화와 외국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상황을 이중문화로 지칭하고 있다(윤향희, 2014).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과 이현숙(2006)의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37.5%)’ 보다 ‘한국인과 외국

*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faithlsk@sungkyul.ac.kr

인 모두로 인식한다(42.9%)’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 스스로도 이중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문화 정체감을 갖는 경우보다 이중문화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문영희, 안은미, 2010; 오경화, 2011; 이현주, 강현아, 2011), 이중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외국문화와 한국문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용 하고 통합하는지가 중요하다 고 볼 수 있겠다. 이중문화 수용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지는 문화적응 유형 이론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Berry(1970; 1974; 1980)의 다차원 모델 이론을 근거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용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Berry와 동료들은(1989)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 및 주류문화에 대한 접촉 및 참여에 따라서 문화적응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문화 수용태도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두 문화의 수용태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는 이중문화 친밀형, 두 문화의 수용태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외국문화 수용태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국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수용태도가 한국문화 수용태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국문화 친밀형으로 지칭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는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개념, 성격 등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의 출신국가 및 모국에 대한 접촉, 부모의 언어 능력 및 한국 적응 양상, 자녀 양육방식,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정의 환경적·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선희, 2010). 외국 국적을 지닌 부모가 한국어로 자녀와 대화할 뿐 아니라 모국 언어도 자녀에게 가르치며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모국어만 가르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한 쪽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만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전정숙과 송민경(2011)은 어머니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한국 사회 참여에 더 소극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통합하는지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데, 문화적응은 문화 간 접촉으로 발생하는 문화적·심리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Berry, 2003). 문화적응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되며(Ward, 1996), 심리적 적응에는 개인의 정신건강, 행복 등의 변인이 포함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일상생활을 다루어가는 능력으로서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이 사회·문화적 적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earle & Ward, 1990; Ward, 1996; 2001;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으로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변인을 살펴보았으며, 학교 적응으로는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습활동 적응, 교사와의 관계 변인을 살펴보았다. 신윤진과 윤창영(2010)의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론(2009)의 연구에서도 교우관계 및 친구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은영(2015)의 연구에서 이중문화 역량은 학교생활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은경과 김종남(2016)은 이중문화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홍순혜와 이숙영(2008)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성 및 적응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양상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의 특징 및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첫째, 한국 및 외국문화 수용태도에 따라서 문화적응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심리적·학교적응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외국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한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부모의 양육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가치관 및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박계란, 이지민, 2010; 이영주, 2009). 하지만 이러한 이중문화 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이 이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정지윤, 문성호, 2011; Nguyen & Benet-Martínez, 2013),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이중문화의 수용은 다문화청소년에게 불가피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내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타문화에 대한 태도 등이 있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여부, 부모의 국적,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적극적일수록,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한국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화, 2011).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국적과 직업에 따라 한국사회로의 동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다고 본다(오경화, 2011).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수록 자녀의 이중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며(윤인진, 김은비, 2012), 주변인들로부터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받을수록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아진다고 본다(심미영, 이둘녀, 박종옥, 2013).

타문화에 대한 수용이 배타적인 한국의 특성상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받기도 한다(김순규, 2011; 노충래, 홍진주, 2006; 정지윤, 문성호, 2011).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심리적 적응 및 사

회·문화적 적응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이채원, 박소은, 2014). 따라서 이중문화 수용 과정에서 한국문화와 외국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로운 문화적응을 이루는 것이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의 수용 및 통합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적응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조복희, 박태수, 한세영, 2004). 문화적응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된다(Castro, 2003). 하나는 문화적응을 주류문화에 대한 비주류문화의 동화과정으로 보는 선형적 모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위해서 원문화와 관련된 것이 소실되고 새로운 주류문화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적응(acculturation)보다는 동화(assimilation)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단편적인 문화적응의 개념에서 탈피한 것으로 다차원 모델이 있으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이 있다. 그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주류문화에 대한 접촉과 참여뿐만 아니라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의 두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였다(Berry et al., 1989). 이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통합 유형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는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을 이룬다고 보이는 유형이다(Berry, 1991; Castro, 2003; Doná & Berry, 1994; Phinney, Chavira & Williamson, 1992). 다음으로 동화 유형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포기하고 주류문화로 적극적으로 이동하려 하며, 이와 반대로 분리 유형은 주류문화와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굳건히 유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화 유형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유지하지 않으면서 주류문화와의 관계도 거부한다. 이렇듯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은 원문화의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상호변화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다(Berry, 1997; Bourhis, Moise, Perreault, & Senecal, 1997).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적응의 선형적 모델은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중문화 수용태도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이론(1970; 1974; 1980)을 재구성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각각에 대한 수용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응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차원 2 한국문화수용	차원 1 외국문화수용 높음	외국문화수용 낮음
	이중문화* 친밀형	한국문화 친밀형
한국문화수용 높음	이중문화* 친밀형	한국문화 친밀형
한국문화수용 낮음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

* 본 논문에서 이중문화는 한국문화와 부모 중 한 명의 외국문화를 뜻함.

이중문화 친밀형은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이 모두 높은 유형을 의미하며, 한국문화 친밀형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이 외국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의미한다. 외국문화 친밀형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에 비해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인 유형이며, 이중문화 소외형은 한국문화 및 외국문화 모두에 소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문화적응은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변화 모두를 일컫는다(Berry & Sam, 1997). Berry(1992)는 문화적응을 겪고 있는 개인의 적응(adaption) 과정을 밝혔는데, 여기서 적응은 심리적(psychological) 차원의 적응과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차원의 적응으로 구분된다. 심리적 차원의 적응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은 문화 학습을 통해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Searle & Ward, 1990). 두 가지 차원의 적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문화적응 과정을 이끈다(Ward & Kennedey, 1999).

1) 심리적 적응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신체·인지·사회적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면서 정서적 불안을 겪는데 이는 심리적 적응의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Buchanan, Eccles & Becker, 1992).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이중문화 수용이라는 과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하므로 심리적 적응에 더 많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남윤주, 이숙, 2009;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중문화 수용으로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heng, Sanchez-Burks, Lee, 2008), 이러한 이중정체감은 심리적 부적응 행동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김은경, 김종남, 2016).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통합 유형이 가장 긍정적인 적응을 보였으며 심리적 문제를 덜 겪는다고 보았다(Doná & Berry, 1994; Phinney et al., 1992). 이와 반대로 주변화 유형은 이중문화에 모두 소극적이며 소외되어 있으므로 심리적 적응에 가장 부정적이라고 보았다(Berry, 1997). 동화와 분리 유형은 통합과 주변화 유형의 중간수준 정도로 적응한다고 보았다(Castro, 2003).

2) 학교적응

청소년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관계 위주였던 가정 중심의 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 위주인 학교 중심의 생활로 이동하게 된다(이경아, 정현희, 1999). 학교는 가정 이외의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이며, 더 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발달상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이덕희, 2016; Trickett & Birman, 2005).

다문화청소년은 언어문제로 인한 수업 참여저하나 외국인 부모의 학교생활 지지 부족, 차별로 인한 따돌림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영희, 안은미, 2010; 전수정, 윤혜미, 2013). 이러한 학교부적응 문제는 사회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중요한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학교적응은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져왔으나, 학교생활 및 학생의 만족도가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 변인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이경아, 정현희, 1999). 교사나 또래 지지와 같은 관계요인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학생이 가족 이외의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때문이다(Yoshikawa & Way, 2008).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생이 교사, 또래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인식정도와 수용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희, 안은미, 20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화, 201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조복희와 이주연(2006)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분리 유형의 아동들이 가장 학교적응을 잘 하였으며, 동화 유형의 아동들이 가장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미국 소수민족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분리 유형과 동화 유형에 속한 이들은 비슷한 적응 양상을 나타내거나, 오히려 분리 유형에 속한 이들이 동화 유형이나 통합 유형에 비해 적응에 부정적이라고 보았다(Berry, 1991; Castro, 2003; Doná & Berry, 1994; Phinney et al., 1992).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민족정체성과 같은 민족적 특성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다문화청소년의 연령, 외국부모의 출신국가 및 한국어 능력, 지역사회 지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이지애, 2008; 전경숙, 송민경, 201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데이터틀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MAPS 패널 데이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통한 정책 방안 제안 등을 위하여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어

머니를 패널로 1차 본조사를 시작하여 1년 주기로 조사되는 종단 연구이다. 해당 종단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포함하였으나, 실제 모집단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표 2>와 같으며,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응답한 이중문화 수용태도,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 관련 변인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문화 수용태도, 외국문화 수용태도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심리적 적응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 우울을 측정하는 10문항,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적응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교우관계 적응을 측정하는 5문항,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이해경과 김혜원(2001)의 척도를 활용한 6문항, 학습활동 적응을 측정하는 5문항, 교사와의 관계 적응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제외한 모든 척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위변인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으며, 측정변인별 구체적인 문항 내용 설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 제공한 코드북에 자세히 제시되었다.

표 2. 분석에 활용한 측정변인과 신뢰도

	측정변인	문항수	<i>Cronbach's α</i>	척도
이중문화 수용태도	한국문화 수용태도	5	.758	4단계 척도
	외국문화 수용태도	5	.791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	3	.864	
	우울	10	.907	
	사회적 위축	5	.903	
학교적응	교우관계 적응*	5	.62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6	.906	
	학습활동 적응*	5	.785	
	교사와의 관계 적응	5	.877	

* 역코딩 문항 포함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에서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요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의 결과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에 따라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집분석의 결과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M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2015년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1차년도에 시작한 1639명의 패널 중 학업중단 및 5차년도에 미참여한 291명을 제외한 134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3>은 주요변인별 결측값을 제외한 합계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49%, 여학생 51%로 유사하였으며, 거주시도는 경상도 22.8%, 경기도 21.7%, 전라도 20.4%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많이 거주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자녀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 15살임을 고려할 때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68.3%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이 34.1%, 필리핀이 25.6%, 조선족이 18.3%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대화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대부분 한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67.5%, 25.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정형편은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 산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 0.1%로 매우 낮았다.

<표 4>는 2015년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이다. 하위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문항 수가 상이하여 하위변인별 4점 만점의 문항 평균을 제시하였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평균은 3.27점으로 외국문화 수용태도의 평균 2.55점보다 약 0.72점 높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3.15점), 교사와의 관계 적응(3.09점)은 높은 편이었으며, 우울(1.69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1.0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3. 2015년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인구통계학적 주요변인

주요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주요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학생	660	49.0%	학생과 외국인 부모의 대화언어	한국어로만	907	67.5%	
	여학생	688	51.0%		한국어 대부분	337	25.1%	
	합계	1348	100%		한국어, 외국어* 반반	61	4.5%	
거주시도	서울	143	10.7%		한국어 약간	17	1.3%	
	경기	291	21.7%		외국어로만	10	0.7%	
	인천	57	4.3%		기타	8	0.6%	
	강원	81	6.0%		잘 모르겠다	3	0.2%	
	전라도	273	20.4%		합계	1343	100%	
	충청도	178	13.3%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191	14.3%	
	경상도	306	22.8%		어려운 편이다	544	40.6%	
	제주도	11	0.8%		보통이다	569	42.5%	
합계	1340	100%	잘사는 편이다		34	2.5%		
어머니 한국에 거주한 기간	10년 미만	72	5.6%		아주 잘 산다	2	0.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7	15.4%		합계	1340	1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872	68.3%		어머니 모국어	영어	23	1.8%
	20년 이상 ~ 25년 미만	130	10.2%			중국어	330	25.8%
	25년 이상	6	0.5%	베트남어		31	2.4%	
	합계	1277	100%	따갈로그어 (필리핀어)		315	24.7%	
어머니 출신국가	한국	45	3.3%	일본어		457	35.8%	
	중국(한족, 기타민족)	95	7.0%	태국어		49	3.8%	
	조선족	247	18.3%	기타		72	5.6%	
	베트남	34	2.5%	합계		1277	100%	
	필리핀	345	25.6%	* 외국어는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의미함				
	일본	459	34.1%					
	태국	52	3.9%					
	기타	71	5.3%					
	합계	1348	100%					

표 4. 2015년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측정변인별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348)

구분	측정변인	한국문화 수용태도	외국문화 수용태도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교우 관계 적응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학습 활동 적응	교사와의 관계 적응	평균 (4점 만점)	표준 편차
이중문화 수용태도	한국문화 수용태도	-									3.27	0.45
	외국문화 수용태도	.139*	-								2.55	0.57
	삶의 만족도	.379*	.209**	-							3.15	0.62
	우울	-.347**	-.126**	-.648**	-						1.69	0.54
학교 적응	사회적 위축	-.226**	-.064*	-.321**	.462**	-					2.34	0.74
	교우관계 적응	.413**	.216**	.493**	-.449**	-.317**	-				3.18	0.40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20**	.033	-.180**	.203**	.060*	-.143**	-			1.04	0.22
	학습활동 적응	.318**	.237**	.415**	-.405**	-.300**	.514**	-.059*	-		2.87	0.53
평 수 준	교사와의 관계 적응	.379**	.258**	.454**	-.376**	-.275**	.511**	-.068*	.528**	-	3.09	0.56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한국문화 수용태도 및 외국문화 수용태도 간의 상관계수는 .1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문화 수용태도는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적응, 학습활동 적응, 교사와의 관계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318~.413)을 보이며, 우울, 사회적 위축,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347~- .120)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유사한 결과로 외국문화 수용태도는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적응, 학습활동 적응, 교사와의 관계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209~.258)을 보이며, 우울, 사회적 위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126~- .064)을 나타냈다. 외국문화 수용태도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간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적응 중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이중문화 수용태도나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간 상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2.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국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한국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측정하는 연속형 변인을 투입하여 Hair와 Black(2000)에 의하여 제안된 이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거리측정은 로그-우도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 탐색의 기준을 BIC(Schwartz's bayesian Inference criterion)으로 하여 최대 10개 이내의 군집 수의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탐색하도록 지정하였다. 또한 SPSS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잡음 처리를 선택하여 군집분석 결과에 왜곡을 유발하는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보다 타당한 최종 군집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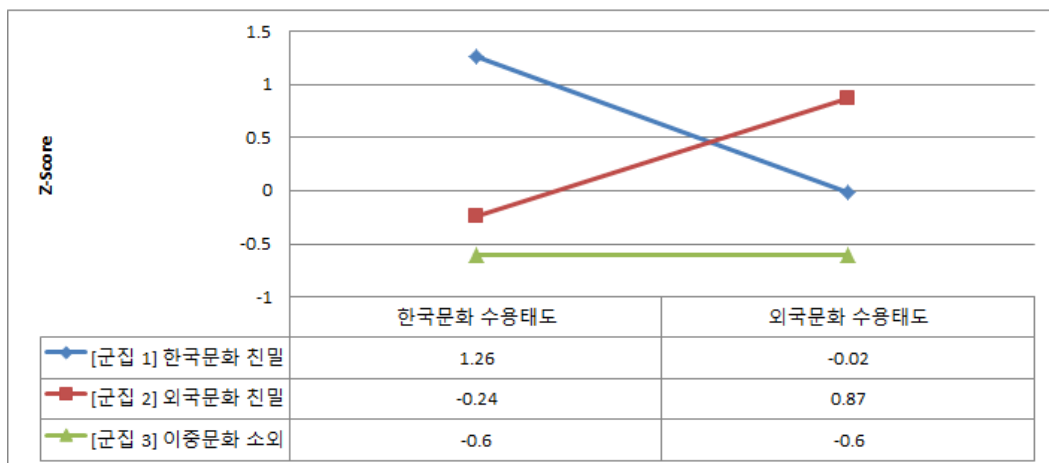


그림 1.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2015년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군집 프로파일

[그림 1]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군집 프로파일이다. 군집 1의 369명은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한국문화 친밀형, 군집 2의 401명은 외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외국문화 친밀형, 군집 3의 570명은 한국문화 수용태도 및 외국문화 수용태도가 모두 낮은 이중문화 소외형이다.

3.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χ^2 검증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3개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외국어 사용여부, 학생 성별, 거주지역,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인 부모나라에 대한 관심, 어머니 출신 국가 간의 χ^2 검증에 의한 차이 분석을 <표 5>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외국어 사용여부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중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5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학생 성별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중 남학생인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4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거주지역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천 거주 다문화청소년은 한국문화 친밀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54.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제주도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외국문화 친밀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54.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국적에 대한 인식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중 본인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48.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부모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외국문화 친밀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72.7%로 높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외국인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중 외국인 부모 나라에 대하여 긍정적 관심을 갖는 경우 외국문화 친밀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외국인 부모 나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관심이 없는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어머니 출신 국가 간의 χ^2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중국(한족 및 기타민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일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다문화청소년 중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일본인 경우 외국문화 친밀형으로 분류된 비율이 41.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χ^2 검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			χ^2	p
		한국문화 친밀	외국문화 친밀	이중문화 소외		
외국어 사용여부	예	226 (26.7%)	311 (36.8%)	309 (36.5%)	55.901	.000
	아니오	143 (28.9%)	90 (18.2%)	261 (52.8%)		
학생 성별	남성	190 (29.0%)	168 (25.6%)	298 (45.4%)	11.470	.003
	여성	179 (26.2%)	233 (34.1%)	272 (39.8%)		
거주지역	서울	29 (20.6%)	45 (31.9%)	67 (47.5%)	48.690	.000
	인천	31 (54.4%)	10 (17.5%)	16 (28.1%)		
	경기	82 (28.2%)	80 (27.5%)	129 (44.3%)		
	강원	19 (23.8%)	22 (27.5%)	39 (48.8%)		
	경상도	68 (22.3%)	82 (26.9%)	155 (50.8%)		
	전라도	81 (29.9%)	95 (35.1%)	95 (35.1%)		
	충청도	55 (31.3%)	58 (33.0%)	63 (35.8%)		
	제주도	1 (9.1%)	6 (54.5%)	4 (36.4%)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사람	305 (30.9%)	207 (21%)	476 (48.2%)	152.355	.000
	부모 나라사람	0 (0%)	8 (72.7%)	3 (27.3%)		
	한국사람이며, 부모 나라사람	63 (19.1%)	182 (55.3%)	84 (25.5%)		
	잘 모름	1 (8.3%)	4 (33.3%)	7 (58.3%)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	전혀 관심이 없다	10 (30.3%)	2 (6.1%)	21 (63.6%)	242.962	.000
	관심이 없는 편이다	43 (35.0%)	4 (3.3%)	76 (61.8%)		
	보통이다	157 (29.5%)	88 (16.5%)	288 (54.0%)		
	관심이 있는 편이다	117 (23.8%)	203 (41.3%)	172 (35.0%)		
	매우 관심이 많다	42 (26.4%)	104 (65.4%)	13 (8.2%)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			χ^2	p
	한국문화 친밀	외국문화 친밀	이중문화 소외		
어머니 출신국가	한국	12 (27.3%)	15 (34.1%)	17 (38.6%)	57.017 .000
	중국 (한족, 기타민족)	23 (24.7%)	20 (21.5%)	50 (53.8%)	
	조선족	80 (32.7%)	48 (19.6%)	117 (47.8%)	
	베트남	11 (32.5%)	5 (14.7%)	18 (52.9%)	
	필리핀	100 (29.3%)	83 (24.3%)	158 (46.3%)	
	일본	104 (22.9%)	186 (41.0%)	164 (36.1%)	
	태국	13 (26.0%)	17 (34.0%)	20 (40.0%)	
	기타	26 (32.9%)	27 (34.2%)	26 (32.9%)	

4.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의 차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3개 군집 유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심리적·학교적응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3개의 하위 변인, 학교적응은 4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다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공분산행렬 검증에서 동질성 가정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Pillai의 트레이스는 .203($F_{(14, 2664)} = 21.482, p < .001$), Wilks의 람다는 .799($F_{(14, 2664)} = 22.541,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 간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별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의 차이

종속변인	군집유형	n	M	SD	F	Scheffé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	한국문화 친밀(a)	369	3.43	0.60	80.972*** a>b>c
		외국문화 친밀(b)	401	3.20	0.60	
		이중문화 소외(c)	570	2.94	0.55	
	우울	한국문화 친밀(a)	369	1.45	0.47	69.574*** c>b>a
		외국문화 친밀(b)	401	1.68	0.53	
		이중문화 소외(c)	570	1.85	0.52	
	사회적 위축	한국문화 친밀(a)	369	2.11	0.76	29.618*** b=c>a
		외국문화 친밀(b)	401	2.36	0.74	
		이중문화 소외(c)	570	2.48	0.67	

종속변인		군집유형	n	M	SD	F	<i>Scheffé</i>
학교적응	교우관계 적응	한국문화 친밀(a)	369	3.40	0.39	117.109***	a>b>c
		외국문화 친밀(b)	401	3.21	0.40		
		이중문화 소외(c)	570	3.03	0.32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한국문화 친밀(a)	369	1.03	0.20	.300	-
		외국문화 친밀(b)	401	1.04	0.20		
		이중문화 소외(c)	570	1.04	0.20		
	학습활동 적응	한국문화 친밀(a)	369	3.06	0.58	64.957***	a>b>c
		외국문화 친밀(b)	401	2.94	0.46		
		이중문화 소외(c)	570	2.70	0.46		
	교사와의 관계 적응	한국문화 친밀(a)	369	3.31	0.56	73.458***	a>b>c
		외국문화 친밀(b)	401	3.17	0.55		
		이중문화 소외(c)	570	2.90	0.49		

이중문화 수용태도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 학교적응의 차이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 유형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적응, 학습활동 적응, 교사와의 관계 적응은 한국문화 친밀형(군집 1), 외국문화 친밀형(군집 2), 이중문화 소외형(군집 3) 순으로 높았다. 심리적 적응의 하위변인 중 우울은 이중문화 소외형(군집 3), 외국문화 친밀형(군집 2), 한국문화 친밀형(군집 1) 순으로 높았으며, 사회적 위축은 이중문화 소외형(군집 3)과 외국문화 친밀형(군집 2)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문화 친밀형(군집 1) 보다는 높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및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 학교적응을 파악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 및 외국문화 수용태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한국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의 세 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수용이 모두 높은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5년도 두 시점 모두 문화적응 유형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한국문화 친밀형과 외국문화 친밀형의 비중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인 경우 이중문화 소외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중문화 소외형을 보인 청소년들이 본인의 국적에 대한 인식으로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인 경우 피부색 등의 외모가 한국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여도 다른 학생들은 외국 학생으로 여길 수 있으며, 실제로 전경숙과 송민경(2011)의 연구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등 외양이 한국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의 한국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모의 다름으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에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해를 거듭하여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문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져야 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지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별로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은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에는 이중문화 소외형과 외국문화 친밀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문화 친밀형은 유의한 차이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세 가지 문화적응 유형 중에서는 한국문화 친밀형이 심리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있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최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단일민족 국가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으며, 다문화 사회 정책이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나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인종·민족·집단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점을 많이 보이고 있다(김민호 외, 2014). 결혼이민자들도 대체로 차별 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김민호 외, 2014),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문화에 잘 흡수되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교적응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우관계(적응)는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좋았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의 학생들이 가장 교우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활동(적응)과 교사와의 관계(적응)도 한국문화 친밀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문화 친밀형이 높았고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중문화 친밀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리적·학교 적응도 한국문화를 잘 수용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사회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특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더 강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성택(2008)의 연구에서 국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은 인종 및 민족에 따라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문화와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학교 분위기 등도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리적·학교적응이 가장 낮은 이중문화 소외형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문화 소외형 중에 한국 국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자신의 국적에 대한 인식과 다른 학생들의 태도 간에 어떠한 혼란이나 어려움 등이 유발되고 있는지에 관한 탐색이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므로(김경근, 황여정, 2012), 다문화청소년들과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국내 청소년들을 서로 멘토-멘티로 짝지어주거나 함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해 보는 것도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anks(2008)의 교육과정 개혁모델의 변혁적 접근법에 근거해 볼 때, 주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입장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다뤄보는 교육이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용산, 김정호, 2009; 김민호 외, 2014, 재인용).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보수적인 지역이 다문화소외형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 중에 이중문화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중문화 소외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외국인 부모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낮았는데, 부모의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자신이 가진 외국문화의 배경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 뿐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제 3 외국어 과목을 고등학교에 까지 설치하고 있는데(김민호 외, 2014), 우리나라도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모가 구사하는 베트남어, 태국어 등을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문화 수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50년쯤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2%, 10%가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이삼식, 최효진, 박성제, 2009). Troike(1972)는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이익이 되며, 이중문화가 서로 공존하며 장점을 발휘할 때 각 문화적 특성들이 발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문영희, 안은미, 2010,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흡수되고 동화되기 보다는 이들이 가진 이중문화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다문화청소년들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시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유형 및 적응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데이터의 90% 이상 학생들이 한국 출생이며 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추후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 국적이 모두 외국인이 경우 등의 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민호, 염미경, 변종현, 전영준, 권상철, 황석규 외. (2014).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story.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용산, 김정호. (2009). 사회과 다문화수업을 위한 CAT 모형의 구안. **사회과교육**, 48(2), 65-77.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9, 21-43.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윤주,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문영희, 안은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47-68.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 박사론. (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솔치료학회지**, 1, 25-51.
- 박현선, 이채원, 박소은.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 문화교육의 효과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6, 57-83.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신윤진, 윤창영. (2010). 기초연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 심미영, 이돌녀, 박종옥.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233-254.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오경화.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 윤인진, 김은비. (2012). 다문화 가족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 48, 273-307.
- 윤향희. (2014).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우관계와 이중문화 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이덕희.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 544-552.

- 이삼식, 최효진, 박성제. (2009). **다문화 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009-3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영주.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2), 103-119
-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이혜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임성택. (2008).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한국 학생들의 국제교류 수용도 분석: 교류영역 및 대상 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8, 1-20.
- 전경숙, 송민경.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전수정, 윤혜미.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정지윤, 문성호.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복희, 박태수, 한세영. (2004).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13-122.
- 조복희, 이주연. (2006).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국 화교 아동의 문화접변 유형 및 학교적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7(1), 95-111.
-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303-326.
-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순혜, 이숙영. (2008). 청소년 새터민의 문화변용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6), 121-144.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Allyn & Bacon.
- Berry, J. W. (1970).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239-252.
- Berry, J. W. (1974). Psychological aspects of cultural pluralism: Unity and identity reconsidered. *Topics in Cultural Learning*, 2, 17-22.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pp. 9-25). Boulder: Westview.
- Berry, J. W. (1991). Understanding and managing multiculturalism: Some possible implications of research in Canada.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1), 17-49.
- Berry, J. W. (1992).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s1), 69-8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2), 185–206.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 Buchanan, C. M., Eccles, J. S., & Becker, J. B. (1992). Are adolescents the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al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1), 62.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Cheng, C. Y., Sanchez-Burks, J., & Lee, F. (2008). Connecting the dots within: Creative performance and identity integration. *Psychological Science*, 19(11), 1178–1184.
- Donà, G.,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attitude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entral Americ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9(1), 57–70.
- Nguyen, A. M. D., & Benet-Martí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 Phinney, J. S., Chavira, V., & Williamson, L. (1992). Acculturation attitudes and self-esteem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Youth & Society*, 23(3), 299–312.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4), 449–464.
- Trickett, E. J., & Birman, D. (2005). Acculturation, school context, and school outcomes: Adaptation of refugee adolesce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42(1), 27–38.
- Ward, C. (1996). Acculturation. In D. Landis & Bhaga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2nd edn.; pp. 124–147). Thousand Oaks, CA: Sage.
- Ward, C. (2001). The A, B, Cs of acculturation. In D. Matsumoto (Ed.), *The handbook of culture and psychology* (pp. 411–445).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Yoshikawa, H., & Way, N. (2008). From peers to policy: How broader social contexts influence the adapt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immigrant famili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8(121), 1–8.



제 ⑧ 주제

문화적응 및 정체성 Ⅱ

1.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3.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종규* · 엄동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별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자료 학생용과 학부모용을 병합하여 사용하였고 이중문화특성 지표에 모두 응답한 1,3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적합도지수와 잠재계층분류에 따라 3개 하위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저언어_스트레스형’, 2유형은 ‘중언어_주변형’, 3유형은 ‘고언어_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며, 저언어_스트레스형은 성적이 높을수록, 나머지 유형은 남학생이며, 건강할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유형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강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며, 저언어_스트레스형은 성적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중언어_주변형은 가족지지와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고언어_통합형은 남학생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중문화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심리적응, 잠재프로파일

I. 서론

2015년도 11월 기준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기화자는 294,663명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아동은 197,550명으로 2007년의 44,258명에 비해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행정자치부, 2015). 다문화가족과 아동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적응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주변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 주저자,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asecon@gmail.com

** 교신저자,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sltv@hanmail.net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점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문화 적응과 다문화수용성 등의 이중문화특성은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친구·교사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며,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져 우울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Weiss & Garbanati, 2004; 이원령, 2013; 서은경, 2013).

이중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이중문화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응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중문화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중문화 정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Padilla, 1994).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지 않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다른 변인간의 단순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 이중문화특성이 동일한 모집단으로 구성된 단일유형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중문화특성의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연구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 요인들을 반영하여 이중문화특성 유형을 탐색하고, 그 유형별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중문화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중문화적응은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이중문화에 대한 입장은 크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모델과 긍정적면과 부정적인 입장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모델이 있다.

단선모델에 의하면, 이중문화성은 단일 문화적 자아정체감을 갖는 경우보다 더 많은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보인다고 본다. 한편, 인간이 주류사회문화와 자신의 출생문화를 모두 수용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잠재 능력도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며, 이중문화적인 개인이 반드시 언어적 혼란을 겪거나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2개의 문화와 접촉하여 갈등을 내면화하지 않는 한 두 문화와의 접촉은 유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중문화 정체성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다고 본다.

이처럼 문화적응이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

고, 그 유형별로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일은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가정의 문화변용(acculturation) 전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문화변용과 토착화(enculturation)의 정도이다. 사회의 주류문화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문화변용으로, 이주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는 정도를 토착화라 할 때, 다문화가정의 문화변용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Berry, 1997; Choi, et al, 2016). Berry(1997)는 문화변용과 토착화의 정도에 따라 (1) 높은 문화변용과 낮은 토착화의 동화(assimilation), (2) 높은 문화변용과 높은 토착화의 통합(integration) (3) 낮은 문화변용과 높은 토착화의 분리(separation) (4) 혹은 낮은 문화변용과 낮은 토착화의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한다.

문화변용전략 중 가장 높은 적응을 보여주는 것은 ‘통합’이다. ‘동화’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 적응이 쉽지 않다. 주류사회의 문화에 일차적으로 적응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인종적인 차별이나 구조적인 불평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쉽고, 그 문화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분리’의 경우 주류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사회적, 문화적 고립을 지속시키고 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Berry, 1997). ‘분리’는 자발적인 고립이라는 생존전략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배제와 분리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보호의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이민자 사회에서의 ‘분리’는 성공적인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지지 제공을 가능케 한다.(Choi, Y., et al, 2016). ‘주변화’는 가장 문제시되고 사회의 어떤 부분에도 통합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결과들은 문화변용과 토착화의 조합이 청소년의 발달과 그 변인들에 관한 높은 설명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이기는 하지만, 예컨대, 미국 히스패닉계 청소년 대상의 연구(Sullivan et al., 2007)에서 ‘통합’ 청소년들이 부모개입, 긍정적인 양육과 지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Giang & Wittig, 2006) ‘통합’ 청소년들이 ‘주변화’ 청소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 및 집단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토착화가 적응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예컨대, 높은 토착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종적 정체성이라는 변수는 인종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다 (Rivas-Drake et al., 2008).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과 관련 요인

1) 누적된 불이익과 심리적응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인종에 따른 차별, 국적에 따른 차별, 문화적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가정 부모세대의 언어, 가치관, 문화와 다른 이중문화속에서 성장하는 자녀세대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널리 지적되고 있다.

지체된 언어발달, 교과학습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 낮은 학습이해력, 높은 폭력성과 과잉행동장애 등이 다문화가족내 아동발달기의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높은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드러나기도 한다(이원령, 2013). 생애이론의 누적적 불이익(accumulated disadvantages)의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 아동기 단계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전환은 그 이후의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로 발현되기 쉽다(Elder, 1998).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 적응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들로 구분되어 설명된다(이원령, 2013).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보다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의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과 친구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내재화’ 문제는 여학생이,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원령, 2013). 이러한 내현화와 외현화의 문제는 한 단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변화하기도 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장은옥, 2011).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위협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발달단계의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긍정적인 힘과 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발달단계의 특징 혹은 심리적인 ‘과정’을 의미한다(윤은영, 2017). 이는 역사, 장소, 시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risk)과 취약성(vulnerability) 자체에 주목하는 대신 그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process of resilience)에 주목하는 것이다 (Elder, 1998).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가족, 사회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윤은영, 2017). 첫째, 여성청소년, 낮은 연령, 높은 지능, 높은 자기효율성 등의 개인 요인, 둘째, 부모지지, 좋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관계 등과 같은 가족요인, 셋째, 지지적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자아탄력성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우울

청소년기의 우울은 개인, 가족, 사회라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한 문제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의 외적체계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지적된다(오승환, 2016).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여자 청소년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지지, 가족 결속력 등의 요인도 우울과 관련되어 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 차별, 편견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 정하 또한 적응곤란을 가져온다면, 학교에서의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우울을 완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오승환, 2017; 윤은영,

2017; 이원령, 2013).

4) 사회적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가족지지는 아동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나고 있고 학교청소년의 경우 또래지지와 교사지지, 교사와 부모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지지가 강한 다문화아동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교사지지는 다문화 아동의 차별로 인한 심리적 곤경을 완화시키는 가족이나 또래지지 못지않은 대체자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된다(이원령, 2013). 국내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안선정 외(2013)는 부모의 권위에 주로 따르는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에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또래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고, 김재엽 외(2011)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자신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위험요인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되며, 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이지영, 2012). 또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지지는 우울과 같은 문제행동 가능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Weiss & Garbanati, 2004; 이원령,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져 우울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또래,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지지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문화특성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유형별로 심리적응(우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규명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자료 학생용(중학교 2학년)과 학부모용을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과 심리적응 변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패널자료에서 이중문화특성 지표에 모두 응답한 1,3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1) 이중문화특성 지표

본 연구에서는 이중문화특성의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해서 7개 지표(부모의 한국어능력, 학생의 한국어능력, 부모나라의 언어능력,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부모의 한국어능력, 부모나라의 언어능력, 학생의 한국어능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능력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0문항, 국가정체성은 4문항, 문화적응스트레스는 9문항, 다문화수용성은 5문항을 각각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2) 심리적응 및 예측변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 유형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로 심리적응(우울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변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심리적응인 우울과 자아탄력성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각각 10문항과 14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심리적응 및 예측변인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모 한국어능력	1.00	4.00	3.247	.571	-
학생 한국어능력	1.00	4.00	3.707	.478	-
부모나라 언어능력	1.00	4.00	1.972	.846	-
문화적응스트레스	1.00	3.44	1.312	.364	.850
국가정체성	1.00	4.00	2.774	.654	.882
이중문화수용태도	1.60	4.00	2.910	.387	.740
다문화수용성	1.00	4.00	3.147	.558	.886
우울	1.00	4.00	1.694	.535	.907
자아탄력성	1.43	4.00	3.058	.455	.909
가정형편	1.00	5.00	2.340	.755	-
건강상태	1.00	4.00	3.370	.658	-
학업성적	1.00	5.00	3.088	.745	-
교사지지	1.00	5.00	3.765	.844	.964
친구지지	1.00	5.00	4.120	.746	.967
가족지지	1.00	4.00	3.190	.547	.947

예측변인 성별(여학생=0), 주관적 건강상태,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형편, 사회적자본(교사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리커트 4점 척도, 가정의 경제형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리커트 5점 척도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수준이 높도록 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된

교사지지는 6문항, 친구지지와 가족지지는 7문항을 각각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위하여 Mplus 5.21과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의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패널자료에서 7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는 각 프로파일 유형별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살펴보고 패널자료에 제시된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¹⁾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평균과 분산의 독특한 프로파일 추정하는데 탁월하며(Muthén and Muthén, 2007), 잠재프로파일 간의 구별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ichael and Graham, 2008). 즉, 전통적인 집단분류 방법과 비교하여 등분산의 가정과 같은 척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Iwamoto et al., 2010; Luyckx et al., 2008)에서 추천하는 3가지 준거(criteria)를 사용할 것이며, 첫째, 정보적합도(information index)중에서 우수하다고 밝혀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계층의 수를 확인할 것이다. BIC와 saBIC는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 둘째, 대립가설과 영가설 간의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할 것이며, BLRT는 $p < 0.05$ 일 때, 대립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의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적용할 것이다. 최소비율은 선행연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Jung과 Wickrama(2008)은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다.

IV.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심리적응 변인(우울과 자아탄력성)과 예측변인에 관한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울과 모

1) 표준중다회귀분석(일명 Enter 방식)은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전반적인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선 타당한 분석방법이지만, 예측변인들 간 상대적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공통설명량이 회귀계수 추정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예측변인들 간에 상관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측변인들 간 공통설명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예측변인 간 상대적 예측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문수백, 2017).

든 예측변인이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은 가정형편과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예측변인들 간에 상관이 최대 .567로 나타나 예측변인 간에 상관이 높지 않아 중다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심리적응 변인과 예측변인의 상관분석

	우울	자아탄력성	성별	가정형편	건강상태	성적	교사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
우울	1								
자아탄력성	-.462**	1							
성별	-.129**	.056*	1						
가정형편	-.059*	.052	-.003	1					
건강상태	-.281**	.285**	.024	.077**	1				
학업성적	-.262**	.283**	.044	.154**	.137**	1			
교사지지	-.338**	.496**	.038	.064*	.163**	.339**	1		
친구지지	-.446**	.567**	-.038	.050	.243**	.298**	.559**	1	
가족지지	-.442**	.466**	.056*	.080**	.187**	.265**	.433**	.423**	1

* $p < .05$; ** $p < .01$;

2.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1) 잠재프로파일 모형 결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고, 도출된 잠재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1개~5개 하위유형(계층)이 측정되었다.

표 3. 잠재프로파일분석의 모형 적합도

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계층 분류율 %				
					1	2	3	4	5
1-class	14867.792	14823.320	na	na	100				
2-class	14060.529	13990.645	0.0000	0.0000	82.4	17.6			
3-class	13323.757	13228.460	0.0000	0.0000	24.7	50.4	24.9		
4-class	12535.756	12415.046	0.0000	0.0000	1.1	50.6	24.7	23.6	
5-class	12542.275	12396.153	0.0004	0.0000	1.1	23.6	47.1	24.0	4.2

n=1,343 / na = not applicable.

모형의 결정은 <표 3>에 제시된 4가지 적합도 지표와 잠재계층 분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잠재계층 분류율은 4계층과 5계층 솔루션에서 5%미만인 층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3개 계층 솔루션은 BIC와 saBIC 모두 1계층과 2계층 솔루션보다 수치가

적었고, LMR과 BLRT 또한 이 솔루션을 지지하고 있으며($p < .000$), 잠재계층 분류율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3계층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이중문화특성 프로파일별 특성 및 기술

7가지 지표에 따라 확인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유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도출된 이중문화특성 프로파일에 대한 각 하위유형의 특성을 관찰하여 유형명을 정하였으며, 유형명 부여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집단을 간략화시켰다.

[그림 1]에서 유형 1은 ‘저언어_스트레스형(24.7%)’으로 정하였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학생의 한국어능력이 제일 낮았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능력 문제가 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어 저언어_스트레스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른 유형의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부모나라 언어능력이 제일 낮았으며,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언어능력과 스트레스는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이 제일 낮아 ‘중언어_주변형(50.4%)’으로 정하였다.

유형 3은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능력과 부모나라의 언어능력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스트레스가 제일 낮았으며,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언어_통합형(24.9%)’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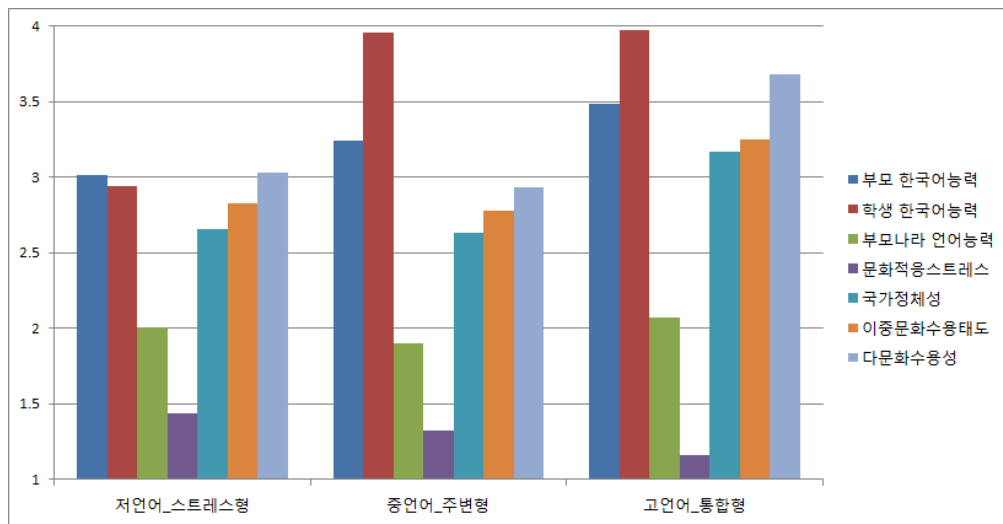


그림 1. 이중문화특성의 유형(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결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에 대한 프로파일의 7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프로파일 유형별로 7가지 지표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지표에 따른 이중문화특성 프로파일의 집단별 차이

지표	집단	저언어_스트레스형 (n=332)	중언어_주변형 (n=677)	고언어_통합형 (n=334)	전체 (n=1,343)	F
부모 한국언어능력		3.01(0.52)	3.23(0.57)	3.51(0.51)	3.25(0.57)	70.077***
학생 한국어능력		2.94(0.30)	3.96(0.13)	3.97(0.10)	3.71(0.48)	3950.331***
부모나라 언어능력		2.01(0.81)	1.90(0.82)	2.08(0.91)	1.97(0.85)	5.616**
문화적응스트레스		1.43(0.43)	1.33(0.37)	1.16(0.19)	1.31(0.36)	51.343***
국가정체성		2.66(0.61)	2.62(0.60)	3.19(0.61)	2.77(0.65)	106.365***
이중문화수용태도		2.83(0.35)	2.76(0.31)	3.29(0.32)	2.91(0.39)	315.966***
다문화수용성		3.03(0.46)	2.91(0.46)	3.75 (.35)	3.15(0.56)	434.526***

평균(표준편차) *** $p < .001$

3. 이중문화특성 프로파일별 심리적응 예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의 프로파일별로 심리적응(우울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1)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 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의 프로파일별로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관계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저언어_스트레스형	중언어_주변형	고언어_통합형	전체
	β	β	β	β
성별		-.137***	-.206***	-.118***
건강상태		-.168***	-.196***	-.146***
가정형편				
성적	-.192***			-.084***
교사지지				
친구지지	-.314***	-.200***	-.311***	-.279***
가족지지	-.285***	-.307***	-.160**	-.269***
	$R^2=.352$	$R^2=.253$	$R^2=.283$	$R^2=.321$

*** $p < .001$

첫째,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과 모든 프로파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친구 지지와 가족지지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자본 중에서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저언어_스트레스형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유형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언어_주변형과 고언어_통합형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에 취약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측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저언어_스트레스형과 고언어_통합형에서는 친구지지가 제일 영향력이 높았지만, 중언어_주변형에서는 가족지가 제일 영향력이 높았다. 그러나, 모든 프로파일 유형에서 가정형편과 사회적자본 중에서 교사지지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에 대한 예측변인 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특성의 프로파일별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관계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자아탄력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저언어_스트레스형	중언어_주변형	고언어_통합형	전체
	β	β	β	β
성별			.131**	.049*
건강상태		.150***	.153**	.125***
가정형편				
성적	.120**			.052*
교사지지	.191**	.117**	.210***	.179***
친구지지	.293***	.314***	.356***	.337***
가족지지	.243***	.207***		.210***
	$R^2=.420$	$R^2=.296$	$R^2=.317$	$R^2=.432$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과 모든 프로파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자본 중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저언어_스트레스형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언어_주변형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언어_통합형에서는 가족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남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측변인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든 프로파일 유형에서 친구지지가 제일 영향력이 높았다. 모든 프로파일 유형에서 가정형편은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별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5차년도 학생용과 학부모용을 병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적합도지수와 잠재계층분류에 따라 3개 하위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저언어_스트레스형’, 2유형은 ‘중언어_주변형’, 3유형은 ‘고언어_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모든 유형에서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우울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안선정, 2013; 김재엽 외, 2013; Weiss & Garbanati, 2004; 이원령, 2013)와 같이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사지지는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언어_스트레스형은 성적이 높을수록, 나머지 유형은 남학생이며, 건강할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중용하지만, 이중문화특성의 유형별로 영향변인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유형에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강할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며, 저언어_스트레스형은 성적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중언어_주변형은 가족지지와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고언어_통합형은 남학생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중문화특성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 기존의 연구에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모두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김승경 외, 2013; 서은경, 2013) 결과와 차이가 나타나 이중문화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통합의 문화변용이다. 성장기의 청소년이 감당해야할 여러 가지 발달의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변용의 전략들은 잠재적으로 더욱 더 많은 도전을 만들어 내거나 그들이 감당해야할 성장의 고통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적인 문화변용의 전략들을 찾아내는 것은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프로파일을 저언어_스트레스형, 중언어_주변형, 고언어_통합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응(우울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이중문화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채택한 변수 중심 분석(variable oriented)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사람 중심 분석(person oriented)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샘플을 조건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이론 자체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변용전략들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건강, 경제적인 변수, 사회적지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응 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틈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 구향숙.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83-112.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승경, 양계민, 박주희(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442.
- 김재엽, 이지현, 윤여원.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부모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3(4), 59-82.
- 문수백. (2017).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신정.
- 서은경(2013). **다문화가정 부부갈등과 자녀 사회적응의 관계: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70-282.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윤은영. (2017).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7, 83-112.
- 이원령.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한 문헌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409-431.
-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 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장은옥. (201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69-387.
- 전영희.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2), 277-293.
- 행정자치부. (2016).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34.
- Choi, Y. y., Tan, K., Yasui, M., & Hahm, H. (2016). Advancing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for Adolescents of Asian Immigrants: Person-Oriented Analysis of Acculturation Strategy Among Korean American Youth.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5(7), 1380-1395.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Giang, M. T., & Wittig, M. A. (2006). Implications of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nd collective self-estee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4), 725.
- Iwamoto, D. K., Corbin, W., & Fromme, K. (2010).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ddiction*, 105(11), 1912-1920.
- Jung, T., & Wickrama, K. A.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8). Developmental typologies of identity formation and adjustment in female emerging Adult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4), 595–519.
- Michael, T., and Graham, G. S. (2008).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Aggressors and Victims of Peer Harassment. *Aggressive Behavior*, 34, 203–213.
- Muthén, L. K., & Muthén, B. (2007). *Mplus user's guide* (Version 5.21).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Padilla, A. M. (1994). Bicultural developmen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amination, In R. Malgady & O. Rodriguez(Eds.), *Theoretical and conceptual issues in Hispanic mental health*. Melbourne, FL: Krieger Publishing Co. Inc, 20–51.
- Rivas-Drake, D., Hughes, D., & Way, N. (2008). A closer look at peer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rban Chinese American sixth grad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1), 12–21.
- Sullivan, S., Schwartz, S. J., Prado, G., Shi Huang, H., Pantin, H., & Szapocznik, J. (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examining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ing and behavior problems in hispanic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405–430.
- Weiss, J. W., & Garbanati, J. A. 2004.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and family functioning to smoking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Asi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3(2). 193–204.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민주* · 윤기봉**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를 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3차년도(2013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Pearson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와 교사가 주는 지지가 필수적이며, 높은 사회적지지를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도 낮추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정책개발 및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 MAPS, 다문화청소년,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I.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함으로 인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7년 발표된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은 99,186명으로, 전년도보다 20.2%가 증가하였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기라는 발달 단계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함과 동시에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구정화, 1994) 인지적 평가와 관련되는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삶의 만족도란 행복에 대해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하는데(Diener & Diener, 1995),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이나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특히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ykbong@ewha.ac.kr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일환으로 72개국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6.36점으로 터키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년 4월 20일자).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타 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 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다(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긍정심리 분야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적응해나가는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Seligman, 2002).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적응적 측면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는 하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의 대처전략(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탄력성(한성희, 2015)이나 자아존중감(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환경적 변인으로서의 차별경험(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부모자녀갈등, 학교생활적응 및 또래관계(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한성희, 2015) 등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이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에서 이들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지지를 받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현선, 2010)에서는 사회적지지도로서 교사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친구 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쳐, 친구 및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성희, 2015)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가족, 친구 및 교사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속해있다는 환경적 특성상 문화와 관련된 변인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이므로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동시에 노출되는데, 이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란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서 (김현실, 2012), 한 개인이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의미하는데 (Berry, 2003),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결혼 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김현실, 2012; 이지영, 2012).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록 한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들 결혼 이주여성에 비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도 있으나, 양육환경과 학교 등 외부환경에서 요구하는 가치나 규범이 상충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의 경우 국내에서는 오현선(2010)의 연구가 발견되

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관련 경로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및 내재화 문제나 외현화 문제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이 낮은 것을 예측하였다(김은경, 김종남, 2016).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김남정, 임영식, 2012; 장혜주, 임지영, 2013), 삶의 만족도가 문화로 인한 차별적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에 근거할 때, 문화적응스트레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변인 중 하나로써(정진경, 양계민, 2004) 중요한데,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하므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다문화청소년과 유사하게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종국, 조아미, 2008)에서, 정서지지와 또래지지 등의 사회적지지는 두려움과 관련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연구(이혜경, 전해인, 2013)에서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 경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세 변인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를 다룬 기존의 연구(오현선, 2010)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앞서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고찰한 바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이에 대한 선행변수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고려한 연구는 오현선(2010)의 연구가 발견되나 충남이라는 일부지역에 제한을 두고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고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다문화청소년 모집단을 층화하여 비례배분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이 부모, 교사 및 또래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3차년도(2013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및 학교를 기준으로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고, 층 내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1,625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의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응답한 1,349명의 청소년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16명을 제외하고 총 1,333명의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3차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653명(49.0%)과 여자 680명(51.0%)이었으며, 외국출신 부모가 어머니인 청소년이 1286명(96.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외국출신인 청소년은 45명(3.4%),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청소년은 2명(0.2%)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어머니 연령은 평균 42.47세($SD = 5.20$), 아버지 연령은 48.16세($SD = 4.88$)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평균 234.69만원이었다. 부모의 연령대, 출신국가, 직업 및 교육수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1,333$)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아버지 연령대	20대	0	0.0	어머니 연령대	20대	20	1.5
	30대	39	2.9		30대	352	26.4
	40대	734	55.1		40대	848	63.6
	50대	480	36.0		50대	111	8.3
	60대 이상	18	1.4		60대	2	0.2
	무응답	62	4.7		무응답	0	0.0
아버지 출신 국가	한국	1225	91.9	어머니 출신 국가	한국	45	3.4
	중국(한족, 기타)	3	0.2		중국(한족, 기타)	92	6.9
	중국(조선족)	1	0.1		중국(조선족)	244	18.3
	베트남	2	0.2		베트남	34	2.6
	필리핀	5	0.4		필리핀	339	25.4
	일본	17	1.3		일본	456	34.2
	대만	3	0.2		대만	5	0.4
	방글라데시	1	0.1		몽골	6	0.5
	파키스탄	5	0.4		태국	52	3.9
	인도	1	0.1		캄보디아	3	0.2
					우즈베키스탄	9	0.7
					러시아	12	0.9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인도네시아	7	0.5
	인도네시아	1	0.1		카자흐스탄	4	0.3
	기타	7	0.5		말레이시아	2	0.2
	무응답	62	4.7		키르기스스탄	3	0.2
					기타	20	1.5
아버지 직업	관리자	86	6.5	어머니 직업	관리자	33	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	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5	18.4
	사무 종사자	69	5.2		사무 종사자	29	2.2
	서비스 종사자	16	1.2		서비스 종사자	73	5.5
	판매 종사자	32	2.4		판매 종사자	36	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9	1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3	7.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2	1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2	4.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1	14.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1	4.6
	단순 노무 종사자	167	12.5		단순 노무 종사자	119	8.9
	군인	2	0.2		군인	0	0.0
	학생, 주부 등	94	7.1		학생, 주부 등	526	39.5
	직업구분 불가	126	9.5		직업구분 불가	56	4.2
	무응답	62	4.7		무응답	0	0.0
아버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27	9.5	어머니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5	1.9
	중학교	238	17.9		중학교	108	8.1
	고등학교	654	49.1		고등학교	568	42.6
	대학교(4년제 미만)	98	7.4		대학교(4년제 미만)	390	29.3
	대학교(4년제 이상)	137	10.3		대학교(4년제 이상)	229	17.2
	대학원 석사과정	14	1.1		대학원 석사과정	10	0.8
	대학원 박사과정	3	0.2		대학원 박사과정	3	0.2
	무응답	62	4.7		무응답	0	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MAPS 중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 때(3차, 2013년)의 사회적지지, 중학교 1학년 때(4차, 2014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중학교 2학년 때(5차, 2015년)의 삶의 만족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Du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수정보완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미현(1996)의 척도는

가족의 지지(8문항), 친구의 지지(8문항), 교사의 지지(8문항) 등 세 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가족의 지지는 7문항, 친구의 지지는 7문항, 교사의 지지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가족의 지지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가족의 지지는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친구의 지지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교사의 지지는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의 문항이 있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의 Cronbach's α 는 .94, 친구지지의 Cronbach's α 는 .97, 교사지지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Hovey와 King(1996)의 청소년용 The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척도를 재수정한 홍진주(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가 있다. 한 문항(‘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2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감’ 문항을 ‘삶의 만족도’로 명명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문항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가 있으며,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22.0 (IBM Co., 2013)과 Amos 22.0 (IBM Co., 20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 간 내적합치도 지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측정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검증하였다. 이 때,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Kline (2015)이 제안한 상대적 적합도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 Lewis Index),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 할 수 있는 절대적 적합도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다. NFI,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이 때,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지지($r = .27, p < .001$), 친구지지($r = .26, p < .001$) 및 교사지지($r = .23, p < .001$)와 모두 정적 상관인, 중학교 1학년 때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 = -.22, p < .001$)이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때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지지($r = -.19, p < .001$), 친구지지($r = -.24, p < .001$) 및 교사지지($r = -.15, p < .001$)와 모두 부적 상관인 나타났다.

표 2. 변인들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1,333$)

변인	1	2	3	4	5
사회적지지					
1. 가족의 지지	–				
2. 친구의 지지	.43***	–			
3. 교사의 지지	.41***	.56***	–		
문화적응스트레스					
4. 문화적응스트레스	-.19***	-.24***	-.15***	–	
삶의 만족도					
5. 삶의 만족도	.27***	.26***	.23***	-.22***	–
평균(M)	3.24	4.01	3.79	1.38	3.15
표준편차(SD)	0.56	0.83	0.87	0.31	0.62
왜도(Skewness)	-.49	-.60	-.37	1.35	-.32
첨도(Kurtosis)	.80	-.15	.02	1.86	.11

*** $p < .001$.

2.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31.998$ ($df = 6$, $p < .001$), $\chi^2/df = 5.333$, $NFI = .972$, $TLI = .942$, $CFI = .977$, $RMSEA = .057$ (90% CI [.039, .077])로 나타났다. 즉, Kline(2015)의 적합도 지수 평가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은 본 연구의 자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1).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여($\beta = .31$, $p < .001$),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여($\beta = -.13$, $p < .001$),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28$, $p < .001$), 가족, 친구 및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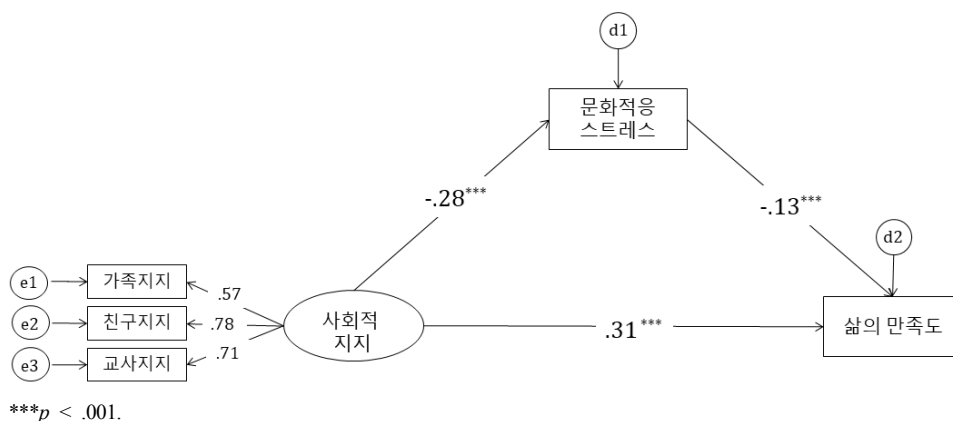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3. 경로계수

($N = 1,333$)

경로	B	β	SE	C.R
사회적지지 → 삶의 만족도	.30	.31	.03	9.41 ***
문화적응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26	-.13	.05	-4.85 ***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14	-.28	.02	-8.85 ***

*** $p < .001$.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 = .04, p < .05$), 다문화청소년이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의 14.9%를 설명하며,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8.1%를 설명하였다.

표 4. 경로에서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경로		Bootstrapping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지지	→ 삶의 만족도	.31*	.04*	.35*	.149
문화적응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13*	-	-.13*	
사회적지지	→ 문화적응스트레스	-.28**	-	-.28**	.081

* $p < .05$.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받은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가족,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와 유사하며,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최미경, 2014; Danielsen, Samdal, Hetland, & Wold, 2009; Edward & Lopez, 2006)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깝고 중요한 대인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지지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은 주변에서의 든든한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받는 것이 삶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공동체의식을 공유하여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과 동일하게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와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주변의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밝혀진 많은 선행연구들(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 2015; 한수연, 설엽추, 성춘향, 박용한, 2017)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문화적응을 하는데 생기는 스트레스는 주변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가 다문화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그만큼 다문화가정에 대해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한국어 미숙이나 부모의 인종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족 수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나 성인들로 하여금 수용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김민정, 2011)나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주형철, 신종화, 2013)와 유사한 맥락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은경, 김종남, 2016)와 일맥상통한다.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도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동일하게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부모의 출신국에 대해 무시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혹은 다문화청소년이 그로 인한 따돌림을 받게 된다면 다문화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에 대한 정서가 부정적이고 만족도도 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가족, 친구와 교사에게 받는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고 결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간 관계가 미비하나,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오현선(2010)의 연구와 함께 살펴볼 때, 다문화청소년에게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지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받는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과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교급이 바뀔에 따라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사회적지에서 받는 가까운 친구들과 교사들의 정서적·도구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적지지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입학 후의 사회적지지가 낮았을 가능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같은 교급 내에서의 사회적지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밝힌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의 유지 및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선적으로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에서의 친구와 교사가 그들을 적극적이고 수용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다문화지원정책을 검토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가족상담실을 설치하고 가족단위의 지원과 개입을 확대하며 인적, 물적,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김민정,

2011). 이와 더불어 기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의 복지관 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남정, 임영식(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민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9(3), 1-28.
- 김은경, 김종남(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2006).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Ⅱ: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종국, 조아미(2008).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03-119.
- 김현실(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노충래(2000) 로즈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신혜정, 노충래, 허성희, 김정화(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연구보고 12-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합뉴스(2017.4.20). 성적·장래 스트레스... 韓학생 삶 만족도 세계 최하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0743000009.HTML?input=1195m>에서 2017년 8월 1일 인출.
- 오현선(2010). **충남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 이지연, 그레이스정(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

- 회연구, 36(3), 336-362.
-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혜경, 전해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장혜주, 임지영(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와의 대화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분노표현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5(1), 17-36.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주형철, 신종화(2013). 중국인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여가만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8(3), 51-65.
- 최미경(2014). 사회적지지가 남녀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2(6), 651-668.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17년 8월 1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성희(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수연, 설염추, 성춘향, 박용한(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9(1), 1-23.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alls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Newbury Park, CA: Sage.
-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20.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Edwards, L. M., & Lopez, S. J. (2006). Perceived family support,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exican american youth: A mixed-methods expl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279-287.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 immigrant and second 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y*, 35(9), 1183–1192.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남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연구패널(MAPS)을 활용하여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연구패널의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측정 변인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시점뿐만 아니라 이듬해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 변인과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변인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청소년, 심리적 변인, 정서적 변인, 인지적 변인

I. 서론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으며, 학교와 직장에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이와 더불어 한국 내 다문화가정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4만 6,954명에서 2016년 9만 9,1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재학생 대비 비율 역시 2012년 0.70%에서 1.68%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6, 12, 8).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심리적으로 안착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국내 연구들 중 다수는 다문화청소년 위주가 아닌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비(非) 다문화 학생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관한 것이다(유난영, 2009; 정연구, 송현주, 윤태일, 심훈, 2011). 또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은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관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교육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 충남대학교 BK21플러스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 namsikkim2@gmail.com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설정하였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온전한 개념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박혜숙, 원미순, 2010). 다문화 수용성을 이르는 용어에 대해서도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효능성, 문화간 유능성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이를 적용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명희, 박외병, 2014).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다문화 수용성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적 요인, 다른 문화의 사람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그리고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명희, 2010).

대한민국 성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 빈도가 잦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접촉경험이 많은 경우에도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한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다문화 수용성과 심리적 요인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우울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김지연, 정봉교, 2011). 특히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자아존중감 역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Lucas, Diener, & Suh, 1995)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차경호, 2001).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지혜(2012)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2. 다문화 수용성과 정서적 요인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비(非)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인종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차별과 선입견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 중 우울감이 높은 경우, 이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대한 공격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임진섭, 2010).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다시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우울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3. 다문화 수용성과 인지적 요인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 청소년들의 인지적 요인 중 학업 성적과 관련된 성취동기와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박혜숙과 원미순(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학업 성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다문화 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지역과 학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학업성적보다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지각하는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과 관련된 성취동기에 다문화 수용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자료는 2011년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환경에 관한 요인, 학교생활요인, 심리사회적응 요인, 신체발달요인, 부모자녀관계 요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표집된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다문화청소년은 4,452명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는 이들 가운데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된 표본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대표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는 주된 변인인 다문화 수용성 변인이 측정된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2년(2차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은 1,502명으로 보고되었으며, 2013년은 1,446명, 2014년은 1,384명, 그리고 2015년에 실시된 5차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은 1,350명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는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다문화청소년 1,32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측정된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총 4개 년도에 걸쳐 조사된 자료들 가운데 잠재성장모형의 동시 및 지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은 2차 조사부터 5차 조사까지 4개 시점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을 제외한 그 밖에 심리적 양식, 정서적 양식, 그리고 인지적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은 2013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3개 년도에 걸쳐 측정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해당 변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문항으로 측정된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잠재성장모형에서 측정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연도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측정된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시는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와 같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4차 조사)까지 4개 년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2년(2차 조사)에 수집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고, 2013년(3차 조사) .86, 2014년(4차 조사) .87, 그리고 2015년(5차 조사)에 수집된 다문화 수용성 척도의 신뢰도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해당 연도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 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심리적 변인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2013년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연도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의 신뢰도 계수는 .90, 4차 조사 .91, 그리고 5차 조사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4개 문항을 통해 측정된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학급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와 같다. 본 연구는 2013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연도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 .81, 4차 조사 .82, 그리고 5차 조사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은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재선과 서은국(2016)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들이 삶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에서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도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 .85, 4차 조사 .86, 그리고 5차 조사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정서적 변인

1)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다문화청소년의 기분을 측정한 10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외롭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청소년들은 문항을 읽고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다. 높은 점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높은 우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수집된 자료 중 2013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3개년도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연도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 .92, 4차 조사 .92, 그리고 5차 조사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분에 관한 것으로 5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사회적 위축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이 있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는 다문화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연도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 .90, 4차 조사 .91, 그리고 5차 조사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인지적 변인

1) 성취동기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는 8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등이 있다. 조사 연도별 성취동기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3차 조사 .88, 4차 조사 .89, 그리고 5차 조사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적 만족도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로, 다문화청소년은 문항을 읽고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만족한다, 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상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적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6.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 시기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수용성과 심리, 정서, 그리고 인지적 양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Meredith & Tisak, 1990). 특히 본 연구는 시간의존적 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그리고 인지적 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와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자료에서 결측치는 모두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되며, RMSEA의 경우에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그리고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의미한다.

4. 연구 결과

4.1. 측정 시기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각 시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repeated-measure)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에는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총 4개 시점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점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_{(3, 1317)}=43.20$, $p=.000$. 즉, 2015년($M=3.15$)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14년($M=3.08$), 2013년($M=3.20$), 그리고 2012년($M=2.93$)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각 측정 시점에 따라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수용성과 달리, 심리적 변인의 경

우에 2013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시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3.93$, $p=.02$.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M=3.06$)은 2013년($M=3.30$)에 측정된 자아탄력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시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3.57$, $p=.028$. 사후분석 결과, 2013년도($M=3.22$)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2015년($M=3.18$)에 측정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에 실시된 3차 조사 대비 2015년에 실시된 5차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 중 삶의 만족도의 경우, 측정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38.29$, $p=.000$.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3년($M=3.31$)에 측정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14년($M=3.22$), 그리고 2015년($M=3.1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적 변인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이 측정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2013년(3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총 3개 시점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의 경우, 측정 시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20.35$, $p=.000$.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3년($M=1.60$)에 측정된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14년($M=1.64$), 그리고 2015년($M=1.6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시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에도 측정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15.57$, $p=.000$.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2013년($M=2.24$)과 2014년($M=2.26$)에 비해 2015년($M=2.35$)에 더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인지적 변인인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측정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적 변인의 경우에도 심리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시점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취동기의 경우, 측정 시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3.40$, $p=.034$.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3년($M=3.01$)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비해 2015년($M=3.04$)에 측정된 성취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시점에 따른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_{(2, 1318)}=135.57$, $p=.000$. 사후분석을 실

시한 결과, 2013년($M=2.79$)에 측정된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14년($M=2.53$), 그리고 2015년($M=2.4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시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 시점에 따른 측정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

(N=1,320)

변인명	측정 시점				F	post-hoc Bonferroni
	2012년 (2차 조사) ^a	2013년 (3차 조사) ^b	2014년 (4차 조사) ^c	2015년 (5차 조사) ^d		
다문화 수용성	2.93(.57)	3.02(.54)	3.08(.55)	3.15(.55)	43.20***	$a < b < c < d$
심리적 변인	자아탄력성	3.03(.45)	3.06(.47)	3.06(.46)	3.93*	$b < c$
	자아존중감	3.22(.53)	3.20(.53)	3.18(.53)	3.57*	$b > c$
	삶의 만족도	3.31(.57)	3.22(.59)	3.15(.62)	38.29***	$b > c > d$
정서적 변인	우울감	1.60(.52)	1.64(.53)	1.69(.54)	20.35***	$b < c < d$
	사회적 위축	2.24(.72)	2.26(.74)	2.35(.73)	15.57***	$b, c < d$
인지적 변인	성취동기	3.01(.48)	3.03(.48)	3.04(.45)	3.40*	$b < d$
	성적 만족도	2.79(.77)	2.53(.77)	2.40(.77)	135.57***	$b > c > d$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p < .05$, ** $p < .01$, *** $p < .001$.

4.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및 자료의 정규성 검증

측정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수용성, 심리적 변인, 정서적 변인, 그리고 인지적 변인들의 측정 시점 간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4 \sim .56$, $p=.000$).

본 연구의 주된 측정 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11 \sim .43$, $p=.000$). 다문화 수용성과 정서적 변인인 우울감 및 사회적 위축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08 \sim -.28$, $p=.000$), 인지적 변인인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06 \sim .36$, $p=.000$).

본 연구의 자료가 연구모형 검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Kline(2011)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미만,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왜도 및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1.00																								
2	.35***	1.00																							
3	.24***	.39***	1.00																						
4	.20***	.33***	.41***	1.00																					
5	.27***	.43***	.28***	.22***	1.00																				
6	.18***	.25***	.41***	.24***	.46***	1.00																			
7	.17***	.24***	.25***	.37***	.41***	.50***	1.00																		
8	.24***	.37***	.27***	.19***	.56***	.36***	.34***	1.00																	
9	.20***	.26***	.35***	.21***	.36***	.54***	.35***	.52***	1.00																
10	.13***	.21***	.24***	.31***	.31***	.40***	.57***	.46***	.50***	1.00															
11	.14***	.31***	.19***	.18***	.55***	.36***	.34***	.53***	.38***	.35***	1.00														
12	.13***	.21***	.32***	.20***	.30***	.57***	.39***	.33***	.54***	.40***	.45***	1.00													
13	.11***	.20***	.17***	.27***	.27***	.35***	.58***	.29***	.30***	.56***	.39***	.48***	1.00												
14	.15***	.28***	.19***	.12***	.48***	.32***	.28***	.46***	.38***	.33***	.62***	.38***	.30***	1.00											
15	.13***	.19***	.27***	.17***	.30***	.47***	.33***	.31***	.48***	.37***	.38***	.64***	.39***	.46***	1.00										
16	.08***	.15***	.16***	.21***	.26***	.34***	.47***	.27***	.33***	.51***	.33***	.43***	.65***	.42***	.52***	1.00									
17	.12***	.20***	.11***	.12***	.37***	.23***	.21***	.32***	.26***	.21***	.28***	.20***	.16***	.46***	.31***	.25***	1.00								
18	.16***	.16***	.16***	.14***	.27***	.39***	.31***	.23***	.35***	.27***	.19***	.31***	.20***	.28***	.46***	.29***	.50***	1.00							
19	.09***	.11***	.12***	.13***	.23***	.30***	.38***	.23***	.26***	.37***	.21***	.32***	.32***	.26***	.31***	.46***	.40***	.56***	1.00						
20	.22***	.36***	.25***	.18***	.59***	.34***	.30***	.54***	.32***	.27***	.34***	.20***	.19***	.33***	.21***	.20***	.26***	.21***	.14***	1.00					
21	.13***	.18***	.30***	.19***	.35***	.54***	.35***	.33***	.55***	.35***	.25***	.34***	.19***	.26***	.34***	.24***	.20***	.32***	.23***	.43***	1.00				
22	.12***	.16***	.22***	.31***	.30***	.35***	.54***	.27***	.33***	.56***	.20***	.24***	.32***	.20***	.24***	.32***	.14***	.23***	.25***	.37***	.50***	1.00			
23	.11***	.23***	.19***	.16***	.33***	.24***	.20***	.33***	.22***	.27***	.35***	.25***	.25***	.23***	.19***	.20***	.16***	.13***	.13***	.29***	.25***	.20***	1.00		
24	.08***	.18***	.21***	.13***	.18***	.27***	.20***	.20***	.33***	.27***	.21***	.34***	.26***	.21***	.28***	.24***	.13***	.17***	.13***	.15***	.26***	.19***	.40***	1.00	
25	.06***	.14***	.12***	.16***	.14***	.15***	.24***	.17***	.18***	.32***	.17***	.19***	.35***	.14***	.18***	.26***	.08***	.08***	.15***	.14***	.18***	.21***	.36***	.46***	1.00
왜도	-.21	.03	-.32	-.17	.18	.25	.27	-.14	-.11	-.10	-.45	-.37	-.32	.71	.54	.47	-.09	-.16	-.22	-.19	.04	-.08	-.15	.09	.07
첨도	.66	.51	1.14	.51	.34	-.05	.05	-.60	-.47	-.30	.13	.10	.10	.19	-.40	-.17	-.60	-.63	-.51	.67	.26	1.08	-.41	-.38	-.37
평균	2.93	3.02	3.08	3.15	3.03	3.06	3.06	3.22	3.20	3.18	3.31	3.22	3.15	1.60	1.64	1.69	2.24	2.26	2.35	3.01	3.03	3.04	2.79	2.53	2.40
(s0)	(.57)	(.54)	(.55)	(.55)	(.45)	(.47)	(.46)	(.53)	(.53)	(.53)	(.57)	(.59)	(.62)	(.52)	(.53)	(.54)	(.72)	(.74)	(.73)	(.48)	(.48)	(.45)	(.77)	(.77)	(.77)

1. 다문화 수용성(2차)	2. 다문화 수용성(3차)	3. 다문화 수용성(4차)	4. 다문화 수용성(5차)	5. 자아탄력성(3차)	6. 자아탄력성(4차)	7. 자아탄력성(5차)
8. 자아존중감(3차)	9. 자아존중감(4차)	10. 자아존중감(5차)	11. 삶의 만족도(3차)	12. 삶의 만족도(4차)	13. 삶의 만족도(5차)	14. 우울(3차)
15. 우울(4차)	16. 우울(5차)	17. 사회적 위축(3차)	18. 사회적 위축(4차)	19. 사회적 위축(5차)	20. 성취동기(3차)	21. 성취동기(4차)
22. 성취동기(5차)	23. 성적 만족도(3차)	24. 성적 만족도(4차)	25. 성적 만족도(5차)			

* $p < .05$, ** $p < .01$, *** $p < .001$.

4.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변인에 미치는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이 동일한 측정 시점의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동시효과), 혹은 다음 시점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그리고 인지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지연효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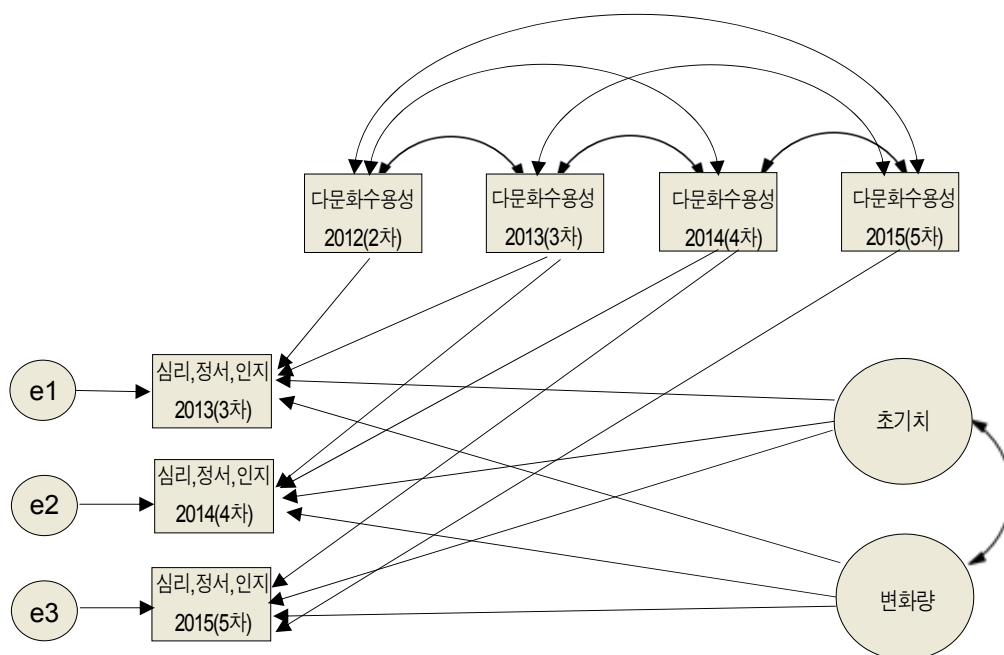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 수용성이 심리, 정서, 인지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4.3.1. 심리적 변인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1)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심리적 변인 중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56.32$, $df=7$, $p=.000$, $TLI=.927$, $CFI=.976$, $RMSEA=.073$ 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실시된 3차 조사 당시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연도에 측정된 초등학교 6년 당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 $p=.000$. 2014년도(4차 조사)와 2015년도(5차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34$, $p=.000$; $\beta=.29$, $p=.000$).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지연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차 조사)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3년(3차 조사)에 측정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 $p=.000$. 이와 마찬가지로, 2013년(3차 조사)과 2014년(4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4년(4차 조사)와 2015년(5차 조사)에서 수집된 자아탄력성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p=.000$; $\beta=.10$, $p=.000$).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측정 시기와 동일한 시점의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자아탄력성(초6)	.30***	.02	.37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자아탄력성(중1)	.29***	.02	.34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자아탄력성(중2)	.24***	.02	.29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자아탄력성(초6)	.08***	.02	.10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자아탄력성(중1)	.07***	.02	.08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자아탄력성(중2)	.08***	.02	.10	

* $p < .05$, ** $p < .01$, *** $p < .001$.

2)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57.93$, $df=7$, $p=.000$, TLI=.923, CFI=.974, RMSEA=.074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1$, $p=.000$; $\beta=.25$, $p=.000$; $\beta=.24$, $p=.000$). 또한 특정 시기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이 다음 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지연효과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9$, $p=.000$; $\beta=.11$, $p=.000$; $\beta=.09$, $p=.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시기의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자아존중감(초6)	.30***	.02	.31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자아존중감(중1)	.23***	.02	.25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자아존중감(중2)	.22***	.02	.24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자아존중감(초6)	.08***	.02	.09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자아존중감(중1)	.11***	.02	.11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자아존중감(중2)	.09***	.02	.09	

* $p < .05$, ** $p < .01$, *** $p < .001$.

3) 다문화 수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및 지연 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38.47$, $df=7$, $p=.000$, TLI=.944, CFI=.981, RMSEA=.058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검증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00$; $\beta=.25$, $p=.000$; $\beta=.21$, $p=.000$).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이 다음 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지연효과는 측정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3차 조사)에 수집된 초등학교 6학년 당시의 다문화 수용성이 2014년(4차 조사)에 측정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 $p=.044$. 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4차 조사) 당시 측정한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5차 조사)에 측정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 $p=.011$.

그러나 2012년(2차 조사)에 수집된 초등학교 5학년 재학 당시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3년(3차 조사)에 측정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 $p=.173$. 즉, 다문화 수용성을 처음으로 측정한 2012년(2차 조사)의 지연효과를 제외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측정 당시에 삶의 만족도와 이듬해에 측정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문화 수용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삶의 만족도(초6)	.29***	.03	.27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삶의 만족도(중1)	.27***	.03	.25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삶의 만족도(중2)	.24***	.03	.21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삶의 만족도(초6)	.03	.03	.03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삶의 만족도(중1)	.05*	.03	.05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삶의 만족도(중2)	.08*	.03	.07	

* $p < .05$, ** $p < .01$, *** $p < .001$.

4.3.2. 정서적 변인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1) 다문화 수용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적 변인 중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27.22$, $df=7$, $p=.000$, TLI=.964, CFI=.988, RMSEA=.047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3차 조사) 당시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으로, 이 때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동일한 시점에 측정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 $p=.000$. 2014년(4차 조사)와 2015년(5차 조사)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 $p=.000$; $\beta=-.16$, $p=.000$).

다문화청소년들의 지각한 다문화 수용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살펴보면, 2012년(2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은 이듬해인 2013년(3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 $p=.057$. 2013년(4차 조사)와 2014년(4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의 지연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6$, $p=.011$; $\beta=-.06$, $p=.019$). 즉,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이후에 경험하는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문화 수용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우울감(초6)	-.23***	.03	-.24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우울감(중1)	-.19***	.02	-.20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우울감(중2)	-.15***	.02	-.16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우울감(초6)	-.04†	.02	-.05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우울감(중1)	-.06*	.02	-.06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우울감(중2)	-.06*	.03	-.0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및 지연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한 결과, $\chi^2=29.42$, $df=7$, $p=.000$, $TLI=.960$, $CFI=.987$, $RMSEA=.049$ 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2013년(3차 조사)시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과 2014년(4차 조사), 그리고 2015년(5차 조사) 당시의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시기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000$; $\beta=-.10$, $p=.000$; $\beta=-.05$, $p=.028$).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의 지연효과는 측정 시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차 조사) 처음으로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은 이듬해인 2013년(3차 조사)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 $p=.525$. 그러나 이후에 측정된 2013년(3차 조사)와 2014년(4차 조사)의 다문화 수용성은 각각 2014년(4차 조사)와 2015년(5차 조사)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8$, $p=.001$; $\beta=-.09$, $p=.002$.

표 7.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사회적 위축(초6)	-.24***	.04	-.18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사회적 위축(중1)	-.13***	.03	-.10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사회적 위축(중2)	-.07*	.03	-.05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사회적 위축(초6)	-.02	.03	-.02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사회적 위축(중1)	-.10**	.03	-.08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사회적 위축(중2)	-.12**	.04	-.09	

* $p < .05$, ** $p < .01$, *** $p < .001$.

4.3.3. 인지적 변인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1) 다문화 수용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35.56$, $df=7$, $p=.000$, TLI=.951, CFI=.984, RMSEA=.056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검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0$, $p=.000$; $\beta=.26$, $p=.000$; $\beta=.23$, $p=.000$). 이와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이 이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지연효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p=.000$; $\beta=.09$, $p=.000$; $\beta=.09$,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시기에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뿐만 아니라 이듬해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다문화 수용성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성취동기(초6)	.27***	.02	.30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성취동기(중1)	.22***	.02	.26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성취동기(중2)	.18***	.02	.23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성취동기(초6)	.07***	.02	.08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성취동기(중1)	.08***	.02	.09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성취동기(중2)	.07**	.02	.09

* $p < .05$, ** $p < .01$, *** $p < .001$.

2) 다문화 수용성이 학업 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이 학업 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chi^2=33.98$, $df=7$, $p=.000$, TLI=.943, CFI=.981, RMSEA=.054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효과 의 검증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시점 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학업 성적에 대해 스스로 만족도 는 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 $p=.000$; $\beta=.12$, $p=.000$; $\beta=.12$, $p=.000$.

다문화 수용성이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지연효과는 측정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2년(2차 조사)와 2014년(4차 조사)의 다문화 수용성은 각각 2013년(3차 조사)와 2015년(5차 조사)에서 측정된 성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 $p=.061$; $\beta=.05$, $p=.098$. 그러나 2013년(3차 조사)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이듬해인 2014년(4차 조사)의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 $p=.004$.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측정 시기 당시의 성적 만족도와 이듬해 측정된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다문화 수용성이 학업 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시 및 지연효과 검증

모수	추정치	SE	표준화 추정치	비고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3(3차) 성적 만족도(초6)	.28***	.04	.20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4(4차) 성적 만족도(중1)	.16***	.03	.12	동시효과
2015(5차) 다문화 수용성(중2) → 2015(5차) 성적 만족도(중2)	.16***	.04	.12	
2012(2차) 다문화 수용성(초5) → 2013(3차) 성적 만족도(초6)	.06 [†]	.03	.05	
2013(3차) 다문화 수용성(초6) → 2014(4차) 성적 만족도(중1)	.10**	.03	.07	지연효과
2014(4차) 다문화 수용성(중1) → 2015(5차) 성적 만족도(중2)	.07 [†]	.04	.0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이 최초 측정된 2012년(2차 조사)부터 2015년(5차 조사)까지 총 4개 연도에 걸쳐 측정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이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그리고 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지각한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동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수용성의 지연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이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보다 회귀 계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효과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수용성이 이듬해 측정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2012년(2차 조사)에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측정된 다문화 수용

성은 이듬해 측정된 2013년(3차 조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한 가지 가능성은, 다문화 수용성이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3차 조사)와 다문화 수용성(2차 조사), 자아탄력성(3차 조사), 그리고 자아존중감(3차 조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표 2), 삶의 만족도는 2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r=.14$, $p=000$)보다 동일한 해에 측정된 자아탄력성($r=.55$, $p=000$)과 자아존중감($r=.53$, $p=000$)과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3차 조사)과 2014년(4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은 이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적 요인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심리적 변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지연효과와 비교하여, 2012년(2차 조사)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지연효과를 제외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차 조사)의 다문화 수용성이 이듬해인 2013년(3차 조사)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사회적 위축에 대해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우울($r=.46$, $p=000$)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인지적 요인인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 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지연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인지적 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이듬해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다문화 수용성의 지연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시점에 측정된 다문화 수용성은 각 시점의 이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의 지연효과가 이후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다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대상을 다문화청소년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처전략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6).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부모로부터 지지가 있을 때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이 심리적 변인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변인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인지적 요인인 성취동기와 학업 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적 변인, 정서적 변인, 그리고 인지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그리고 인지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동일한 시점과 이듬해의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가 확립되는 시기로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휘숙, 2004).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취약한 실정이다(조선일보, 2012, 1, 10).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적 위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 역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17, 2, 1).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자원을 확충하는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수용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국의 언어로 된 교육 자료나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한겨레, 2017, 2, 28).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적응을 방해하는 현실적 어려움 중 한 가지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이

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은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심리적, 인지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非) 다문화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예,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 증진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개입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과 더불어 비(非) 다문화청소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6).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2), 183-202.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연, 정봉교. (2011). BAS/BIS, 자아탄력성과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313-327.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박혜숙, 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유난영.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1(1), 174-203.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울: 이담.
- 이지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 임진섭. (2010).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2(2), 161-185.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명희. (2010). 한국사회의 문화 간 감수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11(4), 291-310.
- 정명희, 박외병. (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81-105.
- 정연구, 송현주, 윤태일, 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405-427.
- 조선일보. (2012, 1, 10). **다문화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http://news.chosun.com>에서 2017, 7, 24 인출.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7-26.
- 한겨레. (2017, 2, 28). **다문화 남아! 여전한 차별...다양성 존중교육 절실했다**. <http://www.hani.co.kr>에서 2017, 7, 18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한국일보. (2016, 12, 8). **다문화청소년 '학교 밖 2만명' 언어·진로에도 관심을**. <http://www.hankookilbo.com>에서 2017, 4, 14 인출.
- 한국일보. (2017, 2, 1). **나이 들수록 위축되는 다문화청소년**. <http://www.hankookilbo.com>에서 2017, 7, 12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03, 542-57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616-628.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제 ⑨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1. 【최우수상】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2. 【우 수 상】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3. 【우 수 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호용*

국문초록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적응을 유도하고 사회의 통합을 달성하는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중차분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강건성 검증 테스트도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이 효과는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정책 수립 시 다문화가정의 이질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국가정체성,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차분법, 정책평가

I. 서론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동일 민족, 동일 언어로 대표되었던 한국사회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¹⁾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는 2014년 68,000명(전체 학생 대비 1.07%), 2015년 83,000명(1.35%), 2016년 99,000명(1.68%)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부모의 출신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그 뒤를 잇는 가운데, 구성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교육부(2017)).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다양성이 깊어지는 사회적 현상은 주로 국제 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기인한다(여성가족부(2016)).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국적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국민의 한 구성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점차 중요한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 Ph.D. Student in Economic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jung54@wisc.edu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의 패널데이터를 지원 받아 작성되었다. 패널데이터를 제공해준 연구원 측에 감사한다. 논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는 저자의 몫이다.

1)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의미한다. 즉 부모 중 1인 이상이 외국인이고, 현재 한국 학교에 재학중인 한국 국적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 제정되었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이 정부 정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도 교육학,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다만 이들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1) 연구 대상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뚜렷한 자아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치관 및 생활 양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달리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별 발달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볼 때, 그간의 연구는 사회학적 개념 등에 기반한 이론 연구, 인터뷰 등을 통한 개별 사례 분석, 해외 국가와의 비교연구 등의 질적 분석(qualitative study)에 치중되어 있다. 소수의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y)에 있어서도 설문지의 기술통계량에 기반한 통계적 추세 및 상관관계성 검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분석³⁾ 등과 같이 기초적이면서 불완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증 분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A가 목표로 했던 효과 B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 후 정책평가라는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불완전한 인과관계 분석 후 이에 기초한 정책 제안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당한 규모의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을 고려할 때⁴⁾ 분명 보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 연구 대상 측면에서, 국가나 민족과 같은 동류집단 의식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맥락에 맞추어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개별적 가치관에 논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기는 자아의식 및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외모, 언어, 부모 등 생활 기본 요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모순적 정체성(oppositional identity)을 경험하게 되면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에서 주변화될 위험에 빠진다. 이때 국가정체성은 이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진정으로 융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Dustmann, 1996), Berry, 2001), Berry, et al., 2006, Constant et al.,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으로 소재를 특정하여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적으로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 또한 연구 방법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

2) 그간의 연구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실태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김미숙 외(2011), 다문화가정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김유경 외(2013), 다문화가정 정책의 국가간 비교연구와 관련해서는 변수정 외(2015), 다문화가정 대상 세부 사업은 주성훈(2010)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각 연구보고서의 참고 문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비교연구는 통계집단이 불완전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에 기초하여 도출된 특정 변수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다문화가정 정책 관련 세부 예산 현황은 아래를 참고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현황: <http://stat.nabo.go.kr/fn03-131.jsp> ('17.06.02. 확인)

(2)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 현황(교육부(2017)): 22,500백만원('14), 14,200백만원('15), 17,308백만원('16), 19,120백만원('17)

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간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한 사례는 저자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도출된 인과관계는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 등을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와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설문 항목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평가점수가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향점수매칭법, 오류실험 등과 같은 다양한 강건성 검증 테스트에서도 유효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한국과 덜 동질적인 가정 출신으로 청소년 표본을 한정할 때, 성공과 관련한 국가정체성 지표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에 다문화가정의 이질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주축 세대로 성장했을 때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들의 이중문화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이는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Benet-Martinez and Haritatos, 2005), Hunt, 2016, Akay, et al.,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주제, 분석 방법, 결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비단 정책적 차원에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가 아는 한 이 연구는 동 소재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경제학적 접근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균형 잡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배경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데이터 및 표본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한다. 7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

5)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연구는 국외적으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1)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모순적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하여 외국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한국은 국가/민족의식이 강하게 작동하는 독특한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이 중요한 가치관이자 사고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 분석은 동류의식이 강한 외국의 비슷한 국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I. 연구 배경

1. 다문화가정 청소년 시기는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점이다.

Akerlof and Kranton(2000)의 *Economics and Identity* 논문 이후 경제학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⁶⁾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성찰과 인지가 바탕이 되어 개인의 행동원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정체성이 한 개인의 행동 양태에 내면화되면, 이 정체성이 요구하는 표준 행동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은 비효용(disutility)을 야기하게 된다.⁷⁾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가치관이며, 어느 한 차원의 정체성이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압도할 수도 있다.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사춘기라는 시기적 특징에 더해 남들과는 다른 배경적 특징이 더해져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자아감이 형성되는 동시에, 친구, 선생님,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 외모, 언어 등과 관련한 “다름”을 인지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와 관련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한국사람이지만 보통과는 다른 한국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모순적 정체성과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외국 경제학 문헌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모순적 정체성이 개인의 생활 양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Battu, et al., 2007, Battu and Zenou, 2010, Casey and Dustmann, 2010, Bisin, et al., 2011).

2.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체성은 중요한 가치관념이다.

정체성 연구의 권위자 Tilly(1990)는 그의 책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4장 (State and their Citizens)에서 국가정체성을 “...to homogenize their populations and break down their segmentation by imposing common language...”로 규정한다. 즉 국가정체성에 대해 국가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을 “한 국가 출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류의식을 불어넣는 메커니즘으로

6) 이들은 주로 특정 정체성이 교육 성취도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인종정체성(rational identity)과 관련해서는 Austen-Smith and Fryer(2005), 성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해서는 Bertrand(2015), Bursztyn, et al.(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보통의 경제학 문헌에서는 이를 효용함수에 포화점(bliss-point)이 존재하여 포화점으로부터 멀어지면 효용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U(x, y) = -|x - x^*|^{\alpha} - |y - y^*|^{\beta}$ 에서 x^*, y^* 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의 최적치이고, α 와 β 는 특정 정체성 x 와 y 에 부여하는 가중치이다. 이 개인의 선택 x, y 가 x^*, y^* 값으로부터 멀어지면 개인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8)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성정체성, 부자 혹은 빈자로서의 계급정체성, 서울 혹은 지방 출신으로서의 지역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 중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특정 정체성이 개인의 행동원리, 즉 개인의 선택 및 결정에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인종정체성이 흑인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해석하면서, 국가정체성이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국가정체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에 비해, 독일, 호주, 미국 등 외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증경제학 문헌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을 직접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언어 차이 등을 매개로 하여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Bleakley and Chin, 2008, Casey and Dustmann, 2008, Clots-Figueras and Masella, 2013, Schuller, 2015).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다른 문화권과 잦은 교류가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때 민족의식에 기초한 국가정체성 관념은 상대적으로 희미했다고 할 수 있다.⁹⁾

한국은 이러한 외국 사례들과는 다른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에 동질감과 동류의식을 키워온 독특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개념은 국가, 민족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언어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정체성은 한국적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관념이다(Ahlerup and Hansson, 2011, Dimitrova-Grajl, et al., 2016).¹⁰⁾ 이처럼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고유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체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단순 국적을 기준으로만 따지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한국사람으로서 진정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단순히 어느 나라 사람인가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자신을 일체화 하는지와 같은 깊은 차원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3.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동화를 목표로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 중심이 되어 부처 산하 지원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언어교육, 문화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 규정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책은 이들을 한국사회에 융화(assimilation)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화와 통합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점차 공존과 다양성 존중의 방향으로 정책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한국인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한국사회로 온전히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로 간주

9) 이민의 역사, 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사회환경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외국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외부적 정합성(external valid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0) 그 결과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지적 차원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행동은 인식의 수용성 수준과는 괴리될 때가 많다.

하고 있지만, 이들의 본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는 관심이 덜하다.¹¹⁾ 다문화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역시 한국어 습득, 한국문화 이해를 통한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부 지원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한국사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다.¹²⁾

정부의 지원은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접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책의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집행 경로도 “중앙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구조로 짜여 있다.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보통의 정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 대상이 기본적으로 수혜 그룹으로 해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또한 포괄적 복지 개념에 기초하여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이러한 사실에서, 차등적 지원이 본격화된 2017년 이전의 경우에는 공급자(정부)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자 선별 문제가 작다고 할 수 있다.¹⁵⁾

Ⅲ. 데이터 및 표본 구축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축적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연도별로 추적한 데이터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초의 패널데이터이다. 심리사회적응영역, 신체발달영역, 인간관계영역, 정책지원영역, 생활배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데이터가 축적되어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초4)부터 2015년(중2)까지 5년간 추적된 약 1,400여가구(청소년 및 부모 약 1,400여명)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이 표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학부모의 특징을 균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뢰성 및 대표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1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4,452명(1개 학년에 해당)인데, 이 중에서 약 1,600명이 추출되어 패널데이터에 활용되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율이 36%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표본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되었다.

11) 현재 정부 정책은 낮은 차원의 수용(accommodation), 높은 차원의 융합(assimilation)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2) Eriksen(1993)은 자신의 저서 *Ethnicity and Nationalism*에서 국가정체성 형성이 한 사회의 통합을 이끌고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정신기제가 된다고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바라는 것이다.

13)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 통로가 비교적 부족한 측면이 있다.

14)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도 소득 등에 근거한 선별주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차등 지원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김유경 외(2013) 연구보고서와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16/0705000000AKR20141216124400372.HTML>

15) 다만 수요자(청소년)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 선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소득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의 선택 편향의 가능성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1) 우선 연구원에서 제공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생 식별번호를 매개로 하여 총 5년 기간의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였다. 그렇게 하여 5년간 총 5,679개의 표본이 생성되었다.
-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총 100개의 쌍둥이 표본을 제거하였다.¹⁶⁾ 따라서 총 5,579개의 표본이 남게 되었다.
- (3) 학생 설문지에서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았다.” 문항을 이용하여, 각 해마다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표본을 제거하였다.¹⁷⁾

위 과정을 통해 구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 표본은 아래 <표 1a>, <표 1b>와 같다. 초등학교 시절에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으며, 지원 빈도는 2회가 가장 높다. 이들 표본의 주요 특징은 다음의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표 1a. 학년별 정부 지원 수혜 여부

	정부 지원 받음(처치집단)	정부 지원 안 받음(통제집단)	전체
2012(초5)	1,020	458	1,478
2013(초6)	778	642	1,420
2014(중1)	427	930	1,357
2015(중2)	408	916	1,324

표 1b. 개인별 4년간(2012-2015) 정부 지원을 받은 총 횟수

지원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학생 수	172	337	445	239	131

IV. 실증 분석 전략

1. 방법론: 이중차분법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부 지원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의 실증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D: 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매년 표본들의 정부 지원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시점 간 차분을 통해 관측되지 않는 개인 및 지역 고정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설정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16) STATA에서 패널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ID와 연도별로 하나의 관측치만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쌍둥이 표본을 포함하여 분석을 한 경우에도 연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7) 해당 질문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되었다.

$$Y_{(i,j,t)} = \alpha + \beta T_{(i,j,t)} + \gamma X_{(i,j,t)} + \mu_i + \kappa_j + \eta_t + \epsilon_{(i,j,t)}$$

i 는 학생, j 는 거주 지역¹⁸⁾,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Y_{(i,j,t)}$ 는 학생의 국가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설문지에서 조사된 3개의 문항, (1)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2)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3)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를 국가정체성을 대표하는 척도로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¹⁹⁾

관심변수 $T_{(i,j,t)}$ 는 j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i 가 t 시점에 정부의 지원 정책을 수혜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다. 지원을 받았으면 1,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0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원 정책은 총 15가지의 종류로 구성된다.²⁰⁾

종속변수 $Y_{(i,j,t)}$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X_{(i,j,t)}$ 에는 학생 개인의 특성, 부모/가정 특성, 학교/이웃 특성 등 설문지에서 측정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²¹⁾

μ_i , κ_j , η_t 는 각각 개인, 지역, 시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사는 지 여부가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생활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 중차분법을 이용하면 시점 간 차분을 통해 이와 같은 개인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장점이 생긴다. 또한 시간 고정효과를 통해 시간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겪는 공통된 변화를 통제하였다.

$\epsilon_{(i,j,t)}$ 는 오류항이다. 그리고 모든 분석에서 표준오차는 개인 단위로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하여 시점 간 존재할 수 있는 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을 통제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받지 않은 통제 집단(control group)의 각종 특성이 유사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 역시 같아야 한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 지원이 임의적(random)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책 지원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 등을 활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

18) 거주 지역 j 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되었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문화공연 관람,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심리적응 프로그램, 물적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이중언어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지원, 학습지 지원, 급식비 지원, 진로지원 프로그램, 기타

21) 사용된 통제변수는 아래와 같다. 사용된 변수의 의미 및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을 참고한다.

- 개인 통제변수: 성별, 언어능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성적(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건강 상태, 정체성 관련 평소 생각, 외모에 대한 생각, 자아의식
- 부모/가정 통제변수: 결혼 상태, 월평균 가구 소득,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교육 정도, 어머니 교육 정도, 부모 건강 상태, 부모 언어능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자녀 양육 태도, 부모 자아의식, 모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 문화 충동을 겪고 있는 정도, 한국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학생의 부모 평가
- 학교/이웃 통제변수: 담임선생님 관계, 친구 관계, 학교에서 괴롭힘 여부, 동네주민과의 관계

결해야 하나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²²⁾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1) 제도적 맥락의 검토, (2)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데이터에서 관측된 변수들의 비교를 통해 위 가정이 성립하여 이중차분법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2. 이중차분법 적용의 타당성 검증

1) 제도적 맥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한계로 정부 지원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 연구, 기존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정부 지원에 있어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문제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²³⁾ 만약 선택 편향의 문제가 작은 환경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준실험적 상황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우선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지원 정책은 공급자인 정부 주도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2011-2015년에는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one criterion fits all”의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의 공급 측면에서 선택 편향의 문제는 매우 작다고 해석된다.²⁴⁾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라는 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면 소득 등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수혜 여부는 선택 편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공급자 선별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급자에 의한 선별과는 관련이 적은 외생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부 지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표본 균형 테스트

첫 번째로, 패널데이터 기간이 2011-2015년이고 정책 지원 변수 $T_{(i,j,t)}$ 가 2012년부터 관측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2012년 정책 지원을 받은 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2011년 주요 지표들을 비교했다.

22) 다만 강건성 검증 테스트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찾아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5장 2절을 참고한다.

23) 선택 편향의 개념, 사례, 해결 등과 관련하여서는 Heckman(1979)를 참고한다.

24) 정부 지원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거주지 더미변수와 지역 고정효과로 통제할 수 있다.

표 2a. 2011년 주요 지표 균형 테스트(2012년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국가정체성(종속변수)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음	2.7046	2.6943	0.8235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2.7821	2.7555	0.5568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3.2552	3.2314	0.5445
학생 특성			
성별	0.4858	0.5087	0.4146
말하기 능력	3.6300	3.6419	0.7035
쓰기 능력	3.5123	3.4825	0.4221
읽기 능력	3.5790	3.6070	0.4092
듣기 능력	3.6487	3.6441	0.8840
국어 성적	3.7458	3.6943	0.2858
영어 성적	3.2179	3.0917	0.0398*
수학 성적	3.4632	3.5087	0.4281
사회 성적	3.1021	3.1594	0.2842
과학 성적	3.4161	3.4541	0.4834
건강 상태	1.6605	1.6550	0.8779
정체성 관련 평소 생각	1.2492	1.2404	0.6997
외모에 대한 생각	2.7419	2.6872	0.1080
자아의식	2.9199	2.8740	0.0818
부모/가정 특성			
결혼 상태	0.9480	0.9498	0.8854
월평균 가구 소득	208.3811	228.2926	0.0023**
아버지 연령	46.2490	45.9222	0.2436
어머니 연령	40.5594	40.0175	0.0615
아버지 교육 정도	3.9833	3.9931	0.8809
어머니 교육 정도	4.5643	4.5699	0.9195
부모 건강 상태	3.4534	3.5109	0.2128
부모 말하기 능력	3.1437	3.1005	0.2271
부모 쓰기 능력	2.7309	2.6530	0.0767
부모 읽기 능력	3.0622	3.0137	0.1962
부모 듣기 능력	3.2130	3.2100	0.9311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	2.7062	2.7123	0.8551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1.6737	1.6900	0.5614
자녀 양육 태도	3.5552	3.5600	0.8822
부모의 자아의식	3.7682	3.8162	0.1461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3935	2.3493	0.3629
문화 충돌을 겪고 있는 정도	2.4665	2.3676	0.1224
한국 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2.6116	2.5862	0.5554
(학생이 보기에)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3.2083	3.1815	0.3987
(학생이 보기에) 부모 평가	1.7668	1.7563	0.7594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학교/이웃 특성			
담임선생님	3.7051	3.6354	0.1588
친구	3.8357	3.7321	0.0382*
괴롭힘 여부	1.1776	1.1921	0.5321
동네주민	3.0257	2.9987	0.3935
표본 수	1,020	458	

* $p < 0.05$, ** $p < 0.01$, 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두 번째로, 정부의 지원은 과거 학생의 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가령 지난 해에 지원을 받으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난 해에 지원을 받았다면 정책 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해 이번 해에 다시 지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표본 선택 편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2013년 정책 지원을 받은 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2012년 주요 지표들을 비교했다.

표 2b. 2012년 주요 지표 균형 테스트(2013년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국가정체성(종속변수)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음	2.7653	2.8121	0.2426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2.7946	2.7955	0.9832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3.2787	3.3273	0.1349
학생 특성			
성별	0.4976	0.4864	0.6690
말하기 능력	3.6834	3.6455	0.1534
쓰기 능력	3.5648	3.5500	0.6392
읽기 능력	3.6345	3.6273	0.8040
듣기 능력	3.6883	3.6470	0.1202
국어 성적	3.7946	3.7561	0.3652
영어 성적	3.2604	3.2364	0.6785
수학 성적	3.2848	3.3061	0.6956
사회 성적	3.3240	3.1894	0.0148*
과학 성적	3.5269	3.4470	0.0922
건강 상태	1.6284	1.6303	0.9528
정체성 관련 평소 생각	1.2293	1.2156	0.5075
외모에 대한 생각	2.7940	2.7727	0.5044
자아의식	2.9664	2.9365	0.2238
부모/가정 특성			
결혼 상태	0.9438	0.9333	0.4048
월평균 가구 소득	212.2356	229.4718	0.0020**
아버지 연령	47.1227	47.1109	0.9640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어머니 연령	41.5436	41.2222	0.2328
아버지 교육 정도	4.0168	3.9486	0.2648
어머니 교육 정도	4.5558	4.5753	0.7050
부모 건강 상태	3.4613	3.5814	0.0036**
부모 말하기 능력	3.1537	3.1297	0.4494
부모 쓰기 능력	2.7382	2.7073	0.4222
부모 읽기 능력	3.0826	3.0459	0.2619
부모 듣기 능력	3.2186	3.1899	0.3622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	2.7415	2.6709	0.0186*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1.7037	1.6473	0.0284*
자녀 양육 태도	3.5850	3.5801	0.8653
부모의 자아의식	3.8020	3.7854	0.5532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3355	2.3592	0.5466
문화 충돌을 겪고 있는 정도	2.2325	2.1788	0.3150
한국 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2.5303	2.4589	0.0643
(학생이 보기에)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3.1549	3.1974	0.1755
(학생이 보기에) 부모 평가	1.8289	1.7945	0.3262
학교/이웃 특성			
담당선생님	3.6758	3.6336	0.3644
친구	3.8998	3.8794	0.6451
괴롭힘 여부	1.1298	1.1164	0.4786
동네주민	2.9689	2.9930	0.4042
표본 수	778	642	

* $p < 0.05$, ** $p < 0.01$, 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마지막으로, 2014년은 패널데이터 표본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진급하는 시점이자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다. 상급 학교 진학으로 인한 표본 선택 편이가 발생하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정책 지원을 받은 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2014년 주요 지표들을 비교했다.

표 2c. 2014년 주요 지표 균형 테스트(2015년 처치집단 vs. 통제집단)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국가정체성(종속변수)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음	2.8732	2.7977	0.0885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2.9258	2.8062	0.0056**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3.3756	3.3216	0.1382
학생 특성			
성별	0.5096	0.4792	0.3024
말하기 능력	3.7368	3.7646	0.3019
쓰기 능력	3.6866	3.6880	0.9648

변수	처치집단(T=1)	통제집단(T=0)	평균값 차이(p값)
읽기 능력	3.7584	3.7433	0.5918
듣기 능력	3.7751	3.7646	0.6898
국어 성적	3.4139	3.4302	0.7360
영어 성적	2.9928	3.0085	0.8039
수학 성적	2.8684	2.8243	0.4756
사회 성적	3.2273	3.2194	0.8887
과학 성적	3.2081	3.2023	0.9198
건강 상태	1.5766	1.5804	0.9149
정체성 관련 평소 생각	1.1528	1.1670	0.4574
외모에 대한 생각	2.9516	2.8637	0.0115*
자아의식	3.0906	3.0487	0.1245
부모/가정 특성			
결혼 상태	0.9019	0.9361	0.0267*
월평균 가구 소득	217.3551	249.1243	0.0000**
아버지 연령	49.3256	48.9778	0.2393
어머니 연령	43.8744	43.2240	0.0328*
아버지 교육 정도	3.9742	3.9600	0.8374
어머니 교육 정도	4.6401	4.5241	0.0438*
부모 건강 상태	3.3478	3.4898	0.0018**
부모 말하기 능력	3.1316	3.2168	0.0136*
부모 쓰기 능력	2.7291	2.8223	0.0334*
부모 읽기 능력	3.0532	3.1061	0.1548
부모 듣기 능력	3.1722	3.2682	0.0048**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	2.4222	2.4269	0.8909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1.4348	1.4236	0.6505
자녀 양육 태도	3.4934	3.5514	0.0797
부모의 자아의식	3.7324	3.7859	0.1049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2.3241	2.3307	0.8799
문화 충돌을 겪고 있는 정도	2.2608	2.1050	0.0078**
한국 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2.4307	2.4876	0.2311
(학생이 보기에)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3.2437	3.1855	0.0779
(학생이 보기에) 부모 평가	1.6885	1.7374	0.1592
학교/이웃 특성			
담임선생님	3.8170	3.7306	0.0843
친구	4.1350	4.1041	0.5053
괴롭힘 여부	1.0606	1.0470	0.3495
동네주민	2.9311	2.9499	0.5726
표본 수	408	916	

* $p < 0.05$, ** $p < 0.01$, 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종합적으로 볼 때, 위 세 가지 표본 균형 테스트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관측 가능한 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값 차이의 p값을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5% 범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의 <표 2a>와 <표 2b>를 보면, 정부 지원 이전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차이점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처치집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통제집단의 월평균 가구 소득에 비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적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부모/가정 특성과 관련된 지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는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수요자 측면에서의 선택 편의를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가지 종류의 정부 지원 정책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의 더미변수 $T_{(i,j,t)}$ 로만 정부 지원 정책을 식별하고 있다. 이 더미변수는 다양한 차원의 정부 지원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차원에서의 선별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한다. 특히 이 수요자 측면에서의 선별이 인지능력이 향상된 중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데이터 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²⁵⁾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²⁶⁾

물론 임의 실험(random experiment)이 아닌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온전히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패널에 포함된 데이터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즉 학생의 인지 및 비인지적 요소 외에 가정, 학교, 이웃 환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조사되었고, 이들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맥락에서 볼 때도 선택 편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급자 차원에서의 선별 효과는 그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을 통한 분석은 정부 지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5) 즉, 비록 공급자인 정부(공급자) 차원에서 소득에 따른 지원자 선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학생(수요자) 차원에서의 선별을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정부 지원 없이도 가정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정확히 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어렵거나 불리한) 환경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6) 물론 이중차분법 분석 시 통제변수 $X_{i,j,t}$ 를 통해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가정 특성 등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차이는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고정효과를 통해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부모/가정 특성 등과 연관되었지만 데이터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어떤 요소의 이질적 효과가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표 2c>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월평균 가구소득 낮음, 부모 건강상태 나쁨, 부모 언어능력 떨어짐, 부모가 문화충돌을 겪고 있음)의 청소년일수록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선택 편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석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더 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정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정부가 대신 지원해줌으로써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V. 실증 분석 결과

1. 기본 결과

〈표 3〉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부 정책이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친 효과를 보여준다.

표 3. 기본 회귀 결과: 이중차분법 분석

변수	(1)	(2)	(3)	(4)	(5)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0469* (0.0207)	0.0745*** (0.0224)	0.0546* (0.0213)	0.0586* (0.0232)	0.0511* (0.0226)
R ²	0.001	0.006	0.081	0.078	0.106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0532* (0.0216)	0.0683** (0.0232)	0.0454* (0.0224)	0.0512* (0.0240)	0.0417+ (0.0237)
R ²	0.002	0.010	0.090	0.081	0.112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161 (0.0182)	0.0186 (0.0200)	0.0042 (0.0189)	0.0122 (0.0203)	0.0107 (0.0197)
R ²	0.000	0.008	0.096	0.086	0.117
개인 통제변수	N	N	Y	N	Y
부모/가정 통제변수	N	N	N	Y	Y
학교/이웃 통제변수	N	N	N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N	Y	Y	Y	Y
시간 고정효과	N	Y	Y	Y	Y
N	5,579	5,548	5,548	5,070	5,070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3개의 종속변수 중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의 경우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칭찬의 동일시 효과의 경우 모든 효과를 통제했을 때 약 0.05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지의 평균값이 2.7-2.8 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8%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의 동일시 효과의 경우 모든 효과를 통제했을 때 약 0.04 점이 증가하고, 설문지의 평균값이 2.7-2.8 점이라고 볼 때 효과의 크기는 14% 정도이다. 다만 칭찬의 동일시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성은 다소 약화된다. 자랑스러움 지표의 경우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애초에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증가 여지가 별로 없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보인다.²⁷⁾

27) 〈표 2a, 2b, 2c〉 모두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움” 지표의 평균값은 약 3.2점으로 다른 두 지표의 평균값인 2.7-2.8점에 비해 크게 나온다.

종합하면, 문화체험활동, 한국어교육,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사회 융합”이라는 목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정부 정책의 효과로 인해 한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간의 정부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문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국가정체성을 잘 확립할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Eriksen, 1993).

2. 강건성 검증

1) 성향점수매칭법

국가정체성 형성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만약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수가 많고 이들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면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ing Matching)을 분석 방법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²⁸⁾ 이중차분법과 성향점수매칭법 두 분석 방법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분석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a>는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표 4a. 강건성 검증: 성향점수매칭법 분석

변수	성향점수매칭법	이중차분법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0449 ⁺ (0.0236)	0.0511* (0.0226)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0377* (0.0240)	0.0417 ⁺ (0.0237)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026 (0.0186)	0.0107 (0.0197)
N	5,061	5,070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1) 이 표에서 제시된 이중차분법 열의 결과는 표 3의 (5)의 결과에 해당한다.

2) 성향점수매칭법에서는 이중차분법에서 사용한 개인 통제변수, 부모/가정 통제변수, 학교/이웃통제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과 같다.”와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두 국가정체성 변수에 있어서 성향점수매칭법에서 도출된 β 는 모든 효과가 통제된 이중차분법에서의 β 와 크기와 방향 모두 비슷하게 추정된다(각각 0.045 점 vs. 0.051 점, 0.038 점 vs. 0.042 점). 성향점수매칭법에

28) 성향점수매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CIA: 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관측가능한 변수 X 를 통제하면 종속변수 Y 와 관심변수 T 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Y_0, Y_1) \perp T | X$ 의 관계로 요약된다(성향점수매칭법에 대해서는 Rosenbaum and Rubin(1983)을 참고). 이것은 이중차분법이 요구하는 가정에 비해 제약이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강건성 검증의 용도로만 활용하였다.

서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두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다는 점은 정부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2) 오류실험: 종속변수 시점 변화 효과

현재의 정부 정책이 과거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효과를 미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령 2013년의 지원이 2012년의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시점을 과거로 당겼을 때 정책의 효과가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미함이 사라진다면 정책 효과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²⁹⁾ 이를 위해 회귀식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Y_{(i,j,t-1)} = \alpha + \beta T_{(i,j,t)} + \gamma X_{(i,j,t)} + \mu_i + \kappa_j + \eta_t + \epsilon_{(i,j,t)}$$

t 시점에 나타난 정책이 $t-1$ 시점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므로, β 값이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결과의 강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b>는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b. 강건성 검증: 오류실험

변수	(1)	(2)	(3)	(4)	(5)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0226 (0.0230)	-0.0272 (0.0254)	-0.0227 (0.0256)	-0.0258 (0.0267)	-0.0245 (0.0269)
R ²	0.000	0.002	0.006	0.015	0.018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0210 (0.0224)	0.0024 (0.0247)	0.0073 (0.0249)	0.0036 (0.0260)	0.0065 (0.0262)
R ²	0.000	0.004	0.008	0.013	0.016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093 (0.0189)	0.0165 (0.0210)	0.0198 (0.0209)	0.0153 (0.0218)	0.0174 (0.0218)
R ²	0.000	0.006	0.012	0.013	0.017
개인 통제변수	N	N	Y	N	Y
부모/가정 통제변수	N	N	N	Y	Y
학교/이웃 통제변수	N	N	N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N	Y	Y	Y	Y
시간 고정효과	N	Y	Y	Y	Y
N	5,578	5,547	5,547	5,069	5,069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29) 정부 정책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정 결과는 예상과 같았다.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표 3>의 결과와는 달리 종속변수의 시점을 1년 당겨서 회귀식을 추정하자 모든 종속변수에서 긍정적 효과가 사라졌다. 이와 같은 오류 실험의 결과는 본래의 추정에 신뢰성을 더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정부정책 지원변수 변화 효과

본문의 분석에서 관심변수 $T_{(i,j,t)}$ 로 학생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수혜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 받은 정책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³⁰⁾ 이들 중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외부 지원기관”의 프로그램들과 비교할 때 선택 편의 문제가 작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분석해도 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기존 결과의 신빙성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관심변수 $T_{(i,j,t)}$ 로 뚜렷하게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급식비 지원”만을 고려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³¹⁾ <표 4c>는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³²⁾

30) 총 15가지 세부 지원 내역이 존재: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문화공연 관람, 놀이공원 방문, 문화체험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심리적응 프로그램, 물적 지원, 대학생 멘토링,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이중언어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지원, 학습지 지원, 급식비 지원, 진로지원 프로그램, 기타

31) 즉 학생 i 가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또는 급식비 지원을 받았으면 관심변수 $T_{i,j,t}$ 는 1, 그 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기본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 지원 받음(처치집단)	정부 지원 안 받음(통제집단)	전체
2012 (초5)	1,290	188	1,478
2013 (초6)	1,261	159	1,420
2014 (중1)	1,229	128	1,357
2015 (중2)	1,209	115	1,324

32)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제한된 관심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 수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_{i,j,t}$ 의 도구변수로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또는 급식비 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Z_{i,j,t}$ 를 생각할 수 있다. 도구변수법으로 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연관성 가정으로 도구변수와 관심변수가 긴밀한 상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구변수가 오직 관심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배제가능성이다. 세 번째는 도구변수가 오차항과는 독립이어야 한다는 외생성 가정이다.

이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정은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을 밝히기가 어렵다(도구변수법과 관련한 논의는 Angrist and Pischke(2008)을 참고). 본 연구에 가정을 적용하면, 관심변수 T 와 도구변수 Z 가 서로 연관성이 크고, 정부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Z 가 국가정책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가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도구변수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첨부 2에 제시하였다. 계수를 이중차분법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계수의 방향은 비슷하게 나오나 크기가 확연히 더 크게 나오고 있다. 다만 도구변수법에 필요한 가정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수 없는 분석 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바, 결과의 해석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도구변수법 추정 결과는 참고 차원에서 제시한다.

표 4c. 강건성 검증: 정부정책 지원변수 변화 효과

변수	(1)	(2)	(3)	(4)	(5)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0820* (0.0372)	0.0887* (0.0377)	0.0680 (0.0364)	0.0991** (0.0384)	0.0812* (0.0381)
R ²	0.001	0.005	0.080	0.078	0.106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0863* (0.0366)	0.0834* (0.0370)	0.0642 (0.0356)	0.0814* (0.0374)	0.0639 ⁺ (0.0371)
R ²	0.001	0.009	0.089	0.080	0.112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197 (0.0315)	0.0164 (0.0318)	0.0027 (0.0306)	0.0325 (0.0324)	0.0225 (0.0320)
R ²	0.000	0.008	0.096	0.086	0.117
개인 통제변수	N	N	Y	N	Y
부모/가정 통제변수	N	N	N	Y	Y
학교/이웃 통제변수	N	N	N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N	Y	Y	Y	Y
시간 고정효과	N	Y	Y	Y	Y
N	5,579	5,548	5,548	5,070	5,070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칭찬의 동일시 효과와 성공의 동일시 효과 지표에서 효과가 0.08점 정도로 <표 3>에서보다 약 0.02-0.03점 정도 증가하였다. 관심변수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급 측면의 표본 선택 편의를 줄이고 표본 수가 적어졌는데 효과가 더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기존 결과가 강건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 어머니 출신국가 구분 효과

정부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어머니 출신국가에 따라 학생 표본을 변화하면서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특히 어머니의 언어, 외모, 문화가 한국사람과 이질적일수록 학생이 더 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만으로 표본을 한정하였을 때도 정부 정책 효과가 계속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우선 아버지의 출신국가가 한국인인 표본만 남긴 후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사람과 언어, 외모, 문화 측면에서 동질적인 정도를 기준으로 표본을 제외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2) 처음에는 어머니가 조선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선족 출신 어머니는 언어, 외모, 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람들과 거의 유사하다. (3)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중국 한족, 대만, 일본 출신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들의 언어는 한국과 차이가 있지만 외모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소속되면서 한국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표 4d>는 표본을 순차적으로 제한했을 때 달라지는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³³⁾

표 4d. 강건성 검증: 어머니 출신국가 구분 효과

변수	(1) 전체	(2) 조선족 제외	(3) 동아시아인 제외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0507* (0.0226)	0.0499* (0.0244)	0.0085 (0.0380)
R ²	0.106	0.106	0.116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0422 ⁺ (0.0238)	0.0533* (0.0257)	0.0834* (0.0388)
R ²	0.112	0.117	0.130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104 (0.0198)	0.0170 (0.0212)	0.0422 (0.0322)
R ²	0.116	0.119	0.116
개인 통제변수	Y	Y	Y
부모/가정 통제변수	Y	Y	Y
학교/이웃 통제변수	Y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지역 고정효과	Y	Y	Y
시간 고정효과	Y	Y	Y
N	5,056	4,095	1,852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 1)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등),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기타
- 2)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중국(한족 등),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기타
- 3)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기타

〈표 4d〉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족인 어머니를 제외했을 때에도 국가정체성에 나타나는 효과는 비슷하다(2)열). 그러나 같은 문화권에 온 중국 한족, 대만인, 일본인 어머니까지 제외하였을 때 칭찬의 동일시 효과는 사라졌다(3)열). 다만 성공의 동일시 효과는 더 강해졌으며, 표본 크기 감소에 따른 표준오차 증가로 통계적 유의미함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자랑스러움 지표 역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이들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 지표 모두 국가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칭찬 지표는 국가정체성 중에서도 귀속적(선천적) 속성을 내포하는 반면에 성공 지표와 자랑스러움 지표는 국가정체성 중 후천적 성취라는 속성을 함축한다. (3)열의 표본은 어머니가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비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온 가정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의 어머니가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까지 와서 정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모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후천적 성취와 관련하여 강한 동기와 의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이 청소년인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러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공과 관련한 국가정체성 형성에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게 된다.³⁴⁾ 또한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자신의 성취로 내면

33) 해당 분석에서도 모든 통제변수와 고정효과를 통제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34) 다만 동 문단의 설명은 엄밀한 실증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speculation)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구성원의 다양성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³⁵⁾

정리하면,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정부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 정책 수립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Ⅶ. 토론: 국가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 탐색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국가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 이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³⁶⁾

표 5. 연도별/지원별 정부 지원 수혜 학생 수

	2012(초 5)	2013(초 6)	2014(중 1)	2015(중 2)
전체 학생 수	1,478	1,420	1,357	1,324
정부 지원 수혜 학생 수*	1,020	778	427	408
<i>세부 내역</i>				
방과 후 수업료 지원	391	286	150	137
문화공연 관람	297	172	84	70
놀이공원 방문	236	124	43	23
문화체험활동	437	254	103	84
특기적성 프로그램	122	98	45	32
심리적응 프로그램	51	50	31	20
물적 지원	125	75	38	34
대학생 멘토링	313	224	143	131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1	26	11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34	35	21	13
한국어 교육 지원	23	13	5	3
학습지 지원	104	56	27	20
급식비 지원	160	136	110	103
진로지원 프로그램	0	0	20	20
기타	41	41	34	35

* 중복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의 학생 수의 합이 정부 지원 수혜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있음

35) Akay, et al.(2014), Akay, et al.(2017) 역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이민으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 사회 후생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36) 본 장의 논의는 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다.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메커니즘 중 하나를 대략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후 더 깊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표 5〉를 보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학업 도움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초5-중2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으로 학업과 한국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수업 태도와 교우 관계가 좋아졌으며, 이것이 긍정적인 국가정체성을 형성했다는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다.

표 6a. 정부 지원과 학교 생활 간의 관계

변수	(1)	(2)	(3)	(4)	(5)
학교 수업 태도	0.0575*** (0.0144)	0.0507** (0.0155)	0.0304* (0.0137)	0.0376* (0.0148)	0.0283* (0.0139)
R ²	0.004	0.013	0.205	0.129	0.227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0.0092 (0.0122)	0.0296* (0.0131)	0.0074 (0.0109)	0.0273* (0.0125)	0.0167 (0.0112)
R ²	0.000	0.016	0.312	0.150	0.329
개인 통제변수	N	N	Y	N	Y
부모/가정 통제변수	N	N	N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N	Y	Y	Y	Y
시간 고정효과	N	Y	Y	Y	Y
N	5,579	5,548	5,548	5,070	5,070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종속변수가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석인 만큼 학교/이웃 관련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교/이웃 관련 변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표 6b. 학교 생활과 국가정체성 지표와의 상관관계

	학교 수업 태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2980	0.2850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3075	0.3075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2687	0.3270

〈표 6a〉와 〈표 6b〉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³⁷⁾ 〈표 6a〉를 보면, 정부 지원과

37) 추정에 사용된 식은 $Y_{i,j,t} = \alpha + \beta T_{i,j,t} + \gamma X_{i,j,t} + \mu_i + \kappa_j + \eta_t + \epsilon_{i,j,t}$ 으로 4장에서 제시한 식과 유사하다. 다만 사용된 변수가 아래와 같이 변화하였다. 사용된 변수의 의미 및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을 참고한다.

- 종속변수: 학교 수업 태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 개인 통제변수: 성별, 언어능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성적(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건강 상태, 정체성 관련 평소 생각, 외모에 대한 생각, 자아의식
- 부모/가정 통제변수: 결혼 상태, 월평균 가구 소득,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교육 정도, 어머니 교육 정도, 부모 건강 상태, 부모 언어능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자녀 성적에 대한 관심,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자녀 양육 태도, 부모 자아의식, 모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 문화 충동을 겪고 있는 정도, 한국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학생의 부모 평가

학교 생활(학교 수업 태도 및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 회귀분석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들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생활과 국가정체성 관련 세 지표 사이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수업 태도 및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적극적 학교 생활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세계화 및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통합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다. 이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개인 및 가정환경의 특성이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였는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한 개인에게 국가적 소속감을 부여하는 정신적 기제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국가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사람의 일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와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로 대표되는 국가정체성 지표의 평가점수가 약 1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향점수매칭법, 오류실험, 처치변수 변경 등의 다양한 강건성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여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지원 대상 선정에서 선택 편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정책 지원의 내용이 15가지 종류로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표본 크기의 제약 등으로 수혜 여부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국가정체성 형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자, 최대한 엄밀하고 보수적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많은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간의 질적 연구에서 벗어나 이중차분법 등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 다른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후속 연구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이웃 통제변수: 종속변수가 학교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분석인 만큼 학교/이웃 관련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학교/이웃 관련 변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가벼운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의 고등학생 시절의 교육성취도,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도 관측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패널데이터 구축 기간이 2017년(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패널데이터를 한국노동패널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할 때 패널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 문항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본 논문에 한하여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 정책을 수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등처럼 포괄적인 설문항에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된 개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매 차수 설문조사 시에 잠재 연구자들의 의견을 설문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안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빌어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데이터 제공에 감사함을 표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발표**. '17.01.13. 보도자료.
- 김미숙, 김유경, 김안나, 김효진, 성수미 (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27.
- 김유경, 최현미, 최소연, 김가희 (201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57.
- 변수정, 조성호, 이상림, 서희정, 정준호, 이윤석 (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5.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요 결과**. '16.04.25. 보도자료.
- 주성훈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38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 Ahlerup, Pelle, & Gustav Hansson (2011). Nationalism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No. 3, pp. 431-451.
- Akay, Alpaslan, Amelie Constant, Corrado Giulietti, & Martin Guzi (2014).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Well-being of Nativ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103, pp. 72-92.
- Akay, Alpaslan, Amelie Constant, Corrado Giulietti, & Martin Guzi (2017). Ethnic Diversity and Well-being,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30, No. 1, pp. 265-306.
- Akerlof, George A., & Rachel E. Kranton (2000). Economics and Ident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5, No. 3, pp. 715-753.
- Angrist, Joshua D., & Jörn-Steffen Pischke (2008).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usten-Smith, David, & Roland G. Fryer (2005). An Economic Analysis of "Acting Whi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No. 2, pp. 551-583.
- Battu, Harinder, & Yves Zenou (2010). Oppositional Identities and Employment for Ethnic Minorities, *Economic Journal*, Vol. 120, No. 542, pp. F52-F71.
- Battu, Harinder, McDonald Mwale, & Yves Zenou (2007). Oppositional Identities and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0, No. 3, pp. 653-667.
- Benet-Martinez, Veronica, & Jana Haritatos (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BII): Components and Psychosoci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3, No. 4, pp. 1015-1050.
- Berry, John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7, No. 3, pp. 615-631.
- Berry, John W., Jean S. Phinney, David L. Sam, & Paul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Vol. 55, No. 3, pp. 303-332.
- Bertrand, Marianne, Emir Kamenica, & Jessica Pan (2015). Gender Identity and Relative Income within Household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30, No. 2, pp. 571-614.
- Bisin, Alberto, Eleonora Patacchini, Thierry Verdier, & Yves Zenou (2011). Ethnic Identity and Labour Market Outcomes of Immigrants in Europe, *Economic Policy*, Vol. 26 No. 65, pp. 57-92.
- Bleakley, Hoyt, & Aimee Chin (2008). What Holds Back the Second Generation: The Intergenerational

- Transmission of Language Human Capital Among Immigra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3, No. 2, pp. 267–298.
- Bursztyn, Leonardo, Thomas Fujiwara, & Amanda Pallais (2017). "Acting Wife": Marriage Market Incentives and Labor Market Investments. *NBER Working Paper*, No. 23043.
- Casey, Teresa, & Christian Dustmann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anguage Capital and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3, No. 3, pp. 660–687.
- Casey, Teresa, & Christian Dustmann (2010). Immigrants' Identity, Economic Outcomes and the Transmission of Identity across Generations, *Economic Journal*, Vol. 120, No. 542, pp. F31–F52.
- Clots-Figueras, Irma, & Paolo Masella (2013). Education, Language and Identity, *Economic Journal*, Vol. 123, No. 570, pp. F332–F357.
- Constant, Amelie F., Liliya Gataullina, & Klaus F. Zimmermann (2009). Ethnosing Immigra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69, No. 3, pp. 274–287.
- Dimitrova-Grajzl, Valentina, Jonathan Eastwood, & Peter Grajzl (2016). The Longevity of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Pride: Evidence from Wider Europe, *Research & politics*, Vol. 3, No. 2.
- Dustmann, Christian (1996). The Social Assimilation of Im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9, No. 1, pp. 37–54.
- Eriksen, Thomas H.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nthropolgy, Culture and Society). Pluto Press.
- Heckman, James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 47, No. 1, pp. 153–161.
- Hunt, Jennifer (2016).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Nativ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0115–6913R1.
- Rosenbaum, Paul R., & Donald B.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Vol. 70, No. 1, pp. 41–55.
- Schüller, Simone (2015). Parental Ethnic Ident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8, No. 4, pp. 965–1004.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Basil Blackwell.

[첨부1] 변수 설명

변수		척도	설명
국가정책제정 (종속변수)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음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특성			
성별		1: 남자, 0: 여자	
말하기 능력		4: 매우 잘한다, 3: 잘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전혀 못한다	
쓰기 능력		4: 매우 잘한다, 3: 잘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전혀 못한다	
읽기 능력		4: 매우 잘한다, 3: 잘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전혀 못한다	
듣기 능력		4: 매우 잘한다, 3: 잘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전혀 못한다	
국어 성적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4: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영어 성적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4: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수학 성적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4: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사회 성적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4: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과학 성적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4: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2: 못하는 편이다,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건강 상태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2: 건강한 편이다, 1: 매우 건강하다	
정치성 관련 평소 생각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음,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음, 주변에서 한국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스테레오타입 중,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어서 무시를 당함,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굴, 한국사람들은 우리식구를 못살게 굴"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외모에 대한 생각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긴,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짐, 나는 외모에 만족함"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자아의식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친구에게 너그려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냄, 평소엔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김, 예민하지 않거나 남자는 사랑함,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함, 다른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음,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함,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함,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짐,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부모/가정 특성			
결혼 상태		1: 결혼 0: 이혼, 별거, 사별, 동거	
월평균 가구 소득		만원/월 ("모름/무응답"은 제거하였음)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교육 정도		8: 대학원 박사과정, 7: 대학원 석사과정, 6: 대학교(4년제 이상), 5: 대학교(4년제 미만), 4: 고등학교, 3: 중학교, 2: 초등학교, 1: 안 받았음(미제학아동 포함)	
어머니 교육 정도		8: 대학원 박사과정, 7: 대학원 석사과정, 6: 대학교(4년제 이상), 5: 대학교(4년제 미만), 4: 고등학교, 3: 중학교, 2: 초등학교, 1: 안 받았음(미제학아동 포함)	
부모 건강 상태		5: 매우 좋다, 4: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2: 나쁜 편이다, 1: 매우 나쁘다	
부모 말하기 능력		4: 매우 잘함, 3: 잘하는 편, 2: 못하는 편, 1: 전혀 못함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부모 쓰기 능력		4: 매우 잘함, 3: 잘하는 편, 2: 못하는 편, 1: 전혀 못함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변수		척도	설명
부모 양육 능력	4: 매우 잘함, 3: 잘하는 편, 2: 못하는 편, 1: 전혀 못함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부모 동기 능력	4: 매우 잘함, 3: 잘하는 편, 2: 못하는 편, 1: 전혀 못함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녀 성격에 대한 관심	5: 매우 자주 함(매우 그렇다), 4: 자주 함(그런 편이다), 3: 어느 정도 함(보통이다), 2: 별로 하지 않음(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하지 않음(전혀 그렇지 않다)		"직접 학교공부를 가르침, 숙제감사를 함, 학교선생님과 상담을 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봄, 학원에 보냄, 개인과외를 시킴, 시험 때까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 시험을 잘보지 못했을 때 아단을 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자녀 학교활동 관련 참여 빈도	4: 1년에 4회 이상, 3: 1년에 2~3회, 2: 1년에 1회, 1: 전혀 하지 않는다		"담당교사 면담, 참관수업 참석, 학부모 회의 참석, 학부모 교육 참석, 각종 학교 봉사활동, 운동회 참석, 학예회 또는 학급발표회 참석 일 교사"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자녀 양육 태도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반반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나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음,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아이가 무엇을 칭찬하라는지 잘 알고 있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임,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부모의 자의식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중립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처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함,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음,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함"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모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	5: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2: 자랑스러운 편이다, 1: 매우 자랑스럽다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문화 충절을 겪고 있는 정도	5: 매우 많이 있다, 4: 많이 있는 편이다, 3: 어느 정도 있다, 2: 약간 있는 편이다, 1: 전혀 없다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사회생활에서 한국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됨,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싫음,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리움,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남,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위축됨,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자위가 낮다고 느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한국 생활 적응 및 차별 여부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줌,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줌,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짐,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겨울 때 내게 힘겨울 줄,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줌,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함,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학생이 보기에) 안정적 가정 생활 여부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이 보기에) 부모 평가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이웃 특성			
담당선생님	5: 매우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담당선생님과 친함, 나를 잘 도와주심, 나를 좋아하심, 나에게 관심이 많으심,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해주심,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심"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친구	5: 매우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3: 보통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나를 좋아함, 내 생각/말을 잘 들어줌, 내게 인연 같이 생기면 나를 위로/격려해줌, 서로 잘 도와줌, 나에게 관심이 많음,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함, 나를 잘 이해해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괴롭힘 여부	4: 거의 매일 있었다, 3: 한주에 1~2번 있었다, 2: 한달에 1~2번 있었다, 1.: 한번도 없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심한 장작가림/놀림을 당함,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곳에 끼워주지 않거나 앞전히 무시함, 다른 학생들로부터 약거나 부른 차이거나 위협을 당함, 나에게 가정스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됨,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정/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놀림을 당함"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동네주민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음,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함,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낌,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음,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추가 변수 (6장 종속변수 관련)			
학교 수업 태도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음,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함,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봄"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4: 매우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 내 짝이 교과서/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줌,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나 말을 잘 따라줌" 질문 문항의 값을 평균함

[첨부2] 강건성 검증: 정부정책 지원변수 변화 효과 - 도구변수법 추정

변수	(1)	(2)	(3)	(4)	(5)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0.1545* (0.0695)	0.1811* (0.0762)	0.1396 ⁺ (0.0741)	0.1951** (0.0749)	0.1605* (0.0747)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0.1625* (0.0689)	0.1702* (0.0751)	0.1316 ⁺ (0.0727)	0.1603* (0.0734)	0.1263 ⁺ (0.0730)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0.0371 (0.0592)	0.0335 (0.0648)	0.0056 (0.0628)	0.0640 (0.0635)	0.0446 (0.0630)
개인 통제변수	N	N	Y	N	Y
부모/가정 통제변수	N	N	N	Y	Y
학교/이웃 통제변수	N	N	N	Y	Y
개인 고정효과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N	Y	Y	Y	Y
시간 고정효과	N	Y	Y	Y	Y
N	5,579	5,548	5,548	5,070	5,070

⁺ $p < 0.10$, * $p < 0.05$, ** $p < 0.01$, ()는 표준오차이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첨부 1 참고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봉초운* · 정윤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태가 5년간 기혼에 해당하는 가구의 어머니와 자녀 1193쌍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와 자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서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가족, 교사,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초기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사 및 친구의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사회적지지 중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수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

I. 서론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외국 노동력 이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진입하였다. 국내 다문화가정은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행정자치부, 2013).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2세대 자녀의 수도 늘어났다. 2014년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비율이 1%를 넘었고 향후 다문화 학생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2015).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높았다(교육부, 2015). 여성가족부(2016)가 발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 보도자료에

* 고려대학교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 석사과정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달라서(1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64.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여전히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사회적 지원 및 연구적 관심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이 중요한 연구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문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가정 부모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거나,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 사회적·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Hovey & Magana, 2002), 이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부모 혹은 자녀 중 하나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에 따라(이지영, 이주연, 2016; 정옥희, 2013; 김민정, 김경은, 2009)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 또한 자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력은 상호연관성을 가정하고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변화 양상 또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구인과 환경적인 구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전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Berry, 1997),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이다(김은경, 김종남, 2016; Thomas & Choi, 2006). 이들은 주변인들로부터 주류문화에 동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족한 한국어실력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다(송선진, 2007). 언어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Hovey와 Magana(2002)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차별,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등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 질서 및 문화적 규

법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균형을 잃게 됨에 따라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언어발달지체와 학교 수업 부적응, 폭력성,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등을 경험한다(정옥희, 2013; 보건복지부, 2005).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문제로 더 많이 고민하였으며,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또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자신이 혼혈인이라는 이유가 또래로부터 차별이나 따돌림을 받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통합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문제로 대두되었다(Hovey & Magana, 2002; Berry, 1997; Smart & Smart, 1995).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초창기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점차 감소하는 형태(Ying, 2005; Ward Okura, Kennedy & Kojima, 1998), 초기에 증가하는 형태(Yeh & Inose, 2003)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개인이 겪는 특정한 상황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Tartakovsky, 2007), 개인에 초점을 둔 중단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애선, 2013; 김상용, 2010),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상호연관적인 맥락 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

1)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지지는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조언, 도움, 행동을 의미한다(Gottlieb, 1983).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가족, 교사, 친구, 이웃 등의 관계에서 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정지민, 2015). 사회적지지는 학교의 요구에 대해 아동이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촉진시켜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Ladd & Kochenderfer, 1996). 이는 다양한 변화에서 적응 능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인이다.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이혜경, 전해인, 2013; 정진경, 양계민, 2004).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완화시키며, 개인의 안녕을 돕기 때문이다(Hyun & Kim, 2012; Lakey & Orehek, 2011). 특히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특별한 욕

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지지가 부족할 경우 이로 인한 적응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정선진 · 김진숙, 2012).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0). 또 한국인 조력자가 많고 사회적지지에 대해 만족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1).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충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사회적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내·외적 자원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데(안준희, 조정희, 2011; Berry, Kim, Minde & Mok, 1987), 주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것으로(Rosenberg, 1985),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자 개인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이다(심미영 외, 2013; Nam & Park, 2009).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 요인이다(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권복순, 2009). 자아존중감의 개인차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잘 드러나게 되는데, 가령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다(Brown & Mankowski, 1993).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권복순, 2009),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가족 갈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행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오남, 2007; 김연수, 2007;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잘 느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다문화가정 부모보다 자녀에게 더욱 크다.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환경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수연, 2009). 청소년기에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강한 충동성과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데(정혜경, 안옥희, 2001; Adams, Overholser & Lehnert., 1994),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충동적 행동을 조절해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경험한다.

3)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개인의 삶의 질적 측면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맥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Coopersmith, 1967).

사회적지지는 주관적 경험과 상황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변수로 사용되었다. Hong(2005)에 의하면, 아동이 사회적지지를 지각하게 되면 이는 개인심리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아동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Hwang & Park, 2010; Major & O'Brien, 2005). 실제로 다문화가정과 비(非)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상황적인 맥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Greene & Way, 2005; Way & Robinson, 2003).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Baldwin & Hoffman, 2002). 이는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이며, 상급 학교로의 진학, 사고능력의 발달, 대인관계의 확대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정병삼,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연구에 비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해외의 연구들은 성인기 역시 자아존중감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밝혀 왔다(Orth & Robins, 2010; Galambos, Barker & Krahn, 2006; Jaquish & Ripple, 1981).

이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행위자 효과 및 상대자 효과는 유의한가?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1차년도(2011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MAPS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

태가 5년간 기혼에 해당하는 가구의 어머니와 자녀로 각각 1,193명이다.

분석 자료로 MAPS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PS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변수의 변화 형태와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MAPS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시점으로 조사하여 종단 분석에 적합하다. 셋째,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

2. 측정도구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문항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8문항(예: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10문항(예: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보통이다(3점)'이 제외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변수는 각 년도 별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5개 년도에서 .843에서 .885, .737에서 .805의 범위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항 중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9문항(예: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중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14문항(예: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변수는 각 년도 별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일부 문항을 역처리하여 값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5개 년도에서 .791에서 .813, .889에서 .913의 범위로 나타났다.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지역사회의 지지로 나뉜다. 가족의 지지는 학생의 가족에 관한 7개 문항(예: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는 학교친구들에 대한 5개 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림)에 대한 응답을, 교사의 지지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 지지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6개 질문(예: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4개의 변수는 잠재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문

화적응 스트레스의 1차 년도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지지의 1차 년도에 대한 응답값을 사용했다. 친구의 지지와 지역사회의 지지의 일부 문항을 역처리했고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1차 년도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지역사회의 지지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각각 1.00, .683, .843, .692로 나타났다.

4) 통제 변수

통제 변수로는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한국어능력,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소득은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을 표준화하여 사용했다. 부모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한국어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체 1,193명의 자녀 중 남성은 584명(49.0%), 여성은 608명(51.0%)이었다.

3. 분석 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사용하였다.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은 두 사람 간 관계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가정하고 양자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Cook & Kenny, 2005; Kashy & Kenny, 1996). 연구 대상이 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변수 간의 독립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짝 혹은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은 최근 사회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횡단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 자료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은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추정한다(Cook & Kenny, 2005). 종단 분석에서 행위자 효과란 개인의 현재 행동이 과거 행동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자 효과란 개인의 현재 행동이 다른 개인의 과거 행동에 의해 예측되는 정도를 뜻하는데, 두 사람 간 상대자 효과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때 양방향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속 변수인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상호의존성을 가정하고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였다.

커플 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의 분석은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 2016; Preacher, Wichman, Maccallum & Briggs, 2008; Duncan, Duncan & Strycker, 2013). 첫째,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반복 측정된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변화 형태를 추정한다. 둘째, 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모형에 변수를 투입하여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에서 추정된 분산, 즉 개인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집단 수준에서 계산되는 ML과 달리 개별 사례에 대한 우도함수를 계산하므로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홍세희, 유숙경, 2004; Arbuckle, 1996).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검증과 CFI, TLI, RMSEA 지수를 이용해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Browne & Cudeck, 1993). 일반적으로 모형 검증에 사용되는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쉽게 가설을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CFI, TLI,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RMSEA는 .05 이하일 때,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라 판단하며, TLI와 CFI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적합하다(Shrout & Bolger, 2002). Bootstrapping은 이론적으로 무수히 표집하여 얻은 경험적 표집 분포를 형성한 후 신뢰구간을 통해 계수를 검증한다. 이 때 경험적 표집 분포는 표집 횟수가 무한하지 않아 편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집 횟수의 한계를 보완한 BC(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Efron & Tibshirani, 1994). BC(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계수는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21.0과 Mplus 7.0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기술통계 분석과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1-5: 부모의 문화적응 스펙트럼스 1차-5차, 6-10: 자녀의 문화적응 스펙트럼스 1차-5차, 11-15: 부모의 자아존감 1차-5차, 16-20: 자녀의 자아존감 1차-5차, 21-24: 가족의 지지, 25-29: 교사의 지지, 30-34: 친구의 지지, 35-40: 지역사회와의 지지, 41: 부모의 소두, 42: 부모의 한국어능력, 43: 자녀의 소두, 44: 자녀의 한국어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의한 결과는 굵게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고,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상관 역시 대부분 유의하였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제외한 사회적지지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 또한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점차 감소하였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보다 절대적인 값은 높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였다.

2.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분석

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분석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가 없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무성장모형, 일차함수모형, 이차함수모형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비교의 기준으로는 χ^2 검증과 적합도지수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Hu & Bentler, 1999; Browne & Cudeck, 199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54로 가장 낮았고 TLI와 CFI 값은 각각 .991과 .98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 함수로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함수모형의 RMSEA, TLI, CFI 또한 적합도 지수 분석 기준을 만족하였다. RMSEA, TLI, CFI 값은 각각 .058, .982, .982로 이차함수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적합도지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좋은 모형에 해당되었다(Hu & Bentler, 1999). 둘째, 변수 간 관계 분석의 간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이차함수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초기치, 일차변화율 뿐만 아니라 이차변화율에 대해서도 해석해야하므로 변수 간 관계 설명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고 변수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일차함수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였다. RMSEA 값이 .054로 가장 낮았고, CFI 값이 .940으로 가장 높았다. TLI 값은 이차함수모형에서 .960으로 가장 높았으나, 세 개의 적합도 지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차함수모형이 더 적합했다.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인명	모형	$\chi^2(df)$	RMSEA	TLI	CFI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모형	147.766(13) ***	.095	.952	.938
	일차함수모형	49.147(10) ***	.058	.982	.982
	이차함수모형	25.225(6) ***	.054	.991	.985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모형	68.528(13) ***	.060	.927	.906
	일차함수모형	45.057(10) ***	.054	.940	.940
	이차함수모형	29.363(6) ***	.057	.960	.934

* $p < .05$, ** $p < .01$, *** $p < .001$

최종적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모형의 변화 형태 그래프는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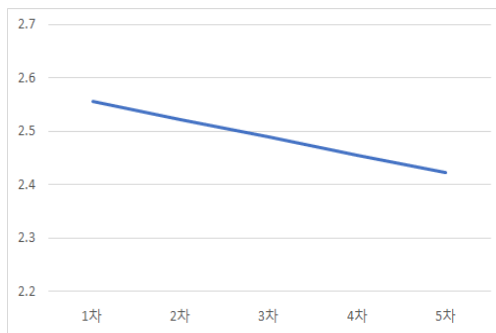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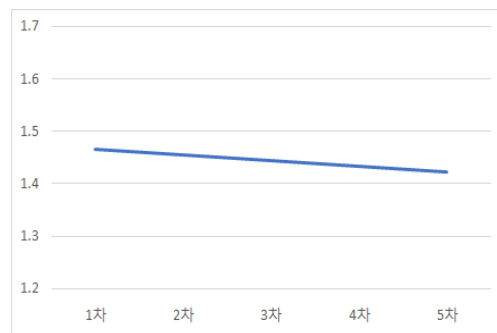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

일차함수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평균이 각각 2.555와 $-.033$ 으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다는 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형태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변화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하였다. 평균은 1.466과 $-.011$ 로 부모에 비하여 그 값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그림 2]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분산은 유의하였으므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 투입이 가능하였다.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변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평균 2.555 ***	(.019)
		분산 .274 ***	(.019)
	일차변화율	평균 -.033 ***	(.005)
		분산 .009 ***	(.002)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평균 1.466 ***	(.009)
		분산 .042 ***	(.005)
	일차변화율	평균 -.011 ***	(.003)
		분산 .001 *	(.001)

* $p < .05$, ** $p < .01$, *** $p < .001$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은 <표 4>와 같다.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의 감소폭이 컸다.

표 4.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

변수	공분산	(표준오차)	상관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006	(.004)	-0.122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004 **	(.001)	-0.496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 분석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가장 낮았고, TLI와 CFI 값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로 일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일차함수모형의 RMSEA, TLI, CFI 또한 적합도 지수 분석 기준을 만족하였고(Hu & Bentler, 1999; Browne & Cudeck, 1993), 변수 간 관계 분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표 5. 자아존중감의 무조건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인명	모형	$\chi^2(df)$	RMSEA	TLI	CFI
부모의 자아존중감	무성장모형	102.695(13) ***	.076	.964	.953
	일차함수모형	29.770(10) ***	.041	.990	.990
	이차함수모형	10.924(6)	.026	.997	.996
자녀의 자아존중감	무성장모형	251.589(13) ***	.124	.862	.821
	일차함수모형	48.691(10) ***	.057	.971	.971
	이차함수모형	10.071(6)	.024	.997	.995

* $p < .05$, ** $p < .01$, *** $p < .001$

최종적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모형의 변화 형태 그래프는 각각 [그림 3],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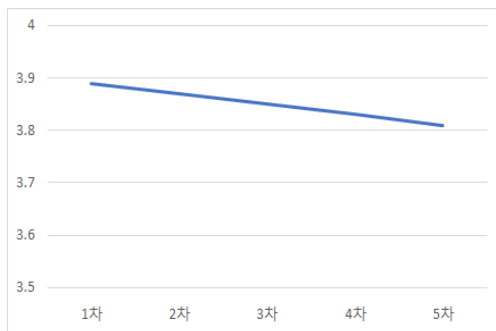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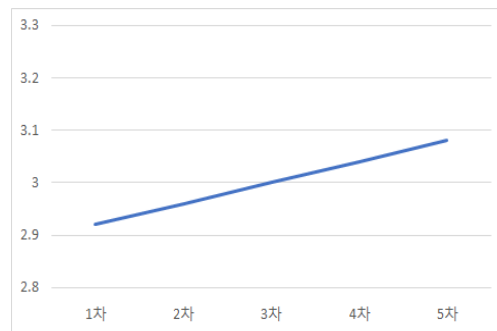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 형태

일차함수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의 경우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평균이 각각 3.890과 -.020으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자녀의 경우 초기치 평균이 2.920으로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변화율의 평균은 .040으로 [그림 4]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교사와 친구 등 적절한 사회적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표 6. 자아존중감의 초기치, 일차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변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평균 3.890 ***	(.014)
		분산 .152 ***	(.010)
	일차변화율	평균 -.020 ***	(.004)
		분산 .005 ***	(.001)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	평균 2.920 ***	(.012)
		분산 .098 ***	(.008)
	일차변화율	평균 .040 ***	(.004)
		분산 .006 ***	(.001)

* $p<.05$, ** $p<.01$, *** $p<.001$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은 〈표 7〉과 같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았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컸다. 반면 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증가의 폭이 적었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Bray, Adams, Getz & McQueen, 2003),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표 7. 일차함수모형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공분산 및 상관

변수	공분산	(표준오차)	상관
부모의 자아존중감	-.010 ***	(.002)	-.353
자녀의 자아존중감	-.009 ***	(.002)	-.372

* $p<.05$, ** $p<.01$, *** $p<.001$

3. 연구 모형 분석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일차함수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나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경로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최종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적합도는 RMSEA가 .035, TLI가 .925, CFI가 .933으로 적합하였다(Browne & Cudeck, 1993).

표 8. 연구 모형의 적합도

$\chi^2(df)$	RMSEA	TLI	CFI
2067.457(831) ***	.035	.925	.93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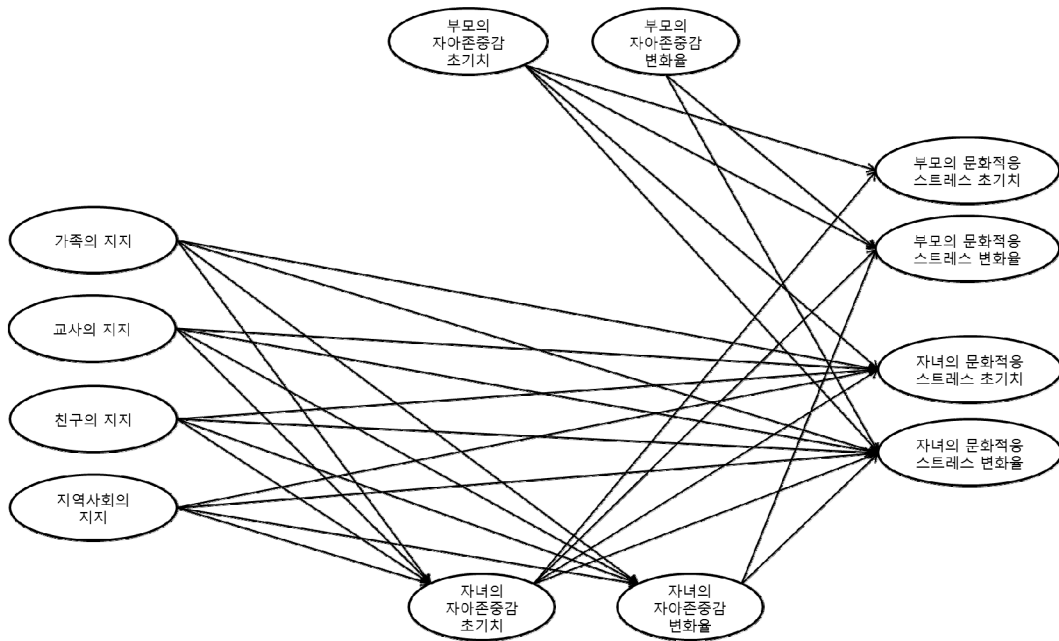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모형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 분석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에서는 자신에 대한 효과를 행위자 효과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상대자 효과라고 하는데(Cook & Kenny, 2005), 이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해석했다. 부모의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는 <표 9>와 같으며, 자녀의 효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의 행위자 효과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에서의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로의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박용순 외, 2012; 권복순, 200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또, 부모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에서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의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이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이 낮아짐을 뜻한다. 즉, 자아존중감의 감소폭이 작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부모의 상대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는 음수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박애선, 2013; 김상용, 2009). 즉,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Bray et al., 2003),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폭이 작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해석될 수 없다.

표 9.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경로의 모수 추정치 (부모)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516 ***	(.066)	-.388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38	(.021)	-.156
부모의 자아존중감 S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966 ***	(.185)	-.760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102 ***	(.027)	-.193
부모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19 *	(.009)	.179
부모의 자아존중감 S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7	(.054)	.01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자녀의 행위자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이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빠르게 증가하는 자녀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빨리 감소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이수연, 2009),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들의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녀의 상대자 효과에서는 자아존중감 일차변화율이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빠르게 상승할수록 부모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앞선 부모의 상대자 효과 분석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녀 또한 부모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경로의 모수 추정치 (자녀)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90	(.099)	-.146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51	(.040)	.419
자녀의 자아존중감 S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395 ***	(.061)	-.816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24	(.065)	.015
자녀의 자아존중감 I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18	(.022)	-.063
자녀의 자아존중감 S →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164 *	(.080)	-.146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이어서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별 경로에 대한 모수 추정치 분석 결과는 [그림 6] 및 <표 11>과 같다. [그림 6]에는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지역사회 지지는 모두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wang & Park, 2010; Major & O'Brien, 2005; Hong, 2005). 자아존중감의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에서는 교사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만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앞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증가폭이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Bray et al., 2003), 교사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할 수 있는 범위가 낮아 증가폭이 작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일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친구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친구의 지지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녀가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낮았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안녕을 도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Hyun & Kim, 2012; Lakey & Orehek, 2011). 특히 교사와 친구의 지지가 유의하였다는 사실은 학교에서의 지지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주류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조력자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Choi,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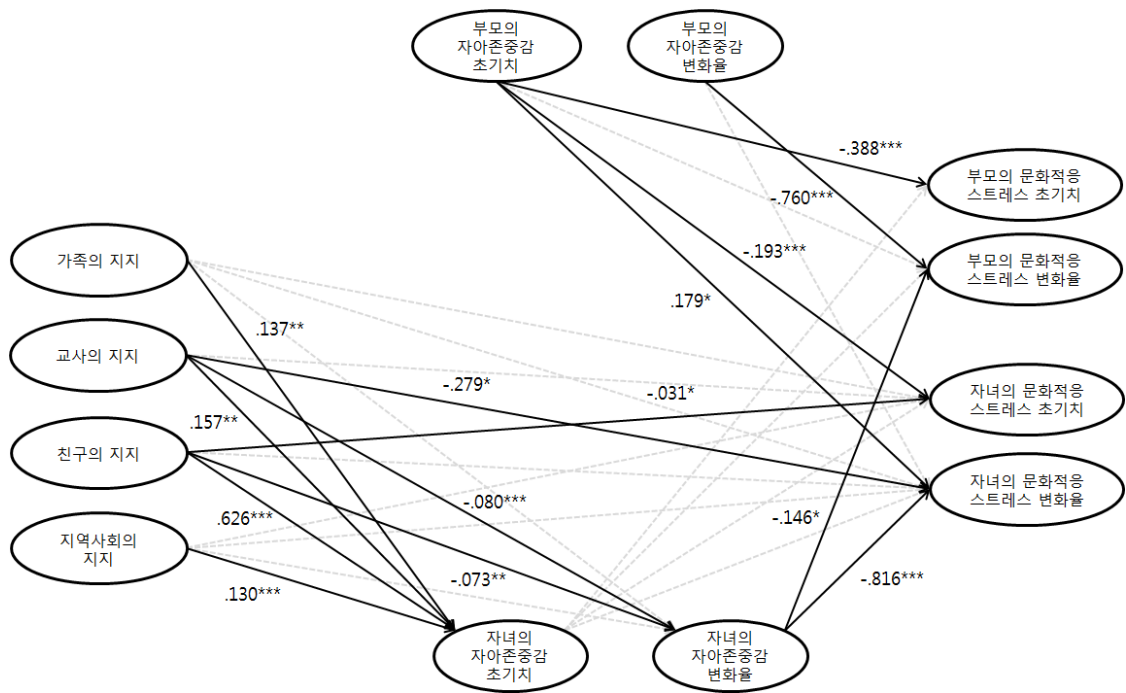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결과

표 11.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가족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I	.092 **	.030	.137
가족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S	-.012	.010	-.073
가족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13	.025	-.031
가족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2	.010	.025
교사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I	.104 **	.035	.157
교사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S	-.013 ***	.012	-.080
교사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43	.029	.106
교사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2 *	.011	-.279
친구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I	.434 ***	.052	.626
친구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S	-.069 ***	.016	-.073
친구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14 *	.061	-.031
친구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4	.025	-.278
지역사회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I	.086 ***	.030	.130
지역사회의 지지 → 자녀의 자아존중감 S	-.017	.010	-.104
지역사회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14	.027	.034
지역사회의 지지 →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11	.011	-.135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계수의 유의성은 BC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추정 계수는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t검정 결과로 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한 신뢰구간을 가지고 추정 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는 표집 횟수의 한계를 보완한 BC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Efron & Tibshirani, 1994).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친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만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C 95% 신뢰구간이 (.014, .044)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친구의 지지에서의 자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친구의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차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를 완전매개한다.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는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류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조력자가 필요함을 시사하며(Choi, 2001),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표 12.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BC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8	-.033	.008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9	-.038	.008
친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39	-.128	.045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I	-.008	-.034	.006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1	.015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1	.016
친구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2	-.010	.065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I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4	-.001	.016
가족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3	.014
교사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5	-.004	.015
또래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27 ***	.014	.043
지역사회의 지지 → 자아존중감 S → 문화적응 스트레스 S	.007	-.001	.016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1차년도(2011년)부터 5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종단적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가 인식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Ying, 2005; Ward et al., 1998).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는 부모의 경우 초기치는 자녀에 비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자녀의 경우 초기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었다. 행위자 효과 측면에서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아졌고 자아존중감의 감소폭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자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상대자 효과 측면에서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박애선, 2013; 김상용, 2010), 자녀의 정서 상태를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심리적 상태 또한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 친구, 교사, 지역사회의 지지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변화율로 향하는 경로는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만 유의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있어 주류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도움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의 일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의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서로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가 인식한 사회적지지는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친구, 지역사회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학교 체계와 사회의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친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경로가 완전매개됨을 고려하여, 친구의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자녀에 국한된다. 이는 패널 자료 상 사회적지지에 대한 부모의 응답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패널 자료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에서 측정된 문항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측정한 문항을 이용한다면,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 형태를 일차함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간명성을 도모하고, 일차함수모형 또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차함수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게 나타난 경우도 존재하였으므로 추후 초기치, 일차변화율 이외에 이차변화율을 포함한 관계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여, 변수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주요한 사회적지지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개입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2015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상용. (2009).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웰빙 연구: 가족응집력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9, 21-43.
-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와 결혼의 질의 관계. **가족과 문화**, 22, 97-127.

- 박애선. (2013).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41, 143-165.
-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6(2): 88-110.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 (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청소년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99-122.
- 안준희, 조정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137-176.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 45-62.
- 이지영, 이주연.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3, 19-27.
- 이혜경, 전해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성진, 김진숙. (201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77-102.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지민. (2015).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3), 97-115.
- 정혜경, 안옥희. (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7(4), 483-493.
- 최효식.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교급,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95-217.
- 행정자치부. (2013).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서울: 행정자치부.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유숙경. (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Adams, D. M., Overholser, J. C., & Lehnert, K. L. (1994).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4), 498-50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 277.
- Baldwin, S. A., &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01-11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ray, J. H., Adams, G. J., Getz, J. G., & McQueen, A. (2003).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53-564.
- Brown, J. D., & T. A. Mankowski.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21-43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54, 136-162.
- Choi, T. I. (2001).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eihl, L. M., Vicary, J. R., & Deike, R. C. (1997).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esteem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and 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mong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4), 393-411.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13).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London: Routledge Academic.
- Efron, B., & Tibshirani, R. J. (1994).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London: CRC Press.
- Galambos, N. L., Barker, E. T., & Krahn, H. J. (2006). Depression, self-esteem, and anger in emerging adulthood: seven-year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50.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Vol. 7).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Greene, M. L., & Way, N. (2005). Self-esteem trajectori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51-178.

- Hong, J. E.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express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ed on co-e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Hovey, J. D., & Magaña, C. G. (2002). Exploring the mental health of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in the Midwest: psychosoci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gges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5), 493-51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wang, S. D., & Park, E. H. (2010).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4), 123-145.
- Hyun, K. J., & Kim, Y. S. (2012).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4), 653-677.
- Jaquish, G. A., & Ripple, R. E. (1981). Cognitive creative abilities and self-esteem across the adult life-span. *Human Development*, 24(2), 110-119.
- Kenny, D. A., & Cook, W.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4), 433-448.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k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2.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Nam, Y. J., & Park, T. Y. (2009). Impact on juvenile's school adaptation by family strength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by self-esteem. *Child Welfare Society of Korea*, 16(4), 47-71.
- Orth, U., Trzesniewski, K. H., & Robins, R. W.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reacher, K. J., Wichman, A. L., Maccallum, R. C., & Briggs, N. E. (2008).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art, J. F., & Smart, D. W. (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4), 390-396.
- Tartakovsky, E.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Ward, C., Okura, Y., Kennedy, A., & Kojima, T. (1998). The U-curve on trial: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3), 277–291.
- Way, N., & Robinson, M. G. (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mily, friends, and school experiences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ethnic minority, low-SE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24–346.
-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Ying, Y. W.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59–71.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승희* · 박소영**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과 개인차를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검증 한 후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시점별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초4 패널 데이터 1차년도(초4)부터 5차년도(중2)까지인 5년 동안의 자료 1,319명(남학생 653명, 여학생 666명)을 대상으로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변화패턴 추정 및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시간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기울기가 다른 분할함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고수준 전환집단’, ‘중수준 감소집단’, ‘저수준 향상집단’ 3개의 이질적인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모두 계층을 구분하는 예측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I. 서론

현재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농촌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등의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증하여 2020년에는 다문화가정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교육부, 2015), 이러한 다문화가정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자녀 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여성가족부(2016)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만 9세~24세)는 8만 2476명으로, 2012년에 6만 6536명 보다 24%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닌 일반 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12), 2050년 쯤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2%, 10%가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는 학교 또한 빠르게 다문화 체제로 변화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게 될 것이며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천호성, 박계숙, 201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한국을 포함한 72개국의 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PISA 2015 STUDENTS' WELL-BEING)에 따르면 한국의 학업적 성취동기(80%)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삶에 만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한국 학생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만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OECD 회원국들의 평균(7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6.36점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7.31)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전체 회원국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터키가 유일했다(연합뉴스, 2017). 이처럼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되는 상황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환경적 어려움과 함께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Feldman & Elliott, 1990; Holmberk, Colder, Shapera, Westhoven, Kenealy, & Updegrove, 2000;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재인용)로 인한 혼란의 상황에서 가중된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삶의 만족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안성정 외, 2013). 더욱이 여러 실태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방치와 학대의 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이혼율도 높은 편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고 가정형편 또한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고 보고된 만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최성보, 2011).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 안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애착형성, 학업성취 등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천희영, 이미란, 2015). 특히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yons, Huebner, Hills, & Hom,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천희영, 이미란, 2015,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건강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천희영, 이미란, 2015).

또한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시기에는 안정성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Steger & Kashdan, 2007; 김윤희, 김현숙, 2016, 재인용).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김윤희, 김현숙, 2016). 즉 초등학교 4, 5학년보다 중학교 1, 3학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선, 손은령, 2015). 더구나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는 과정으로 전혀 새로운 학교 환경과 학업 난이도의 수직 상승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다(손수경, 이현정, 2016).

삶의 만족도는 시간, 연령뿐 아니라 개인, 환경요인에 따라서도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Fujita & Diener, 2005; 김윤희, 김현숙, 2016, 재인용)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개인요인(김경민, 2010; 김선아, 2012; 김연화, 2010; 김영민, 임영식, 2013;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김지혜, 2012;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송정화, 2011;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전혜진, 유미숙, 2015; 안선정 외, 2013; Diener & Diener, 1995; Lucas, Diener, & Suh, 1996), 가정요인(안선정 외, 2013; 이현철, 임지영, 2012; 한성희, 2015), 학교요인(안선정 외, 2013; 이현철, 임지영, 2012)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결정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내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것(Fujita & Diener, 2005; 이현웅, 곽윤정, 2011, 재인용)이므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비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비다문화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1차(초4)~5차(중2)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5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가 어떠한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초·중등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발달 양상에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고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초·중등학생들의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초·중생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있어 개인차는 어떠한가?

셋째, 삶의 만족도의 변화 패턴에 따라 몇 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삶의 만족도의 변화패턴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변인들로 예측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적인 상황을 비교하게 되므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 및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Day & Jankey, 1996; 천희영, 이미란, 2015, 재인용).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며 크게 정서적 영역, 인지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최성보 외, 2011; 재인용), 정서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는 행복과 같은 감정적 상태로 즐거움 혹은 불쾌한 상반된 감정으로 구분된다. 즐거운 감정 요소가 높고 불쾌한 감정 요소가 낮을수록 행복도, 정서적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와 달리 인지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는 행복의 의미와는 다르며 단일한 차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감과 행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삶에 만족은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거나 행복은 하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현송, 2000).

삶의 만족도는 연구 관점에 따라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행복, 적응, 만족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었다(양옥경, 1992). 이런 삶의 만족도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었지만 공통된 부분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 평가가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다(이현웅, 곽윤정, 201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소영, 윤기봉, 2016; 신미 외, 2010; 최유선, 손은령, 2015).

2.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정요인(가족의지지, 부모에 대한 생각), 학교요인(교사관계, 교구관계)을 포함하였다.

1) 개인요인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 느끼는 정도로(Rosenberg, 1986; 천희영, 이미란, 2015, 재인용) 사회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천희영, 이미란, 2015).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혜, 2012; 신미 외, 2010; 전해진, 유미숙, 2015; 안선정 외, 2013; Diener & Diener, 1995; Lucas, Diener, & Suh, 1996).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영민, 임영식, 2013; 김의철 외, 2005; 박영신 외, 2002). 자아탄력성은 내적, 외적인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적응 능력으로(조은희, 2007; Tellegen, 1985),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반항 등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자원이 되며 긍정적인 발달을 이끌어 낸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자아탄력성은 정

신적인 저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에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김영민, 임영식, 2013).

삶의 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 긍정적인 조절 전략을 통해 높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송정화, 2011),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각 형성을 통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아, 2012; 김연화, 2010),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인 성향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0).

이러한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종단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인 반응과 적응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통찰을 하게 됨으로써 높은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소연, 윤기봉, 2016).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 가정요인

가족의 지지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족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보호를 함으로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1997). 가족지지의 경우 환자,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처한 경우 가족의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을 넘어 가족지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부모가 주는 애정, 관심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한 영향력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정서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조형성, 윤지영, 2015). 가족요인 중 부모에 대한 부분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Holder & Coleman, 2009). 청소년은 부모가 수용적이고 허용적이며 민주적이라고 느꼈을 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며(한유선, 1996; Cheng & Furnham,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석말숙, 구용근, 2015).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가 자신을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라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으며(이현철, 임지영, 2012; 한성희, 2015), 부모와의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정 외, 2013).

비다문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는 대체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다(김소영, 윤기봉, 2016; 김윤희, 김현숙, 2016; 신미 외, 2010)

고 보고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초·중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학교요인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와 교우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양적으로 증가하여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박병선, 배성우, 2012; 천희영, 송영주, 이미란, 2014; Nickerson, & Nagle, 2004). 교우관계가 완만하고 교우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고영남, 2008;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 교우와의 높은 지지와 도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재경, 조혜정, 2012). 이는 국외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이현철, 임지영, 2012)도 있었으나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안선정 외, 2013)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교사관계가 교우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철, 임지영,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청소년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종단조사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는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인, 1차년도 시점에서부터 2015년 중학교 2학년이 된 5차년도 시점까지의 5년간의 종단 자료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첫 시점인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1,619명이었으나, 각 요인별로 결측치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대상은 전체 사례의 약 80%에 해당

하는 1,319명(남학생 653명, 여학생 666명)이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1차에서 5차년도까지 각 3문항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삶의 만족도의 1차~5차까지 시점별로 살펴본 신뢰도(Cronbach's α)는 .807, .857, .853, .862, .864를 보였다.

2)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정요인(가족의 지지, 부모에 대한 생각), 학교요인(교사관계, 교우관계)을 사용하였다.

개인요인 중 성별은 여자=0, 남자= 1로 더미 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4문항, 자아탄력성은 총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요인 중 가족의 지지는 7문항이었으나 전체와 상관이 낮은 2문항(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함,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음)을 제외하고 총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 문항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생각의 경우에는 1~5차까지 공통으로 조사된 8문항(5차년도에 1문항이 추가되었으나 1~4차년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이 있어 제외함) 중 전체와 상관이 낮은 1문항(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제외하고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생각도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이며, <표 1>에 제시된 4,5,6,7번 문항의 경우에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학교요인 중 교사관계는 6문항 중 전체와 상관이 낮은 1문항(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함)을 제외하고 총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우관계는 6문항 중 전체와 상관이 낮은 2문항(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함, 나를 잘 이해해 줌)을 제외하고 총 5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에 대한 전체 문항과 신뢰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도구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종속 변인	삶의 만족도	1. 사는게 즐거움					
		2.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	.807	.857	.853	.862	.864
		3.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성별	여자=0, 남자=1			-		
	자아 존중감	1. 내 자신이 자랑스러움					
		2.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함	.747	.794	.811	.824	.813
		3. 학급임원이 될 자격이 있음					
		4.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					
		1. 내 친구에게 너그러움					
		2.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 고 그것을 잘 이겨냄					
개인 요인		3.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 는 것을 좋아함					
		4.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임					
		5.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김					
	자아탄 력성	6.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임					
		7.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함	.889	.906	.902	.913	.909
		8.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음					
		9.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함					
		10.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함					
		11.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함					
		12.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음					
		13. 다른사람에게 화가나도 금방 괜찮아짐					
		14.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음					
	가족의 지지	1.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줌					
		2.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줌					
		3.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 어 가짐	.896	.927	.932	.939	.933
		4.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 과 용기를 줌					
		5.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 줌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정 요인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심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심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심					
	4.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칭찬/훈내 시는 일이 없음	.759	.789	.798	.791	.808
	5.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이 없음					
	6.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음					
	7.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 지 않음					
학교 요인	1. 나를 잘 도와주심					
	2. 나를 좋아하심					
	3. 나에게 관심이 많으심	.931	.946	.960	.955	.962
	4.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해주심					
	5.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					
	1. 나를 좋아함					
	2. 내 생각/말을 잘 들어줌					
교우 관계	3.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위로/격려 해줌	.937	.946	.952	.954	.953
	4. 서로 잘 도와줌					
	5. 나에게 관심이 많음					

3. 연구방법

1)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성장모형 중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변화모형, 분할함수모형, 자유모수모형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모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성장모형 함수에 질적으로 다른 기간을 구분하는 분할함수를 적용하여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이다(홍세희, 노언경, 2010; Li, Duncan, Duncan & Hops, 2001).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사건이나 처치로 인해 관심변인에 변화가 생겨 이전 기간과 다른 변화궤적을 갖는 경우 분석에 적합하다(김진호, 홍세희, 2012).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응답한 자료로,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할선형함수는 일반선형성장모형의 기본가정과 계수해석이 동일하지만,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시점에서 수준 또는 변화율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초등학교 시점과 중학교 시점의 변화율을 달리한 성장함수를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므로 추가적으로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이를 위하여 Mplus 7.4(Muthén & Muthén, 1998–201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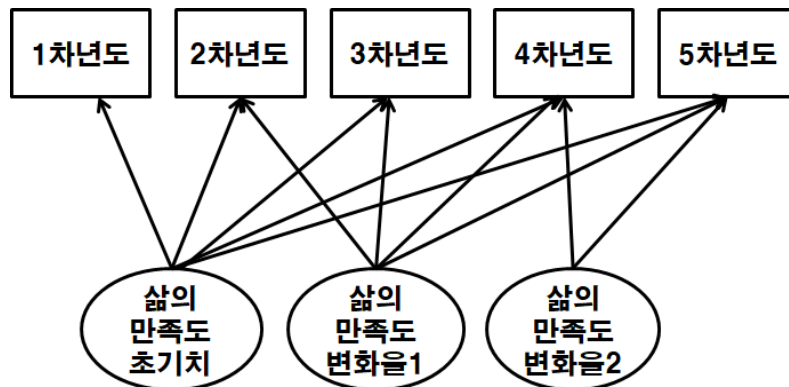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

2)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에 따른 잠재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적합도 지수, Entropy지수, 그리고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여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간명한 모형으로 간주하고, Entropy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계층의 분류가 정확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BLRT는 대립가설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확률을 제공한다. $p < .05$ 일 때 대립가설을 지지한다(Muthén & Muthén, 2000). 이를 위하여 Mplus 7.4(Muthén & Muthén, 1998–201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삶의 만족도의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예측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예측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22.0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 확인과 잠재계층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개인, 가정, 학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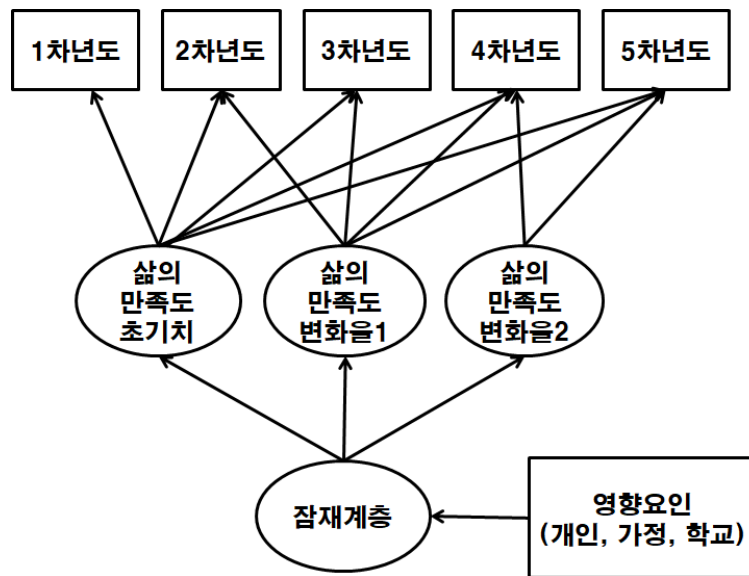


그림 2.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변화 양상과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요인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5시점과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인 개인요인인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정요인인 가족의 지지와 부모에 대한 생각, 학교 요인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1차년도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요인들의 공차(Tolerance)가 .417~.664, 분산팽창계수(VIF)가 1.506~2.604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의 값도 모두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3, 첨도<10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따라서 주요 변수들의 분포는 정상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2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 또한 1차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2.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삶의만족1	삶의만족2	삶의만족3	삶의만족4	삶의만족5	자아존중1	자아탄력1	가족지지1	부모생각1	교사관계1	교우관계1
삶의만족2	.393***										
삶의만족3	.317***	.400***									
삶의만족4	.275***	.369***	.450***								
삶의만족5	.255***	.306***	.387***	.480***							
자아존중1	.484***	.255***	.239***	.182***	.191***						
자아탄력1	.559***	.274***	.210***	.170***	.199***	.551***					
가족지지1	.416***	.251***	.207***	.146***	.152***	.415***	.451***				
부모생각1	.334***	.156***	.134***	.085***	.084***	.331***	.300***	.417***			
교사관계1	.377***	.260***	.192***	.166***	.184***	.384***	.436***	.368***	.296***		
교우관계1	.461***	.270***	.222***	.179***	.210***	.456***	.553***	.382***	.287***	.489***	1
평균	3.239	3.247	3.306	3.223	3.147	3.137	2.903	3.187	3.253	3.668	3.810
표준편차	0.589	0.608	0.575	0.595	0.621	0.550	0.474	0.576	0.503	0.890	0.896
왜도	-.558	-.572	-.453	-.367	-.323	-.375	.003	-.416	-.279	-.294	-.541
첨도	.458	.564	.134	.102	.100	.210	.797	.327	-.654	-.243	-.067

*** $p < .001$

2. 삶의 만족도의 변화 분석 모형 비교와 검토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적합한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여 탐색해보았다. 고려한 모형은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 자유모수모형이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기준시점 선정이 중요한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5시점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계를 기준점으로 정하였다. 5가지 성장모형에 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형은 분할함수 성장모형($\chi^2=4.067$, $df=6$)으로 CFI와 TLI가 1.000이고 RMSEA는 .000이었다.

표 3. 삶의 만족도 변화의 무조건모형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176.704***	13	.874	.903	.098(.085~.111)
선형변화모형	76.075***	10	.949	.949	.071(.056~.086)
이차변화모형	13.018*	6	.995	.991	.030(.005~.052)
분할함수성장모형	4.067	6	1.000	1.000	.000(.000~.028)
자유모수성장모형	61.660***	7	.958	.940	.077(.060~.095)

* $p < .05$, *** $p < .001$

선택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통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은 <표 4>와 같다. 초기치, 즉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삶의 만족도는 3.232였으며 1기 선형변화율은 .034, 중학교 시기의 2기 변화율을 -.0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하락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치와 1차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시기에 있어 삶의 만족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치와 2기 변화율, 1기 변화율과 2기 변화율의 공분산은 유의하지 않아 이들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두개의 변화율 모두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삶의 만족도 변화의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초기치	3.232***	.016	.173***	.018
1기변화율	.034***	.009	.032***	.006
2기변화율	-.076***	.009	.027***	.007
초기치-1기변화율의 공분산	-.003**	.010		
초기치-2기변화율공분산	-.007	.005	-	
1기-2기변화율공분산	-.005	.004		

** $p < .01$, *** $p < .001$

3.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구분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궤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만족도에 존재하는 잠재계층 수를 살펴보기 위해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 sBIC값은 3계층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이다가 4계층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Entropy값은 5계층이 가장 높았으며, BLRT($p < .001$)값은 모든 계층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계층이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도 각 계층별 5% 이상 분포되어 있고(Jung & Wickrama, 2008), 해석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3개 집단이 가장 잘 구분되어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Log Likelihood=-7055.903, AIC=14143.806, BIC=14232.481, Entropy=.837, BLRT($p < .001$))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잠재계층 모형의 구분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 사후확률을 분석하였으며, 3개의 잠재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범위는 .866~.908로 1.0에 가까운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냈다.

표 5.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수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log-L	-5429.774	-5283.187	-5283.187	-.5220.508
df	12	16	20	24
AIC	10883.549	10598.374	10606.374	10489.016
BIC	10945.764	10681.328	10710.067	10613.447
sBIC	10907.646	10630.504	10646.536	10537.210
Entropy	.720	.789	.833	.855
BLRT(p-value)	<.001	<.001	<.001	<.001
1계층(%)	703(53.3)	79(6.0)	0	90(4.5)
2계층(%)	616(46.7)	523(40.0)	717(54.0)	716(54.3)
3계층(%)		717(54.0)	523(40.0)	7(0.5)
4계층(%)			79(6.0)	516(39.1)
5계층(%)				20(1.5)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3개의 잠재계층들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계층 1은 79명이며 전체의 6%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계층은 초등학교 4학년 초기치의 값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5년 동안에 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저수준 향상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523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장 높은 값을 5년 동안 유지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값이 하향세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 계층을 ‘고수준 전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54%인 717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수를 가지며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간 정도의 값을 보였는데 5년 동안 계속 중간 값을 유지했다. 이 계층은 또한 초등학교 시점에서 중학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계층을 ‘중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6. 계층별 분할함수 추정 결과

구분	계층 1 (저수준 향상집단)		계층 2 (고수준 전환집단)		계층 3 (중수준 감소집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초기치	2.304***	.108	3.507***	.025	3.137***	.029
1기변화율	.045	.091	.115***	.017	-.025+	.015
2기변화율	.023	.070	-.072**	.023	-.091***	.016

+ $p < .10$,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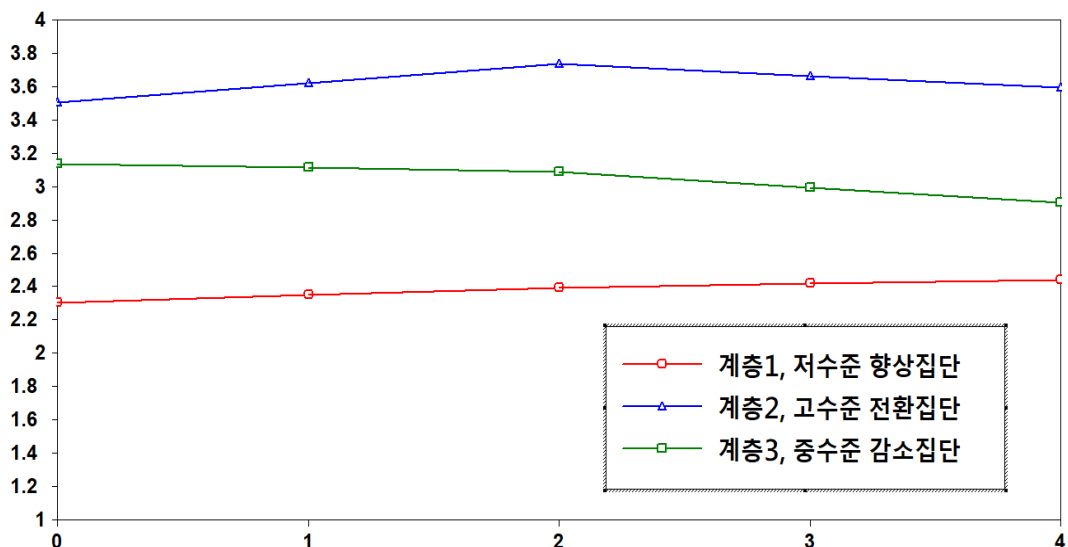


그림 7. 삶의 만족도의 발달적 변화 양상

4.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요인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의 발달 양상에 따라 결정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7>에 제시된 추정치는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교집단과 비교한 값으로 준거집단에 비해 각각의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각 시점별로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남학생은 여학생 비해 저수준 향상집단 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56% 정도 감소하였고($OR=.441$),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44% 감소했다($OR=.557$).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6배 증가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저수준 향상 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이 2.4배 높았고,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은 1.4배 증가했다. 가정 요인인 가족의 지지를 많이 느끼는 경우 저수준 향상 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8배 높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생각은 계층을 구분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학교 요인인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6배 높았고,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2배 증가했다. 교우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저수준 향상 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2.1배 높았고, 저수준 향상 집단에 비해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7배 높았으며,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3배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72% 감소했고($OR=.278$), 중수준 감소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50%정도 감소했다($OR=.520$).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1배 정도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저수준 향상집단에 비해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2.4배 높았고,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3배 높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높았다. 가족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은 2.7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은 약 3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4배 높았다. 부모가 자신에 대해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중수준 감소집단 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7배 높았다. 학교 요인 중 교사관계는 계층을 구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교우관계의 경우 교우와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저수준 향상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9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7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4배 높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경우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30%정도 감소했고($OR=.69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3.4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저수준 향상 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 될 가능성이 5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포함 될 가능성은 3.4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2.3배 높았다. 가족이 많은 지지를 해준다고 느끼는 경우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3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2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경우 저수준 향상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57% 감소하는 예외적인 특성을 보였다($OR=.432$). 학교 요인인 교사관계는 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교우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2.3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7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5배 높게 나타났다.

4차년도 시점인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경우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분류 될 가능성은 43%정도 감소했다($OR=.573$).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저수준 향상집단에 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4.9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3배 정도 높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 될 확률은 5.2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포함 될 확률은 3.7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2.9배 정도 증가하였다. 가족이 긍정적으로 지지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저수준 향상집단보다는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1.9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은 1.6배 정도 더 커졌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배 높았으며, 교우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 될 가능성이 2.3배, 중수준 감소집단에 포함 될 가능성은 1.7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포함 될 확률은 1.6배 증가했다.

마지막 5차년도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40%정도 감소했으며($OR=.61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4.5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저수준 향상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무려 18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중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도 5배나 높았으며,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3.6배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는 중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증가했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저수준 향상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은 2.6배, 중수준 감소집단보다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확률은 1.6배 커졌다. 그리고 교우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중수준 감소집단보다는 고수준 전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6배 증가하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는 계층을 구분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7.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영향요인(준거집단 VS 비교집단)

변인	초등학교 4(1차년도)			초등학교 5(2차년도)			초등학교 6(3차년도)			중학교 1(4차년도)			중학교 2(5차년도)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계층1 VS 계층2	성별(남)	-.819**	.299	.441	-1.280**	.373	.278	.340	.715	-.538	.344	.584	-.328	.317	.720
	자아존중감	.470	.321	1.600	2.365***	.453	10.645	.397	4.989	1.584***	.421	4.875	1.500***	.397	4.480
	자아탄력성	.879*	.429	2.408	.499	.519	1.648	.535	5.223	1.649**	.508	5.202	2.895***	.560	18.089
	가족의지지	.571*	.278	1.770	.979**	.341	2.661	.327	3.135	.470	.346	1.600	.231	.345	1.260
	부모에 대한생각	.520	.329	1.683	.054	.410	1.055	.412	.432	.507	.414	1.661	.945*	.365	2.573
	교사관계	.483*	.193	1.622	.462	.237	1.587	.240	1.316	.289	.242	1.335	.012	.229	1.012
계층3 VS 계층2	교우관계	.741***	.185	2.097	.615*	.245	1.851	.258	2.286	.841**	.268	2.319	.255	.247	1.290
	성별(남)	-.326	.260	.722	-.325	.271	.722	.264	.910	-.190	.262	.827	.026	.255	1.026
	자아존중감	.065	.266	1.067	1.220***	.311	3.388	.328	1.964	.241	.313	1.272	.315	.324	1.371
	자아탄력성	.474	.355	1.607	.277	.393	1.319	.418	3.438	1.295**	.430	3.651	1.611***	.413	5.008
	가족의지지	.400	.245	1.492	1.073***	.257	2.924	.267	1.983	.625*	.290	1.867	.257	.282	1.293
	부모에 대한생각	.312	.284	1.366	-.442	.305	.643	.309	.602	-.078	.344	.925	.319	.307	1.375
계층3 VS 계층2	교사관계	.258	.158	1.294	-.097	.189	.907	.177	1.194	.160	.190	1.174	.157	.190	1.171
	교우관계	.503**	.176	1.653	.548**	.208	1.730	.196	1.693	.524**	.193	1.688	-.035	.211	.965
	성별(남)	-.584***	.125	.557	-.654***	.132	.520	.137	.696	-.556***	.143	.573	-.495**	.139	.610
	자아존중감	.508**	.146	1.662	.873***	.156	2.394	.166	3.019	1.092***	.167	2.979	1.081***	.169	2.947
	자아탄력성	.355*	.178	1.426	.420*	.193	1.522	.211	2.262	1.056***	.206	2.876	1.284***	.211	3.610
	가족의지지	.184	.134	1.202	.360**	.133	1.433	.153	2.212	.448**	.156	1.565	.427**	.155	1.532
계층2	부모에 대한생각	.081	.140	1.084	.509***	.137	1.664	.161	.942	.526**	.172	1.692	.496**	.172	1.641
	교사관계	.211*	.085	1.235	.086	.090	1.090	.007	1.007	.183*	.088	1.201	-.157	.102	.855
	교우관계	.272**	.091	1.313	.334**	.108	1.397	.376**	1.457	.484***	.125	1.623	.470***	.128	1.599

* $p < .05$, ** $p < .01$, *** $p < .001$ 계층1=저수준 향상집단 계층2=고수준 전환집단 계층3=중수준 감소집단

V. 결론 및 논의

2016년의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7만 4천명, 중학생은 1만 5천명으로, 2013년 전체학생의 0.86%였던 수치에서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중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11만 6천명에 달해 향후 학령기 다문화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2017). 이렇듯 다문화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인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과 교육적 함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삶의 만족도 발달 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가정, 학교 차원에서 각각도로 탐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삶의 만족도는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변화 패턴을 보였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윤희, 김현숙, 2016; 손수경, 이현정, 2016; 최유선, 손은령, 2015)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두개의 변화율 모두에서 분산이 유의한 값을 보여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5년 동안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3개의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기치의 값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5년 동안에 걸쳐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는 ‘저수준 향상집단’과,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값이 하향세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장 높은 값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고수준 전환집단’, 초학교 4학년 때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이며 5년 동안 계속 중간 값을 유지하지만 초등학교 시점에서 중학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중수준 감소집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따라 도출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요인들을 어느 시점, 어떤 요인으로 예측되는지 5시점에 걸쳐 종단적으로 살펴본 결과 개인, 가정, 학교 요인 모두 계층을 구분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 가정 및 학교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들(김경민, 2010; 김선아, 2012; 김연화, 2010; 김영민, 임영식, 2013; 김의철 외, 2005; 김지혜, 2012; 박영신 외,

2002; 송정화, 2011; 신미 외, 2010; 안선정 외, 2013; 전해진, 유미숙, 2015; 안선정 외, 2013; 한성희, 2015; Lucas, Diener, & Suh, 1996)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초·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와 비교해서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중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부정적 환경요소를 제거하거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터득하기 등 다문화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령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이창호, 최승희, 2008),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초·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 내면적 충족은 결국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다문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적·금전적인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발달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초·중학생의 정서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향상 캠프 참여,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등과 연계하여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다문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대체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다(김소영, 윤기봉, 2016; 김윤희, 김현숙, 2016; 신미 외, 2010)고 보고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다문화 초·중학생들 중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낮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선적이고 추가적인 도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초·중학생의 가정 자체도 다문화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소통과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족과 부모의 영향이 큰 초등학교 시기에 특히 더욱 중요하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문화적·언어적 장벽이 존재하고 부모가 어린 나이에 한국에 시집온 경우가 많아 부모의 역할이 서투를 수 있는 등 가정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다문화 초·중학생에게 불충족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국가,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활동을 마련하고 다문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이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다문화 초·중학생들에게 교사, 교우와의 관계 형성은 학교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다문화 초·중학생들에게도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고 외형을 비롯한 또래들과의 차이가

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때문에 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을 개인적인 과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교사, 학교 차원에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문화 초·중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학교 외 다문화 센터 등에서 다문화 초·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학교에서 비다문화 초·중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장온정, 2011). 학교는 다문화, 비다문화 초·중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교류와 공감,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교사는 교실 내에서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교에서는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언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한, 예컨대 또래상담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건강한 교우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다문화 초·중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비다문화 학생, 교사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심리, 정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에도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손수경, 이현정, 2016) 학교급에 따른 변화 양상을 한층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 변화 패턴에 따라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기 위해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3계층으로 구분하고 개인, 가정, 학교 요인 중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다문화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한 최초의 종단적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기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연구 대상과 규모가 한정적이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의 다문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첫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11-131.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 시대! 2012년 9월 17일 보도자료를 2017년 07월 23일에 인출.
- 교육부. (2015.).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발표. 2015년 03월 27일 보도자료를 2017년 07월 23일에 인출.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2017년 01월 13일 보도자료를 2017년 07월 23일에 인출.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1), 40-74.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윤희, 김현숙. (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연구**, 17(3), 337-354.
- 김은영. (1997). 간경변증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9(3), 512-530.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감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진호, 홍세희. (2012). 분할합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불안의 변화 추정과 생태학적 영향 요인의 검증. **교육방법연구**, 24(2), 405-42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3-238.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손수경, 이현정. (2016).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합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97-617.
- 송정화. (2011).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옥경. (1992). 정신장애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 131-154.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6. 4. 25일자 보도자료를 2017년 07월 23일에 인출.
- 연합뉴스. (2017.04.20.). 성적·장래 스트레스...韓학생 삶 만족도 세계 최하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0/0200000000AKR20170420074300009.HTML?input=1195m>에서 2017년 7월 27일에 인출.
-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009-34-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 조혜정. (2012).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 이창호, 최승희.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태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87-109.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이현웅, 곽윤정(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이현철, 임지영. (2012).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1(1), 23-44.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초등학교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장온정. (2011). 교사가 인지하는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1), 281-304.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조은희. (2007).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조형성, 윤지영. (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57-187.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 천희영, 송영주, 이미란. (2014).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연구. **아동학회지**, 35(3), 71-92.
- 천희영, 이미란.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 개인, 가정환경, 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9(2), 261-287.
- 최성보, 이현철, 김정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2011(1), 1-19.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책연구원.
-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선. (1996).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노언경. (2010).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을 위한 분할함수 모형화 방법의 제시 및 적용. *교육평가연구*, 23(4), 953-97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Cheng, H., & Furnham, A.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6), 921-942.
- Day, H., & Jankey, S. G. (1996). *Lessons from the literature: Toward a holistic model of quality of life*. pp. 39-50. In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proaches, issues and applications*, edited by R. Renwick & M. Nagler. CA: Sage Publication.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Feldman, S.S., & Elliott, G.R. (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Press.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older, M. D., &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3), 329-349.
- Holmberg, G. N., Colder, C., Shapera, W., Westhoven, V., Kenealy, L., & Updegrave, A. L. (2000). *Working with adolescents: Guides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In P.C. Kendall(Ed.), *Child &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2nd ed., pp.334-385). NY.: Guilford Press.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Li, F., Duncan, T. E., & Hops, H. (2001). Examin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alcohol use using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2), 199-210.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1(3), 616-628.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Hom,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587-598.

- Martin, K., Huebner, E. S., & Valois, R. F. (2008). Does life satisfaction predict adolescent victimization experienc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 705–714.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5).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ickerson, B., & Nagle, R. (2004). “Parent and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223–249.
-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Thousand Oaks, CA: Sage.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teger, M. F., & Kashdan, T. B. (2007). Stability and specificity of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over one yea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2), 161–179.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d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sdale: NJL Erlbaum.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인쇄일 2017년 9월 10일

발행일 2017년 9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이종원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Tel. 044-415-2143 Fax. 044-415-2359